

2018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보고서



2018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보고서

2018. 12.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Contents 목차

- ▼ **경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1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한 경기도 농촌개발사업 사후관리체계 구축 연구]

- ▼ **강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117
[농촌현장포럼 실시지역 및 비실시지역의 비교 분석을 통한 마을만들기사업의 역량강화교육 성과 분석]

- ▼ **충북 농촌활성화지원센터** 185
[농촌 사회적농업을 고려한 귀농귀촌인 농업 정착 지원 방안 연구]

- ▼ **충남 농촌활성화지원센터** 339
[주민주도마을만들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리더교육프로그램 개발]

- ▼ **전북 농촌활성화지원센터** 401
[중간지원조직 실질사례 분석 및 운영매뉴얼 구축에 관한 연구]

- ▼ **전남 농촌활성화지원센터** 495
[전남(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완료마을 사업추진과정 성과분석]

- ▼ **경북 농촌활성화지원센터** 581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사회적 농업 기반 연계를 위한 연구]

- ▼ **경남 농촌활성화지원센터** 637
[농촌체험시설(센터) 활성화를 위한 그린케어(Green Care) 적용 방안]

- ▼ **제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693
[제주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역에 사회적 농업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
 아웃프르권역과 판포권역을 대상으로]

■ 2018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보고서

경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한 경기도 농촌개발사업 사후관리체계 구축 연구]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한
경기도 농촌개발사업 사후관리 체계 구축 연구**

2018. 12

목 차

- I. 개요
 - II. 사후관리 정책 및 연구 동향
 - III. 사후관리 절차와 담당기관별 시행 사항
 - IV. 사후관리 과제별 시행 사항
 - V. 추진체계 및 관리기반 구축
 - VI. 추진 일정
- 첨부 1 / 2 / 3

이 상 문

경기농촌활성화지원센터

목 차

I. 연구 개요	7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7
2. 연구 목적	10
3. 주요 연구 내용	10
4. 연구 수행 방법	12
5. 사후관리의 범위	13
6. 근거 법령 및 상위 지침	14
7. 용어 및 개념 정의	15
II. 사후관리 정책 및 연구 동향	17
1. 농림부의 정책	17
2. 농어촌공사 사업지구 관리	25
3. 경기도의 사후관리 정책 방향	27
4. 경기도 시군의 사후관리: 경기농촌센터와의 협력 동향	29
5. 선행 연구에서의 사후관리 제안 동향	37
6. 본 제안의 지향점	41
III. 사후관리 절차와 담당기관별 시행 사항	42
1. 사후관리 추진 원칙과 절차	42
2. 사업 준비 및 신청 단계	44
3. 사업 선정 단계	44
4. 계획 수립 단계	45
5. 사업 시행 단계	46
6. 준공 검사 단계	46
7. 운영 관리 단계	47

IV. 사후관리 과제별 시행 사항 48

- 1. 경기도 농촌개발사업 사후관리의 과제 48
- 2. 단계별 사후성 검토 49
- 3. 사후관리에서의 주민 책무성 강화 53
- 4. 각급 계획에서의 사후관리 실행력 제고 55
- 5. 부진 예방용 관리 패키지 운영 65
- 6. 부진지구 정상화 패키지 운영 71
- 7. 신규 사업성 평가에서 사후관리 중점 심사 75

V. 추진체계 및 관리기반 구축 76

- 1. 경기도 농촌사업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76
- 2. 경기농촌센터의 부진예방·사후활성화 패키지 지원 76
- 3. 사후관리 제도적 근거(지침) 마련 77
- 4. 사후관리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 89
- 5. 연구추진경과 94

VI. 추진 일정

첨부: 1. 경기도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발표자료 1

(경기도 농촌개발사업 사후관리 체계 및 프로그램 제안)

2. 경기도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발표자료 2

(경기도 농촌개발사업 사후관리 패키지와 프로그램)

3. 농림부 중간보고 발표자료

(경기도 농촌개발사업 사후관리 체계 및 프로그램 연구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 **중복내용삭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한 경기도 농촌개발사업 사후관리 체계 구축 연구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방대한 농촌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일부 부진성 및 비정상 운영 문제 대두
 - 현재 농촌에선 자연부락에서부터 중심지에 이르기까지 정주환경은 물론 경제, 공동체 측면의 발전적 효과를 기대하는 다양한 종류의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음(농촌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 투입)
 - 그러나 사업지구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됐음에도 소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선 공동체나 지역경제에 역효과를 보이는 등 부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흔히 ‘부진지구’로 불리는 사업지구의 경우 주민 간 갈등, 운영주체의 부재, 사업참여 규모나 의지의 미약, 운영비 조달 불확실, 운영인력 부실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불확실 상태에 빠지고, 심할 경우 건립 시설이 휴화·사유화·탈법운영 등 자산 부실화와 비정상 운영 사태를 초래함
- 일선 지자체의 사후관리에 있어 지속성과 체계성 부족
 - 이에 일선 행정에서는 사후 컨설팅, 주민교육, 타 사업 지원,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사후관리에 관한 조직이나 접근 수단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의 재량 판단에 의한 단발성 지원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일부 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에서 사업 이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일회적 사업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임. 자치단체와 중간지원조직 간에 명료화된 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운영이나 정보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시군에 따라 역량강화사업 재원으로 사업종료 마을에 대해 사후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후관리를 놓고 주민과 행정 간에 인식의 간극이 있는 상황임. 현재 마을주민의 입장에서선 지속적인 지원, 특히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행정이 수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일선 행정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싶어도 관련 전문기관이 부재하고 또한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대주민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의 사후관리는 시설물 정보 파악에 치중, 사후 지원의 다양성, 전문성 부족

- 현재 정부 및 농어촌공사에서는 사업지구 대한 모니터링, 관리카드 작성, 부진지구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비 집행이나 공정률, 시설물 운영 상태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그간 전문가나 언론이 사업 부실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런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내놓고 있음. 그러나 이는 시설물 운영 기준 마련, 시설물 운영 현장 점검, 시설물 관리카드 비치 등과 같은 물적 환경 관리에 치중돼 있는 현실.
- 부진지구에 대한 전문가 파견(Family Doctor),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사후관리 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나, 전자는 다른 사후관리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부재, 일선 행정에서의 미작동, 후자는 기관의 전문성 부족, 시설물 실태 점검 치중 등의 이유로 인해 제도의 취지만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 무엇보다 사후에 준용해야 할 마땅한 제도적 절차나 조직이 없어 일선에서 후속계획 수립이 난망한 상황이고, 구비된 수단마저도 주민교육이나 전문가자문, 자매기업 연결 등이 전부인지라 정책집행자의 노력은 거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농촌 주민이나 공무원이 운영 부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접근 가능한 절차나 수단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겠음

○ 종합적 진단에 의한 지역맞춤형 사후 처방과 실행수단 강구 필요

- 사후관리를 위해선 무엇보다 사업종료지구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임. 이를 토대로 사업지구 맞춤형 처방계획이 수립되면서 이를 실행하는 절차나 수단이 고려되어야 함.
- 특히 사후관리 주체나 현장 운영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하고, 부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진단 기준과 처방 수단이 명료해야 함. 이를 위해선 지역단위 사업현황, 운영 인력, 담당 부서, 공무원 등에 대한 정보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사후 전문적 진단과 처방, 실행에서 경기농촌활성화지원센터 활용 필요

- 본 연구는 농촌개발사업 종료 이후 주민이나 공무원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리 행정기능이 도입돼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사업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활성화 처방을 내리며,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에서 출발하고자 함
- 그런데 이런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일선 행정 및 마을주민의 사후관리 교교육이나 사업 재활성화 컨설팅에 여러모로 관여해온 농촌센터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음
- 그간 농촌주민과 공무원 대상 교육·연구와 정책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농촌센터는 사업종료 마을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 심화 컨설팅, 운영프로그램 리모델링, 재활성화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후관리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음
- 농촌활성화센터에 축적된 역량을 십분 활용하여 중앙 및 지방행정과 함께 사후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명확히 확립하고 더 나아가 농촌센터를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음



2. 연구 목적

- 농촌개발사업의 시행 이후 관련 시설물, 서비스, 조직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속가능한 체계와 수단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부진을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사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중앙 정부와는 별도로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부진 예방과 사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앞서 제시함으로써 도내 시군 행정, 사업지구 주민, 유관기관 등이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함은 물론 시설·서비스·조직 등을 유지·운영하는 업무 수행의 기준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 연구 내용

- 농림부, 농어촌공사 등 농촌지역개발 사후관리 정책 검토
 - 농림부의 사후관리 정책 검토
 - 농어촌공사 사후관리 프로그램 검토
 -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시행 점검 및 사후관리 업무 분석
- 경기도내 농촌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 정책 및 실태 분석
 - 경기도의 농촌개발 사후관리 정책 방향
 - 경기도내 농촌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 실태 분석
 - 시군 차원에서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및 추진 상황 분석
 - 사례 사업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상태 조사
- 사업완료지구의 사후관리 과제 도출
 - 정부 사업시행 지침 상의 사후관리 과제 분석
 -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사후관리 과제 분석
 - 사업완료지구 사후관리 과제 정리 및 핵심 과제 도출

- 사후관리 절차의 마련과 단계별 도입 가능한 사후관리 수단
 - 현 제도에서 실행 가능한 농촌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 절차 마련
 - 사후관리 단계별 적용 가능한 정책적 수단의 제안
 - 경기도형 사후관리 수단의 현장 적용 방안

- 경기도 농촌개발사업 관리 협치(거버넌스) 체제의 마련
 - 농촌개발사업 운영·관리 협치의 성격·역할·범위의 정립과 추진 방안 검토
 - 경기농촌센터 기반 사후관리 플랫폼 구축 방안
 - 제안된 협치 체제에서 농촌활성화센터 플랫폼의 역할 검토
 - 센터와 행정 간, 센터와 유관조직 간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분담

- 경기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활용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
 -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종류와 세부 내용 검토
 - 현재 경기농촌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후관리 프로그램 분석
 - 사업지구 활성화를 위해 적용 가능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
 - 사후관리 단계별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적용 방안

- 사후관리 지원 플랫폼으로서 경기도 농촌센터의 역할 재정립
 - 도단위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사업 전과정 지원 체계의 확립
 - 사업 전과정 지원 기구로서 농촌센터의 조직과 업무 재정립
 - 중앙 및 지방의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4. 연구 수행 방법

- 경기도형 사후관리 사례를 만들기 위해 주창적 현장참여 연구 수행
 - 경기도내 농촌개발사업 사례지구 유형별 사후관리 상황 파악
 - 경기도청, 일선 시군 행정과의 밀착 협의를 통한 조사분석과 처방안 마련

- 일선 시군 맞춤형 사후관리 방식 도입
 - 지역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 시군 수요 맞춤형 사후관리 체제 및 프로그램
 - 경기도 차원 통합 관리 체제가 출범하는 동시에 10개 시군별로 차별화된 사후관리 시스템과 프로그램도 구상(2019년 후속 연구사업과 연계)

- ※ 농촌센터의 지원을 통해 경기도청, 도내 시군 행정, 사업지구 및 마을, 유관 기관, 전문가 등을 사후관리 거버넌스 및 플랫폼에 편입시키는 방법 마련
 - 2018년 농촌센터 자율사업의 일환으로 사후관리 지원체계 만들기
 - 사후관리 시범 시군을 대상으로 총체적 관리체계와 패키지화된 프로그램 적용 : 시범 시군의 사후관리 대상 전체 마을에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프로그램 적용

5. 사후관리의 범위

1) 적용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체험휴양마을사업

2) 사후관리 업무의 대상

- 본 시행안에서 제시하는 사후관리의 대상은 다음과 같음
 - ①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과 기자재
 - ② 사업을 통해 구축된 서비스
 - ③ 사업 운영을 위한 조직과 활동
 - ④ 사업에 관한 계획이나 실행 조치

3) 적용 시기

- 의무 적용: 사업 준공 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 적용 권고: 준공 이후 10년이 경과했더라도 시설물 등에 대한 지속적 활용 필요성이 있거나 지역사회 및 외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엔 시설물 등의 폐기 시까지 적용됨을 원칙으로 함

4) 시행 주체

- 경기도
- 본 사업에 관련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기도내 시군
- 사업 추진 주민, 추진위원회(혹은 운영위원회)
- 사업 위탁시행자(농어촌공사)
- 경기농촌활성화지원센터(전문기관)
- 시군 중간지원조직 등 기타 유관기관



6. 근거 법령 및 상위 지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제34조(생활기반계정사업의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 농어촌정비법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제71조(기술지원 등) 등 준용
-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중 III. 사업추진 체계, VI. 유형별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 등, (붙임)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추진계획 중 1장 2절 3항 사업종료 후 준공시설 운영 활성화, 4항 사후관리 강화

7. 용어 및 개념 정의

- 시설물 등: 건축물(건축법), 구조물, 조경시설, 기자재
 - ※ 기자재 등 : 기기, 자재, 집기, 비품
- 서비스: 사업을 통해 구축된 유무형의 자산과 인력을 운용하여 주민과 이 용자에게 편의 또는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노력(용역)
- 사후관리: 시설물의 상태, 조직의 활동, 서비스 품질 등을 유지하면서 사업 실행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활성화)를 얻기 위한 조직화된 운영 노력
 - ※ 농촌개발사업에서 사후관리는 구축된 시설, 조직, 서비스의 현상 유지를 위한 소극적 관리를 넘어 사업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도록 운영 능력을 일정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적극적 관리까지 포함하는 개념
- 사후성: 유지관리를 통해 나타나는 시설물 등의 상태, 조직의 활성화, 서비스 품질 등의 수준 및 운영으로 야기되는 사업 내·외부적 영향
- 비정상 운영: 사업의 운영 성과가 부진하거나 운영 과정이 일탈된 경우를 통칭하는 개념
 - ① 부진: 부실, 훼손, 미운영, 방치
 - ② 일탈: 용도 외, 사유화, 법 위반
- 사후관리 경보체제: 부진과 일탈의 정도를 기준으로 사후관리 조치를 취하 도록 행정과 주민에게 알람을 보내는 방식과 경각심의 정도에 따른 신호의 등급 구분 방식 ※ 알람은 주의보, 경보, 긴급 경보로 등급화
 - ① 녹색지구: 정상 운영 지구
 - ※ 녹색 점멸: 성과저조 지구 → 주의보
 - ② 황색지구: 부실·훼손·미운영(일시적) 지구 → 경보
 - ※ 황색 점멸: 극심한 부실, 미운영(장기 예견), 일시적 일탈 → 경보
 - ③ 적색지구: 방치, 고착화된 일탈 지구 → 긴급 경보



- 사후관리 패키지: 사후관리에 필요한 교육, 주의·경보, 처방(회복·활성화) 등의 지속성과 완결성을 위해 체계화시킨 일련의 프로그램들의 묶음
 - ① 교육 패키지: 사업준비, 계획수립, 사업시행, 운영관리 등 사업 단계별 맞춤형으로 운영되는 주민·활동가 연속 교육과정
 - ② 알람 패키지: 행정에 의한 정기·수시 사후관리 점검과 전문기관의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 가능성을 행정이나 주민에게 알리는 프로그램
 - ③ 활성화(붐붐) 패키지: 녹색·녹색점멸지구, 일부 황색지구 등이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현장에 지원되는 활성화 프로그램 묶음
 - ④ 정상화(파워업·리턴) 패키지: 황색지구, 적색지구 등이 운영 부진이나 이탈로부터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현장에 처방되는 전문 프로그램 다발
- 지원체계: 사업의 추진과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인력, 예산, 자산, 프로그램, 정보, 서비스 등의 구성 수단 및 운용 방식

II. 사후관리 정책 및 연구 동향

1. 농림부의 정책

- 언론이나 전문가 등이 농촌지역개발을 위해 13조원이 투입됐음에도 조성 시설물이 유희화되는 문제를 지적하자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2016년 전체 사업지구 2,166개소를 일제 전수 조사한 결과 **사업 부진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구는 322개소(15%)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하였음**
 - 농림부와 지자체, 관련기관의 단계별 점검 및 맞춤형 사후관리 추진 계획(2016)
 - * 1단계(시·군 전수조사, 분기) → 2단계(농진청·산림청·농관원, 관리 필요성 높은 지구 30%, 반기) → 3단계(전문가·농식품부 합동점검 5%, 수시)
 -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사업완료지구에 대해 시설물 운영 실태 점검을 시행 하도록 사후관리 기능을 부여**

- 정상지구와 부진지구를 구분하여 부실지구에 대해선 사후 조치 강화 천명
 - 정상지구: 성공요인 분석, 사례전파 등 지속적인 활성화 지원
 - 부진지구: 미운영 또는 비정상 운영 지구의 경우 **역량강화, 컨설팅, 용도 변경, 보조금 회수 등 맞춤형 사후관리 강화**
 - 부실지구에 **역량강화 전담 FD(Family Doctor)**를 배치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
 - 미운영·방치 시설의 경우 **운영주체 변경, 귀농·귀촌자 임시 숙소, 사회적 기업과 농촌마을지원센터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용도변경 추진**
 - 부진지구 정상화 노력이 소홀한 시·군에는 **사업비 삭감 등 페널티 부여**

-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물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지가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을 제정(16.3)하여 현장에 적용하게 되었음
 - 사업 활성화 및 무분별한 시설투자 방지를 위해 기준을 정립



○ 유형별 사후관리 조치사항

- (정상지구)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지속 활성화 유지·발전
- (부실지구) 사업운영 현황 및 여건을 고려, 맞춤형 정상화 조치 강구
- (집중관리 대상) 역량강화, 컨설팅, 용도변경, 보조금 회수 등 관리 강화

운영상황	세부실태	조치사항
정상 운영	활성화	우수사례 전파, 인센티브 제공 등
	현상유지	역량강화, 컨설팅, 추가지원 등
	부실운영	역량강화, 컨설팅, 운영자 변경, 추가지원 등
미운영	방 치	운영방안 마련, 역량강화, 컨설팅, 용도 변경 등
	훼손	원상복구, 용도 변경, 보조금 회수 등
비정상 운영	용도외	용도내 전환, 용도외 승인, 운영자 변경 등
	사유화	용도내 전환, 마을공동 운영, 기금 수납, 지자체 회수 등
	범위반	정상화, 보조금 회수, 수사의뢰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 운영 기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규정집

○ 농촌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 체크리스트(2016)

- 사업지구 현황: 위치, 지구명,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역별 유형, 위치, 규모, 사업비
- 관련사업 추진현황(2010년 이후 완료사업): 부처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운영현황
- 점검결과(종합): 세부 점검사항(지구/마을운영, 시설운영)별 종합의견(특이 사항), 지속점검 필요성(상 중 하)
- 지구(마을) 운영 현황: 운영조직, 운영관리(회계 투명성, 수익배분 공정성), 마을 활성화(지속적 인적 자원 및 자원 확보, 체험 숙박 가공 홍보 등을 통한 마을 활성화)에 대한 점검결과 기록



○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기준 상의 사후관리 점검 항목(2018)

- 소득시설, 비소득시설, 기반시설을 나누어 관리실태 점검 항목을 설정하고 있음

구 분	세부 점검 항목	비 고
<p>소득시설 의 경우</p>	<p>(1) 시설개요 (가) 연면적 등 시설 규모 및 사업비 (나) 시설의 용도 (다) 시설의 소유자 (2) 시설 운영조직 * 정상/비정상 구분하여 기재 (가) 시설물 운영을 위한 법인 등 구성(운영주체) (나) 법인 등에 주민 참여 및 구성의 적정성 1) 마을공동체, 2) 영농조합법인 참여 인원수 (3) 시설 활성화도 (가) 가공, 판매, 홍보 등을 통한 수익 창출(매출, 수익) (나) 시설의 정상 또는 미운영, 방치, 부실, 방치, 용도외, 사유화, 범위반 등 비정상 운영 여부 (다) 유지보수를 위한 총당금 적립 (라) 시설의 활성화도 1) (정상)활성화 : 2) (정상)보통 : 3) (비정상)부진 : (4) 운영관리의 적정성 (가) 회계처리의 투명성(법인통장, 법인카드 사용 등) (나) 수익배분의 공정성 (다) 시설 운영비 확보(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라) 기금납부 등을 통한 수익의 지구(마을) 환원 (5) 시설관리 (가) 청소 및 주변 정비 (나) 파손 여부 (6)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 선임 등 안전관리 조직 구성 (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관리상태 (다) 식자재, 개인위생 등 식품위생 관리상태 (7) 점검결과 * 시설개요를 제외한 세부점검사항(15개)에 대해 정상항목 개수와 비정상항목 개수를 구분하여 기재 (8) 활성화 여부 판단 1) 활성화, 2) 보통, 3) 부진, 4) 공사중</p>	<p>(1) 시설 개요, (7) 점검결과, (8) 활성화 여부 판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든 항목은 정상/비정상 구분하여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p>

구 분	세부 점검 항목	비 고
비소득 시설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연면적 등 시설 규모 및 사업비 (나) 시설의 용도 (다) 시설의 소유자 (2) 시설 운영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설물 운영을 위한 법인 등 구성(운영주체) (나) 법인 등에 주민 참여 및 구성의 적정성 * 참여 인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공동체: 2) 영농조합법인: (3) 시설 활성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설의 정상 또는 미운영, 방치, 부실, 방치, 용도외, 사유화, 범위반 등 비정상 운영 여부 (나) 유지보수를 위한 총당금 적립 (다) 시설의 활용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상)활성화 : 2) (정상)보통 : 3) (비정상)부진 : (4) 운영관리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설 운영비 확보(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5) 시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소 및 주변 정비 (나) 파손 여부 (6)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안전관리자 선임 등 안전관리 조직 구성 (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관리상태 (다) 식자재, 개인위생 등 식품위생 관리상태 (7) 점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개요를 제외한 세부점검사항(15개)에 대해 정상항목 개수와 비정상항목 개수를 구분하여 기재 (8) 활성화 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활성화, 2) 보통, 3) 부진, 4) 공사중 	<p>(1) 시설 개요, (7) 점검결과, (8) 활성화 여부 판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은 정상/비정상 구분하여 관련 내용을 기재토록 하고 있음</p>



○ 시설 활성화 측면의 정상·비정상 판단의 유형과 기준

구분		소득시설	비소득시설	기반시설
정상	활성화	최근 1년간 가공·판매 또는 체험·방문을 통한 합산 순수익이 2천만원 이상 또는 체험객이 5천명 이상인 경우	해당시설에 대해 권역 또는 마을 거주 주민 2/3 이상이 이용·참여하는 경우	해당시설을 정상적으로 설치하여 사용 중인 시설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
	보통	최근 1년간 가공·판매 또는 체험·방문을 통한 합산 순수익이 2천만원 미만 발생 또는 체험객이 1~5천명인 경우	해당시설에 대해 권역 또는 마을 거주 주민 1/2 이상이 이용·참여하는 경우	해당시설을 정상적으로 설치하여 사용 중인 시설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보통인 경우
비정상	부실	최근 1년간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체험시설인 경우 방문객이 1천명 미만인 시설	이용객 및 방문객 등이 현저히 적고 이용율이 낮아 용도전환 등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설	일부 주민만 이용 또는 관리부실로 훼손된 경우
	미운영	최근 6개월 이상~1년 미만 운영실적이 없는 시설	좌동	최근 6개월 이상~1년 미만 운영실적이 없는 시설 또는 계획대로 완공되지 않고 일부만 기반시설로 설치한 경우
	방치	최근 1년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시설	좌동	좌동
	용도외	시설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좌동	좌동
	사유화	법인 또는 마을공동체가 사용하지 않고 개인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임의 임대	좌동	좌동
	법위반	건축법 등을 위반한 불법 시설물 또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운영 중인 경우	좌동	좌동
특이 사항		부진: ① 최근 1년간 가공·판매 또는 체험·방문을 통한 합산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② 체험객이 1천명 미만인 경우 ③ 비정상 시설	부진 : 해당시설에 대해 권역 또는 마을 거주 주민 1/2 미만이 참여하거나 방치·훼손된 경우	부진 : 해당시설을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비정상 시설인 경우

- 정부의 사후관리 실태 점검 지침에서 시설물의 활성화 혹은 활용방안 수준을 진단하는 항목을 달리 정리하자면, 가장 먼저 시설물의 활용성은 정상, 비정상으로 구분되고, 비정상은 다시 부진과 이탈로 구분할 수 있겠음

<정상>

- 1) 활성화
- 2) 보통

<비정상>

- 1) 부진: 부실, 미운영, 방치, 훼손
 - * 용도외, 사유화, 법위반 등 사업 목적에서의 이탈을 부진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이탈을 부진과 구분되는 별도 유형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음(지침이 불확실)



○ 지구(마을) 운영 현황과 신규마을조성사업 실태 점검 항목

구 분	세부 점검 항목	비 고
지구(마을)	(1) 운영조직 (가) 지구(마을)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또는 법인 구성 (나) 운영조직은 대표성을 갖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 주민 간·마을 간 소통 등 갈등관리를 위한 노력 (2) 운영관리 (가) 지출 및 수입 관리대장(전산등)·증빙자료 비치관리 여부 (나) 지구(마을) 운영결과 수익금의 마을 환원 여부 (3) 마을 활성화 (가) 지속적인 마을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및 재원확보 1) 인적자원 확보: 상시 근무 인원의 확보 여부 2) 재원확보: 마을발전을 위한 기금확보 여부 (나) 체험, 숙박, 가공 등의 지구마을 활성화 실태 1) 체험·숙박: 체험·숙박을 통한 수익 창출 여부 2) 가공·판매: 가공·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여부	모든 항목에 대해 정상/비정상 구분하여 기재
신규마을 조성사업	(1) 사업관리 (가) 특별한 사유없이 분양받은 주택 조성용지를 타인간의 거래 등 전매 제한 기간 이내의 전매 행위 여부 (나) 사업계획 승인인로부터 6개월 이내 기반공사 착공여부 (다) 기반공사 완료 후 사업시행자가 부지에 대해 100% 분양 완료 여부 (라) 기반공사 완료 및 분양 받은 자가 1년 이내 건축공사 착공 여부 (2) 시설물 관리 (가) 택지조성 완료 후 1년간 주택 건축 비율 (나) 공용 시설물의 활성화도 1) (정상)활성화: 주민 2/3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 2) (정상)보통: 주민 1/2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 3) (비정상)부진: 주민 1/2 미만이 참여하거나 용도외·미운영·방치·훼손·법위반 등 비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 (3) 운영 관리 (가) 보조금의 대지조성 및 마을기반 시설 설치 외 타용도 사용여부 (나) 사업시행자·주민(조합원) 간 소통 등 갈등관리를 위한 추진 실태	모든 항목에 대해 정상/비정상 구분하여 기재

2. 농어촌공사 사업지구 관리

1) 사업추진 현황카드 작성

○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구별 사업추진 현황카드 작성 내용

- 사업 개요
 - 사업명, 위치, 사업시행자, 면적, 인구 가구,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 사업, 공사 참여 현황, 사업 이력,
- 수지예산서
 - 수입, 지출
- 사업 추진 현황
- 특이 사항
 - 주요 추진 이력
 - 현안 사항 및 문제점
- 주요 사업 현황
 - 시설별 조성 현황(위치,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운영주체, 관리자, 등기주체, 운영개시 등 명기)
- 준공 시설물 운영 현황(준공 완료된 경우)
 - 시설물별 위치, 관리자, 운영주체, 준공일자, 사용승인일, 등기주체, 운영비지급주체, 활용형태 명시
- 담당자 연락처
 - 계획가, 설계자, 공사소장, 운영위원장, 사무장, S/W 현장책임자 기록

2) 지역개발사업 이력 관리

○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이력 관리의 항목(경기지역본부의 경우)

인덱스, 지구코드, 시도명, 시군명, 지구명, 기본사업유형, 사업유형, 세부유형, 자금운용사업, 구분(인계/미인계/계속/불가), 시행구분(일괄수탁/부분수탁), 사업시행자, 위탁시행자, 소관부서, 선정년도, 착수(기본계획), 착수(시행계획), 착공(공사시행), 준공(예정), 실준공(예정), 총사업비, 행정구역(면, 리, 주소), 사업진행단계, 기본계획(완료 여부), 세부설계(완료 여부), 시행, 감리, 준공(완료 여부), 준공일(완료일), 인계, 인계일, 문서번호(증빙), 인계년도, 인계 여부, 특이 사항



3) 비정상 운영 시설물 사후 점검

- 비정상으로 판정된 시설물에 대해 연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사후 점검을 시행하여 시설물 운영 상태를 기록하고 정부에 보고하고 있음
 - 부실, 미운영, 방치, 훼손 등 부진 상태가 지속되는지, 아니면 개선되는지에 대해 간략히 파악하고 있음

○ 경기도 시군 시설물 준공 이후 운영상황 점검 결과

시군	사업 유형	지구명	시설명	점검 시기 및 결과					
				16	운영 상황	17 상	운영 상황	17 하	운영 상황
00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00	슬로푸드체험관	○	방치	○	미운영	X	
00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00	도농교류센터	X		○	부실 운영	X	
00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000	농산물판매장	X		○	미운영	X	
00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000	도농교류센터	X		○	미운영	X	
00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000	체험목장	X		○	미운영	X	
00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000	공동구판장및농산물창고	X		○	부실 운영	X	
00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000	친환경토마토및공동작업소	X		○	미운영	X	
00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00	마을쉼터	X		○	부실 운영	X	
00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00	운동및레포츠시설	X		○	부실 운영	X	
00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000	다목적회관	X		○	부실 운영	X	
00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000	특산물공동가공시설	X		○	부실 운영	X	
00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000	마을회관	X		○	용도외	X	
00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000	체재형주말농장	X		X		○	부실 운영
00시	권역단위종합정비	00	로컬푸드체험장	X		○	부실 운영	X	
00시	권역단위종합정비	00	골드테라피체험장	X		○	부실 운영	X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경지지역본부, 2018. 4

3. 경기도의 사후관리 정책 방향

- 경기도는 일선 시군, 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등과 함께 사후관리 시행 점검을 실시하고 경기농촌센터를 통해 사후관리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경기도 사후관리 실적과 연계한 신규 사업 선정 방향
 - 정부의 부진지구 정상화 노력이 소홀한 시군에 대한 사업비 삭감 등 페널티 부여 방침에 부응하여 2018년도 상반기 경기도 농정국에서는 부진지구가 다수 발생하는 시군에 대해선 신규 사업 선정을 제한하는 방향을 논의 중에 있음
-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농촌개발 사후관리 지원체계 구축 연구 지원
 - 경기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진행되는 11개 시군과 함께 사후관리 지원 절차와 수단을 마련하여 2018년 하반기 또는 2019년부터 현장에 시범 적용할 방침임
- 경기농촌센터와 함께 사후관리체계 거버넌스 구축 노력
 - 도와 센터가 긴밀한 협조 채널을 만들어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여러 차례 실무적 논의를 거쳐, 2018년 6월 중에 관내 시군 담당자와 함께 사후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임. 여기에서 차질 없는 사후관리 실행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이 결의를 다지고, 경기도 차원의 사후관리 제도를 공식화하면서 사후관리 협치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
- 경기도형 사후관리체계 구축과 패키지화된 프로그램 적용 권고 구상
 -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사후관리의 핵심은 경기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사후관리 지원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시군과 도의 담당자를 하나의 운영체계 속에 엮음으로써 사업지구에 도와 시군이 일관된 지원수단을 제공하려는 것임. 아울러 사업지구별 특성을 감안한 지역맞춤형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부진지구를 조기에 정상화하고, 향후 비정상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원의 정책을 전개하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경기농촌센터를 사업 전 과정 지원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 현재 농촌센터는 경기도의 사업선정 업무를 측면 지원하고 있음
 - 현재 각 기관과 유기적으로 업무 연계를 맺고 있는 경기농촌센터를 지원 플랫폼으로 설정하게 되면 도와 시군,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은 물론 각종 중간지원조직, 주민단체, 전문가그룹 등 유관 조직이 하나의 협치 기구로 묶여서 플랫폼 위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각종 정보와 정책수단, 사업프로그램이 플랫폼에 자연스럽게 수렴되어 농촌개발사업 전 과정이 일관된 관여 속에서 관리되는 것이 가능하게 됨

4. 경기도 시군의 사후관리

1) 경기농촌센터와의 협력 동향

- 일선 시군에선 사후관리로서 사업운영 및 시설물 상태에 대한 관행적 점검과 함께 용도외, 사유화, 위법 등 비정상 운영에 대한 감시에 역점을 두고 있는 편임(담당 공무원의 행정상 문책 회피 차원 이유도 있음)
 - 사업지구 실태 점검은 담당 공무원의 고유 업무로서 상급 기관에서의 점검 결과 자료 제출 요구에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
 - 언론의 부정적 보도나 주민이나 의회의 질책(이에 따른 감사 시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후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형국이지만, 담당자가 의욕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고 싶어도 일선에서 동원 가능한 수단은 행정지도 이외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태임
 - 현장 책임자로서 공무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책임 추궁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설물 비정상 운영’에 관한 것이라 하겠음. 특히 용도외, 사유화, 위법 사용 등에 관한 것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

- 시군에서 운용 가능한 사후관리 수단은 시군역량강화사업이 전부인 실정임
 - 부진지구 정상화를 위해, 그리고 정상지구의 부진 예방을 위해 주로 시군 역량강화사업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이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양평군의 나들이나 헬스투어, 가평군 회복마을만들기 지원조직, 이천나드리 등)에는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사후 활성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이것도 상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일시적 시도에 머물고 있음



- 일선 시군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은 조성된 시설물의 유희화를 예방하면서 방치된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군역량강화사업이 허용하는 전문가 주도 현장포럼 및 컨설팅에 주를 이루고 있음
 - 체험소득사업이 이루어진 마을을 중심으로 사업공동체 결속 및 사업 재설계에 주안점을 둔 현장포럼을 진행하면서 체험프로그램이나 경영방법에 관한 컨설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 소득사업 경영에서 주민 관심이 높은 부분은 홍보, 재무, 체험프로그램 재설계 등에 관한 것임

- 경기도 시군의 경우에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사후 마을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농촌센터가 대학이란 전문기관에 속해 있으면서도 주민이나 공무원과의 접촉이 활발하고 다른 전문가 그룹, 컨설팅·엔지니어 업체, 지역 NGO, 기타 유관 조직 등과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 경기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한 경기도 시군의 사후관리 추진 내용

연도	시군	사업 대상지		주요 내용	완료 사업	사후관리 재원	비고	
		행정리 (권역)	마을명					
2016 년	여주	강 천 섬 권역		현안해결 현장포럼 및 컨설팅 -운영위원회 재구성 -주민공감대 재형성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시 군 역 량 강 화 사업		
			양평	석산2리	쌍겨리 마을	사후관리 컨설팅 -활성화 방안 수립	권역사업	시 군 역 량 강 화 사업
			용천1리	유기농 마을	현안해결 현장포럼 사업활성화 컨설팅	농촌체험휴양마을 양평군 지역마을 만들기 발전소 주변주민 지원사업	시 군 역 량 강 화 사업	
			석산1리	소리산 마을	현안해결 현장포럼 사업활성화 컨설팅	권역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시 군 역 량 강 화 사업	
			신론1리	신론1리 체험 마을	현안해결 현장포럼	녹색농촌체험마을	시 군 역 량 강 화 사업	
			화전2리	옹달샘 꽃누름 마을	현안해결 현장포럼 사업활성화 컨설팅	정보화마을 양평군지역마을만들기 농촌전통테마마을	시 군 역 량 강 화 사업	2015년 양 평 나 드 리 현장포럼
			망능리	망능리 마을	현안해결 현장포럼 사업활성화 컨설팅	농촌체험휴양마을	시 군 역 량 강 화 사업	2015년 양 평 나 드 리 현장포럼
			송학3리	뚝딴지 마을	현안해결 현장포럼 -뚝딴지 감자 가공 및 유통 관련 컨설팅	농촌체험휴양마을 정보화마을 마을기업	시 군 역 량 강 화 사업	2015년 양 평군 나 드 리 주관 현 장포럼
			명성1리	별빛체험마을	현안해결 현장포럼 사업활성화 컨설팅	농촌체험휴양마을 양평군 시설보수 사업	시 군 역 량 강 화 사업	2015년 양 평군 나 드 리 주관 현 장포럼
			가현1리	숲속의 명품마을	현안해결형현장포럼 사업활성화 컨설팅	농촌체험휴양마을 양평군시설보수사업	시 군 역 량 강 화 사업	2015년 양 평군 나 드 리 주관 현 장포럼
			옥현2리	가루매 마을	현안해결형 현장포럼 사업활성화 컨설팅	녹색농촌체험마을 양평군 지역마을	시 군 역 량 강 화	2015년 양 평군 나 드



연도	시군	사업 대상지		주요 내용	완료 사업	사후관리 재원	비고
		행정리 (권역)	마을명				
					만들기사업 마을기업	사업	리 주관 현장포럼
		삼성2리	별내마을	현안해결 현장포럼 사업 활성화 컨설팅	농촌체험휴양마을 양평군 편의시설 지원사업	시 군 역 량 강화 사업	2015년 양 평군 나드 리 주관 현 장포럼
		도곡리	질울고 래살마을	현안해결 현장포럼 사업활성화 컨설팅	농촌체험휴양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양평군편의시설지 원사업	시 군 역 량 강화 사업	2015년 양 평군 나드 리 주관 현 장포럼
		조현리	모꼬지 마을	현안해결 현장포럼 사업활성화 컨설팅 주민 문화복지 활동 지원	녹색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지원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시 군 역 량 강화 사업	2015년 양 평군 나드 리 주관 현 장포럼
		연수권역	연수리	현안해결 현장포럼 사업활성화 컨설팅	연수권역사업	농 촌 공 동 체 지 원사업	2015년 양 평 나 드 리 현장포럼
	이천	산성1리	돌원마을	■현안해결형 현장포럼	부래미권역사업	농 촌 공 동 체 지 원사업	16년~17년 행정소송
		도립1리	산수유 마을	미래설계 현장포럼 체험휴양마을 컨설팅	산수유권역사업	농 촌 공 동 체 지 원사업	
	안성	용설 권역	용설문 화마을	현안해결 현장포럼 권역활성화 컨설팅	용설호권역사업	농 촌 공 동 체 지 원사업	
	용인	독성 권역		현안해결 현장포럼 권역활성화 컨설팅	독성권역사업	농 촌 공 동 체 지 원사업	
	화성	고정리		현안해결 현장포럼 권역활성화 컨설팅	고정권역사업	농 촌 공 동 체 지 원사업	
	2017 년	평택	신리권역	현안해결 현장포럼 활성화 방안 수립	황금뜰신리권역사업	농 촌 공 동 체 지 원사업	
		광주	토마루 권역	현안해결 현장포럼 활성화 방안 수립	토마루권역사업		
정지2리				미래설계 현장포럼 휴양마을 주민합의	토마루권역사업	시 군 역 량 강화 사업	

연도	시군	사업 대상지		주요 내용	완료 사업	사후관리 재원	비고
		행정리 (권역)	마을명				
	양평	산음2리		미래설계 현장포럼 활성화 방안 수립	소리산권역사업	농촌공동체지원사업	
		내리		미래설계 현장포럼 활성화 방안 수립	산수유권역사업	농촌공동체지원사업	
	여주	품실권역		현안해결 현장포럼 권역활성화 컨설팅 워크숍	품실권역사업	농촌공동체지원사업	권역 운영 위원회 교체 (17년 /18년)
	가평	행현2리		가평희망마을현장포럼 8회차 마을발전계획 수립	창조적마을만들기	시군역량강화사업	
		신상3리		가평희망마을현장포럼 8회차 마을발전계획 수립	농촌체험휴양마을	시군역량강화사업	
	양평	용천3리	편전마을	사후관리 컨설팅 -종합진단 및 컨설팅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 -프로그램 개발	농촌체험휴양마을 양평군지역마을만들기	시군역량강화사업	
		화전2리	옹달샘 꽃누름 마을	사후관리 컨설팅 -종합진단 및 컨설팅 -마을홍보물 제작 -종묘 관련 교육 및 실습(마을경관개선)	농촌전통테마마을	시군역량강화사업	2016년 컨 설팅, 18년 현장포럼
		여물리	여물리 체험마을	사후관리 컨설팅 -종합진단 및 컨설팅 -마을 홍보물 제작	농촌체험휴양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시군역량강화사업	2016년 사 후관리 현 장포럼
		옥현2리	가루매 마을	사후관리 컨설팅 -종합진단 및 컨설팅 -마을경관 개선활동 지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양평군지역마을만들기 마을가꾸기사업 마을기업	시군역량강화사업	2016년 사 후관리 현 장포럼
		송학3리	똥단지 / 학곡 체험마을	사후관리 컨설팅 -종합진단 및 컨설팅 -선진지견학 -마을홍보 및 마케팅 (홍보물 제작)	녹색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마을기업	시군역량강화사업	2016년 사 후관리 현 장포럼
		가현1리	숲속의	사후관리 컨설팅	농촌체험휴양마을	시군역	마을사업위탁



연도	시군	사업 대상지		주요 내용	완료 사업	사후관리 재원	비고
		행정리 (권역)	마을명				
			명품 체험마을	-종합진단 및 컨설팅		량강화 사업	2016년 사후관리 현장포럼
		조현리	모꼬지 체험마을	사후관리 컨설팅 -종합진단 및 컨설팅 -홍보 역량강화 교육	농촌체험휴양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시군역량강화 사업	2016년 사후관리 현장포럼
		도곡리	질울고래실마을	사후관리 컨설팅 -종합진단 및 컨설팅 -마을정관 개정 -숙의형 컨설팅	농촌체험휴양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시군역량강화 사업	2016년 사후관리 현장포럼
		명성리	별빛 체험마을	사후관리 컨설팅 -종합진단 및 컨설팅 -시설개보수 활동 지원 -홍보활동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시군역량강화 사업	2016년 사후관리 현장포럼
		연수2리	연수리 체험마을	사후관리 컨설팅 -종합진단 및 컨설팅 -마을발전계획 수립	농촌체험휴양마을 연수권역사업	양평군 (나드리)	2016년 사후관리 현장포럼
		망능리	망능리 체험마을	사후관리 컨설팅 -종합진단 및 컨설팅	농촌체험휴양마을	양평군 (나드리)	2016년 사후관리 현장포럼
		주읍리	주읍리 체험마을	사후관리 컨설팅 -종합진단 및 컨설팅 -마을홍보활동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산수유권역사업	양평군 (나드리)	
		산음2리	달빛 체험마을	사후관리 컨설팅 -종합진단 및 컨설팅	농촌체험휴양마을 소리산권역사업	양평군 (나드리)	
		다대리	다대리	사후관리 컨설팅 -종합진단 및 컨설팅	창조적마을만들기 농촌체험휴양마을	양평군 (나드리)	2016년 사후관리 현장포럼 2015년 현장포럼
		강상면	강상면 전체	지역역량강화사업 -운영위원회 교육 -산림치유지도사교육	시군창의사업	양평군	에코힐링 산중별곡이야기
2018년	여주	강천섬 권역	사후관리 컨설팅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마케팅	강천섬권역사업	시군역량강화 사업	2016년 사후관리 현장포럼 사무장 신규 채용	

2) 지자체별 사후관리 설문조사

설문조사 개요

- 현장에서 느끼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운영 및 사후관리 현황과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각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경기도 농촌지역개발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사업 현장의 비활성화 원인, 사후관리 어려움의 원인, 지자체별 사후관리 및 활성화 노력 등을 파악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후관리 5대 패키지의 세부 프로그램별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플랫폼 콘텐츠 개발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본 설문조사는 2018년 경기도 농촌지역개발사업 담당공무원 워크숍 과정에서 강의 및 모둠토론 이후 진행하여 피설문자의 이해와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진행하였음

조사방법 및 과정

- 설문조사 시기는 경기도 농촌지역개발사업 담당공무원 워크숍(2018년 7월 12~13일/1박2일) 기간 중 2일차 오전 9시~10시에 1시간동안 진행하였음
- 설문장소는 경기도 이천시 읍면 부래미마을 체험관에서 진행하였음
- 조사는 피설문자(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경기도 농촌개발사업 사후관리 시행방안과 5대 패키지 그리고 개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유인물을 통해 프로그램 내용이 한 장으로 정리된 표를 보며,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음
- 설문 응답자는 경기도 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체험휴양마을 담당자로 총 23명이 응답을 하였음

5. 선행 연구에서의 사후관리 제안 동향

- 농림축산식품부(2014)는 사업완료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 부진지구의 요인을 분석하였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하여 운영·관리의 활성화를 방법을 모색하였음. 아울러 지원조직체계의 다각화와 공공-민간-주민 융합형 거버넌스를 제시하기도 하였음

- 부진을 발생시킨 5가지 주요인으로는 ① 시설물 조성 이전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의 미흡, ② 분산투자방식의 시설물 조성 및 단순 기능위주의 시설물 조성으로 운영관리비용 과다지출 현상 발생, ③ 사무장 등 핵심 운영인력의 잦은 교체 등으로 운영관리 전문성 결여, ④ 지역자원과 연계된 시설물을 활용한 운영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단순히 숙박 위주의 사업 운영 형태, ⑤ 주민들의 무관심과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을 꼽고 있음

- 사업지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농촌개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
 - 첫째, 서포터(지역 협력자, 지원자, 기업가), 실행자, 코디네이터가 관여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 둘째, 지역대학 등 교육기관, 전문기관, 전문가그룹(컨설턴트, 세무사 등)을 통해 정보를 집적하고 전문지식을 축적하는 체제를 구축하며,
 - 셋째,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해 사람과 재화가 매칭되는 사업모델을 선보이고 있음.
 - 넷째, 거버넌스에 의한 비즈니스(일종의 사회적 경제활동) 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 행정 주도형 TFT 체제를 벗어나 전문성을 가진 공공-민간-주민 융합형 중간지원조직을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



○ 완료지구 시설물 운영 효율화 방안으로는 시설물 조성 단계와 사후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음.

- 조성 단계: 계획 수립 시 시설물 운영관리 방안 마련, 운영 주체의 책임성 강화, 운영 비용의 적립 등을 제안
- 운영 단계: 재정 및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 차별화된 운영프로그램, 시설간 연계성 확보, 사후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시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방안 연구, 경상대 산학협력단(김영주 연구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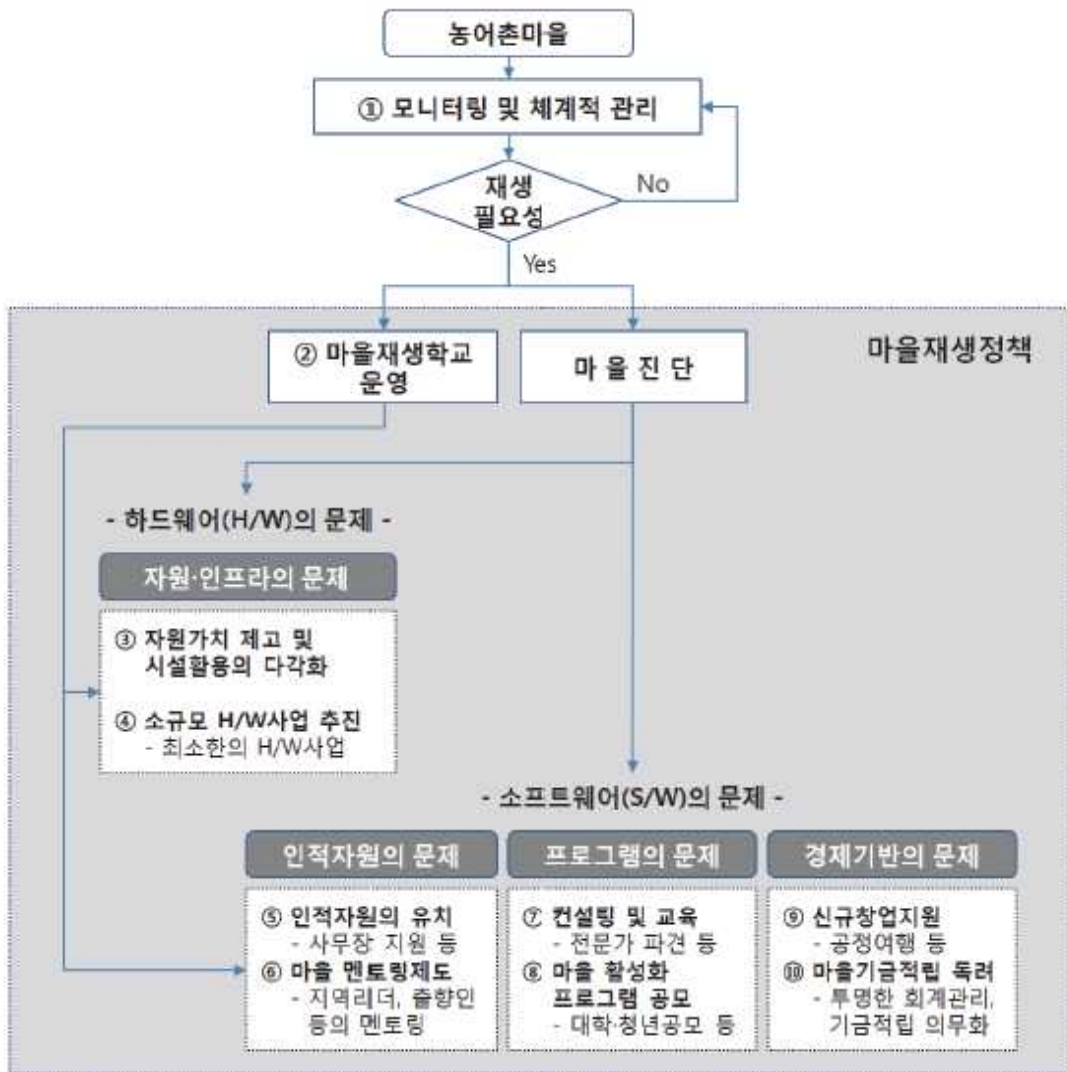
○ 농촌경제연구원(2016)에서는 사업 선정관리와 사후관리의 일원화를 제안

- 동 연구원의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에서는 정책 모니터링 연구 차원에서 10개 권역단위 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해결책의 하나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선정관리와 사후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현재 사업선정과 시행 지원 업무는 농어촌공사가, 시행 점검 및 사후관리 업무는 2016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하고 있는데, 공사는 그 전문성이 입증된 계획, 시행, 감리 업무에 집중하고 사후관리는 사업정보의 효율적인 축적과 활용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리고 있음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2016), 2016 보조사업 모니터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충남연구원(2016)에서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자원 및 인프라, 인적 자원, 프로그램, 마을관리정책 다섯 가지로 나누어 들여다보면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이 모두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마을재생 정책’을 제안하고 있음
- 사업 모니터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먼저 진단을 하고, 이를 통해 문제의 종류를 도출한 다음 문제별로 해결 대안을 점진적으로 마련하는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 연구의 결론임
- ① **자원 및 인프라 문제:** 자원발굴 또는 자원의 테마화 미흡, 시설자원 등 인프라 활용성 미흡, 기반시설 인프라 부족 등
- ② **인적자원의 문제:** 마을리더 및 주민 역량 부족, 사무장의 문제, 인력 부족의 문제 등
- ③ **프로그램의 문제:** 프로그램의 부재 또는 프로그램 운영 역량의 부족,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미흡,
- ④ **경제기반의 문제:** 소득사업의 부재, 투명한 회계 관리시스템의 부재, 마을기금 마련의 미흡 등
- ⑤ **마을관리 정책체계의 문제:** 단발적인 사업 추진, 모든 마을을 관리할 있는 정책체계의 부재, 사후관리 부재 등
- 이 연구의 특이 사항은 사업지구를 진단하여 재생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마을재생학교’를 운영하자는 것임. 즉 사업과 교육의 병행을 주장한 것인데, 최근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마을만들기에서 일관되게 강조되는 점이라 하겠음



[그림 1] '마을재생정책'의 흐름도

※ 자료: 조영재, 충남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충남 리포트, 충남연구원(2016.8)

- 최진아 외(2018)는 시설물 관리보다는 운영조직, 운영관리, 활성화 측면에서 농촌체험관광 사업이 완료된 지구의 사후관리 상황을 진단하고 있음

6. 본 제안의 지향점

- 이 연구를 통해 경기도, 시군 행정, 사업지구 및 마을, 유관 기관,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사후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며, 특히 거버넌스의 중간 플랫폼으로서 경기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지원하는 각종 사후 활성화 패키지를 선보임으로써 광역중간지원조직이 사업 지원조직으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함



Ⅲ. 사후관리 절차와 담당기관별 시행 사항

1. 사후관리 추진 원칙과 절차

- 경기도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시설물·서비스·조직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은 물론 **부진 예방과 사후 활성화**를 지향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사후관리를 추진함
 - ① **예방적 관리**: 부진·일탈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조기에 징후**를 포착하여 정상화 조치를 취하는 능동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
 - ② **사업 전(준)과정 관리**: 사후관리는 사업종료 이후에만 시행되는 게 아니라 **사업 준비**에서부터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로 **지속적인 관리** 수행
 - ③ **전방위적 징후 신호 관리**: 행정의 정기 점검, 전문기관의 수시 점검을 통해 부실·일탈 상황 발견 시엔 행정계통을 통해 **즉시 주의·경보**를 작동하여, **집중적인 관리체제**에 편입되는 방식 채택
 - ④ **주민과 시군 책무성 강화**: 농촌주민의 행정 의존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이 책임지고 유지·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이 유도**하는 행정조치를 시행
 - ⑤ **환류 연동성 강화**: 행정과 전문기관의 점검 결과가 **즉각 사업지구**에 환류되어 예방·정상화 조치가 시행되도록 **도·시군·주민·전문기관·유관기관** 간에 긴밀한 **업무 연동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 ⑥ **전문적·상시적 관리**: 예방·활성화 조치가 전문기관에 의해 **집중·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체제를 구성하되 이를 **상시적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사후 처방·이행모니터링** 전담기관을 운영

- 기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절차에 맞추어 각 추진 단계별 담당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후관리 업무와 프로그램을 제시

사업 절차		사후관리 시행 사항	농촌센터 역할	
사업 준비	지구	○유지관리 가능성 사전 주민숙의와 교육	○현장포럼 교육연계	
	신청서 시군	○사후관리 내용과 주민책무 결의서 포함		
↓	심사·선정	경기도	○유지관리·사후활성화 중점 심사 ○사후관리 소홀 시군에 패널티 적용	○사후성 검토 ○시군 사후성검토·교육·패키지 실적 정보 지원
		↓	기본계획 수립	지구
승인 보고 시군 경기도	○사후성 집중 검토(농촌센터 활용)와 환류	○사후성 검토		
↓	시행계획 수립	지구	○시행계획에 사후관리 내용 제시	
		승인 보고 시군 경기도	○사후성 집중 검토(농촌센터 활용)와 환류	○사후성 검토
↓	사업 시행	시군	○사업 운영조직 조기 활성화 추진	○조기 활성화 패키지
		역량강화 (사업별) 지구	○주민(운영위) 사후활성화 교육과정 이수 ○사후성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작성	○사후관리 교육과정 운영 ○조치사항 작성 지원
↓	준공 검사	시군	○ 사후관리 교육과정 이수 결과 점검	○교육 이수증 발급
		경기도	○ 사후성 검토결과 조치사항 검사	
↓	운영·관리	중앙 경기도	○사후이행 정기점검(농품원·산림청·농진청) ○사후성 정보관리와 조기 경보체제 가동	○조기알람 패키지 가동
		역량강화 (시군) 시군	○부진예방 프로그램 실행 ○부진·일탈지구 조기정상화 특별수단 투입	○부진예방 패키지 운영 ○정상화 패키지 가동



2. 사업 준비 및 신청 단계

[주민/추진위] 사업 신청 이전에 사업수행 여건, 특히 시설물의 유지관리 능력(비용·인력)에 대해 숙고하는 논의 과정 진행(유경험 전문가 참여)

※ 유지비 총당, 사후관리 책임 등에 관한 주민 결의 절차 진행

[시군] 사업 신청서(예비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

- ① 지구에 대 신청서에 유지관리 및 사후활성화 내용 포함 여부,
- ② 사후관리 책임에 관한 공론화 회의 자료,
- ③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 결의서 첨부 여부를 확인

※ 필요시 기존 현장포럼 이외에 시군역량강화사업비를 지원하여 2-3회차 분량의 사후활성화 포럼 추가 운영 가능(특히 추진위 중점 대상)

[센터] 사업 준비 마을 대상 현장포럼인 경우 주민이 유지관리 능력과 사후 책무에 대해 숙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 기존 한 회의 현장포럼 시간 내에서 다루되, 시군이 사후활성화에 관한 추가 포럼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

3. 사업 선정 단계

[도] 신규 사업성 심사 시에 유지관리·사후활성화 부문에 대해 중점 심사 추진. 사업 선정 시 사후관리 소홀 시군에 대해선 사업 개소수 제한, 사업비 삭감 등 패널티 부여

※ 도 차원의 신규 사업성 평가 시에 사후관리 부분을 중점 심사하고 평가 점수 배점

※ 황색·적색지구의 개소수, 관리 패키지 적용 마을수, 행정 협조 등을 종합하여 사후관리 노력이 부족한 시군을 파악(비공식적)

[센터] 사후관리 담당기관 간에 구축된 연동체제 운용, 사후성 검토, 사후관리 패키지 운영 등을 통해 축적된 시군별 사후관리 추진 실적과 관련된 정보를 도에 지원하는 등 사업 심사를 측면에서 지원

4. 계획 수립 단계

[지구]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유지관리·사후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주민참여형 계획 방식을 통해 내용 완성도를 높여나감. 아울러 사후 유지·운영에 대해 주민이 합의한 사항만을 계획서에 반영하도록 노력(계획 컨설팅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계획서에 수록하는 것 지양)

[시군] 계획 승인 시 유지관리 및 사후활성화 부문의 포함 여부는 물론 관련 내용의 구체성·현실성을 세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농촌센터에 사후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 계획서의 주민역량강화 부문에 사후 유지·운영에 관한 주민 교육과정 이수(농촌센터 주관) 내용이 배정되어 있는지 확인

[도] 시군의 승인 보고 접수 시 사후성 검토 여부(자체 검토, 센터 의뢰 등) 및 검토 결과를 확인.

[센터] 사후성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속히 회신

※ 이를 위해 기존 제도적 허용 범위(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지침 상의 계획수립 기준,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의 설치·운영 기준) 내에서 검토 기준(검토 항목)을 운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을 확인할 수도 있음



5. 사업 시행 단계

[지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에 포함된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사후 유지·활성화 교육과정(농촌센터 주관)을 이수하여야 함. 또한 시군(또는 농촌센터)의 사후성 검토 결과에 따른 사후 이행 조치 사항을 주민 자율로 작성하여 사업 준공 검사 시에 시군 행정예 제출함

[시군] 사후활성화 역량강화 교육과정 이수를 유도.

[센터] 사후관리 및 활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료 마을에 대해 교육 이수 증 발급. 교육과정 중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주민자율로 사후 유지·활성화 이행 조치 사항을 작성하도록 유도

6. 준공 검사 단계

[시군] 주민(특히 운영위)이 사후활성화 역량강화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검사하고, 동시에 주민자율 사후 유지·활성화 이행 조치 사항도 검사하도록 함

[도] 시군 준공검사 결과 보고 접수 시 사후활성화 역량강화 시행 여부 확인.

7. 운영 관리 단계

[지구] 운영위원회는 시장·군수와 함께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에 의거하여 사후관리의 책임자로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함. 주민 또는 운영위원회는 **부진예방 및 활성화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중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기 회복을 도와주는 **정상화(리턴) 패키지**도 도입·운용하도록 함

[시군] 사후관리의 공동 책임자로서 정기 및 수시 **점검 활동**을 수행하고,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는 물론 운영 주체의 활동성, 사업의 활성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부진 사전예방 및 사후활성화 **패키지 적용**을 지원하여야 함. 지구 운영위원회 및 주민이 지구 상황에 맞추어 사전예방·사후활성화·원상회복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지원 조치를 취하여야 함

[도] 농촌진흥청·산림청·농산물품질관리원·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사업지구별로 사후관리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또한 농촌센터와 협력하여 처방 전문가에 의한 수시 점검도 수행.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부진 징후가 포착될 경우 집중 관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농촌센터,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사전 경보 체제를 상시 가동시킴.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시행한 지구의 경우에는 공사의 협조를 얻어 사후관리 체계를 가동시킴. 시군의 **사후성검토·교육·알람·부진 예방·활성화·정상화 패키지 운용 상황**을 상시 파악하여 사후관리 노력이 소홀한 시군에 대해선 행정적 노력을 취하도록 독려

[센터] 지구별 사후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교육·알람·부진예방·활성화·정상화 패키지**에 포함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각 프로그램은 지구별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패키지**로 운영되도록 전문적 조치를 취함



IV. 사후관리 과제별 실행 방안

1. 경기도 농촌개발사업 사후관리의 과제

- 사전 예방과 신속 대처라는 대원칙 아래 사업 전(全)과정에 걸친 환류성 강화, 전문화된 관리 패키지 도입, 현장 중심의 연동체제 가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시행 방안을 마련함. 이런 방향 하에 도출된 경기도 농촌개발사업 사후관리 과제는 다음과 같음

- ① 사업 단계별 사후성 검토 시행
- ② 사후관리 주민 책무성 강화
- ③ 사후관리 계획 내용 강화 및 실천
- ④ 전문기관을 통한 사후관리 패키지 현장 적용
- ⑤ 부진예방·조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이수제 시행
- ⑥ 사업 선정 시 사후관리 패널티 적용

2. 단계별 사후성 검토

- 부진·일탈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단계별로 구체화되는 사업계획에 대해 정상 운영이라는 목표 실현 과정으로서 사후성을 검토
 - 예비계획에 대한 사업성 평가 시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행정 승인 시에 부진 예방과 사후 활성화도라는 측면에서 체계적 검토를 시행

1) 사업 예비계획에 대한 사후성 검토

- 사업 신청 단계에서 시군 담당 공무원은 사업예정지구 주민이 작성한 예비계획서 및 증빙자료의 내용 중에 사후관리 내용과 증빙이 충실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되거나 부실 작성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이 완벽하게 구비되도록 행정 지도를 시행
 - ※ 운영관리 부문 계획 내용이 지침대로 충실히 작성되었는지 검토
 - ※ 사후관리 주민 결의서 및 교육(현장포럼) 증빙자료 첨부 여부 확인

- 신규 사업성 평가 시에 경기도는 시군이 제출한 예비계획서 및 증빙자료에서 사후관리 부문이 충실하게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심사에 있어 사후관리 부문이 반드시 평가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시군에 공지하도록 함
 - ※ 예비계획서 운영관리 부문의 계획 내용 및 증빙자료 포함 여부 확인
 - ※ 신규 사업성 평가 시 사후관리 부문 심사기준 마련과 시군 사전 공지



경기도 신규사업성 평가에서 사후관리 항목 심사기준 수정안

12. 사후 유지관리 등을 위한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 매우 우수(10점) □ 우수(8점) □ 보통(6점) □ 미흡(4점) □ 매우 미흡(2점)

- * 유지·운영관리계획이 사업완료 후에도 실제로 적절히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 유지 관리자 지정 및 관리자의 능력, 발생비용 예측 및 유지관리비 조달계획 등
- * 지속 및 실현가능한 시설물 및 S/W 계획 수립 여부
- * 사후관리에 관한 주민 교육(현장포럼 등) 및 주민 사전숙의 여부(추가)
- *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 결의의 수준(추가)

13. 사회적 경제 조직 등 운영주체의 육성 및 활용 계획 포함 여부

- 조직 구성(3점) □ 계획 포함(2점) □ 계획 없음(0점)

- * 자생적인 자치모임(마을회, 동아리, 작목반 등)의 발굴
- * 사회적 경제조직(마을기업, 농촌공동체 회사 등)으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컨설팅 등 계획의 적절성

- 경기도가 신규 사업성 평가 시엔 유지관리 및 사후활성화 측면에서 사업 내용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진 및 일탈 운영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농촌센터의 현장포럼 수행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2) 기본계획에 대한 사후성 검토

- 시군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기 이전에, 입안 과정에서 주민 또는 추진위가 사후관리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유지관리나 사후활성도에서 불확실성이 예측될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별도의 조치나 주민행동을 담은 계획이 입안되도록 행정 지도를 수행
- 시군이 기본계획에 대한 사후성을 검토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할 경우에는 경기농촌센터 등 전문기관이나 시군 중간지원조직에 의뢰하여 **부진가능성, 사후활성도, 조기활성화 대책** 등을 검토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사업지구에 환류하여 사후관리의 대책이 충실히 반영된 계획이 수립되도록 선행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기본계획에 대한 사후성 검토 시 주요 점검 사항

※ 각 항목에 대해 정상, 약간 부실, 불확실, 크게 부실, 비정상으로 판단하고 불확실, 부실, 비정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

※ 검토서 작성 양식은 별도로 마련하여 사용 가능(농촌센터에 협조)

① 사업 및 시설물 운영조직(인력)의 명확성

- * 사업 운영조직의 명확한 구성과 운영 능력
- * 유지관리 주체의 확실한 설정과 책무성 인식

② 시설 유지관리비 및 사업운영비(재원)의 충당 가능성

- * 조성될 시설물의 수선 등 유지관리비 충당 가능성
- * 사업 운용을 위한 재원의 지속적 확보 가능성

③ 운영 프로그램의 현실성

- * 시설 또는 사업운영 프로그램의 단기간 내 실현 가능성
- * 시설 또는 사업운영 프로그램의 향후 지속 가능성

- 시군은 기본계획 승인 사항을 도에 보고할 경우에는 사후성 검토 결과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보고하고, 농촌센터가 검토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도 보고 시에 포함시키도록 함



3) 시행계획에 대한 사후성 검토

- 시군은 시행계획을 승인하기 이전에, 계획 입안 과정에서 주민 또는 추진 위가 계획 시설물별, 사업종류별 유지관리 및 운영활성화를 세부 실행 대책을 충분히 토론하고 이에 대한 실행의지 결집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운영주체가 확립되지 못하거나 운영 부진, 일탈 등 비정상적 상황이 예측될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별도의 조치나 주민행동을 담은 시행계획이 입안되도록 행정 지도를 수행
- 시군이 승인 이전 시행계획에 대한 사후성을 검토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할 경우에는 경기농촌센터 등 전문기관에 요청하여 부진가능성, 사후활성도, 조기활성화 대책 등을 검토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사업지구에 환류하여 사후관리의 대책이 충실히 반영된 계획이 수립되도록 선행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시군은 시행계획 승인 사항을 도에 보고할 경우에는 사후성 검토 결과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보고하고, 농촌센터 등이 검토했을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도 보고 시에 포함시키도록 함

시행계획에 대한 사후성 검토 시 주요 점검 사항

- ※ 각 항목에 대해 정상, 약간 부실, 불확실, 크게 부실, 비정상으로 판단하고 불확실, 부실, 비정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
- ※ 검토서 작성 양식은 별도로 마련하여 사용 가능(농촌센터에 협조)

① 세부 사업별, 시설별 운영조직(인력)의 명확성

- * 사업 운영조직의 명확한 구성과 운영 능력
- * 유지관리 주체의 확실한 설정과 책무성 인식

② 시설별 유지관리비 및 사업별 운용비(재원)의 충당 가능성

- * 조성될 시설물의 수선 등 유지관리비 충당 가능성
- * 사업 운용을 위한 재원의 지속적 확보 가능성

③ 시설·서비스의 특정집단·개인의 독점, 용도 외 사용 가능성

- * 사유화, 용도 외, 법 위반 등 사업목적 일탈 가능성
- * 시설 임대 등 외부 위탁운영 가능성(위탁운영자의 지속성)

④ 개별 운영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 * 시설, 서비스 운영 프로그램의 실제적 효과 발휘 가능성
- * 시설, 서비스 운영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필요시 연계 사업 검토)

⑤ 수익 발생 시 회계처리의 투명성

3. 사후관리에서의 주민 책무성 강화

■ 사후관리 중요성 선 인식하고 사업 신청 여부 결정 유도

- 사업 추진 주민이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사후 유지 및 운용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업 자체의 추진 여부를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시군 행정이 유도해야 함.

- 시군은 주민이 토론회, 교육, 회의 등을 통해 스스로 유지관리 인력이 있는지, 유지·운영비 충당이 가능한지, 추진위의 사업수행 능력은 충분한지 등을 면밀히 따져 사업 신청을 숙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권장
 - ※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가 불확실할 경우 사업 신청을 유예하거나 포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

- 사업 신청 이전에 농촌현장포럼을 운영할 경우 그중 1시간 이상은 사후 유지·운영에 대해 숙고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
 - ※ 교육 과정은 간략히 기록하여 사후관리 예비계획의 증빙 자료로 활용
 - ※ 1시간 정도 교육이 부족할 경우 필요시 시군 역량강화사업비를 별도 투입하여 1회차분 이상을 추가 운영하는 것도 가능



- 주민은 사후유지에 관한 책임의식 형성과 이의 이행 결의를 표면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사업신청서 증빙자료에 첨부(특히 사업추진위원회는 필수로, 일반 주민은 선택으로 서명)

※ ‘0000사업 부진 예방 및 활성화를 위한 주민 책임 이행 결의서’

‘00지구 0000사업 부진 예방 및 활성화를 위한 주민 책임 이행 결의서(예시)’

사업예정지구: 경기도 00시/군 00읍/면 00리 일대 000(대표자) 외 00명

위 사업지구 주민 및 사업추진위원회 일동은 정부가 지원하는 0000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물 등과 사업 전반의 사후 유지·운영의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음 사항의 이행을 결의하는 바임

1. 시설물 이용이 저조, 방치, 훼손되거나 사업운영이 부실, 사유화, 용도 외 사용, 법 위반 등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유지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한다.
1. 혹시 사업이 부진하거나 일탈이 예상·발견될 경우에는 운영 정상화를 위한 모든 자구적 조치를 즉각 취한다.
1. 사업의 부진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 및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바에는 연관된 주민 모두가 바로 참여하여 사업 활성화 대책을 적극 실행한다.

0000년 11월 00일

0000사업지구 추진위원회 위원 (성함)	(서명)	(연락처)
※ 서명란 아래로 반복		
주민 (성함)	(서명)	(연락처)
※ 서명란 아래로 반복		

※ 본 양식의 빈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이어서 서명 가능

4. 각급 계획에서의 사후관리 실행력 제고

1) 예비계획에서의 사후관리 실천성 확보

- 현재 사후관리 부문 지침에선 구체적 유지관리계획을 서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작성된 예비계획서를 보면 사업지구와의 구체적 연관성이 적은 일반적 사항만 기술하고 있는 실정
- 예비계획에서부터 사후관리에 대한 주민 책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것의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 무엇보다 주민이나 추진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공론화시키는 과정을 거쳤는지 계획서에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 ※ 현장포럼, 별도 주민회의 등을 통해 사후관리에 관한 예비교육을 이수하고 이에 대해 주민이 숙의하는 과정을 계획서에 반영
 - ※ 주민이 '사업 부진 예방 및 활성화를 위한 주민 책임 이행 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의를 다지는 과정을 계획에 반영

<현행 운영관리 부문 작성 지침>

- 주요 시설운영 관련 참여주체·조직간 협의체계 구축·운영 실적 및 추진계획
- 사업시행 중과 준공이후 시설물 및 프로그램 운영조직 및 비용마련 방안 기술
 - ※ 지역 주민의 참여현황을 바탕으로 사업운영 조직을 제시
 - ※ 사업기간 및 준공이후의 시설물전체, 부분별 운영관리 및 활용계획(프로그램, 운영방안), 유지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유지관리 조직-협의내용, 지침 등)으로 기술
 - ※ 지속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및 운영 유지를 위한 관리비용 확보방안 등을 제시(유사시설 사례 참고하여 비용 추정)
 - ※ 준공 이후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시군의 역할 제시

<운영관리 부문 작성 지침에서 추가되는 사항>

- ※ '사업 부진 예방 및 활성화를 위한 주민 책임 이행 결의서' 작성
(별도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추진위원회 위원은 필히 서명하도록 함)
- ※ 현장포럼, 주민워크숍 등을 통해 사후관리에 대한 예비교육(1시간 이상)이나 숙의 과정을 확인하는 증빙(교육프로그램, 회의록, 사진 등) 제시



2) 기본계획에서의 사후관리 실행력 확보

- 기본계획은 사업이 선정되어 그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모든 부문의 계획 내용이 현실화되어 운영이 활성화되는 것에 초점을 두되, 시설물 등의 유지 대책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현재 기본계획서 상의 사후관리는 시설물의 통상적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그것보다는 사업 자체가 활성화되어 부진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함
- 기본계획에서는 ① 사업 및 시설물 등 운영조직의 명확성, ② 시설유지비 및 사업운영비의 총당 가능성, ③ 운영 프로그램의 현실성이 계획서 전반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작성해야 함
- 사후관리 부문에서는 시설물 운영조직, 유지관리비 총당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함

계획 전반에서 사후관리 실행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항

- **사업 운영 조직 및 운용 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
 - 구성된 사업 운영 조직(운영 주체)을 명확하게 제시
 - 핵심 구성 인력의 사업 수행 능력(경력, 교육이수, 유사 운영경험, 근무형태 등)을 정확하게 기술
- **사업 운용 재원의 총당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 조직, 시설, 서비스 운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방안을 타당하게 기술
 - 수익금, 기금 등을 통한 사업 운영비의 지속적 확보 방안을 타당하게 기술
- **사업 운영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서술**
 - 운영 프로그램별 실행 주체, 대상, 유관 사업 등을 명확하게 제시
 - 운영 프로그램별 단·장기 운영 방법, 유관사업 추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계획 전문가의 아이디어는 제외하고 주민이 합의한 사항만을 제시

사후관리 부문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항

□ **시설물 등 운영조직과 인력을 명확하게 제시**

- 시설, 서비스, 기자재별로 유지관리 조직과 책임자를 분명하게 설정

□ **시설 유지관리비의 충당에 관한 사항을 타당성 있게 적시**

- 조성될 시설물의 수선 등 유지관리비 충당 방안을 시설 종류별로 제시

□ **시설물 등의 활용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설 종류별 이용 주체, 프로그램, 관리방안 등을 명확하게 제시
- 시설물 등의 종류별 활용에 관한 주민 합의 사항을 제시

※ 계획 전문가의 아이디어는 제외하고 주민이 합의한 사항만을 제시



3) 시행계획에서의 사후관리 실행력 확보

- 시행계획에서는 ① 세부 사업별, 시설별 운영조직(인력), ② 시설별 유지관리비 및 사업별 운용비(재원)의 총당, ③ 주민 합의된 운영 프로그램, ④ 수익 발생 시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시행계획 전반에서 사후관리에 관한 핵심 사항

- 세부사업 종류별 운영 조직 및 운용 인력에 관한 구체적 사항
 - 세부 사업별 운영 주체를 명확하게 제시
 - 세부 사업별 운영 인력의 수행 능력(경력, 교육이수, 유사 운영경험, 근무형태 등)을 정확하게 기술
 - 세부 사업별 운용 자원 총당에 관한 구체적 사항
 - 조직, 시설, 서비스 운용을 위한 자원의 확보 방안을 자세하게 기술
 - 수익금, 기금 등을 통한 사업 운영비의 지속적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수익금 발생 시 회계처리 방안
 -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사항
 - 운영 프로그램별 실행 주체, 대상, 유관 사업 등을 명확하게 제시
- ※ 계획 전문가의 아이디어는 가급적 제외하고 주민이 합의한 사항만을 제시

시행계획 사후유지관리 부문의 핵심 사항

- 시설물 등 운영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
 - 시설, 서비스, 기자재별로 유지관리 조직과 책임자를 분명하게 설정
 - 시설 종류별 유지관리비의 총당에 관한 사항
 - 조성될 시설물의 수선 등 유지관리비 총당 방안을 시설 종류별로 제시
 - 시설물 등의 활용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시설 종류별 이용 주체, 프로그램, 관리방안 등을 명확하게 제시
 - 시설물 등의 종류별 활용에 관한 주민 합의 사항을 제시
- ※ 계획가의 아이디어는 가급적 제외하고 주민이 합의한 사항만을 제시

4) 운영종료 후 전문가 진단을 통한 부진가능성 파악

- 사후관리 대상 마을의 운영 활성화 정도에 관한 전문가 진단을 시행
- 사후관리 마을진단 항목

1. 운영 활성화 측면의 진단 항목

1) 운영조직의 적정성

(가) 지구(마을)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활성화 상태

- ① 정규 회의 개최 여부, 연간 회의 일수,
- ② 운영위원회 참석자 비율(평균)과 운영 위원들의 참여 의지

(나) 사업 주도자 그룹의 활동

- ① 몇 명이 주도 그룹에 속하는지
- ② 사업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리더 그룹이 존재하는지(위원장만 열성인지)

(다) 사업 운영을 위한 법인(영농조합법인, 사회적 기업 등) 구성

- ① 전체 참여 가구, 실질적 참여 가구수
- ② 법인 내부의 조직 구성(조직도 구성 등)

(라) 운영조직은 대표성을 갖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2)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가) 주민 간(권역인 경우 마을 간) 소통을 위한 노력 상태

- ① 정기적 회의 개최, 회의시 원활한 의견 교환,
- ② 지도자 그룹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더러 있는지

(나) 사업운영조직 내부의 단합

(다) 사업조직(법인 등)과 마을조직(마을총회 등)과의 관계

- ① 명문화된 정관, 협약의 존재 여부
- ② 마을 총회 시에 사업성과를 보고하거나 사업관련 의결 과정이 있는지



(라) 사업 참여 인원과 마을 주민과의 의사소통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 ① 사업-마을 간 기존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있는지
- ② 사업-마을 간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고 있는지

(마) 평소 친목 도모나 갈등 예방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 ① 친목 도모 잔치, 여행, 공동식사
- ② 마을내 소그룹 모임이 있는지, 마을과의 관계는 어떤지

3) 회계 및 수익 관리의 합리성

(가) 회계처리의 투명성(법인통장, 법인카드 사용 등)

(나) 지출 및 수입 관리 대장(전산등)·증빙자료 비치관리 여부

(다) 수익배분의 공정성

(라) 기금 전출 등을 통한 수익의 지구(마을) 환원: 금액, 원활한 환원?

(마) 수익-비용, 순수입 분석의 시행 여부

4) 사업의 지속가능성

(가) 지속적인 마을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및 재원확보

- ① 인적자원 확보: 상시 근무자 확보, 사업 참여 후보군
- ② 재원확보: 기금확보

(나) 현재 리더가 물러나면 사업이 지속할지(새로운 주체 후보군이 있는지)

- ① 귀농귀촌인의 참여 규모와 역량
- ② 청장년층의 참여 정도
- ③ 현재 리더 교체 후의 상황

(다) 체험 자원이나 프로그램의 매력도 어느 정도인지

- (라) 마을 재방문이 어느 정도인지
- (마) 최근 수익금(총수익과 순수익) 발생 추이
- (사) 사업 메뉴를 지속적으로 갱신할 능력이 되는지

5) 운영 프로그램의 활성화도

- (가) 운영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
 - ① 계절별 구성
 - ② 연령층별 구성
 - ③ 참여 집단별 구성
- (나) 프로그램의 특화 정도: 전국 대비 어느 정도 고유한 것인지
- (다) 프로그램의 매력 정도: 재방문/주민참여를 유도할 정도인지
- (라) 수익창출/주민참여를 주도하는 핵심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종류와 체험규모는
- (마)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주민의 참여 수준은

2. 시설 활성화 측면의 진단 항목

1) 시설개요

- (가) 시설 종류, 종류별 규모, 사업비
- (나) 시설의 용도
- (다) 시설의 소유자(토지소유자와 시설소유자를 구분하여 파악)



2) 시설 운영조직

- ① 마을총회 등 기존 마을공동체가 주체인지
- ② 영농조합법인 등 별도 사업조직이 주체인지(또한 마을과의 관계는 어떤지)
- ③ 권역사업인 경우 누가 운영 주체인지(마을별 역할 분담이 어떻게 했는지)

3) 시설 활성화도

(가) 가공, 판매, 홍보 등을 통한 수익 창출(매출, 수익)

(다) 시설의 정상, 부실, 미운영, 방치 등 파악
 부실(최근 1년간 수익이 없거나 방문객이 1천명 미만)
 미운영(6-1개월간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방치(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라) 시설의 사유화, 용도외 사용, 범위반 등 비정상 운영 여부
 범위반(시설 설치 목적외로 사용)
 범위반(불법 증개축 등 건축법 위반, 행정명령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마)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비 확보(총당금 적립 등)
 ① 시설 유지비 확보(전기료, 난방비, 수선료 등)
 ② 인건비 확보(혹은 공공에서 지원/사무장 지원)

4) 시설관리

(가) 청소 및 주변 정비

(나) 파손 여부

5) 안전 위생 관리

(가) 안전관리자 선임 등 안전관리 조직 구성

(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관리상태

(다)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식자재, 조리기구, 개인위생 등 위생 관리 상태

(라) 숙박을 하는 경우 숙박시설의 청결 위생의 상태

3. 향후 마을발전계획(구상안)에 대한 진단 항목

1) 향후 마을 활용 자원의 적합성

(가) 이용하고자 하는 핵심 자원의 가치 정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등

(나) 마을 특성에 잘 부합하는 자원 선택인지

(다) 마을 주민을 잘 포괄할 수 있는 자원인지

(라) 선택한 (핵심)자원의 매력과 특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2) 사업 방향과 과제의 현재와 미래 수용성

(가) 사업 방향이 현재와 미래에 적응성이 높은지

- ① 현재
- ② 미래

(나) 도출된 사업 과제가 적절한지: 사업 메뉴(과제) 구성

3) 사업 구상안에 대한 주민의 합의와 참여 수준

(가) 사업구상안에 대해 주민이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지

- ① 구상안에 대한 주민의 이해 수준
- ② 주민 토론 및 합의 절차가 있었는지: 현장포럼, 이외

(나) 사업이 추진된다면 주민참여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

(다) 귀농귀촌인, 특히 차기 예상 운영주체의 참여 수준은



4) 사업 구상안의 실현 가능성

(가)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 가능성: 정부 사업 신청

(나) 계획 실현을 위한 주민의 준비 상황

- ① 사업 실현을 위한 조직의 가동 능력
- ② 마을 인적, 물적, 비물적 자원의 동원 능력

(다)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외부와의 교류망 형성 수준과 태도

- ① 적극적 수용 의지와 태도

(라)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마) 계획된 사업을 책임질 주체가 존재하고 있는지

(바) 구상된 프로그램의 적실성; 마을 실정에 맞는 것인지

4. 현재 마을에 드러난 문제점과 현안 과제

1) 마을의 주요 문제점

2) 현안 과제

5. 진단 종합

1) 현재

정상 / 약간 부실 / 운영 부진 / 사유화 / 탈법

2) 미래 가능성

녹색 / (황색 점멸) / 황색 / (적색 점멸) / 적색

3) 사업 관리 중점 과제

5. 부진 예방용 관리 패키지 운영

- 시군은 주민이 사업을 준비·시행·운영함에 있어 부진 등 비정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구에 부진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사업지구 주민과 추진위원회는 농촌센터에서 운영하는 일련의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 유지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도, 시군 행정과 농촌센터는 사후관리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부진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징후가 나타난 지구에 대해선 조기 정상화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미리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상시 가동하여야 함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구(마을)에 대해선 준비, 시행, 운영 각 단계별에 걸친 일련의 교육 프로그램이 묶음제(패키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추진위(주민)에 인지시키고 농촌센터와 협의하여 교육 패키지가 마련되도록 관련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함



1) 교육 패키지 운영: 3단계 묶음 교육과정

① 사업준비 단계 교육 프로그램

- 미래설계형 농촌현장포럼(1시간 이상): 현재 정부 혹은 자치단체가 지원하여 농촌센터가 운영하는 현장포럼을 활용하여 1시간 이상 사후관리에 관한 주민 교육을 실시
- 별도의 교육과정(1회차분 이상): 시군이 역량강화사업비나 자체 재원을 이용하여 사후 유지·운영에 관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현장포럼 과정에 연속하여 시행
-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 사후관리의 중요성과 어려움 인식
 - 사업신청 이전 주민의 심사숙고 과정
 - 주요 운영프로그램 도출과 합의
 - 유지·운영에 관한 주민 자율 결의 등

② 시행 단계 교육 프로그램

-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사업 자체 주민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사후 유지운영에 관한 교육과정을 추진위나 주민이 이수할 수 있도록 초기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예비계획 신청, 기본계획 승인 시 이에 관해 확인하고 불비 시에 수정 요구)
- 사업 추진위(운영위)는 반드시 이수할 것을 권장하며 주민도 되도록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 농촌센터에서는 회당 20시간 분량의 과정을 연 2-3회 반복 운영 되도록 하고 수요에 따라 개설 횟수는 변동될 수 있음

□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 시설물 등 유지관리와 사후 활성화 중요성 재인식
- 사후 유지·운영 과제 및 세부 요소 파악하기
- 유지관리 및 운영의 주체 재확인과 역할 인식
- 지속가능한 시설물 및 사업 운영 프로그램 모의 실행
- 유지운영비 총당(재원)을 위한 주민자율 재정계획 모의 실행
- 부실 및 일탈 유형별 다양한 사례 교육
- 비정상 징후 발견과 조기 정상화 프로그램 적용 안내

③ **운영 단계 교육 프로그램**

- **현안 해결형 현장포럼 운영:** 부진 예방 또는 활성화·정상화를 위한 현장포럼을 운영할 수 있음. 기존 5-6회차 포럼에 2-3회차 분량을 추가하여 유지·활성화에 중심을 둔 포럼 운영 가능

※ 현재에도 부실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지구의 경우 현안해결형 현장포럼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음

□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 시설물, 서비스 등 유지의 주요 상황에 대한 주민 인식 공유
 - 사업 운영 상태에 대한 주민·전문가 인식 공유
 - 부실의 가능성 혹은 진행 상태에 대한 주민 자율 진단(문제 드러내기)
 - 부실 양상과 부진 가능태(유형) 도출하기
 - 부진지구: 부진 유형 파악과 정상화를 위한 처방의 방향 구상
 - 처방 패키지와 연결될 경우: 처방 프로그램과 주민 행동계획 마련
- ※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컨설팅 등 별도 처방 프로그램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과 처방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개선 효과가 배가되는 경향이 있음



2) 조기 알람(주의·경보) 패키지 상시 가동

- 시군, 도에서는 사업 시행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및 사후 유지·운영에 관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망을 가동**
 - 도: 농진청, 산림청, 농품원 등과 함께 정기 점검 시행
농촌센터, 시군, 공사와 협력하여 시군별, 지구별 종합 상황 파악
 - 시군: 수시로 사업 시행 상황과 종료 이후 유지운영 점검
사업지구별로 알람 패키지가 적용·운영되도록 행정 조치
농촌센터, 공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구별 종합 상황 파악
 - 농촌센터: 사후관리 알람 패키지 운영

- **알람 패키지의 주요 내용**
 - ※ 농촌센터는 시군에서 업무 요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일련 프로그램을 지구별로 적용하여 부진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연단위로 업무협약 갱신)

- ① **역내 순환 모니터링(닥터 투어링)**: 권역별로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여 역내를 순환하면서 지구별 유지·운영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징후 포착 시 활성화 패키지를 처방하는 프로그램

- ② **찾아가는 서비스**: 농촌센터에서 시군이나 사업지구로 전문가를 파견하여 유지 및 운영 상황을 전방위적으로 파악하는 프로그램

- ③ **전문 도우미 서비스**: 시군, 주민이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가를 신속 파견하여 유지·운영 상황을 파악하거나 최적 처방안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 ④ **사업 관계자 점검 워크숍**: 담당 공무원, 공사·유관기관 관계자, 농촌센터 전문가, 주민 그룹 등이 모여 유지운영 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프로그램

- ⑤ **상황 종합 분석과 신호 판별**: 도의 협조를 얻어 시군, 공사, 사후점검기관(농품원 등)의 사후관리 점검 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점검 요소별 부진·일탈의 정도(주의보, 경보, 긴급경보 3단계 알람)를 판단하는 프로그램

⑥ 사후관리 신호 보내기(시그널링): 지구별 유지·운영 상황에 대한 세부 정보와 부진·일탈 요소를 행정 공무원이나 추진위에 알려주는 프로그램

□ 지구별 유지·운영 상황 관리(신호 판별)

※ 신호 구분: 정상(녹색), 주의(녹색 점멸), 경보(황색, 황색 점멸), 긴급경보(적색)

① 정상: 녹색 지구

② 주의(녹색 점멸): 성과가 약간 저조한 지구(부실 가능성이 예견)

③ 경보(황색): 심한 부실, 훼손, 일시적 미운영

(황색 점멸): 부실·훼손 심각, 연속적 미운영, 일시 일탈(성과는 정상)

④ 긴급 경보(적색): 장기 방치, 고착화된 일탈(장기 사유화, 용도 외, 위법) 지구

⑦ 신호별 대처 요령 교육: 시군, 지구(추진위)에게 상황 신호를 보내는 것과 함께 향후 부진이나 일탈로부터 정상화시킬 수 있는 일련의 처방 프로그램들의 특징, 세부 내용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 주의보 대응

- 부진 가능 요소 파악, 수시 모니터링 시작
- 부진 예방 패키지(붐붐) 처방

※ 경보 대처

- 집중 모니터링(일정 기간 연속 모니터링) 시행
- 황색지구 정상화 패키지(파워업) 처방

※ 긴급 경보 대응

- 일탈 대응 전략적 행정조치: 용도내 전환, 용도 변경, 원상 복구 명령, 용도외 승인, 운영자 변경 명령, 사업비 회수, 수사 의뢰, 타 사업 신청 제한 등
- 적색지구 정상화 패키지(리턴) 처방



3) 부진 예방을 위한 활성화 패키지

-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거나 정상이지만 성과가 약간 저조한 지구를 대상으로 공동체와 운영자의 활력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 부진 예방 활성화 패키지: **붐붐 패키지**
 - ※ 정상 운영인 점을 감안 다음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 다발 구성
 - ① 운영 주체의 전문성 강화 및 목표 재인식 프로그램
 - ② 지속적인 비용 충당을 위한 재정 선순환 사업구조 정착
 - ③ 운영주체와 공동체 간의 갈등 예방을 위한 소통 프로그램
 - ④ 부실 징후 시 조기 탈출을 위한 운영자 행동 프로그램
 - ⑤ 사업 활력을 유지하는 핵심 서비스 유지
 - ⑥ 관련 후속 사업 추진 방안

6. 부진지구 정상화 패키지 운영

- 비정상 지구로 경보 혹은 긴급 경보가 전달된 경우 시군 및 주민 대표(추진위)는 사업 정상궤도 (재)진입을 목표로 지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 프로그램 모듈에다 선택 프로그램 모듈을 조합하여 정상화 패키지를 구성
 - ※ 시군은 농촌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관리 패키지를 구성하되 주민의 요구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프로그램 다발을 구성

- 황색지구 활력 제고(파워업) 패키지
 - ※ 활력 제고, 이탈 방지를 목표로 다음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 다발 구성
 - ① 운영 주체 재조직화와 전문 역량 강화
 - ② 유지 운영비 충당을 위한 재무구조 형성
 - ③ 핵심 프로그램 재설계

구분	프로그램 모듈	비고
기본	* 종합 혹은 부분 컨설팅 * 운영 프로그램 리모델링 혹은 재개발(기존 폐기) * 주민 교육 혹은 자율 속의 프로그램 * 운영 주체 재조직화	적극 권장
선택	* 계획 재수립 * 시설 리모델링 방안 * 갈등 조정 프로그램 * 공동체성 회복 프로그램 *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 * 주민 자율 복지문화활동 소액 지원 * 주민 자율 환경개선 재료비 소액 지원 * 교체 운영자 연관사업 신청 지원 * 사업 후유증 치료 프로그램	농촌센터, 시군, 주민대표가 협의하여 지구 특성에 맞춰 프로그램 선택



□ 적색지구 정상 회귀(리턴) 패키지

※ 일탈에서의 회귀, 사업 목표 재설정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 다발 구성

- ① 운영 주체 재설정
- ② 사업 목표 및 프로그램 전면 재설계
- ③ 필요시 특단의 행정조치 단행

구분	프로그램 모듈	비고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탈 대응 전략적 행정조치 지원 * 운영 주체 재조직화(운영자 변경) * 컨설팅 혹은 전문가 파견 	적극 권장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교육 프로그램 * 주민 자율 숙의 프로그램 * 운영 프로그램 리모델링 * 운영 프로그램 재개발(기존 폐기) * 계획 재수립 * 갈등 조정 프로그램 * 공동체성 회복 프로그램 * 주민 자율 복지문화활동 소액 지원 * 주민 자율 환경개선 재료비 소액 지원 * 사업 후유증 치료 프로그램 * 교체 운영자 연관사업 신청 지원 	농촌센터, 시군, 주민대표가 협의하여 지구 특성에 맞춰 프로그램 선택

□ 정상화 패키지를 구성하는 프로그램 모듈의 메뉴와 세부 내용

정상화 패키지에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 모듈의 메뉴

① **종합 컨설팅**

- 자원 조사, 지구 현황 분석, 운영 프로그램 분석, 부진 원인 분석
- 정상화 과제 도출, 과제별 시행 방안, 주민 행동계획, 행정 지원 사항

② **계획 재수립**

- 사업 추진이 오래돼 기존 계획이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 변화된 사업지구 상황(추진 인력, 환경 변화)에 맞추어 마을계획 수립

③ **운영 프로그램 리모델링**

- H/W 이용, S/W 운용 프로그램 부분·전면 개편
- 복지문화, 공동체, 체험소득 등의 프로그램 개편

④ **공동이용시설, 소득시설, 기반시설 등의 개보수·리모델링 방안 연구**

⑤ **신규 운영 프로그램 개발(기존 프로그램 효과 소멸)**

- 마을 자원 재조사, 특화자원 재발굴, 인적 자원 재발굴
- 소득체험, 복지문화, 시설운용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⑥ **주민 교육 프로그램**

- 주민 공동체 역량 강화: 현장포럼 운영
- 운영자 사업역량 강화: 재무회계, 마케팅, 웹홍보, 품질관리, 사무보조 등 교육

⑦ **속의 및 의사결정 프로그램**

- 주민회의 지원, 그룹 토론 지원, 주민-전문가그룹 합동 워크숍
- 퍼실리테이션 파견, 아이스 브레이킹 지원

⑧ **갈등 조정 프로그램**

- 이해 관계자 그룹별 현장포럼, 갈등 해소 전문가 투입
- 갈등 해소 특별 과정 운영

⑨ **공동체성 회복 프로그램 운영**

- 취미 체육 등 동호회 활동 지원, 연령층별 복지문화 프로그램 운영
- 귀농귀촌인 대상 프로그램, 학생 문화 프로그램



⑩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

- 지역순환 전문가(닥터 투어링), 마을별 전문가(패밀리 닥터), 수시 파견 전문가
- 분야별 전문가 그룹 투입, 특정 분야 전문가 선별 투입
- 전문가 현장 참여에 의한 장기 관찰 프로그램

⑪ **후속 사업 신청 지원 프로그램**

- 신규 운영자 가정 후속 사업 컨설팅,

⑫ **주민 자율 활동(소득·일자리 활동 포함) 지원 프로그램**

- 자율 기획 문화행사(마을축제, 동호회 활동, 학생 활동 등) 소액 지원 (대략 500만원 이하 수준)
- 주민 체득 기술 활용 소득 일자리 마중물 활동 지원(외부 강사료 지원)

⑬ **주민 자율 환경개선 지원 프로그램**

- 주민 자율 환경개선을 위한 소액 재료비 지원(대략 1천만원 이하 수준)
- 주민 노력 제공(사업 과정 참여)

⑭ **운영주체 재조직화 및 법인 재구성 프로그램**

- 사업 운영 주체 리스트럭처링(재조직화)
- 사업 추진 법인 재구성(법인, 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공동체 회사 등)

⑮ **부분 컨설팅**

- 재무, 운영, 마케팅, 홍보, 기획, 조직, 정보, 법률, 갈등 등 수요 맞춤형 컨설팅
- 건축물 활용, 운영자·용도 전환, 위탁 운영
- 시설 유지, 하자, 안전성, 전기 등의 간이 진단

⑯ **사업 후유증 치유 프로그램**

- 인간관계, 업무과로·스트레스, 이해충돌, 상호불신·오해·편견, 업무좌절, 피로감·둔감, 의지소멸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심적 어려움 해소
- 각종 심리, 관계, 의식 치유 프로그램 운영
- 건전한 이웃 관계 형성, 업무 태도 재설정, 사업 목적 재조정(공감 소통 연대)

⑰ **일탈 대응 전략적 행정조치 지원**

- 용도내 전환, 용도 변경, 원상복구 행정명령, 용도외 승인, 운영자 변경 명령, 사업비 회수, 수사 의뢰 등에 대한 정보 제공

7. 신규 사업성 평가에서 사후관리 중점 심사(예시)

- 사업 선정 시 사후관리가 소홀한 시군에 대해선 **패널티 부여**
 - ① 사후관리 노력이 아주 저조한 시군: **사업 개소수 제한**(평가 시 감점)
 - ② 사후관리 노력이 조금 저조한 시군: **사업비 삭감**

 - 신규 사업성 평가 시에 사후관리 부분을 심사하고 **가감점제** 운용
- ※ 평가 시 가감점을 주는 기준(예시 안)
- ① 녹색점멸·황색·황색점멸·적색지구의 개소수의 합(녹색점멸1.0, 황색1.2, 황색점멸1.3, 적색1.5 가중치 부여), 감점
 - ② [(사업 지구수 ÷ 부진예방 패키지 적용 지구수)×1]-1, 감점
 - ③ [(부진 지구수 ÷ 정상화 패키지 적용 지구수)×1]-1, 감점
 - ④ [(사업추진 마을수 ÷ 사후관리 교육이수 마을수)×1]-1, 감점
 - ⑤ 행정 협조: **현장 점검**(횟수, 인원수), **거버넌스 회의 참석**(횟수, 인원수), **정보 제공** 등 총 3점, 가점



V. 추진체계 및 관리기반 구축

1. 경기도 농촌사업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 경기도 농촌개발사업 운영 협의체 구성
 - 경기도는 물론 시군, 농어촌공사, 시군 중간지원조직, 농촌센터,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업 전(全)과정 관리 연동체계 구축
 - 사업 전체 과정에 긴밀한 정보 소통과 정책 협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 기대
 - 경기농촌센터가 주관하는 경기도 관내 농촌개발 관련 공무원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
 - 주민 교육, 사업 제안서 작성, 사업 계획 수립,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 효과 우수 사례 발굴, 사후 관리 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
 - 2018년 8월 1박 2일 경기도 농촌개발 관련 전체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운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2. 경기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부진예방·사후활성화 패키지 지원

- 경기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사업 지원 경험을 토대로 사후관리 패키지 구성
 - 경기농촌센터를 중심으로 사후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자체의 사후관리를 위한 역량강화사업과 사업 본 과정에서의 사후 활성화 노력을 지원
 - 경기도 농촌개발 거버넌스 운영의 중간 거점 역할의 하나로서 농촌센터를 주축으로 사업 전 과정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사전·사후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
 - 일선 시군과의 협력: 각종 전문적 사업관리 서비스를 상시 지원
 - 도와와의 협력: 제도적 근거(지침 작성과 시행)와 지원 기반(운영 협의체, 사업 DB 구축 등) 마련
 - 유관 조직과의 협력: 농어촌공사, 도 및 시군의 관련 중간지원조직과 협력 체계 구축하여 프로그램 공동 운영 노력 시도
 - 현재는 사후관리 전담 인력,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

3. 사후관리의 제도적 근거(지침) 마련

1) 사후관리 종합지침

- 농촌개발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종합 지침 마련
 - 중앙 정부 및 광역 자치단체는 사업추진 단계별 부진 예방과 사후 활성화를 위한 사업관리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마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후관리 패키지 방안이 지침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등 사업 종류별로 사후관리를 위한 시행 지침 마련하여 일선이 수용하도록 행정 조치 필요
 - 사후관리 지침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



농촌개발사업 부진예방 및 사후활성화를 위한 시행 지침

I. 지침 개요

1. 지침의 목적
2. 지침 시행 범위
3. 사후관리 추진 원칙
4. 근거 법령 및 상위 지침
5. 용어 및 개념 정의

II. 사업 절차에 따른 담당기관별 사후관리 시행 사항

1. 사업 준비 및 신청 단계
2. 사업 선정 단계
3. 계획 수립 단계
4. 사업 시행 단계
5. 준공 검사 단계
6. 운영 관리 단계

III. 사후관리 과제별 시행 사항

1. 경기도 농촌개발사업 사후관리의 과제
2. 단계별 사후성 검토
3. 사후관리에서의 주민 책무성 강화
4. 각급 계획에서의 사후관리 실행력 제고
5. 부진 예방용 관리 패키지 운영
6. 부진지구 정상화 패키지 운영
7. 신규 사업성 평가에서 사후관리 중점 심사

IV. 추진체계 및 관리기반 구축

1. 농촌개발사업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2.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사후관리 지원
3. 사후관리 체계 확립과 계획적 운영

2) 정책제안

- 농촌개발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시군역량강화사업비 지원
 - 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사후관리사업의 필수적인 역할 대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비 중 일부 사후관리사업을 필수항목으로 지정 필요
 - 시군역량강화사업에 사후관리 도입 시 인센티브 부여

I. 정책제안 개요

- 제안제목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에 사후관리사업 필수항목으로 지정
- 주요내용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부진예방과 부실 회복을 위한 사후관리사업을 시군역량강화사업비에 필수항목으로 지정함
 - 시군역량강화사업비는 대체로 농촌현장포럼, 마을소액사업, 마을리더 및 현장활동가(공무원) 교육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현장에서 이보다 더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 폭발적인 증가, 농촌활성화지원센터로의 사후관리 지원요청 쇄도
 - 이에 사후관리지원사업 명문화 필요 및 실행 시군 인센티브 부여 필요

II. 사후관리 시범사업(경기도 가평군)실행 안

1. 시범사업 개요
 - 가평군 마을의 운영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현황 모니터링과 최신 정보를 수집함
 -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긍·부정적 요소 및 잠재적 요소 파악
 - 조직성 측면의 운영진단을 통해 마을인적자원을 분석하고 사업참여 기회 마련
 - 마을발전에 대한 마을주민의 의견 및 전문가들의 전문적 기술을 함께 나누고, 종합 토론의 기회를 마련함
 - 운영진단을 통해 추진 체계정비 및 사업 추진, 사후관리 패키지 적용 방향을 설정함
 - 향후 경기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 체계 시범모델로서 연차별 운영진단과 사후관리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부진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3. 사업비
 - 총사업비 : 38,500,000원



4. 과업 대상

- 역량강화사업 운영진단 컨설팅 대상 10개마을 선정 추진

5. 과업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 마을별 전문가 배정에 의한 운영진단
- 중간지원조직인 「경기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시·군역량 강화사업 추진
- 경기농촌활성화지원센터 : 가평군 운영 진단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운영
- 가평군 및 가평군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 : 운영진단 컨설팅 사업 협조 (예산 및 행정지원)
- 가평군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협력으로 과업진행

6. 과업의 주요내용

- 마을별 운영 현황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마을 현황 파악 현장 조사
- 마을현황 진단을 위한 전문가 분석

7. 단계별 추진내용

2018년 본 과업의 추진 내용			2019년 (예정 안)
1단계	2단계	3단계	적용단계
사전준비단계	현황조사 및 분석	진단 및 컨설팅	사후관리 패키지 적용
사전회의 TF, 센터 공동워크숍 과업 협약 및 착수 (마을사전조사)	공동회의 1,2,3차 (전문가, 공무원, 센터) 전문가 별 마을조사 (주민대표자, 주도그룹 심층면담)	조직 능력 진단 마을 운영 진단 주요현안 및 대안 제시	교육 프로그램 사후성 검토 알람 프로그램 예방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

- 1단계 / 마을별 운영현황 관련 자료 수집·분석
 - 행정 보유 자료 수집 및 분석
 - 마을주민 보유 자료 수집 및 분석
 - 마을별 자료 분석 및 정리
 - 기본현황 파악 (최신 정보)
 - 체험마을 또는 비 체험마을의 소득현황 조사
- 2단계 / 마을 현황 파악 현장조사
 - 시설 유지에 대한 마을 현황조사
 - 마을의 주요 현안 및 주민 핵심 요구사항 파악
 - 조직성 측면 운영 진단

- 운영성 측면 마을 진단
- 3단계 / 마을 현황진단을 위한 전문가 분석
 - 마을 별 전문가 배정에 의한 운영 진단
 - 외부 전문가와 가평군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 인력과 공동으로 마을 순행을 통해 진단
 - 전문가 참석 합동 워크숍을 통한 마을별 운영 진단

Ⅲ. 운영예산 (안)

구 분	운영예산 (천원)	산출근거 1)
합 계	38,500	
인건비 (A)	31,827	○ 책임연구원 - 3,169,323원/월 × 2개월 × 92%(참여율) × 1명 = 5,831,554원 ○ 연구원 - 2,430,194원/월 × 2개월 × 78%(참여율) × 6명 = 22,746,616원 ○ 연구보조원 - 1,624,503원/월 × 2개월 × 100%(참여율) × 1명 = 3,249,006원
경 비 (B)	3,712	○ 퍼실리테이터 전문가 활용비 170,000(라급, 2시간)×10회=1,700,000원 ○ 여비 : 7명×3회×32,000원=672,000원 ○ 회의비 - 식비: 20,000원/인 × 12인 × 3회 = 720,000원 - 다과비: 30,000원/회 × 4회 = 120,000원 ○ 인쇄비 - 결과보고서 인쇄: 500,000원
간접비 (C)	2,960	○ 행정비용(오버헤드) - (인건비 + 경비) × 8.331% = 2,960,824원

IV. 기대효과

- 가평군 농촌개발사업 운영현황 진단과 지원 시스템 보완
- 지속 가능한 마을발전을 위한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의 기반 마련
- 향후 농촌개발사업 운영 방향설정과 대안 마련
- 지역 현안문제 해결로 지역주민과 행정 간 신뢰도 증가
- 사후관리 체계 마련

1) 세부내역은 개별사업내용 참조(18년기재부 학술용역인건비 기준, 농식품부 농촌현장포럼 운영예산 산출기준 준용).사업예산은 사업 추진과정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마을만들기 운영 및 시설활용에 관한 전문가 심층진단표
 - 연구과제 중 마을현황 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진단표의 필요성 확인
 - 기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현황 진단표를 보완하고, 전문가 모니터링 방식의 도입 제안
 - 운영활성도 및 시설활용도 등에 대한 심층 진단표 제안

I. 정책제안 개요

○ 제안제목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지의 현황분석 및 사후 관리 차원의 전문가 심층 진단표

○ 주요내용

-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시설물·서비스·조직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은 물론 부진 예방과 사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진단표
- 운영 활성도, 시설 활성도, 마을발전계획안, 현안과제 등 다양한 측면의 사업현황진단이 가능한 항목 제시
- 실제적인 심층 진단과 적절한 처방이 제시되도록 패키지로 구성

○ 마을만들기 운영 및 시설활용에 관한 전문가 심층 진단표 항목 구성

구분	세부내용	진단구분
1. 운영 활성도 측면의 진단 항목	1) 운영조직의 적정성	4개 측면 / 10개 항목
	2)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5개 측면 / 11개 항목
	3) 회계 및 수익 관리의 합리성	5개 측면
	4) 사업의 지속가능성	6개 측면 / 9개 항목
	5) 운영 프로그램의 활성도	5개 측면 / 7개 항목
2. 시설 활성도 측면의 진단 항목	1) 시설개요	3개 측면
	2) 시설 운영조직	3개 항목
	3) 시설 활성도	4개 측면 / 6개 항목
	4) 시설관리	2개 측면
	5) 안전 위생 관리	4개 측면
3. 향후 마을발전계획 (구상안)에 대한 진단 항목	1) 향후 마을 활용 자원의 적합성	4개 측면
	2) 사업 방향과 과제의 현재와 미래 수용성	2개 측면 / 3개 항목
	3) 사업 구상안에 대한 주민의 합의와 참여 수준	4개 측면 / 5개 항목
	4) 사업 구상안의 실현 가능성	6개 측면 / 8개 항목
4. 현재 마을에 드러난 문제점과 현안 과제	1) 마을의 주요 문제점 2) 현안 과제	2개 측면
5. 진단 종합	1) 현재 2) 미래 가능성 3) 사업 관리 중점 과제	3개 측면

Ⅱ. 마을만들기 운영 및 시설활용에 관한 전문가 심층 진단 세부내용

1. 운영 활성화 측면의 진단 항목

1) 운영조직의 적정성

(가) 지구(마을)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활성화 상태

- ① 정규 회의 개최 여부, 연간 회의 일수,
- ② 운영위원회 참석자 비율(평균)과 운영 위원들의 참여 의지

(나) 사업 주도자 그룹의 활동

- ① 몇 명이 주도 그룹에 속하는지
- ② 사업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리더 그룹이 존재하는지(위원장만 열성인지)

(다) 사업 운영을 위한 법인(영농조합법인, 사회적 기업 등) 구성

- ① 전체 참여 가구, 실질적 참여 가구수
- ② 법인 내부의 조직 구성(조직도 구성 등)

(라) 운영조직은 대표성을 갖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2)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가) 주민 간(권역인 경우 마을 간) 소통을 위한 노력 상태

- ① 정기적 회의 개최, 회의시 원활한 의견 교환,
- ② 지도자 그룹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더러 있는지

(나) 사업운영조직 내부의 단합

(다) 사업조직(법인 등)과 마을조직(마을총회 등)과의 관계

- ① 명문화된 정관, 협약의 존재 여부
- ② 마을 총회 시에 사업성과를 보고하거나 사업관련 의결 과정이 있는지



(라) 사업 참여 인원과 마을 주민과의 의사소통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 ① 사업-마을 간 기존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있는지
- ② 사업-마을 간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고 있는지

(마) 평소 친목 도모나 갈등 예방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 ① 친목 도모 잔치, 여행, 공동식사
- ② 마을내 소그룹 모임이 있는지, 마을과의 관계는 어떤지

3) 회계 및 수익 관리의 합리성

(가) 회계처리의 투명성(법인통장, 법인카드 사용 등)

(나) 지출 및 수입 관리 대장(전산등) · 증빙자료 비치관리 여부

(다) 수익배분의 공정성

(라) 기금 전출 등을 통한 수익의 지구(마을) 환원: 금액, 원활한 환원?

(마) 수익-비용, 순수입 분석의 시행 여부

4) 사업의 지속가능성

(가) 지속적인 마을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및 재원확보

- ① 인적자원 확보: 상시 근무자 확보, 사업 참여 후보군
- ② 재원확보: 기금확보

(나) 현재 리더가 물러나면 사업이 지속할지(새로운 주체 후보군이 있는지)

- ① 귀농귀촌인의 참여 규모와 역량
- ② 청장년층의 참여 정도
- ③ 현재 리더 교체 후의 상황

(다) 체험 자원이나 프로그램의 매력이 어느 정도인지

(라) 마을 재방문이 어느 정도인지

(마) 최근 수익금(총수익과 순수익) 발생 추이

(사) 사업 메뉴를 지속적으로 갱신할 능력이 되는지

5) 운영 프로그램의 활성화도

(가) 운영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

- ① 계절별 구성
- ② 연령층별 구성
- ③ 참여 집단별 구성

(나) 프로그램의 특화 정도: 전국 대비 어느 정도 고유한 것인지

(다) 프로그램의 매력 정도: 재방문/주민참여를 유도할 정도인지

(라) 수익창출/주민참여를 주도하는 핵심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종류와 체험규모는

(마)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주민의 참여 수준은

2. 시설 활성화 측면의 진단 항목

1) 시설개요

(가) 시설 종류, 종류별 규모, 사업비

(나) 시설의 용도

(다) 시설의 소유자(토지소유자와 시설소유자를 구분하여 파악)

2) 시설 운영조직

- ① 마을총회 등 기존 마을공동체가 주체인지
- ② 영농조합법인 등 별도 사업조직이 주체인지(또한 마을과의 관계는 어떤지)
- ③ 권역사업인 경우 누가 운영 주체인지(마을별 역할 분담이 어떻게 했는지)



3) 시설 활성화도

- (가) 가공, 판매, 홍보 등을 통한 수익 창출(매출, 수익)
- (다) 시설의 정상, 부실, 미운영, 방치 등 파악
 - 부실(최근 1년간 수익이 없거나 방문객이 1천명 미만)
 - 미운영(6-1개월간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 방치(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 (라) 시설의 사유화, 용도외 사용, 법위반 등 비정상 운영 여부
 - 법위반(시설 설치 목적외로 사용)
 - 법위반(불법 증개축 등 건축법 위반, 행정명령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마)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비 확보(충당금 적립 등)
 - ① 시설 유지비 확보(전기료, 난방비, 수선료 등)
 - ② 인건비 확보(혹은 공공에서 지원/사무장 지원)

4) 시설관리

- (가) 청소 및 주변 정비
- (나) 파손 여부

5) 안전 위생 관리

- (가) 안전관리자 선임 등 안전관리 조직 구성
- (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관리상태
- (다)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식자재, 조리기구, 개인위생 등 위생 관리 상태
- (라) 숙박을 하는 경우 숙박시설의 청결 위생의 상태

3. 향후 마을발전계획(구상안)에 대한 진단 항목

1) 향후 마을 활용 자원의 적합성

- (가) 이용하고자 하는 핵심 자원의 가치 정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등
- (나) 마을 특성에 잘 부합하는 자원 선택인지
- (다) 마을 주민을 잘 포괄할 수 있는 자원인지
- (라) 선택한 (핵심)자원의 매력과 특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2) 사업 방향과 과제의 현재와 미래 수용성

- (가) 사업 방향이 현재와 미래에 적응성이 높은지
 - ① 현재
 - ② 미래
- (나) 도출된 사업 과제가 적절한지: 사업 메뉴(과제) 구성

3) 사업 구상안에 대한 주민의 합의와 참여 수준

- (가) 사업구상안에 대해 주민이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지
 - ① 구상안에 대한 주민의 이해 수준
 - ② 주민 토론 및 합의 절차가 있었는지: 현장포럼, 이외
- (나) 사업이 추진된다면 주민참여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
- (다) 귀농귀촌인, 특히 차기 예상 운영주체의 참여 수준은



4) 사업 구상안의 실현 가능성

- (가)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 가능성: 정부 사업 신청
- (나) 계획 실현을 위한 주민의 준비 상황
 - ① 사업 실현을 위한 조직의 가동 능력
 - ② 마을 인적, 물적, 비물적 자원의 동원 능력
- (다)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외부와의 교류망 형성 수준과 태도
 - ① 적극적 수용 의지와 태도
- (라)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 (마) 계획된 사업을 책임질 주체가 존재하고 있는지
- (바) 구상된 프로그램의 적실성; 마을 실정에 맞는 것인지

4. 현재 마을에 드러난 문제점과 현안 과제

1) 마을의 주요 문제점

2) 현안 과제

5. 진단 종합

1) 현재

정상 / 약간 부실 / 운영 부진 / 사유화 / 탈법

2) 미래 가능성

녹색 / (황색 점멸) / 황색 / (적색 점멸) / 적색

3) 사업 관리 중점 과제

4. 사후관리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

- 가평군 대상 사후관리 대상 지구 선정과 적용 패키지 구성
 - 시범대상 마을의 부진 예방과 사후 활성화 처방을 위한 장단기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 정부 및 지자체 마을만들기 사업 경험이 있는 25여개 마을 중에서 10여개 마을 시범대상지로 우선 선정하여 부진 예방과 사후 활성화 패키지 적용 방안을 마련
 - 경기농촌센터와 가평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시범 대상 마을 10개 지구를 선정: 부진에 빠졌거나 예상되는 마을, 운영이 정체되어 활성화 프로그램이 필요한 마을 선정
 - 농촌센터 파견 전문가들이 가평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함께 10개 마을을 회 정도 탐방하여 마을 운영 상황(시설물 관리 포함)을 진단하고, 2회에 걸친 공동 워크숍을 통해 향후 활성화 처방안을 마련하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현장에서 즉석 컨설팅을 시행(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나 조직 운영 상황 개선)
 - 운영 활성화 처방안을 가평군 농촌개발 행정협의체, 마을 운영진 등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후에 2019년도에 본격 시행할 계획임



I. 사후관리 시범사업 개요

○ 연구의 배경

- 방대한 농촌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일부 부진성 및 비정상 운영 문제가 대두
- 일선 지자체의 사후관리에 있어 지속성과 체계성 부족
- 정부의 사후관리는 시설물 정보 파악에 치중, 사후 지원의 다양성, 전문성 부족

○ 연구 목표

- 종합적 진단에 의한 지역맞춤형 사후 처방과 실행수단 강구
- 사후 전문적 진단과 처방, 실행에서 경기농촌활성화지원센터 활용 필요

✓ 전문가, 정책담당자, 지자체 담당공무원,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절실한 실정임

○ 주요 연구 내용

- ① 농림부, 농어촌공사 등 농촌지역개발 사후관리 정책 검토
- ② 경기도내 사후관리 정책 및 실태 분석
- ③ 사업완료지구의 사후관리 과제 도출
- ④ 사후관리 절차 마련과 단계별 도입 가능한 사후관리 수단
- ⑤ 경기도 농촌개발사업 관리 협치(거버넌스) 체제의 마련
- ⑥ 경기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활용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
- ⑦ 사후관리 지원 플랫폼으로서 경기도 농촌센터의 역할 재정립

○ 연구 수행 방법

- ① 주창적 현장참여 : 경기도형 사후관리 사례 만들기 위한 연구 수행
- ② 맞춤형 사후관리 방식 도입
- ③ 사후관리 거버넌스 및 플랫폼에 편입
- ④ 사후관리 지원체계 만들기(2018년 경기농촌활성화지원센터 자율사업의 일환)
- ⑤ 관리체계와 패키지 적용 : 사후관리 시범 시군을 대상 총체적 프로그램 적용
- ⑥ 사후관리 시범 추진 중 (가평균)

Ⅱ. 사후관리 시범사업의 과제 성과

1. 경기도 농촌개발사업 사후관리 토대 마련에 대한 공무원 공감대 형성

- 경기도 농촌지역개발사업 담당공무원 워크숍
 - 2018년 7월 12~13일 (1박2일) 이천시 부래미마을
 - 경기도, 시, 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담당자
 - 1박2일 동안 집중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 전략과 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모둠 워크숍 실시, 사후관리 지원방안 현실화 적용 가능성 토론
-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집중교육
 - 2018년 5월 30일~6월 1일 (2박3일) 제주도
 - 여주시-경기센터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방법 및 사후관리형 농촌현장 포럼 추진 논의

2. 사후관리형 농촌현장포럼의 확산

- 4개 시군, 28개 마을에서 '사후관리형' 농촌현장포럼 실시
 - 교육 및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사후관리의 필요성 인식
 - 추가적인 사후관리형 농촌현장포럼 센터로 요청
 - 마을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총괄계획가 배정하여 포럼 운영 완료
 - 광주시 3개 마을, 가평군 10개 마을, 여주시 3개 마을, 이천시 2개 마을

3. 사업 절차별 사후관리 지침 마련

- 사후관리 추진 원칙과 절차
 - ① 예방적 관리 : 일탈 사전 예방, 조기징후 포착, 정상화 조치하는 능동적 관리체계
 - ② 사업 전(全)과정 관리 : 사업 준비에서 사후 까지 지속적인 관리 수행
 - ③ 전방위적 징후 신호 관리 : 정, 수시 점검 통해 즉시 주의, 경보를 작동하여, 집중 관리체제에 편입
 - ④ 주민과 시군 책무성 강화 : 주민의 행정 의존 관행 벗어나, 주민이 책임, 시군이 유도
 - ⑤ 환류연동성 강화 : 점검결과 즉각 사업지구에 환류, 도, 시군, 주민, 전문기관, 유관기관 긴밀한 업무협력
 - ⑥ 전문적, 상시적 관리 : 전문기관에서 집중, 지속관리토록 사후 처방, 이행 모니터링 전담기관 운영



4. 마을 맞춤형 부진예방, 탈출 처방 패키지 마련

- 사후관리에 필요한 교육, 주의·경보, 처방(회복,활성화)등의 지속성과 완결성을 위해 체계화 시킨 일련의 프로그램들의 묶음을 사후관리 패키지 마련
 - 교육 패키지 : 사업준비, 계획수립, 운영관리 등 사업 단계별 맞춤형으로 운영되는 주민·활동가 연속 교육과정
 - 사후성검토 패키지 : 운영관리 작성 수준, 운영 조직과 재원의 명확성, 시설물의 관리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 계획 단계별로 사후성 검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알람(경보)패키지 : 행정에 의한 정기·수시 사후관리 점검과 전문기관의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 가능성을 행정이나 주민에게 알리는 프로그램
 - 예방 패키지 : 녹색·녹색점멸, 일부 황색지구 등이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현장에 지원되는 활성화 프로그램 묶음
 - 재활 패키지 : 황색지구, 적색지구 등이 운영 부진이나 일탈로부터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현장에 처방되는 전문 프로그램 다발

5. 지자체 사후관리 지원 경기농촌활성화지원센터 특화사업 추진

- 센터 자율사업 내용
 - 사후관리 지원
 - 전문가 콜로키움
 - 찾아가는 서비스
- 중간지원조직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 가평, 광주, 여주, 이천, 평택 시군 중간지원조직 지원
 - 센터-시군-중간조직-전문가 집단 협력 체계 구축
 - 사후관리형 농촌현장 포럼, 사후 활성화 주민자율 소액사업 추진
 - 사후관리형 농촌현장포럼 우수 사례 (가평군 대성1리 소돌마을)
 - 여주 강천섬 권역 사례 : 컨설팅/ 마을 운영진 타겟 포럼/ 센터-운영진 마을 재활 공동기획,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자율 추진

6. 가평군 대상 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

- 가평군 10개 마을 대상 운영진단 컨설팅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범사업
 - 사전진단 워크숍을 통해 10개 대상 마을 도출 (2018년 10월 5일)
 - 가평군 시군역량강화사업 10개마을 운영진단 컨설팅 협약 체결 (2018년 10월)
 - 6명의 전문가 배정하여 10개마을 운영진단 컨설팅 중 (2018년 11월 현재)
 - 마을 현황진단을 위한 방문을 2회차 실시하였고, 주민의견과 가평군청 지원방향을 수렴하여 컨설팅 제시
 - 10개마을에 대한 운영진단과 처방(프로그램 패키지), 사후관리 프로그램 진행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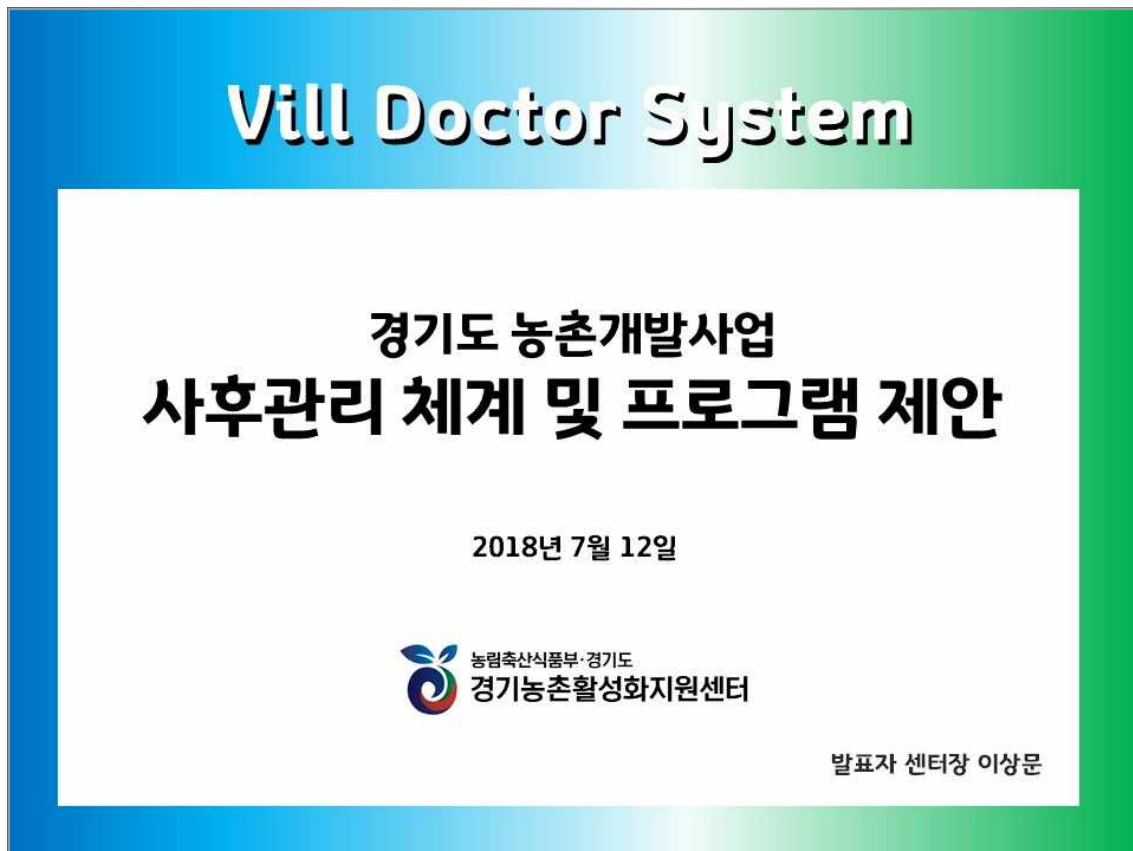
VI. 연구 추진 경과

2018. 2~4월.	경기도와 주요 연구 내용 및 접근 방향 협의
~5월.	전문가, 정책담당자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숙의형 토론회
~6월.	사후관리 주요 과제 도출, 관내 정책담당자들과 워크숍
7월.	경기도내 담당 공무원 참여 사후관리 세미나(1박 2일) 농림부 중간 보고회 개최
~8월.	인적망, 정보망 구축과 협치기구 운용을 위한 시군 방문 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 시군(가평군) 선정
8~10월.	경기도 사후관리 시범사업 플랫폼 완성(인력, 정보, 시범사업 내용 구성)
11월.	사후관리 시범사업 시행(가평군 20개 사업지구 대상): 전문가그룹 현장 탐방 및 진단 워크숍 연구 결과 보고회 개최
12월.	사후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부진예방과 활성화 패키지 적용 계획 마련 워크숍 개최 농림부에 연구 결과 최종보고서 제출

[첨부자료]

첨부: 1. 경기도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발표자료 1

(경기도 농촌개발사업 사후관리 체계 및 프로그램 제안)





[목차]

- I. 용어 및 개념
- II. 마을치유병원의 필요성
- III. 마을치유병원의 역할
- IV. 사업단계별 내용
- V. 5대 관리 패키지 개요
- VI. 추진체계 및 관리기반 구축



1 / Definition 용어 및 개념

1/ 들어가기에 앞서..

Vill Doctor System

용어 및 개념 정리

◆ 시설물 등

- 건축물(건축법), 구조물, 조경시설

◆ 사후관리

- 시설물의 상태, 조직의 활동, 서비스 품질 등을 유지하면서 사업 실행의 과정과 결과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한 조직화된 노력

* 농촌개발사업에서 사후관리*

시설, 조직, 서비스의 현상유지를 위한 소극적 관리를 넘어 사업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도록 운영 능력을 일정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적극적 관리까지 포함하는 개념



1/ 들어가기에 앞서..

Vill Doctor System

용어 및 개념 정리

◆사후성

- 사후관리를 통해 나타나는 시설물의 상태, 조직의 활성화, 서비스 품질 등의 수준 또는 그 수준에서 야기되는 사업 내·외부적 영향

◆비정상 운영

- 사업의 운영 성과가 부진하거나 운영 과정이 일탈된 경우를 통칭하는 개념

*부진 : 부실, 훼손, 미운영, 방치

*일탈 : 용도 외, 사유화, 법 위반

1/ 들어가기에 앞서..

Vill Doctor System

용어 및 개념 정리

◆사후관리 패키지(Packages)

- 사후관리에 필요한 교육, 주의·경보, 처방(회복, 활성화)등의 지속성과 완결성을 위해 체계화 시킨 일련의 프로그램들의 묶음

교육 패키지

- ✓ 사업준비, 계획수립, 사업시행, 운영관리 등 사업 단계별 맞춤형으로 운영되는 주민·활동가 연속 교육과정

알람(경보) 패키지

- ✓ 행정에 의한 정기·수시 사후관리 점검과 전문기관의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 가능성을 행정이나 주민에게 알리는 프로그램

예방 패키지

- ✓ 녹색·녹색점멸, 일부 황색지구 등이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현장에 지원되는 활성화 프로그램 묶음

재활 패키지

- ✓ 황색지구, 적색지구 등이 운영 부진이나 일탈로부터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현장에 처방되는 전문 프로그램 다발

2 / Why? 마을치유병원이 왜 필요하지?

2/ 마을치유병원이 왜 필요하지?

Vill Doctor System

배경 및 필요성

◆ 건물만 짓고 나몰라라... 허울뿐인 농촌소득사업

- 정부와 자치단체가 농촌지역 소득향상을 위해 대형시설을 연이어 짓고 있으나, 시작한지 얼마 안돼 개범 휴업인 곳이 생기고 있음
- ✓ 철저한 운영계획 없이 사업만 따내는데 급급, 한계 드러내고 있어





2/ 마을치유병원이 왜 필요하지?

Vill Doctor System

농림축산식품부 문제개선방향

◆ 2016년 부터 지자체, 관련기관과 협업으로 단계별 점검 실시하고, 맞춤형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 있음

- '16년 농식품부 주관으로 전체 사업지구 2,166개소를 1단계로 일제 전수 조사한 결과 사업 부진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구는 322개소 (15%)로 조사되었음

(현) 점검 체계	관리단계	관리주체	관리수량(%)	관리방식
	1단계 (분기별)	사군구	2,313개소(100%)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2단계 (반기별)	농진청, 산림청, 농관원	700개소(30%)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3단계 (수시)	①상시점검(농식품부) ②교차점검(농식품부, 시도) ③합동점검(농식품부, 지역위) ④전문가 점검	120개소 (5%)	현장조사 및 증분석 시설물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점검결과 마을 구분

Vill Doctor System

농림축산식품부 점검 후 관리방향



◆ 농식품부는 지역개발사업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구축과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임

Vill Doctor System

운영상황과 실태에 따른 조치사항

운영상황	세부실태	조치사항
운영	활성화	우수사례 전파, 인센티브 제공 등
	현상유지	역량강화, 컨설팅, 추가지원 등
	부실운영	역량강화, 컨설팅, 운영자 변경, 추가지원 등
미운영	방치	운영방안 마련, 역량강화, 컨설팅, 용도 변경 등
	훼손	원상복구, 용도 변경, 보조금 회수 등
비정상 운영	용도외	용도내 전환, 용도외 승인, 운영자 변경 등
	사유화	용도내 전환, 마을공동 운영, 기금 수납, 자자체 회수 등
	법위반	정상화, 보조금 회수, 수사의뢰 등

Vill Doctor System

현장의 목소리..

[00시]
마을 추진위원들이 너무 싸워서 해체 됐어요. 추진위원회 재조직을 위한 컨설팅을 좀 해주세요.



조직운영관리에 어려움을 느낀 A씨



[00군]
마을개발사업이 좀 부진한 것 같은데.. 활성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세요!



공동체 활성화가 시급한 B씨



배경 및 필요성

Vill Doctor System

현장의 목소리..

[00시]

마을리더들을 위한 교육을 해주세요.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에서 관리까지 다 할 수가 없네요.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C씨



[00군]

마을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8년 전에 수립한 마을장기발전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세요.

마을사업계획이 시대에 뒤떨어진 D씨



우후죽순 산발적인 사후관리 요청 및 임기응변식 대응

사후관리의 체계화, 프로그램화된 사업 지구관리

3 /

What?

마을치유병원이 무엇을 하지?

3/ 마을치유병원이 무엇을 하지?

Vill Doctor System

평소 건강관리와 예방과 치료가 중요!!



예방
치료



1. 평소에 관리

- 몸도 평소에 관리하듯, 마을도 평소 활성화도를 관리하자!

2. 전문가 진단을 받고 처방 받기

-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때로는 수(시)술, 약 조제 및 처방 받듯이,
마을도 운영진단을 받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처방받자!

3/ 마을치유병원이 무엇을 하지?

Vill Doctor System

사후관리 추진 원칙



1. 예방적 관리

- 일탈 사전예방, 초기 징후 포착, 정상화 조치하는 능동적 관리 체계

2. 사업 전(全)과정 관리

- 사업 준비에서 사후 까지 지속적인 관리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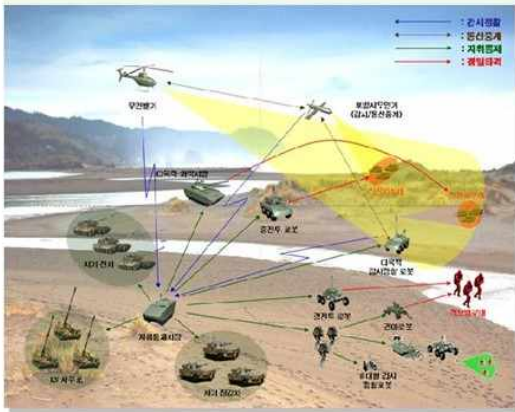
3/ 마을치유병원이 무엇을 하지?

Vill Doctor System

사후관리 추진 원칙

3. 전방위적 징후 신호 관리

- 정, 수시 점검통해 **즉시 주의, 경보를 작동하여, 집중 관리체제에 편입**



4. 주민과 시군 책무성 강화

- 주민의 행정 의존 관행 벗어나, **주민이 책임, 시군이 유도**



3/ 마을치유병원이 무엇을 하지?

Vill Doctor System

사후관리 추진 원칙

5. 환류연동성 강화

- **점검결과 즉각 사업지구**에 환류
- **도, 시군, 주민, 전문기관, 유관기관** 긴밀한 업무협력



6. 전문적, 상시적 관리

- 전문기관에서 집중, 지속관리토록 **사후처방, 이행 모니터링** 전담기관 운영



3/ 마을치유병원이 무엇을 하지?

Vill Doctor System

Concept

마을 치유 병원



[5大 예방·치유 패키지 운영]

	사업준비	선정	기본계획	시행계획	사업시행	준공 검사	운영관리
교육 패키지	교육 패키지				교육 패키지		교육 패키지
사후성 검토 패키지			사후성 검토 패키지				
알람 패키지				알람 패키지			알람 패키지
예방 패키지				예방 패키지			예방 패키지
재활 패키지							재활 패키지



4 / How? 각 사업단계에서 어떻게 작용하지?

4/ 마을치유병원 단계별 세부 실행내용

Vill Doctor System

사업준비단계

마을치유병원

체질 검사

<<<현장포럼 활용>>>
유지관리 능력과
사후 책무 속의 교육

[주민, 추진위]

시설물 유지관리 능력 숙고
유지비, 사후관리 책임 주민결의서 작성

[시·군]

예비계획에 유지관리, 사후활성화 내용 포함
공론화 회의 작성
주민결의서 확인

4/ 마을치유병원 단계별 세부 실행내용

Vill Doctor System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단계

마을치유병원

체력 검사

사후성 검토 패키지
알람 패키지
예방 패키지

기본계획에 사후관리 내용 제시
사후성 집중 검토와 환류

4/ 마을치유병원 단계별 세부 실행내용

Vill Doctor System

사업 시행 단계

마을치유병원

예방 백신접종

교육패키지
조기활성화 패키지

사후관리 과정 운영
조치사항 작성 지원

사업 운영 조직 조기 활성화 추진
주민(운영위) 사후 활성화 교육과정 이수
사후성 검토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작성



4/ 마을치유병원 단계별 세부 실행내용 Vill Doctor System

운영관리 단계

마을치유병원

처방 및 재할

부진예방 패키지
정상화 패키지

부진예방 프로그램 실행
부진 일탈 지구 조기 정상화 특별수단 투입

4/ 마을치유병원 단계별 세부 실행내용 Vill Doctor System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내용

	사업준비	선정	기본계획 시행계획	사업시행	준공검사	운영관리
경기 농촌 활성화 지원 센터	농촌 <현장포럼> <u>유지관리 교육</u> <u>유지관리 계획수립</u> <u>주민결의서</u>	<선정지원> 사후성 검토	사후성 검토 변경내용 대조 확인	추진위원회 <u>사후 활성화 교육과정 운영</u> <u>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u>	교육이수 모니터링 결과 확인	<u>모니터링 지속</u> <u>사후 DB 관리</u> <u>알람시스템</u> <u>프로그램 패키지 서비스</u>
비고	유지관리 교육 필수 이수 조건으로 제시	시군차원 사후성 검토 여부에 따라 마을 페널티	-	지역역량강화사업에 교육부문에 사후 활성화교육 필수 이수조건	-	센터, 농품원 산림청, 농진청 합동 사후 DB 관리

5 / About Packages

5대 관리 패키지 개요

5/ 패키지에 대하여..

Vill Doctor System

5대 패키지



교육 패키지

사후성 검토 패키지

알람 패키지

예방 패키지

재활 패키지



5/ 패키지에 대하여..

Vill Doctor System

5대 패키지

교육 패키지

◆ 사업 전과정에 적용가능한 3단계 묶음 교육과정

- 계획단계 / 시행단계 / 운영단계
- 전 과정에 적용가능
- 사후관리의 중요성, 사후관리 모의실행, 부실진단과 정상화 등
-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 시키는 프로그램 모음

5/ 패키지에 대하여..

Vill Doctor System

5대 패키지

사후성 검토 패키지

◆ 계획단계별로 사후성 검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예비계획 / 기본계획 / 실행계획
- 전 계획과정에 적용 가능
- 운영관리 작성 수준 검토, 운영 조직과 재원의 명확성 검토, 개별사업과 시설물의 관리 적합성, 회계처리의 투명성 검토
- 증빙자료, 명문화(정관, 회칙 등) 자료의 현실성과 정교함 향상 위해 보완 및 수정

5/ 패키지에 대하여..

Vill Doctor System

5대 패키지

알람 패키지

◆ 시행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 및 사후 유지 운영에 관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망을 제공

- 역내순환 모니터링(닥터 투어링)
- 찾아가는 서비스
- 전문 도우미 서비스
- 사업 관계자 점검 워크샵
- 상황 종합 분석과 신호 판별
- 사후관리 신호 보내기(시그널링)
- 신호별 대처 요령 교육

5/ 패키지에 대하여..

Vill Doctor System

5대 패키지

알람 패키지

◆ 사후관리 신호 체계 (시그널링)





5/ 패키지에 대하여..

Vill Doctor System

5대 패키지

예방 패키지

◆ 부진을 예방하고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프로그램을 처방

- 운영 주체의 전문성 강화 및 목표 재인식 프로그램
- 지속적인 비용 충당을 위한 재정 선순환 사업 구조 정착
- 운영 주체와 공동체 간의 갈등 예방을 위한 소통 프로그램
- 부실 징후 시 조기 탈출을 위한 운영자 행동 프로그램
- 사업 활력을 유지하는 핵심 서비스 유지
- 관련 후속 사업 추진 방안

5/ 패키지에 대하여..

Vill Doctor System

5대 패키지

재활 패키지

◆ 비정상 지구로 알람 신호가 전달된 경우 정상궤도 (재)진입을 목표로 적용되는 프로그램

- 예로 2가지 활력제고와 정상화 패키지 구성이 있음
- 기본프로그램 모듈에 선택 프로그램 모듈을 조합하여 패키지 구성
- [활력제고] 패키지는 활력제고, 사유화 방지를 목표로 운영주체 재조직화와 전문역량 강화, 유지 운영비 충당을 위한 재무구조 형성 등의 프로그램
- [정상화] 패키지는 일탈에서의 회귀, 사업목표 재설정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 구성

5/ 패키지에 대하여..

Vill Doctor System

마을 치유 병원



6 / With Whom?
누구와 함께 마을치유병원을
운영하지?



추진체계 및 관리기반 구축

◆경기도 농촌사업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 경기도 농촌개발사업 운영 협의체 발족
- 시군, 농어촌공사, 시군 중간지원조직, 농촌센터 유관기관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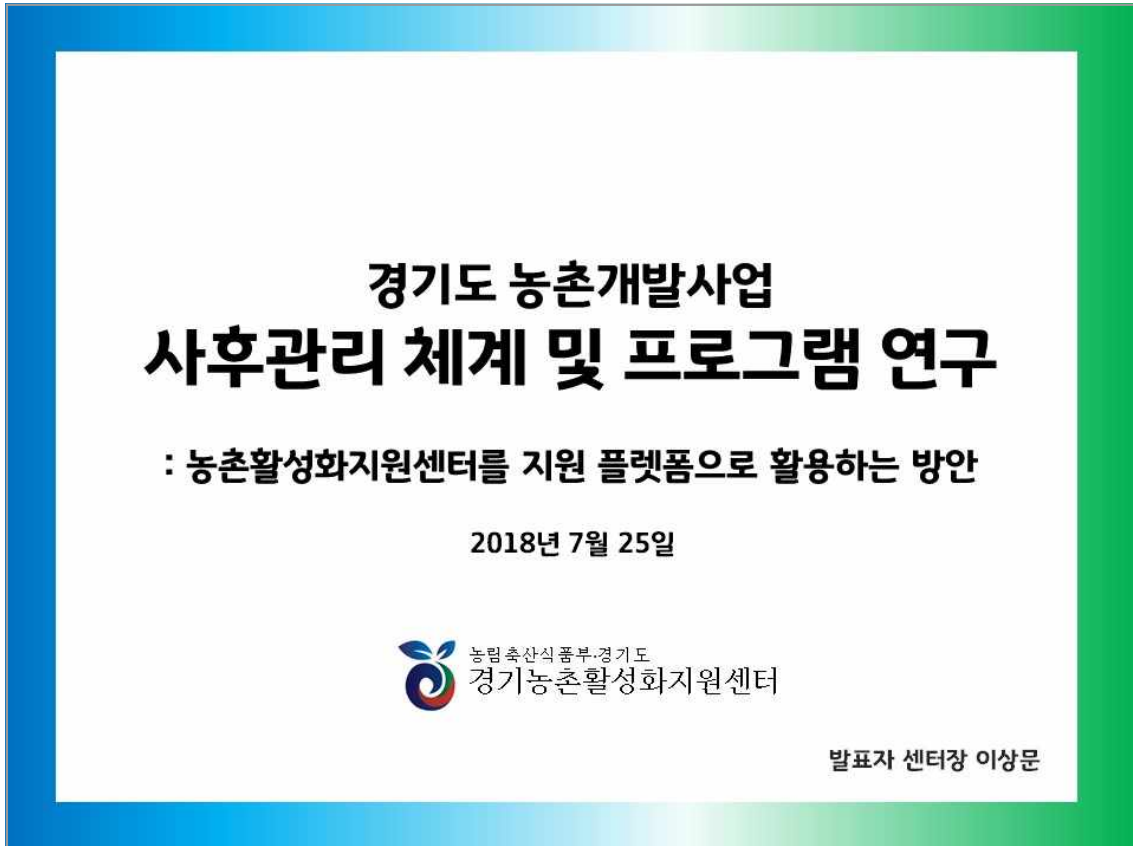
◆경기농촌센터의 부진예방, 사후 활성화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 경기농촌센터 기반 사후관리 플랫폼 구축 방안
- 시군 과 협력 : 각종 전문적 서비스를 상시 지원
- 도와 협력 : 제도적 근거와 지원 기반 마련
- 농어촌공사, 중간지원조직 등 유관조직 협력 : 사후관리 전담 인력, 관련 예산

[첨부자료]

첨부: 3. 농림부 중간보고 발표자료

(경기도 농촌개발사업 사후관리 체계 및 프로그램 연구 : 농촌활성화
지원센터를 지원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 **중복내용삭제





1. 추진경과

경기도 농촌개발사업 사후관리체계 구축 연구

추진경과

- ✓ 2017년 12월 ▪ 경기센터 자체 특화사업으로 사후관리 사업계획안 마련
- ✓ 2018년 1월 ▪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금년 핵심사업으로 사후관리 과제 논의
- ✓ 2월 ▪ 경기도와 주요 연구 내용 및 접근 방향 협의
- ✓ 4월 ▪ 전문가 자문, 정책담당자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숙의형 토론회
- ✓ 5월 ▪ 사후관리 주요 과제 도출, 전문가 및 공무원들과 워크숍
- ✓ 7월 ▪ 경기도 내 담당 공무원 참여 사후관리 세미나 (1박2일)

사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절실

전문가, 정책담당자, 지자체 담당공무원 + 마을주민 까지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음

1. 추진경과

경기도 농촌개발사업 사후관리체계 구축 연구

사후관리 필요성 및 프로그램 수요 설문조사 (요약)

1. 농촌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



농촌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경기도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한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설문 분석 시에 활용되는 사항이 있을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농촌발전지원센터 (☎ 331-299-1443)

1. 귀하가 소속된(근무하는) 지자체의 농촌지역개발사업 운영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귀하의 사업은 세외금 및 운영되고 있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귀하의 사업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귀하의 사업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귀하의 사업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귀하의 사업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귀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현실 가능성 부족한 예비/기본계획 ()
 전담 공무원 부재 ()
 주민 역량 부족 ()
 운영관리 프로그램 부재 ()
 잘못된 사업변경 ()

3. 귀하는 운영이 미흡한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 () 필요하지 않다 ()
 매우 필요하다 () 필요없다 ()

4. 귀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의 주요 이유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부족 () 주인 관심 없음 ()
 인력부족 및 운영 미흡 () 행정지원 미흡 ()
 행정지원 미흡 () 행정지원 미흡 ()
 행정지원 미흡 () 행정지원 미흡 ()

5. 귀하가 소속된(근무하는) 지자체에서는 농촌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 창출사업(고용사업) 추진 () 농촌지역개발사업 지원 ()
 농촌지역개발사업 지원 () 농촌지역개발사업 지원 ()
 농촌지역개발사업 지원 () 농촌지역개발사업 지원 ()
 농촌지역개발사업 지원 () 농촌지역개발사업 지원 ()

2018년 7월 12일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실시한 설문조사

■ 2018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보고서

강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농촌현장포럼 실시지역 및 비실시지역의 비교 분석을 통한 마을만들기사업의
역량강화교육 성과 분석]

농촌현장포럼 실시지역 및 비실시지역의
비교분석을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역량강화교육 성과 분석
(강원도를 중심으로)

2018. 12.

강원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목 차

I. 서론	12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3
2. 연구내용 및 방법	125
II. 강원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128
1. 강원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분석	128
2. 강원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체계 분석	133
3. 마을만들기 사업의 역량강화사업 비교 분석	136
III. 강원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역량강화사업 비교 분석	148
1. 주민역량분석 지표 개발	148
2. 현장포럼 실시마을 및 비실시마을 주민역량 분석	152
3. 현장포럼 실시마을과 비실시마을의 역량비교	168
4. 강원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176
IV. 농촌현장포럼의 마을활성화 기여방안 도출	181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81
2. 농촌현장포럼의 마을활성화 기여방안	181
참고문헌	183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 농촌은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도시의 팽창에 따른 농촌의 소외와 낙후의 악순환이 지속되어 정주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약화되고 있음.
 -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인구격차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촌지역은 경쟁력 하락을 넘어 급기야 소멸의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임
- 2000년대 이후 지방자치의 발전과 농촌의 자발적 개발의식이 증대되면서 주민참여와 민간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상향식 지역개발 정책의 중요성이 인식되었음.
- 상향식 마을개발사업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지역개발참여도가 마을만들기 개발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참여도는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제고시킬 수 있음. 따라서 역량강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은 지역개발의 성패를 좌우 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 상향식 지역개발모델에서 중요한 점은 개발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구성원과 이들의 공동체성을 들 수 있음.
 - 공동체는 서로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책임과 자주성을 가지고 이를 자각한 주민들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 행동하는 집단임.
 - 전통적으로 우리의 농촌에서의 공동체는 ‘마을’ 이나 ‘부락’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라는 의식이 강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노동교환, 통과의례, 공동참여 등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였음.
- 상향식 지역개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 그 공동체내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공익성 공공성의 특징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와 아울러 마을단위의 공공성외에도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기능강화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원활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최근 농촌개발사업이 H/W 정비 중심의 사업에서 S/W 사업인 지역역량강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개발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지역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예비 및 사후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시군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 역량강화사업으로 농촌현장포럼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각 마을만들기 사업별로 역량강화사업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음.
 - 반면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접경지역은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편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에서와 같은 사전 사후 역량강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농촌현장포럼은 농촌마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전문가들과 마을주민들이 함께 모여 마을의 자원을 찾고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설정 등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공동체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임.
 - 농촌현장포럼 진행으로 인한 효과는 만족도 역량변화, 공동체성 변화가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농식품부, 농촌현장포럼 효과분석, 2017)
- 강원도의 경우 일반농산어촌개발지역은 모두 현장포럼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은 강원도 자체사업인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사업에서 약식의 현장포럼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역량강화 내용을 살펴보고, 농촌현장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지역과 기타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실시한 농촌주민들의 역량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농촌현장포럼의 역량강화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함.
- 또한 분석 결과를 통하여 농촌현장포럼에서 요구하는 목표점에 합치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농촌개발 참여주체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역량강화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강원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분석
 - 강원도 마을만들기 사업 현황분석
 - 강원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체계 분석

- 마을만들기 사업의 역량강화사업 성과 분석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역 현장포럼 실시마을 주민역량 분석
 -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지역 현장포럼 비실시마을 주민역량 분석
 - 주민역량 비교분석
 - 특수상화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 농촌현장포럼의 활성화방안 도출

나.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2018년 3월 ~10월(8 개월)

- 공간적 범위
 - 강원도 일반농산어촌개발지역 9개 시군 및 특수상황지역 6개 시군



< 표 1 > 강원도의 지역구분

구분	지자체수
일반농산어촌개발지역	9개 시군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특수상황지역	6개 시군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성장촉진지역	3개 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계	18

○ 내용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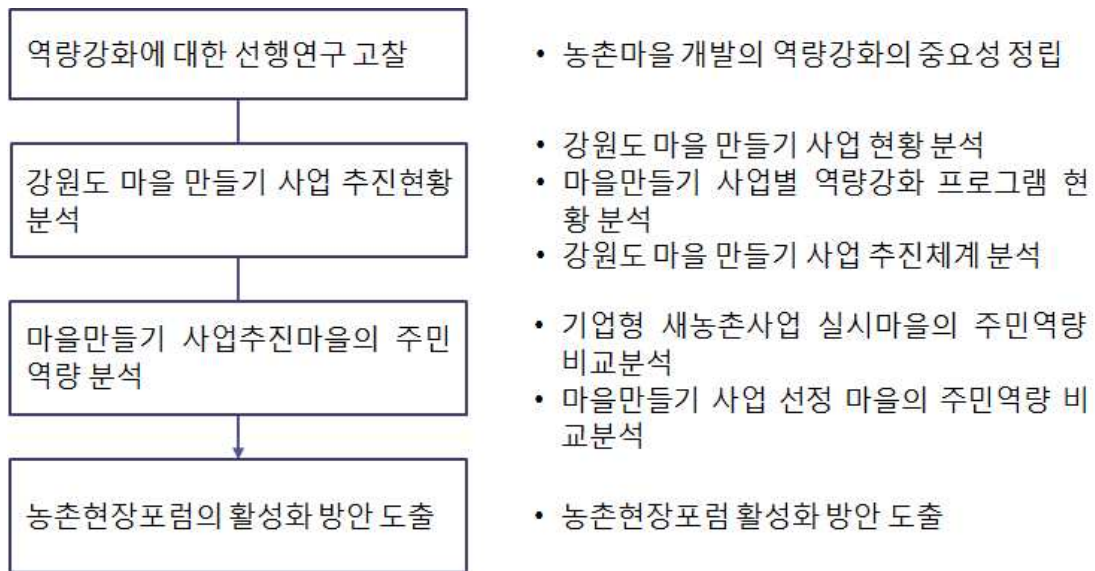
- 마을만들기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강원도의 18개 시군 전체지역이지만 농업농촌 지역을 포함하는 특수상황지역 6개 시군과 일반농산어촌개발지역 9개 시군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음.
- 성장촉진지역은 태백시를 제외하고는 농업비중이 높지 않은 시지역임.
- 역량이란 사전적 의미로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뜻하며, 농촌 개발 분야에서는 ‘농촌 지역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역량강화란 그러한 힘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장포럼 실시마을과 비실시 마을의 주민들의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인식과 지속적인 마을발전 의지와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두고자 함.

다. 연구방법

- 연구대상 마을은 중앙정부 마을만들기 사업과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기업형 새농촌사업을 추진한 마을을 대상으로 함.
- 농촌현장포럼은 사전 역량강화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은 사전 역량강화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강원도 자체사업인 기업형 새농촌사업을 실시한 마을 중 농촌현장포럼을 실시 마을과 비 실시마을 비교분석
- 2013년 이후 정부사업 선정 마을 중 농촌현장포럼을 실시 마을과 비 실시마을 비교분석

○ 농촌현장포럼이 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그림 1 > 연구 흐름도



II. 강원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1. 강원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분석

가. 강원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

- 마을만들기 사업은 그동안 주로 정부가 중심이 되어 기획된 하향식 마을사업이 중심이었으며 2000년대 이후 상향식 공모사업형태로 마을사업이 개편되었음
 - 주로 농촌중심으로 추진되어왔으며 최근에는 도시에서도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광역단체로는 서울, 충남, 강원, 전북 등이 마을만들기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있음
- 마을만들기 사업은 UR, WTO 추진과정에서 농업보호를 위해 농촌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현재는 도시부문에서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음.
-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회경제적 영역의 다양한 문제를 지역과 마을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서구 선진국들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주목되고 있음
-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 자생적 사업보다는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형태로 지원에 의존하여 추진되고 있고, 부처별 성과관리체제로 인해 실무부서가 산재되어 운영되고 마을사업의 중복 등 비효율성이 나타남
 - 따라서 마을간·지역간 격차가 커지고 사업이 종료되면 마을사업이 실제로 중단되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음
 - 추진방식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심의를 거쳐 시·도 및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검토하여 선정하는 공모제 방식운영으로 책임성이 약함
- 강원도의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등 6개의 중앙 부처 및 기관과의 연계사업과 도 자체사업을 통하여 신규 선정이 종료되어 관리중인 사업 포함하여 현재 약 25개 사업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음

- 중앙부처 연계사업을 제외한 강원도 자체사업은 총무행정관실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농정과와 기업형 새농촌 사업, 농도상생포럼이 있음

< 표 2 > 강원도 마을만들기 사업 현황(현장포럼 비실시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담당국	주관부처	비고
마을공동체만들기	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	
기업형새농촌(새농어촌건설운동)	농정과	농정국	-	강원도
농도상생포럼	농정과	농정국		강원도
어촌체험마을	해양항만과	환동해본부	해양수산부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읍)사업	균형발전과	기획조정실	농식품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평화생태마을)	균형발전과	기획조정실	행자부	
마을기업육성사업	사회적경제과	경제진흥국	행자부	
지방소도읍육성사업	균형발전과	기획조정실	행자부,농식품부	관리중
새뜰마을사업	균형발전과	기획조정실	농식품부,국토부	관리중
평화마을조성사업	균형발전과	기획조정실	행자부	관리중
정보화마을명품화추진	정보산업과	경제진흥국	행자부	관리중
전원마을조성	건축과	건설교통국	농식품부	관리중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산림소득과	녹색국	산림청	관리중
산촌생태마을	산림소득과	녹색국	산림청	관리중

- 강원도 마을만들기 사업 중 현장포럼 비 실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표 2>와 같음.
-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은 강원도 자체사업으로 급속한 고도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간소외, 사회불안 등 병리현상 발생 등이 나타나고 있어 현대적 공동체 회복을 통해 사회문제 해소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임.
- ‘기업형 새농촌사업’은 강원도 자체사업으로 고령화, 귀농·귀촌 증가, 마을과소화, 마을별 역량 격차 등 농촌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사업으로 농촌마을 사업에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기반 구축하고 농촌개발사업을 중앙정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18개 시군 모두 사업대상인 사업임.

- ‘농도상생포럼’은 강원도 자체사업으로 농어촌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재능기부 지식봉사그룹을 조직하고 강원도 지역 농어촌의 경쟁력을 갖춘 마을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마을 맞춤형 포럼을 진행하는 사업임.
-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읍)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 소도읍 완료지구(7개 시군, 9개읍)를 대상으로 공모·선정하여 거점지역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읍 중심지 개발 활성화로 배후마을 경제·문화·복지·공동체 등 역량강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임
-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평화생태마을)’은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지역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발전 계획수립에서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는 사업임
-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특화자원(향토, 문화 등)을 활용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육성을 통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임.
-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읍소재지를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어촌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임
-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평화마을조성사업’은 강원도 접경지역만의 생태·문화·인정을 반영한 명품마을 조성, 낙후된 접경지역 마을을 성장가능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추진되는 사업임.
- ‘정보화마을명품화추진’사업은 농촌·어촌·산촌과 같이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상거래 정보콘텐츠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정보 생활화를 유도함과 더불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농촌 경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

< 표 3 > 강원도 마을만들기 사업 현황(현장포럼 실시지역)

사업명	담당부서	담당국	주관부처	비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농정과	농정국	농식품부
	기초생활거점	농정과	농정국	농식품부
	마을만들기	농정과	농정국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정과	농정국	농식품부
	농촌다움 복원	농정과	농정국	농식품부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조성사업	농정과	농정국	농식품부
농촌현장포럼운영	농정과	농정국	농식품부	
새농어촌건설운동(기업형새농촌)	농정과	농정국	-	
농도상생포럼	농정과	농정국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농정과	농정국	농식품부	
귀농·귀촌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농정과	농정국	농식품부	
6차 산업화 사업	농정과	농정국	농식품부	
농촌체험마을	농정과	농정국	농식품부	관리중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정과	농정국	농식품부	관리중
농촌테마공원	농정과	농정국	농식품부	관리중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산림소득과	녹색국	산림청	관리중
산촌생태마을	산림소득과	녹색국	산림청	관리중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생활자원과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관리중
농촌전통테마마을	생활자원과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관리중

참고 : * 는 2019년 사업기준

- 강원도 마을만들기 사업 중 현장포럼 실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 표 2 >와 같음.
- ‘일반농산어촌사업’은 지역자율과 사업역량에 기초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낙후, 취약 지역도 배려하며, 농촌공간의 효율적 입체적 개발을 통해 농촌지역 어디서든 기초생활 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농촌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임.
 - 도시와 차별되는 농촌이 공익적 가치를 복원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



이기 위한 창의적 사업을 발굴하고, 자체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등 자율적 지역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기반 강화에 그 목적이 있음.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마을만들기(종합개발/자율개발/신규마을/산림휴양치유마을), 시군역량강화, 농촌다움복원, 농촌형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으로 구분됨
-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읍)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 소도읍 완료지구(7개 시군, 9개읍)를 대상으로 공모·선정하여 거점지역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읍 중심지 개발 활성화로 배후마을 경제·문화·복지·공동체 등 역량강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임
- 앞서 설명한 ‘기업형 새농촌 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사업들 이외에도 많은 사업이 있는데, ‘농촌현장포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향토산업육성지원’,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운영’, ‘6차산업화 지구조성’, ‘농촌사업화 기획평가체계구축’, ‘농촌체험마을조성’,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테마공원조성’, ‘귀농·귀촌교육 및 역량강화지원’ 등이 그것임.
- ‘농촌현장포럼’은 농촌마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전문가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마을의 자원을 찾고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설정 등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임.
- ‘농촌산업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1·2·3차 복합산업화 추진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하는 사업임.
- ‘향토산업육성지원’사업은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전략사업 발굴로 기업유치, 소득창출 기반 마련하기 위한 사업
- ‘6차산업화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도내 역량 있는 6차 산업화 경영체를 중점 육성·발굴하고 인증, 현장코칭, 홍보, 판로지원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 ‘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마을단위 공동소득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체류형 농촌체험관광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임.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조성 마을에 대한 역량강화·경영지원 등 S/W분야 후속지원을 통한 마을운영 활성화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임.

-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농업·농촌 특유의 독특한 자연·문화·사회자원을 토대로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소득원의 거점 확보를 위한 사업이었음.
- ‘백두대간 주민지원’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재산권 보전과 소득특화 지원사업으로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통해서 지역주민을 보호주체로 육성하고자 함
- ‘산촌생태마을’은 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산촌정주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이후 신규조성사업이 미추진됨
 - 마을리더 교육, 현지 컨설팅, 우수마을 홍보강화, 보완사업비 확보 지원 및 산촌 6차산업 활성화 공모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이 있음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농촌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활기찬 노년 생활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학습·일거리 창출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함
 - 리더 교육 및 지도사의 지원을 통한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으로 실제로 활기찬 마을들로 변화되는 성과가 나타났지만, 사업이 끝나면 프로그램도 종료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2017년 신규선정마을은 없으며 2-3년차 운영마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함께 추진되어오던 ‘농촌전통테마마을’은 2009년 일몰하였음

2. 강원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체계 분석

- 마을만들기 사업은 2009년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기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200여개의 세부 사업을 22개 사업으로 통폐하고, 지역개발계정을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시군자율편성사업으로 구분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었음.
 - 시군자율편성사업은 유사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군 및 구를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시군구가 예산 한도내에서 해당 지역별 기초생활권개발사업을 선택하도록 하였음.



- 도시활력증진지역(25개 시, 3개 군, 69개 구)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 접경 및 도서 지역 등 특수상황지역(15개 시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 일반농산어촌개발지역(120개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강원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 추진체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앞서 설명한 지역개발 체계에 따라 각 중앙부처와 연계되어 도의 담당부서와 마을사업이 연계되어 있음.
- 도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사업도 있으며 각 시군과 연계되어 추진 중인 사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각 사업별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행정자치부와 연계되어 특수상화지역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수상황지역의 경우 모든 시군이 농촌시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을 주관하다보니 농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임.
- 또한 마을만들기 지원 추진체계는 중앙부처와 도 담당부서, 시군담당부서의 행정체계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중간지원조직 또는 민간협의체와 연계되어 있기도 함
- 현재 강원도 내 중간지원조직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농촌융복합 산업 지원센터, 강원대학교 내 농촌활성화 지원센터가 있음



< 그림 2 > 강원도 마을만들기 지원 추진체계 현황

- 강원도의 경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대부분이 기획조정실의 균형발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정보화마을명품화추진사업은 정보산업과에서 주관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일반농산어촌개발지역의 마을만들기사업은 사업의 대부분을 농정과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음.
- 지자체의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은 주민의 자생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형태로 지원에 의존하여 추진되고 있어 마을단위의 생활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은 미약한 실정임.
- 따라서 마을간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사업이 종료되면 마을사업이 실제로 중단되어 정책이 실패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추진방식을 살펴보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시·군·구의 심의를 거쳐 시·도와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검토하여 선정하는 공모제방식 운영으로 책임성이 약하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강화를 통해 현장과 공동의 연계성 강화 민간 거버넌스 기능 확충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의 역량강화사업 비교 분석

- 강원도의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은 크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특수상황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크게 두 지역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는 농촌현장포럼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상황지역은 현장포럼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별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임.
 - 성장촉진지역은 지역별 수요맞춤 지원사업을 통하여 기반시설(H/W)과 문화 콘텐츠 등 S/W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역량강화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임.

가. 마을만들기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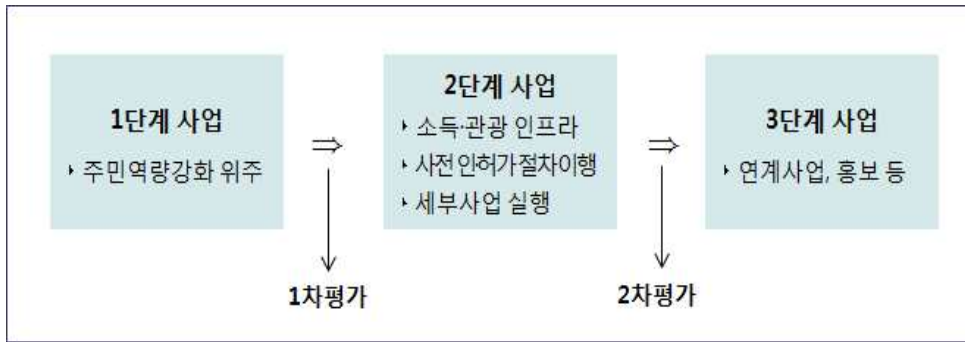
1)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개요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지역 특화개발을 통한 소득창출,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발전,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 등을 통해 활력 있고 살맛나는 도서·접경지역을 조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추진 시 공무원, 전문가, 마을주민 등으로 구성된 마을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완료시까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컨설팅,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사업 완료 후 관리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러한 마을 동체를 통해 도서·접경지역의 특산물, 부존자원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의 경관, 문화, 역사 등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지원.
 - 사업 추진 시 주민협의체, 마을공동체 등에 귀농귀촌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추진 시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 고려함.
- 주요 사업 내용
 -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 표 4 > 안전행정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내용

구분	세부사업내용	
기초생활기반	도로시설	교량, 마을간 연결도로, 도로 확포장, 비포장도로 개설 등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농로포장, 농업용수개발 등
	어항시설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부잔교 등
	기타 인프라	상·하수도, 체육·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지역소득증대	간접소득	산책로, 지표수 개발, 유적지 개발 등
	소득기반	저온저장고, 가공·포장시설, 도정시설 등
	관광단지(관주도)	숙박, 체험, 휴양지, 쇼핑단지, 먹자골목, 생태관광 등 ※ 전문기관에 위탁(협약) 또는 관에서 직접 운영
	주민참여사업	숙박, 체험(가족, 교육, 계절, 예체능), 판매(음식, 특산물) 등 ※ 운영에서 관리까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
지역경관개선	환경개선	지붕·담장 정비, 조경 등
주민역량강화	홍보·마케팅, 브랜드화 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 마을이나 섬 자원을 고려하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는 사업
 - 접경지역(평화생태마을), 도서지역(찾아가고 싶은 섬)



< 그림 3 > 사업추진체계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요

- 2014년 사업체계 개편을 통하여 단계별 지원방안을 도입하여 사업역량이 부족한 마을에 고액의 사업비 지원으로 무분별한 사업비 집행과 시설물 운영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역량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2019년 실시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2017년 계획(안)을 살펴보면 기초생활거점의 추가와 농촌다움 복원,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분야별 마을개발사업이 자유사업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바뀌었음< 표 5 >.
- 또한 사업의 주체인 주민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제 해결 능력, 공동체 신뢰형성, 네트워크 역량 등 사전역량강화를 의무화하였음.
 - 사업 사업참여 의사가 있는 주민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의 사전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업 참여 이전에 필히 교육을 이수하여 사업을 이해하고, 주민주도의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마을 활동으로 경험을 축적하여 마을공동체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 표 5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개요

사업유형		사업내용
농촌중심지활성화		-농촌중심지에 교육 문화 복지 경제 등 중심기능 활성화 -네트워크를 통해 배후마을에 서비스 제공
기초생활거점		-통합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읍소재지 접근성이 제한적인 배후마을에 서비스 제공 등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자율개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신규마을	-기반조성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시행계획 수립
	산림휴양치유마을	-산촌마을이 산림경과, 산림문화자원, 인근 산림복지시설과 연계한 산림에 특화된 사업
시군역량강화		단계별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예비·사후 역량강화를 중점 지원
농촌다움 복원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창의적인 사업 추진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농촌지역 65세 이상 고령자 및 귀농귀촌인(30%이내)을 위한 농촌형 임대주택

주) 2017년 1월부터 '18, '19년 산림휴양치유마을 신규사업, 산촌성격이 강한 '17년 계속 사업 24개 지구를 산림청에서 관리

자료 :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추진 계획(안)

- 이와 같이 최근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다양한 유형(광역, 권역, 마을단위 등)과 형태(하드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 등)로 발전하고 사업추진방식도 주민참여형의 상향식(Bottom-up)으로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실시되기 이전 추진되었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읍면소재지정비사업 등 농촌마을 개발사업의 정부의 하향식 사업추진으로 농촌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부족과 환경변화에 대처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지 못하여 수많은 정책사업만 양산하고, 보조금과 특혜 금융자금으로 농업생산자가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농가부채만 늘어나는 등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농촌주민들은 비전과 자신감을 잃었



고 정부에 대한 의존만 심화시켜 왔음.

- 이에 따라 농촌지역개발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 초기에는 주로 기반시설확충, 및 경관개선 등 하드웨어 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3) 기업형 새농촌사업 개요

- 강원도는 실사구시, 자력갱신, 자경정신을 바탕으로 한 21세기형 농어촌혁신운동인 ‘새농어촌건설운동’을 1999년부터 추진하여, 2015년까지 350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당 3~5억원씩 1,719억원의 역량강화사업비를 지원하여 마을실정에 맞는 특성화 마을로 발전시키고 있음.
- 기업형 새농촌 사업으로 추진하며 달라진 점은 기초마을, 도약마을, 선도마을의 역량단계별 지원 기준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공모대상들의 조건도 정해졌다는 점임
- 지원대상은 농촌마을(행정리 단위)인데 전체 가구 중 농가비율이 50% 이상인 마을이며 미만이더라도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경우는 지원이 가능함
- 마을 역량단계 분석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의 단계가 구분됨
 - 기초마을 : 예비이전단계 마을
 - 도약마을 : 예비단계, 진입단계 마을
 - 선도마을 : 발전단계, 자립단계 마을

< 표 6 > 마을 역량단계 분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이전 : 정부 지원사업 실적이 없는 마을 ◆ 예비단계 : 1천만원 이하 소액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마을 ◆ 진입단계 : 5억원 이하의 중규모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마을 ◆ 발전단계 : 진입단계를 거치고, 종합개발사업 추진 마을(40억원 이하) ◆ 자립단계 : 발전단계의 사업을 이수한 마을(40억원 초과)

- 기초마을은 예비이전단계 마을로 마을별 사업비 1천만원 이내, 사업기간 1년으로 마을공동사업 유치를 위한 전 단계로 주민간 공동체 활동으로 교육과 포럼 등의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환경개선 등의 활동을 시행하게 됨
- 도약마을은 마을별 사업비 3~5억원 이내, 사업기간 3년 이내로 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이용하거나 기 추진사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소득, 환경, 문화, 복지 등에서 마을 특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게 됨
- 선도마을은 마을별 사업비 2억원 이내, 사업기간 3년 이내로 정부사업과 연계하여 발전·자립 단계를 이수한 마을 중 대표마을로 진입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 위주의 소규모 보완·발전 사업을 실시하게 됨(6차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등)

4) 지역별 수요맞춤 지원사업 개요

- 지역별 수요맞춤 지원사업은 기존의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대규모 SOC사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의 H/W+S/W의 융·복합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으로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으로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한 시·군('14년 재지정) 임.
- 지원사업은 기반시설(H/W)과 문화 콘텐츠 등 S/W사업으로 타부처 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며,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일자리, 지역생활복지, 지역관광·체험 등 사업임.
- 지자체와 지역 내 주민공동체(주민·전문가·문화예술인 등)가 공동 기획한 사업도 응모 가능(지역 거버넌스형 사업, '18년 신규도입)하며, 지역활성화 지역²⁾의 경우 공모의 유형에 고령친화적 공간정비사업이 추가되며,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됨(2018년에는 단일 시·군사업과 별도로 5개 내외 사업 선정).

2) 지역활성화지역은 성장촉진지역(70개)중 도별 낙후도 상위 30% 22개 시군(시도자율선정)을 말함.



- 사업은 ① 단일 시·군 사업과 ② 복수 시·군 연계 사업(지역개발 연계사업)을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음.

<표 7> 지역별 수요맞춤지원사업 개요

구 분	단일 시·군 사업	지역개발 연계사업
대상 지자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 대상('14년 재지정 기준)	.성장촉진지역을 포함한 복수(2개 이상)의 시·군 대상(최대4개)
지원 규모	.최대 약 20억원(보조율 100%)	. 약 30억원 내외(보조율 100%) - 연계 지자체의 수에 따라 차등지원
사업수	.약 10개 내외	.약 3개 내외

- 사업규모와 보조율을 살펴보면 단일 시·군 사업은 최대 약 20억원, 복수 시·군 사업은 최대 약 30억원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율은 100%임.
- 지역개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모사업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고, 사업발표회를 거쳐 지원사업 결정하고 있음.

< 표 8 > 각 지역개발사업 비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강원도기업형새농촌사업
대상 (지자체)	15개 접경지역 시·군 및 372개 개발대상도서 중 성장촉진지역이 아닌 186개 도서	도농복합형태 시 및 군 지역(117개 시·군) *제주 특별자치도 행정시 포함 *광역시의 군 제외 *특수 상황지역 해당지역 제외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	강원도 18개 시군
주관 부처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강원도
대상 사업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구성			
지원 시설 성격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시설조성은 유사하나 지역의 특수성을 더욱 강조	일반농산어촌지역의 기초생활시설 및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 집중	지역거버넌스형 사업, 고령친화적 공간정비, 지역일자리 창출, 생활복지 기반조성, 체험관광시설 조성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유사 *마을단위 부지구입 가능



나. 사업별 역량강화사업의 비교

1)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역량강화사업 개요

- 특수상화지역개발사업의 역량강화사업은 본 사업의 선정 후 1단계 사업에서 실시하고 있음.
- 사업 신청 시 전체 계획을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추진상화 평가를 통해 다음단계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
- 1단계사업에서 주로 실시하는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지역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인력양성 및 특산품 브랜드화, 지역브랜드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인력양성은 리더교육, 관광해설사교육, 커뮤니티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지역브랜드 및 홍보마케팅 사업은 지역상품 마케팅, 관광프로그램 개발, 캐릭터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음.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역량강화사업 개요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능별 사업의 종류는 크게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소득증대, 지역역량강화 등 4개 분야로, 과거에는 주로 기반시설확충 및 경관개선 등 하드웨어 정비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그 이유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개성과 자율성, 창의성을 기초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상향식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임.
 - 또한 지역역량강화(S/W)사업을 도입하여 주민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중심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임.

- 이는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상향식 지역개발사업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내실화를 꾀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며 농촌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내생적 역량의 강화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임.

< 표 9 > 일반농산어촌개발 기능별 사업내용 예시 중 지역역량강화 사업

교육 훈련	리더양성, 정문가양성(체험지도사, 시설운영, 응급처치 등), 교육관련 비품 및 장비 구입, 국내 선진지 견학
홍보	홍보마케팅(지역축제 활성화, 마을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정보화 교육, 마을 기록화, 마을신문 등)
지역활성화	유지관리활성화 프로그램, 중심지와 배후 마을간 연계 프로그램 ¹⁾ , 사회적 경제조직 등 전문조직 발굴 및 육성, 공동체활성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
사업지원	기본계획수립 ²⁾ , 세부설계수립, 감리비,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총괄 계획가, PM단, 현장활동가 등), 관리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법정경비(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등

주 : 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 거점 사업(2단계 사업 시)만 해당
 2) 경관계획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별도 경관계획수립비용 지원불가)

자료 :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추진 계획(안)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역역량강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능별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등의 부대경비와 지역마케팅, 관계자 교육, 홍보, 컨설팅, 마케팅의 소요경비 등과 기초생활권의 기능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리더 및 주민교육, 브랜드 개발, 귀농 및 귀촌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 또한 시군의 지역역량강화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총 사업비의 3%이내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업지원에 필요한 경비와 연구비, 자문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여타 사업과 달리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짧은 시간에 하드웨어 시설중심의 투자에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 시설의 운영관리 등 사업성과가 미진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임.
- 현재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사업추진주체), 한국농어촌공사(사업 위탁 시행자), 컨설팅 업체(사업수행자) 등이 담당하고 있음.

3) 기업형 새농촌사업 역량강화사업 개요

- 기업형 새농촌사업의 역량강화사업은 기초마을 사업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마을공동사업 유치를 위한 전 단계로 주민간 공동체 활동으로 교육과 포럼 등의 역량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기초마을의 사업은 조사연구, 지역인적자원 육성,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운영, 홍보 마케팅, 소규모 마을사업 등 마을여건에 맞는 사업으로
 - 지금까지 정부지원 사업실적이 없는 등 마을개발사업 소외지역의 주민 역량강화와 공동체 회복과 소규모 마을사업을 통한 개발사업 경험 축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지역개발 동력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 주민역량강화사업은 농촌역량강화사업운영 매뉴얼을 준용한 기초마을 포럼을 운영하고 있음
 - 운영주체는 기업형 새농촌 자문단으로 자문단 3명이 1조로 구성되어, 팀별 2~3회에 걸쳐 찾아가는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 사전 역량강화를 위한 소액사업(마을당 약 700만원)과 역량강화 주민교육(마을당 약 300만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교육은 현장포럼 2회, 선진지 견학을 포함하고 있음.

4)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역량강화사업 개요

-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주민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H/W 사업과 S/W사업의 융복합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에서 지정차형 실시하는 역량강화사업은 없는 것으로 추정됨.

<표 10> 부처별 지역개발사업 주요 역량강화사업 비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시기	사업 선정 전 농촌 현장포럼 실시 시군역량강화사업 연중	사업 선정 후	사업 선정 후	사업선정 후
방법	선정 전 : 농촌현장포럼 선정 후 : 역량강화사업 포함 사업 추진	선정 전 : 없음 선정 후 : 1단계사업들 역량강화 위주로 실시	선정 전 : 없음 선정 후 : 사업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용 및 활용 교육	선정 전 : 없음 선정 후 : 참여주체들의 참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특징	사업 사전 사후 지속적인 역량강화사업 실시	사업 선정 전 역량강화 사업 없음.	사업 선정 전 역량강화 사업 없음	사업 선정 전 역량강화 사업 없음
내용	기능별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군의 지역역량강화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 - 지역리더 및 주민교육 - 지역마케팅관계자 교육, - 홍보, 컨설팅, 마케팅	지역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인력양성 및 특산품 브랜드화 등 교육 인력양성 지역브랜드 및 홍보마케팅 지원 리더교육, 관광해설사교육, 커뮤니티사업 등 지원 지역상품 마케팅, 관광프로그램 개발, 캐릭터 브랜드 개발 등	사업추진을위한 역량강화 위주로 실시- 문화강좌 체험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동아리활동 지원	주민 상인 등 도시재생사업 참여주체들의 사업참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도시재생대학 등 뉴딜교육-주민홍보사업 등



III. 강원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역량강화사업 비교 분석

- 본 연구는 농촌현장포럼 실시마을과 비실시마을의 역량을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현장포럼의 실시를 통하여 마을주민들의 역량적 차이가 있을 것이란 가설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는 동일한 마을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여도 사전 역량강화사업의 실시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현장포럼을 실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지역인 9개 시군과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하는 6개 시군의 마을을 대상으로 설문분석을 실시함.

1. 주민역량분석 지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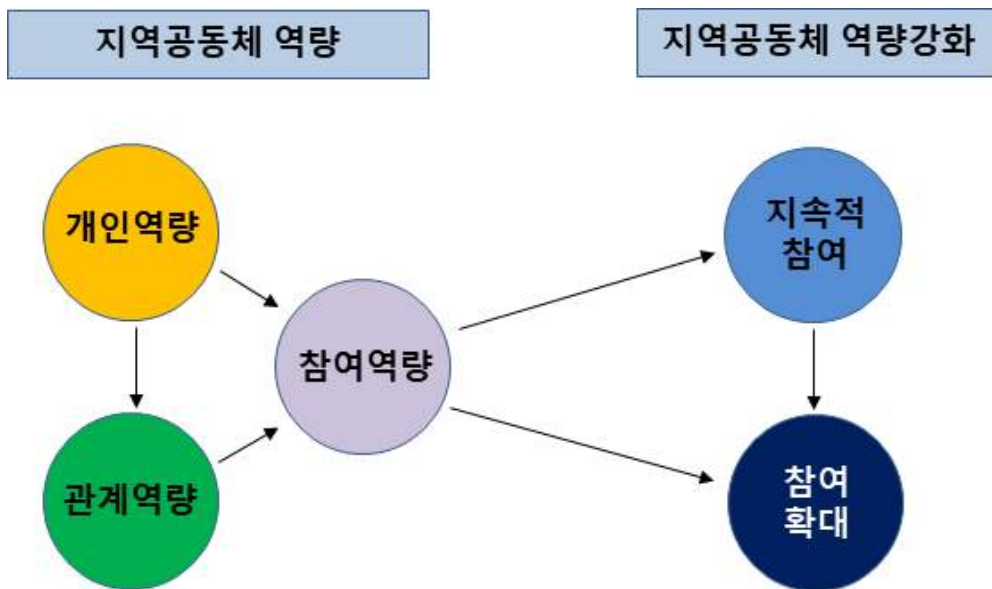
가. 주민역량 분석 지표

- 마을역량은 각 마을이 속해있는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볼 수 있음.
- 마을역량을 결정짓는 요소로는 크게 마을경쟁력과 마을 주민의 삶의 질로 대별할 수 있고, 마을경쟁력은 마을의 경제적 비교우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주민의 삶의 질 조건은 마을의 인적·물적 비교우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양자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
- 즉 주민의 삶의 질 조건은 마을경쟁력을 증대시키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마을경쟁력 강화는 곧 주민의 삶이질 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역역량은 어느 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양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의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의 합의를 통하여 공공부분의 외부 지원을 받아 발전을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음. 즉, 어떤 특정한 개별지역이 그 지역의 한정된 자원과 조건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역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의미함.

- 따라서 마을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을사업을 통해 그 공동체내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공익성 및 공공성이 있으며, 이와 함께 주민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기능강화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농촌지역의 소득제고를 위한 방법은 마을에서 직접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방식의 개발을 통한 방법과 농어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농어촌마을의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임.
 - 따라서 마을의 역량은 생활공동체로서의 역량과 경제공동체로서의 역량으로 부분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임.
-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지, 다른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어느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어느 부분이 앞서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이 경쟁력을 갖게 될 방향설정에 필요한 것들을 진단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삶의 질에 대한 분석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 등 만족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 마을의 역량이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의 합의를 통하여 공공부분의 외부 지원을 받아 발전을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능력이므로 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을지도자의 역량은 중요한 요소임. 따라서 마을지도자의 능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마을 현장포럼에서 가정했던 여러 가지 설문조사결과와 자료, 토론내용들을 토대로 마을지역 공동체 역량지표를 설정하였음.
 - 설문지 작성은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와 지역과 관련한 실무자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완성된 설문지를 농촌마을에 실정에 적합한 내용으로 고쳐서 사용하였음.
 - 다만 고령화된 농촌주민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너무 다양한 요소들을 조사하게 되면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설문지로 대체하여 작성하였음.
 - 일반사항은 농촌주민들의 개인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 연령, 학력과 거주기간, 생활근거 및 연간소득 등을 사용하였음.



- 개인역량은 선행연구 설문 항목을 조사하여, 지역생활의 만족도,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도,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도,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자율적 행동역량을 사용하였음.
- 지역공동체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지속적 참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도적 참여 의도와, 지속적 참여의도를 측정항목으로 도출하여 사용하였음. 또한 지역개발 활동에 대한 역량강화 활동의 궁극적인 결과는 지역공동체의 인적 조직적 네트워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가 목적이므로 개인적 관계와 공적관계를 측정항목으로 도출하여 사용하였음.
- 지역역량의 강화는 마을이나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역량강화 항목이므로 지속적 참여의도와 지역활동에의 참여확대 의도를 특정항목으로 도출하여 사용하였음.



<그림 4>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 관계

- 개인역량으로서 지역 또는 생활에 대한 만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참여에 대해 마음이 열려있거나 참여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문제 및

이슈에 대한 개인 역량이 뛰어날수록 그 만큼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할 것임. 또한 이러한 개인역량이 강화될수록 즉 지역사회에 참여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 공공과 조직 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제를 내재하고 있음. 나아가 관계역량이 좋아질수록 지역 만들기 활동의 참여가 많아 질 것임.

나. 변수의 정의

- 개인역량은 ‘지역주민 개개인의 농촌마을에 대한 인지적 요소로서 만족, 애착, 관심과 지식, 기술적 기반으로 교육경험 및 지역문제 해결능력으로 구성된 역량’으로 정의하였으며, 구성요소로써 개인특성, 지역 및 생활 만족 등 10개 문항을 측정하였음.
- 참여역량은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식적 요소로서 참여의식과 참여기반환경, 그리고 태도적 요소로서 참여활동과 참여를 통한 동원능력으로 구성된 역량’으로 정의하였으며, 참여의지, 참여환경 7개 문항을 측정하였음.
- 관계역량은 ‘지역공동체가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요소로서 지역주민들 간의 사회적 관계의 형성 및 인식, 공공과의 관계, 신뢰의식 및 태도, 조직 간 관계, 신뢰의식 및 태도로 구성된 역량’으로 정의하였으며, 7개 문항을 측정하였음.
- 지속적 참여는 ‘자신이 거주하는 동안 지역문화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참여, 지역문제에의 관심과 참여하고자 하는 행동(태도) 및 의도’로 정의하였으며, 참여확대는 ‘자신이 거주하는 동안 지역문화 형성 및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문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다른 지역의 활동조직과의 연계, 다른 조직과의 연계 또는 다른 지역 활동 참여에 대한 행동(태도)과 의도’로 정의하였음. 지속적 참여와 참여확대는 각각 4개 문항을 측정하였음.



2. 현장포럼 실시마을 및 비실시마을 주민역량 분석

가. 현장포럼 실시마을 주민역량 분석

가) 현장포럼 실시마을의 일반현황

- 연구대상 219명 표본의 특성은 <표 1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126명 57.5%, 여성 93명으로 42.5%로 각각 나타났고, 연령층은 70대 이상이 40.2%, 60대 38.8%이며. 50대가 10.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 8.2%, 20대 2.3%의 순으로 분포하였음.

<표 11> 현장포럼 실시마을 기초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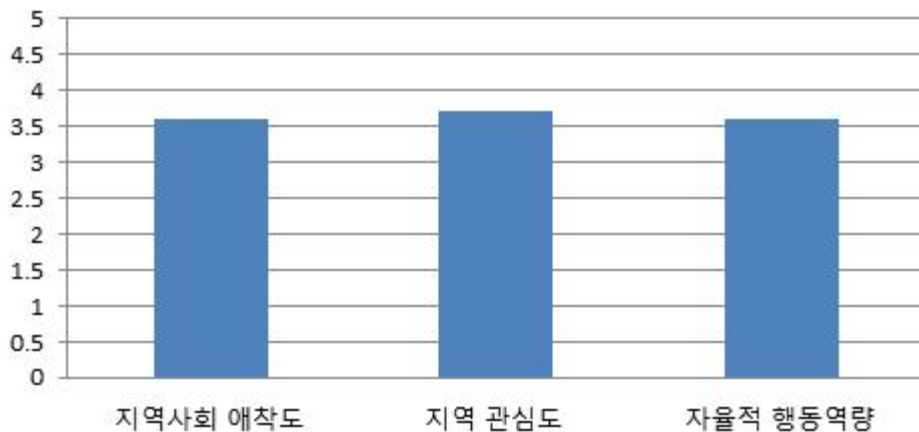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성별	남	126	57.5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	47	21.5
	여	93	42.5		1,000~2,000만원 이하	53	24.2
연령	20대	5	2.3		2,000~3,000만원 이하	65	29.7
	30대	-	-		3,000~4,000만원 이하	33	15.1
	40대	18	8.2		4,000~6,000만원 이하	15	6.8
	50대	23	10.5		6,000만원 이상	6	2.7
	60대	85	38.8	생활 근거	농업인	93	42.5
	70대이상	88	40.2		귀농인	48	21.9
거주 기간	3년 미만	14	6.4		귀촌인	52	23.7
	3년~5년	10	4.6		농촌인	16	7.3
	5년~10년	51	23.3	기타	10	4.6	
	10년~15년	43	19.6		219	100.0	
	15년~20년	30	13.7				
	20년 이상	71	32.4				
계		219	100.0				

- 직업별 분포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93명으로 이었으며, 귀농인은 21.9%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외 귀촌인 23.7%, 기타 4.6%로 나타났다.
- 마을에 거주한 거주기간은 20년 이상 거주가 32.4%로 가장 많았으며, 5년~10년 23.3%, 10년~15년 19.6%, 15년 ~20년 13.7%, 3년 미만 6.4%, 3년~5년 미만이 4.6%로 분포하였음.
-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2,000~3,000만원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원 ~ 2,000만원이 24.2%, 1,000만 원 이하가 21.5%, 3,000~4,000만원 15.1%, 5,000만원 이상도 2.7% 분포하였음.

나) 현장포럼 실시지역 개인역량 분석

- 현장포럼 마을의 개인역량은 지역관심도가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애착도와 자율적 행동역량은 각각 3.6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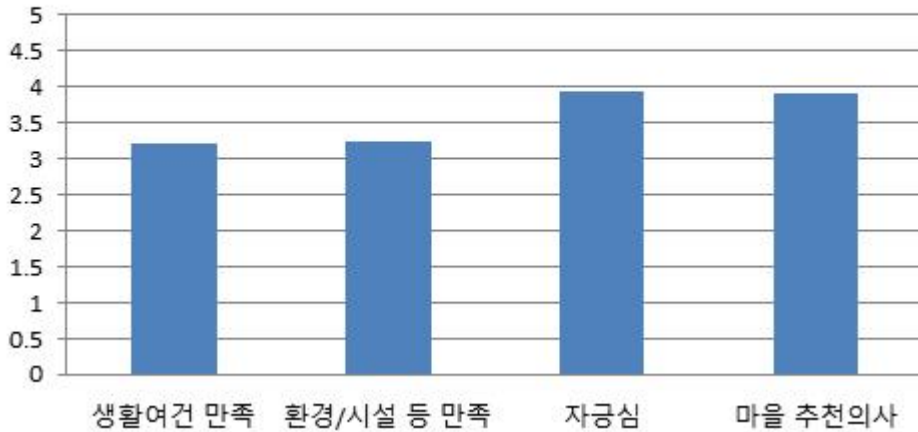
현장포럼 실시마을 개인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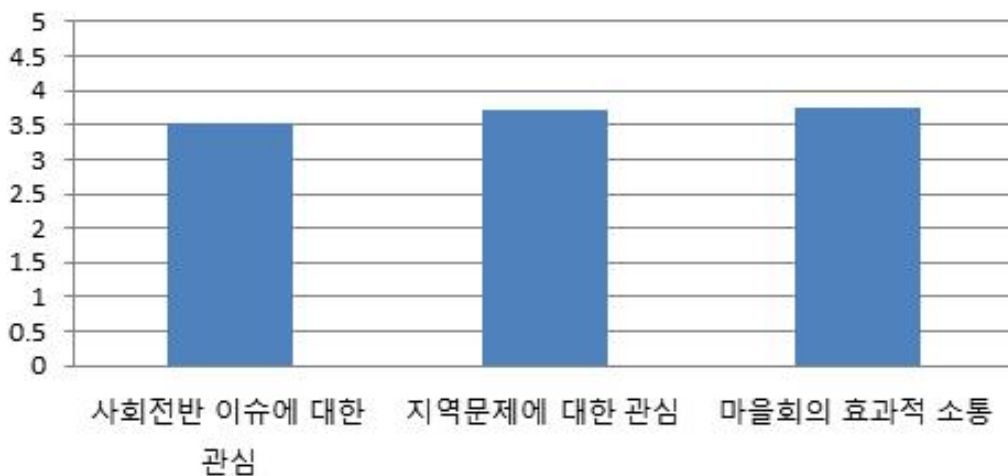
- 지역사회 애착도는 마을에 대한 자긍심이 3.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마을 추천의사가 3.9이며 마을의 환경 및 시설 등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3.24, 마을의 생활여건에 만족한다는 3.22로 나타났음.

지역사회 애착도



- 지역사회 관심도는 마을회의에 참가하여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가 3.76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 3.71, 사회전반의 이슈에 대한 관심이 3.52로 나타났음.

지역사회 관심도



- 자율적 행동역량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보상핀다가 3.74로 가장 높았으며, 마을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3.67, 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석한다는 3.54로 나타났다.

자율적 행동역량



다) 현장포럼실시지역 참여역량 분석

- 현장포럼 마을의 참여역량은 주도적 참여역량이 3.85로 나타났으며, 지속적 참여는 3.80으로 나타나 주도적 참여역량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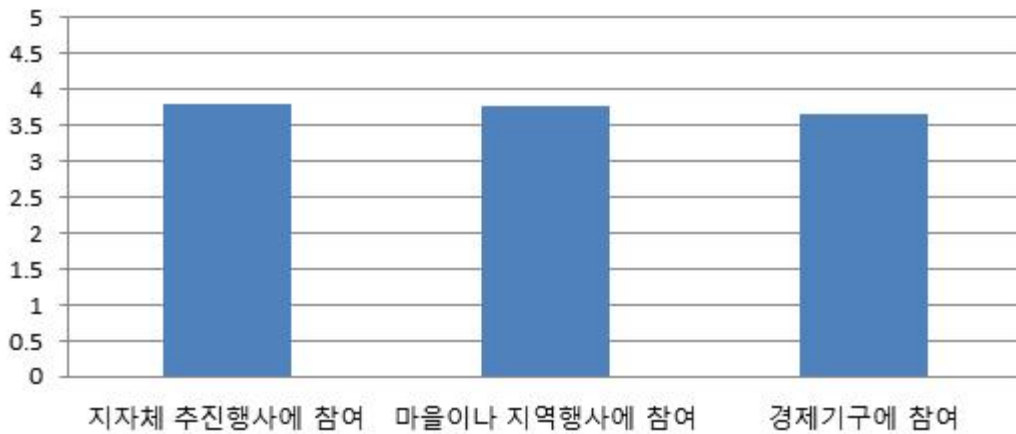
현장포럼 마을 참여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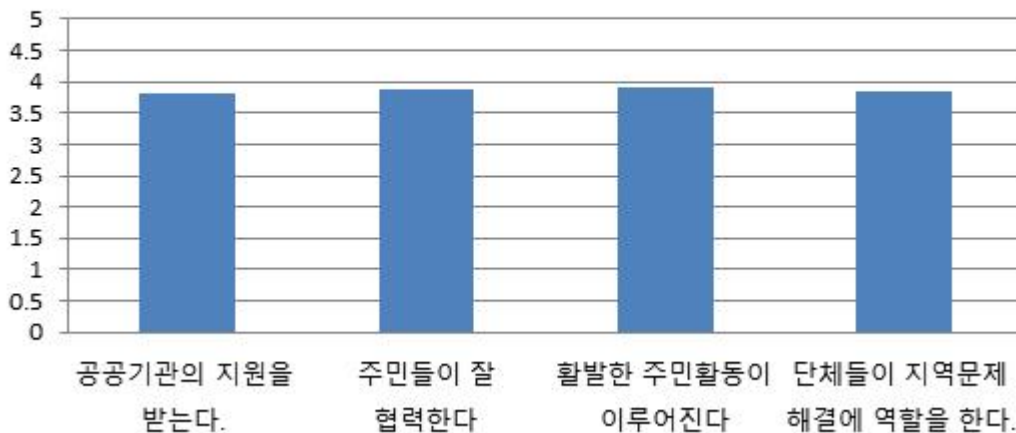
- 지속적 참여의도는 지자체 추진행사에 참여가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을이나 지역행사에 참여는 3.77, 경제기구에 참여는 3.66으로 나타났다.

지속적 참여의도



- 주도적 참여의도는 활발한 주민활동이 이루어진다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민들이 잘 협력한다가 3.86, 단체들이 지역문제 해결에 역할을 한다가 3.83,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생각을 하는 주민들은 3.81로 나타났다.

주도적 참여의도



라) 현장포럼 실시지역 관계역량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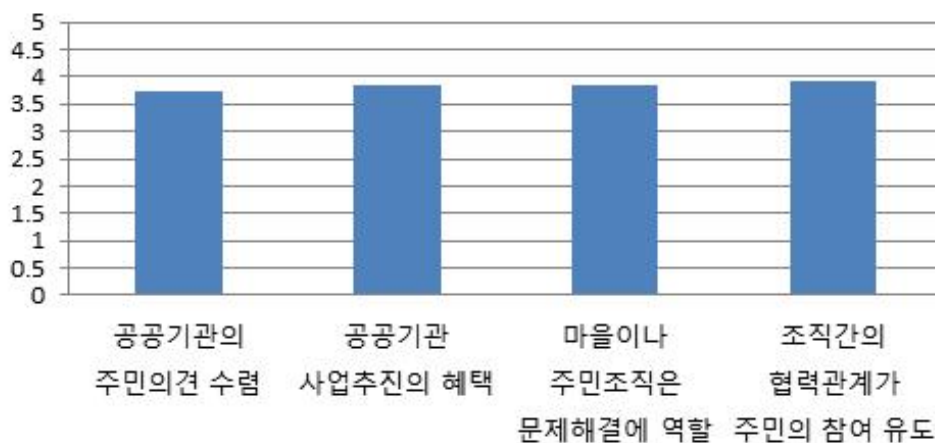
- 현장포럼 마을의 관계역량은 공적관계 역량이 3.84로 나타났으며, 개인적 관계역량은 3.83으로 나타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음.

현장포럼 마을 관계역량



- 공적관계역량은 조직간의 협력관계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가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을이나 주민조직이 문제해결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3.86, 공공기관이 사업추진에 혜택을 주고있다는 3.84, 공공기관이 주민의 익녀을 수렴한다는 3.72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공적 관계역량





- 개인적 관계역량은 이웃에 대한 신뢰가 3.87를 가장 높았으며,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3.83이었으며, 비공식적 친분관계는 3.74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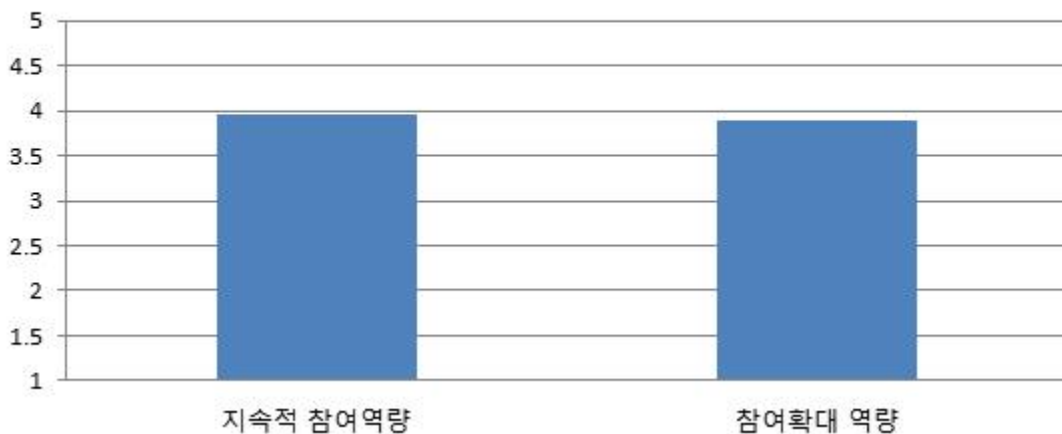
개인적 관계역량



마) 현장포럼 실시지역 지속적 참여와 참여확대역량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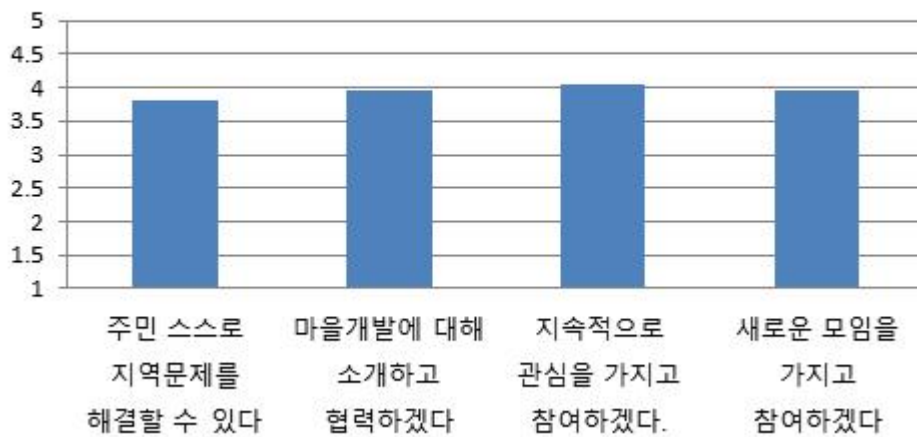
- 현장포럼 마을의 지속적 참여역량과 참여확대 역량은 지속적 참여역량이 3.95이며, 참여확대역량은 3.90으로 지속적 참여가 조금 높게 나타났음.

현장포럼 마을 지속적참여/참여확대역량



- 지속적 참여역량에서 마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한다가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을개발에 대해 소개하고 협력하겠다 3.97, 새로운 모임을 가지고 참여하겠다가 3.95,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3.82로 모든 부문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지속적 참여역량



- 참여확대역량은 다른마을이나 지역에 도움을 주겠다와 농촌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가 각각 3.92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협력하고 참여한다는 3.89, 다른 지역의 조직화에 협력할 의향은 3.88로 나타났음.

참여확대 역량





나. 현장포럼 비실시지역 주민역량 분석

가) 현장포럼 비실시마을의 일반현황

- 연구대상 66명 표본의 특성은 <표 12>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28명 42.4%, 여성 38명으로 57.6%로 각각 나타났고, 연령층은 70대 이상이 43.9%, 60대 24.2%이며. 50대가 16.7%, 40대 15.2% 순으로 분포하였음.

<표 12> 현장포럼 비실시마을 기초통계량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성별	남	28	42.4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	10	15.2	
	여	38	57.6		1,000~2,000만원 이하	10	15.2	
연령	20대	-	-		2,000~3,000만원 이하	11	16.7	
	30대	-	-		3,000~4,000만원 이하	19	28.8	
	40대	10	15.2		4,000~6,000만원 이하	8	12.1	
	50대	11	16.7		6,000만원 이상	7	10.6	
	60대	16	24.2		생활 근거	농업인	46	69.7
	70대이상	29	43.9			귀농인	12	18.2
거주 기간	3년 미만	2	3.0			귀촌인	1	1.5
	3년~5년	1	1.5			농촌인	4	6.1
	5년~10년	9	13.6	기타	3	4.5		
	10년~15년	1	1.5		66	100.0		
	15년~20년	6	9.1					
	20년 이상	47	71.2					
계		6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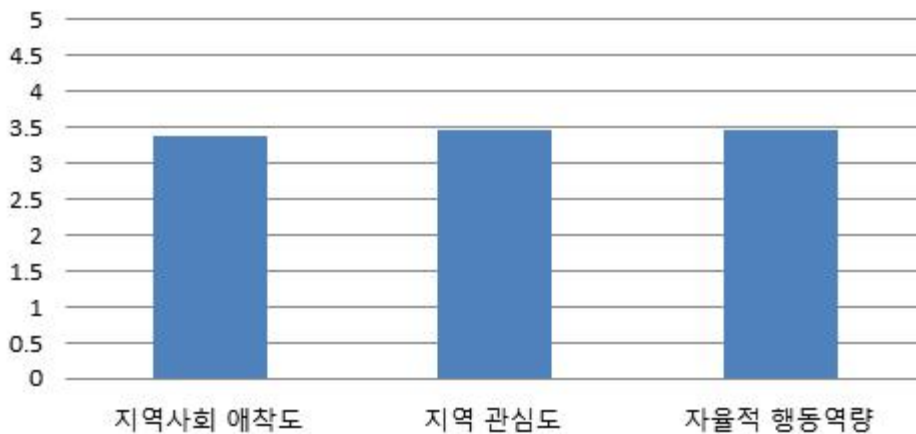
- 직업별 분포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46명으로 이었으며, 귀농인은 18.2%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외 귀촌인 1.5%, 기타 4.5%로 나타났음.

- 마을에 거주한 거주기간은 20년 이상 거주가 71.2%로 가장 많았으며, 5년~10년 13.6%, 15년 ~20년 9.1%, 10년~15년 1.5%, 3년~5년 미만이 1.5%, 3년 미만 3.0%로 분포하였음.
-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3,000~4,000만원 28.8%로 가장 많았으며, 2,000~3,000만원이 16.7%, 1,000만원 ~ 2,000만원이 15.2%, 1,000만원 이하가 15.2%, 5,000만원 이상도 10.6% 분포하였음.

나) 현장포럼 비실시지역 개인역량 분석

- 현장포럼 마을의 개인역량은 지역관심도가 3.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적 행동역량은 각각 3.45, 지역사회 애착도 3.37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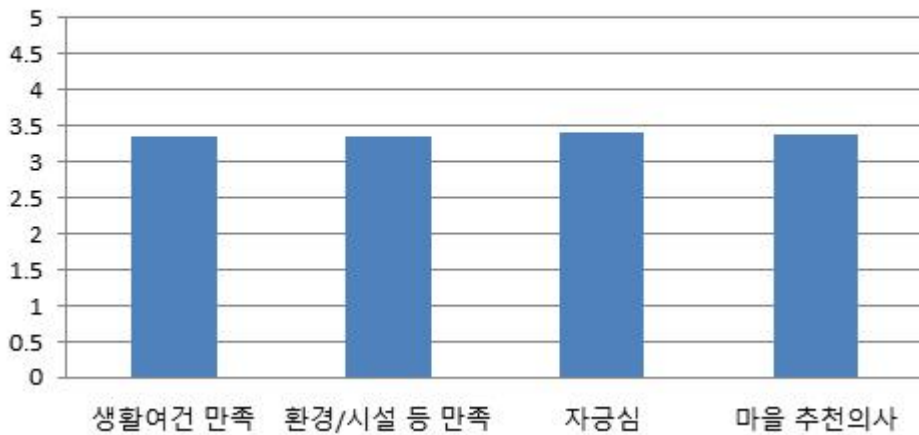
현장포럼 비실시마을 개인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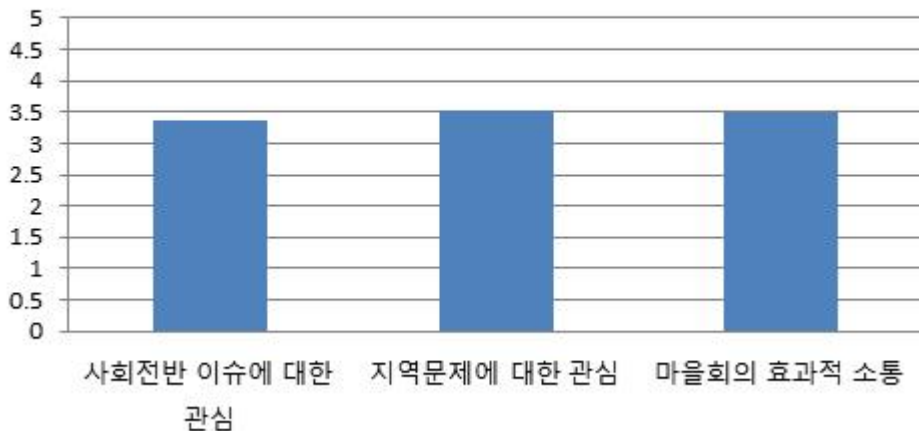
- 지역사회 애착도는 마을에 대한 자긍심이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마을 추천의사가 3.39이며 생활여건에 만족한다는 3.36, 마을의 환경 및 시설 등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3.35 순으로 나타났음.

지역사회 애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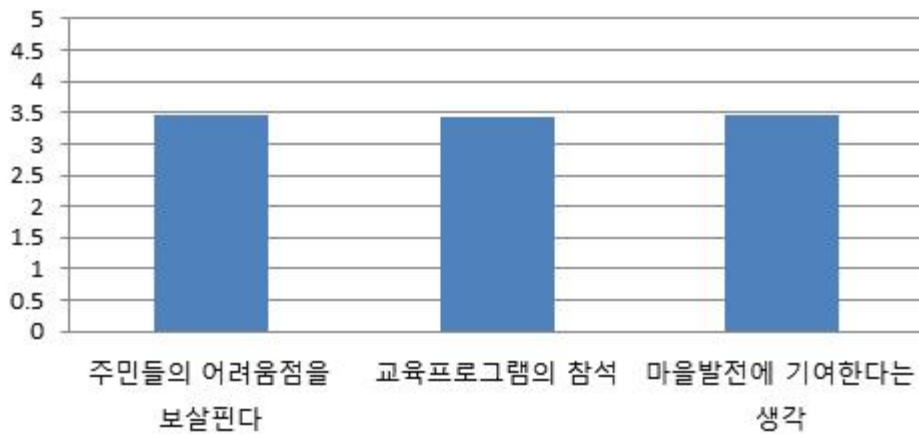
- 지역사회 관심도는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 3.53으로 가장 높았으며, 마을회의에 참가하여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가 3.5, 사회전반의 이슈에 대한 관심이 3.35로 나타났음.

지역사회 관심도



- 자율적 행동역량은 마을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3.47로 가장 높았으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핀다가 3.45, 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석한다는 3.44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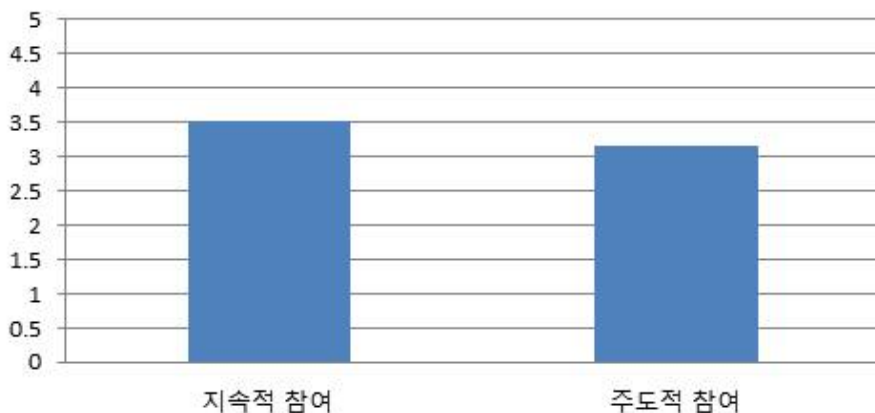
자율적 행동역량



다) 현장포럼 비실시지역 참여역량 분석

- 현장포럼 마을의 참여역량은 주도적 참여역량이 3.17로 나타났으며, 지속적 참여는 3.52로 나타나 지속적 참여역량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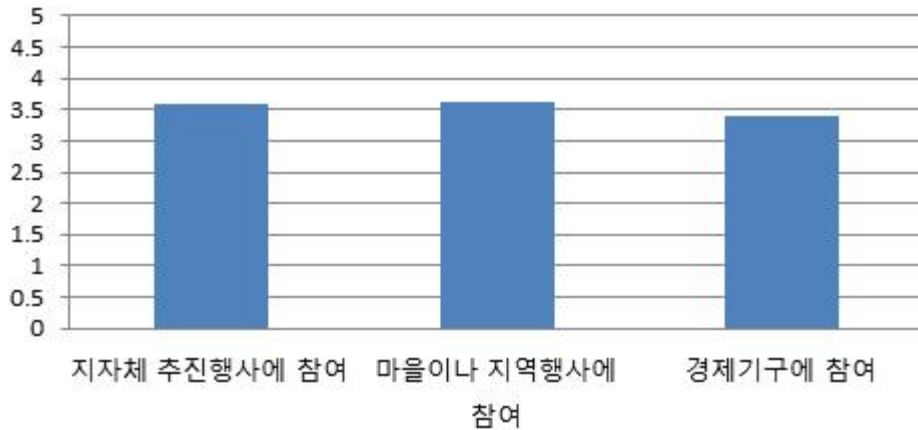
현장포럼 비실시마을 참여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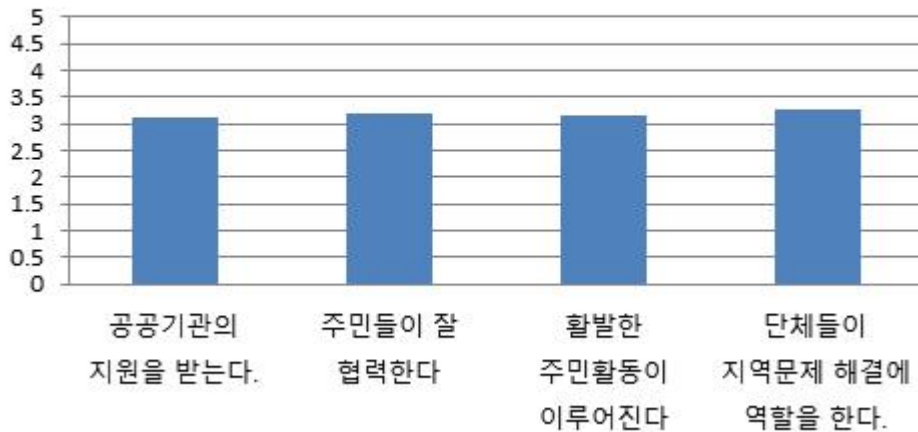
- 지속적 참여의도는 마을이나 지역행사에 참여는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자체 추진행사에 참여가 3.58, 마을 경제기구에 참여는 3.38로 나타났다.

지속적 참여의도



- 주도적 참여의도는 단체들이 지역문제 해결에 역할을 한다가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민들이 잘 협력한다가 3.18, 활발한 주민활동이 이루어진다가 3.14,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생각을 하는 주민들은 3.11로 나타났다.

주도적 참여의도



라) 현장포럼 비실시지역 관계역량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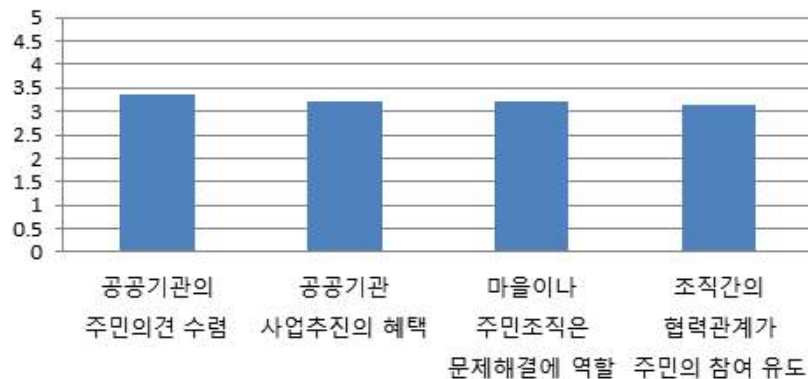
- 현장포럼 마을의 관계역량은 공적관계 역량이 3.24로 나타났으며, 개인적 관계역량은 3.23으로 나타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음.

현장포럼 비실시마을 관계역량



- 공적관계역량은 공공기관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을이나 주민조직이 문제해결에 역할을 하고 있다 3.23, 공공기관이 사업추진에 혜택을 주고있다는 3.23으로 나타났으며, 조직간의 협력관계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가 3.92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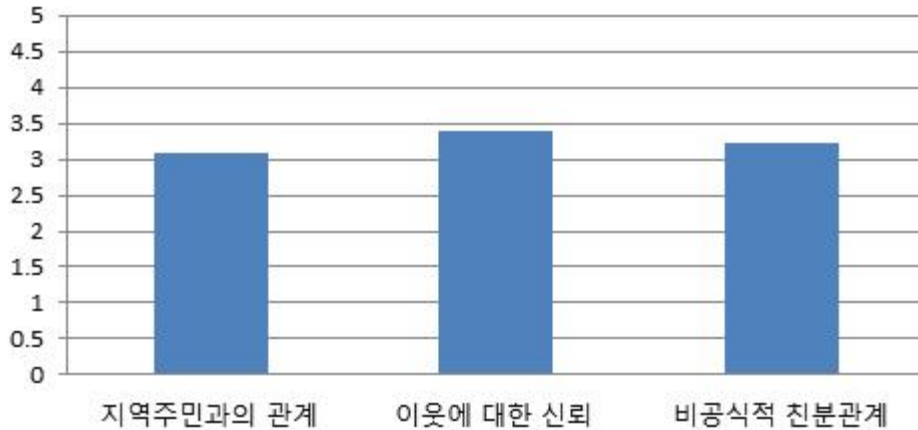
공적 관계역량





- 개인적 관계역량은 이웃에 대한 신뢰가 3.38로 가장 높았으며, 비공식적인 관계는 3.23,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3.03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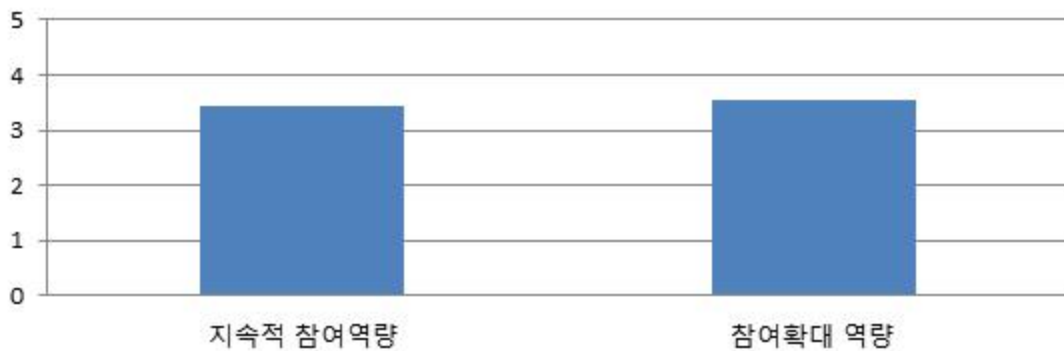
개인적 역량관계



마) 현장포럼 비실시지역 지속적 참여와 참여확대역량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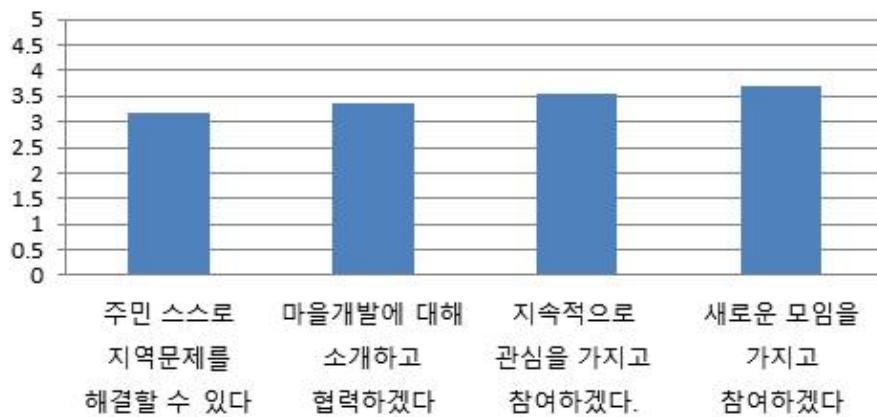
- 현장포럼 마을의 지속적 참여역량과 참여확대 역량은 지속적 참여역량이 3.45이며, 참여확대역량은 3.53으로 참여확대 역량이 조금 높게 나타났음.

현장포럼 비실시마을 지속적참여/참여확대 역량



- 지속적 참여역량에서 새로운 모임을 가지고 참여하겠다가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참여한다가 3.55, 마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개발에 대해 소개하고 협력하겠다 3.38,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3.18의 순으로 나타났음.

지속적 참여역량



- 참여확대역량은 농촌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마을이나 지역에 도움을 주겠다 3.52, 다른 지역의 조직화에 협력할 의향은 3.88, 3.48,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협력하고 참여한다는 3.44로 나타났음.

참여확대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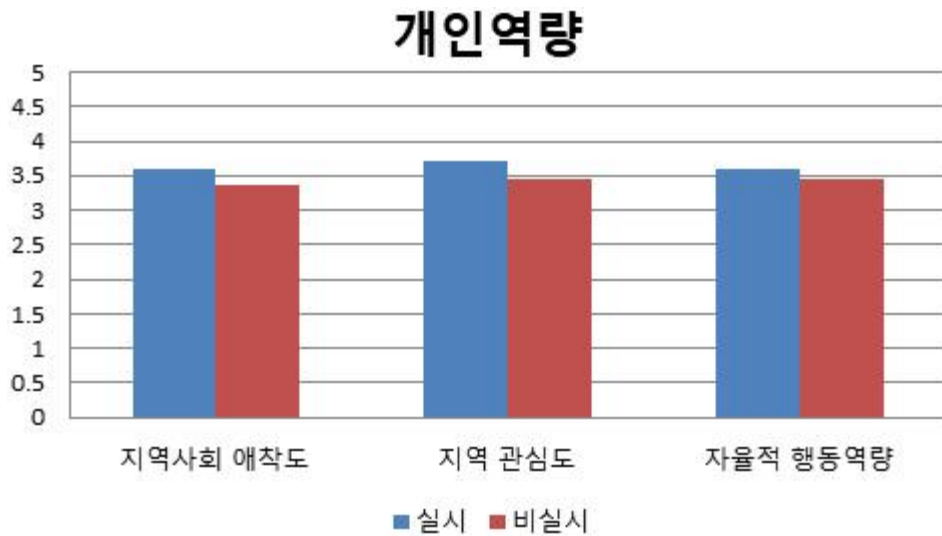




3. 현장포럼 실시마을과 비실시마을의 역량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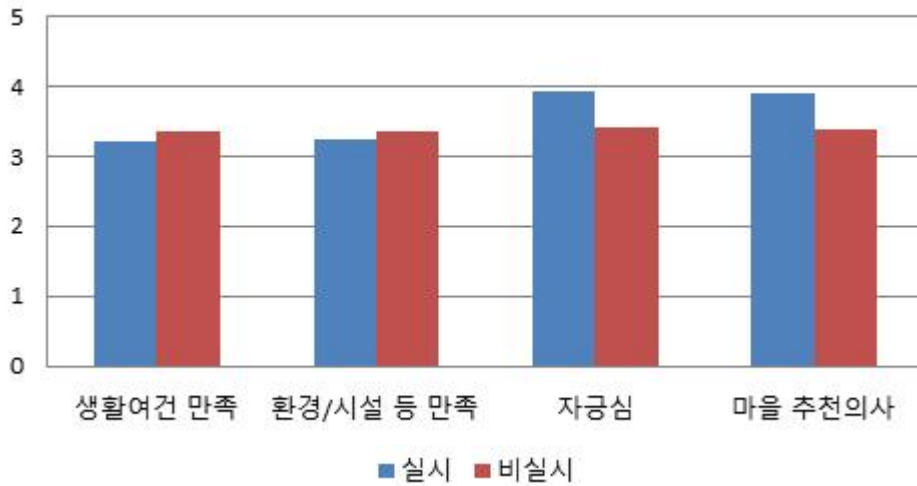
가. 현장포럼 실시지역과 비실시지역 개인역량 분석

- 현장포럼 마을의 개인역량은 모든 항목에서 현장포럼 실시마을이 높게 나타났다. 현장포럼 실시지역과 비실시지역이 각각 지역관심도는 3.7과 3.46으로 2.24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사회 애착도는 3.6:3.37로 0.23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자율적 행동역량은 3.6:3.45로 0.15의 순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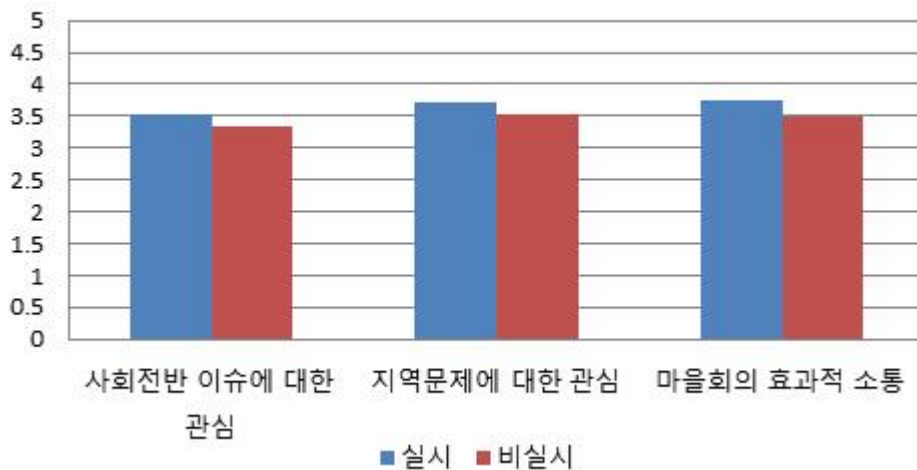
- 지역사회 애착도는 현장포럼 실시마을과 비실시 마을간에 각각 마을에 대한 자긍심이 3.93:3.41로 0.52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마을 추천의사가 3.9:3.39로 0.51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반면 생활여건에 만족한다는 3.22:3.36으로 비실시지역이 0.14높게 나타났으며, 마을의 환경 및 시설 등에 만족한다는 의견도 각각3.24, 3.35로 비실시지역이 높게 나타났음.

지역사회 애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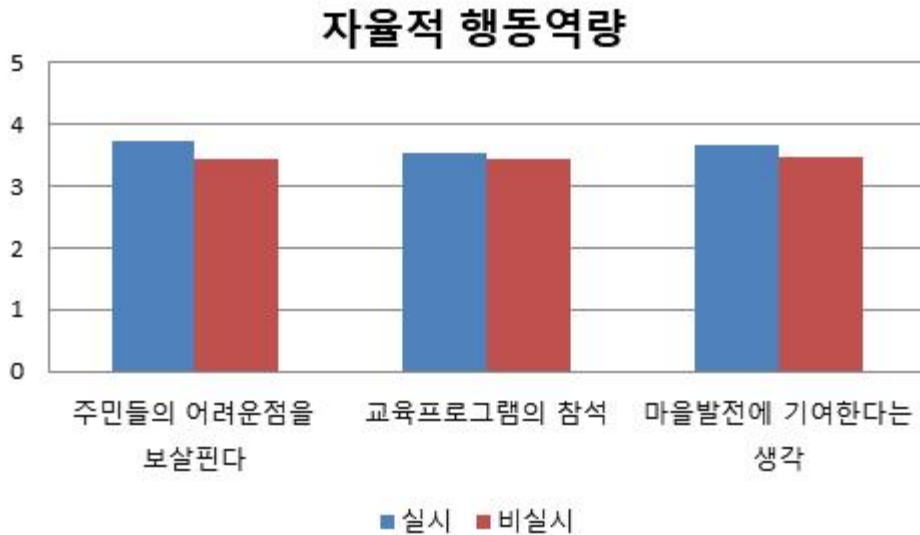
- 지역사회 관심도는 현장포럼 실시마을이 비 실시마을 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마을회의에 참가하여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가 각각 3.76, 3.50으로 실시마을이 0.26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은 각가가 3.71, 3.53으로 0.18포인트 실시지역이 높았으며, 사회 전반의 이슈에 대한 관심은 각각 3.52, 3.35로 나타났음.

지역사회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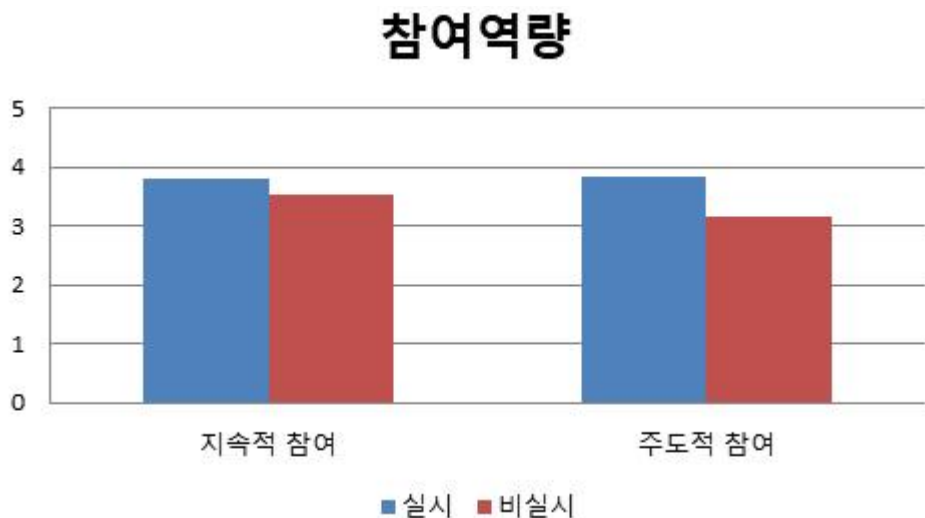


- 자율적 행동역량은 현장포럼 실시마을이 비실시마을보다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데 주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핀다가 각가가 3.74, 3.45로 현장포럼 실시마을이 0.29포인트 높게 나타났음. 마을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는 3.67, 3.47이며, 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도 3.54, 3.44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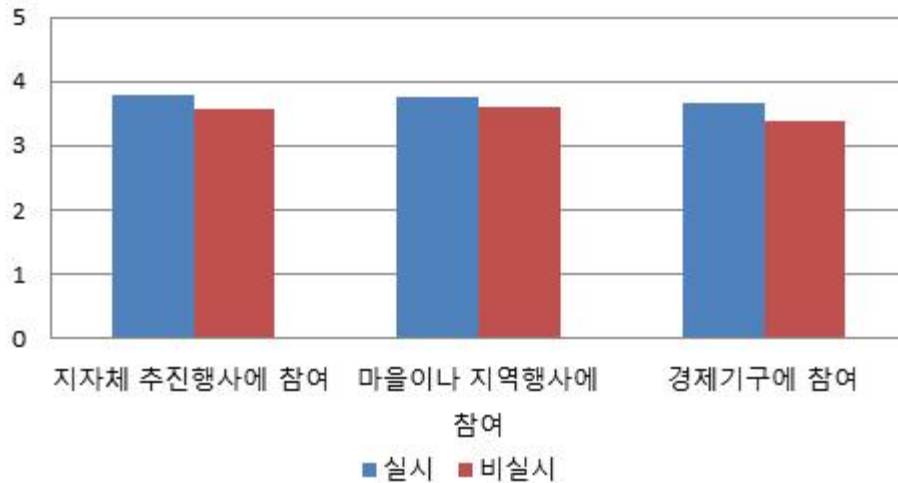
나. 현장포럼 실시지역과 비실시지역 참여역량 분석

- 현장포럼 실시마을과 비실시마을의 주민들의 참여역량은 현장포럼 실시마을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도적 참여역량은 각각 3.85와 3.17로 0.68포인트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 참여는 각각 3.80과 3.52로 0.28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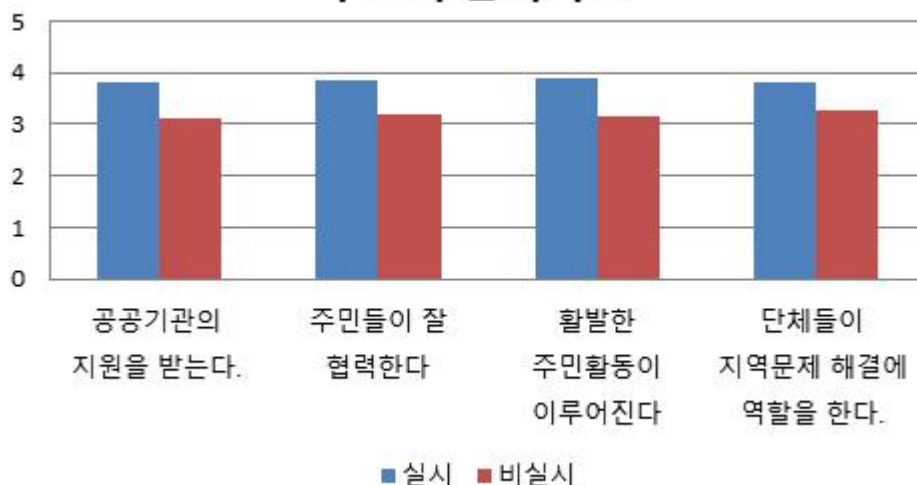
- 현장포럼 실시마을과 비실시마을에서 지속적 참여의도에 대한 차이는 마을 경제기구에 참여가 각각 3.66과 3.38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자체 추진행사에 참여가 3.79와 3.58, 지역행사에 참여는 3.77과 3.61의 순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지속적 참여의도



- 주도적 참여의도에서는 활발한 주민활동이 이루어진다가 각각 3.91과 3.14로 0.77포인트의 차이를 보여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생각을 하는 주민들의 인식이 각각 3.81과 3.11로 0.7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주민들이 잘 협력한다가 각각 3.86과 3.18로 0.68점의 차이를, 단체들이 지역문제 해결에 역할을 한다가 3.83과 3.270.56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주도적 참여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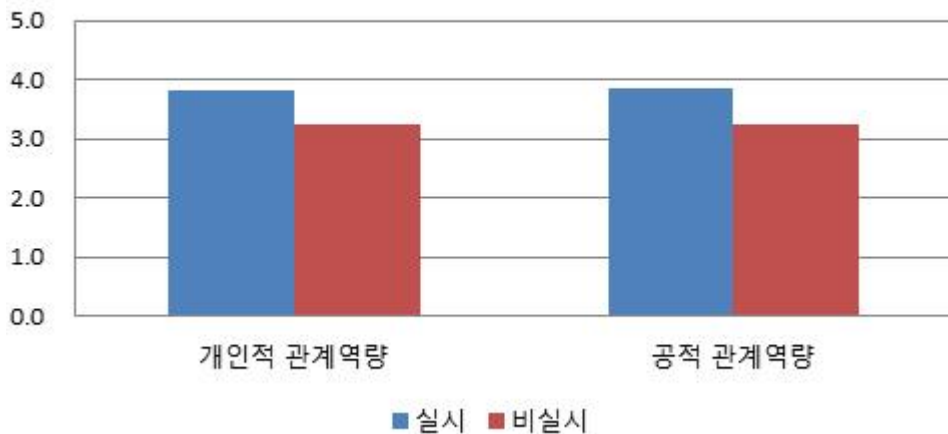




다. 현장포럼 실시지역과 비실시지역 관계역량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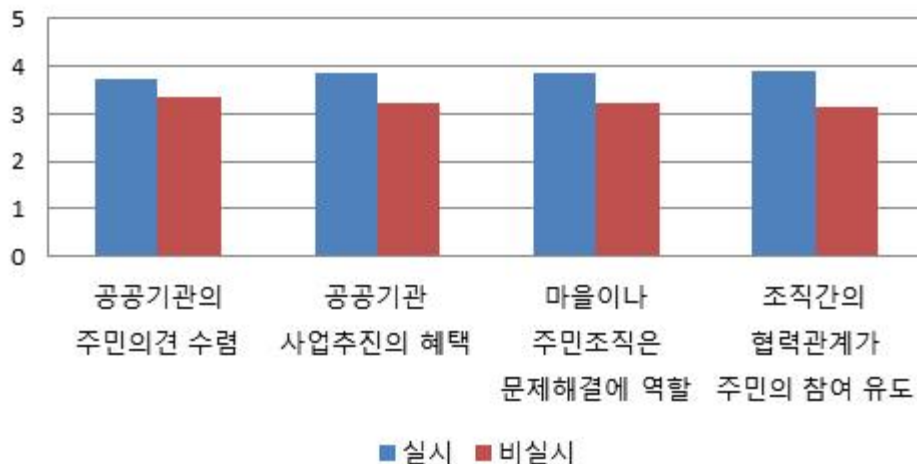
- 현장포럼 실시마을과 비실시마을 간의 관계역량은 공적관계 역량과 개인적 관계역량이 각가가 3.8과 3.2로 0.6포인트 현장포럼 실시마을이 ahvdms 것으로 나타났음.

관계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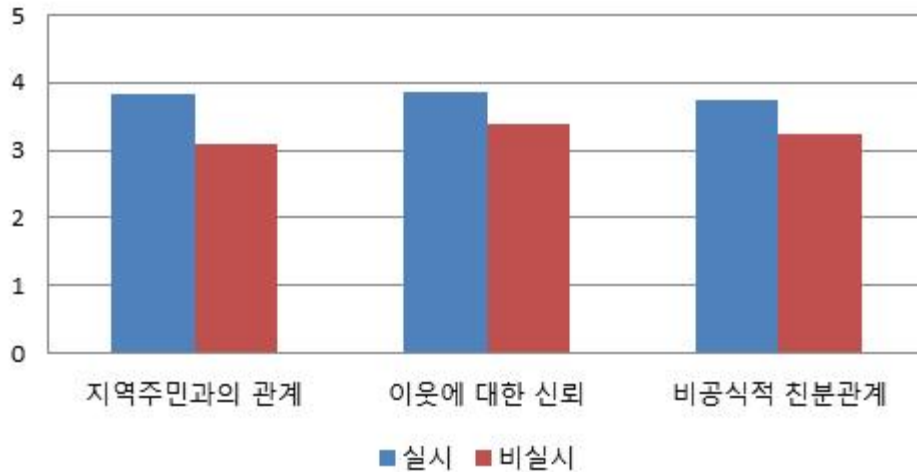
- 현장포럼 실시마을과 비실시마을 간의 공적관계역량은 조직간의 협력관계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가 각각 3.92, 3.12로 0.77점의 차이를 보여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마을이나 주민조직이 문제해결에 역할을 하고 있다 3.86과 3.23, 공공기관이 사업추진에 혜택을 주고있다는 3.84와 3.23으로 0.61점의 차이를, 공공기관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3.72와 3.35로 0.37의 차니로 가장 적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공적 관계역량



- 현장포럼 실시마을과 비실시마을 간의 개인적 관계역량은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3.83과 3.08로 0.75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비공식적인 관계는 각각 3.74와 3.23으로 0.51점의 차이를, 이웃에 대한 신뢰는 3.87과 3.38로 0.49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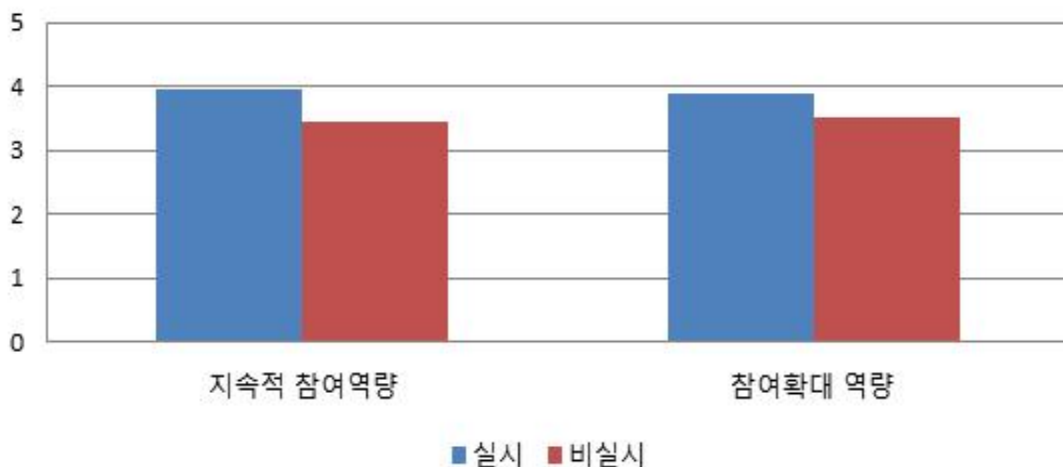
개인적 관계역량



라. 현장포럼 실시지역과 비실시지역 지속적 참여와 참여확대역량 분석

- 현장포럼 실시마을과 비실시마을 간의 지속적 참여역량은 각각 3.95와 3.53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참여확대 역량은 3.90과 3.53으로 0.37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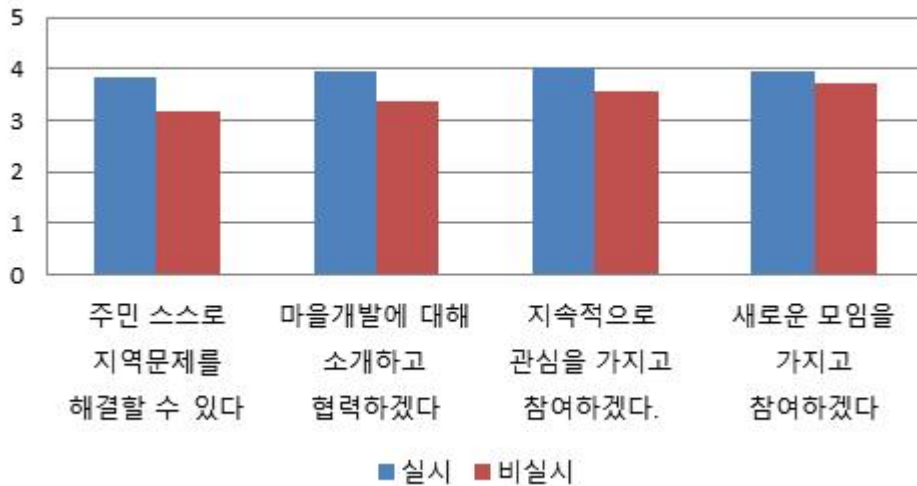
지속적참여/참여확대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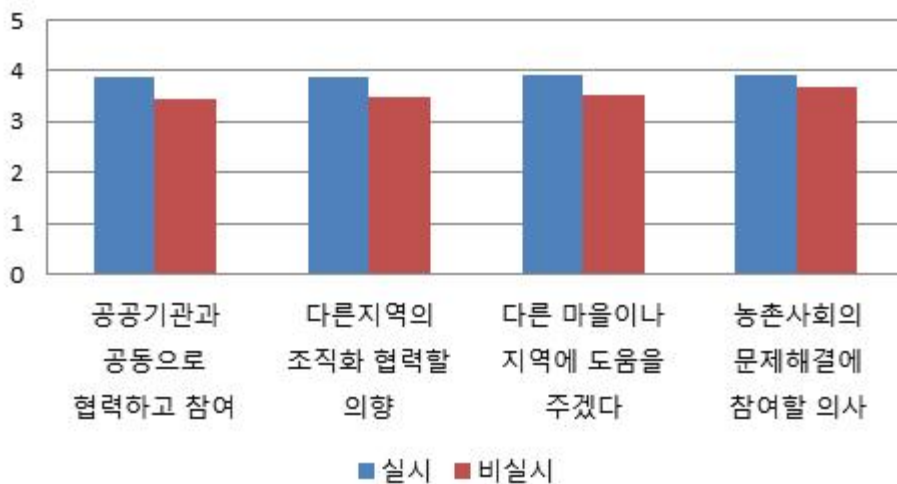
- 현장포럼 실시마을과 비실시마을 간의 지속적 참여역량에서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각각 3.82와 3.18로 0.64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마을개발에 대해 소개하고 협력하겠다는 각각 3.97과 3.38로 0.59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각각 4.04와 3.55로 0.49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모임을 가지고 참여하겠다는 각각 3.95와 3.70으로 0.25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지속적 참여역량



- 현장포럼 실시마을과 비실시마을 간의 참여확대역량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협력하고 참여한다는 각각 3.89와 3.44로 0.45의 차이를 보였으며, 다른 마을이나 지역에 도움을 주겠다 3.92와 3.52로 0.4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조직화에 협력할 의향은 3.88, 3.48로 0.4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농촌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각각 3.92와 3.68로 0.24의 차이를 보여 가장 적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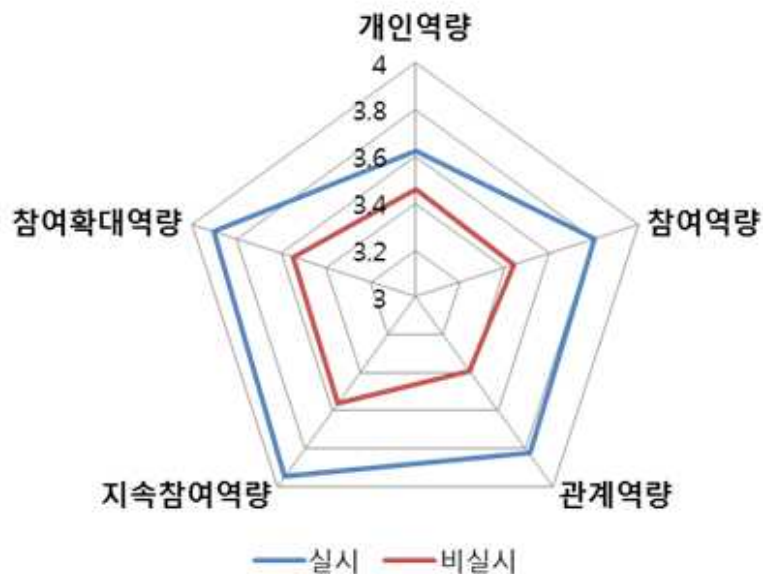
참여확대 역량



마. 현장포럼 실시마을과 비실시마을의 주민역량 비교분석

- 각 역량별로 현장포럼 실시마을과 비실시마을을 비교하면 모든 역량부분에서 현장포럼 실시마을이 비실시지역마을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주민간 개인적 관계와 공적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역량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개인적 역량은 가장 적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은 마을 주민들의 참여역량과 관계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참여확대역량과 지속참여역량을 강화하여 마을개발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마을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현장포럼 실시마을과 비실시마을의 역량차이는 개인역량은 0.2포인트의 차이를 보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반면 다른 항목에서는 0.4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참여역량과 관계역량의 강화가 주민들이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 참여와 참여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현장포럼 실시마을과 비실시마을의 역량비교





4. 강원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 강원도의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마을 21개 마을 중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은 9개 마을로 42.9%를 보이고 있음.
- 역량강화사업의 추진은 2014년 이후 사업추진 마을이 실시하고 있었으며, 사후 사업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있으며, 사업추진 전 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없었음.
- 역량강화사업 추진마을은 특수상화지역개발사업 추진 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역량강화사업의 추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마을임

강원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사업개요	역량강화 내용
000에코 빌리지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2012~2015 •사업비 : 2,500백만 원 •사업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영장 조성 4,912m² 	없음
000 자연치유생태마을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2011~2014 •사업비 : 6,125백만 원 •사업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건강로조성 - 테라피센터건립 - 헬스케어센터설립 	없음
000 00마을 체험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2011~2014 •사업비 : 2,650백만 원 •사업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음식점 조성 - 향토비누체험장조성 - 향토벽돌공장 조성 	없음
000 평화생태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2012~2015 •사업비 : 2,970백만 원 •사업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특산물홍보 판매장 신축 - 000평화관리모델링준공 - 다목적 쌀가공체험장조성 - 농촌체험장조성 	없음
0000 아트빌리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2012~2015 •사업비 : 2,500백만 원 •사업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속예술학교 조성 - 문화예술 텃밭 조성 	없음
00마을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2012~2016 •사업비 : 2,500백만 원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지원시설 조성 - 단지 특성화시설조성 - 휴게시설 조성 	없음
00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2012~2015 •사업비 : 2,890백만 원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숙박단지 조성 -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000자연생태학교 6동 조성, 전문인력 양성 	없음



사업명	사업개요	역량강화 내용
000 평화생태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2012~2016 •사업비 : 2,500백만 원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힐링숲길조성 - 산림힐링센터조성(주차장 포장 및 진입로 포장) - 황토방신축, 태양광 설치 	없음
000 사방거리 생태마을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2014~2016 •사업비 : 4,675백만 원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적 체험관 및 소규모 영화관 조성 	없음
000 000 송정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2014~2016 •사업비 : 4,675백만 원 •사업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작업방조성 - 생태체험장조성 - 휴양활동장조성 	없음
000 00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2014~2018 •사업비 : 2,500백만 원 •사업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관개선, - 파로호수달길, 다목적 광장, 자연체험동 - 산채육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더교육 •전문가 초청교육 •특성화 교육 170,000천 원
000 00풍경마을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2014~2017 •사업비 : 2,500백만 원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풍경하우스 조성, - 카페 맞생활공예 체험장조성 - 방짜박물관 건립, 마을회관 리모델링, 아트로드 조성 등 	없음
000 00 평화생태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2014~2017 •사업비 : 2,500백만 원 •사업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운영비 - 판매장 및 힐링센터 	•벤치마킹 및 교육(66백만 원)

사업명	사업개요	역량강화 내용
000 00 평화생태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2015~2019 •사업비 : 1,800백만 원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안내판 - 00 전시교육관 조성, 캠핑장 조성, 챌린저 어드벤처 시설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전문가 초청, 리더 워크숍, 주민특성화 교육, 선진지 견학) •홍보마케팅(농산물 패키지 디자인 및 시범제작, 홍보물 제작) •정보화구축(홈페이지구축 및 유지관리) •컨설팅(스토리텔링개발, 향토음식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시설물 유지 관리) •120백만 원
000 경제순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2016~2019 •사업비 : 2,500백만 원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마토 건조장, 민들레 카페, 명돌과자공장조성, 두부가공 시설 - 마을경관개선, 운영컨설팅, 부대비용 - 주민역량, 홍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 서비스 교육(170백만 원) •홍보물,제품 BI 개발(250백만 원)
000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2015~2019 •사업비 : 5,000백만 원 •사업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마거리 조성, 강변산책로 조성 - 농산물 집하장조성,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공동체복원공간 조성 등 	없음
000마을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2015~2018 •사업비 : 2,500백만 원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점,북카페, 어린이인문도서관, 철학박물관, 어린이놀이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교육 •리더교육 •인문학강좌, 영상미디어,교육
000 레스토랑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2017~2020 •사업비 : 2,500백만 원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레스토랑 신축, 냉장고 정원 조성 	•레시피개발
000 00마을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2015~2018 •사업비 : 4,000백만 원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꽃생산지 조성 - 산책로 및 아름다운 마을 조성 - 특화상품 판매장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들꽃 정원관리 등 기본교육 •들꽃 소물리에교육 •선진지견학 •650백만 원



사업명	사업개요	역량강화 내용
000 000마을 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2015~2019 •사업비 : 4,000백만 원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잣간공작소, 자작수미터, 자작공방, - 공원조성, 주차장조성, 가로환경정비 - 홍보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컨설팅(주민리더교육, 선진지견학, 경영컨설팅, 마을/숲해설사교육) •90백만 원
000 00학교 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2017~2019 •사업비 : 2,500백만 원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기획 및 홍보책자 제작 - 00자연학교 조성 - 마을유원지 리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험지도역량 주민교육 •75백만 원

IV. 농촌현장포럼의 마을활성화 기여방안 도출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 농촌현장포럼은 지역 주민주도의 상행식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공동체 중심의 협의 프로그램이다.
- 농촌현장포럼 실시마을에서 모든 항목에서 비실시마을보다 높게 나타났음.
- 각 역량별로 현장포럼 실시마을과 비실시마을을 비교하면 모든 역량부분에서 현장포럼 실시마을이 비실시지역마을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주민간 개인적 관계와 공적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역량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반면 개인적 역량은 가장 적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은 마을 주민들의 참여역량과 관계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참여역량 확대와 지속참여역량을 강화하여 마을개발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마을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2. 농촌현장포럼의 마을활성화 기여방안

-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의 원칙으로서 지역사회 애착증진, 자발적 문제의식의 성장, 요구수립 및 문제해결 과정인식, 자발적 조직화에 대한 교육 필요함
- 지역 개발을 위한 공공의 행·재정적 지원 시 지역공동체 형성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특히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적 역량의 강화와 지속적 참여와 참여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내용의 개발이 필요
- 지역 만들기에 있어 자발적, 자율적 참여, 나아가 지속적 참여, 참여확대로의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비참여에서 참여(주민참가단계), 지속적 참여(주민기획 및 주도단계), 참여확대(지역네트워크단계)의 단계별 역량강화 계획 및 모델구축이 필요하며, 농촌현장포럼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특수상황지역 등 일반농촌개발사업 추진 이외 지역의 농촌마을을 위한 별도의 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농촌주민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함.
- 농촌지역 개발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및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농촌 지역 개발에서 수행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앞으로의 농촌지역 개발사업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상향식 사업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과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의 개발을 위한 농촌현장포럼이 소기의 성과를 발휘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촌현장포럼의 실시와 함께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방안과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의 원칙으로서 지역사회 애착증진, 자발적 문제의식의 성장, 요구수립 및 문제해결 과정인식, 자발적 조직화가 필요함.
- 둘째, 지역의 커뮤니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의 비전 및 가치의 공유, 자율적 행동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신뢰와 협력에 기반을 둔 집합적 문제해결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셋째, 지역 개발을 위한 공공의 행·재정적 지원 시 지역공동체 형성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문화 형성을 통한 개인적 역량의 강화와 지속적 참여와 참여확대를 유도해야 함.
- 넷째, 지역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서 공간적 인프라를 마련해주어야 함.
- 다섯째, 지역 만들기에 있어 자발적, 자율적 참여, 나아가 지속적 참여, 참여확대로의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비참여~참여(주민참가단계), 지속적 참여(주민기획 및 주도단계), 참여확대(지역네트워크단계)의 단계별 역량강화 계획 및 모델구축이 필요함.

참고문헌

- 고지영, 김지용, 양민호, 김명일, 김기성, (2018), 농촌주민의 역량이 농촌개발의 참여확대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농공학회논문집 60권 1호.
- 김정섭, 권인혜, (2010). 농촌개발사업 참여주체의 역량강화 방안, 농촌지도와 개발 제 17권 3호.
- 박수진·나주몽(2014),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역량강화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 46(2)
- 박한식·김남조(2008), “농촌관광마을 리더의 역량분석과 역량모델 개발”, 대한관광경영학회, 관광연구 23(3),
- 박경(2007), “농촌발전을 위한 지역 역량강화 방안”, 충남연구원, 열린충남 39,
- 최영환, (2014) 지역역량강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표준업무 설계 및 적정 효율 산정.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섭, 마상진, 권인혜, (2009). 농촌개발사업 참여주체의 역량강화방안 KREI.
-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방안 연구
- UNCED(1992). Capacity Building. UNDP Briefing Paper No.37.

■ 2018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보고서

충북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농촌 사회적농업을 고려한 귀농귀촌인 농업정책 지원 방안 연구]

농촌 사회적 농업을 고려한
귀농인 농업정책 지원 방안 연구

2018.12

충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요 약

최근 농촌 지역사회 안에서 인구 구성이 복잡해지고 구성원 사이에서 다양한 측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귀촌 가속화는 이러한 변화를 확대시키고 있다. 귀농·귀촌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원주민과의 원활한 공동체의식 형성과 생업의 어려움인데 비하여 이를 해결해주기 위한 지원방안은 전무한 실태이다. 사회적농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에 대한 사회 전반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진행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농업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업생산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농업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관점두어 귀농인 중에서 취약계층을 설정하고 설정된 취약계층에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 보았다. 취약계층은 귀농직전년도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1~2분위에 속하는 그룹을 취약계층1로 설정하고 1~3분위에 속하는 그룹을 취약계층2로 설정한다.

실증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취약계층을 배려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건강, 의료, 문화, 교육, 사회봉사 활동 등)의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필요, 2.취약계층 포함 귀농자들의 귀농장려를 위한 농촌 자연환경의 고유한 매력 관리 및 보전 중요, 3.취약계층의 초기 주거 여건 강화 지원 필요, 4.취약계층 귀농자의 농업생산 활동의 실효성 강화 지원 필요, 5.취약계층 귀농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역량강화(지식 및 기술) 등 다각적 측면 지원 검토 필요, 6.취약계층 귀농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및 지역민의 적극적 포용 필요, 7.취약계층 귀농자들이 귀농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교육비 지원도 검토, 8.취약계층 귀농자들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귀농귀촌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필요, 9.취약계층 귀농자들은 귀농전에 무직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는데, 귀농정책은 생산적 복지정책이므로 정책강화 필요, 마지막으로 10.취약계층 귀농인들에 대한 정책적 필요 등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 검토 필요이다.

차 례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201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01
제 3 절 선행연구	202

제 2 장 귀농귀촌 현황과 실태

제 1 절 일반현황	204
제 2 절 정책현황	206
1. 교육 정책	206
2.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사업	207
3.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208
4.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209
5. 귀농닥터 운영사업	210
6. 세계 지원 사업	210
7. 귀농인의 역귀농	211

제 3 장 실증분석

제 1 절 연구자료	214
제 2 절 분석 결과	215
1. 취약계층 구분	215
2. 특성별 분석	217
2.1 귀농지역 분포	217
2.2 귀농형태	218

2.3 귀농이유	219
2.4 주거	221
2.5 생산활동	228
2.6 경영활동	244
2.7 지역사회 참여	255
2.8 귀농 준비	274
2.9 귀농생활 만족도	281
2.10 교육·훈련	289
2.11 정책	298
제 3 절 사회적 농업 사례	324
1. 공세리마을협동조합	324
2. 지리산에 살래	326
3. 논산귀농귀촌협동조합 줌	327
4. 땅파는 까망돼지	328
제 4 장 정책 시사점	
1. 취약계층을 배려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건강, 의료, 문화, 교육, 사회복지 활동 등)의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필요	330
2. 취약계층 포함 귀농자들의 귀농장려를 위한 농촌 자연환경의 고유한 매력 관리 및 보전 중요	330
3. 취약계층의 초기 주거 여건 강화 지원 필요	331
4. 취약계층 귀농자의 농업생산 활동의 실효성 강화 지원 필요	331
5. 취약계층 귀농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역량강화(지식 및 기술) 등 다각적 측면 지원 검토 필요	332
6. 취약계층 귀농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및 지역민의 적극적 포용 필요	332
7. 취약계층 귀농자들이 귀농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교육비 지원도 검토	333
8. 취약계층 귀농자들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귀농귀촌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필요	334
9. 취약계층 귀농자들은 귀농전에 무직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는데, 귀농 정책은 생산적 복지정책이므로 정책강화 필요	334
10. 취약계층 귀농인들에 대한 정책적 필요 등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 검토 필요	335
11. 취약계층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역할 모색 필요	335
 참고문헌	 337

표 차례

< 표 1 > 귀농·귀촌 가구원수와 농가 가구원수의 비교	206
< 표 2 >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관련 교육 과정	207
< 표 3 >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사업 프로그램	208
< 표 4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내용	209
< 표 5 > 세제 지원 사업 내용	211
< 표 6 > 정착자와 이주자(역귀농·귀촌자) 비교	213
< 표 7 > 귀농 가구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214
< 표 8 > 귀농자들의 귀농전 도시거주시 가구원수	215
< 표 9 > 귀농자들의 귀농직전년도 소득분위 누적치	216
< 표 10 > 귀농자들의 귀농직전년도 소득분위 분포	216
< 표 11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지역 비교	217
< 표 12 >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의 귀농지역 비교	217
< 표 13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형태 비교	218
< 표 14 >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의 귀농형태 비교	219
< 표 15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이유 비교	220
< 표 16 >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의 귀농이유 비교	220
< 표 17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초기 주택형태 비교	222
< 표 18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초기 주택형태 비교	222
< 표 19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현재 거주 주택 비교	223
< 표 20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현재 거주 주택 비교	223
< 표 21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초기 주택의 점유 형태 비교	224
< 표 22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초기 주택의 점유 형태 비교	224
< 표 23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현재 거주 주택의 점유 형태 비교	225
< 표 24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현재 거주 주택의 점유 형태 비교	225
< 표 25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초기 주택의 만족도 비교	226
< 표 26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초기 주택의 만족도 비교	226
< 표 27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현재 거주 주택의 만족도 비교	227
< 표 28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현재 거주 주택의 만족도 비교	227
< 표 29 > 취약계층1과 그 외 귀농 이후 농사 시작 시기 비교	228
< 표 30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이후 농사 시작 시기 비교	228
< 표 31 > 농업생산 활동 기준	229
< 표 32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농업생산 활동 여부 비교	229
< 표 33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재배하고 있는 주요 소득작목 비교	230
< 표 34 >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의 재배하고 있는 주요 소득작목 비교	230
< 표 35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작목 선택의 기준 비교	231
< 표 36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작목 선택의 기준 비교	232
< 표 37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농사 시작 형태 비교	233

< 표 38 >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의 농사 시작 형태 비교	233
< 표 39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농업생산활동 독립시기 비교	234
< 표 40 >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의 농업생산활동 독립시기 비교	234
< 표 41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영농활동 수행시 겪는 어려움 비교	235
< 표 42 >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의 영농활동 수행시 겪는 어려움 비교	235
< 표 43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영농활동 어려움 해소 방안 비교	236
< 표 44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영농활동 어려움 해소 방안 비교	237
< 표 45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정부 자금 용자 및 보조를 받은 경험 유무 비교	237
< 표 46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자금 용자 및 보조를 받은 금액의 비중 비교	238
< 표 47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자금 용자 및 보조를 받은 금액의 비중 비교	239
< 표 48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수혜한 정부 보조금 규모 비교	240
< 표 49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수혜한 정부 보조금 규모 비교	240
< 표 50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수혜한 정부 용자금 규모 비교	241
< 표 51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수혜한 정부 용자금 규모 비교	241
< 표 52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농산물 판매 경로 비교	242
< 표 53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농산물 판매 경로 비교	242
< 표 54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영농규모 확대 계획 비교	243
< 표 55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영농규모 확대 계획 비교	243
< 표 56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수행하는 경제활동 비교	244
< 표 57 >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의 수행하는 경제활동 비교	245
< 표 58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 비교	246
< 표 59 >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의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 비교	246
< 표 60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경제활동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는 어려움 비교	247
< 표 61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경제활동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는 어려움 비교	247
< 표 62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관심있는 경제활동 비교	248
< 표 63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관심있는 경제활동 비교	249
< 표 64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가구소득 전망 비교	250
< 표 65 >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의 가구소득 전망 비교	250
< 표 66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가구소득 전망 비교	251
< 표 67 >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의 가구소득 전망 비교	251
< 표 68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생활비 사용처 비교	252
< 표 69 >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의 생활비 사용처 비교	252
< 표 70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건강 및 의료시설 이용 장소 비교	253
< 표 71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건강 및 의료시설 이용 장소 비교	254
< 표 72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비교	255
< 표 73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비교	255
< 표 74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지역주민과의 주된 갈등요인 비교	256
< 표 75 >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의 지역주민과의 주된 갈등요인 비교	257
< 표 76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마을 회의나 행사 참여도 비교	258
< 표 77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마을 회의나 행사 참여도 비교	258
< 표 78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지역 농업·농민 단체 참여도 비교	259

< 표 79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지역 농업·농민 단체 참여도 비교	260
< 표 80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일반 사회단체 참여도 비교	261
< 표 81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일반 사회단체 참여도 비교	261
< 표 82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귀촌인 모임 참여도 비교	262
< 표 83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귀촌인 모임 참여도 비교	262
< 표 84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마을 회의나 행사 참여 이유 비교	264
< 표 85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마을 회의나 행사 참여 이유 비교	264
< 표 86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지역농업/농민단체 참여 이유 비교	265
< 표 87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지역농업/농민단체 참여 이유 비교	265
< 표 88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일반 사회단체 참여 이유 비교	266
< 표 89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일반 사회단체 참여 이유 비교	266
< 표 90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귀촌인 모임 참여 이유 비교	267
< 표 91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귀촌인 모임 참여 이유 비교	268
< 표 92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지역 내 활동의 어려움 비교	269
< 표 93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지역 내 활동의 어려움 비교	269
< 표 94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비교	270
< 표 95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비교	270
< 표 96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거주지에 확충되어야 하는 공공시설 비교	271
< 표 97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거주지에 확충되어야 하는 공공시설 비교	271
< 표 98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거주지에 확충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 비교	272
< 표 99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거주지에 확충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 비교	273
< 표 100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준비 기간 비교	274
< 표 101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지역사회에 귀농 준비 기간 비교	275
< 표 102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정착자금 마련 비교	275
< 표 103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정착자금 마련 비교	276
< 표 104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정착자금 사용처 비교	276
< 표 105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정착자금 사용처 비교	277
< 표 106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 관련 정보 취득 경로 비교	277
< 표 107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 관련 취득 경로 비교	278
< 표 108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귀촌 교육 기관 비교	278
< 표 109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귀촌 교육 기관 비교	279
< 표 110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준비 과정에 대한 만족도 비교	280
< 표 111 > 취약계층2과 그 외 귀농준비 과정에 대한 만족도도 비교	280
< 표 112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생활 만족도 비교	281
< 표 113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생활 만족도 비교	281
< 표 114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생활 만족도 비교	282
< 표 115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생활 만족도 비교	282
< 표 116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 비교	283
< 표 117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 비교	283
< 표 118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 비교	284
< 표 119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 비교	284

< 표 120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 비교	285
< 표 121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 비교	285
< 표 122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건강증진에 대한 만족도 비교	286
< 표 123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건강증진에 대한 만족도 비교	286
< 표 124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지역인프라에 대한 만족도 비교	287
< 표 125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지역인프라에 대한 만족도 비교	287
< 표 126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거주지에 대한 계획 비교	288
< 표 127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거주지에 대한 계획 비교	288
< 표 128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온라인 교육 이수 비교	289
< 표 129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오프라인 교육 이수 비교	290
< 표 130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인턴쉽(선도농가 실습) 교육 이수 비교	291
< 표 131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오프라인 교육 이수 기관 비교	291
< 표 132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오프라인 교육 이수 기관 비교	292
< 표 133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비교	292
< 표 134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비교	293
< 표 135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온라인 교육의 실제 농촌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비교	294
< 표 136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온라인 교육의 실제 농촌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비교	294
< 표 137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오프라인 교육의 실제 농촌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비교	295
< 표 138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오프라인 교육의 실제 농촌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비교	295
< 표 139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인턴쉽 교육의 실제 농촌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비교	296
< 표 140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인턴쉽 교육의 실제 농촌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비교	296
< 표 141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귀촌교육에 대한 개선요구 비교	297
< 표 142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귀촌교육에 대한 개선요구 비교	297
< 표 143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사전 귀농귀촌 정보 제공' 정책 수혜 여부 비교	298
< 표 144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지원' 정책 수혜 여부 비교	299
< 표 145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 정책 수혜 여부 비교	300
< 표 146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상담/컨설팅 제공' 정책 수혜 여부 비교	301
< 표 147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세제 지원' 정책 수혜 여부 비교	301
< 표 148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정보 제공' 정책 수혜 여부 비교	302
< 표 149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정착자금 지원' 정책 수혜 여부 비교	303
< 표 150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비용 지원' 정책 수혜 여부 비교	304
< 표 151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생활 관련 지원' 정책 수혜 여부 비교	305
< 표 152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관계 형성 지원' 정책 수혜 여부 비교	305
< 표 153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사전 귀농귀촌 정보제공' 수혜 만족도 비교	306
< 표 154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사전 귀농귀촌 정보제공' 수혜 만족도 비교	307
< 표 155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비교	307
< 표 156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지원' 수혜 만족도 비교	308
< 표 157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비교	308
< 표 158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 수혜 만족도 비교	309
< 표 159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상담/컨설팅 제공' 정책 수혜 만족도 비교	309
< 표 160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상담/컨설팅 제공' 수혜 만족도 비교	309

< 표 161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세제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비교	310
< 표 162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세제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비교	310
< 표 163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정보 제공' 정책 수혜 만족도 비교	311
< 표 164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정보 제공' 정책 수혜 만족도 비교	311
< 표 165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정착자금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비교	312
< 표 166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정착자금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비교	312
< 표 167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비용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비교	313
< 표 168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비용 지원' 수혜 만족도 비교	313
< 표 169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생활 관련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비교	314
< 표 170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생활 관련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비교	314
< 표 171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관계형성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비교	315
< 표 172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관계형성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비교	315
< 표 173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요정책 비교	316
< 표 174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요정책 비교	317
< 표 175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정책의 문제점 비교	318
< 표 176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정책의 문제점 비교	318
< 표 177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귀촌인 지자체 지원 정도 비교	319
< 표 178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귀촌인 지자체 지원 정도 비교	319
< 표 179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시 배우자 동행 비교	320
< 표 180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시 배우자 동행 비교	320
< 표 181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직전 직업 비교	321
< 표 182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직전 직업 비교	322
< 표 183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비교	323
< 표 184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비교	323
< 표 185 > 공세리마을협동조합	325
< 표 186 > 농사 펀드를 통해 공급되는 생산물	326
< 표 187 > 지리산에 살래	326
< 표 188 > 논산귀농귀촌협동조합 '줍'의 주요 활동	327
< 표 189 > 땅파는 까망돼지	329

그림 차례

< 그림 1 > 읍·면별 과소화 마을의 변화 추이	204
< 그림 2 > 귀농 가구 수 추이(1990년~2016년)	205
< 그림 3 > 귀농 가구주 연령 분포 변화	20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최근 농촌 지역사회 안에서 인구 구성이 복잡해지고 구성원 사이에서 다양한 측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귀촌 가속화는 이러한 변화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촌지역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충북 중평의 삼기마을의 경우 마을안에 귀농·귀촌인촌이 구성되어있으며, 갈등상황을 극복하고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장점을 살려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농촌 정책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면서 사회, 문화, 환경등을 포괄하여 범위를 확대하며,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과 욕구를 중시하는 상향식 접근 방법을 표방하여 지자체의 역할의 중요성이 중시되어 왔다. 마을에 거주하는 인구가 충분히 많지 않다는 농촌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귀농·귀촌인과 원주민들의 원만한 공동체 생활이 조성되지 않으면 주민의 의견 합일에 실패함으로써 지자체의 정책 지원은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농촌 거주민의 일부 즉, 귀농·귀촌인이 정책 수혜에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귀농·귀촌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원주민과의 원활한 공동체의식 형성과 생업의 어려움인데 비하여 이를 해결해주기 위한 지원방안은 전무한 실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농업시스템을 고찰하여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간의 공동체의식 형성과 안정적인 농업정책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사회적 농업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농업생산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서비스라는 것에 관점을 두고,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귀농귀촌할 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귀농·귀촌종합정책 수립을 위해 조사되었던 귀농·귀촌 실태조사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귀농·귀촌자들 중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자들을 선별하여 이들의 정착에 필요할 여러 요소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저소득층은 목적에 따라 그 범위가 다양하다. 저소득층 지원을 받는 기준은 2018년 기준으로 교육급여는



중위소득(median)의 50% 이하, 주거급여는 43%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생계급여는 30% 이하이다. 2017년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의 취약계층 대상자인 저소득층의 기준은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이다.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인 중 농업생산활동을 하는 것을 농촌지역사회에 정착한 것으로 간주하고 귀농인 중심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귀농직전 가구원별 소득 수준을 5분위로 나누어 귀농직전 소득 수준이 2분위 또는 3분위 수준에 있는 귀농인을 저소득층 즉,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귀농정착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저소득층이 귀농에서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 선행연구

김정섭(김정섭 2017)은 유럽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례들을 참고하여 최소 3개의 사회적 농업 실천 유형을 식별하였다. 첫째는 노동통합 사회적 농업으로 일자리가 없는 이를 농장에서 고용해 영농에 종사하게 하는 실천, 둘째는 돌봄 사회적 농업으로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이에게 농업의 치료적(therapeutic) 요인과 결합된 돌봄 서비스를 농장에서 제공하는 실천, 셋째는 직업 교육훈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농업으로 직업이 필요하지만 기술·지식 등 능력이 부족한 이에게 혹은 농업이나 농촌을 접한 적이 없는 도시의 아동·청소년 등에게 농사를 가르쳐 직업을 얻거나 농촌을 포함한 전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게 돕는 실천이다. 김정섭은 이 같은 실천 유형 구분은 분석적 차원의 구분이라 말하며, 현실에서는 둘 이상의 실천이 동시에 진행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사회적 농업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재활(rehabilitation)을 추구할 때 노동통합과 돌봄을 위한 농업 실천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노동통합, 돌봄, 직업 교육훈련 등의 세 영역 외에도 농업 활동을 매개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통합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출현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기술하였다.

사회적 농업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김정섭(김정섭 2017)에 따르면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3가지로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의견 그룹은 광범위한 개념의 사회적 농업을 주장하며, 농업에 다원적 기능을 발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의견 그룹은 구체적인 개념의 사회적 농업을 주장하며, 구체적 사회적 농업의 실천 영역을 정하고 제공되는 사회적 농업의 실천에 대해서 정부가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 의견 그룹은 사회적 농업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의 대가 지원과 민간부분에서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한다. 한편, 사회적 농업의 개념 범위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적농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에 대한 사회 전반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에선 사회적 농업은 장애인, 노인, 아동, 약물중독자, 미혼모,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고용기회 등이 불리한 여건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업생산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³⁾.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농업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관점두어 취약계층을 설정하고 설정된 취약 계층에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 보았다.

3) 2018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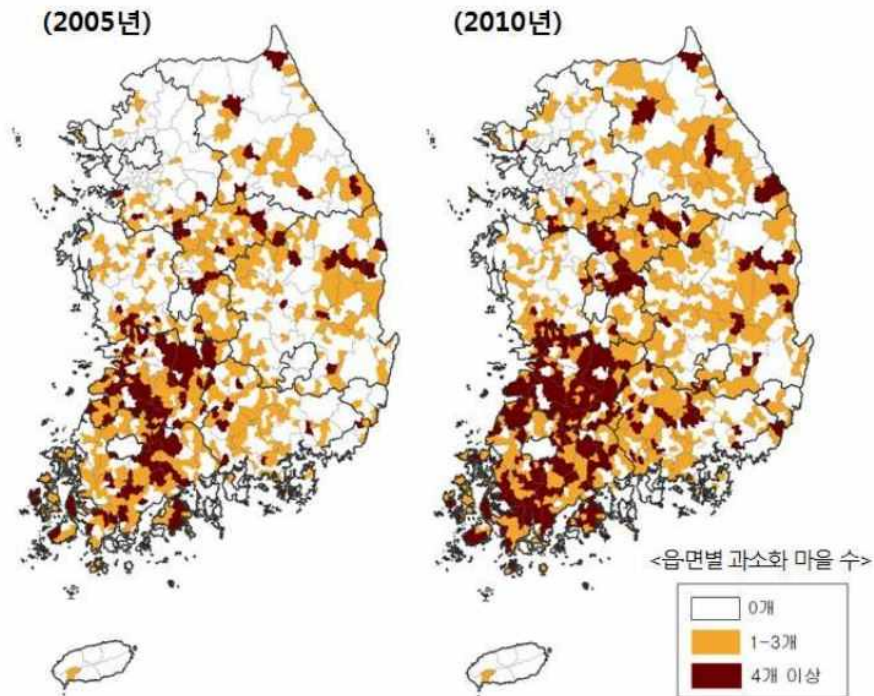


제2장 귀농귀촌 현황과 실태

제1절 일반현황

읍·면 지역의 과소화 위기를 가지는 마을을 살펴보면 2005년에 비하여 2010년에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였다. <그림 1>에 짙은 색상으로 표시된 지역일수록 과소화의 정도가 심한 지역을 나타낸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민 유치를 목적으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중앙정부에서는 귀농·귀촌 종합 대책을 발표하여 농촌지역 인구 과소화 현상을 귀농·귀촌 촉진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 그림 1 > 읍·면별 과소화 마을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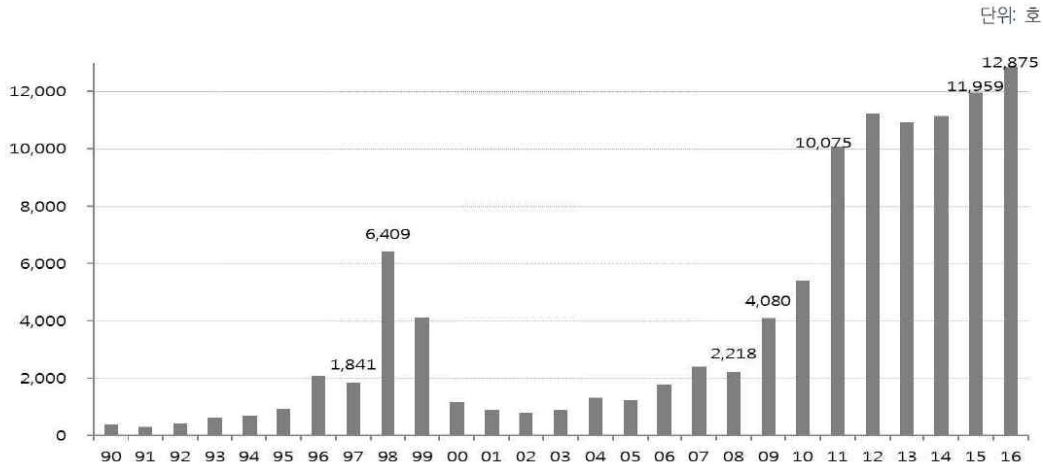


출처 : 성주인·채종현(2012) 재인용

귀농가구원수는 1997년 외환위기이후 1998년~1999년 귀농 가구수가 급증하였다가 외환위기의 충격이 완화되자 2000년에 들어가 귀농 가구수가 급감하였다. 2002년 이후부터 웰빙(Well being)이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귀농 가구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09년에는 귀농 가구수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는 이촌향

도의 인구수를 추월하며 2011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 잠시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긴 하나 귀농 가구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그림 2 > 귀농 가구 수 추이(1990년~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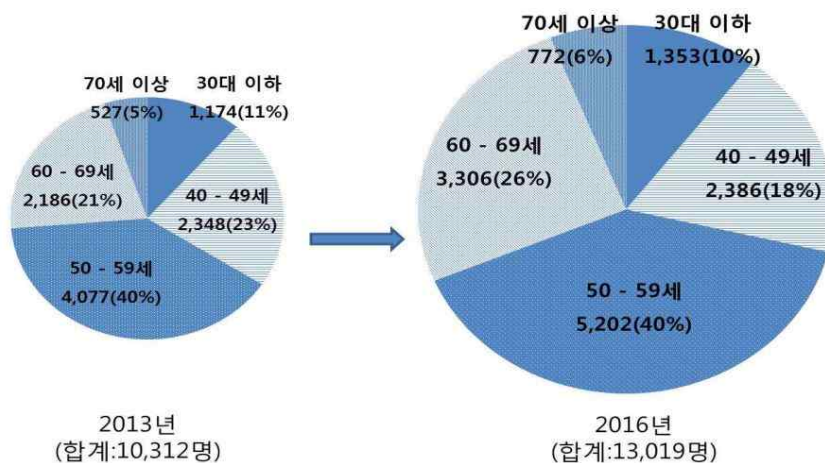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출처 : 김정섭·이정혜(2017) 재인용

2013년 귀농 가구주 연령 비중은 50대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가 23%, 30대 이하가 11%순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2013년에 비하여 60대 이상의 귀농 가구주가 증대하였으며 40대 이하의 가구주는 소폭 감소하였다.

< 그림 3 > 귀농 가구주 연령 분포 변화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귀농귀촌인통계

출처 : 김정섭·이정혜(2017) 재인용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농가 가구원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2013년 대비 2016년 총 73,75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하여 귀농귀촌 가구원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는 농촌 인구 과소화, 농촌 고령화 등 인구 문제의 가속화를 둔화시킨 것은 사실이나, 농업 생산 인구 감소 및 농업 경지 면적 감소 등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였다.

< 표 1 > 귀농·귀촌 가구원수와 농가 가구원수의 비교

(단위 : 명)

	2013	2014	2015	2016
귀농 가구원수	17,318	17,976	19,860	20,559
귀촌 가구원수	405,452	439,535	466,778	475,489
농가 가구원수	1,142,029	1,120,776	1,088,518	1,068,274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농림어업조사, 귀농귀촌인통계

제2절 정책현황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농촌 발전의 일환으로서 귀농·귀촌인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교육정책,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귀농닥터 운영사업, 세제지원 사업이 이에 해당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정책

귀농·귀촌 관련 교육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ati.go.kr),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or.kr), 농업교육포털(agriedu.net), 귀농·귀촌종합센터(returnfarm.com)등을 통하여 교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매월 귀농·귀촌 교육이 개설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 표 2 >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관련 교육 과정

시행 기관	교육 과정	구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귀농·귀촌길잡이	오프라인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생활기술&마인드	온라인
	품목기초	온라인
	청년창업농(탐색/준비)	오프라인
	전직창업농(탐색/준비)	오프라인
	은퇴창업농(탐색/준비)	오프라인
농촌진흥청	귀촌(탐색/준비)	오프라인
	신규농업인(귀농·귀촌)교육	오프라인
산림청	귀농귀촌	온라인
	귀농·귀산촌(임업후계자)과정	오프라인
한국농수산대학	귀농·귀촌 관련 전문교육	오프라인
농업교육포털	귀농·귀촌(굴삭기, 지게차)과정	오프라인
귀농귀촌종합센터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 귀농·귀촌 교육	온라인
	귀농귀촌 경영설계	오프라인
	귀농귀촌 창업사례	오프라인
	귀농귀촌 부동산 구입요령	오프라인
	귀농 사업성 및 재무분석	오프라인
	예비 여성귀농인을 위한 기초소양교육	오프라인
	귀농귀촌에 필요한 기초소양교육	오프라인
귀농귀촌 성공 전략	오프라인	

자료 : 각 기관별 전국단위 교육 과정

2.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사업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인구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어촌지역의 활력증진 제고 및 정주여건 조서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민 유치에 대한 의지가 높은 지자체(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를 선정하고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어촌 유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 표 3 >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사업 프로그램

단계	프로그램
STEP01 정주의향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포털(홈페이지) 개설·운영 - 귀농·귀촌 매뉴얼 제공 - 출향인사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대 강화 - 관내투어(농지, 지역별 재배품목 설명) - 시골집 건축체험 ○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물 제공
STEP02 이주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문화 체험·체득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한마당(설명회) 및 귀농인 대상 워크숍 - 예비귀농인 농사체험 - 귀농클럽 등 동호회 운영·상담 ○ 빈집 등 주거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택지 정보, 빈집정보 등 제공 - 빈집 체재형 주말농원(하드웨어와 연계)
STEP03 이주실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실행 유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 임차 운영 및 용자금 알선 - One-stop 행정처리반 운영 - 농촌형 일자리 발굴 및 모니터링 - 관내 공공기관 신규채용 안내
STEP04 이주정착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착률 적응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 도시민 멘토링제 운영 - 귀농인 적응 페스티벌 개최 - 귀촌인 정보실 운영 - 귀농·귀촌자 모임 구성 - 귀농·귀촌인 적응교육 알선 및 위탁 - 귀농귀촌인 일자리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시행지침

3.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표 4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시장·군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한 및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변동금리 2% ○ 대출 한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창업자금 : 세대 당 3억 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 당 7억 5천만 원 한도 이내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4.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게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 마련하여 지역민과 귀농희망자의 중간적인 입장의 선배귀농인과 연계·추진하므로써 장기체류형 공간제공과 더불어 멘토로서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여 귀농희망자의 정착률 유도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 등을



리모델링 하거나 이동식 조립 주택을 구입하여 귀농인의 집을 운영 하고, 중앙 정부에서는 해당 사업 예산의 50%을 부담한다.

5. 귀농닥터 운영 사업

귀농닥터는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모든 사람과 귀농·귀촌을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궁극증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귀농귀촌 선배의 상담 및 자문을 지원 하는 상담 및 컨설팅 제공 지원사업이다. 귀농닥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귀농·귀촌종합센터(returnfarm.com)을 통하여 귀농닥터 멘토·멘티신청이 가능하다.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는 귀농·귀촌 코디네이터, 농지·주택 전문가, 금융전문가, 재배기술전문가, 농업컨설턴트, 농업마이스터·신지식인 등으로 구성된 귀농설계사를 활용하여 귀농·귀촌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귀농 준비자 또는 귀농 1년 이내인 자가 신청을 통해 귀농닥터 지원을 요청하면,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는 귀농·귀촌 애로사항에 맞는 귀농설계사를 3일 내에 지원하며, 10회 이내의 상담으로 귀농·귀촌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담이 완료되면, 귀농보고서를 접수하며 귀농닥터의 상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후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귀농닥터에게 자문상담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이후에도 귀농닥터 지원사업 수혜자에 대한 상담이력 관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6. 세제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에선 귀농·귀촌을 촉진하여 농어촌 거주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하여 주택, 농지, 농기계, 건강보험료 등의 다양 방면에서 세금을 면제하여주고 있다.

< 표 5 > 세제 지원 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주택개량의 대상자로 선정된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 도시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농기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함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함
건강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특례)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신고소득이 91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액(40,950원/월)을 지원

자료 : 귀농·귀촌지원센터(returnfarm.com)

7. 귀농인의 역귀농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6년 개최한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정책과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충남연구원의 김기홍 책임연구원의 충남지역을 사례로한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정책의 틀과 방향에 대한 토론발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청양군의 경우 역귀농을 하는 인구는 약40%로 높은 편이다. 그 이유로



는 일거리 부족이 가장 크며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이유는 적은 편이라고 한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자의 불만으로는 문화적 측면의 지원과 관련한 부분이 부족한 것이 아쉬우며 청양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기홍 책임연구원은 귀농·귀촌이 많은 지역에서 역귀농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들에게 농어업인 혹은 지역 주민으로서의 높은 역할을 기대하기 보다 지역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바라보고 차츰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동일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최민규 사무국장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귀농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모델로서 제주도의 정착주민지원 전담기구를 예로 들었다. 이 기구에서는 다양한 파트 구성을 중심으로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였다. 정부 자금을 2억 용자를 받았을 경우 5년뒤 원리 상환금액과 이자를 합치면 2,600만원 정도이고 여기에 생활비를 포함한다면 4,000~5,000만원의 소득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이 정도의 소득을 창출하는 귀농인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방치되게 된다면 역귀농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분들이 농업 기반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히려 이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유통이나 마케팅 쪽으로 전환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신경을 쓰고 멘토를 엮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역귀농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없음을 지적하며, 역귀농에 대한 실태분석이 없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효율성에 문제를 지적하였다.

윤순덕(2017)은 역귀농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려우며, 단편적인 역귀농·귀촌 이주의향 조사 등으로 그 실태를 추정하는데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을 위해 구축된 귀농·귀촌의 패널을 이용하여 역귀농·귀촌을 살펴보았다. 패널 중 2,3년차 미응답자를 역으로 추적하여 전체 패널 1,039명중 45명(4.3%)은 다른농촌으로, 71명(6.8%)는 도시로 이주한 것을 확인하였다. 도시로 역귀농의 가장 큰 원인은 ‘영농실패’로 조사되었다. 윤순덕(2017)은 연구에서는 다른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의 경우 국가 전체에서 볼 때 역귀농은 아니지만, 지역민이나 언론기자들은 역귀농·귀촌으로 체감을 하기 때문에 이를 체감역귀농·귀촌으로 분류하고 ‘귀농·귀촌인(계속거주)’, ‘체감역귀농·귀촌(다른농촌으로 이주)’, ‘순역귀농·귀촌(도시로 이주)’의 3유형으로 분류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 귀농·귀촌과정, 농촌정착 실태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경우 첫째, ‘연령’, 40세 미만의 젊은 층의 경우 귀농·귀촌했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도시로 회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더 나은 영농여건을 찾아 다른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중·

노년층은 계속 거주하거나 아니면 다른 농촌으로 이주하기보다는 농촌생활을 접거나 영농을 포기하고 도시로의 이주를 선택하는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거주지역’, 시군청소재지, 대중소도시와 같은 도농복합 성격이 짙은 지역으로 귀농·귀촌했던 사람이 순역귀농·귀촌자가 되는 경우가 다른 유형에 비하여 많다. 귀농·귀촌과정 비교, 도시에서 태어나 귀농·귀촌한 사람이 ‘체감역귀농·귀촌’ 및 ‘순역귀농·귀촌’이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I형 귀농·귀촌자가 U형 귀농·귀촌자보다 더 역귀농·귀촌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다. 농촌정착 실태 비교의 경우 첫째, 경제활동, 농업만으로 생활하는 귀농·귀촌자보다 비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귀농·귀촌자가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워 농촌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오히려 타분야 종사자들의 순역귀농·귀촌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판매규모, 순역귀농·귀촌자의 경우 판매규모가 500만원 미만인 비율이 69.4%로 매우 낮아 농업을 포기한 것으로 윤순덕(2017)는 평가하고 있다. 셋째, 귀농·귀촌평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3유형의 집단의 비율은 귀농·귀촌인(47.3%), 체감역귀농·귀촌(46.6%), 순역귀농·귀촌(30.9%)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을 성공적이라 평가하면서도 순역귀농·귀촌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기술하였다.

< 표 6 > 정착자와 이주자(역귀농·귀촌자) 비교

비교 분석	통계적으로 유의함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령**, 실제거주지역**	학력, 과거직업, 가족이주
귀농·귀촌과정	귀농·귀촌유형*	귀농·귀촌연도, 귀농·귀촌준비기간, 귀농·귀촌이유, 귀농·귀촌지 선택이유, 귀농·귀촌 장애요인
농촌정착 실태	경제활동*, 판매규모**, 귀농·귀촌평가**	소득변화, 주민완래, 도시이주의사, 도시이주의사 이유

* $p < 0.05$ ** $p < 0.01$

출처 : 윤순덕(2017) 80,81,84page 표 재요약



제3장 실증분석

제1절 연구자료

귀농·귀촌종합정책 수립을 위해 조사되었던 귀농·귀촌 실태조사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원자료로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귀농을 한 가구 1027가구로 표본을 구성한 실태조사이다. 조사된 귀농 가구중에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경우가 표본의 42.7%로 가장 많고 2인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본의 지역의 분포는 경북이 19.6%, 전남이 16.7%이며 나머지는 지역은 비슷한 분포를 가지고 있다.

< 표 7 > 귀농 가구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가구)	구성비(%)
전 체		(1027)	100.0
첫 귀농년도	2012년도	(260)	25.3
	2013년도	(253)	24.6
	2014년도	(258)	25.1
	2015년도	(257)	25.0
가구주연령	30대 이하	(56)	5.5
	40대	(160)	15.5
	50대	(432)	42.0
	60대	(316)	30.8
	70대 이상	(64)	6.2
가구원수	1명	(183)	17.9
	2명	(505)	49.1
	3명	(162)	15.7
	4명 이상	(177)	17.3
지역	경기	(92)	9.0
	충북	(86)	8.4
	충남	(115)	11.2
	전북	(116)	11.3
	전남	(172)	16.7
	경북	(202)	19.6
	경남	(132)	12.9
	강원	(85)	8.2
제주	(26)	2.6	

자료: 귀농·귀촌 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8 > 귀농자들의 귀농전 도시거주시 가구원수

년 가구원	귀농한 해				전 체
	2012	2013	2014	2015	
1인 가구	17	16	20	27	80
2인 가구	86	73	89	101	349
3인 가구	39	70	53	60	222
4인 가구	60	65	81	67	273
5인 가구	27	22	21	33	103
총 계	229	246	264	288	1,027

제2절 분석 결과

1. 취약계층 구분

- 1) 취약계층1 : 귀농직전년도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 2분위까지 그룹
- 2) 취약계층2 : 귀농직전년도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 3분위까지 그룹

- 귀농자 중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저소득층을 2분위까지(취약계층1)로 책정할 경우 전체 샘플 1027명의 17.5%인 180명, 3분위까지(취약계층2)로 책정할 경우 전체 샘플의 40.6%인 417명이다.
 - 저소득층을 2분위까지 책정한 취약계층1의 경우 연도별로 보면 2012년 귀농자의 16.2%, 2013년 귀농자의 15.9%, 2014년 귀농자의 17.0%, 2015년 귀농자의 20.5%를 차지한다.
 - 저소득층을 3분위까지 책정한 취약계층2의 경우 연도별로 보면 2012년 귀농자의 41.5%, 2013년 귀농자의 36.2%, 2014년 귀농자의 40.2%, 2015년 귀농자의 44.1%를 차지한다.



< 표 9 > 귀농자들의 귀농직전년도 소득분위 누적치

귀농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 체	
	샘플수	비중(%)	샘플수	비중(%)	샘플수	비중(%)	샘플수	비중(%)	샘플수	비중(%)*
1분위	21	9.2	15	6.1	21	8.0	25	8.7	82	8.0
1~2분위	37	16.2	39	15.9	45	17.0	59	20.5	180	17.5
1~3분위	95	41.5	89	36.2	106	40.2	127	44.1	417	40.6
1~4분위	158	69.0	157	63.8	190	72.0	202	70.1	707	68.8
1~5분위	229	100	246	100	264	100	288	100	1027	100

1~2분위 = 취약계층1

1~3분위 = 취약계층2

*비중은 누계 비중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10 > 귀농자들의 귀농직전년도 소득분위 분포

귀농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 체	
	샘플수	비중(%)	샘플수	비중(%)	샘플수	비중(%)	샘플수	비중(%)	샘플수	비중(%)
1분위	21	9.2	15	6.1	21	8.0	25	8.7	82	8.0
2분위	16	7.0	24	9.8	24	9.1	34	11.8	98	9.5
3분위	58	25.3	50	20.3	61	23.1	68	23.6	237	23.1
4분위	63	27.5	68	27.6	84	31.8	75	26.0	290	28.2
5분위	71	31.0	89	36.2	74	28.0	86	29.9	320	31.2
총 계	229	100	246	100	264	100	288	100	1027	100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 특성별 분석

2.1 귀농지역 분포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읍지역보다 면지역으로 귀농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귀농자의 취약계층1은 75.1%, 취약계층2는 77.8%가 면지역으로 귀농하였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모든 그룹은 읍지역보다 면지역으로 귀농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1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지역 비교

귀농지역	읍지역		면지역		전체
	샘플수	비중(%)	샘플수	비중(%)	샘플수
취약계층1	44	24.9	133	75.1	177
그 외	186	22.5	641	77.5	827
총 계	230	22.9	774	77.1	1004

* χ^2 test =0.4629, Pr=0.496 / Fisher's exact test Pr=0.492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12 >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의 귀농지역 비교

귀농지역	읍지역		면지역		전체
	샘플수	비중(%)	샘플수	비중(%)	샘플수
취약계층2	91	22.2	319	77.8	410
그 외	139	23.4	455	76.6	594
총 계	230	22.9	774	77.1	1004

* χ^2 test =0.1996, Pr=0.655 / Fisher's exact test Pr=0.703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4)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다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2.2 귀농형태 (Q2)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50% 이상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지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 1유형(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지로 이주)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2유형(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이주), 4유형(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없는 곳으로 이주), 3유형(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있는 곳으로 이주) 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귀농형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에 비해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지로 이주’의 귀농형태가 각각 53.9%, 50.6%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취약계층1이 아닌 그룹(소득3분위 이상그룹)과 취약계층2가 아닌 그룹(소득분위 4분위 이상 그룹)도 1번 유형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 다음으로 2유형, 4유형, 3유형 순이지만 비중 면에서 2유형이 4유형과 3유형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취약계층들은 1유형의 비중이 다른 유형에 비해 현격히 높게 나타났다.

< 표 13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형태 비교

귀농 형태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샘플수	비중(%)	샘플수	비중(%)	샘플수	비중(%)	샘플수	비중(%)	샘플수	비중(%)
취약 계층1	97	53.9	41	22.8	12	6.7	30	16.7	180	17.6
그 외	318	37.6	243	28.8	58	6.9	226	26.8	845	82.4
총 계	415	40.5	284	27.7	70	6.8	256	25.0	1025	100

1유형 =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지로 이주’

2유형 =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이주’

3유형 =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있는 곳으로 이주’

4유형 =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없는 곳으로 이주’

* χ^2 test =17.6438, Pr=0.001 / Fisher’s exact test Pr=0.001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5)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값은 취약계층1은 17.6438, 취약계층2는 43.3284).

<표 14 >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의 귀농형태 비교

귀농 형태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샘플수	비중(%)	샘플수	비중(%)	샘플수	비중(%)	샘플수	비중(%)	샘플수	비중(%)
취약 계층2	211	50.6	96	23.0	37	8.9	73	17.5	417	40.7
그 외	204	33.6	188	30.9	33	5.4	183	30.1	608	59.3
총 계	415	40.5	284	27.7	70	6.8	256	25.0	1025	100

* χ^2 test =43.3284, Pr=0.001 / Fisher's exact test Pr=0.001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3. 귀농이유 (Q3)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귀농을 한 첫 번째 이유로 ‘자연환경이 좋아서’을 선택하였다.
 - 취약계층1은 6유형(자연환경이 좋아서)가 25.2%로 가장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7유형(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상의 이유로) 17.0%, 5유형(농업의 비전 및 발전가능성을 보고) 15.2% 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2는 6유형(자연환경이 좋아서)가 25.8%로 가장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5유형(농업의 비전 및 발전가능성을 보고) 18.9%, 2유형(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13.4% 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귀농형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에 비하여 7유형(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상의 이유로), 3유형(실직이나 사업의 실패로 인해), 4유형(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의 비중이 높다.

6)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유형분포가 다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값은 취약계층1은 25.7055, 취약계층2는 29.0586)



< 표 15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이유 비교

귀농이유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8유형	9유형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6	18	19	12	26	43	29	17	1	171
	비중(%)	3.5	10.5	11.1	7.0	15.2	25.2	17.0	9.94	0.6	100
그 외	샘플수	17	127	40	37	178	251	80	68	5	803
	비중(%)	2.1	15.8	5.0	4.6	22.2	31.3	10.0	8.5	0.6	100
총 계	샘플수	23	145	59	49	204	294	109	85	6	974
	비중(%)	2.4	14.9	6.1	5.0	21.0	30.2	11.2	8.7	0.6	100

- 1유형 = '비싼 도시생활비 때문에'
- 2유형 =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 3유형 = '실직이나 사업의 실패로 인해'
- 4유형 =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 5유형 = '농업의 비전 및 발전가능성을 보고'
- 6유형 = '자연환경이 좋아서'
- 7유형 =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상의 이유로'
- 8유형 = '가족 및 친지와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서'
- 9유형 = '자녀교육을 위해서'

* χ^2 test =25.7055, Pr=0.001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16 >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의 귀농이유 비교

귀농이유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8유형	9유형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16	53	30	31	75	102	49	38	2	396
	비중(%)	4.0	13.4	7.6	7.8	18.9	25.8	12.4	9.6	0.5	100
그 외	샘플수	7	92	29	18	129	192	60	47	4	578
	비중(%)	1.2	15.9	5.0	3.1	22.3	33.2	10.4	8.1	0.7	100
총 계	샘플수	23	145	59	49	204	294	109	85	6	974
	비중(%)	2.4	15.0	6.1	5.0	20.9	30.2	11.2	8.7	0.6	100

* χ^2 test =29.0586, Pr=0.001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4 주거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는 모두 현재 귀농 초기에 비하여 현재 ‘단독주택(농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 취약계층1은 귀농 초기에 비하여 현재 ‘자가(신축이나 구입)’에 형태로 주택을 점유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 취약계층2는 이에 따라서 주택의 만족도는 귀농 초기 ‘보통’의 수준에서 ‘만족’의 수준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4.1 주택의 변화 (Q6)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90%이상 ‘단독주택(농가주택 포함)’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농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비중 귀농 초기에 비해서 현재 더 증가하였다.

2.4.1.1 귀농 초기 주택형태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귀농 초기 주택형태는 1유형(단독주택(농가주택 포함)의 비중 80%이상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귀농 초기 주택형태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 취약계층1은 그 외 그룹에 비하여 1유형(단독주택(농가주택 포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다.

7) 취약계층1은 유의수준 10%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Exact Test 결과)

8) 취약계층2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 표 17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초기 주택형태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149	14	5	1	169
	비중(%)	88.2	8.3	3.0	0.6	100
그 외	샘플수	656	73	66	6	801
	비중(%)	81.9	9.1	8.2	0.8	100
총 계	샘플수	805	87	71	7	970
	비중(%)	83.0	9.0	7.3	0.7	100

1유형 = '단독주택(농가주택 포함)'

2유형 = '아파트'

3유형 = '연립주택(다세대 주택)'

4유형 = '주거용 오피스텔'

* χ^2 test =6.1332, Pr=0.105 / Fisher's exact test Pr=0.072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18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초기 주택형태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334	36	25	2	397
	비중(%)	84.1	9.1	6.3	0.5	100
그 외	샘플수	471	51	46	5	573
	비중(%)	82.2	8.9	8.0	0.9	100
총 계	샘플수	805	87	71	7	970
	비중(%)	83.0	9.0	7.3	0.7	100

* χ^2 test =1.5146, Pr=0.679 / Fisher's exact test Pr=0.705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4.1.2 현재 거주 주택형태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현재 거주 주택은 1유형(단독주택(농가주택 포함)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모든 그룹에서 '단독주택(농가주택 포함)'의 비중이 제일 높다.

9)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 표 19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현재 거주 주택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159	8	5	0	172
	비중(%)	92.4	4.7	2.9	0	100
그 외	샘플수	737	30	43	3	813
	비중(%)	90.7	3.7	5.3	0.4	100
총 계	샘플수	896	38	48	3	985
	비중(%)	91.0	3.9	4.9	0.3	100

1유형 = '단독주택(농가주택 포함)'

2유형 = '아파트'

3유형 = '연립주택(다세대 주택)'

4유형 = '주거용 오피스텔'

* χ^2 test =2.6777, Pr=0.444 / Fisher's exact test Pr=0.507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20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현재 거주 주택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371	15	17	1	404
	비중(%)	91.8	3.7	4.2	0.3	100
그 외	샘플수	525	23	31	2	581
	비중(%)	90.4	4.0	5.3	0.3	100
총 계	샘플수	896	38	48	3	985
	비중(%)	91.0	3.9	4.9	0.3	100

* χ^2 test =0.789, Pr=0.852 / Fisher's exact test Pr=0.888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4.2 주택의 점유 형태(Q7)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귀농 초기 '자가(신축이나 구입)'로 주택을 점유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 주택의 점유 형태는 귀농 초기 주택의 점유 형태에 비교해서 '자가(신축이나 구입)'의 비중이 더욱 증가하였다.

2.4.2.1 귀농 초기 주택의 점유 형태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귀농 초기 주택의 점유 형태는 1유형(자가(신축이나 구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귀농 초기 주택의 점유 형태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 취약계층1은 그 외 그룹에 비하여 1유형(자가(신축이나 구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 표 21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초기 주택의 점유 형태 비교

주택의 점유 형태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109	37	5	9	160
	비중(%)	68.1	23.1	3.1	5.6	100
그 외	샘플수	540	210	32	34	816
	비중(%)	66.2	25.7	3.9	4.2	100
총 계	샘플수	649	247	37	43	976
	비중(%)	66.5	25.3	3.8	4.4	100

- 1유형 = '자가(신축이나 구입)
- 2유형 = '임차(전세, 월세)
- 3유형 = '마을 내 빈집(빈집정책 활용)
- 4유형 = '임시거주(귀농인의 집 등)

* χ^2 test =1.3062, Pr=0.728 / Fisher's exact test Pr=0.072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22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초기 주택의 점유 형태 비교

주택의 점유 형태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249	105	15	21	390
	비중(%)	63.9	26.9	3.9	5.4	100
그 외	샘플수	400	142	22	22	586
	비중(%)	68.3	24.2	3.8	3.8	100
총 계	샘플수	649	247	37	43	976
	비중(%)	66.5	25.3	3.8	4.4	100

* χ^2 test =2.7738, Pr=0.428 / Fisher's exact test Pr=0.422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4.2.2 현재 거주 주택의 점유 형태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현재 거주 주택의 점유 형태는 1유형(자가(신축이나

10) 취약계층1은 유의수준 10%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Exact Test 결과)

11) 취약계층2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구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모든 그룹에서 ‘자가(신축이나 구입)’의 비중이 제일 높다.

< 표 23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현재 거주 주택의 점유 형태 비교

주택의 점유 형태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125	31	6	5	167
	비중(%)	74.9	18.6	3.6	3.0	100
그 외	샘플수	638	144	21	18	821
	비중(%)	77.7	17.5	2.6	2.2	100
총 계	샘플수	763	175	27	23	988
	비중(%)	77.2	17.7	2.7	2.3	100

1유형 = ‘자가(신축이나 구입)

2유형 = ‘임차(전세, 월세)’

3유형 = ‘마을 내 빈집(빈집정책 활용)’

4유형 = ‘임시거주(귀농인의 집 등)’

* χ^2 test =1.1559, Pr=0.764 / Fisher’s exact test Pr=0.673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24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현재 거주 주택의 점유 형태 비교

주택의 점유 형태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296	79	12	11	398
	비중(%)	74.4	19.9	3.0	2.8	100
그 외	샘플수	467	96	15	12	590
	비중(%)	79.2	16.3	2.5	2.0	100
총 계	샘플수	763	175	27	23	988
	비중(%)	77.2	17.7	2.7	2.3	100

* χ^2 test =3.1595, Pr=0.368 / Fisher’s exact test Pr=0.353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12)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2.4.3 거주 주택에 대한 만족도(Q8)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귀농 초기 주택이 바하여 현재 주택에 대해 만족도가 40%수준에서 60%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3.1 귀농 초기 주택에 대한 만족도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귀농 초기 주택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40%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귀농 초기 주택에 대한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취약계층2는 그 외 그룹에 비하여 귀농 초기 주택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5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초기 주택의 만족도 비교

주택의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9	19	71	70	11	180
	비중(%)	5	10.6	39.4	38.9	6.1	100
그 외	샘플수	33	105	284	343	82	847
	비중(%)	3.9	12.4	33.5	40.5	9.7	100
총 계	샘플수	42	124	355	413	93	1027
	비중(%)	4.1	12.1	34.6	40.2	9.1	100

* χ^2 test =4.5462, Pr=0.337 / Fisher's exact test Pr=0.334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26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초기 주택의 만족도 비교

주택의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23	48	169	147	30	417
	비중(%)	5.5	11.5	40.5	35.3	7.2	100
그 외	샘플수	19	76	186	266	63	610
	비중(%)	3.1	12.5	30.5	43.6	10.3	100
총 계	샘플수	42	124	355	413	93	1027
	비중(%)	4.1	12.1	34.6	40.2	9.1	100

* χ^2 test =17.8771, Pr=0.001 / Fisher's exact test Pr=0.001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13) 취약계층1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14) 취약계층2은 유의수준 1%에서 유형분포가 다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17.8771)

2.4.3.1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만족도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60%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귀농 초기 주택에 대한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취약계층2은 그 외 그룹에 비하여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7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현재 거주 주택의 만족도 비교

주택의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5	11	53	96	15	180
	비중(%)	2.8	6.1	29.4	53.3	8.3	100
그 외	샘플수	17	52	218	436	124	847
	비중(%)	2.0	6.1	25.7	51.5	14.6	100
총 계	샘플수	22	63	271	532	139	1027
	비중(%)	2.1	6.1	26.4	51.8	13.5	100

* χ^2 test =5.646, Pr=0.227 / Fisher's exact test Pr=0.187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28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현재 거주 주택의 만족도 비교

주택의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12	20	127	210	48	417
	비중(%)	2.9	4.8	30.5	50.4	11.5	100
그 외	샘플수	10	43	144	322	91	610
	비중(%)	1.6	7.1	23.6	52.8	14.9	100
총 계	샘플수	22	63	271	532	139	1027
	비중(%)	2.1	6.1	26.4	51.8	13.5	100

* χ^2 test =10.6319, Pr=0.031 / Fisher's exact test Pr=0.031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15) 취약계층1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16) 취약계층2은 유의수준 5%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통계량 10.6319).



2.5 생산활동

2.5.1 귀농 이후 농사 시작 시기(Q9)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80%이상 귀농후 1년 이내에 농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귀농 이후 농사 시작 시기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 취약계층2는 그 외 그룹에 비하여 귀농 이후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에 상대적으로 약간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9 > 취약계층1과 그 외 귀농 이후 농사 시작 시기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취약계층1	샘플수	113	37	18	12	180
	비중(%)	62.8	20.6	10.0	6.7	100
그 외	샘플수	561	170	85	31	847
	비중(%)	66.2	20.1	10.0	3.7	100
총 계	샘플수	674	207	103	43	1027
	비중(%)	65.6	20.2	10.0	4.2	100

1유형 = '6개월 이내'

2유형 = '6개월 ~ 1년 이내'

3유형 = '1년 이후'

4유형 = '아직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음'

* χ^2 test =3.4929, Pr=0.322 / Fisher's exact test Pr=0.326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30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이후 농사 시작 시기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취약계층2	샘플수	256	90	42	29	417
	비중(%)	61.4	21.6	10.1	7.0	100
그 외	샘플수	418	117	61	14	610
	비중(%)	68.5	19.2	10.0	2.3	100
총 계	샘플수	674	207	103	43	1027
	비중(%)	65.6	20.2	10.0	4.2	100

* χ^2 test =15.4736, Pr=0.001 / Fisher's exact test Pr=0.002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17) 취약계층1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18) 취약계층2은 유의수준 1%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15.4736)

2.5.2 농업생산 활동(Q10)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99%이상 농업생산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생산 활동의 기준은 <표 31>와 같다.

< 표 31 > 농업생산 활동 기준

① 연간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원 이상
② 현재 논이나 밭을 1,000m ² (0.1ha, 약 300평)이상 직접 경작
③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⁹⁾. 모든 그룹에서 99%이상 농업생산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2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농업생산 활동 여부 비교

농업생산 활동		생산	생산 하지 않음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167	1	168
	비중(%)	99.4	0.6	100
그 외	샘플수	814	2	816
	비중(%)	99.8	0.3	100
총 계	샘플수	981	3	984
	비중(%)	99.7	0.3	100

농업생산 활동		생산	생산 하지 않음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387	1	388
	비중(%)	99.7	0.3	100
그 외	샘플수	594	2	596
	비중(%)	99.7	0.3	100
총 계	샘플수	981	3	984
	비중(%)	99.7	0.3	100

* χ^2 test =0.5619, Pr=0.453

Fisher's exact test Pr=0.430

1-sided Fisher's exact test Pr=0.430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χ^2 test =0.0468, Pr=0.829

Fisher's exact test Pr=0.656

1-sided Fisher's exact test Pr=1.000

2.5.3 재배하고 있는 주요 소득작목(Q10-2)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재배하고 있는 주요 소득작목은 8유형(과수), 다음으로 5유형(노지채소), 1유형(논벼) 순으로 나타났다.

19)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 취약계층1와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재배하고 있는 주요 소득작목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⁰.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²¹.
- 취약계층1은 그 외 그룹에 비하여 5유형(노지채소)과 1유형(논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3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재배하고 있는 주요 소득작목 비교

영농활동의 어려움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유형	7 유형	8 유형	9 유형	10 유형	전체
취약계층 1	샘플수	28	7	19	8	36	15	3	37	11	1	165
	비중(%)	17.0	4.2	11.5	4.9	21.8	9.1	1.8	22.4	6.7	0.6	100
그 외	샘플수	107	17	68	53	114	77	6	205	86	21	754
	비중(%)	12.2	2.3	9.0	7.0	15.1	10.2	0.8	27.2	11.4	2.8	100
총 계	샘플수	135	24	87	61	150	92	9	242	97	22	919
	비중(%)	14.7	2.6	9.5	6.6	16.3	10.0	1.0	26.3	10.6	2.4	100

- 1유형 = '논벼'
- 2유형 = '맥류(보리, 귀리, 밀 등)'
- 3유형 = '서류(감자, 고구마, 토란, 마 등)'
- 4유형 = '두류(콩과)'
- 5유형 = '노지채소'
- 6유형 = '시설채소'
- 7유형 = '화훼'
- 8유형 = '과수'
- 9유형 = '특작/약용(양봉, 양잠, 산나물 등)'
- 10유형 = '축산'

* χ^2 test =16.6906, Pr=0.054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34 >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의 재배하고 있는 주요 소득작목 비교

영농활동의 어려움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유형	7 유형	8 유형	9 유형	10 유형	전체
취약계층 2	샘플수	61	14	35	23	67	39	4	93	32	5	373
	비중(%)	16.4	3.8	9.4	6.2	18.0	10.5	1.1	24.9	8.6	1.3	100
그 외	샘플수	74	10	52	38	83	53	5	149	65	17	546
	비중(%)	13.6	1.8	9.5	7.0	15.2	9.7	0.9	27.3	11.9	3.1	100
총 계	샘플수	135	24	87	61	150	92	9	242	97	22	919
	비중(%)	14.7	2.6	9.5	6.6	16.3	10.0	1.0	26.3	10.6	2.4	100

* χ^2 test=11.4468, Pr=0.246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0) 취약계층1은 유의수준 10%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16.6906)
 21) 취약계층2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2.5.4 농업생산활동에서 작목 선택의 기준(Q10-3)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현재 생산하는 작목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로 ‘쉽게 재배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은 작목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로 2유형(쉽게 재배할 수 있어서) 50.3%, 다음으로 3유형(가족, 친척 등 주변인의 권유로) 17.8%, 1유형(소득이 높은 작목이어서) 15.3%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약계층2는 작목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로 2유형(쉽게 재배할 수 있어서) 44.6%, 다음으로 1유형(소득이 높은 작목이어서) 17.3%, 3유형(가족, 친척 등 주변인의 권유로) 15.1% 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작목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²⁾.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취약계층1은 그 외 그룹(3분위 이상 그룹)에 비하여 소득이 높은 작목을 선택하기 보다 쉽게 재배할 수 있거나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인이 권유하는 작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은 작목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로 2유형(쉽게 재배할 수 있어서) 50.3%, 다음으로 3유형(가족, 친척 등 주변인의 권유로) 17.8%, 1유형(소득이 높은 작목이어서) 15.3%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그룹(4분위 이상 그룹)는 첫 번째 2유형(쉽게 재배할 수 있어서) 41.4%, 다음으로 1유형(소득이 높은 작목이어서) 22.2%, 3유형(가족, 친척 등 주변인의 권유로) 13.7% 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은 그 외 그룹(3분위 이상 그룹)에 비하여 2유형(쉽게 재배할 수 있어서) 과 3유형(가족, 친척 등 주변인의 권유로) 작목을 선택한 비중이 더 많다.

< 표 35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작목 선택의 기준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24	79	28	1	6	16	3	157
	비중(%)	15.3	50.3	17.8	0.6	3.8	10.2	1.9	100
그 외	샘플수	173	323	107	19	21	124	14	781
	비중(%)	22.2	41.4	13.7	2.4	2.7	15.9	1.8	100
총 계	샘플수	197	402	135	20	27	140	17	938
	비중(%)	21.0	42.9	14.4	2.1	2.9	14.9	1.8	100

22) 취약계층1은 유의수준 10%에서 유행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통계량 12.3362).

23) 취약계층2은 유행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 1유형 = '소득이 높은 작목이어서'
- 2유형 = '쉽게 재배할 수 있어서'
- 3유형 = '가족, 친척 등 주변인의 권유로'
- 4유형 = '농업관련 기관의 권유로'
- 5유형 = '귀농교육을 이수한 작목이어서'
- 6유형 = '지역의 특화작목이라'
- 7유형 = '자본 규모에 맞추다 보니'

* χ^2 test =12.3362, Pr=0.055 / Fisher's exact test Pr=0.046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36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작목 선택의 기준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64	165	56	12	9	58	6	370
	비중(%)	17.3	44.6	15.1	3.2	2.4	15.7	1.6	100
그 외	샘플수	133	237	79	8	18	82	11	568
	비중(%)	23.4	41.7	13.9	1.4	3.2	14.4	1.9	100
총 계	샘플수	197	402	135	20	27	140	17	938
	비중(%)	21.0	42.9	14.4	2.1	2.9	14.9	1.8	100

* χ^2 test =8.9708, Pr=0.175 / Fisher's exact test Pr=0.176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5.5 처음 농사 시작 형태(Q11)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2유형(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시작)과 3유형(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시작)이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1유형(토지를 승계 받거나 부모와 함께 경영)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농사 시작의 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⁴⁾.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은 그 외 그룹에 비하여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시작'하는 비중과 '토지를 승계 받거나 부모와 함께 경영'형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에 2유형(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시작), 3유형(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시작) 그리고 1유형(토지를 승계

24)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통계량 값은 취약계층1은 19.3898, 취약계층2는 34.575).

받거나 부모와 함께 경영)의 순의 형태로 농사를 시작하나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는 그 외 그룹에 비하여 2유형(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시작)이 속하는 비중이 낮으며, 3유형(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시작)에 속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은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시작'하는 비중이 그 외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고 '토지를 승계 받거나 부모와 함께 경영'하는 형태로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

< 표 37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농사 시작 형태 비교

농사 시작 형태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43	59	59	4	0	0	2	167
	비중(%)	25.8	35.3	35.3	2.4	0	0	1.2	100
그 외	샘플수	174	410	203	5	4	2	7	805
	비중(%)	21.6	50.9	25.2	0.6	0.5	0.3	0.9	100
총 계	샘플수	217	469	262	9	4	2	9	972
	비중(%)	22.3	48.3	27.0	0.9	0.4	0.2	0.9	100

- 1유형 = '토지를 승계 받거나 부모와 함께 경영'
- 2유형 =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시작'
- 3유형 =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시작'
- 4유형 = '다른 농가나 농업법인/농업기관에 실습자 겸 보조자로 취업'
- 5유형 = '현지인 또는 귀농인과 동업의 형태'
- 6유형 = '다른 농가에 일감이 있을 때만 일하는 일용노동자'
- 7유형 = '텃밭 등을 가꾸'

* χ^2 test =19.3898, Pr=0.004 / Fisher's exact test Pr=0.003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38 >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의 농사 시작 형태 비교

농사 시작 형태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101	144	123	6	2	2	6	384
	비중(%)	26.3	37.5	32.0	1.6	0.5	0.5	1.6	100
그 외	샘플수	116	325	139	3	2	0	3	588
	비중(%)	19.7	55.3	23.6	0.5	0.3	0	0.5	100
총 계	샘플수	217	469	262	9	4	2	9	972
	비중(%)	22.3	48.3	27.0	0.9	0.4	0.2	0.9	100

* χ^2 test =34.575, Pr=0.001 / Fisher's exact test Pr=0.001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5.6 농업생산활동의 독립시기 (Q12)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30%이상 농업생산활동에 대하여 아직 조언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⁶⁾. 귀농인이 영농활동 수행시 겪는 어려움은 ‘영농기술/경험 부족’ 35.8%, 다음으로 ‘농지 및 시설투자 시 자금 부족’ 29.7%, ‘재배품목의 판로 부족’ 10.5% 순으로 나타났다.

< 표 41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영농활동 수행시 겪는 어려움 비교

영농활동의 어려움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유형	7 유형	8 유형	9 유형	10 유형	전체
취약계층 1	샘플수	52	15	53	18	2	0	16	2	4	6	168
	비중(%)	31.0	8.9	31.6	10.7	1.2	0	9.5	1.2	2.4	3.6	100
그 외	샘플수	240	46	299	59	11	7	87	13	28	26	816
	비중(%)	29.4	5.6	36.6	7.2	1.4	0.9	10.7	1.6	3.4	3.2	100
총 계	샘플수	292	61	352	77	13	7	103	15	32	32	984
	비중(%)	29.7	6.2	35.8	7.8	1.3	0.7	10.5	1.5	3.3	3.3	100

- 1유형 = '농지 및 시설투자 시 자금 부족'
- 2유형 = '운영비 부족'
- 3유형 = '영농기술/경험 부족'
- 4유형 = '건강/체력 부족(과다한 노동량)'
- 5유형 = '지역 농가와의 갈등'
- 6유형 = '가족과의 갈등'
- 7유형 = '재배품목의 판로 부족'
- 8유형 = '천재지변(홍수, 가뭄 등)'
- 9유형 = '재배품목의 높은 가격 변동성'
- 10유형 = '농업시설 부족(농수로 등)'

* χ^2 test = 8.0418, Pr=0.530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42 >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의 영농활동 수행시 겪는 어려움 비교

영농활동의 어려움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유형	7 유형	8 유형	9 유형	10 유형	전체
취약계층 2	샘플수	127	28	126	33	6	2	35	5	14	12	388
	비중(%)	32.7	7.2	32.5	8.5	1.6	0.5	9.0	1.3	3.6	3.1	100
그 외	샘플수	165	33	226	44	7	5	68	10	18	20	596
	비중(%)	27.7	5.5	37.9	7.4	1.2	0.8	11.4	1.7	3.0	3.4	100
총 계	샘플수	292	61	352	77	13	7	103	15	32	32	984
	비중(%)	29.7	6.2	35.8	7.8	1.3	0.7	10.5	1.5	3.3	3.3	100

* χ^2 test = 7.8196, Pr=0.552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6)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2.5.8 영농활동 어려움 해소 방안(Q14)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있을시 친한 지역주민(이장 제외)에게 상담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친한 귀농귀촌 선배나 동료와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2유형(친한 지역주민(이장 제외)에게 상담), 다음으로 1유형(친한 귀농귀촌 선배나 동료와의 상담), 5유형(지역기관 활용(농업기술센터, 지자체 등) 20.0% 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영농활동 어려움 해소 방안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⁷⁾.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에 비하여 영농활동 어려움이 있을시 지역주민에게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은 2유형, 다음으로 1유형, 5유형 순이며, 그 외 그룹(3분위 이상 그룹)은 1유형, 다음으로 2유형, 5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2은 2유형, 다음으로 1유형, 5유형 순이며, 그 외 그룹(4분위 이상 그룹)은 1유형, 다음으로 5유형, 2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 표 43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영농활동 어려움 해소 방안 비교

영농활동 어려움 해소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35	51	7	11	26	130
	비중(%)	26.9	39.2	5.4	8.5	20.0	100
그 외	샘플수	218	184	34	68	178	682
	비중(%)	32.0	27.0	5.0	10.0	26.1	100
총 계	샘플수	253	235	41	79	204	812
	비중(%)	31.2	28.9	5.1	9.7	25.1	100

1유형 = 친한 귀농귀촌 선배나 동료와의 상담 4유형 = 인터넷 검색 등 온라인 활용
 2유형 = 친한 지역주민(이장 제외)에게 상담 5유형 = 지역기관 활용(농업기술센터,
 3유형 = 마을 이장에게 상담 지자체 등)

* χ^2 test =8.4606, Pr=0.076 / Fisher's exact test Pr=0.087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²⁷⁾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의수준 10%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값은 취약계층1은 17.6438, 취약계층2는 43.3284).

< 표 44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영농활동 어려움 해소 방안 비교

영농활동 어려움 해소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105	107	13	23	74	322
	비중(%)	32.61	33.23	4.04	7.14	22.98	100
그 외	샘플수	148	128	28	56	130	490
	비중(%)	30.2	26.12	5.71	11.43	26.53	100
총 계	샘플수	253	235	41	79	204	812
	비중(%)	31.16	28.94	5.05	9.73	25.12	100

* χ^2 test =9.4771, Pr=0.050 / Fisher's exact test Pr=0.051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5.9 귀농귀촌과 관련한 정부 자금 융자 및 보조를 받은 경험 유무(Q15-3)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귀농귀촌과 관련한 정부 자금 융자 및 보조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다.
 - 귀농귀촌과 관련한 정부 자금 융자 및 보조를 받지 않음 취약계층1 72.6%, 취약계층2 68.0%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⁸⁾. 귀농자의 67.8%가 귀농귀촌과 관련한 정부 자금 융자 및 보조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 표 45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정부 자금 융자 및 보조를 받은 경험 유무 비교

정부 자금 융자 및 보조		받음	받지 않음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46	122	168
	비중(%)	27.4	72.6	100
그 외	샘플수	271	545	816
	비중(%)	33.2	66.8	100
총 계	샘플수	317	667	984
	비중(%)	32.2	67.8	100

* χ^2 test =2.1683, Pr=0.141
 Fisher's exact test Pr=0.148
 1-sided Fisher's exact test Pr=0.082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정부 자금 융자 및 보조		받음	받지 않음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124	264	388
	비중(%)	32.0	68.0	100
그 외	샘플수	193	403	596
	비중(%)	32.4	67.6	100
총 계	샘플수	317	667	984
	비중(%)	32.2	67.8	100

* χ^2 test =0.0193, Pr=0.889
 Fisher's exact test Pr=0.944
 1-sided Fisher's exact test Pr=0.473

28)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2.5.10 영농활동을 위한 투자 비용 중 정부로부터 용자 받거나 보조 받은 금액의 비중(Q15-4)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영농활동을 위한 농지/가축구입 및 시설투자 비용 중 전체 투자비용의 30% 이내의 정부자금을 용자 및 보조를 받은 비중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⁹⁾.
- 귀농인의 60.9%가 영농활동을 위한 투자 비용의 30%를 정부로부터 용자 받거나 보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6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자금 용자 및 보조를 받은 금액의 비중 비교

정부 자금 용자 및 보조를 받은 금액의 비중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13	12	13	8	46
	비중(%)	28.3	26.1	28.3	17.4	100
그 외	샘플수	64	104	62	41	271
	비중(%)	23.6	38.4	22.9	15.1	100
총 계	샘플수	77	116	75	49	317
	비중(%)	24.3	36.6	23.7	15.5	100

1유형 = '전체 비용의 10% 이내'

2유형 = '전체 비용의 10% ~ 30% 이내'

3유형 = '전체 비용의 30% ~ 50% 이내'

4유형 = '전체 비용의 50% 이상'

* χ^2 test =2.5841, Pr=0.460 / Fisher's exact test Pr=0.420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9)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 표 47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자금 용자 및 보조를 받은 금액의 비중 비교

정부 자금 용자 및 보조를 받은 금액의 비중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28	53	25	18	124
	비중(%)	22.6	42.7	20.2	14.5	100
그 외	샘플수	49	63	50	31	193
	비중(%)	25.4	32.6	25.9	16.1	100
총 계	샘플수	77	116	75	49	317
	비중(%)	24.3	36.6	23.7	15.5	100

* χ^2 test =3.5195, Pr=0.318 / Fisher's exact test Pr=0.326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5.11 수혜한 정부 자금의 규모(Q15-5)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2천만원 미만의 규모로 정부 자금을 수혜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고, 그 외 그룹은 5천만원 이상의 규모로 정부 보조금을 수혜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11.1 수혜한 정부 보조금 규모

-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1천만원 미만'의 규모로 수혜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수혜한 정부 보조금 규모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⁰⁾.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³¹⁾. 취약계층1은 그 외 그룹(3분위 이상 그룹) 비하여 2천만원 미만의 규모로 정부 보조금을 수혜한 비중이 매우 높다.
 - 2천만원 미만의 규모로 정부 보조금을 수혜한 취약계층1의 비중은 85.8%이며, 그 외 그룹은 50.3%이다. 반면, 5천만원 이상의 규모로 정부 보조금을 수혜한 취약계층1의 비중은 4.8%이며, 그 외 그룹은 19.5%이다.

30) 취약계층1은 유의수준 10%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11.2096)

31) 취약계층2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확은 있으나 자금부족 등의 문제로 당장은 확대할 수 없음), 4유형(적극적으로 영농규모를 확대하겠음) 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⁴⁾.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귀농 초기 주택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⁵⁾. 취약계층2은 그 외 그룹(4분위 이상 그룹)에 비하여 영농규모 확대에 대한 의사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2의 향후 영농규모 확대에 대한 계획은 1유형(없음) 50.3%으로 그 외 그룹에 비해서 비중이 높다. 2유형(아직까진 계획이 없으나 향후 영농상황을 보고 판단하겠음), 3유형(계획은 있으나 자금부족 등의 문제로 당장은 확대할 수 없음), 4유형(적극적으로 영농규모를 확대하겠음)은 그 외 그룹에 비해서 비중이 낮다.

< 표 54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영농규모 확대 계획 비교

영농규모에 대한 계획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84	39	32	12	167
	비중(%)	50.3	23.4	19.2	7.2	100
그 외	샘플수	374	230	125	85	814
	비중(%)	46.0	28.3	15.4	10.4	100
총 계	샘플수	458	269	157	97	981
	비중(%)	46.7	27.7	16.0	10.0	100

1유형 = '없음'

2유형 = '아직까진 계획이 없으나 향후 영농상황을 보고 판단하겠음'

3유형 = '계획은 있으나 자금부족 등의 문제로 당장은 확대할 수 없음'

4유형 = '적극적으로 영농규모를 확대하겠음'

* χ^2 test = 4.5171, Pr=0.211 / Fisher's exact test Pr=0.217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55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영농규모 확대 계획 비교

영농규모에 대한 계획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197	97	64	28	386
	비중(%)	51.0	25.1	16.6	7.3	100
그 외	샘플수	261	172	93	69	595
	비중(%)	43.9	28.9	15.6	11.6	100
총 계	샘플수	458	269	157	97	981
	비중(%)	46.7	27.7	16.0	10.0	100

* χ^2 test = 8.3946, Pr=0.039 / Fisher's exact test Pr=0.038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34) 취약계층1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35) 취약계층2은 유의수준 5%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8.3946)



2.6 경영활동

2.6.1 농업생산활동 이외의 경제활동 종류(Q18-1)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50%이상 농업생산활동 이외 수행하는 경제활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9유형(없음), 다음으로 2유형(농산물/가공식품 직접 판매활동(직거래), 4유형('농업 임금노동(품삯 노동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수행하는 경제활동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⁶⁾.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하여 수행하는 경제활동에 대해서 '없음', '농업 임금노동(품삯 노동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하여 9유형(없음), 4유형(농업 임금노동(품삯 노동 등), 2유형(농산물/가공식품 직접 판매활동(직거래), 8유형(비농업 부문 일용직(건설노동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취약계층2의 경우 1유형(농산물 가공(장류, 액즙 등)의 비중 또한 그 외 그룹(4분위 이상 그룹)에 비교하여 높다.

< 표 56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수행하는 경제활동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8유형	9유형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5	16	1	12	11	4	8	10	109	176
	비중(%)	2.8	9.1	0.6	6.8	6.3	2.3	4.6	5.7	61.9	100
그 외	샘플수	31	66	14	36	82	81	47	39	435	831
	비중(%)	3.7	7.9	1.7	4.3	9.9	9.8	5.7	4.7	52.4	100
총 계	샘플수	36	82	15	48	93	85	55	49	544	1007
	비중(%)	3.6	8.1	1.5	4.8	9.2	8.4	5.5	4.9	54.0	100

- 1유형 = '농산물 가공(장류, 액즙 등)'
- 2유형 = '농산물/가공식품 직접 판매활동(직거래)'
- 3유형 = '농촌관광사업(주말농장, 체험마을 등)'
- 4유형 = '농업 임금노동(품삯 노동 등)'
- 5유형 = '자영업(장사, 가게 운영 등)'
- 6유형 = '일반 직장 취업(정규직)'
- 7유형 = '임시직(사회서비스, 건설기계, 단기계약직 등)'
- 8유형 = '비농업 부문 일용직(건설노동 등)'
- 9유형 = '없음'

* χ^2 test = 18.4166, Pr = 0.018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36) 취약계층1은 유의수준 5%에서 취약계층2는 유의수준 1%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값은 취약계층1은 18.4166, 취약계층2는 51.5327).

〈 표 57 〉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의 수행하는 경제활동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8유형	9유형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21	35	4	30	28	13	17	28	235	411
	비중(%)	5.1	8.5	1.0	7.3	6.8	3.2	4.1	6.8	57.2	100
그 외	샘플수	15	47	11	18	65	72	38	21	309	596
	비중(%)	2.5	7.9	1.9	3.0	10.9	12.1	6.4	3.5	51.9	100
총 계	샘플수	36	82	15	48	93	85	55	49	544	1007
	비중(%)	3.6	8.1	1.5	4.8	9.2	8.4	5.5	4.9	54.0	100

* χ^2 test =51.5327, Pr=0.000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6.2 농업생산활동 이외의 경제활동을 수행 하는 이유 (Q18-2)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75%이상 농업생산활동 이외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농업소득이 적어서’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1유형, 다음으로 3유형, 5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경제활동 하는 이유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⁷⁾.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하여 ‘농업소득이 적어서’ 경제활동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하여 5유형(주변의 권유로), 1유형(농업소득이 적어서), 2유형(농사일이 힘들어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37) 취약계층1은 유의수준 5%에서 취약계층2는 유의수준 1%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값은 취약계층1은 7.5401, 취약계층2는 17.1752).



< 표 58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 비교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55	2	8	0	4	69
	비중(%)	79.7	2.9	11.6	0.0	5.8	100
그 외	샘플수	287	7	59	27	11	391
	비중(%)	73.4	1.8	15.1	6.9	2.8	100
총 계	샘플수	342	9	67	27	15	460
	비중(%)	74.4	2.0	14.6	5.9	3.3	100

1유형 = '농업소득이 적어서'
 2유형 = '농사일이 힘들어서'
 3유형 = '내가 가진 재능을 활용하고 싶어서'
 4유형 =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
 5유형 = '주변의 권유로'
 * χ^2 test =7.5401, Pr=0.110 / Fisher's exact test Pr=0.047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59 >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의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 비교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138	4	23	2	10	177
	비중(%)	78.0	2.3	13.0	1.1	5.7	100
그 외	샘플수	204	5	44	25	5	283
	비중(%)	72.1	1.8	15.6	8.8	1.8	100
총 계	샘플수	342	9	67	27	15	460
	비중(%)	74.4	2.0	14.6	5.9	3.3	100

* χ^2 test =17.1752, Pr=0.002 / Fisher's exact test Pr=0.001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6.3 농업생산활동 이외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는 어려움(Q19)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경제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본인의 능력(지식, 기술)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은 1유형, 다음으로 2유형, 3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2은 1유형, 다음으로 2유형, 5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경제활동 하는 이유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⁸⁾.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2.6.4 향후 관심있는 경제활동(Q20)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향후 경제활동에 대해서 '계획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사에만 전념'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10유형(계획 없음), 다음으로 9유형(농사에만 전념), 2유형(농산물(가공식품) 직접 판매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⁹⁾. 모든 그룹에서 향후 경제활동에 대해서 '계획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사에만 전념'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62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관심있는 경제활동 비교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유형	7 유형	8 유형	9 유형	10 유형	전체
취약 계층 1	샘플수	14	26	19	2	2	6	5	1	40	63	178
	비중(%)	7.9	14.6	10.7	1.1	1.1	3.4	2.8	0.6	22.5	35.4	100
그 외	샘플수	84	130	74	5	40	28	9	8	171	284	833
	비중(%)	10.1	15.6	8.9	0.6	4.8	3.4	1.1	1.0	20.5	34.1	100
총 계	샘플수	98	156	93	7	42	34	14	9	211	347	1011
	비중(%)	9.7	15.4	9.2	0.7	4.2	3.4	1.4	0.9	20.9	34.3	100

1유형 = '농산물 가공(장류, 액즙 등)'

2유형 = '농산물(가공식품) 직접 판매활동'

3유형 = '농촌관광사업(주말농장, 체험마을 등)'

4유형 = '농업 임금노동(품삯 노동 등)'

5유형 = '자영업(장사, 가게 운영 등)'

6유형 = '일반 직장 취업(정규직)'

7유형 = '임시직(사회서비스, 건설기계, 단기계약직 등)'

8유형 = '비농업 부문 일용직(건설노동 등)'

9유형 = '농사에만 전념'

10유형 = '계획 없음'

* χ^2 test =10.4717, Pr=0.314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39)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 표 63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관심있는 경제활동 비교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유형	7 유형	8 유형	9 유형	10 유형	전체
취약 계층 2	샘플수	40	69	39	4	12	11	8	4	80	144	411
	비중(%)	9.7	16.8	9.5	1.0	2.9	2.7	2.0	1.0	19.5	35.0	100
그 외	샘플수	58	87	54	3	30	23	6	5	131	203	600
	비중(%)	9.7	14.5	9.0	0.5	5.0	3.8	1.0	0.8	21.8	33.8	100
총 계	샘플수	98	156	93	7	42	34	14	9	211	347	1011
	비중(%)	9.7	15.4	9.2	0.7	4.2	3.4	1.4	0.9	20.9	34.3	100

* χ^2 test =7.5830, Pr=0.577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6.4 귀농인의 소득 전망

- 귀농인은 향후 가구소득과 농업소득에 대하여 현재 소득여건 보다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4.1 가구소득 전망(Q21-3)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향후 가구소득에 대해서 '현재 가구소득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비중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현재 가구소득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⁰⁾. 모든 그룹에서 향후 가구소득에 대해서 4유형(현재 가구소득보다 다소 증가), 다음으로 3유형(현재 가구소득과 비슷할 것), 2유형(현재 가구소득보다 다소 감소) 순으로 나타났다.

40)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 표 64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가구소득 전망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7	19	65	77	12	180
	비중(%)	4.0	10.6	36.1	42.8	6.7	100
그 외	샘플수	54	78	328	332	55	847
	비중(%)	6.4	9.2	38.7	39.2	6.5	100
총 계	샘플수	61	97	393	409	67	1027
	비중(%)	5.9	9.4	38.3	39.8	6.5	100

1유형 = '현재 가구소득보다 많이 감소'
 2유형 = '현재 가구소득보다 다소 감소'
 3유형 = '현재 가구소득과 비슷할 것'
 4유형 = '현재 가구소득보다 다소 증가'
 5유형 = '현재 가구소득보다 많이 증가'

* χ^2 test =2.5801, Pr=0.630 / Fisher's exact test Pr=0.636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65 >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의 가구소득 전망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20	35	166	167	29	417
	비중(%)	4.8	8.4	39.8	40.1	7.0	100
그 외	샘플수	41	62	227	242	38	610
	비중(%)	6.7	10.2	37.2	39.7	6.2	100
총 계	샘플수	61	97	393	409	67	1027
	비중(%)	5.9	9.4	38.3	39.8	6.5	100

* χ^2 test =3.0118, Pr=0.556 / Fisher's exact test Pr=0.563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6.4.2 농업소득 전망(Q21-4)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향후 가구소득에 대해서 '현재 농업소득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비중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현재 농업소득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¹⁾. 모든 그룹에서 향후 가구소득에 대해서 4유형(현재 농업소득보다 다소 증가), 다음으로 3유형(현재 농업소득과 비슷할 것)으로 나타났다.

41)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 표 66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가구소득 전망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9	14	61	80	16	180
	비중(%)	5.0	7.8	33.9	44.4	8.9	100
그 외	샘플수	46	67	335	348	51	847
	비중(%)	5.4	7.9	39.6	41.1	6.0	100
총 계	샘플수	55	81	396	428	67	1027
	비중(%)	5.4	7.9	38.6	41.7	6.5	100

1유형 = '현재 농업소득보다 많이 감소'
 2유형 = '현재 농업소득보다 다소 감소'
 3유형 = '현재 농업소득과 비슷할 것'
 4유형 = '현재 농업소득보다 다소 증가'
 5유형 = '현재 농업소득보다 많이 증가'

* χ^2 test =3.5622, Pr=0.468 / Fisher's exact test Pr=0.461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67 >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의 가구소득 전망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20	34	157	178	28	417
	비중(%)	4.8	8.2	37.7	42.7	6.7	100
그 외	샘플수	35	47	239	250	39	610
	비중(%)	5.7	7.7	39.2	41.0	6.4	100
총 계	샘플수	55	81	396	428	67	1027
	비중(%)	5.4	7.9	38.6	41.7	6.5	100

* χ^2 test =0.835, Pr=0.934 / Fisher's exact test Pr=0.936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6.5 생활비 사용처 (Q22-2)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식비'에 생활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주거 및 광열/수도비/전기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1유형(식비), 다음으로 2유형(주거 및 광열/수도비/전기세), 6유형(교통통신비) 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생활비 사용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²⁾.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42)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값은 취약계층1은 17.0337, 취약계층2는 39.9027).

2.6.6 건강 및 의료시설 이용 장소 (Q22-3-3)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건강 및 의료시설 이용 장소에 대해서 40%이상 '읍면 소재지(거주 도시)'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은 2유형(읍면 소재지(거주 도시), 다음으로 3유형(시군청 소재지(타 도시), 4유형(주변 대도시(타 도시)순으로 나타났으며, 취약계층2는 2유형(읍면 소재지(거주 도시), 다음으로 4유형(주변 대도시(타 도시), 3유형(시군청 소재지(타 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건강 및 의료시설 이용 장소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³⁾. 취약계층2오 모그 외 그룹과 비교시 '마을(인근 마을 포함)'과 '읍면 소재지(거주 도시)'에서 건강 및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 취약계층2의 1유형(마을(인근 마을 포함)과 2유형(읍면 소재지(거주 도시)의 누계비중은 52.5% 그 외 그룹은 47.1% 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70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건강 및 의료시설 이용 장소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18	75	44	40	3	180
	비중(%)	10.0	41.7	24.4	22.2	1.7	100
그 외	샘플수	33	320	229	238	27	847
	비중(%)	3.9	37.8	27.0	28.1	3.2	100
총 계	샘플수	51	395	273	278	30	1027
	비중(%)	5.0	38.5	26.6	27.1	2.9	100

1유형 = '마을(인근 마을 포함)'

2유형 = '읍면 소재지(거주 도시)'

3유형 = '시군청 소재지(타 도시)'

4유형 = '주변 대도시(타 도시)'

5유형 = '이용하지 않음'

* χ^2 test =15.1659, Pr=0.004 / Fisher's exact test Pr=0.009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43)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값은 취약계층1은 15.1659, 취약계층2는 27.3621).



< 표 71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건강 및 의료시설 이용 장소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34	188	89	98	11	417
	비중(%)	7.4	45.1	21.3	23.5	2.6	100
그 외	샘플수	20	207	184	180	19	610
	비중(%)	3.3	33.9	30.2	29.5	3.1	100
총 계	샘플수	51	395	273	278	30	1027
	비중(%)	5.0	38.5	26.6	27.1	2.9	100

* χ^2 test =27.3621, Pr=0.000 / Fisher's exact test Pr=0.000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7 지역사회 참여

2.7.1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Q23-1)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비중이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 좋음’, 다음으로 ‘보통’, ‘매우 좋음’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⁴⁾.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⁵⁾. 취약계층2의 경우 그 외 그룹(4분위 이상 그룹)에 비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의 ‘ 좋음’의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72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비교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18	104	54	3	1	180
	비중(%)	10.0	57.8	30.0	1.7	0.6	100
그 외	샘플수	127	495	205	17	3	847
	비중(%)	15.0	58.4	24.2	2.0	0.4	100
총 계	샘플수	145	599	259	20	4	1027
	비중(%)	14.1	58.3	25.2	2.0	0.4	100

* χ^2 test =4.8546, Pr=0.303 / Fisher's exact test Pr=0.239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73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비교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47	245	116	6	3	417
	비중(%)	11.3	58.8	27.8	1.4	0.7	100
그 외	샘플수	98	354	143	14	1	610
	비중(%)	16.1	58.0	23.4	2.3	0.2	100
총 계	샘플수	145	599	259	20	4	1027
	비중(%)	14.1	58.3	25.2	2.0	0.4	100

* χ^2 test =8.8294, Pr=0.066 / Fisher's exact test Pr=0.060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44) 취약계층1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45) 취약계층2은 유의수준 10%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8.8294)



2.7.2 지역주민과의 주된 갈등요인 (Q23-2)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40%이상 갈등요인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 충돌'에서 갈등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8유형(갈등요인 없음), 다음으로 3유형(생활방식에 대한 이해 충돌), 6유형(귀농인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 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⁶⁾.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지역주민과의 주된 갈등요인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⁷⁾. 취약계층2는 그 외 그룹(4분위 이상 그룹)에 비하여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 충돌'의 상대적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74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지역주민과의 주된 갈등요인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8유형	전체
취약 계층 1	샘플수	55	28	185	38	29	138	11	362	846
	비중(%)	6.5	3.3	21.9	4.5	3.4	16.3	1.3	42.8	100
그 외	샘플수	14	2	36	8	8	21	2	89	180
	비중(%)	7.8	1.1	20.0	4.4	4.4	11.7	1.1	49.4	100
총 계	샘플수	69	30	221	46	37	159	13	451	1026
	비중(%)	6.7	2.9	21.5	4.5	3.6	15.5	1.3	44.0	100

- 1유형 = '집이나 토지 문제'
- 2유형 = '마을 공동시설 이용 문제'
- 3유형 =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 충돌'
- 4유형 = '마을 일이나 모임의 참여 문제'
- 5유형 = '영농방식의 차이'
- 6유형 = '귀농인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
- 7유형 = '지역민을 무시하는 언행'
- 8유형 = '갈등요인 없음'

* χ^2 test =7.0837, Pr=0.420 / Fisher's exact test Pr=0.405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46) 취약계층1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47) 취약계층2은 유의수준 10%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12.8466)

< 표 75 >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의 지역주민과의 주된 갈등요인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8유형	전체
취약 계층 2	샘플수	39	19	147	21	16	95	8	264	609
	비중(%)	6.4	3.1	24.1	3.5	2.6	15.6	1.3	43.4	100
그 외	샘플수	30	11	74	25	21	64	5	187	417
	비중(%)	7.2	2.6	17.8	6.0	5.0	15.4	1.2	44.8	100
총 계	샘플수	69	30	221	46	37	159	13	451	1026
	비중(%)	6.7	2.9	21.5	4.5	3.6	15.5	1.3	44.0	100

* χ^2 test =12.8466, Pr=0.076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7.3 지역 내 활동 참여도 (Q24)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에 비하여 지역 내 활동에 대해서 참여의 적극적인 참여 정도가 낮으며, 거의 참여하지 않는 비중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회의나 행사에 대해서는 다른 활동보다 상대적으로 참여를 하는 편이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가 거의 참여하지 않다고 응답한 지역 활동에서 상대적 비중이 높은 순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순위 귀농귀촌인 모임, 다음으로 2순위 일반 사회 단체, 3순위 농업·농민 단체 순이다.

2.7.3.1 마을 회의나 행사 참여도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마을 회의나 행사 참여에 대해서 가끔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은 ‘가끔 참여’ 29.6%, 다음으로 ‘거의 참여 안함’ 23.5%, ‘자주 참여 적극적 의견 개진’ 22.6% 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2는 ‘가끔 참여’ 30.0%, 다음으로 ‘자주 참여’ 23.2%, 자주 참여 적극적 의견 개진 22.5% 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마을 회의나 행사 참여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⁸⁾.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에 비하여 마을 회의나 행사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지역 내 활동 참여에 대해서 거의 참여 안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지역 내 활동 참여에 대해서 ‘자주 참여 적극적 의견 개진’한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 표 76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마을 회의나 행사 참여도 비교

		모임을 이끄는 형태로 참여	자주 참여 적극적 의견 개진	자주 참여	가끔 참여	거의 참여 안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5	26	23	34	27	115
	비중(%)	4.4	22.6	20.0	29.6	23.5	100
그 외	샘플수	39	160	142	121	87	549
	비중(%)	7.1	29.1	25.9	22.0	15.9	100
총 계	샘플수	44	186	165	155	114	664
	비중(%)	6.6	28.0	24.9	23.3	17.2	100

* χ^2 test =9.3877, Pr=0.052 / Fisher's exact test Pr=0.058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77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마을 회의나 행사 참여도 비교

		모임을 이끄는 형태로 참여	자주 참여 적극적 의견 개진	자주 참여	가끔 참여	거의 참여 안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17	60	62	80	48	267
	비중(%)	6.4	22.5	23.2	30.0	18.0	100
그 외	샘플수	27	126	103	75	66	397
	비중(%)	6.8	31.7	25.9	18.9	16.6	100
총 계	샘플수	44	186	165	155	114	664
	비중(%)	6.6	28.0	24.9	23.3	17.2	100

* χ^2 test =13.9669, Pr=0.007 / Fisher's exact test Pr=0.008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48) 취약계층1은 유의수준 10%, 취약계층2는 유의수준 1%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값은 취약계층1은 9.3877, 취약계층2는 13.9669).

2.7.3.2 지역 농업·농민 단체 참여도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지역 농업·농민 단체 참여에 대해서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거의 참여 안함’, 다음으로 ‘가끔 참여’, ‘자주 참여’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⁹⁾.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지역 농업·농민 단체 참여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⁰⁾. 취약계층2는 그 외 그룹(4분위 이상 그룹) 비하여 지역 농업·농민 단체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 농업·농민 단체 참여에 대하여 ‘거의 참여 안함’으로 응답한 취약계층2는 43.5%이며, 그 외 그룹(4분위 이상 그룹)은 36.5%이다.
 - 지역 농업·농민 단체 참여에 ‘자주 참여 적극적 의견 개진’한다고 응답한 취약계층2는 12.7%이며, 그 외 그룹(4분위 이상 그룹)은 21.7%이다.

< 표 78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지역 농업·농민 단체 참여도 비교

		모임을 이끄는 형태로 참여	자주 참여 적극적 의견 개진	자주 참여	가끔 참여	거의 참여 안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3	15	23	24	50	115
	비중(%)	2.6	13.0	20.0	20.9	43.5	100
그 외	샘플수	39	105	98	96	211	549
	비중(%)	7.1	19.1	17.9	17.5	38.4	100
총 계	샘플수	42	120	121	120	261	664
	비중(%)	6.3	18.1	18.2	18.1	39.3	100

* χ^2 test =6.4426, Pr=0.168 / Fisher's exact test Pr=0.157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49) 취약계층1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50) 취약계층2은 유의수준 5%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9.8894)



< 표 79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지역 농업·농민 단체 참여도 비교

		모임을 이끄는 형태로 참여	자주 참여 적극적 의견 개선	자주 참여	가끔 참여	거의 참여 안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15	34	50	52	116	267
	비중(%)	5.6	12.7	18.7	19.5	43.5	100
그 외	샘플수	27	86	71	68	145	397
	비중(%)	6.8	21.7	17.9	17.1	36.5	100
총 계	샘플수	42	120	121	120	261	664
	비중(%)	6.3	18.1	18.2	18.1	39.3	100

* χ^2 test =9.8894, Pr=0.042 / Fisher's exact test Pr=0.039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7.3.3 일반 사회단체 참여도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일반 사회단체 참여에 대해서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거의 참여 안함’, 다음으로 ‘가끔 참여’, ‘자주 참여’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⁵¹⁾.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일반 사회단체 참여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²⁾. 취약계층2는 그 외 그룹(4분위 이상 그룹) 비하여 일반 사회단체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 사회단체 참여에 대하여 ‘거의 참여 안함’으로 응답한 취약계층2는 52.4%이며, 그 외 그룹(4분위 이상 그룹)은 42.8%이다.

- 일반 사회단체 참여에 대하여 ‘자주 참여 적극적 의견 개선’으로 응답한 취약계층2는 10.9%이며, 그 외 그룹(4분위 이상 그룹)은 17.6%이다.

51) 취약계층1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52) 취약계층2는 유의수준 10%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8.6617)

< 표 80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일반 사회단체 참여도 비교

		모임을 이끄는 형태로 참여	자주 참여 적극적 의견 개선	자주 참여	가끔 참여	거의 참여 안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2	12	19	21	61	115
	비중(%)	1.7	10.4	16.5	18.3	53.0	100
그 외	샘플수	30	87	92	91	249	549
	비중(%)	5.5	15.9	16.8	16.6	45.4	100
총 계	샘플수	32	99	111	112	310	664
	비중(%)	4.8	14.9	16.7	16.9	46.7	100

* χ^2 test =5.9733, Pr=0.201 / Fisher's exact test Pr=0.203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81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일반 사회단체 참여도 비교

		모임을 이끄는 형태로 참여	자주 참여 적극적 의견 개선	자주 참여	가끔 참여	거의 참여 안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11	29	43	44	140	267
	비중(%)	4.1	10.9	16.1	16.5	52.4	100
그 외	샘플수	21	70	68	68	170	397
	비중(%)	5.3	17.6	17.1	17.1	42.8	100
총 계	샘플수	32	99	111	112	310	664
	비중(%)	4.8	14.9	16.7	16.9	46.7	100

* χ^2 test =8.6617, Pr=0.070 / Fisher's exact test Pr=0.069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7.3.4 귀농귀촌인 모임 참여도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귀농귀촌인 모임 참여에 대해서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은 ‘거의 참여 안함’ 50.4% 다음으로, ‘자주 참여 적극적 의견 개선’ 18.3%, ‘자주 참여’ 15.7% 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2은 ‘거의 참여 안함’ 50.6%, 다음으로 ‘자주 참여’ 16.9% , ‘가끔 참여’ 13.5% 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⁵³⁾.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

53) 취약계층1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교) 귀농귀촌인 모임 참여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⁴⁾. 취약계층2는 그 외 그룹(4분위 이상 그룹) 비하여 귀농귀촌인 모임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귀농귀촌인 모임 참여에 대하여 ‘거의 참여 안함’으로 응답한 취약계층2는 50.6%이며, 그 외 그룹(4분위 이상 그룹)은 37.8%이다.
- 귀농귀촌인 모임 참여에 대하여 ‘자주 참여 적극적 의견 개진’으로 응답한 취약계층2는 12.0%이며, 그 외 그룹(4분위 이상 그룹)은 23.7%이다.

< 표 82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귀촌인 모임 참여도 비교

		모임을 이끄는 형태로 참여	자주 참여 적극적 의견 개진	자주 참여	가끔 참여	거의 참여 안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6	21	18	12	58	115
	비중(%)	5.2	18.3	15.7	10.4	50.4	100
그 외	샘플수	49	105	91	77	227	549
	비중(%)	8.9	19.1	16.6	14.0	41.4	100
총 계	샘플수	55	126	109	89	285	664
	비중(%)	8.3	19.0	16.4	13.4	42.9	100

* χ^2 test =4.4089, Pr=0.353 / Fisher's exact test Pr=0.390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83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귀촌인 모임 참여도 비교

		모임을 이끄는 형태로 참여	자주 참여 적극적 의견 개진	자주 참여	가끔 참여	거의 참여 안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19	32	45	36	135	267
	비중(%)	7.1	12.0	16.9	13.5	50.6	100
그 외	샘플수	36	94	64	53	150	397
	비중(%)	9.1	23.7	16.1	13.4	37.8	100
총 계	샘플수	55	126	109	89	285	664
	비중(%)	8.3	19.0	16.4	13.4	42.9	100

* χ^2 test =18.3631, Pr=0.001 / Fisher's exact test Pr=0.001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7.4 지역 내 활동 참여 이유 (Q24-1)

마을 회의나 행사 이유에 대하여 취약계층이었던 귀농인은 그 외 그룹에 비하여

54) 취약계층2은 유의수준 1%에서 유허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18.3631)

주변의 권유와 사회봉사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 농업·농민 단체, 일반 사회단체, 귀농귀촌인 모임 참여 이유에 대하여 취약계층이었던 귀농인은 그 외 그룹에 비하여 사회봉사에 관심이 있어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4.1 마을 회의나 행사 참여 이유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마을 회의나 행사 참여 이유에 대해서 주변의 권유로 인해 응답한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4유형(주변의 권유로 인해), 다음으로 5유형(사회봉사에 관심이 있어서), 2유형(취미, 재능개발 등 자아실현을 위해) 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마을 회의나 행사 참여 이유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⁵).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주변의 권유와 사회봉사에 관심이 있어서 마을 회의나 행사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 4유형(주변의 권유로 인해)과 5유형(사회봉사에 관심이 있어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 2유형(취미, 재능개발 등 자아실현을 위해)과 3유형(경제적 도움을 얻기 위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⁵⁵ 취약계층1은 유의수준 1%, 취약계층2 유의수준 5%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값은 취약계층1은 15.8615, 취약계층2는 11.8693).



< 표 84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마을 회의나 행사 참여 이유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8	39	32	55	46	180
	비중(%)	4.4	21.7	17.8	30.6	25.6	100
그 외	샘플수	55	251	197	207	137	847
	비중(%)	6.5	29.6	23.3	24.4	16.2	100
총 계	샘플수	63	290	229	262	183	1027
	비중(%)	6.1	28.2	22.3	25.5	17.8	100

- 1유형 =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 2유형 = '취미, 재능개발 등 자아실현을 위해'
- 3유형 = '경제적 도움을 얻기 위해'
- 4유형 = '주변의 권유로 인해'
- 5유형 = '사회봉사에 관심이 있어서'

* χ^2 test =15.8615, Pr=0.003 / Fisher's exact test Pr=0.004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85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마을 회의나 행사 참여 이유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25	100	88	127	77	417
	비중(%)	6.0	24.0	21.1	30.5	18.5	100
그 외	샘플수	38	190	141	135	106	610
	비중(%)	6.2	31.2	23.1	22.1	17.4	100
총 계	샘플수	63	290	229	262	183	1027
	비중(%)	6.1	28.2	22.3	25.5	17.8	100

* χ^2 test =11.8693, Pr=0.018 / Fisher's exact test Pr=0.019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7.4.2 지역농업/농민단체 참여 이유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지역농업/농민단체 참여 이유에 대해서 '사회봉사에 관심이 있어서' 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5유형(사회봉사에 관심이 있어서), 다음으로 4유형(주변의 권유로 인해), 3유형(경제적 도움을 얻기 위해) 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지역농업/농민단체 참여 이유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⁶⁾. 취약계층1과 취

56) 취약계층1은 유의수준 5%, 취약계층2 유의수준 10%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값은 취약계층1은 9.9613, 취약계층2는 8.0991).

약계층2 모두 주변의 권유와 사회봉사에 관심이 있어서 지역농업/농민단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 4유형(주변의 권유로 인해)과 5유형(사회봉사에 관심이 있어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 2유형(취미, 재능개발 등 자아실현을 위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 표 86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지역농업/농민단체 참여 이유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5	21	30	36	88	180
	비중(%)	2.8	11.7	16.7	20.0	48.9	100
그 외	샘플수	52	161	130	154	350	847
	비중(%)	6.1	19.0	15.4	18.3	41.3	100
총 계	샘플수	57	182	160	190	438	1027
	비중(%)	5.6	17.7	15.6	18.5	42.7	100

1유형 =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2유형 = '취미, 재능개발 등 자아실현을 위해'
 3유형 = '경제적 도움을 얻기 위해'
 4유형 = '주변의 권유로 인해'
 5유형 = '사회봉사에 관심이 있어서'
 * χ^2 test =9.9613, Pr=0.041 / Fisher's exact test Pr=0.035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87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지역농업/농민단체 참여 이유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22	58	64	81	192	417
	비중(%)	5.3	13.9	15.4	19.4	46.0	100
그 외	샘플수	35	124	96	109	246	610
	비중(%)	5.7	20.3	15.7	17.9	40.3	100
총 계	샘플수	57	182	160	190	438	1027
	비중(%)	5.6	17.7	15.6	18.5	42.7	100

* χ^2 test =8.0991, Pr=0.088 / Fisher's exact test Pr=0.085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7.4.3 일반 사회단체 참여 이유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일반 사회단체 참여 이유에 대해서 '사회봉사에 관심이 있어서' 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5유형(사회봉사에 관심이 있어서), 다음으로 4유형(주변의 권유로 인해), 3유형(경제적 도움을 얻기 위해) 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일반 사회단체 참여 이유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⁷⁾.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⁸⁾. 취약계층1은 사회봉사에 관심과 주변의 권유로 인해 일반 사회단체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은 그 외 그룹(3분위 이상 그룹) 비하여 5유형(사회봉사에 관심이 있어서)과 4유형(주변의 권유로 인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 표 88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일반 사회단체 참여 이유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3	17	24	33	103	180
	비중(%)	1.7	9.4	13.3	18.3	57.2	100
그 외	샘플수	37	133	122	129	426	847
	비중(%)	4.4	15.7	14.4	15.2	50.3	100
총 계	샘플수	40	150	146	162	529	1027
	비중(%)	3.9	14.6	14.2	15.8	51.5	100

1유형 =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2유형 = '취미, 재능개발 등 자아실현을 위해'
 3유형 = '경제적 도움을 얻기 위해'
 4유형 = '주변의 권유로 인해'
 5유형 = '사회봉사에 관심이 있어서'

* χ^2 test =9.1714, Pr=0.057 / Fisher's exact test Pr=0.052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89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일반 사회단체 참여 이유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13	49	58	66	231	417
	비중(%)	3.1	11.8	13.9	15.8	55.4	100
그 외	샘플수	27	101	88	96	298	610
	비중(%)	4.4	16.6	14.4	15.7	48.9	100
총 계	샘플수	40	150	146	162	529	1027
	비중(%)	3.9	14.6	14.2	15.8	51.5	100

* χ^2 test =7.1139, Pr=0.130 / Fisher's exact test Pr=0.131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57) 취약계층1은 유의수준 10%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9.1714)
 58) 취약계층2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2.7.4.4 귀농귀촌인 모임 참여 이유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귀농귀촌인 모임 참여 이유에 대해서 ‘사회봉사에 관심이 있어서’ 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5유형(사회봉사에 관심이 있어서), 다음으로 2유형(취미, 재능개발 등 자아실현을 위해), 4유형(주변의 권유로 인해) 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귀농귀촌인 모임 참여 이유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⁹⁾.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사회봉사에 관심이 있어서 귀농귀촌인 모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 5유형(사회봉사에 관심이 있어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2유형(취미, 재능개발 등 자아실현을 위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 표 90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귀촌인 모임 참여 이유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6	28	20	24	102	180
	비중(%)	3.3	15.6	11.1	13.3	56.7	100
그 외	샘플수	64	162	119	120	382	847
	비중(%)	7.6	19.1	14.1	14.2	45.1	100
총 계	샘플수	70	190	139	144	484	1027
	비중(%)	6.8	18.5	13.5	14.0	47.1	100

1유형 =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2유형 = '취미, 재능개발 등 자아실현을 위해'
 3유형 = '경제적 도움을 얻기 위해'
 4유형 = '주변의 권유로 인해'
 5유형 = '사회봉사에 관심이 있어서'

* χ^2 test =10.1417, Pr=0.038 / Fisher's exact test Pr=0.039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59) 취약계층1은 유의수준 5%, 취약계층2 유의수준 1%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값은 취약계층1은 10.1417, 취약계층2는 17.8447).



< 표 91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귀촌인 모임 참여 이유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20	58	58	59	222	417
	비중(%)	4.8	13.9	13.9	14.2	53.2	100
그 외	샘플수	50	132	81	85	262	610
	비중(%)	8.2	21.6	13.3	13.9	43.0	100
총 계	샘플수	70	190	139	144	484	1027
	비중(%)	6.8	18.5	13.5	14.0	47.1	100

* χ^2 test =17.8447, Pr=0.001 / Fisher's exact test Pr=0.001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7.5 지역 내 활동의 어려움 (Q25)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지역 내 활동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려움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지역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나 권유 부족’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7유형(어려움 없음), 다음으로 1유형(지역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나 권유 부족), 2유형(시간 부족(육아, 농사일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지역 내 활동의 어려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⁰⁾.
- 취약계층1이 그 외 그룹(3분위 이상 그룹)에 비하여 지역 내 활동의 어려움에 대하여 3유형(건강/체력 부족), 1유형(지역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나 권유 부족), 5유형(교통수단의 부족)의 상대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2이 그 외 그룹(4분위 이상 그룹)에 비하여 지역 내 활동의 어려움에 대하여 1유형(지역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나 권유 부족), 3유형(건강/체력 부족), 4유형(귀농귀촌인에 대한 텃세)의 상대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의수준 5%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값은 취약계층1은 15.1152, 취약계층2는 15.5411).

< 표 92 > 취약계층1와 그 외 그룹의 지역 내 활동의 어려움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전체
취약 계층 1	샘플수	42	30	22	9	10	8	58	179
	비중(%)	23.5	16.8	12.3	5.0	5.6	4.5	32.4	100
그 외	샘플수	180	173	47	70	31	32	301	834
	비중(%)	21.6	20.7	5.6	8.4	3.7	3.8	36.1	100
총 계	샘플수	222	203	69	79	41	40	359	1013
	비중(%)	21.9	20.0	6.8	7.8	4.1	4.0	35.4	100

1유형 = '지역활동 참여에 대한 정보나 권유 부족'

2유형 = '시간 부족(육아, 농사일 등)'

3유형 = '건강/체력 부족'

4유형 = '귀농귀촌인에 대한 텃세'

5유형 = '교통수단의 부족'

6유형 = '지역 내 관심단체 없음'

7유형 = '어려움 없음'

* χ^2 test =15.1152, Pr=0.019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93 >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의 지역 내 활동의 어려움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전체
취약 계층 2	샘플수	101	63	37	37	19	14	147	414
	비중(%)	24.4	15.2	8.9	8.9	4.6	3.4	35.5	100
그 외	샘플수	121	140	32	46	22	26	212	599
	비중(%)	20.2	23.4	5.3	5.3	3.7	4.3	35.4	100
총 계	샘플수	222	203	69	69	41	40	359	1013
	비중(%)	21.9	20.0	6.8	7.8	4.1	4.0	35.4	100

* χ^2 test =15.5411 Pr=0.015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7.6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Q26)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없음’ 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기능/기술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⁶¹⁾.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



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²⁾. 취약계층2는 그 외 그룹(4분위 이상 그룹) 비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 표 94 > 취약계층1와 그 외 그룹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전체
취약 계층 1	샘플수	16	25	8	6	10	12	100	177
	비중(%)	9.0	14.1	4.5	3.4	5.7	6.8	56.5	100
그 외	샘플수	46	119	45	43	48	90	449	840
	비중(%)	5.5	14.2	5.4	5.1	5.7	10.7	53.5	100
총 계	샘플수	62	144	53	49	58	102	549	1017
	비중(%)	6.1	14.2	5.2	4.8	5.7	10.0	54.0	100

1유형 = '의료/보건/복지 분야' 5유형 =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화'
 2유형 = '기능/기술 분야' 6유형 = '상담/교육 분야'
 3유형 = '문화/예술/체육 분야' 7유형 = '없음'
 4유형 = '상품 기획/마케팅'

* χ^2 test =6.6579, Pr=0.354 / Fisher's exact test Pr=0.381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95 >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전체
취약 계층 2	샘플수	26	50	19	14	22	28	252	411
	비중(%)	6.3	12.2	4.6	3.4	5.4	6.8	61.3	100
그 외	샘플수	36	94	34	35	36	74	297	606
	비중(%)	5.9	15.5	5.6	5.8	5.9	12.2	49.0	100
총 계	샘플수	62	144	53	49	58	102	549	1017
	비중(%)	6.1	14.2	5.2	4.8	5.7	10.0	54.0	100

* χ^2 test =19.4409 Pr=0.003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7.7 거주지에 확충되어야 하는 공공시설 (Q27)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거주지에 확충되어야 하는 공공시설 대해서 ‘보건 의료 시설’ 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 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61) 취약계층1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62) 취약계층2은 유의수준 1%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19.4409)

< 표 99 >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의 거주지에 확충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8유형	전체
취약 계층 2	샘플수	24	77	49	84	93	51	18	10	402
	비중(%)	5.9	19.0	12.1	20.7	22.9	12.6	4.4	2.5	100
그 외	샘플수	29	81	42	106	177	96	46	20	580
	비중(%)	4.9	13.6	7.0	17.8	29.7	16.1	7.7	3.4	100
총 계	샘플수	53	158	91	190	270	147	64	30	982
	비중(%)	5.3	15.8	9.1	18.9	26.9	14.7	6.4	3.0	100

* χ^2 test =23.6362 Pr=0.001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8 귀농 준비

2.8.1 귀농 준비 기간(Q29)

- 취약계층1은 70%, 취약계층2은 48.4%가 3년 미만의 귀농 준비 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⁵⁾.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귀농 준비 기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⁶⁾.
- 취약계층2는 귀농 준비 기간이 그 외 그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00 > 취약계층1와 그 외 그룹의 귀농 준비 기간 비교

귀농 준비 기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전체
취약 계층 1	샘플수	35	55	36	22	20	0	12	180
	비중(%)	19.44	30.56	20	12.22	11.11	0	6.67	100
그 외	샘플수	146	216	158	145	91	6	85	847
	비중(%)	17.24	25.5	18.65	17.12	10.74	0.71	10.04	100
총 계	샘플수	181	271	194	167	111	6	97	1027
	비중(%)	17.62	26.39	18.89	16.26	10.81	0.58	9.44	100

1유형 = '1년 미만'

2유형 = '1년 이상 ~ 2년 미만'

3유형 = '2년 이상 ~ 3년 미만'

4유형 = '3년 이상 ~ 4년 미만'

5유형 = '4년 이상 ~ 5년 미만'

6유형 = '5년 이상 ~ 6년 미만'

7유형 = '7년 이상'

* χ^2 test = 7.2562, Pr=0.298 / Fisher's exact test Pr=0.337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65) 취약계층1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66) 취약계층2은 유의수준 5%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14.5347)

< 표 101 >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의 귀농 준비 기간 비교

귀농 준비 기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전체
취약 계층 2	샘플수	71	131	79	66	41	1	28	417
	비중(%)	17.03	31.41	18.94	15.83	9.83	0.24	6.71	100
그 외	샘플수	110	140	115	101	70	5	69	610
	비중(%)	18.03	22.95	18.85	16.56	11.48	0.82	11.31	100
총 계	샘플수	181	271	194	167	111	6	97	1027
	비중(%)	17.62	26.39	18.89	16.26	10.81	0.58	9.44	100

* χ^2 test =14.5347 Pr=0.024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8.2 귀농 정착자금 마련(Q30-2)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귀농 정착자금 마련에 대해서 1순위 2유형, 2순위 3유형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귀농 정착자금 마련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⁷⁾.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하여 4유형(상속 또는 가족의 도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02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정착자금 마련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12	72	57	19	15	1	176
	비중(%)	6.82	40.91	32.39	10.8	8.52	0.57	100
그 외	샘플수	121	327	299	33	50	14	844
	비중(%)	14.34	38.74	35.43	3.91	5.92	1.66	100
총 계	샘플수	133	399	356	52	65	15	1020
	비중(%)	13.04	39.12	34.9	5.1	6.37	1.47	100

1유형 = '퇴직금'

4유형 = '상속 또는 가족의 도움'

2유형 = '본인 및 배우자의 저축액'

5유형 = '금융권 대출'

3유형 = '자산 처분'

6유형 = '정부정책 지원금'

* χ^2 test =23.1375, Pr=0.000 / Fisher's exact test Pr=0.001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67) 취약계층1은 1% 유의수준에서 취약계층2는 유의수준 5%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값은 취약계층1은 23.1375, 취약계층2는 12.6764).



< 표 103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정착자금 마련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44	162	142	32	27	6	413
	비중(%)	10.65	39.23	34.38	7.75	6.54	1.45	100
그 외	샘플수	89	237	214	20	38	9	607
	비중(%)	14.66	39.04	35.26	3.29	6.26	1.48	100
총 계	샘플수	133	399	356	52	65	15	1020
	비중(%)	13.04	39.12	34.9	5.1	6.37	1.47	100

* χ^2 test =12.6764, Pr=0.027 / Fisher's exact test Pr=0.028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8.3 귀농 정착자금 사용처(Q30-3)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귀농 정착자금 사용처에 대하여 1순위 1유형, 2순위 2유형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⁸⁾. 모든 그룹에서 귀농 정착자금 사용처에 대하여 1유형, 다음으로 2유형, 3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 표 104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정착자금 사용처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73	59	24	6	13	175
	비중(%)	41.71	33.71	13.71	3.43	7.43	100
그 외	샘플수	356	291	98	25	58	828
	비중(%)	43	35.14	11.84	3.02	7	100
총 계	샘플수	429	350	122	31	71	1003
	비중(%)	42.77	34.9	12.16	3.09	7.08	100

1유형 = '농지 구입 및 임대' 4유형 = '농작물 재배 및 가축사육'
 2유형 = '주택마련' 5유형 = '생활비'
 3유형 = '영농시설 자재구입'

* χ^2 test =0.6742, Pr=0.954 / Fisher's exact test Pr=0.932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68)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 표 105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정착자금 사용처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170	136	49	14	38	407
	비중(%)	41.77	33.42	12.04	3.44	9.34	100
그 외	샘플수	259	214	73	17	33	596
	비중(%)	43.46	35.91	12.25	2.85	5.54	100
총 계	샘플수	429	350	122	31	71	1003
	비중(%)	42.77	34.9	12.16	3.09	7.08	100

* χ^2 test =5.8023, Pr=0.214 / Fisher's exact test Pr=0.217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8.4 귀농 관련 정보 취득 경로(Q32)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귀농 관련 정보 취득 경로에 대하여 1유형, 다음으로 2유형, 3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귀농 관련 정보 취득 경로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⁹⁾.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1유형(가족 또는 지인)의 비중이 그 외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다.

< 표 106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 관련 정보 취득 경로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122	23	18	3	4	4	174
	비중(%)	70.11	13.22	10.34	1.72	2.3	2.3	100
그 외	샘플수	450	157	138	8	18	49	820
	비중(%)	54.88	19.15	16.83	0.98	2.2	5.98	100
총 계	샘플수	572	180	156	11	22	53	994
	비중(%)	57.55	18.11	15.69	1.11	2.21	5.33	100

- 1유형 = '가족 또는 지인'
- 2유형 =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
- 3유형 = '귀농귀촌교육'
- 4유형 = '귀농귀촌 관련 서적'

69)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값은 취약계층1은 16.7954, 취약계층2는 16.1510).



5유형 = '귀농귀촌 박람회'

6유형 = '귀농귀촌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온/오프라인)'

* χ^2 test =16.7954, Pr=0.005 / Fisher's exact test Pr=0.003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107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 관련 취득 경로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256	55	57	4	12	17	401
	비중(%)	63.84	13.72	14.21	1	2.99	4.24	100
그 외	샘플수	316	125	99	7	10	36	593
	비중(%)	53.29	21.08	16.69	1.18	1.69	6.07	100
총 계	샘플수	572	180	156	11	22	53	994
	비중(%)	57.55	18.11	15.69	1.11	2.21	5.33	100

* χ^2 test =16.1510, Pr=0.006 / Fisher's exact test Pr=0.006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8.5 귀농귀촌 교육 기관(Q32-1)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1유형(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이 70%이상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⁷⁰⁾. 모든 그룹에서 유형(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이 70%이상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08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귀촌 교육 기관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30	4	4	1	3	42
	비중(%)	71.43	9.52	9.52	2.38	7.14	100
그 외	샘플수	211	14	25	3	30	283
	비중(%)	74.56	4.95	8.83	1.06	10.6	100
총 계	샘플수	241	18	29	4	33	325
	비중(%)	74.15	5.54	8.92	1.23	10.15	100

1유형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2유형 = '지방자치단체'

3유형 = '귀농귀촌종합센터'

70)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4유형 = '대학 등 학계'

5유형 = '귀농귀촌 관련 민간 기관'

* χ^2 test =2.4001, Pr=0.663 / Fisher's exact test Pr=0.496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109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귀촌 교육 기관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95	6	12	1	7	121
	비중(%)	78.51	4.96	9.92	0.83	5.79	100
그 외	샘플수	146	12	17	3	26	204
	비중(%)	71.57	5.88	8.33	1.47	12.75	100
총 계	샘플수	241	18	29	4	33	325
	비중(%)	74.15	5.54	8.92	1.23	10.15	100

* χ^2 test =4.7039, Pr=0.319 / Fisher's exact test Pr=0.305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8.6 귀농준비 과정에 대한 만족도(Q33)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귀농준비 과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⁷¹⁾.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귀농준비 과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²⁾.
- 취약계층2는 그 외 그룹에 비하여 귀농준비 과정에 대한 만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1) 취약계층1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72) 취약계층2은 유의수준 10%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8.9467)



< 표 110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준비 과정에 대한 만족도 비교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2	13	98	61	6	180
	비중(%)	1.11	7.22	54.44	33.89	3.33	100
그 외	샘플수	9	55	376	369	38	847
	비중(%)	1.06	6.49	44.39	43.57	4.49	100
총 계	샘플수	11	68	474	430	44	1027
	비중(%)	1.07	6.62	46.15	41.87	4.28	100

* χ^2 test =7.1533, Pr=0.128 / Fisher's exact test Pr=0.113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111 > 취약계층2과 그 외 귀농준비 과정에 대한 만족도도 비교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6	21	212	160	18	417
	비중(%)	1.44	5.04	50.84	38.37	4.32	100
그 외	샘플수	5	47	262	270	26	610
	비중(%)	0.82	7.7	42.95	44.26	4.26	100
총 계	샘플수	11	68	474	430	44	1027
	비중(%)	1.07	6.62	46.15	41.87	4.28	100

* χ^2 test =8.9467, Pr=0.062 / Fisher's exact test Pr=0.060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9 귀농생활 만족도

2.9.1 귀농생활의 전반적 만족도(Q34)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귀농생활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⁷³⁾. 모든 그룹에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12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생활 만족도 비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2	17	71	78	12	180
	비중(%)	1.11	9.44	39.44	43.33	6.67	100
그 외	샘플수	4	61	297	426	59	847
	비중(%)	0.47	7.2	35.06	50.3	6.97	100
총 계	샘플수	6	78	368	504	71	1027
	비중(%)	0.58	7.59	35.83	49.07	6.91	100

* χ^2 test =4.300, Pr=0.367 / Fisher's exact test Pr=0.289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113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생활 만족도 비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5	32	160	193	27	417
	비중(%)	1.2	7.67	38.37	46.28	6.47	100
그 외	샘플수	1	46	208	311	44	610
	비중(%)	0.16	7.54	34.1	50.98	7.21	100
총 계	샘플수	6	78	368	504	71	1027
	비중(%)	0.58	7.59	35.83	49.07	6.91	100

* χ^2 test =7.1195, Pr=0.130 / Fisher's exact test Pr=0.139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73)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2.9.2 귀농생활의 항목별 만족도(Q35)

2.9.2.1 가구소득에 대한 만족도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가구소득에 대한 만족도에서 대체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⁷⁴⁾. 모든 귀농인은 가구소득에 대한 만족도에서 대체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14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생활 만족도 비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14	72	77	16	1	180
	비중(%)	7.78	40	42.78	8.89	0.56	100
그 외	샘플수	79	324	324	108	12	847
	비중(%)	9.33	38.25	38.25	12.75	1.42	100
총 계	샘플수	93	396	401	124	13	1027
	비중(%)	9.06	38.56	39.05	12.07	1.27	100

* χ^2 test =3.9932, Pr=0.407 / Fisher's exact test Pr=0.471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115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생활 만족도 비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35	174	163	41	4	417
	비중(%)	8.39	41.73	39.09	9.83	0.96	100
그 외	샘플수	58	222	238	83	9	610
	비중(%)	9.51	36.39	39.02	13.61	1.48	100
총 계	샘플수	93	396	401	124	13	1027
	비중(%)	9.06	38.56	39.05	12.07	1.27	100

* χ^2 test =5.6111, Pr=0.230 / Fisher's exact test Pr=0.234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74)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2.9.2.2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⁵⁾.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에 비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16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 비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2	4	25	100	49	180
	비중(%)	1.11	2.22	13.89	55.56	27.22	100
그 외	샘플수	2	7	93	529	216	847
	비중(%)	0.24	0.83	10.98	62.46	25.5	100
총 계	샘플수	4	11	118	629	265	1027
	비중(%)	0.39	1.07	11.49	61.25	25.8	100

* χ^2 test =8.0359, Pr=0.090 / Fisher's exact test Pr=0.071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117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 비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3	7	56	257	94	417
	비중(%)	0.72	1.68	13.43	61.63	22.54	100
그 외	샘플수	1	4	62	372	171	610
	비중(%)	0.16	0.66	10.16	60.98	28.03	100
총 계	샘플수	4	11	118	629	265	1027
	비중(%)	0.39	1.07	11.49	61.25	25.8	100

* χ^2 test =9.5913, Pr=0.048 / Fisher's exact test Pr=0.042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75)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의수준 10%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값은 취약계층1은 8.0359, 취약계층2는 9.5913).



2.9.2.3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⁷⁶⁾.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⁷⁾.
- 취약계층2는 그 외 그룹과 비교시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18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 비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3	16	63	81	17	180
	비중(%)	1.67	8.89	35	45	9.44	100
그 외	샘플수	11	65	251	414	106	847
	비중(%)	1.3	7.67	29.63	48.88	12.51	100
총 계	샘플수	14	81	314	495	123	1027
	비중(%)	1.36	7.89	30.57	48.2	11.98	100

* χ^2 test =3.4550, Pr=0.485 / Fisher's exact test Pr=0.453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119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 비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8	30	155	191	33	417
	비중(%)	1.92	7.19	37.17	45.8	7.91	100
그 외	샘플수	6	51	159	304	90	610
	비중(%)	0.98	8.36	26.07	49.84	14.75	100
총 계	샘플수	14	81	314	495	123	1027
	비중(%)	1.36	7.89	30.57	48.2	11.98	100

* χ^2 test =22.5172, Pr=0.000 / Fisher's exact test Pr=0.000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76) 취약계층1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77) 취약계층2은 유의수준 1%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22.5172)

2.9.2.4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⁷⁸⁾. 모든 귀농인은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20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 비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3	5	64	90	18	180
	비중(%)	1.67	2.78	35.56	50	10	100
그 외	샘플수	15	26	250	476	80	847
	비중(%)	1.77	3.07	29.52	56.2	9.45	100
총 계	샘플수	18	31	314	566	98	1027
	비중(%)	1.75	3.02	30.57	55.11	9.54	100

* χ^2 test =2.9050, Pr=0.574 / Fisher's exact test Pr=0.566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121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 비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8	12	136	217	44	417
	비중(%)	1.92	2.88	32.61	52.04	10.55	100
그 외	샘플수	10	19	178	349	54	610
	비중(%)	1.64	3.11	29.18	57.21	8.85	100
총 계	샘플수	18	31	314	566	98	1027
	비중(%)	1.75	3.02	30.57	55.11	9.54	100

* χ^2 test =3.0641, Pr=0.547 / Fisher's exact test Pr=0.537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78)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2.9.2.5 건강증진에 대한 만족도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건강증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⁷⁹⁾. 모든 귀농인은 건강증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22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건강증진에 대한 만족도 비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2	9	61	94	14	180
	비중(%)	1.11	5	33.89	52.22	7.78	100
그 외	샘플수	5	32	267	475	68	847
	비중(%)	0.59	3.78	31.52	56.08	8.03	100
총 계	샘플수	7	41	328	569	82	1027
	비중(%)	0.68	3.99	31.94	55.4	7.98	100

* χ^2 test =18166, Pr=0.769 / Fisher's exact test Pr=0.662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123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건강증진에 대한 만족도 비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4	15	141	225	32	417
	비중(%)	0.96	3.6	33.81	53.96	7.67	100
그 외	샘플수	3	26	187	344	50	610
	비중(%)	0.49	4.26	30.66	56.39	8.2	100
총 계	샘플수	7	41	328	569	82	1027
	비중(%)	0.68	3.99	31.94	55.4	7.98	100

* χ^2 test =2.1917, Pr=0.701 / Fisher's exact test Pr=0.701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79)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2.9.2.6 지역인프라에 대한 만족도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 모두 지역인프라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⁸⁰⁾.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지역인프라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¹⁾.
- 취약계층2는 그 외 그룹에 비하여 지역인프라에 대한 불만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24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지역인프라에 대한 만족도 비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10	62	72	30	6	180
	비중(%)	5.56	34.44	40	16.67	3.33	100
그 외	샘플수	60	322	335	121	9	847
	비중(%)	7.08	38.02	39.55	14.29	1.06	100
총 계	샘플수	70	384	407	151	15	1027
	비중(%)	6.82	37.39	39.63	14.7	1.46	100

* χ^2 test =6.8361, Pr=0.145 / Fisher's exact test Pr=0.174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125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지역인프라에 대한 만족도 비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23	148	165	71	10	417
	비중(%)	5.52	35.49	39.57	17.03	2.4	100
그 외	샘플수	47	236	242	80	5	610
	비중(%)	7.7	38.69	39.67	13.11	0.82	100
총 계	샘플수	70	384	407	151	15	1027
	비중(%)	6.82	37.39	39.63	14.7	1.46	100

* χ^2 test =9.2219, Pr=0.056 / Fisher's exact test Pr=0.059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80) 취약계층1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81) 취약계층2은 유의수준 10%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9.2219)



2.9.3 거주지에 대한 계획 (Q36)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거주지에 대한 계획에서 94.3%가 계속 거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⁸²⁾. 모든 귀농자는 모두 거주지에 대한 계획에서 94.3%가 계속 거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26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거주지에 대한 계획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174	4	0	2	180
	비중(%)	96.67	2.22	0	1.11	100
그 외	샘플수	794	22	7	24	847
	비중(%)	93.74	2.6	0.83	2.83	100
총 계	샘플수	968	26	7	26	1027
	비중(%)	94.26	2.53	0.68	2.53	100

1유형 = '계속 거주할 계획임'

2유형 =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계속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음'

3유형 =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되 농사는 짓지 않을 계획임'

4유형 = '도시로 이주할 계획이 있음'

* χ^2 test =3.4444, Pr=0.328 / Fisher's exact test Pr=0.468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127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거주지에 대한 계획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391	14	2	10	417
	비중(%)	93.76	3.36	0.48	2.4	100
그 외	샘플수	577	12	5	16	610
	비중(%)	94.59	1.97	0.82	2.62	100
총 계	샘플수	968	26	7	26	1027
	비중(%)	94.26	2.53	0.68	2.53	100

* χ^2 test =2.3781, Pr=0.498 / Fisher's exact test Pr=0.516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82)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2.10 교육·훈련

2.10.1 귀농귀촌교육 이수 여부 (Q37)

- 모든 교육 부문해서 취약계층이었던 귀농인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비중이 그 외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다.

2.10.1.1 온라인 교육 이수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온라인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온라인 교육 이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³⁾.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에 비하여 온라인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28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온라인 교육 이수 비교

		이수	이수 안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24	156	180
	비중(%)	13.3	86.7	100
그 외	샘플수	275	572	847
	비중(%)	32.5	67.5	100
총 계	샘플수	299	728	1027
	비중(%)	29.1	70.9	100

χ^2 test =26.3357, Pr=0.000

Fisher's exact test Pr=0.000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이수	이수 안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89	328	417
	비중(%)	21.3	78.7	100
그 외	샘플수	210	400	610
	비중(%)	34.4	65.6	100
총 계	샘플수	299	728	1027
	비중(%)	29.1	70.9	100

χ^2 test =20.5432, Pr=0.000

Fisher's exact test Pr=0.000

83)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값은 취약계층1은 26.3357, 취약계층2는 20.5432).



2.10.1.2 오프라인 교육 이수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오프라인 교육 이수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오프라인 교육 이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⁴⁾.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에 비하여 오프라인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29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오프라인 교육 이수 비교

		이수	이수 안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84	96	180
	비중(%)	46.67	53.33	100
그 외	샘플수	564	283	847
	비중(%)	66.59	33.41	100
총 계	샘플수	648	379	1027
	비중(%)	63.1	36.9	100

χ^2 test =25.3015, Pr=0.000

Fisher's exact test Pr=0.000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이수	이수 안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236	181	417
	비중(%)	56.59	43.41	100
그 외	샘플수	412	198	610
	비중(%)	67.54	32.46	100
총 계	샘플수	648	379	1027
	비중(%)	63.1	36.9	100

χ^2 test =12.7454, Pr=0.000

Fisher's exact test Pr=0.000

2.10.1.3 인턴쉽(선도농가) 교육 이수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인턴쉽(선도농가)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인턴쉽(선도농가) 교육 이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⁵⁾.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에 비하여 인턴쉽(선도농가)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4)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값은 취약계층1은 25.3015, 취약계층2는 12.7454).

85)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값은 취약계층1은 9.9629, 취약계층2는 9.4622).

< 표 130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인턴쉽(선도농가 실습) 교육 이수 비교

		이수	이수 안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21	159	180
	비중(%)	11.67	88.33	100
그 외	샘플수	187	660	847
	비중(%)	22.08	77.92	100
총 계	샘플수	208	819	1027
	비중(%)	20.25	79.75	100

		이수	이수 안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65	352	417
	비중(%)	15.59	84.41	100
그 외	샘플수	143	467	610
	비중(%)	23.44	76.56	100
총 계	샘플수	208	819	1027
	비중(%)	20.25	79.75	100

χ^2 test =9.9629, Pr=0.002

Fisher's exact test Pr=0.001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χ^2 test =9.4622, Pr=0.002

Fisher's exact test Pr=0.002

2.10.2 오프라인 교육 이수 기관 (Q37-1)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90%이상 1유형(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⁸⁶⁾.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오프라인 교육 이수 기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⁷⁾.
- 취약계층2는 그 외 그룹에 비하여 1유형(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31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오프라인 교육 이수 기관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77	3	2	0	1	83
	비중(%)	92.77	3.61	2.41	0	1.2	100
그 외	샘플수	477	28	11	5	32	553
	비중(%)	86.26	5.06	1.99	0.9	5.79	100
총 계	샘플수	554	31	13	5	33	636
	비중(%)	87.11	4.87	2.04	0.79	5.19	100

1유형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2유형 = '지방자치단체'

3유형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4유형 = '농업계 대학'

5유형 = '민간 교육기관'

* χ^2 test =4.3951, Pr=0.355 / Fisher's exact test Pr=0.383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86) 취약계층1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87) 취약계층2은 유의수준 10%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8.8206)



< 표 132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오프라인 교육 이수 기관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210	6	7	1	8	232
	비중(%)	90.52	2.59	3.02	0.43	3.45	100
그 외	샘플수	344	25	6	4	25	404
	비중(%)	86.15	6.19	1.49	0.99	6.19	100
총 계	샘플수	554	31	13	5	33	636
	비중(%)	87.11	4.87	2.04	0.79	5.19	100

* χ^2 test =8.8206, Pr=0.066 / Fisher's exact test Pr=0.061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10.3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Q38)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1유형(교육에 대해 알지 못해서), 다음으로 2유형(시간이 없어서)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⁸⁸⁾. 모든 귀농인은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1유형(교육에 대해 알지 못해서), 다음으로 2유형(시간이 없어서)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33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38	20	10	11	3	82
	비중(%)	46.34	24.39	12.2	13.41	3.66	100
그 외	샘플수	120	57	29	33	0	239
	비중(%)	50.21	23.85	12.13	13.81	0	100
총 계	샘플수	158	77	39	44	3	321
	비중(%)	49.22	23.99	12.15	13.71	0.93	100

1유형 = '교육에 대해 알지 못해서'

2유형 = '시간이 없어서'

3유형 = '적합한 과정(작목, 과목)이 없어서'

4유형 = '내용이 도움되지 않아서'

5유형 = '교육비용 때문에'

* χ^2 test =8.9440, Pr=0.063 / Fisher's exact test Pr=0.114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88)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 표 134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75	35	23	19	3	155
	비중(%)	48.39	22.58	14.84	12.26	1.94	100
그 외	샘플수	83	42	16	25	0	166
	비중(%)	50	25.3	9.64	15.06	0	100
총 계	샘플수	158	77	39	44	3	321
	비중(%)	49.22	23.99	12.15	13.71	0.93	100

* χ^2 test =5.7458, Pr=0.219 / Fisher's exact test Pr=0.242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10.4 이수한 교육이 실제 농촌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Q39)

- 모든 교육은 귀농인에게 실제 농촌생활에 대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가 높은 교육은 인터넷(선도농가)교육, 다음으로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2.10.4.1 온라인 교육이 실제 농촌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온라인 교육이 실제 농촌생활에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⁸⁹⁾. 모든 귀농인은 온라인 교육이 실제 농촌생활에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89)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 표 135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온라인 교육의 실제 농촌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비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0	4	2	16	2	24
	비중(%)	0	16.67	8.33	66.67	8.33	100
그 외	샘플수	5	19	57	174	20	275
	비중(%)	1.82	6.91	20.73	63.27	7.27	100
총 계	샘플수	5	23	59	190	22	299
	비중(%)	1.67	7.69	19.73	63.55	7.36	100

* χ^2 test =4.9606, Pr=0.291 / Fisher's exact test Pr=0.287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136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온라인 교육의 실제 농촌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비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2	7	18	56	6	89
	비중(%)	2.25	7.87	20.22	62.92	6.74	100
그 외	샘플수	3	16	41	134	16	210
	비중(%)	1.43	7.62	19.52	63.81	7.62	100
총 계	샘플수	5	23	59	190	22	299
	비중(%)	1.67	7.69	19.73	63.55	7.36	100

* χ^2 test =3442, Pr=0.987 / Fisher's exact test Pr=0.976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10.4.2 오프라인 교육이 실제 농촌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오프라인 교육이 실제 농촌생활에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⁹⁰⁾. 모든 귀농인은 오프라인 교육이 실제 농촌생활에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90)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 표 137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오프라인 교육의 실제 농촌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비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0	2	14	57	11	84
	비중(%)	0	2.38	16.67	67.86	13.1	100
그 외	샘플수	3	21	93	369	78	564
	비중(%)	0.53	3.72	16.49	65.43	13.83	100
총 계	샘플수	3	23	107	426	89	648
	비중(%)	0.46	3.55	16.51	65.74	13.73	100

* χ^2 test =0.9139, Pr=0.923 / Fisher's exact test Pr=0.984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138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오프라인 교육의 실제 농촌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비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0	6	33	170	27	236
	비중(%)	0	2.54	13.98	72.03	11.44	100
그 외	샘플수	3	17	74	256	62	412
	비중(%)	0.73	4.13	17.96	62.14	15.05	100
총 계	샘플수	3	23	107	426	89	648
	비중(%)	0.46	3.55	16.51	65.74	13.73	100

* χ^2 test =7.8752, Pr=0.096 / Fisher's exact test Pr=0.110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10.4.3 인턴쉽(선도농가) 교육이 실제 농촌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인턴쉽(선도농가) 교육이 실제 농촌생활에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⁹¹⁾. 모든 귀농인은 인턴쉽(선도농가) 교육이 실제 농촌생활에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91)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 표 139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인턴쉽 교육의 실제 농촌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비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0	1	3	11	6	21
	비중(%)	0.0	4.8	14.3	52.4	28.6	100
그 외	샘플수	1	8	19	128	31	187
	비중(%)	0.5	4.3	10.2	68.5	16.6	100
총 계	샘플수	1	9	22	139	37	208
	비중(%)	0.5	4.3	10.6	66.8	17.8	100

* χ^2 test =2.6825, Pr=0.612 / Fisher's exact test Pr=0.398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140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인턴쉽 교육의 실제 농촌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비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0	3	7	42	13	65
	비중(%)	0.0	4.6	10.8	64.6	20.0	100
그 외	샘플수	1	6	15	97	24	143
	비중(%)	0.7	4.2	10.5	67.8	16.8	100
총 계	샘플수	1	9	22	139	37	208
	비중(%)	0.5	4.3	10.6	66.8	17.8	100

* χ^2 test =0.8052 Pr=0.938 / Fisher's exact test Pr=0.953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10.5 귀농귀촌교육에 대한 개선요구 (Q40)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귀농귀촌교육에 대한 개선 요구로서 1유형(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5유형(현장실습 연계 강화), 2유형(수준별 강좌 개설)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귀농귀촌교육에 대한 개선요구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²⁾.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1유형(다양한 콘텐츠 개발), 4유형(교육비용 지원),

92)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값은 취약계층1은 26.3545 취약계층2는 16.8621).



2.11 정책

2.11.1 귀농귀촌정책의 수혜 여부 (Q41)

2.11.1.1 중앙 정부 정책

- 취약계층1은 그 외 그룹에 비하여 모든 중앙 정부 정책에 대하여 수혜하지 않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2는 취약계층1과 경향이 같지 않다.

2.11.1.1.1 ‘사전 귀농귀촌 정보 제공’ 정책 수혜 여부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사전 귀농귀촌 정보 제공’ 정책에 대하여 수혜하지 않은 비중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와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사전 귀농귀촌 정보 제공’ 정책 수혜 여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³.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⁹⁴.
- 취약계층1은 그 외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전 귀농귀촌 정보 제공’ 정책에 대하여 수혜하지 않은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43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사전 귀농귀촌 정보 제공’ 정책 수혜 여부 비교

		수혜	수혜 안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31	149	180
	비중(%)	17.2	82.8	100
그 외	샘플수	232	615	847
	비중(%)	27.4	72.6	100
총 계	샘플수	263	764	1027
	비중(%)	25.6	74.4	100

χ^2 test =8.0574, Pr=0.005

Fisher's exact test Pr=0.005

1-sided Fisher's exact Pr=0.002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수혜	수혜 안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112	305	417
	비중(%)	26.9	73.1	100
그 외	샘플수	151	459	610
	비중(%)	24.8	75.3	100
총 계	샘플수	263	764	1027
	비중(%)	25.6	74.4	100

χ^2 test =0.5758, Pr=0.448

Fisher's exact test Pr=0.467

1-sided Fisher's exact Pr=0.246

93) 취약계층1은 유의수준 1%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8.0574)

94) 취약계층2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2.11.1.1.2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지원’ 정책 수혜 여부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지원’ 정책에 대하여 수혜하지 않은 비중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지원’ 정책 수혜 여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⁵.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⁹⁶.
- 취약계층1은 그 외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지원’ 정책에 대하여 수혜하지 않은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44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지원’ 정책 수혜 여부 비교

		수혜	수혜 안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18	162	180
	비중(%)	10.0	90.0	100
그 외	샘플수	154	693	847
	비중(%)	18.2	81.8	100
총 계	샘플수	172	855	1027
	비중(%)	16.8	83.3	100

χ^2 test =7.1274, Pr=0.008
 Fisher's exact test Pr=0.008
 1-sided Fisher's exact Pr=0.004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수혜	수혜 안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70	347	417
	비중(%)	16.8	83.2	100
그 외	샘플수	102	508	610
	비중(%)	16.7	83.3	100
총 계	샘플수	172	855	1027
	비중(%)	16.8	83.3	100

χ^2 test =0.0008, Pr=0.978
 Fisher's exact test Pr=1.000
 1-sided Fisher's exact Pr=0.522

2.11.1.1.3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 정책 수혜 여부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 정책에 대하여 수혜하지 않은 비중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 정책 수혜 여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⁷.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

95) 취약계층1은 유의수준 1%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7.1274)

96) 취약계층2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97) 취약계층1은 유의수준 1%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21.9890)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⁹⁸⁾.

- 취약계층1은 ‘채류형 귀농귀촌 지원’ 정책에 대하여 수혜하지 않은 비중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45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채류형 귀농귀촌 지원’ 정책 수혜 여부 비교

		수혜	수혜 안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0	180	180
	비중(%)	0.0	100.0	100
그 외	샘플수	94	753	847
	비중(%)	11.1	88.9	100
총 계	샘플수	94	933	1027
	비중(%)	9.2	90.9	100

		수혜	수혜 안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32	385	417
	비중(%)	7.7	92.3	100
그 외	샘플수	62	548	610
	비중(%)	10.2	89.8	100
총 계	샘플수	94	933	1027
	비중(%)	9.2	90.9	100

χ^2 test =21.9890, Pr=0.000

Fisher's exact test Pr=0.000

1-sided Fisher's exact Pr=0.000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χ^2 test =1.8469, Pr=0.174

Fisher's exact test Pr=0.187

1-sided Fisher's exact Pr=0.105

2.11.1.1.4 ‘상담/컨설팅 제공’ 정책 수혜 여부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상담/컨설팅 제공’ 정책에 대하여 수혜하지 않은 비중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상담/컨설팅 제공’ 정책 수혜 여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⁹⁾.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⁰⁾.
- 취약계층1은 그 외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담/컨설팅 제공’ 정책에 대하여 수혜하지 않은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8) 취약계층2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99) 취약계층1은 유의수준 1%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6.9870)

100) 취약계층2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 표 146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상담/컨설팅 제공' 정책 수혜 여부 비교

		수혜	수혜 안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10	170	180
	비중(%)	5.6	94.4	100
그 외	샘플수	105	742	847
	비중(%)	12.4	87.6	100
총 계	샘플수	115	912	1027
	비중(%)	11.2	88.8	100

χ^2 test =6.9870, Pr=0.008
 Fisher's exact test Pr=0.006
 1-sided Fisher's exact Pr=0.004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수혜	수혜 안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46	371	417
	비중(%)	11.0	89.0	100
그 외	샘플수	69	541	610
	비중(%)	11.3	88.7	100
총 계	샘플수	115	912	1027
	비중(%)	11.2	88.8	100

χ^2 test =0.0196, Pr=0.889
 Fisher's exact test Pr=0.920
 1-sided Fisher's exact Pr=0.486

2.11.1.1.5 '세제 지원' 정책 수혜 여부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세제 지원' 정책에 대하여 수혜하지 않은 비중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세제 지원' 정책 수혜 여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¹⁾.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²⁾.
- 취약계층1은 그 외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세제 지원' 정책에 대하여 수혜하지 않은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47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세제 지원' 정책 수혜 여부 비교

		수혜	수혜 안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9	171	180
	비중(%)	5.0	95.0	100
그 외	샘플수	80	767	847
	비중(%)	9.5	90.6	100
총 계	샘플수	89	938	1027
	비중(%)	8.7	91.3	100

χ^2 test =3.7059, Pr=0.054
 Fisher's exact test Pr=0.058
 1-sided Fisher's exact Pr=0.032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수혜	수혜 안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36	381	417
	비중(%)	8.6	91.4	100
그 외	샘플수	53	557	610
	비중(%)	8.7	91.3	100
총 계	샘플수	89	938	1027
	비중(%)	8.7	91.3	100

χ^2 test =0.0010, Pr=0.975
 Fisher's exact test Pr=1.000
 1-sided Fisher's exact Pr=0.535

101) 취약계층1은 유의수준 10%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3.7059)

102) 취약계층2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2.11.1.2 지자체 정책

- 취약계층1은 ‘정보 제공’, ‘정착자금 지원’,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비용 지원’, ‘생활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하여 수혜하지 않은 비중이 그 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2는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비용 지원’ 정책에 대하여 수혜하지 않은 비중이 그 외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모든 귀농인은 지자체 정책에 대하여 수혜하지 않은 비중이 매우 높다.

2.11.1.2.1 ‘정보 제공’ 정책 수혜 여부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정보 제공’ 정책에 대하여 수혜하지 않은 비중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정보 제공’ 정책 수혜 여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³⁾.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⁴⁾.
- 취약계층1은 그 외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 제공’ 정책에 대하여 수혜하지 않은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48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정보 제공’ 정책 수혜 여부 비교

		수혜	수혜 안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25	155	180
	비중(%)	13.9	86.1	100
그 외	샘플수	168	679	847
	비중(%)	19.8	80.2	100
총 계	샘플수	193	834	1027
	비중(%)	18.8	81.2	100

χ^2 test =3.4390, Pr=0.064
 Fisher's exact test Pr=0.074
 1-sided Fisher's exact Pr=0.037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수혜	수혜 안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88	329	417
	비중(%)	21.1	78.9	100
그 외	샘플수	105	505	610
	비중(%)	17.2	82.8	100
총 계	샘플수	193	834	1027
	비중(%)	18.8	81.2	100

χ^2 test =2.4559, Pr=0.117
 Fisher's exact test Pr=0.123
 1-sided Fisher's exact Pr=0.069

103) 취약계층1은 유의수준 10%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3.4390)

104) 취약계층2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2.11.1.2.2 ‘정착자금 지원’ 정책수혜 여부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정착자금 지원’ 정책에 대하여 수혜하지 않은 비중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정착자금 지원’ 정책 수혜 여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⁵⁾.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⁶⁾.
- 취약계층1은 그 외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착자금 지원’ 정책에 대하여 수혜하지 않은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49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정착자금 지원’ 정책 수혜 여부 비교

		수혜	수혜 안함	전체			수혜	수혜 안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22	158	180	취약 계층2	샘플수	81	336	417
	비중(%)	12.2	87.8	100		비중(%)	19.4	80.6	100
그 외	샘플수	172	675	847	그 외	샘플수	113	497	610
	비중(%)	20.3	79.7	100		비중(%)	18.5	81.5	100
총 계	샘플수	194	833	1027	총 계	샘플수	194	833	1027
	비중(%)	18.9	81.1	100		비중(%)	18.9	81.1	100

χ^2 test =6.3330, Pr=0.012

Fisher's exact test Pr=0.012

1-sided Fisher's exact Pr=0.006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χ^2 test =0.1309, Pr=0.717

Fisher's exact test Pr=0.746

1-sided Fisher's exact Pr=0.388

2.11.1.2.3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비용 지원’ 정책수혜 여부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비용 지원’ 정책에 대하여 수혜하지 않은 비중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비용 지원’ 정책 수혜 여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⁷⁾.

105) 취약계층1은 유의수준 5%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6.3330)

106) 취약계층2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에 비하여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비용 지원’ 정책에 대하여 수혜하지 않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50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비용 지원’ 정책 수혜 여부 비교

		수혜	수혜 안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28	152	180
	비중(%)	15.6	84.4	100
그 외	샘플수	204	643	847
	비중(%)	24.1	75.9	100
총 계	샘플수	232	795	1027
	비중(%)	22.6	77.4	100

		수혜	수혜 안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81	336	417
	비중(%)	19.4	80.6	100
그 외	샘플수	151	459	610
	비중(%)	24.8	75.3	100
총 계	샘플수	232	795	1027
	비중(%)	22.6	77.4	100

χ^2 test =6.1761, Pr=0.013

Fisher's exact test Pr=0.014

1-sided Fisher's exact Pr=0.007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χ^2 test =4.0232, Pr=0.045

Fisher's exact test Pr=0.048

1-sided Fisher's exact Pr=0.026

2.11.1.2.4 ‘생활 관련 지원’ 정책수혜 여부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생활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하여 수혜하지 않은 비중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생활 관련 지원’ 정책 수혜 여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⁸⁾.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⁹⁾.

- 취약계층1은 그 외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활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하여 수혜하지 않은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7) 취약계층1은 유의수준 1%에서 취약계층2 유의수준 5%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값은 취약계층1은 6.1761, 취약계층2는 4.0232).

108) 취약계층1은 유의수준 5%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5.8590)

109) 취약계층2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 표 151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생활 관련 지원’ 정책 수혜 여부 비교

		수혜	수혜 안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3	177	180
	비중(%)	1.7	98.3	100
그 외	샘플수	52	795	847
	비중(%)	6.1	93.9	100
총 계	샘플수	55	972	1027
	비중(%)	5.4	94.6	100

χ^2 test =5.8590, Pr=0.015

Fisher's exact test Pr=0.016

1-sided Fisher's exact Pr=0.007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수혜	수혜 안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22	395	417
	비중(%)	5.3	94.7	100
그 외	샘플수	33	577	610
	비중(%)	5.4	94.6	100
총 계	샘플수	55	972	1027
	비중(%)	5.4	94.6	100

χ^2 test =0.0088, Pr=0.925

Fisher's exact test Pr=1.000

1-sided Fisher's exact Pr=0.522

2.11.1.2.5 ‘관계 형성 지원’ 정책수혜 여부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관계 형성 지원’ 정책에 대하여 수혜하지 않은 비중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⁰⁾. 모든 귀농인은 ‘관계 형성 지원’ 정책에 대하여 수혜하지 않은 비중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52 > 취약계층과 그 외 그룹의 ‘관계 형성 지원’ 정책 수혜 여부 비교

		수혜	수혜 안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21	159	180
	비중(%)	11.7	88.3	100
그 외	샘플수	113	734	847
	비중(%)	13.3	86.7	100
총 계	샘플수	134	893	1027
	비중(%)	13.1	87.0	100

χ^2 test =0.3669, Pr=0.545

Fisher's exact test Pr=0.326

1-sided Fisher's exact Pr=0.320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수혜	수혜 안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62	355	417
	비중(%)	14.9	85.1	100
그 외	샘플수	72	538	610
	비중(%)	11.8	88.2	100
총 계	샘플수	134	893	1027
	비중(%)	13.1	87.0	100

χ^2 test =2.0507, Pr=0.152

Fisher's exact test Pr=0.158

1-sided Fisher's exact Pr=0.091

110)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2.11.2 귀농귀촌정책의 수혜 만족도 (Q41)

2.11.2.1 중앙정부 귀농귀촌정책의 수혜 만족도

- 중앙정부 귀농귀촌정책 중 ‘사전 귀농귀촌 정보제공’,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지원’, ‘상담/컨설팅 제공’에 대해서 모든 귀농인은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면, 취약계층1은 해당 정책을 수혜하지않은 비중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약계층2는 그 외 그룹에 비해 도움이 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제 지원’ 정책의 경우 취약계층2는 ‘세제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정도가 그 외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다.

2.11.2.1.1 ‘사전 귀농귀촌 정보제공’ 정책 수혜 만족도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사전 귀농귀촌 정보제공’ 정책 수혜 만족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¹⁾. 모든 귀농인은 ‘사전 귀농귀촌 정보제공’ 정책 수혜 만족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53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사전 귀농귀촌 정보제공’ 수혜 만족도 비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0	1	11	18	1	31
	비중(%)	0.0	3.2	35.5	58.1	3.2	100
그 외	샘플수	1	4	64	148	15	232
	비중(%)	0.4	1.7	27.6	63.8	6.5	100
총 계	샘플수	1	5	75	166	16	263
	비중(%)	0.4	1.9	28.5	63.1	6.1	100

* χ^2 test =1.6701, Pr=0.796 / Fisher's exact test Pr=0.616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111)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 표 154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사전 귀농귀촌 정보제공' 수혜 만족도 비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0	2	30	73	7	112
	비중(%)	0.0	1.8	26.8	65.2	6.3	100
그 외	샘플수	1	3	45	93	9	151
	비중(%)	0.7	2.0	29.8	61.6	6.0	100
총 계	샘플수	1	5	75	166	16	263
	비중(%)	0.4	1.9	28.5	63.1	6.1	100

* χ^2 test =1.1006, Pr=0.894 / Fisher's exact test Pr=0.971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11.2.1.2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12). 모든 귀농인은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55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비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1	1	5	7	4	18
	비중(%)	5.6	5.6	27.8	38.9	22.2	100
그 외	샘플수	2	9	37	93	13	154
	비중(%)	1.3	5.8	24.0	60.4	8.4	100
총 계	샘플수	3	10	42	100	17	172
	비중(%)	1.7	5.8	24.4	58.1	9.9	100

* χ^2 test =6.1476, Pr=0.188 / Fisher's exact test Pr=0.113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112)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 표 156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지원’ 수혜 만족도 비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1	4	17	41	7	70
	비중(%)	1.4	5.7	24.3	58.6	10.0	10
그 외	샘플수	2	6	25	59	10	102
	비중(%)	2.0	5.9	24.5	57.8	9.8	100
총 계	샘플수	3	10	42	100	17	172
	비중(%)	1.7	5.8	24.4	58.1	9.9	100

* χ^2 test =0.0757, Pr=0.999 / Fisher's exact test Pr=1.000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11.2.1.3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 취약계층2는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은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 정책 수혜하지 않은 비중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³⁾.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⁴⁾.
- 취약계층2는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에 대하여 그 외 그룹에 비해 도움이 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57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비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0	0	0	0	0	0
	비중(%)	0.0	0.0	0.0	0.0	0.0	0
그 외	샘플수	0	2	17	40	35	94
	비중(%)	2.1	2.1	18.1	42.6	37.2	100
총 계	샘플수	2	2	17	40	35	94
	비중(%)	2.1	2.1	18.1	42.6	37.2	100

* χ^2 test =6.1476, Pr=0.188 / Fisher's exact test Pr=0.113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113) 취약계층1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114) 취약계층2은 유의수준 10%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Exact Test 결과)

< 표 158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 수혜 만족도 비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0	1	10	12	9	32
	비중(%)	0.0	3.1	31.3	37.5	28.1	100
그 외	샘플수	0	1	7	28	26	62
	비중(%)	0.0	1.6	11.3	45.2	41.9	100
총 계	샘플수	0	2	17	40	35	94
	비중(%)	0.0	2.1	18.1	42.6	37.2	100

* χ^2 test =6.2485, Pr=0.100 / Fisher's exact test Pr=0.076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11.2.1.4 '상담/컨설팅 제공' 정책 수혜 만족도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상담/컨설팅 제공' 정책 수혜 만족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⁵⁾. 모든 귀농인은 '상담/컨설팅 제공' 정책 수혜 만족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59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상담/컨설팅 제공' 정책 수혜 만족도 비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0	0	4	6	0	10
	비중(%)	0.0	0.0	40.0	60.0	0.0	100
그 외	샘플수	1	2	36	62	4	105
	비중(%)	1.0	1.9	34.3	59.1	3.8	100
총 계	샘플수	1	2	40	68	4	115
	비중(%)	0.9	1.7	34.8	59.1	3.5	100

* χ^2 test =0.7538, Pr=0.945 / Fisher's exact test Pr=1.000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160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상담/컨설팅 제공' 수혜 만족도 비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0	1	21	22	2	46
	비중(%)	0.0	2.2	45.7	47.8	4.4	100
그 외	샘플수	1	1	19	46	2	69
	비중(%)	1.5	1.5	27.5	66.7	2.9	100
총 계	샘플수	1	2	40	68	4	115
	비중(%)	0.9	1.7	34.8	59.1	3.5	100

* χ^2 test =5.1777, Pr=0.2700 / Fisher's exact test Pr=0.170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115)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2.11.2.1.5 ‘세계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세계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⁶⁾.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세계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⁷⁾.
- 취약계층2는 ‘세계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정도가 그 외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다.

< 표 161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세계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비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0	0	3	5	1	9
	비중(%)	0.0	0.0	33.3	55.6	11.1	100
그 외	샘플수	1	5	23	43	8	80
	비중(%)	1.3	6.3	28.8	53.8	10.0	100
총 계	샘플수	1	5	26	48	9	89
	비중(%)	1.1	5.6	29.2	53.9	10.1	100

* χ^2 test =0.7479, Pr=0.945 / Fisher’s exact test Pr=1.000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162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세계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비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0	0	15	19	2	36
	비중(%)	0.0	0.0	41.7	52.8	5.6	100
그 외	샘플수	1	5	11	29	7	53
	비중(%)	1.9	9.4	20.8	54.7	13.2	100
총 계	샘플수	1	5	26	48	9	89
	비중(%)	1.1	5.6	29.2	53.9	10.1	100

* χ^2 test =8.5409, Pr=0.074 / Fisher’s exact test Pr=0.062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116) 취약계층1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117) 취약계층2은 유의수준 10%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8.5409)

2.11.2.2 지자체 귀농귀촌정책의 수혜 만족도

□ 귀농인은 모든 지자체 귀농귀촌정책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11.2.2.1 '정보 제공' 정책 수혜 만족도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정보 제공' 정책 수혜 만족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⁸⁾. 모든 귀농인은 '정보 제공' 정책 수혜 만족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63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정보 제공' 정책 수혜 만족도 비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1	0	6	15	3	25
	비중(%)	4.0	0.0	24.0	60.0	12.0	100
그 외	샘플수	5	5	41	106	11	168
	비중(%)	3.0	3.0	24.4	63.1	6.6	100
총 계	샘플수	6	5	47	121	14	193
	비중(%)	3.1	2.6	24.4	62.7	7.3	100

* χ^2 test =1.7440, Pr=0.783 / Fisher's exact test Pr=0.724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164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정보 제공' 정책 수혜 만족도 비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2	1	24	55	6	88
	비중(%)	2.3	1.1	27.3	62.5	6.8	100
그 외	샘플수	4	4	23	66	8	105
	비중(%)	3.8	3.8	21.9	62.9	7.6	100
총 계	샘플수	6	5	47	121	14	193
	비중(%)	3.1	2.6	24.4	62.7	7.3	100

* χ^2 test =2.2940, Pr=0.682 / Fisher's exact test Pr=0.729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118)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2.11.2.2.2 ‘정착자금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정착자금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⁹⁾. 모든 귀농인은 ‘정착자금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65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정착자금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비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0	0	2	18	2	22
	비중(%)	0.0	0.0	9.1	81.8	9.1	100
그 외	샘플수	2	9	31	113	17	172
	비중(%)	1.2	5.2	18.0	65.7	9.9	100
총 계	샘플수	2	9	33	131	19	194
	비중(%)	1.0	4.6	17.0	67.5	9.8	100

* χ^2 test =3.0850, Pr=0.544 / Fisher’s exact test Pr=0.683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166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정착자금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비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0	2	16	56	7	81
	비중(%)	0.0	2.5	19.8	69.1	8.6	100
그 외	샘플수	2	7	17	75	12	113
	비중(%)	1.8	6.2	15.0	66.4	10.6	100
총 계	샘플수	2	9	33	131	19	194
	비중(%)	1.0	4.6	17.0	67.5	9.8	100

* χ^2 test =3.7020, Pr=0.448 / Fisher’s exact test Pr=0.537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119)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2.11.2.2.3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비용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비용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⁰⁾. 모든 귀농인은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비용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67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비용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비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0	0	3	19	6	28
	비중(%)	0.0	0.0	10.7	67.9	21.4	100
그 외	샘플수	1	7	47	126	23	204
	비중(%)	0.5	3.4	23.0	61.8	11.3	100
총 계	샘플수	1	7	50	145	29	232
	비중(%)	0.4	3.0	21.6	62.5	12.5	100

* χ^2 test =5.0104, Pr=0.286 / Fisher’s exact test Pr=0.303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168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비용 지원’ 수혜 만족도 비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0	2	21	48	10	81
	비중(%)	0.0	2.5	25.9	59.3	12.4	100
그 외	샘플수	1	5	29	97	19	151
	비중(%)	0.7	3.3	19.2	64.2	12.6	100
총 계	샘플수	1	7	50	145	29	232
	비중(%)	0.4	3.0	21.6	62.5	12.5	100

* χ^2 test =1.9767, Pr=0.740 / Fisher’s exact test Pr=0.817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120)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2.11.2.2.4 ‘생활 관련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생활 관련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¹⁾. 모든 귀농인은 ‘생활 관련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69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생활 관련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비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0	0	1	1	1	3
	비중(%)	0.0	0.0	33.3	33.3	33.3	100
그 외	샘플수	1	2	16	27	6	52
	비중(%)	1.9	3.9	30.8	51.9	11.5	100
총 계	샘플수	1	2	17	28	7	55
	비중(%)	1.8	3.6	30.9	50.9	12.7	100

* χ^2 test =1.4303, Pr=0.839 / Fisher’s exact test Pr=0.610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170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생활 관련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비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0	1	8	11	2	22
	비중(%)	0.0	4.6	36.4	50.0	9.1	100
그 외	샘플수	1	1	9	17	5	33
	비중(%)	3.0	3.0	27.3	51.5	15.2	100
총 계	샘플수	1	2	17	28	7	55
	비중(%)	1.8	3.6	30.9	50.9	12.7	100

* χ^2 test =1.4898, Pr=0.828 / Fisher’s exact test Pr=0.921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121)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2.11.2.2.5 ‘관계형성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관계형성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²⁾. 모든 귀농인은 ‘관계형성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71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관계형성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비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0	1	4	13	3	21
	비중(%)	0.0	4.8	19.1	61.9	14.3	100
그 외	샘플수	1	1	24	72	15	113
	비중(%)	0.9	0.9	21.2	63.7	13.3	100
총 계	샘플수	1	2	28	85	18	134
	비중(%)	0.8	1.5	20.9	63.4	13.4	100

* χ^2 test =2.0326, Pr=0.730 / Fisher’s exact test Pr=0.647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172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관계형성 지원’ 정책 수혜 만족도 비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0	1	12	43	6	62
	비중(%)	0.0	1.6	19.4	69.4	9.7	100
그 외	샘플수	1	1	16	42	12	72
	비중(%)	1.4	1.4	22.2	58.3	16.7	100
총 계	샘플수	1	2	28	85	18	134
	비중(%)	0.8	1.5	20.9	63.4	13.4	100

* χ^2 test =2.8528, Pr=0.583 / Fisher’s exact test Pr=0.610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122)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2.11.3 귀농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요정책 (Q42)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귀농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요정책에 대하여 첫 번째, 2유형(농지/농업시설 자금지원) 다음으로 3유형(주택구입/임대 자금지원), 1유형(귀농귀촌 홍보)순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과 비교시(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³⁾. 취약계층2와 그 외 그룹과 비교시(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귀농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요정책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⁴⁾.
 - 취약계층2는 그 외 그룹에 비하여 2유형(농지/농업시설 자금지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유형(주택구입/임대 자금지원)과 1유형(귀농귀촌 홍보)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다.

< 표 173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요정책 비교

필요 정책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유형	7 유형	8 유형	9 유형	10 유형	11 유형	전체	
취약계층 1	샘플수	28	61	36	9	4	4	5	5	18	3	3	176
	비중 (%)	15.9	34.7	20.5	5.1	2.3	2.3	2.8	2.8	10.2	1.7	1.7	100
그 외	샘플수	99	295	131	82	28	31	20	23	71	40	7	827
	비중 (%)	12.0	35.7	15.8	9.9	3.4	3.8	2.4	2.8	8.6	4.8	0.9	100
총 계	샘플수	127	356	167	91	32	35	25	28	89	43	10	1003
	비중 (%)	12.7	35.5	16.7	9.1	3.2	3.5	2.5	2.8	8.9	4.3	1.0	100

- 1유형 = '귀농귀촌 홍보'
- 2유형 = '농지/농업시설 자금지원'
- 3유형 = '주택구입/임대 자금지원'
- 4유형 = '귀농귀촌교육'
- 5유형 = '인턴쉽(선도농가실습 등)'
- 6유형 =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귀농인의 집 등)'
- 7유형 = '관계형성 지원(동아리, 모임지원 등)'
- 8유형 = '생활 관련 지원(교육/양육비, 출산장려금 등)'
- 9유형 = '농지/주택/일자리 등 정보제공'
- 10유형 = '상담 및 컨설팅 제공(귀농닥터 등)'
- 11유형 = '세제 지원'

* χ^2 test =13.7713, Pr=0.184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123) 취약계층1은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124) 취약계층2은 유의수준 10%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17.8532)

< 표 174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요정책 비교

필요 정책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유형	7 유형	8 유형	9 유형	10 유형	11 유형	전체
취약계층2	샘플수	58	127	84	35	11	15	9	16	36	13	5	409
	비중 (%)	14.2	31.1	20.5	8.6	2.7	3.7	2.2	3.9	8.8	3.2	1.2	100
그 외	샘플수	69	229	83	56	21	20	16	12	53	30	5	594
	비중 (%)	11.6	38.6	14.0	9.4	3.5	3.4	2.7	2.0	8.9	5.1	0.8	100
총 계	샘플수	127	356	167	91	32	35	25	28	89	43	10	1003
	비중 (%)	12.7	35.5	16.7	9.1	3.2	3.5	2.5	2.8	8.9	4.3	1.0	100

* χ^2 test=17.8532, Pr=0.057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11.4 현 귀농정책의 문제점 (Q43)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현 귀농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2유형(지원자격이 나 지원절차가 까다로움)으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유형(관련정보를 얻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⁵⁾. 모든 귀농인은 현 귀농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2유형(지원자격이나 지원절차가 까다로움)으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유형(관련정보를 얻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5)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 표 175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정책의 문제점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42	50	31	17	4	33	177
	비중(%)	23.7	28.3	17.5	9.6	2.3	18.6	100
그 외	샘플수	213	255	100	88	30	144	830
	비중(%)	25.7	30.7	12.1	10.6	3.6	17.4	100
총 계	샘플수	255	305	131	105	34	177	1007
	비중(%)	25.3	30.3	13.0	10.4	3.4	17.6	100

- 1유형 = '관련정보를 얻기 어려움'
- 2유형 = '지원자격이나 지원절차가 까다로움'
- 3유형 = '지원금액이 적음'
- 4유형 = '일회성 지원에 그침'
- 5유형 = '특정 시기에 지원시기가 집중되어 있음'
- 6유형 =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없음'

* χ^2 test =4.9321, Pr=0.424 / Fisher's exact test Pr=0.465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176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정책의 문제점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96	124	62	45	12	72	411
	비중(%)	23.4	30.2	15.1	11.0	2.9	17.5	100
그 외	샘플수	159	181	69	60	22	105	596
	비중(%)	26.7	30.4	11.6	10.1	3.7	17.6	100
총 계	샘플수	255	305	131	105	34	177	1007
	비중(%)	25.3	30.3	13.0	10.4	3.4	17.6	100

* χ^2 test =3.9749, Pr=0.553 / Fisher's exact test Pr=0.558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11.5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자체 지원 정도 (Q44)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자체 지원 정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⁶⁾. 귀농인 모두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자체 지원 정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77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귀촌인 지자체 지원 정도 비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이루어지지 않음	보통	잘 이루어짐	매우 잘 이루어 짐	전 체
취약 계층1	샘플수	13	53	89	25	0	180
	비중(%)	7.2	29.4	49.4	13.9	0.0	100
그 외	샘플수	76	275	368	121	7	847
	비중(%)	9.0	32.5	43.5	14.3	0.8	100
총 계	샘플수	89	328	457	146	7	1027
	비중(%)	8.7	31.9	44.5	14.2	0.7	100

* χ^2 test =3.6536, Pr=0.455 / Fisher's exact test Pr=0.561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178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귀촌인 지자체 지원 정도 비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이루어지지 않음	보통	잘 이루어짐	매우 잘 이루어 짐	전 체
취약 계층2	샘플수	37	128	199	51	2	417
	비중(%)	8.9	30.7	47.7	12.2	0.5	100
그 외	샘플수	52	200	258	95	5	610
	비중(%)	8.5	32.8	42.3	15.6	0.8	100
총 계	샘플수	89	328	457	146	7	1027
	비중(%)	8.7	31.9	44.5	14.2	0.7	100

* χ^2 test =4.3810, Pr=0.357 / Fisher's exact test Pr=0.362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126)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2.11.6 귀농시 배우자의 동행(Q47)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귀농시 배우자가 함께 이주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귀농시 배우자 동행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⁷⁾.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에 비하여 귀농시 배우자가 함께 이주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79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시 배우자 동행 비교

		함께 이주	혼자 이주	배우자 없음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104	38	38	180
	비중(%)	57.8	21.1	21.1	100
그 외	샘플수	594	180	73	847
	비중(%)	70.1	21.3	8.6	100
총 계	샘플수	698	218	111	1027
	비중(%)	68.0	21.2	10.8	100

* χ^2 test =24.7692, Pr=0.000 / Fisher's exact test Pr=0.000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180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시 배우자 동행 비교

		함께 이주	혼자 이주	배우자 없음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258	86	73	417
	비중(%)	61.9	20.6	17.5	100
그 외	샘플수	440	132	38	610
	비중(%)	72.1	21.6	6.2	100
총 계	샘플수	698	218	111	1027
	비중(%)	68.0	21.2	10.8	100

* χ^2 test =33.0972, Pr=0.000 / Fisher's exact test Pr=0.000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127)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값은 취약계층1은 24.7692, 취약계층2는 33.0972).

2.11.7 귀농 직전 직업 (Q48)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귀농 직전 직업의 비중별 순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7유형(자영업), 다음으로 3유형(사무직), 11유형(주부), 12유형(무직) 순이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시(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귀농 직전 직업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⁸⁾.
 - 귀농 직전 직업에 대해서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에 비하여 6유형(단순노무직), 그리고 11유형(주부), 12유형(무직)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81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직전 직업 비교

필요 정책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유형	7 유형	8 유형	9 유형	10 유형	11 유형	12 유형	전체	
취약 계층 1	샘플 수	9	8	23	12	15	12	55	3	2	3	18	18	178
	비중 (%)	5.1	4.5	12.9	6.7	8.4	6.7	30.9	1.7	1.1	1.7	10.1	10.1	100
그 외	샘플 수	77	74	187	46	84	25	249	5	19	2	55	13	836
	비중 (%)	9.2	8.9	22.4	5.5	10.1	3.0	29.8	0.6	2.3	0.2	6.6	1.6	100
총 계	샘플 수	86	82	210	58	99	37	304	8	21	5	73	31	1014
	비중 (%)	8.5	8.1	20.7	5.7	9.8	3.7	30.0	0.8	2.1	0.5	7.2	3.1	100

- 1유형 = '관리자'
- 2유형 = '전문직'
- 3유형 = '사무직'
- 4유형 = '판매/서비스직'
- 5유형 = '생산직/기능직'
- 6유형 = '단순노무직'
- 7유형 = '자영업'
- 8유형 = '농림어업'
- 9유형 = '군인/경찰'
- 10유형 = '학생'
- 11유형 = '주부'
- 12유형 = '무직'

* χ^2 test =66.3201, Pr=0.000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128)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유형분포가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χ^2 통계량 값은 취약계층1은 66.3201, 취약계층2는 76.281).



< 표 182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 직전 직업 비교

필요 정책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유형	7 유형	8 유형	9 유형	10 유형	11 유형	12 유형	전체
취약계층1	샘플수	23	22	65	30	51	30	120	3	6	3	36	24	413
	비중 (%)	5.6	5.3	15.7	7.3	12.4	7.3	29.1	0.7	1.5	0.7	8.7	5.8	100
그 외	샘플수	63	60	145	28	48	7	184	5	15	2	37	7	601
	비중 (%)	10.5	10.0	24.1	4.7	8.0	1.2	30.6	0.8	2.5	0.3	6.2	1.2	100
총 계	샘플수	86	82	210	58	99	37	304	8	21	5	73	31	1014
	비중 (%)	8.5	8.1	20.7	5.7	9.8	3.7	30.0	0.8	2.1	0.5	7.2	3.1	100

* χ^2 test=76.281, Pr=0.000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2.11.8 귀농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Q49-1)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귀농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1순위 ‘소득’, 다음으로 2순위 ‘농사’, 3순위 ‘지역 인프라 부족’ 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그 외 그룹과 비교(취약계층1은 3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 취약계층2는 4분위 이상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⁹⁾. 모든 귀농인은 귀농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1순위 ‘소득’ 51.2%, 다음으로 2순위 ‘농사’ 25.8%, 3순위 ‘지역 인프라 부족’ 13.7%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29) 취약계층1과 취약계층2 모두 유형분포에서 그 외 그룹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 표 183 > 취약계층1과 그 외 그룹의
귀농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전체
취약 계층1	샘플수	11	46	89	5	20	171
	비중(%)	6.4	26.9	52.1	2.9	11.7	100
그 외	샘플수	41	197	393	31	109	771
	비중(%)	5.3	25.6	51.0	4.0	14.1	100
총 계	샘플수	52	243	482	36	129	942
	비중(%)	5.5	25.8	51.2	3.8	13.7	100

* χ^2 test =1.4953, Pr=0.827 / Fisher's exact test Pr=0.845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 표 184 > 취약계층2과 그 외 그룹의
귀농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비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전체
취약 계층2	샘플수	24	97	210	11	48	390
	비중(%)	6.2	24.9	53.9	2.8	12.3	100
그 외	샘플수	28	146	272	25	81	552
	비중(%)	5.1	26.5	49.3	4.5	14.7	100
총 계	샘플수	52	243	482	36	129	942
	비중(%)	5.5	25.8	51.2	3.8	13.7	100

* χ^2 test =4.3176, Pr=0.365 / Fisher's exact test Pr=0.371
자료: 귀농·귀촌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2016)



제3절 사회적 농업 사례

현재 사회적 농업의 대한 범위와 정의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사회적 농업 개념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개념으로부터 도출 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국가와 시장을 보완하며 취약계층 고용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부문에 있어서 국내의 귀농 성공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박대식(2017)은 귀농·귀촌인들은 농촌공동체에서 자신들의 기술, 경험을 활용하여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소개되는 사례들은 박대식(2017)에서 조사 분석한 내용 중 귀농·귀촌인이 농촌공동체에 기여한 사례들을 발췌하여 일부자료를 추가 하였다.

1. 공세리마을협동조합(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사례자(한기형, 이사장, 50세)는 서울에 살다가 1993년 귀향(귀농)하였다. 1994년에 결혼하여 마을총무로 2007년까지 활동하다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공세리 2리의 이장을 맡았다.

- 마을역량 강화 및 마을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추진
 - ‘공세리 이야기’카페를 열어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마을사랑방 역할의 기능도 하고 있다.
 - 토마토 영농사업을 통해 수익을 마련하고, 카페에서 판매하는 팔빙수에 토마토를 사용하여 부가가치 증대를 꾀하고 있다.
 - 부녀회를 중심으로 매주 일요일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열고 있고, 매년 ‘공세리 마을 가을 저녁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 교육 및 아동돌봄사업
 - ‘꿈꾸는 팽나무 도서관’을 열고, ‘공세리 자모회’에서 방과 후 학습 및 아동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서관의 부지는 공세리 성당토지, 신업주차장을 임대하였으며, 아산시의 ‘찾아가는 5분 걸음 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서관을 열었다.

< 표 185 > 공세리마을협동조합

	
<p><카페 공세리 이야기></p>	<p><공세리 일요장터></p>
	
<p><꿈꾸는 팽나무 도서관></p>	<p><지역 아동 돌봄 사업></p>

자료 : 충남 사회적경제 홍보 블로그(충남 사회적경제 따숨 블로그)

1.1 성공요인

- 사례자는 이장 일을 하면서 농정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마을에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활기찬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공세리마을협동조합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되살려 문화와 교육, 복지가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 공세리 마을에 위치한 공세리 성당이라는 자원을 잘 활용하였다. 공세리 성당은 150년의 전통을 지니고 있고,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라고 평가받고 있어 관광객들이 마을을 방문한다.



2. 지리산에 살래(전북 남원시 산내면)

사례자(50세)는 서울에서 민간단체에서 일하다가 2000년에 경제적 이유와 아내의 적극적 권유로 귀촌을 고민하였다. 2001년 완주에서 처음 귀촌생활을 시작하여 젊은 귀농·귀촌인이 많은 남원시 산내면에 정착하였다. 현재 인터넷 공익 프로젝트 ‘더 체인지’에서 사회적 대화 및 토론 플랫폼 총관 역할을 함께하고 있다.

○ 사회적 경제 관련 주요 활동

- 농사 펀드의 홍보 및 모집을 통해서 생산물을 직거래하였으며, 쌀 펀드를 통한 공급을 시행하였다.

< 표 186 > 농사 펀드를 통해 공급되는 생산물

- 1차(5월 초) : 된장, 지리산야생해파리, 지리산야생산나물, 건표고버섯, 생강가루, 호두강정
- 2차(6월 말~7월 초) : 감자, 건고사리, 양파, 마늘, 건강음료, 산나물장아찌세트
- 특별깜짝배송(8월) : 미공개
- 3차(9월 초) : 무농약 포도
- 4차(10월 말~11월 초) : 햅쌀, 흑향미, 찹쌀, 수수, 호박고구마, 나물밥용산나물모듬
- 5차(12월 말) : 들기름, 볶음 참깨, 잡곡세트

- ‘지리산에 살래’라는 농산물 통합 브랜드를 만들었다.

< 표 187 > 지리산에 살래

<p><지리산에 살래 농사 펀드></p>	<p><마을 살림 공동체></p>

자료 : ‘지리산에 살래’ 홈페이지

2.1 성공요인

- 펀드 판매 금액의 5%를 지리산을 보존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소비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유지되는 참여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 생산물마다 생산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부착하여 소비자가 생산물에 만족하여 추가적인 구매를 원할시에 생산자가 따로 주문을 받아서 공급하게 하였다.
- 자체적인 ‘생태농업인증제’를 만들어 시행하고, 농산물의 생산과정과 이력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였다.

3. 논산귀농귀촌협동조합 ‘줍’

사례자(46세)는 서울에서 태어나 1998년 신학대학 석사과정 때 농활지역이었던 논산시로 귀촌하였다. 농민회 간사를 거쳐 2003년까지 논산시 농민회 사무국장 활동을 하다가 이후 농업에 전념하여 2017년에 논 5,000여 평, 비닐하우스 3동(750평)에서 쌀과 딸기를 생산하고 있다. 귀농 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주거(집), 농지, 생산물 판로 확보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였다.

- 사회적 경제 관련 주요 활동
 - 지역의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순환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

< 표 188 > 논산귀농귀촌협동조합 ‘줍’의 주요 활동

- 귀농·귀촌교육사업
- 도·농 교류사업
- 조합역량강화사업
- 귀농·귀촌인 장터 주관



3.1 성공요인

- 논산귀농귀촌협동조합의 조합원중 귀농인이 12명인데, 조합원들의 이전 직업은 출판사, 약사, 요리사 등 이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능력이 협동조합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 조합원 중 전업농은 5명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1명은 논산시 YMCA 설립운동을 하는 등 조합원들의 능력을 통해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4. 땅파는 까망돼지(경북 봉화군 봉화읍)

사례자(55세)는 IT기업을 다니다가 자연스러운 삶, 경쟁하지 않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2006년 남양주시로 귀촌하여 1년간 귀농·귀촌 교육을 받았다. 이후 2007년에 땅의 소중함을 알고 일한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농업인의 삶을 선택하여 봉화로 귀농하였다. 사례자는 건강한 돼지를 기르고, 이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면서 농장에서 나온 축분은 다시 농지로 돌리는 경축순환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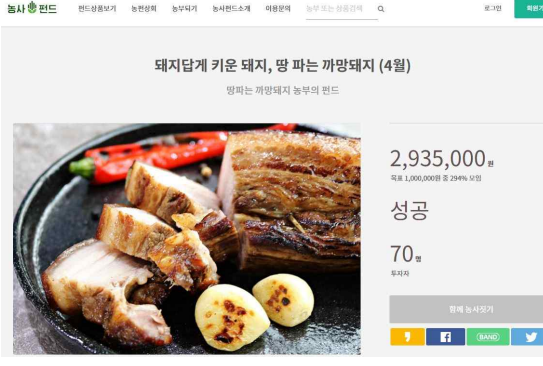
- 자연양돈의 생산 및 공급
 - 인공수정을 하지 않고 자연교배로 번식하여 넓은 공간에서 돼지 원래의 습성대로 마음껏 뛰고 땅을 파도록 하게 한다. 사육 규모는 100두 이하로 제한하고, 사육 공간도 한 마리당 3평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환생제, 호르몬제, GMO사료를 먹이지 않고 쌀겨, 비지, 버섯배지 등으로 직접 발효시킨 사료와 신선한 풀과 농사 부산물을 돼지에게 공급한다.
- 다양한 행사의 참여 및 홍보
 - 여러 지역축제와 마을 장터에 참가하여 자연양돈을 홍보하였다.

4.1 성공요인

- 고기의 맛과 질이 일반양돈보다 우수하여 자연양돈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지역민들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 농장과 정육점, 식당을 연결하여 부가가치 상승을 꾀하였다. 농장과 정육점은 자활기업으로 식당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 받아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귀농한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품물패 모임 ‘하모니 품물패’를 2008년에 만들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과 함께 음악 밴드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육점을 카페와 함께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 농사펀드 등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꾀하였다.

< 표 189 > 땅과는 까망돼지

	
<p><땅과는 까망돼지 농장></p>	<p><땅과는 까망돼지 정육점 판매 생산물></p>
	
<p><땅과는 까망돼지 식당></p>	<p><땅과는 까망돼지 농사펀드 모집></p>

자료 : ‘행복이 가득한 집’ 매거진, 농사펀드 홈페이지, 언론 보도



제4장 정책적 시사점

정책적 시사점에선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본 취약계층 귀농자들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한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취약계층을 배려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건강, 의료, 문화, 교육, 사회봉사 활동 등)의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필요

- 취약계층 귀농자들은 다른 귀농자들과 같이 면지역으로 많이 귀농함. 이는 읍지역 대비 면지역의 낙후함에 따른 영향을 그대로 받을 것임.
 - 건강 및 의료시설 이용의 경우 취약계층 귀농자들은 주로 마을(인근 마을 포함)과 읍면 소재지에서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이 다른 귀농자들에 비해 높았음
 - 거주지에 확충되어야 할 공공시설로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고 비중도 상대적으로 더 높음.
 - 공공서비스로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취약계층 일자리 자원 공공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더 필요로 함.
- 취약계층 귀농자들은 귀농의 형태 또한 연고지로 귀농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데, 이는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임. 즉, 공동체가 이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면 상대적으로 더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임.

2. 취약계층 포함 귀농자들의 귀농장려를 위한 농촌 자연환경의 고유한 매력 관리 및 보전 중요

- 자연환경과 같은 농촌의 고유한 매력은 귀농자들의 귀농 의사결정에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자산이므로 잘 보전·관리해야 함.
- 귀농이유로 취약계층이나 다른 귀농자들 모두 자연환경이 좋아서 귀농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그 외의 이유들로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실직이나 사업의 실패 등의 이유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3. 취약계층의 초기 주거 여건 강화 지원 필요

- 취약계층의 초기 거주 주택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계층에 비해 높지 않은데 경제적 여건 등으로 주택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
 - 참고로 소득계층 4분위와 5분위는 귀농초기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의 비중이 초기보다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줌.

4. 취약계층 귀농자의 농업생산 활동의 실효성 강화 지원 필요

- 취약계층의 귀농 이후 1년 이내 농사 시작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낮음.
- 작목의 선택 기준에서 대부분의 귀농자들이 재배의 용이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지만 그 외의 기준에서는 소득작목이나 지역특화작목 등 경제성 있는 작목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 영농시작 형태에서 취약계층은 임차하여 농사를 시작하는 경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 취약계층과 다른 귀농자들의 35% 정도는 여전히 영농활동에 독립하지 못하고 조언을 필요로 함.
- 영농활동 수행시 겪는 어려움은 취약계층과 다른 귀농자 모두 영농기술/경험부족과 농지 및 시설투자 자금 부족을 가장 큰 이유들로 제시함.
- 농산물 판매 경로는 취약계층과 다른 귀농자 모두 소비자 직거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가소비 그리고 지역농협 순으로 나타남.
- 취약계층 귀농자들이 수혜받은 보조금 및 융자금의 규모는 다른 귀농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작음.
- 취약계층 귀농자들은 향후 영농규모를 확대할 계획 없음 비중이 50% 이상으로 다른 귀농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커서 현재 상황이 고착화 될 가능성이 있음.



5. 취약계층 귀농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역량강화(지식 및 기술) 등 다
각적 측면 지원 검토 필요

- 취약계층 귀농자의 가구소득은 다른 귀농자의 38~43%(취약계층1~취약계층2) 수준이고, 농업소득은 다른 귀농자의 44~47% 수준임.
 - 가구소득의 경우 취약계층1은 1413만원/연이고 다른 귀농자는 3680만원/연이며, 취약계층2의 경우는 1850만원/연이고 다른 귀농자는 4262만원/연임
 - 농업소득의 경우 취약계층1은 930만원/연이고 다른 귀농자는 1982만원/연이며, 취약계층2의 경우는 1035만원/연이고 다른 귀농자는 2318만원/연임
- 취약계층1과 2 모두 농업생산활동 이외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62%와 57%로 대다수가 농외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귀농자들보다 그 비중이 높음.
- 농외소득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으로 취약계층 귀농자들은 다른 귀농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본인의 능력(지식, 기술) 부족’을 제시하고 있음.
- 취약계층 귀농자들은 생활비를 식비, 주거 및 광열/수도비/전기세, 교통통신비에 사용하는데 그 비중이 다른 귀농자들보다 높음.

6. 취약계층 귀농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및 지역민의 적극적 포용 필요

- 취약계층 귀농자들은 지역주민과의 관계에서 ‘좋음’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정보교류 등 시너지 효과의 가능성이 낮음.
 -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좋음’ 정도가 취약계층 귀농자들이 다른 귀농자들보다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 충돌’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취약계층 귀농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 취약계층 귀농자들은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도가 다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마을 회의나 행사, 지역 농업·농민 단체, 일반 사회단체, 귀농귀촌인 모임 등에 참여하는 정도는 다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소극적임.
 - 활동 참여의 주된 이유는 주변권유와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남.
 - 지역내 활동 참여가 어려운 주된 이유로 정보 부족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른 귀

농자들이 농사일 등으로 바빠서 참여하지 못한 것과 대조를 이룸. 지역사회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 귀농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하는데 취약계층 귀농자들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한 정보의 부족 또는 자존감의 부족 등에 기인.

7. 취약계층 귀농자들이 귀농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교육비 지원도 검토

- 취약계층 귀농자들의 귀농준비기간이 다른 귀농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짧고 귀농준비에 대한 만족도도 다른 귀농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취약계층 귀농자들의 가구소득 및 농업소득 비중이 다른 귀농자들보다 크게 낮은 점을 명확히 하여 충분한 귀농준비기간을 가지도록 해야 함.
- 귀농자들의 정착자금 사용처는 취약계층 귀농자나 다른 귀농자들 모두 농지구입 및 임대, 주택구입, 영농시설 자재구입으로에 사용함.
- 그러나 정착자금 마련 출처는 취약계층 귀농자들의 경우는 상속 또는 가족의 도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 취약계층은 소득의 분위가 낮기 때문에 일반 금융권의 용자 등의 규모가 크지 못함.
- 취약계층 귀농자들의 귀농관련 정보 취득 또한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큼. 보다 체계적인 정보취득 필요.
- 취약계층 귀농자들의 귀농귀촌교육 이수 비중이 다른 귀농자들에 비해 낮음. 이는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인턴쉽(선도농가) 교육에도 모두 해당됨.
- 취약계층 귀농자들과 다른 귀농자들 모두 이수한 교육(온라인, 오프라인, 인턴쉽 모두)이 실제 농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함.
- 귀농귀촌교육에 대한 개선요구로 취약계층 귀농자들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현장실습연계 강화가 우선적으로 거론되었고, 교육비 지원과 지리적 접근 확대도 다른 귀농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요구됨.



8. 취약계층 귀농자들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귀농귀촌정책의 사각 지대에 있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필요

- 취약계층 귀농자들의 중앙정보의 귀농귀촌정책을 수혜받지 못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 사전 귀농귀촌 정보 제공,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지원,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 상담/컨설팅 제공, 세제지원 정책의 수혜받지 못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큼.
- 지방정부의 귀농귀촌정책의 수혜여부에 대해서도 관계형성지원을 제외하고는 수혜받지 못한 비중이 다른 귀농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음.
 - 특히 1분위와 2분위로만 구성된 취약계층1 그룹이 보다 심함.
 - 정보제공, 정착자금 지원,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비용 지원, 생활관련 지원 등에서 그러함.
- 정책 만족도는 취약계층 귀농자들과 다른 귀농자들 모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중앙정부의 세제지원 정책에서는 취약계층 귀농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낮음.
-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귀농자와 다른 귀농자 모두 농지/농업시설 자금지원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택구입/임대 자금지원과 귀농귀촌 홍보순으로 나타났지만, 취약계층 귀농자들은 주택구입/임대 자금지원과 귀농귀촌 홍보에 대해 다른 귀농자들보다 더 많은 비중을 보임.
 - 취약계층 귀농자들은 주택구입/임대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음.

9. 취약계층 귀농자들은 귀농전에 무직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는데, 귀농 정책은 생산적 복지정책이므로 정책강화 필요

- 귀농자들은 취약계층 귀농자 및 다른 귀농자 모두 귀농전 직업이 자영업, 사무직의 비율이 높는데, 취약계층은 그중에서도 무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음.
 - 1분위 및 2분위 계층 귀농자들의 그룹인 취약계층 1에서는 10.1%가 무직이었으며(다른 그룹은 1.6%), 3분위까지 포함한 경우에는 5.8%가 무직(다른 그룹은 1.2%)이었음.
- 취약계층 귀농자들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 1분위 및 2분위 계층 귀농자들의 그룹인 취약계층 1에서는 21.1%, 3분위까지 포함한 경우에는 17.5%가 배우자 없는 비중임(혼자 이주한 경우와 구분됨).

10. 취약계층 귀농인들에 대한 정책적 필요 등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 검토 필요

- 취약계층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을 개인단위보다는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조직들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귀농인들과 이들 조직들 간의 연대를 이어줄 중간지원 조직이 필요함.
 -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의 다양한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함.
 - 중간지원조직은 취약계층 귀농인들의 정착 단계별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적 필요를 지자체와 중앙 정부에 전달하고 다양한 관련조직들이 취약계층 귀농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을 강화하는데 기여해야 함.
- 현재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6차산업지원센터 등 귀농귀촌 및 농촌활성화 관련 중간지원조직들이 있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전담 중간지원조직이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중간지원조직이 따로 존재하진 않음.
- 사회적 농업과 귀농귀촌을 연계할 중간지원 조직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것과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것 중 효과성과 효율성에서 어떤 방식이 나은지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11. 취약계층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역할 모색 필요

-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주민주도형 지역개발과 농촌지역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지원 체계를 갖춘 광역 중간조직으로 전국 9개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고유 기능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

-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1) 현장활동가 및 마을리더 교육, 민간전문가 육성 등 인적자원 육성, 2) 마을 등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및 퍼실리테이터 등 관련 전문가 지원을 통한 지역민의 의견수렴과정인 현장포럼 지원, 3) 행정·전문가·중간지원조직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교류 지원, 4) 마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과제 및 정책 발굴 등 조사·연구 지원임

○ 특히, 주요 기능 중 농촌현장포럼은 주민 주도로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발전 계획 등을 수립하는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므로 지역에 들어오는 취약계층 귀농자들에 대한 지원방안들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면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임

- 즉, 현장포럼의 주제 중에 마을발전계획 수립하는 과정처럼 취약계층 귀농자들을 포함한 귀농귀촌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위한 방안들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는 것은 지역민의 인식개선과 융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실제로 마을이나 지역발전계획 수립이나 활동에 귀농자들과 귀촌자들의 경험이 활용되어 보다 나은 방안들이 나온 사례들(예, 진안군 두원마을 등)이 있음.

○ 또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행정·전문가·중간지원조직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교류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취약계층 귀농귀촌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들간의 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구체적으로 행정·전문가·중간지원조직 주체들이 참여한 워크숍을 광역단위, 하부지역 단위별로 개최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수렴과 제도개선 등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과정가운데 관련 인적자원들(현장활동가, 마을리더, 민간전문가 등)이 발굴되고 육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육성도 함께 지원하면 취약계층 귀농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체계의 지속성이 강화될 것임.

참고문헌

- 김정섭. (2018). 사회적 농업, 농업과 농촌의 탈영토화 한국농촌지도학회, 농촌지도와 개발, 25(3), 121-133.
- 김정섭·안석·이정혜·김경인. (2017). 사회적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마상진·김종인·오정훈. (2016).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방향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김경덕·임지은. (2015).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 (2016). 귀농·귀촌, 무엇을 어려워 하는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마상진. (2018). 귀농·귀촌 동기유형과 관련 변인. 한국농산업교육학회.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0(1), 53-72.
- 마상진·남기천·최윤지. (2016). 역 귀농·귀촌 의향 영향 요인 분석.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26(1), 37-63.
- 박대식·김경인. (2018). 귀농·귀촌인의 직업 만족도 영향 요인 분석. 한국농산업교육학회,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0(3), 41-60.
- 박덕병·임광명·안재문. (2018). 농촌지역주민 공동체의식의 지역사회참여 영향요인. 한국농촌지도학회, 농촌지도와 개발, 25(3), 135-148.
- 박대식·마상진·채상헌·최용재·최윤지·윤순덕·김경인. (2017). 사회적 경제 부분에 있어서 국내외의 귀농·귀촌 성공사례 조사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박시현·김용령·윤병석·남기천. (2012).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채종현. (2012).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 『농정포커스』제2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윤순덕·최정신·마상진·남기천. (2017). 귀농·귀촌 패넬로 본 역귀농·귀촌실태.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27(1), 59-93.
- 정철영·임한려·이승엽. (2018). 귀농·귀촌 유형 및 단계에 관한 종합적 고찰. 한국농산업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 허재준·마상진·전익수·정의룡. (2017). 귀농정책 고용영향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정책과 거버넌스.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정책 연구 포함 제2차 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8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보고서

충남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주민주도마을만들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리더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리더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진입단계 마을리더 역량강화과정-**

2018. 12.

차 례

I. 서론	345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45
2. 연구목적	350
II. 이론적 배경	351
1. 농촌지역개발사업	351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56
3. 농촌마을 리더의 역할과 역량	359
4. 리더역량강화 프로그램 사례	364
5. 리더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모델	370
III. 연구방법	373
1. 조사기법	373
2. 프로그램 개발모델	374
3. 연구흐름도	375
IV. 연구결과	376
1. 조사대상 선정	376
2. 질문지 구성	377
3. 분석결과	379
4. 프로그램 구성	386
V. 결론	392
1. 결과 및 제언	392
2. 연구의 시사점	395
3. 연구의 한계	397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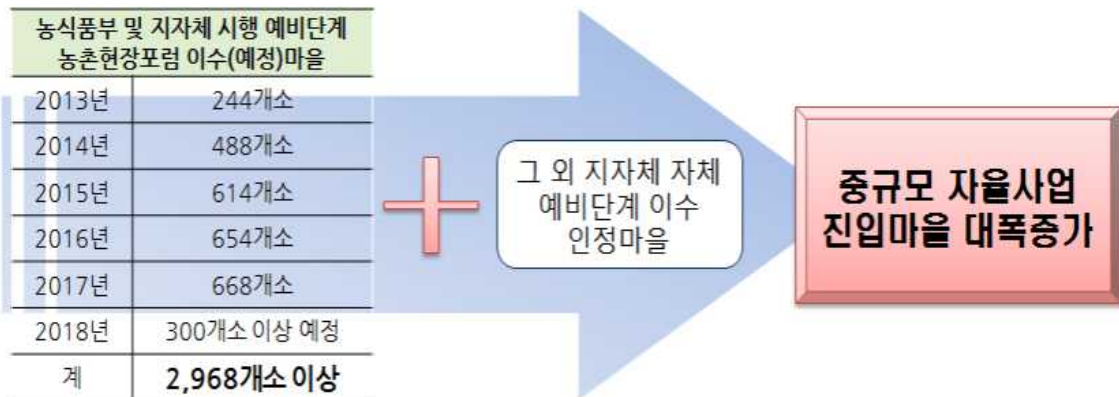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상향식 사업방식 도입에 따른 지역단위 개발의 리더 역량 강화 필요
 - 2000년대 들어 농림부의 정책영역에 농촌개발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 개발영역에서 지역개발역량의 중요성이 제차 강조됨
 - 상향식 지역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자원과 여건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체 역량의 배양이 불가결하며, 이에 따라 각종 교육에서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고, 리더의 역량강화 또한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어짐
 - 최재율·김희승(1994)과 오승영 등(2010)은 농촌마을의 리더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농촌주민을 어떤 공동의 목표나 방향에 따르도록 영향을 주는 힘이나 세력, 또는 이러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 또는 주민을 통솔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전파하여 마을을 이끌어 가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고 함
 - 박한식·김남조(2008)는 농촌마을의 리더는 마을단위 공동사업의 경영자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함
 - 박은식 등(2007)은 마을 개발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 받는 지역 역시 공통적으로 마을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발견되고 있다고 함



○ 역량단계별 지원정책 도입과 확산에 따른 맞춤형 리더역량강화 교육 필요

- 2014년 검토단계를 거쳐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2015~2019)에 제시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반영된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에서는 마을의 사업 추진역량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지원하게끔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 및 리더의 역량이 더욱 중요시됨
- 해당 정책이 농촌지역 개발부분에 반영 된지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공모과정을 거쳐 예비 단계에서 진입단계로 들어선 마을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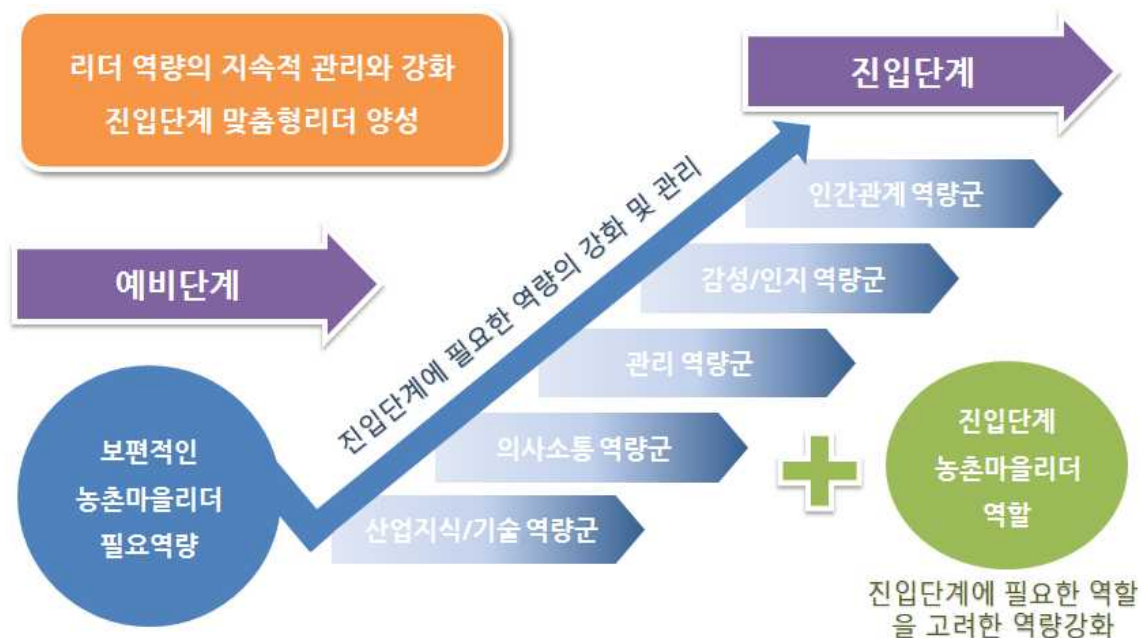
<완료지구 등 사후관리포럼지역이 포함된 수치임>

<그림 1-1> 농식품부 및 지자체 시행 예비단계 농촌현장포럼 이수(예정)마을

○ 단계에 적합한 역할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융합구성 필요

- 마을단위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리더교육은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리더십을 함양시키기 위한 단기적 프로그램이 필수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사업초기 전반적인 리더역량 함양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리더 교육 이후, 포괄적인 리더역량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관리 할 수 있는 정규화 된 프로그램이 희소함
- 또한, 사업준비를 위해 통합적인 리더역량 함양에 초점을 두는 초기 리더교육과는 다르게, 본격적인 사업추진과 운영 및 관리, 피드백이 필요한 진입단계에서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리더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선택적이고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박진도 외(2004)는 기본 프로그램의 이수가 곧 지역리더의 배출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리더의 성숙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인바, 프로그램의 이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계속 학습이 가능하도록 후속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하며, 수준별 단계별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고 함
- 박경 외(2007)는 특성에 따라 단계별·수준별로 다른 리더십 배양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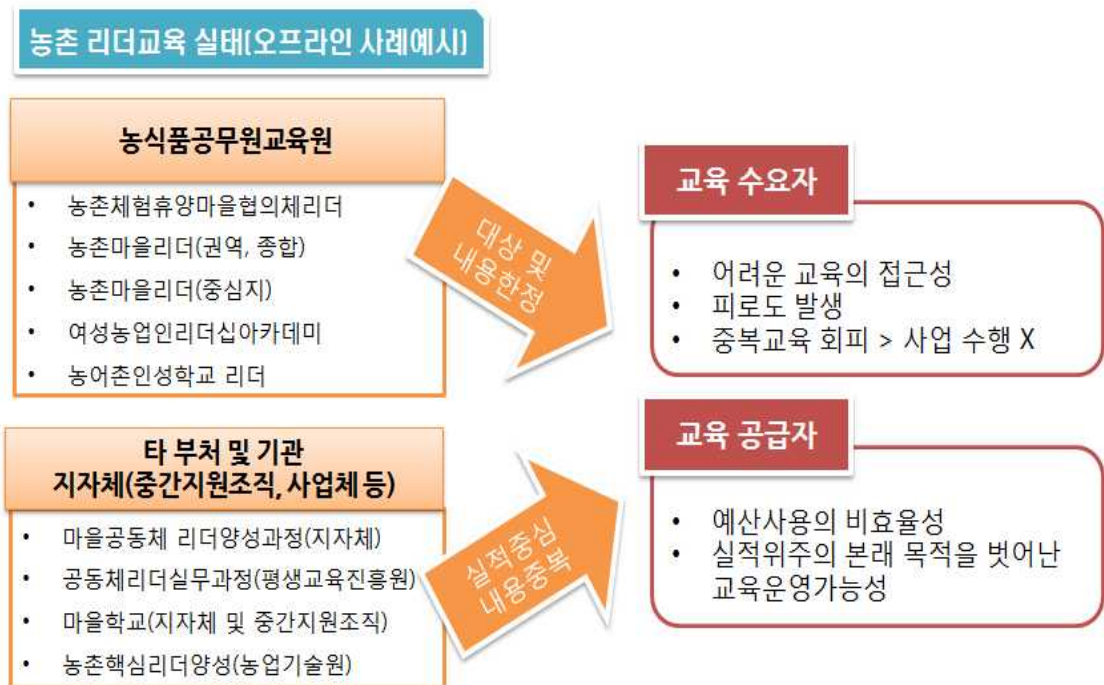
<그림 1-2> 진입단계 맞춤형리더 양성 체계



- 마을사업 추진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마을 단위의 통합적 리더 양성과정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타 부처는 물론, 이와 연계된 지자체 관련 부서 및 기관 등의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중간지원조직, 민간단체나 컨설팅기관 등에서 다방면으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으나,
 - 주최기관의 특성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역량을 집중적으로 양성 하는데 치중되어 내용이 한정되어있는 경우가 많고(농촌관광리더, 여성 리더, 농촌융복합리더 등),
 - 그 대상도 한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체험휴양마을 리더 대상, 권역리더 대상, 여성 대상, 소득법인 구성(예정)인 등)
 - 반대로 마을의 (예정)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다수 존재함에 불구하고, 공동체 또는 마을을 리드할 비교적 보편적인 리더십을 육성하기 위한 보편적 프로그램이 여러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교육프로그램의 독창성이나 적합성이 부족함
 - 이는, 필요교육의 탐색과정 또는 중복교육의 반복학습 등으로 인한 교육수혜자(리더)의 피로도를 증대시키면서 교육에 대한 기피현상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 이에 따라, 주최기관이나 시행기관은 예산활용의 비효율성과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도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오게 됨
 - 김승철 외(2007)은 이제까지 농산어촌 교육은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고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의식의 변화와 지식의 전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하면서,
 - 대상은 리더와 사무장, 특정 역할을 담당하는 주민들 전체가 주가 되었으므로 '선택과 집중' 이라는 전제 아래 농산어촌의 사업이 국가의

산업과 시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포괄적 경쟁 주체로써의 핵심 리더 양성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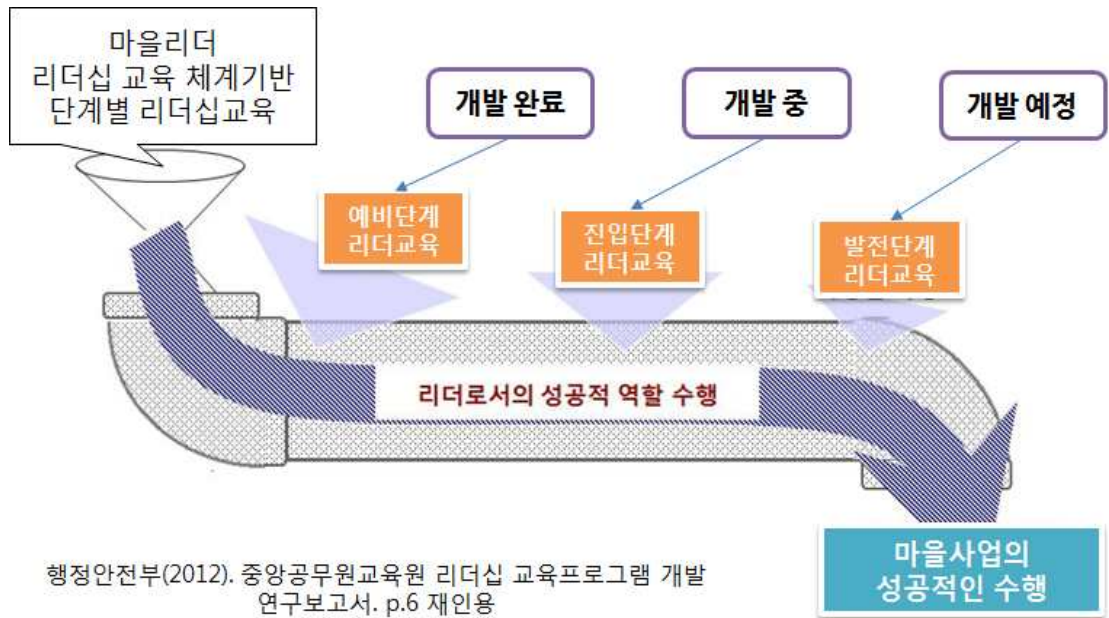
- 즉, 이제까지 교육 컨설팅 사업은 산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따라서 교육의 목적은 산업체에서 지향하고 있는 전략적 목표인 성과의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고 봄
- 마을리더역량강화교육의 예비단계과정을 연구한 충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2014)에서는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더의 역량강화 교육들은 단기적이며, 유사한 이론교육들이 반복되고 각 마을의 현황과 피교육자의 사업방향 등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론적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봄
- 따라서 단계별, 수준별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프로그램 간 차별성이 부족하여 사실상 단계별, 수준별 프로그램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판단함



<그림 1-3> 농촌 리더교육 실태(오프라인 사례)



- 단계적으로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역량개발의 기틀을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을리더 양성



<그림 1-4> 마을리더 리더십 교육 체계 구성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의 진입단계에 있는 마을리더가 갖추어야 할 역할-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를 확인하여 추진하고자 함

- 진입단계 리더가 강화해야 할 역량은 무엇인가?
- 진입단계 리더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 강화시킬 역할과 역량에 적합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농촌지역개발사업

○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특성

- 과거의 농촌정책은 중농주의, 발전주의, 산업주의에 정책이념이 치중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균형발전과 혁신, 신자유주의와 기업가주의의 이념을 가진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음
- 농촌정책은 농업정책의 종속이자 보완정도로 보아 농업기반과 정주환경에 치중하던 과거 정책과 다르게 농촌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
-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정책수행을 지향하던 과거 농촌정책과 다르게 지방정부, 주민,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상향식 개발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음
- 과거에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지방양여금을 기반으로 농촌정책을 수행하였으나, 현재는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 커지고 예산권이 증대되었으며 특별회계를 기반으로 수행

<표 II-1> 농촌정책 패러다임

구분	과거 농촌정책 패러다임	변화된 농촌정책 패러다임
정책이념	중농주의, 발전주의, 산업주의	균형발전, 혁신, 신자유주의, 기업가주의
정책목표	농업정책 종속, 보완	농촌지역(마을)개발, 복지, 삶의 질
정책대상	농업기반 및 정주환경	농촌 공간
수행방식	하향식	상향식
재정방식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정책주체	중앙정부, 공무원	주민, 지방정부, 공무원, 전문가
지방정부역할	중앙정부 종속 분배	분권화, 자율성, 예산권 증대

자료: 이해진(2009).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촌지역개발사업



○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전략비교¹³⁰⁾

- 하향식 개발(외생적 발전)

- : 국가나 기업이 주도하는 자본과 자원이 농촌사회 내부로 투입되어 개발이 이루어지는 방식
- : 지역 외부자원의 동원과 집중 여부에 따라 지역발전의 차이 발생
- : 외부로부터 하향식으로 전개되는 개발방식은 외부에 대한 의존과 종속, 권력 불균형, 개발이익의 차별적 배분과 불평등의 문제를 낳을 우려가 큼
- : 중앙집권적인 국가와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자본의 독점 및 지역 엘리트의 분과적인 이익독점에 의해 주도될 위험이 큼
- : 농촌의 차이들을 보편적 기술이나 물적 기반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극복하려는 입장

- 상향식 개발(내생적 발전)

- : 상향식 접근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강조
- : 지역사회 내부 역량, 공동체적 협력, 의사결정과정 등이 농촌개발의 성과를 다르게 만드는 요인
- : 지역적 특성이 지니고 있는 인적 역량과 환경조건의 차이들을 활용함으로써 발전의 성과를 달성하려는 입장
- :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이긴 하지만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음 - 암묵적으로 지역사회 내부의 합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작동하는 권력관계나 불평등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함
- : 지역엘리트나 개발 전문가들로의 영향력 집중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주민참여에 달려 있음
- : 농촌발전과 농촌개발사업의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사회의 사회적 관계의 특성과 역동성에 주목해야 함

- 신 내생적 발전론

- : 분권화와 파트너십을 조건으로 삼는 지역거버넌스 형성 지향

130) 이해진(2012). “농촌지역개발사업 성과와 차이와 농촌사회 발전에 대한 함의” p.10~14 재정리

- : 지역 내부와 외부 간에 전개되는 정치적, 제도적, 경제적 교환 관계 및 자연 자원과의 상호작용들이 어떻게 지역개발 과정에서 조장되고 관리되는 가를 중요시 다룸
- : 농촌 낙후성의 원인을 네트워크의 불균형, 즉 중앙정부와 같이 외부 세력의 힘이 강한 반면, 이에 대응하는 지역 내부의 능력이나 네트워크가 약하기 때문에 발생 - 지역 내·외부의 다양한 주체들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전전략
- : 소득사업, 활동가, 주체들의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등이 강조됨

<표 II-2> 농촌개발사업 전략 비교

구 분	하향식개발 (외생적 발전)	상향식개발 (내생적 발전)	신내생적 발전
핵심요인	규모의 경제와 집중	지역자원의 활용	지역내부와 외부의 상호 작용과 네트워크
주요동력	도시 성장 축 (외부로부터 농촌지역으로)	지역 주도권과 지역조직, 기업	세계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발전, 지식경제
차이요인	주변성과 낮은 생산성	제한적인 경제활동 참여능력	지역의 미약한 네트워크, 세계화된 경쟁과 자원배분
발전과제	농업 근대화 노동과 자본 이동 증대	역량구축 (기술, 제도, 기반구조) 사회적 소외와 배제의 극복	분권화와 지역주체 실행능력 경제발전에서 농촌지역 가치정립

자료: 이해진(2012). 농촌지역개발사업 성과와 차이와 농촌사회 발전에 대한 함의

○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흐름

- 1850~60년대에는 농사시험장이 농촌진흥청으로 개편됨에 따라 지역 사회개발사업은 농촌진흥청으로 이관되어 농촌지도사업으로 전환
- : 지리·사회·경제적 여건이 동일한 6~10개 마을을 묶어 733개(나중에 730개로 조정) 농촌진흥시범지역을 선정하여 1965년에는 전국 33,100개의 리·동 지역을 722개 자조지역으로 재편성하여 부락자조개발 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지도소의 지도사가 전담 또는 순회 지도함
- : 1969년에는 지리·경제적 조건이 동일한 2~3개 리·동을 단위로 지도사가 마을에 입주하여 지도하는 주재지역개발 지도사업, 1971년에는 유엔개발기구(UNDP)의 지원 하에 3강(안성천, 동진강, 상주천) 유역개발 사업이 추진됨



- 1970년대 새마을사업은 마을 생활환경정비를 위한 새마을가꾸기사업으로 시작하여, 1973년에는 개발대상마을을 전국 33,000여개의 행정리로 확대하여 추진
 - : 마을을 기본적인 단위로 두고 경제적 자립도에 따라 기초·자조·자립마을로 구분하고, 단계별 선별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원칙에 의해 생활환경개선 → 생산기반조성 → 소득증대 순으로 사업을 추진함
 - : 농촌의 전반적인 경제발전과 생산구조의 현대화에 대한 기여가 있었으나 하향식 접근방식에 의해 자율성이 극히 좁은 개발이었음
- 1980년대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농촌개발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정주생활권 전체를 포괄하는 정주생활권개발전략이 높은 공감대를 형성함
 - : 1985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부서가 되면서 계획 명칭이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으로 바뀌었으며, 1994년 말까지 전국 136개 군 지역 중, 109개 군에 대한 계획수립이 완료됨
- 1990년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어촌정비법 등이 제정되면서 농촌 지역개발사업이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시작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농공단지조성사업과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추진, 시군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등에 법적근거를 제공(2009년 폐지)
 - :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 :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 산업 육성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제시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농촌지역 개발사업의 법적 근거를 대부분 마련
- 2000년대는 도농통합적인 농어촌개발이 추진된 시기로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지속된 결과, 2000년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2007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편됨

: 2004년에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등 마을단위 상향식 농어촌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

- 2010년부터는 지방의 자율성 부족, 유사 중복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

: 포괄보조금제도는 재원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시도별로 부여된 한도 내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하는 사업임

: 기존 210개 지역개발계정사업을 24개 사업군으로 통합

: 농어촌개발사업의 대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농어업기반정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진행

<표 II-3> 농촌개발사업 전략 비교

기 간	주요정책	정책사업 및 프로그램 특성	공간범위	개발전략
1850~60년대	지역사회개발 (CD프로그램)	- 농업지도 - 생활환경개선	마을	하향식개발
1970년대	새마을운동	- 농업생산 확대 - 생산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 - 자원개발 및 소득증대 활동	마을	하향식 개발 자발적 참여 유도
1980년대	종합적 농촌지역개발	- 생산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 - 농촌산업화 추진 - 생산기반 개선 - 농외소득 기반 다양화	시·군	하향식 및 외생적 개발, 종합개발
1990년대	정주생활권 개발	- 생활환경 개선 - 개별 단위사업 증대 - 문화, 복지시설 확충	읍·면	하향식 개발 단위사업 중심개발
2000년대	복합생활공간 개발 삶의 질 향상	- 생활환경 정비 및 삶의 질 향상 - 지역특화 농촌 자원개발, 산업화 - 도농교류 증대 - 통합 농촌개발을 위한 제도수립	마을(권역) 읍·면	하향식, 상향식, 내생적 개발 종합
2010년대	통합적 농촌개발	- 포괄보조제도 도입 - 융복합산업화 추진 - 생활환경 정비 및 삶의 질 향상 - 지역 간 연계 협력사업 추진	마을(권역) 읍·면 지역 간 연계	상향식, 내생적 개발 자율적 개발 네트워크 전략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20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과분석 등 발전방향 수립 최종보고서



○ 지역역량강화와 리더 양성의 필요성 증대

- 2002년부터 시행된 중앙정부의 농촌개발정책 추진정책이 지역주민 참여를 토대로 하는 상향식, 공모제 방식으로 변화되고 2004년에 이르러 정착되어짐
-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지역내부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외부로부터의 자원유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정부정책사업 유치는 지역발전에 큰 의미가 있음
- 이는 지역주민의 역량이 곧 지역개발사업의 유치와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관건으로 대두되게 만들었으며 지역역량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됨
- 특히, 2010년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이후 개편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체계와 2015년부터 본격 적용된 역량단계별 지원은 체계적이고 보다 주도적인 주민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역량강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음
- 이중에서도 지역리더는 지역내의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이질적이고 혼재되어 상존하는 주민 간 복잡한 이해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공통의 합의를 도출하는 합리적인 관리기법과 헌신적인 신념 등을 가져야 하는 존재로서 지역발전의 핵심으로 여겨짐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개요

- 2010년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강화된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15개 사업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

- 목적: 농산어촌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을 향상함과 더불어 기초 생활수준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마을단위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목적을 둬
- 사업추진방향
 - :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상향식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
 - : 지역 역량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고 공동체 활성화 강화
 - : 법령과 사업지침, 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후관리 강화
 - : 농어촌 서비스 기준 등을 감안한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 역량단계별지원체계

- 예비단계: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기초 역량을 함양하는 단계. 이후 자체사업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평가
- 진입단계: 예비단계를 거친 마을을 대상으로 가능성 있는 마을에 마을단위 문화, 복지, 경관사업 등 5억 이하 중규모사업을 지원하여 기초생활 인프라를 보강하고 공동체 활성화 도모에 목적을 둬. 이러한 소액사업 추진성과과정 평가를 통해 발전단계 진입여부 결정
- 발전단계: 마을 역량을 결집하여 종합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마을 공동체에 활력이 넘치고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음. 진입단계를 거쳤거나, 유사사업실적이 있는 마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마을단위 대규모사업을 진행함
- 자립단계: 완료지구 활성화 또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간접적 지원. 대규모 마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 및 활성화를 도모하며 시설물 방치, 사유화, 협약 미이행, 주민갈등 등 정규모니터링 시행



<그림 II -1>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 진입단계의 리더

- 역량단계별 지원정책에 대한 단계별 구분은 현재 학문적으로는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음
- 단계별 사업공모 기준, 필수 이수 기준, 평가 기준 등 지원정책의 틀에 의해 단계가 구분되어있으며, 이와 관계하여 연구자나, 실무자는 정해진 지침의 틀에 준하여 단계를 이해함
- 본 연구에서는 해당 단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델파이를 시행하였으며,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입단계가 가지는 특징과 그에 따른 리더의 역할을 재해석함
- 무엇보다도 정책적 의미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이끌어가서 바람직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리더가 중요시 됨
- 진입단계 리더의 해석
: 예비단계에서 기초역량을 익히고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올라온 마을로서, 비로소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있음

: 사업시작 전과 시작 후에 중요시 되는 역할-역량이 혼합되어 있는 단계로서, 지속되어 강화될 필요가 있는 역할과 진입단계에서 중요시 되는 역할이 혼재되어 있음

: 그러나, 사업추진그룹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활동하는 시기이므로 다양한 역할에 필요한 역량강화가 총체적으로 필요하기도 함

3. 농촌마을 리더의 역할과 역량

○ 리더의 역할과 역량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리더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 언급되어 왔으며, 이를 농촌마을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선행연구 또한 다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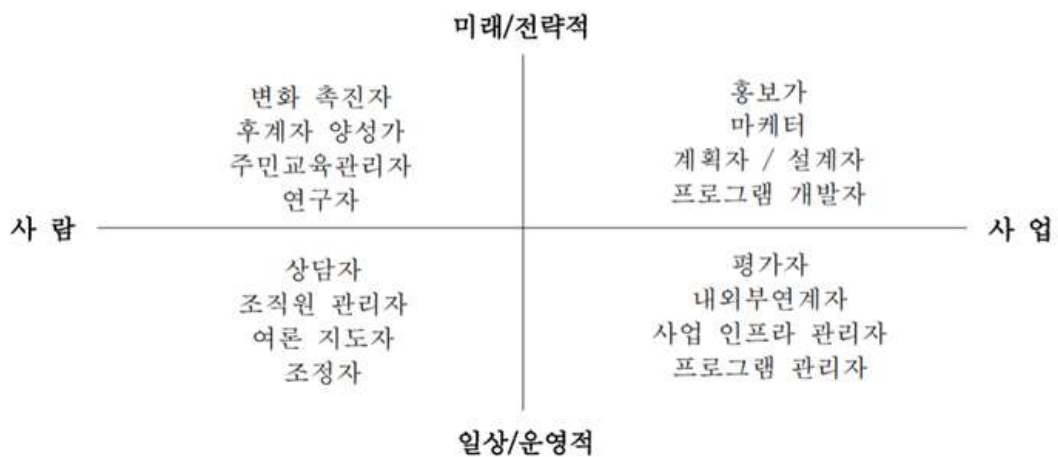
○ 리더의 역할 선행연구

<표 II-4> 리더의 역할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역할
Doland(1997)	계획자, 수행자, 조정자, 정보전달자, 기술보급자
Krechl(1963)	사업총괄자, 계획자, 설계자, 전문가, 집단대표, 조정자, 평가자, 중재자, 시범자
김진군(1985)	선도시범자, 영농지도자, 농민상담가, 조직육성자, 지도보조자, 건의 대변자, 지도홍보자, 농민유대자, 부락개발자, 조사연구자
김진모(2003)	수행분석자, 기술내용전문가, 조정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자, 강사(전달자), 상담자, 그룹촉진자, 업무시스템분석자, 조직/시스템설계자, 조정자, 고객요구 분석자, 정보제공자, 지역사회 자원 동원자, 마케터
박은식 외(2005)	변화촉진자, 의사소통자, 혁신자, 협상자, 창출자, 조직가, 관리자, 점검자
안명반(1983)	결정자, 상담자
오무근(1987)	계획자, 집행자, 조정자, 상담자
왕인근(1982)	청소년지도자, 조직지도자, 농민훈련가, 정보전달자, 기술보급자, 생활개선가
정린경(1981)	계획자, 조정자, 선도자, 교육자, 관리자
황인정(1997)	계획자, 집행자, 조정자, 교육자, 기술보급자
황영모, 소순열(2004)	계획자, 수행자, 조정자, 정보전달자, 기술보급자



- 박은식 외(2005)는 “선도적 농촌마을 리더역할 분석 및 벤치마킹 방안 연구”에서 여러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4사분면으로 리더의 역할을 유형화함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박은식 외(2005)가 도출한 16가지의 역할을 기반으로 조사를 시행함



<그림 II-2> 리더의 역할 유형화

○ 리더의 역량 선행연구

<표 II-5> 리더의 역량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역량
Meiner(1978)	권위 있는 인물에 대한 긍정적 태도, 동료들과의 경쟁 욕구,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려는 욕구, 타인에게 권력을 행사하려는 욕구, 일상적인 관리활동을 수행하려는 의지로 분류하여 수행한 바 있음 (홍성근, 2003)
김종인 외(2003)	성취지향성, 주도성, 정보수집, 고객지향성, 영향력, 타인육성, 지시와 주장, 팀워크와 협력, 팀 리더십, 분석적 사고, 개념적 사고, 자기확신, 비전창출, 변화선도, 공유된 욕구창출, 비전설정, 참여 및 몰입유도, 시스템 구조변화, 변화 모니터링, 변화지속

<표 계속>

연구자	역량
박은식(2006)	정보역량, 비전제시, 의사결정, 동기부여, 의사소통, 구성원육성, 구성원 관리, 학습역량, 유연성, 문제해결,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관리, 고객 지향, 서비스지식, 관계구축, 아이디어 창출, 마을사업 이해, 브랜드 개발, 갈등관리, 협상역량, 성과측정, 벤치마킹, 사업관리, 코칭 및 피드백
박한식(2008)	사업관리 역량군(타인육성, 주도성, 합리적 사고, 성과지향성, 조정력, 팀워크/협력, 고객지향성, 투명한 관리), 자기관리 역량군(창의적 개선, 학습지향성, 지속적 도전, 기획력, 관계성, 자기혁신), 공동체지향 역량군(원칙준수, 조직헌신)
안동규 외(2006) 이오성(2006) 허장·정기환(2003)	마을에 헌신과 열정, 마을(주민)공동체의 형성, 도덕성, 확고한 신념, 비전제시, 인내심, 효과적인 의사소통, 폭넓은 대인관계, 효과적인 관리 능력
이동희(2006)	적극성, 주도성, 정확성, 섬세함, 긍정적 사고, 고객지향성, 책임감, 조직 헌신, 자발성, 자신감/자기혁신, 자기조절, 자기관리, 자기개발, 팀워크 /협력, 친화력, 언어커뮤니케이션, 리더십, 통찰력/판단력, 순발력, 유연성/융통성, 전문지식, 외국어능력, 국제적 감각, 세련된 메너/스킬, 정보수집/준비성
전영욱·김진모 (2005)	정보수집가공, 조사분석, 연구, 사업이해, 조직이해, 비전설계, HRD관련 전문성, 관계형성, 피드백, 변화관리, 문서작성, 커뮤니케이션, 프리젠테이션, 프로젝트관리, 미디어 활용, 집단과정촉진, 갈등관리, 자기통제, 아이디어 창출, 성인학습 이해, 진단 및 평가역량, 학습환경분석 및 운영
황길식(2006)	대인/영향력 역량군(고객지향성, 영향력), 관리 역량군(투명한 관리, 체계적 사고, 권한 위임, 타인육성), 성취/행동 역량군(성취지향성, 지속적 도전, 주도성, 창의성, 개선), 개인효과성 역량군(원칙중심사고, 유연성, 학습지향, 조직 헌신)

- 충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2014)는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의 효율성 재고를 위한 리도 교육 프로그램 - 예비단계마을 리더과정”에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5가지의 역량군과 세부역량을 구분함
-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 리더의 필요역량을 선행연구 기반으로 도출해 낸 충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2014) 연구의 역량군을 기반으로 기초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전문가의 추가의견을 수렴하여 가감함



<표 II-5> 농촌마을 리더의 역량 구분 및 설명

구분	하위 역량	역량 설명
인간관계 역량군	관계형성, 고객지향성, 공동체 형성, 포용력, 의사결정력	집단의 성원으로로서 효과적으로 일하는 동시에, 집단 내에서 협력적으로 노력을 창출하며 타인과 맺는 관계에서 작용하는 능력
감성/인지 역량군	자기관리/개발력, 창의력, 사고력/통찰력, 애농심, 조직헌신성/열정, 변화선도력, 문제해결력	자신을 자각하여 존중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으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고 집단 내에서 조화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
관리 역량군	팀워크, 모니터링, 추진력, 직업의 충실성, 비전창출, 사업의 주체성, 자원관리능력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개인의 역량이 조직 차원에서 원활히 수렴되고 변화하도록 하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군	경청, 의사소통, 정보공유력, 외국어 능력, 전달능력	농촌마을의 리더 및 주민과의 관계나, 농촌마을을 찾는 방문객들과의 관계에서 쌍방이 서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는 의사소통 능력
산업지식/기술역량군	농촌전문지식, 상품개발력, 벤치마킹, 문화이해력, 경영관리능력, 농장관리능력, 마을해설력, 체험지도력	농업생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으로서의 복잡한 산업구조와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니고 실천하고 전파하는 능력

자료: 충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2014).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리더교육프로그램 - 예비단계마을 리더과정

○ 농촌마을리더의 역량강화

- 박진도 외(2004) 는 역량(capacity)이란 본래 추상적 개념으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이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Macadam et al, 2004),역량강화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고,
- 역량강화라는 개념이 농촌개발에 대한 풍부한 함의를 담고 있지만, 이와 같이 구체적 정의가 논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과 오해를 낳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 여러 정의를 종합해서 “기존의 관행이나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변화

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열함

: 역량강화의 목표가 바로 설정되어야 함

: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성격을 가져야 함

: 다양한 지역자원을 묶는 무형의 관계적 자본, 즉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이 중요

: 대상에는 대상지역에 사는 개인과 집단, 그리고 그를 지원하는 기관도 포함

: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적 접근(regional approach)

: 지역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

○ 농촌마을리더의 역할과 역량의 강화에 대한 고찰

- **농촌마을리더의 역할**은 선행연구의 기업체 리더의 역할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공간적인 특수성과 사회문화적인 특성으로 다양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의 제도와 자금지원에 따른 역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마을 계획 수립과정에 반영, 집행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개발과 성과를 주민에게 합리적으로 배분, 주민상호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진입단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주요 역할을 짚어볼 필요가 있음
- **농촌마을리더의 역량**은 사업수행의 목적(성과)에 기여하는 능력, 마을 내적, 외적 환경조건하에서 특정 직무 및 역할이 높은 성과의 달성 및 효과적인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인의 지식, 기술, 가치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것을 특징으로 함
- 즉, 농촌마을리더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진입단계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목적인 바를 이뤄내기 위한 역량은 어떤 것인가 파악할 필요가 있음



4. 리더역량강화 프로그램 사례

○ 국내 사례

- 국내의 공공기관에서 목적성이 있는 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역량강화와 관련된 비용을 활용하여 전방위적 교육을 기획·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놓고 보았을 때,
- 주최기관의 특성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역량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데 치중되어 내용이 한정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 농촌관광운영능력, 여성리더십, 농촌융복합능력 등
- 그 대상도 한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 체험휴양마을 리더, 권역리더, 여성농업인, 소득법인 구성(예정)인, 특용작물 재배 농업인 등
- 한편, <표 II-6>에서 보듯이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와 관련 된 다양한 프로그램만을 놓고 보더라도 주요 교육내용에 따라 목적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대상도 특정 대상이나 소수인원으로 이루어져 체계적 마을 만들기 리더 학습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음
- 반대로 마을의 (예정)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다수 존재함에 불구하고, 공동체 또는 마을을 리드할 비교적 보편적인 리더십을 육성하기 위한 보편적 프로그램이 여러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교육프로그램의 독창성이나 적합성이 부족함
- 이를 토대로 볼 때, 교육목적에 따라 수강자를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설립하는 것을 지향하되,
- 사업에 따른 역할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하여 단계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등 다각화, 다변화, 체계화 된 교육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함

<표 II-6> 국내 마을 만들기 관련 주요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사례

시행기관	과정명(대상)	회차	교육기간	계획인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촌지역개발 및 공동체육성	4	5일	140
	농촌마을리더만들기(농업인리더)	1	3	35
	농촌마을리더(중심지)	2	3	65
	농촌현장활동가육성(심화)	1	4	30
	인성학교 운영(마을리더)	1	3	35
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사무장 기본	4	3	100
	사무장 심화	2	3	60
	사업 5주체 합동교육	2	2	50
	신규지구 추진위원 교육	5	1	250
	중심지활성화 PM교육	2	2	40
농어촌공사 농촌개발처	중심지활성화 리더교육	2	3	60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4	4	100
	농어촌퍼실리테이터 보수교육	1	2	30
농촌활성화지원센터	퍼실리테이터 고도화	1	3	30
	농촌현장활동가육성(초급)	18	3	350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마을리더교육(예비단계)	27	3	930
	지역개발실무	1	4	40
지방자치단체(광역) 애시	농어촌지역개발과정	6개대학	6개월	60
	충남3농혁신대학			
지방자치단체(기초) 예시	경북농민사관학교			
	시군 농업대학 및 관광대학(위탁)			
민간단체 예시	마을학교			
	벤처농업대학			
	농업마이스터대학			
	컨설팅기관 - 역량강화사업비(S/W사업비)를 활용한 프로그램 계획·운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2018년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관계자 워크숍 자료 재정리



○ 국외 사례

- 유럽: LEADER 프로그램

- : LEADER 프로그램의 추진체계와 내용,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문헌에 소개되어 있으므로¹³¹⁾ 박경(2003)의 연구에서 정리한 LEADER 프로그램 특성을 보면,
- : 첫째, 종래의 정책이 특정 경제부문(예, 농업)을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 지역적 접근을 하고 있음
- : 둘째, 주민참가에 의한 상향식계획을 지향함. 계획의 수립, 실행, 관리와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주도가 이루어짐
- : 셋째, 상향식 접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트너십을 강조. 주민 참가와 지역자원의 최대한 활용을 위해 다양한 부문(농업, 상공업, 관광 등 업계 대표)과 주민단체(환경, 복지 등) 및 공공(지방정부나 개발기관),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활동가그룹을 구성하도록 함
- : 넷째, 통합적 접근 추구. 농촌관광, 중소상공·수공업, 농산물의 마케팅 등 다양한 부문을 지원하되, 개별사업이 나열적 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의 주제 아래 통합성을 가져야 함. 즉 통합된 주제아래 구체적인 하위사업계획이 수립 됨
- : 다섯째, 혁신성 강조. 기존의 주류 농촌지역정책에서 사용되거나 계획된 활동을 되풀이하여서는 안 되며,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창출, 새로운 지역 내 자원의 조직, 새로운 주민참여 방식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해야 함
- : 여섯째,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즉 EU가 주도하는 커뮤니티 사업이지만 농촌 현장의 기본활동단위인 지역활동그룹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의 전 과정을 책임지며, 상층부의 추진단위(중앙 및 지방정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사업승인과 지원에만 기능을 국한함
- : 일곱째,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간 그리고 사후평가를 철저히 함. 이를 위해 EU 위원회에 별도의 기구를 두지만, 지역활동그룹(LAG)은 프로그램의 시행에 대한 일상적 체크와 평가를 하고 그것을 지역의프로그램 모니터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131) 김정섭(2002), 柏雅之(2002), 田畑 保編(1999), 井上和衛 編(1999), Barke, M, M. Netown(1997), LEADER European Observatory(1999), Ray C(2000), LEADER European Observatory(2001) 등

- 미국: FSP(Kellog Farmers Study Program)

- : 농촌주민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인간성과 사회과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세계의 경제 및 정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전제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
- : 미국사회가 내제하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기본 틀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농업 및 농촌지역사회의 복잡한 문제와 독특한 관심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 “다재다능한 농업리더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5개의 3개년 과정(매년 30명)에 참석한 150명의 남성 농민 대상
- : 첫째에는 지역 및 주의 이슈 학습, 2년차에는 전국적 이슈, 마지막 3년차에는 국제적 토픽을 학습

- 미국: CALD(Community Action Leadership Development)

- : 기존의 프로그램은 통합된 비전이 결여되어 있으며,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의 실행결과로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가 희박하고, 일반적으로 단기적이고 하향식(top-down)이며, 변화를 원하는 조직의 체계적 발전보다는 개인의 성취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
- : 이에 따라 개인 중심에서 집단 중심으로, 정형적으로 포장된 커리큘럼에서 관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사용자의 희망에 맞춰지는 교육과정으로, 이산적 리더십 개발에서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이 인식하게 되는 구체적 이슈가 내재한 리더십 개발로 이행됨
- : 협력적(collaborate), 촉진적(facilitative), 공유되는(shared), 그리고 떠받드는(servant) 리더십이 강조
- : 특히 CALD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미시간주립대학지도소(MSUE)의 리드넷(Leadnet)은 촉진적 리더십에 중점을 둠
- : 계획 및 실행의 7가지 원칙은, 첫째, 참가자들을 디자이너가 되도록 해야 하며, 둘째, 가능한 한 참가자들의 다양성이 최대화되고, 셋째, 경험적·참여적 학습 과정을 활용하고, 넷째, 참가자들 간 지역사회 감각(sense)을 구축하며, 다섯째, 융통성(flexibility)을 허용하고, 여섯째, 반성(reflection)을 허용하며, 일곱째, 지속적인 리더십 교육을 계획하는 것임



- 호주: BRL(Building Rural Leaders)

- : 개인, 산업, 지역사회, 애그리비즈니스를 대상으로 리더십과 전략적 사고방식의 기법을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기본적으로는 기업, 산업, 지역사회 차원에서 농촌주민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주로 발상의 전환, 새로운 기법 개발, 자기 확신의 고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 비즈니스, 지역사회, 정부, 산업 등 각 영역에 있어 리더십의 역할에 대한 개인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일련의 기법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 총 7개의 모듈로 구성되며, 각 모듈은 각각 4일간 운용됨
- : Module 1(변화의 이해 및 관리, 리더십 스타일에 관해, 개성의 차이에 대한 이해 및 인정), Module 2(건전한 자신감 및 자기존중심 갖기, 의사소통, 목표 설정, 시간관리, 갈등관리, 스트레스관리), Module 3(그룹으로 일하기, 높은 성과를 내는 팀 만들기, 팀 내의 역할분담, 피드백 절차)Module 4(미래지향적 조직 구축, 문제식별 및 문제해결, 창조적이고 수평적 사고방식, 마케팅의 이해, 협상, 의사결정, 프로젝트의 수행), Module 5(효과적 네트워킹 형성, 시나리오적(행동계획적) 사고, 세계적 트렌드 이해, 효과적 자기표현), Module 6(효과적 메시지 전달, 미디어 다루기, 인터뷰기법, 모듈 1에서 6까지 습득한 기술의 통합

- 호주: ARLP(Australian Rural Leadership Program)

- : 리더십기술 개발, 아이디어와 경험의 공유 및 현안 발굴을 통한 지식 및 이해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자금은 스폰서에 의존함
- : 참가자들은 스폰서십에 의해 결정되며, 지역별, 품목별, 산업별, 조직별로 선발됨
- : 1년 반 동안 진행되는 60일간의 코스로 운영됨(2주일: 리더십 개발활동 / 1주일 코스(5회): 호주 전지역 주요 이슈 학습 / 2주일: 해외학습여행)
- : 리더십이론, 자기인식, 가치 및 윤리, 비전개발하기, 갈등해소하기, 의사소통, 미디어와 함께 일하기, 변화관리, 네트워킹, 1차산업의 인프라와 사례연구, 생산, 마케팅, 작업장관리, 경쟁, 연구개발, 채용조달, 농업 및 자연자원관리의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및 정부 정책, 지역의 역량강화(capacity-building), 사회적 이슈, 토착의 이슈,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해외무역, 국제시장 및 시장접근, 경쟁가능성, 안보 및 조인트벤처

- 일본: 지역활성화센터의 지역리더양성학당

- : 넓은 시야, 깊은 식견, 탁월한 상상력과 풍요로운 인간성을 겸비하고 항상 문제의식과 확고한 사명감을 가진 적극적·주체적인 지역리더 양성
- : 1년간 6회 교육을 마친 교육수료자들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 지역지도자로 활동하도록 함
- : 체계적 연수: 교류와 인재육성, 주민참가와 협동, 환경·경관, 지역경제진흥, 지역경영, 능력개발 등의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지역만들기에 필요한 연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 실천을 중시하는 실무형 연수: 통상적인 강의 이외에 워크숍, 토론 등의 연습을 대폭 도입하고, 전문가, 행정·민간의 실천가 등 다양한 강사진이 실천을 중시하는 연수를 수행하고 있음
- : 지역의 장래를 모색하는 소수정예의 연수: 주임강사에 의한 소수정예의 세미나를 개설하고, 조사·연구를 통해 '스스로 사고하는 방법'을 학습함
- : 수료자 지원: 수료 후에도 자질 향상을 위해 수료자 연수회(일반 연수와 합동으로 개최), 수료자 정보교환회(전국 5개 블록별로 개최) 등을 실시

- 일본: 그린투어리즘인스트럭터 육성스쿨

- : 2001년 3개의 재단이 통합되어 신설된 도시농산어천교류활성화기구의 그린투어리즘 관련 리더 양성 프로그램
- : 주로 지역의 공무원, 농협직원, 관광업계 종사자와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학생들도 참여, 수료자 대부분은 지역에서 그린투어리즘 리더로 활동
- : 에스코트과정: 그린투어리즘 인스트럭터과정의 입문편. 농림어업의 체험이나 지역경관 등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지역에서 즐기는 방법을 전달하는 '지역안내인'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
- : 인스트럭터과정: 그린투어리즘 인스트럭터과정의 실천편. 농림어업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자연체험활동 등을 지도하는 '체험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
- : 코디네이터과정 : 그린투어리즘 인스트럭터과정의 고급편. 농림어업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기획·입안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구성원의 의견을 조정하는 '기획입안자'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



- 외국의 경우 농촌지역개발에 있어 지역사회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이 강조되고 있음: 특정 부문이나 영역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보다는 지역사회 전체의 역량강화라는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비전 만들기, 공동체 형성, 함께 일하기 등에 필요한 주민의 의식 및 태도,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을 강조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은 국가에서 직접 주도하는 경우(호주의 BRL)도 있지만, 주로 민간이 전적으로 주도하며, 정부 등은 재정지원, 행정지원 등의 서포터로 기능하는 것이 일반적 시스템이며,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 기업, 재단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임
- 단기의, 1회성 코스로는 중대한 행동변화, 태도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모든 프로그램의 공통된 인식. 따라서 지역사회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중장기로 운영되고 있음
- 농촌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 즉 농업인, 애그리비즈니스관계자, 행정, 지역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공동학습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기를 강조하고 있음

5. 리더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모델

○ ISD(Instructional Systems Development(Design)) 모델

- ISD모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 교육훈련과정에서 만들어진 모델로서, 교육요구분석을 강조하여 요구 및 필요분석(needs analysis)은 물론 직무분석, 주제분석 등의 결과를 가지고 교육 필요점을 도출하게 됨
- 이 모델은 교육프로그램개발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교육요구분석단계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요구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기 때문이라는 신념 때문임. 따라서 교육요구분석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실행, 평가의 모든 과정이 이뤄지게 됨

○ CBC(Competency Based Curriculum) 모델

- 종래의 기업교육에서 직무가 단위화되어 분명한 직무분석과 그에 따른 교육과정개발이 명확하던 것과 대조적으로, 최근에는 직무가 종합화되고 포괄적인 능력이 중시되면서 교육과정개발의 모델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짐
- 이렇게 해서 등장하게 된 대표적인 모델이 CBC모델인데, 이는 단위 직무나 작업을 중심으로 요구되는 기술, 지식, 태도를 교육하던 기존의 ISD 방식과 달리 교육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Competency)을 분석·추출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것임
- 다시 말해, 조직 구성원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역할(Function) 및 성과(Performance)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과목을 도출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체계를 말함
- 여기서 역량(Competency)이란 성과에 기여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조직의 내적, 외적 환경조건하에서 특정 직무 및 역할에 있어 높은 성과의 달성 및 효과적인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인의 지식, 기술, 가치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특징을 의미함

○ ISD모델과 CBC모델의 비교

- ISD모델은 현재의 직무분석에서 출발하여 과업에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를 제공할 수 있는 과정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평가하게 되나, CBC모델은 기대되는 성과결과를 분석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분석하게 되며, 여기에서 선정된 우선요구 역량을 구성하는 가치·지식·기술을 찾아내고 이를 역량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발하는 것임
- 우선 ISD모델이 개발과정 중 직무, 과업 등 활동(Activity)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CBC모델은 기대되는 성과(Performance)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역량(Competency) 등 전반적인 과정(Process)에 중점을 둬



- 또한 ISD모델의 접근방법은 대상자의 요구분석에서 출발하는 상향식(Bottom-up) 스타일로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는 반면, CBC모델은 전문가의 하향식(Top-Down) 스타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둠
- CBC모델은 ISD모델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최근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교육대상자의 종합적 역량이 강조되면서 성과 중심의 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CBC모델이 많은 기업들과 공공영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표 II-7> ISD모델과 CBC모델의 비교

구 분	ISD (Instructional Systems Development)	CBC (Competency Based Curriculum)
검토영역	직무, 과업 등 활동에 포커스	성과와 이를 위한 역량에 포커스
접근방법	상향식(Bottom-up)	하향식(Top-Down)
분석대상	직무와 과업	역량과 성과
구성요소	지식/기술/태도	지식/기술/가치
소요시간	과제분석 등 1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간 소요	과정목표 수립까지 2~3주 단기간 소요
종합	활동이 전제 >결과를 알 수 있다. 활동을 동사형으로 기술 현재의 상태를 파악	성과가 전제 >결과를 알 수 있다. 결과를 명사형으로 기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파악

자료: 박진도 외(2004). 농촌지역리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

- 본 연구의 리더교육프로그램 개발에서는 지역리더의 역할과 역량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CBC모델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방식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지역리더가 수행하는 역할을 도출하여 이에 맞는 역량을 찾아내는 절차를 선택하였음
- 즉, 교육대상이 되는 농촌지역리더의 역할과 역량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식, 기술, 가치를 성장시키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임

III. 연구방법

1. 조사기법 : 전문가 델파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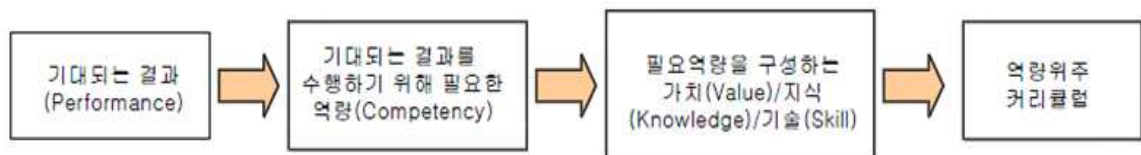
- 델파이조사는 통상적인 대면 방식이 갖는 단점인 그룹 내의 상호작용을 없애기 위해 익명성을 매우 중요시 하여 응답에 대한 수정기회를 보장하고 라운드를 반복 수행하여 그룹 전체 의견을 통계적으로 집계하고 의견의 분포적 특성을 제시하는 방법론적 특성을 갖고 있음
-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델파이조사의 특징을 적용하여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도록 전문가 패널을 공개하지 않으며, 만약 우연히 패널로 참여하는 다른 사람을 알았더라도 의견 교환은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가능한 줄이고자 하였음
- 수정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3회의 라운드 실시함
 - 1라운드: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자율선택이 가능한 반개방적 질문지
 - 2라운드: 1라운드의 결과에 기반한 우선순위 및 중요도 선택 질문지
 - 3라운드: 2라운드 분석결과지 및 2라운드 본인작성 질문지를 포함한 재선택 질문지
-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조사에 참여하는 패널들에게 개방형의 설문지를 주고 관련 주제를 선정 하는 전통적 방식을 일부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함



- 즉,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리더의 역할과 역량을 나열하여 진입 단계 리더에게 필요한 부분을 무작위로 찾는 단계가 전통적 1라운드인 브레인스토밍에 해당함

2. 프로그램 개발모델: CBC(Competency Based Curricul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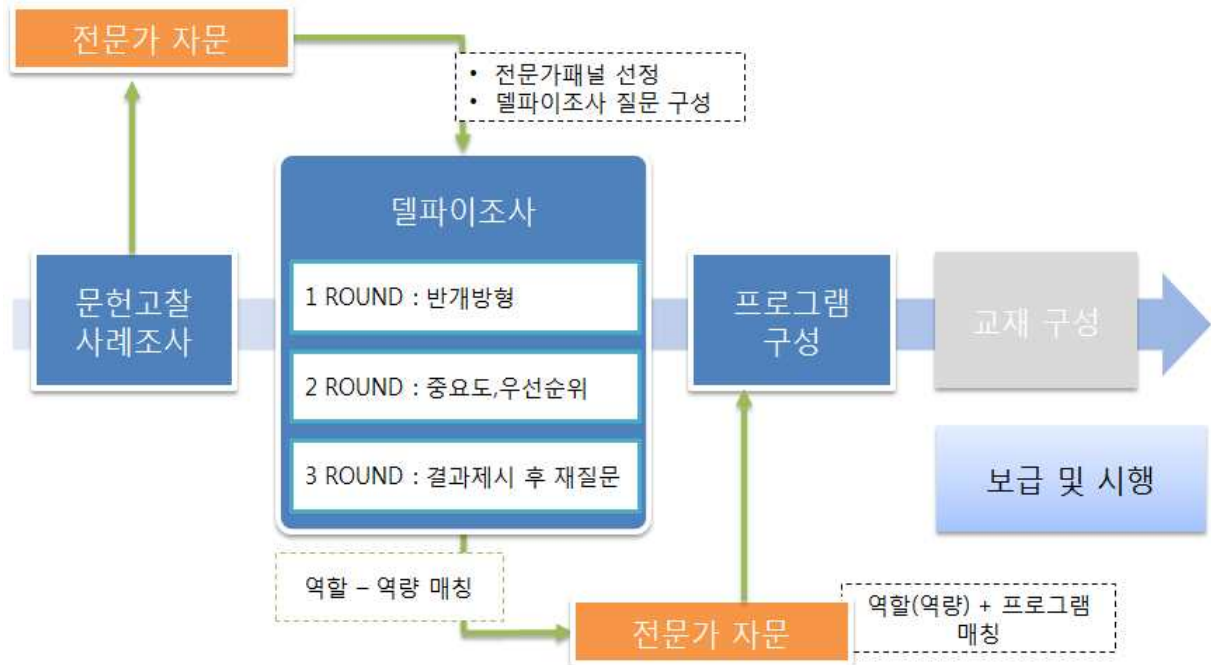
- 교육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와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역량을 분석, 추출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교육과정 개발 모델
- 조직 구성원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역할 및 성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과목을 도출하여 교육과정 개발
- 전문가 하향식 스타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파악하는데 중점
- 비교적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으며,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교육대상자의 종합적 역량이 강조되면서 성과중심의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방식으로 널리 활용되어지고 있음
- 교육대상(마을리더)의 자질과 역량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실천 과제를 발굴하여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식, 기술, 가치를 성장시키는 교육과정 개발



<그림 III-1> CRC모델 프로세스

자료: 박진도 외(2004). 농촌지역리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

3. 연구흐름도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 선정

- 델파이조사에서 전문가 선정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Yun and Jin, 1983; 김형수, 1996), 누가 전문가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Judd, 1972)임. 단순히 전문가 수(조사대상자 수)를 늘릴 수만은 없음(강영호 외, 1996)
- 이성웅(1987)에 따르면, 적당한 패널의 수에 대해서는 델파이 조사의 선구자 Dalkey의 연구에서 같은 문제에 대해 복수그룹의 예측결과가 단위 그룹크기가 15명 정도이면 그룹간 예측결과의 차이가 많이 생기지 않음을 발견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중간보고 및 전문가자문을 거쳐 대상자를 24명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함
- 전문가 패널을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세 가지 분야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하고, 각 분야의 인원 배분을 고려함
 - 첫째, 농촌지역개발 관련 연구 전문가 8명: 농촌지역 개발과 관련된 연구, 평가 등을 수행하는 학계 교수
 - 둘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실무자 8명: 농촌지역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컨설턴트, 연구원
 - 셋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리더 8명: 진입단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이를 완료하고 발전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리더

○ 최초 1차 설문에서 21명이 응답하였으며, 해당인원이 3차까지 지속적으로 조사에 참여함

○ 최종 응답자 현황

- 교수 7명, 실무 및 연구자 8명(각 4명), 마을리더 6명

<표 IV-1> 최종 응답자 현황

구 분		전문분야	구 분		전문분야
P01	리더	마을위원장	P12	교수	지역사회개발
P02	교수	농촌계획	P13	실무	농촌개발컨설턴트
P03	연구	지역사회개발	P14	교수	조경학
P04	교수	지역산업분석	P15	연구	지역사회개발
P05	리더	마을이사/위원장	P16	교수	농업경제
P06	리더	마을위원장	P17	교수	농업경제
P07	교수	농업경제	P18	실무	농촌개발컨설턴트
P08	리더	마을이사/총무	P19	연구	농촌계획
P09	실무	농촌개발컨설턴트	P20	리더	마을위원장
P10	실무	농촌개발컨설턴트	P21	리더	마을위원장/이사
P11	연구	조경학	합계	21명	

2. 질문지 구성

○ 1차 설문(11p)

- 과정세부목표: 선행연구 기반 세부 목표 나열, 우선순위(3가지), 선택 이유 및 추가의견 수렴
- 리더의 역할: 선행연구 기반 16가지 중 필요역할 선택(5가지), 선택 이유 및 기타의견 수렴



- 리더의 역량: 선행연구 기반 37가지 중 필요역량 선택(15가지), 선택이유 및 기타의견 수렴
-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 나열, 프로그램 선택(5가지), 선택이유 및 기타의견 수렴
- 참여대상, 교육주체, 교육방식에 대한 선택형 질문, 선택이유 및 추가의견 수렴

○ 2차 설문(16p)

- 과정세부목표: 1차 설문 집계결과 순위 제시, 결과확인 후 2가지 재선택
- 리더의 역할: 1차 설문에서 선택 및 추가된 역할 16가지 제시, 중요도 선택(7점 척도)
- 리더의 역량: 1차 설문에서 선택 및 추가된 역량 39가지 제시, 중요도 선택(7점 척도)
- 프로그램: 1차 설문 응답결과 제시, 추가 프로그램 의견 수렴
- 역할-역량관계: 16가지 역할 수행을 위한 역량(역량군으로 구분) 우선 순위

○ 3차 설문(16p)

- 리더의 역할: 2차 설문 집계결과 및 본인응답 제시. 이를 고려한 중요도 재선택
- 리더의 역량: 2차 설문 집계결과 및 본인응답 제시. 이를 고려한 중요도 재선택 및 2차 설문 집계결과(평균)와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이유 제시
- 역할-역량관계: 2차 설문 집계결과 순위 제시, 결과확인 후 2가지 재선택, 역량이 역할수행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자유키워드

3. 분석결과

○ 진입단계 리더교육 세부목표

-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7가지 리더교육 목표제시, 1차 설문에서 3가지를 선택하여 우선순위 ⇒ 2차 설문에서 1차 결과제시 후 2가지 선택

〈표 IV-2〉 진입단계 리더교육 세부목표 선택률

세부목표	선택률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개발사업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	59.1%
자발적인 참여 및 지속적 학습의 동기부여	45.5%
리더십 기법 습득	40.9%
리더의 개인성장	22.7%
부분내지 분야별 전문지식 습득	24.6%
사회전반 및 농촌지역 제반문제 인식관련 전반적 지식습득	4.5%
비판적 사고능력 제고	4.5%

- 진입단계 리더교육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개발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리더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 학습 동기를 부여 하는데 목표가 있음

○ 진입단계 리더교육 참여대상

- 농촌지역의 다양한 주체를 제시하고 진입단계 리더교육에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할 대상이 누구 인지 3순위까지 순위책정
- 진입단계는 마을사업을 진행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추진 주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이들을 뒷받침할 자생적 마을지도자 및 농촌지역주민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결과가 제출됨



<표 IV-2> 진입단계 리더교육 참여대상 순위

참여대상	점(순위)
마을사업 추진(운영)위원장 및 추진(운영)위원	49(1)
자생적 마을지도자(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31(2)
농촌지역주민	15(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4)
농민단체 활동가	8(5)
농촌지역 소재 농업관련기관(농협, 농어촌공사 등) 임직원	6(6)
시민사회단체(농민단체를 제외한) 활동가	4(7)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2(8)
농촌지역상공인	0(9)

○ 진입단계 리더교육 교육주체

<표 IV-3> 진입단계 리더교육 교육주체 응답률

교육주체	응답률
중앙/지방정부가 기획하고 민간에게 위탁하여 수행	42.9%
민간이 기획하고 정부가 지원하여 수행	38.1%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	19.0%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	0%

- 전반적으로 민간에서 운영해야함은 공통된 의견이나, 교육을 기획함에 있어서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대한 의견은 차이가 있었음

○ 진입단계 리더교육 추진방식

<표 IV-4> 진입단계 리더교육 추진방식 응답률

교육방식	응답률
합숙교육 - 전 시간 [예시: 2박3일, 3박4일 등]	38.1%
합숙교육 - 시간분할 [예시: 1박2일 2~3회 분할 등]	33.3%
비합숙교육- 단기간 [예시: 1일 2시간 2주 교육 등]	28.6%
비합숙교육- 장기간 [예시: 주 2시간 3개월 교육 등]	0.0%

- 전반적으로 합숙교육을 운영하자는 의견이 다수이나, 농촌여건에 따라 시간을 분할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진입단계 리더의 역할

- 리더의 역할은 박은식 외(2006)에서 정리한 역할테이블을 기초로 하여 추가의견을 수렴하고 각 역할에 대한 중요도를 확인함(7점: 매우 중요함 ~ 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 1차: 역할 선택 및 의견수렴 ⇒ 2차: 선택 및 제시된 역할의 중요도 ⇒ 3차: 중요도 재질문

〈표 IV-5〉 진입단계 리더의 역할 중요도

순 위	역 할	평 균	표준편차	순 위	역 할	평 균	표준편차
1	변화촉진자	6.29	0.72	9	상담자	4.86	0.85
2	조정자	5.76	0.83	10	프로그램개발자	4.86	1.01
3	조직원관리자	5.71	0.90	11	사업인프라관리자	4.62	1.02
4	교육관리자	5.52	0.68	12	홍보가	4.62	1.02
5	내외부연계자	5.24	1.00	13	후계자양성가	4.52	1.29
6	계획자/설계자	5.24	0.89	14	마케터	4.33	0.97
7	여론지도자	5.19	0.60	15	평가자	4.24	0.77
8	프로그램관리자	4.86	1.01	16	연구가	4.14	0.85

- 최종결과, 진입단계에서 '약간 중요하다' 이상의 평균점수를 기록한 역할은 7가지로 나타남
- 박은식 외(2006)의 역할 테이블에 따르면, 사람중심의 변화촉진, 조정, 교육관리, 조직원관리, 여론지도 역할이 많았으며, 계획 및 설계와 내외부 연계의 사업중심 역할이 높은 점수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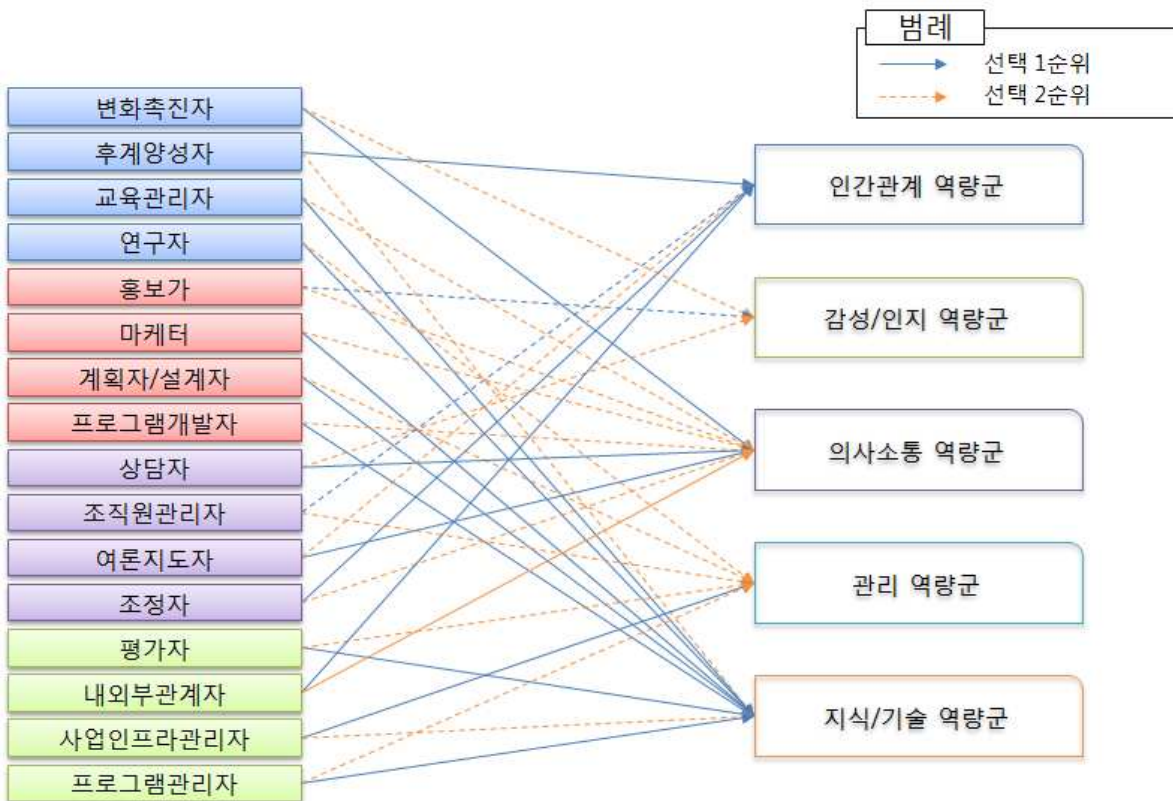
○ 역할과 역량과의 관계

- 진입단계에서 리더가 해당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알아보기 위함
- 1차: 역할 및 역량군 확인 ⇒ 2차: 역할에 적합한 역량군 우선순위 ⇒ 3차: 역량군 순위결과 제시 및 상위 2가지 역량군 선택, 역할에 적용하는 역량군 및 하위역량의 설명 자유키술



<표 IV-6> 역할-역량군 선택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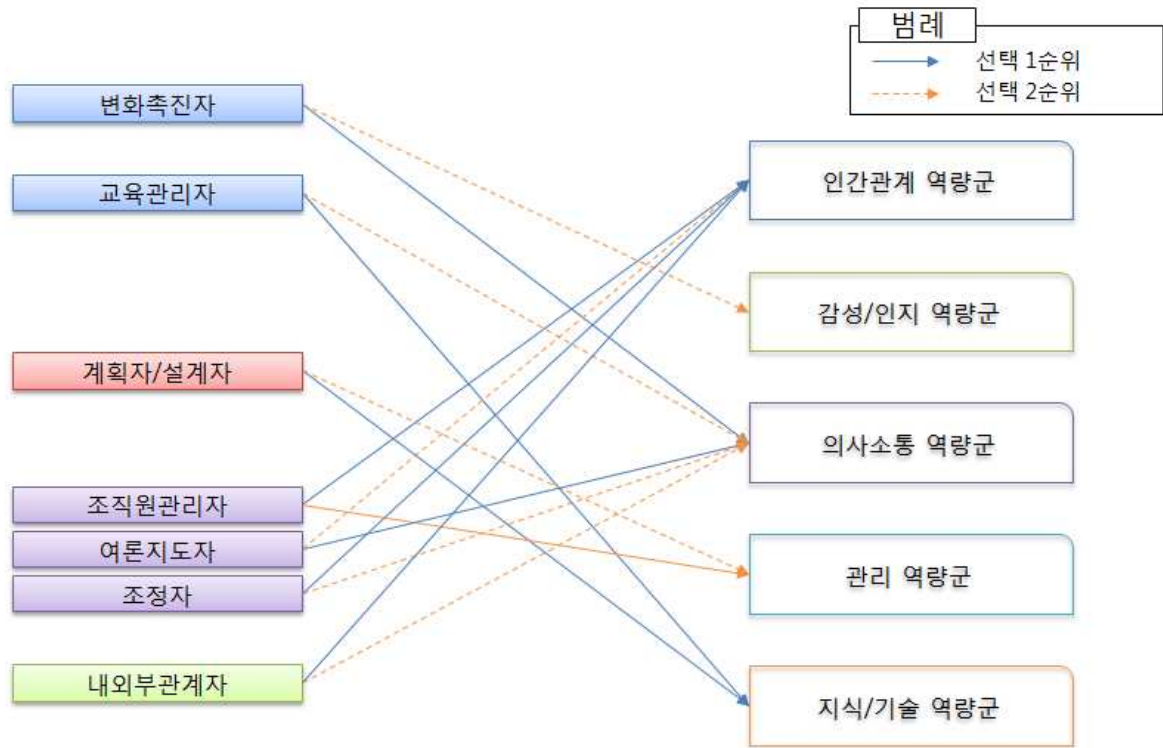
역 할	역량군	선택 비율	역 할	역량군	선택 비율
변화촉진자	의사소통 역량군	38.1%	상담자	의사소통 역량군	47.6%
	감성/인지 역량군	26.2%		감성/인지 역량군	35.7%
후계양성자	인간관계 역량군	31.0%	직원관리자	인간관계 역량군	42.9%
	지식/기술 역량군	23.8%		관리 역량군	40.5%
교육관리자	지식/기술 역량군	38.1%	여론지도자	의사소통 역량군	42.9%
	의사소통 역량군	33.3%		인간관계 역량군	40.5%
연구자	지식/기술 역량군	47.6%	조정자	인간관계 역량군	35.7%
	관리 역량군	42.9%		의사소통 역량군	33.3%
홍보가	감성/인지 역량군	33.3%	평가자	지식/기술 역량군	45.2%
	의사소통 역량군	31.0%		관리 역량군	45.2%
마케터	지식/기술 역량군	38.1%	내외부연계자	인간관계 역량군	42.9%
	의사소통 역량군	26.2%		의사소통 역량군	33.3%
기획자/설계자	지식/기술 역량군	50.0%	사업인프라관리자	관리 역량군	47.6%
	관리 역량군	31.0%		지식/기술 역량군	42.9%
프로그램개발자	지식/기술 역량군	50.0%	프로그램관리자	지식/기술 역량군	40.5%
	의사소통 역량군	23.8%		관리 역량군	33.3%



<그림 IV-1> 역할-역량군 선택

○ 역할과 역량과의 관계: 추출

- 이 중 역할에서 '약간 중요하다(5점) 이상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



<그림 IV-2> 역할-역량군 선택 추출

○ 역할과 역량과의 관계: 점수부여

- 진입단계 역할 7가지 순위별 점수 차등 부여: 7점 만점에 대한 평균 점수 비율에 100을 곱한 값
- 역할에 상응하는 역량군 점수 차등부여: 1순위 및 2순위 점유비율
- 역할 환산점수 × 역량군 선택비율 ⇒ 역량군에 점수 부여
- 최종 합계 점수의 비율 확인 ⇒ 진입단계 프로그램 구성 시 주요과목 배분 등에 활용



<표 IV-7> 역할-역량군 선택 점수부여

순 위	역 할	평 균	환 산	역량군	선택률	비 율	점 수
1	변화촉진자	6.29	89.84	의사소통 역량군	38.1%	59.3%	53.2
				감성/인지 역량군	26.2%	40.7%	36.6
2	조정자	5.76	82.25	인간관계 역량군	35.7%	51.7%	42.6
				의사소통 역량군	33.3%	48.3%	39.7
3	조직원관리자	5.71	81.57	인간관계 역량군	42.9%	51.4%	42.0
				관리 역량군	40.5%	48.6%	39.6
4	교육관리자	5.52	78.86	지식/기술 역량군	38.1%	53.4%	42.1
				의사소통 역량군	33.3%	46.6%	36.8
5	내외부연계자	5.24	74.86	인간관계 역량군	42.9%	56.3%	42.1
				의사소통 역량군	33.3%	43.7%	32.7
6	계획/설계자	5.24	74.86	지식/기술 역량군	50.0%	61.7%	46.2
				관리 역량군	31.0%	38.3%	28.7
7	여론지도자	5.19	74.14	의사소통 역량군	42.9%	51.4%	38.1
				인간관계 역량군	40.5%	48.6%	36.0

<표 IV-7> 역할-역량군 선택 점수부여 순위

순 위	역량군	점 수	비 율
1	의사소통 역량군	200.5	36.0%
2	인간관계 역량군	162.7	29.2%
3	지식/기술 역량군	88.3	15.9%
4	관리 역량군	68.3	12.3%
5	감성/인지 역량군	36.6	6.6%

○ 진입단계 리더의 역량

- 충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2014)의 연구에서 분류된 역량군을 기초로 하여 추가의견을 수렴하고 각 역량에 대한 중요도를 확인함(7점: 매우 중요함 ~ 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 1차: 역량 선택 및 추가제시 ⇒ 2차: 선택 및 제시된 역량의 중요도 ⇒ 3차: 중요도 재질문
- 최초 36개 하위역량을 2차에서 1개 삭제, 3개 추가, 총 39개 역량에 대한 개별 중요도 확인

〈표 IV-8〉 역량 중요도 및 순위

역량군	하위역량	평균	표준편차	군내순위
인간관계 역량군	대인관계 형성	5.86	0.73	4
	고객지향	5.00	1.10	6
	공동체 형성	6.29	0.64	2
	포용력	6.33	0.48	1
	의사결정력	6.29	0.64	2
	동기부여	5.71	0.96	5
관리 역량군	팀워크	5.76	0.62	4
	모니터링 능력	5.10	0.94	8
	추진력	6.14	0.91	2
	직무의 충실성	5.71	0.64	5
	비전창출(제시)	5.95	0.67	3
	사업의 주체성	5.57	0.98	7
	자원관리능력	5.67	0.80	6
	갈등관리능력	6.43	0.68	1
감성/인지 역량군	자기계발 및 관리	5.52	0.87	10
	창의력	5.52	0.60	11
	사고력 및 통찰력	5.71	0.72	6
	애농심	4.71	1.38	12
	조직헌신과 열정	6.48	0.68	2
	변화선도력	5.76	0.83	5
	문제해결력	5.81	0.60	4
	도덕성과 투명성	6.52	0.75	1
	유연성	5.71	0.64	6
	인내심, 긍정사고	6.24	0.62	3
	적극성, 자신감	5.67	0.86	6
확고한 신념	5.57	1.16	9	
의사소통 역량군	소통(경청 및 전달)	6.52	0.60	1
	정보공유력	5.95	0.80	2
	프리젠테이션능력	5.14	0.73	4
	협상능력	5.52	0.68	3
지식/기술 역량군	전문지식	5.33	0.58	6
	기획 및 개발력	5.43	0.75	3
	벤처마케팅능력	5.05	0.97	7
	문화이해력	4.86	0.85	9
	경영관리능력	5.62	1.02	1
	마을해설, 체험지도	5.38	1.02	4
	타인육성	5.57	1.16	2
	성과측정	5.05	1.02	7
	코칭 및 피드백	5.38	0.74	4



- 대부분의 역량이 모든 리더에게 중요하게 필요로 함은 전문가 및 응답자의 공통된 의견으로 전반적 평균은 대부분 높게 나타났으나,
- 진입단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리더에게 중요한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 중요도를 각 항목별로 체크 하게 한 결과 우선순위가 나타남
- 전체 역할을 놓고 보았을 때는, [소통, 도덕성과 투명성, 조직헌신과 열정, 갈등관리능력, 포용력, 의사결정능력, 공동체 향상능력, 추진력]이 6점 이상(중요하다 이상)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어 우선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역량임을 알 수 있음
- 이를 역할과 매칭하기 위해 역량군으로 분류하고 역량군 마다 중요하위역량을 3순위 까지 표현 하였을 때는 위의 <표 IV-8>과 같은 결과가 정리됨

4. 프로그램 구성

○ 주요 교육내용

- 역량의 중요도 조사 결과 나타난 주요 하위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내용을 알아보기 위함
- 하위 역량별로 중요도에 대해 3차까지 설문을 조사한 결과 중, 각 역량군에서 3순위까지 해당되는 하위역량을 추출하여 해당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
- 델파이 조사 시 제시된 의견정리와 추가적인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우선 나열함

<표 IV-9> 역량에 따른 교육내용

역량군	하위역량	교육내용	
인간관계 역량군	포용력	- 자기이해와 타인이해 - 주민응대기술	- 주민욕구읽기, 지역이슈찾기 - 평등과 인권
	공동체형성	- 설문조사기법 - 수요조사 및 분석 - 지역조직화 실천 기법 및 지역조직화 성공사례 - 지역네트워크와 파트너십 -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례	- 주민대화 기법 - 마을규약 만들기 - 농촌리더의 팀워크 훈련 - 지역발전주체의 파트너십 - 조직구성 및 관리기법
	의사결정력	- 계획수립 및 결정의 기술 - 민주적인 회의촉진 기술 - 판단력 및 결정력 향상방법	- 주민의사결정 기법 및 회의 진행기법
감성인지 역량군	조직헌신과 열정	- 그룹촉진기술	- 바람직한 주민 조직화기법
	도덕성과 투명성	- 자기생활태도, 가치관개발기술 - 신뢰받는 리더	- 투명한 회계관리 - 존중
	인내심과 긍정적 사고	- 지역리더의 성품과 역할개발 - 자기생활태도, 가치관개발기술 - 성공한 리더의 7가지 습관	- 인내, 이해, 적용의 기술 - 긍정의 스토리텔링 - 마음 다스리기
의사소통 역량군	소통 (경청 및 전달)	-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 효과적인 대화기술 - 표현과 소통의 달인 되기	- 소통의 시대 거버넌스 - 발표능력 향상기술 - 회의와 퍼실리테이션
	정보공유력	- 우리마을 소개 / 소통과 참여 - 지역사회 네트워크 분석	- 회의진행 계획서 작성 - 커뮤니케이션 기법
	협상능력	- 설득의 기술 - 협상의 기술	- 지역의 민관협력 원리 - 민관협력 성공사례분석
관리 역량군	갈등관리능력	- 주민갈등 해소사례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갈등관리 기법	- 갈등의 이해 - 갈등의 유형 - 자기갈등관리
	추진력	- 지역개발사업의 이해 - 국내외정세와 농업농촌의 미래 - 국내외 지역개발 사례	- 사업추진의 구체적 사례 - 문제해결 기법 - 변화와 대응
	비전창출과 제시	- 지역 가치발견과 미래비전 구상 - 창의적 발상기법 - 지역마스터플랜	- 마을조사와 콘텐츠 발굴 - 비전수립 프로세스 - 프리젠테이션 기법



<표 계속>

역량군	하위역량	교육내용	
지식/기술 역량군	경영관리능력	- 마을 경영계획수립 - 회계 및 세무관리 - 미디어의 가치와 활용 - 기록관리 중요성과 활용사례	- 마을경영 자생력 확보방안 - 마을 운영전략 수립 - 마을 홍보전략 - 시설물 유지관리
	타인육성	- 학습자특성분석과 교수기법 - 주민교육의 기획, 교육훈련 실천기술	- 우리마을 인재유치 전략수립 - 강의스킬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집행
	기획 및 개발력	- 사업계획서 작성법 - 지역자원의 중요성과 조사방법 - 기획적 사고의 형성 방법 - 창의적인 기획서 작성 - 프로그램 개발기법	- 지역 잠재자원의 활용 - 스토리텔링 - 효과적인 기획과 설계 - 사업평가기준의 이해

○ 프로그램 배분

- 나열된 교육내용을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추가의견 수렴, 재배치 및 통합, 수정 등의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분석결과를 기초로 한 과목 수, 과목별 시간분배 등을 통해 조정함

<표 IV-10> 프로그램 배분(비율)

과 목	시 간	과목에 포함되는 역량군				
		의사 소통	인간 관계	지식/ 기술	관리	감성/ 인지
미래가치 향상 농촌개발 추진전략	2					
마을자원의 발굴과 활용	3					
마을사업운영전략1 - 계획과 관리	2					
마을사업운영전략2 - 조직과 규약	2					
마을비전과 사업계획 수립	3					
소통과 참여의 기술	5					
이해와 설득의 커뮤니케이션	2					
갈등 유형과 관리	3					
마을교육 기획과 운영	3					
발표 및 강의 스킬	2					
성공한 리더의 리더십	2					
지역사회 네트워크형성과 공동체 활성화 전략	3					
합계 및 비율	32	32.3%	26.9%	18.2%	16.1%	6.5%

○ 프로그램 테이블 구성 및 세부내용

- 분석결과를 기초로 한 과목 수, 과목별 시간분배 등을 통해 조정된 결과를 타임 테이블로 구성
- 전 과정 통합 합숙교육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라 테이블 구성
- 과목별 상세 설명 기술

<표 IV-11> 프로그램 테이블 구성

시간/일자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09:00	교육등록	기상 및 아침식사		
09:00~10:00		[M05] 마을비전과 사업계획 수립	[M08] 갈등 유형과 관리	[M12] 지역사회 네트워크형성과 공동체 활성화전략
10:00~11:00	[M01] 미래가치 향상	[M06] 소통과 참여의 기술	[M09] 마을교육 기획과 운영	[M10] 발표 및 강의 스킬
11:00~12:00	농촌개발 추진전략			
12:00~13:00	점심식사			교육종료
13:00~14:00	[M02] 마을자원의 발굴과 활용	[M07] 이해와 설득의 커뮤니케이션	[M11] 성공한 리더의 리더십	
14:00~15:00	[M03] 마을사업운영전략2 - 조직과 규약 -			
15:00~16:00	[M04] 마을사업운영전략1 - 계획과 관리 -	[M07] 이해와 설득의 커뮤니케이션	[M11] 성공한 리더의 리더십	
16:00~17:00				
17:00~18:00				
18:00~19:00	저녁식사			
19:00~20:00	[M04] 마을사업운영전략1 - 계획과 관리 -	[M07] 이해와 설득의 커뮤니케이션	[M11] 성공한 리더의 리더십	
20:00~21:00				
21:00~	교육생 간 정보교류 및 취침			



<표 IV-12> 프로그램 세부내용

구분	과목	세부내용	시간	방법
M01	미래가치향상 농촌개발 추진전략	- 농촌개발사업의 동향 - 국내외 정세와 농업 농촌의 미래 변화의 대응 -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개발전략 수립 방향	2	강의
M02	마을자원의 발굴과 활용	- 마을자원의 중요성과 조사방법 - 마을 콘텐츠 발굴과 자원지도 그리기 - 우리마을 소개하기	3	강의 실습 발표
M03	마을사업운영전략1 - 계획과 관리	- 마을 운영계획 협의와 수립 - 마을 경영의 이해와 운용방법 (기록, 세무, 회계, 법률, 제도 등) - 미디어 활용 전략과 운용 사례, 방법	2	강의 실습
M04	마을사업운영전략2 - 조직과 규약	- 바람직한 주민참여 조직구성 - 조직협력운영과 활성화방안 및 우수사례 - 마을규약 제정과 운영	2	강의 실습
M05	마을비전과 사업계획 수립	- 우리마을 가치발견과 미래비전 구상하기 - 마을이슈 발굴과 수요조사 및 분석기법 - 창의적인 발상과 계획서 작성하기 - 마을비전과 계획 발표 및 평가 (사업평가기준 이해)	3	강의 실습 발표
M06	소통과 참여의 기술	- 회의계획수립, 진행기법 및 의사결정 - 민주적인 기술을 활용한 회의 방법 실습 - 팀워크 훈련	5	강의 실습 발표
M07	이해와 설득의 커뮤니케이션	- 설득 및 협상의 대화 기술 실습 - 주민 대화 기법과 응대 기술 - 이해와 적용의 기술	2	강의 실습
M08	갈등 유형과 관리	- 갈등의 유형과 사례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갈등관리 기법 -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를 통한 갈등관리	3	강의
M09	마을교육 기획과 운영	- 주민욕구파악과 수요조사, 인재유치 전략 - 주민특성분석과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교수기법 -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발표	3	강의 실습 발표
M10	발표 및 강의 스킬	- 발표능력 향상 기술 및 강의스킬 - 청취자 및 학습자 등 대상의 특성분석	2	강의 실습
M11	성공한 리더의 리더십	- 역사에서 배우는 리더의 리더십 - 성공한 리더의 습관 및 리더십 개발 실습	2	강의 실습
M12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과 공동체 활성화 전략	- 지역네트워크와 파트너십 - 지역사회 네트워크 분석과 협력 성공사례 - 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법 및 우수사례	3	강의

○ 프로그램 운영방법

- 교육대상

- > 예비단계 리더교육을 이수한 자를 기본 대상으로 함
- > 진입단계 및 이에 준하는 마을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과 기타 마을리더, 주민으로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고 자발적 참여 의사가 분명한 사람들로 함

- 교육인원

- > 최대 30명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국내 교육강사의 경험으로 책정한 인원으로, 향 후 시범교육 및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인원이 조정 될 수 있음

- 교육방법

- > 일방적 강의방식 지양, 사례발표, 토론, 발표 등 활동과 참여 중심의 교육 운영

- 교육기간 및 방식

- > 3박 4일 합숙교육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분할하여 합숙교육을 진행함

- 교육장소 및 회수

- > 도별로 교육 및 합숙이 가능한 장소(지역소재 권역사업지역 등)에서 진행하며 연 1회를 진행하고, 교육수요에 따라 추가 진행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주관기관

- > 민간-정부의 중간기관이자 전문기관인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운영, 종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함



V. 결론

1. 결과 및 제언

- 진입단계 리더교육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개발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리더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데 목표를 가져야 함
 - 리더의 역량강화 범위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진입단계에 있는 리더를 양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위의 목표를 기초로 하여 역량강화 내용이 구성되어야 함
- 교육주체는 공공이 기획하고 민간이 위탁운영(42.9%), 민간이 기획, 운영하며 공공기관은 이를 지원하는 방식(38.1%)로 나타남. 즉, 민간이나 정부가 기획을 하되,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이 적절
- 또한, 국내 사례로 살펴보았을 때, 정부와 민간 등이 일정한 체계가 없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교육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으로, 이를 단계별 교육, 부문별 맞춤형 교육 등으로 체계화 시키고 일괄적으로 관리 될 필요성이 있음
 - 정부와 민간의 중간역할을 하는 전문기관인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종합적인 기획을 하여 정부의 취지와 전문성을 융합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 운영, 또는 운영모니터링 등의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즉,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교육은 해당 전문기관이나 민간 기관에서 시행을 하되, 필요 전문 역량을 구분하여 명확히 프로세스와

대상을 관리 되어질 필요가 있으며, 단계별 교육은 역량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뒷받침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교육방식은 리더교육에 할당되는 전체 시간을 2박 3일 또는 3박 4일로 한 번에 합숙하는 방식(38.1%), 단체 합숙을 하되 1박2일 2~3회 등으로 분할하는 방식(33.3%)으로, 두 가지 교육 방식에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음
 - 비합숙 교육에 비해 합숙훈련이 보다 효과적인 교육운영방식임을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음
 - 단, 추가의견 등에서 제시된 농번기 시기 등을 고려하여 분할교육합숙 및 통합교육합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 할 수 있는 역할자가 필요함
- 참여대상은 마을사업 추진(운영)위원장 및 추진(운영)위원이 49점, 자생적 마을지도자(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이 31점, 농촌지역 주민이 15점 순으로 나타남
 - 마을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 운영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교육대상이 되어야 하며,
 - 주민주도의 마을사업 지속력을 위해서는 마을지도자와 주민이 교육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진입단계 리더가 수행해야 할 주요 역할 중에 약간 중요하다(5점) 이상만 분류해 보았음
- 그 결과는, 변화촉진(6.29), 조정(5.76), 조직원관리(5.71), 교육관리(5.52), 내·외부 연계(5.24), 기획 및 설계(5.24), 여론지도(5.19)임
- 이를 박은식 외(2006)의 역할 테이블에 의해 분류하면 사람중심의 변화촉진, 조정, 교육관리, 조직원관리, 여론지도와 사업중심의



계획 및 설계, 내·외부 연계로 나눌 수 있음

- 주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역할이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주민주도의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취지와 부합되는 결과로, 마을사업 추진과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정치적 유대관계도 중요
 - 하지만 내적인 관리 즉, 주민을 결집시키고 조정하며, 조직화하고, 교육하는 등의 내실을 탄탄하게 하는 역할이 보다 중요시 된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음
 - 즉, 진입단계는 사업추진을 위한 내적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세부 목표와도 어느 정도 일치됨
- 진입단계 리더가 주요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된 역할의 중요도와 역량군의 선택비율을 점수로 환산시킨 결과, 의사소통 역량군(200.5점, 36%)과 인간관계 역량군(162.7점, 29.2%)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며, 지식/기술(88.3점, 15.9%)과 관리(68.3점, 12.3%), 감성/인지(36.6점, 6.6%)역량군을 가미시킬 수 있도록 함
- 주요 하위 역량은 공동체형성, 포용력, 의사결정력, 헌신과 열정, 도덕성과 투명성, 인내심과 긍정적 사고, 소통, 정보공유력, 협상능력, 추진력, 비전창출능력, 갈등관리능력, 기획 및 개발력, 경영관리 능력, 타인육성능력으로 나타남
- 역할과 마찬가지로 주로 내실을 견고히 함으로써 마을사업 추진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역량이 집중적으로 향상되어야 함을 나타냄
 - 참여와 협력 등을 기반으로 하여 비전창출, 기획, 경영 등의 전문성이 뒷받침 되어야 함. 감성/인지 역량군이 낮은 수치가 나온 것은 진입단계 사업에 기반을 둔 조사이며 리더 개인의 기본 소양으로 초반부터 갖춰야 할 부분임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됨

- 제시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은 미래가치향상 농촌 개발 추진전략, 마을자원의 발굴과 활용, 마을사업 운영전략, 마을 비전과 사업계획 수립, 소통과 참여의 기술, 이해와 설득의 커뮤니케이션, 갈등 유형과 관리, 마을교육 기획과 운영, 발표 및 강의 스킬, 성공한 리더의 리더십, 지역사회 네트워크형성과 공동체 활성화전략으로 중요도 및 선택비율에 따라 시간을 배분함

2. 연구의 시사점

- 리더의 역할과 역량 설정을 통한 교육의 효과성 재고
 - 진입단계에 적합하게 마을리더가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분석하고, 해당 역할에 필요한 역량을 매칭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집중적으로 강화시키도록 함
 - 진입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리더를 효과적으로 양성함
 - 기존 보편적인 리더십의 지속적 개발과 성장을 위했던 단계적 프로그램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진입단계 마을사업 추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역할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함
- 진입단계 역량강화교육 프로세스 보급을 통한 교육의 효율성 재고
 - 진입단계 마을리더를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방향성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 교육에 대한 거부감을 줄임
 - 교육내용에 대한 중복과, 반복학습을 막고, 교육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한 기획 및 운영관리, 보급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됨



-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리더교육이 이루어져 교육에 대한 기피 현상과 피로도를 줄일 수 있음
- ‘주민주도’, ‘공동체’, ‘주민자치’ 등의 주민참여를 요구하는 범국가적 정책 흐름에서 체계적인 리더 육성프로그램 구축에 대한 선도적 역할 수행
- 리더교육의 연속성 확보
 - 기본과정 이후 대부분 유형별 전문화 과정으로 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던 기존의 틀에 징검다리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단계적이고 매개적인 중간프로그램 포집의 기본 틀을 마련함
-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에 기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 역량단계별 지원정책의 정착 후, 증가하는 중규모 사업 추진마을에 대한 연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 할 수 있음
 -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인적자원 확보의 기초 역할을 할 수 있음
 - 마을의 추진위원 등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마을의 지도자나 주민이 참여하여 역량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 마을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의견조율
 - 델파이 조사과정에 마을리더를 포함
 - 교육을 기획·공급하는 입장과 교육을 받는 입장 간의 의견을 절충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3. 연구의 한계

○ 조사방법

- 교육과정의 필요성 제시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진입단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대상자들의 직접적인 요구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로 교수자와 일부 수요자관점에서 질적인 접근을 통해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에 한계가 있음
- 리더교육 참가자의 자격(역량)이 규명되기 위해 예비단계 리더가 필요로 하는 역량과 역할, 역량수준 및 요구도, 지속 성장시켜야 할 역량 등이 함께 재정의 되어져야 할 것임

○ 자료수집과 활용

- 수행역할과 역량을 찾는데 있어서도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진행한 바, 현 시점에서의 요구되는 역할 및 역량 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평가와 피드백

-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직접 운영하기에 앞서 예비적이고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고 그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론적인 단계에 그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교재 개발은 수요자 측면을 고려하고 피드백을 한 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참 고 문 헌

- 강석보,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과분석 등 발전방향 수립용역 최종보고서.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연구보고서
- 김종인·박양규·이홍민, (2006). 역량진단 및 역량-성과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경산논총*, 36, 185-203
- 김진모, (2003). 전환기 농촌지도사의 역할과 능력개발 방향.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5(4), 69-85
- 박 경, (2007). 유럽의 통합적 농촌개발정책과 LEADER. *프로그램지역사회연구*, 11(1), 111-136
- 박 경, (2007). 마을만들기 리더 육성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 충청남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충남연구원 간행물*
- 박은식·이채식·고정숙·황대용, (2005). 농촌리더의 특성 및 리더십 역할수행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12(1), 1-15
- 박은식·이채식·박덕병·고정숙, (2006). 지역사회리더 리더십역량의 주요-성취도 분석. *농촌계획*, 12(1), 59-66
- 박은식·최영창·황대용·박덕병, (2007). 농촌 리더십 교육의 효과 및 만족도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14(2)
- 박은식·최영창·고정숙·황대용·박덕병·이채식, (2008). (농촌마을 지도자의리더십 역량 향상) 교육프로그램. 서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박진도·유정규, (2005). 지역혁신과 리더의 역할, 전국지역리더대회 발표문 45-76
- 박진도·황수철·양병찬·유정규, (2004). 농촌지역리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연구보고서
- 박한식·김남조, (2008). 농촌관광마을 리더의 역량분석과 역량모델 개발. *관광연구*, 23(3), 239-256
- 소순열·유정규·황영모·이순미·배균기, (2008). 농업경영리더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 *농촌진흥청 연구보고서*
- 안동규, 박준식, 김영범, 김동식, 김정욱, (2006).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연구총서. 마을창조, 소화
- 안진성, (2011). 델파이기법과 계층적 의사결정방법의 적용을 통한 전통정원의 보존상태 평가지표 개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정규, (2015). 국내외 지역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충남연구원·공주대학교 공동학술대회 및 지역리더 포럼 세미나자료*

- 이오성, (2006). 오늘의 블루오션은 농촌. 월간말. 3월호. 42-45
- 이종성, (2001).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이해진, (2012). 농촌지역개발사업 성과의 차이와 농촌사회 발전에 대한 함의. 농촌사회, 22(2), 7-48
- 이해진, (2009).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사회, 19(1)
- 장정훈, (1999). 조직문화 변화를 위한 수행공학 실천가의 역할 및 역량 정의에 대한 델파이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재율·김희승, (1994). 집단과 리더십. 서울: 유포출판사
- 충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2014).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리더교육 프로그램 - 예비단계 마을 리더 과정.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허 장·정기완, (2003). 농촌마을의 발전과 새로운 리더십. 농촌사회. 13(1). 51-83
- 황영모, (2004). 지자체 농촌리더육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농림축산식품부, (2018). 2018년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관계자 워크숍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www.ekr.or.kr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 www.epis.or.kr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www.ati.go.kr

■ 2018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보고서

전북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실질사례 분석 및 운영매뉴얼 구축에 관한 연구]

중간지원조직 사례 분석 및 운영매뉴얼 구축을 위한 연구

-마을만들기분야 기초단위-

2018. 12.

전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



목 차

I. 서 론	407
1. 연구 배경	407
2. 연구 목적	408
3. 연구 범위	408
4. 연구 방법 및 절차	408
5. 중간지원조직 운영매뉴얼 구축의 문제제기 및 접근관점	410
II 중간지원조직 선행연구	413
1. 중간지원조직 유형분석 및 적용사례	413
2. 중간지원조직 문제점 분석 및 역할제시	415
III. 중간지원조직 운영현황 사례검토	417
1.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이론적 배경	417
2. 사회적경제 분야 중간지원조직 운영현황(전주시 도시혁신센터)	421
3. 마을만들기 분야 중간지원조직 운영현황(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424
4. 마을만들기 분야 중간지원조직 운영현황(농촌활성화지원센터)	426
5. 타 분야 및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운영사례의 시사점 도출 및 연구방향 설정	428
IV. 중간지원조직 유형별 운영사례 조사분석	430
1. 중간지원조직 유형별 운영사례 조사분석 개요	430
2. 중간지원조직 유형별 운영사례조사 결과	432
3. 중간지원조직 유형별 운영사례 분석	464
V. 중간지원조직 매뉴얼 구축을 위한 조사분석	472
1. 중간지원조직 매뉴얼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	472
2. 중간지원조직 매뉴얼 기본내용 제시	475
3. 중간지원조직 매뉴얼 완성도 제고를 위한 관계전문가 자문	488
VI. 결과도출 및 정책제언	490
1. 중간지원조직 (조직)운영매뉴얼 결과도출	490
2. 정책제언	493

서론

1. 연구 배경

- 본 연구는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관한 연구로 「중간지원조직 역할 및 연계협업에 관한 연구(2017년)」에 이어 2년차 연구로 진행함
-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과 관련한 운영매뉴얼에 대한 기존의 자료는 ① 특정 시·군(지역)에 한정된 자료 ② 운영방향, 개선점 및 과제도출 등 주관적인 논점이 강한 연구결과 ③ 이론중심의 교재 및 지역공동체라는 범주로 광범위한 참고자료들이 제시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 수요자인 지자체 행정담당자 및 중간지원조직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본 기관에서 실시한 중간지원조직 관련 1년차 연구에서 전라북도내 광역단위·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 약 10개 기관의 실무자들 및 행정 담당자들에 설문조사·인터뷰·토론 등을 통한 실질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한 결과 각 지역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각기 다른 조직구성과 인력보유현황, 예산 및 채용조달 방법 등 운영형태의 차이가 존재하였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운영지침 및 매뉴얼보급을 원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단일적인 매뉴얼을 구축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단계별·유형별 매뉴얼을 구축하여 각 지역별 또는 기능별로 설치되는 중간지원조직들에 참고할 수 있는 운영매뉴얼을 개발·제시하고자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매뉴얼 구축을 목표로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설치된 중간지원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유형별 실무중심의 실무운영 매뉴얼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의 실질 운영사례를 통한 단계별·유형별 매뉴얼구축 뿐만 아니라 지속성 있는 운영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시스템 구축 및 행정 및 정책적 지원방향을 제시하고자함
- 본 연구는 중간지원조직들과 함께 공동연구로 협업하여 진행하며 어느 지역에 한정된 결과가 아닌 보편적 결과를 도출하고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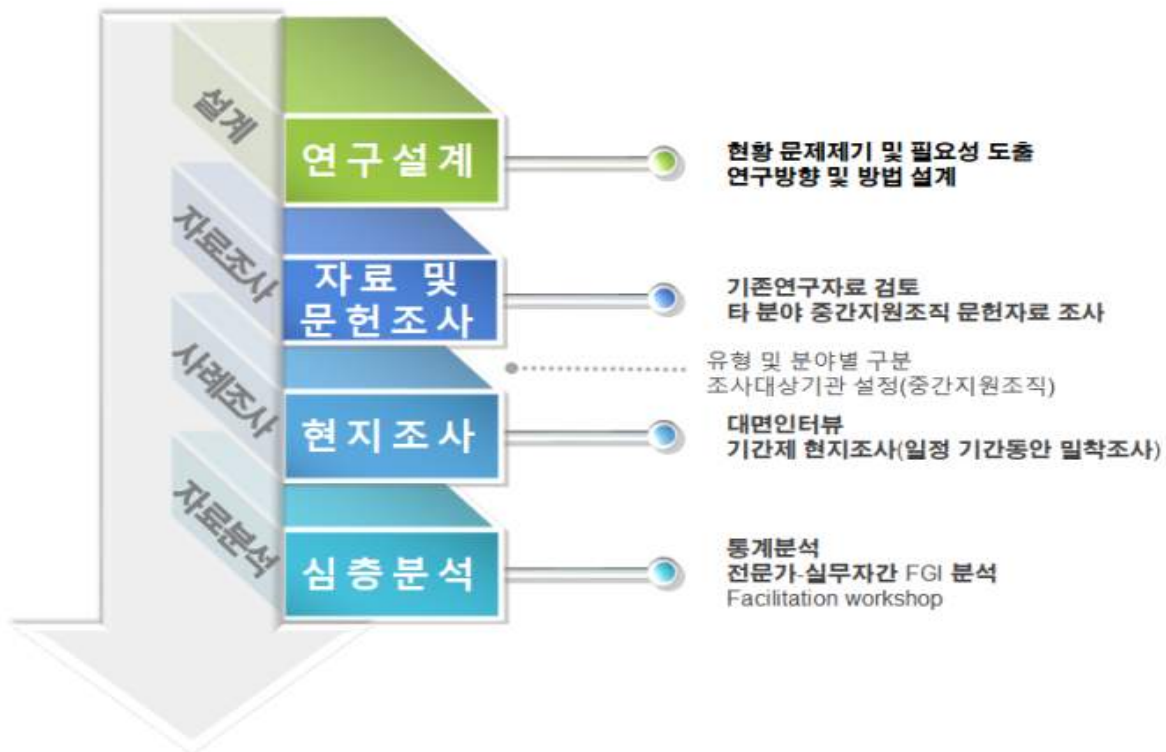
3. 연구 범위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현시점의 실질자료를 통한 연구를 주요한 관점으로 보며, 과거 2010년부터 설치되어 운영한 중간지원조직 및 타 분야의 중간지원조직 사례를 통한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므로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를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음
- 내용적 범위로는 농촌마을에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및 도시재생 분야에서 활동 중인 중간지원조직을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연계성 차원에서 접근하여 개념과 배경, 설립유형 및 역할을 토대로 한 실질적인 운영내용을 파악하여 비교정리하고자함
- 공간적 범위로는 기본적인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는 전국적인 단위로 실시하였으나 연구의 현장성있는 실질자료로는 전라북도로 범위를 집중,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공간범위로 설정하였음

4. 연구 방법 및 절차

- 연구방법은 크게 자료조사와 실질사례조사, 자료분석으로 구분되며 자료조사로는 문헌조사와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기본정보를 수집하고, 실질사례조사로는 중간지원조직의 사례를 통한 심층분석을 실시함

- 자료조사로는 기존 연구자료를 활용하며, 타 분야의 중간지원조직 사례에 대한 사례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해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체계화하고, 중간지원조직 매뉴얼을 위한 단계 및 유형 구분을 실시함
- 실질사례조사로는 단계 및 유형별로 구분된 모델에 대한 조사대상(조직)을 설정하고, 실태파악을 위한 대면 인터뷰 및 현지조사를 통해 다양한 운영사례를 수집하고,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현황과 지속성있는 향후 운영방향을 모색하였음
- 자료분석으로는 설문조사를 활용한 기초통계, 중간지원조직의 단계별 특성에 따른 요인 및 상관관계분석과 전문가그룹 및 실무자그룹을 통한 FGI분석 등 질적 연구를 실시함
- 최종적으로는 기존의 관련 이론 및 정책과의 현실적인 차이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중간지원조직 운영과 관련한 정책제안을 하고자함



[그림 1] 연구절차 및 모형도



5. 중간지원조직 운영매뉴얼 구축의 문제제기 및 접근관점

1)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차이가 존재,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운영매뉴얼 구축이 가능한가?

○ 중간지원조직의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자료조사 결과(1년차 연구)

- 지역별로 역할 및 기능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방식의 차이가 존재
-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분류 및 유형구분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분류가능한 유형으로는 설치단계 시 행정주도인지(정책지원사업), 민간중심인지와 설립 후 운영에 대한 연차로 구분이 가능(단계)
 - ▶ 유형구분: 정책적 흐름에 따른 설치, 풀뿌리 민간중심의 설치
 - ▶ 단계구분: 설치 후 연차 수(예)기초, 기반다지기, 활성화, 고착화)

○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지역적으로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농촌 마을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립목적, 사업분야, 업무방법 등은 거의 유사하여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역별 특색이 다양하고, 지원방식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행정업무 지원, 마을지원, 조사 및 연구, 네트워크 및 현장지원 등은 공통적인 업무로 볼 수 있음
- 핵심적인 사업분야와 해당분야에 필요한 필요역량, 지속가능한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필요 지원 등은 지역별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음(1년차 연구 결과)
 - ▶ 핵심적인 사업분야(역할): 예비단계(정보조사 및 DB구축, 역량강화 및 교육),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
 - ▶ 운영의 지속성을 위한 사업분야: 컨설팅(소)(예비사업계획수립, 소액사업지원), 사후관리

2) 중간지원조직의 운영매뉴얼이 행정적 관점에서도 적용이 가능한가?

- 행정의 관점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세부역할은 분명 중간지원조직의 관점과 차이가 존재
 - 조직의 형태에 있어서 중간지원조직의 관점과 큰 차이점은 중간지원조직의 자립화 및 파트너 기관으로서 관계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부분 행정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관리를 하는 관계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인식(1년차 연구결과)
 - 즉, 행정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재정적 지원 및 재원마련, 사업 및 업무에 대하여 중간지원조직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일부 오랜경력의 전문직 담당자(계약직)가 있는 지역은 행정에서의 역할수행이 가능하지만 일반 행정직 또는 농업직의 행정담당자가 있는 경우 경험 및 지식부족으로 인한 적절한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으며, 공무원의 보직순환제에 의한 신규담당자로 변경 시 더욱 어려움이 있음
 - 오랜 경험 및 축적된 정보가 없더라도 중간지원조직의 기본적인 운영틀, 역할 및 필요역량, 주요사업분야 및 필요업무 등 시스템적으로 활용가능한 매뉴얼이 보급된다면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원활한 지원 및 관리, 효율적 운영 및 지역적 특성에 맞춘 사업적용을 보다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음
 - ▶ 행정적관점의 필요정보: 중간지원조직 설치관련(절차, 조례 등), 운영관련(운영지침, 재원마련, 인건비 등), 관리관련(지속운영 방안, 조직관리 등)
 - ▶ 매뉴얼 제공정보(유형별·단계별): 중간지원조직 설립(치)절차(조례 내용 포함), 연차별(2년차 ~ 8년차) 추진사업 및 역할, 예산 및 인건비, 조직형태, 필요지원 정보 등



3) 매뉴얼이 구축된다면 중간지원조직에 실질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또한 최종수혜자인 마을공동체에 대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이미 설치된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기본적인 운영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실질운영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개선이 필요함
 - 중간지원조직 설치가 완료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제정이 되어있고, 국·도비를 겸한 정책적인 지원을 추진 중에 있음
 - 각 지역이 제각각인 운영형태로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있어 ① 적합하지 못한 조례제정이 되어 있는 경우 ② 시·군사업이 아닌 국도비 사업의 비중이 큰 경우(재원마련 위해) ③ 조직(팀)에 비해 인력(직원)이 터무니 없이 적은 경우 ④ 어떤사업을 해야할지 정립이 안되어 있는 경우 등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
 - 지역별 특성에 따른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정적 운영틀을 마련한 후 단계적인 접근이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대한 비교 및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강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음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신규(미설치) 지역의 경우 설치 전 부터 기본적인 정보습득이 가능하고, 운영방안을 사전에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으며 충분한 준비와 시스템적 운영방안을 마련한 후 본격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음
- 중간지원조직은 농촌공동체에 대한 현장밀착성과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왔지만 인력부족, 과도한업무량, 역량강화 필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
 - 중간지원조직의 내·외부적인 비교 및 현황파악으로 조직개선에 대한 실천성을 제고하고, 보다 나은 근무환경과 업무적 분담을 통한 시스템적 보완으로 농촌공동체 지원에 더욱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
 - 부족역량에 대한 강화를 통해 지원분야 및 질적 상승을 기대

II 중간지원조직 선행연구

1. 중간지원조직 유형분석 및 적용사례

- 국내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조직의 역할에 집중하였고, 중간지원조직의 바람직한 역할 제시나 자치단체 수준에서 강화되는 역할 혹은 네트워크 조정자로서의 역할 등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조직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가 많이 있었음
- 국외 사례를 통해 유형을 구분하거나,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 유관 범위에 놓여있는 조직의 성격에 따른 범위로 구분하기도 했으며, 큰 틀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운영이라는 프레임으로 연구주제가 모아졌음

〈표 2〉 중간지원조직 유형분석과 적용사례 선행연구

구분	연도	주요내용
엄형식 외	2011	유럽사회 사회적경제와 중간지원조직의 현황, 유형구분
마상진	2011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한 차별적 중간지원조직 육성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강지윤·이태동	2012	녹색마을 중간지원조직 방향제시
권상동 외	2013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전국적 현황과 전망
김재현 외	2013	커뮤니티비즈니스, 국외 대표적 중간지원조직 사례분석
고재경·주정현	2014	유럽 에너지마을의 중간지원조직을 유형별로 사례분석

- 엄형식과 마상현(2011)의 연구는 사회적경제 연합체들이 발달한 유럽사회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국내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을 위한 전략 도출을 하고자 하였음
- 유럽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은 지원대상이나 자원동원의 토대가 되는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에, 설립주체와 운영방식, 거버넌스, 서비스내용, 공공부문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해당지역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달해왔음
- 국외 사례들을 통한 중간지원조직의 구분은 운영구조와 자원동원방식에 차이에 따라 컨설팅기관, 컨소시엄그룹, 연합체형태로 유형화가 가능하였음



〈표 3〉 국외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유형

유형	운영구조	자원동원방식	대표기관
컨설팅기관	사회적기업개발지원 기능이 특화된 조직	내부 자원동원어려움 추가적 자원동원 가능 유료 컨설팅	- 영국 CDA - 스웨덴 LKU - 벨기에 사회경제컨설팅
연합체형태	사회적협동조합 등 회원 대표체제면서 잠재적 회원에게 개발지원	내부 자원동원가능 연간 매출의 일정부분 회비 및 개발기금으로 납부	-이탈리아 Legacoop -프랑스 CGSCOP -스페인 COCETA
컨소시엄그룹	협동조합의 연합체 그룹이 일정부분 강제력을 지님	회원 협동조합 기여 주로 내부자원 기반	-스페인몬드라곤그룹 -ASCES 그룹

- 고재경과 주정현(2014)의 연구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에너지, 자원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주민의 자발적인 실천운동인 저탄소 녹색마을사업을 중간지원조직 중심으로 연구하였음
- 유럽의 에너지 자립마을의 사례를 통하여 중간지원조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특징을 분석,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마을, 오스트리아 및 영국의 전환마을 등이었음
- 중간지원조직이 지역단체에 체계적 지원을 함으로서 외부에 대해 의존도를 줄이고, 내부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공요인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음
- 마을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중장기적인 정책적 접근을 제시하였음
- 김재현 외(2013)의 연구는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연구하여 생활공동체 중심의 CB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정립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였음
- 이를 위해 국내 정책현황에 대한 조사와 국외의 대표적 중간지원조직의 사례를 분석하여 농촌현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창출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였고, 연구의 특징은 다양한 국가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분석으로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각국의 중간지원조직이 성장한 배경을 비교하여 연구하였음

2. 중간지원조직 문제점 분석 및 역할제시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중심으로 현재의 주요한 활동 및 현황을 분석하여 과제로 남겨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들로 특정 조직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였음

〈표 4〉 중간지원조직 문제점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구분	연도	주요내용
박세훈·임상연	2014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연구를 정부-시민사회 관계에서 정책기반, 시민사회기반, 혁신기반의 관점에서 접근
오단이·정무성	2015	창업한 사회적기업가의 관점에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역할연구
이문희	2015	지역별 분야별 협동조합 조직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 조사
김태영	2016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 근거이론으로 분석
고경호·김태연	2016	민간영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사례 조사
최현선	2016	민관협력을 통한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사례와 지역사회개발
민수영	2017	서울시 성동구 성북구 자치구를 대상으로 중간지원조직 비교분석

- 박세훈과 임상연(2014)의 연구는 사회적경제와 유관분야인 마을만들기 및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을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성으로 접근하여 현장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음
- 보조관계는 시민사회 기반으로, 대립관계는 혁신기반으로, 상호보완관계는 정책기반으로 접근하여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 강한 정책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시민사회기반과 혁신기반은 취약한 것으로 분석
- 오단리와 정무성(2015)의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양적성장의 환경 속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였음
- 창업한 사회적기업가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접근하였고, 연구의 핵심은 민간과 정부주도의 측면에서, 또한 중앙과 광역과 기초



지자체라는 범위의 측면에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역할구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문제의식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창업단계와 성장단계를 구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제안하였음
- 김태영(2016)의 연구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범위를 광역단위로 분석하면서 범위의 차이에 따른 역할의 구분을 강조하였음
- 행정과의 관계설정에 놓인 광역 중간지원조직이 무슨 역할을 하며,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 논리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근거이론의 방식으로 접근하였음
- 중간지원조직의 중간이라는 위상과 지원이라는 역할에 중점을 두면서, 지나치게 지원으로 흘러가는 방향보다는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중간지원조직을 살펴보았음

III

중간지원조직 운영현황 사례검토

1.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중간지원조직의 유형 및 역할

□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유형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나 기능은 주로 그 설립의 형식이나 운영의 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조직의 존립기반에도 큰 영향을 끼쳐왔음
- 국내 중간지원조직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관계 속에서 역할과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음
-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유형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고 운영 또는 직접 수행하는 공설공영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공설민영 ③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을 행정에 의지하지 않고 시민사회 영역이나 민간단체에서 설립하여 직접운영하는 민설민영으로 대부분의 조직은 공설민영의 경우가 많이 있음

□ 중간지원조직의 범위

- 국내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영역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조직 등으로 구분되며, 당사자 조직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그 활동범위에 따라 특징이 나뉘질 수 있음
- 전국을 대상으로하는 중앙단위에서의 중간지원조직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이에 해당하며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은 ‘광역자활센터’가 이에 해당하고,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과 지역의 당사자 조직을 매개하는 기초지자체 중간지원조직들로 나누어짐
- 중앙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위상과 역할은 광역단위 및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과 그 범위에 따라 핵심사업 등 업무내용에 차이가 있어야 하지만 약간의 업무적 차이를 제외하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20조 제4항에 따르면 중앙단위 중간지원조직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주요 역할로는 ①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지원 ②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③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지원 ④ 사회적기업 온라인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⑤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 개선을 위한 컨설팅지원 ⑥ 관련 국제교류 협력업무 ⑦ 그밖에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⑧ 각 호의 사업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 등으로 크게 여덟 분야의 역할을 제시
-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역할을 기능적인 분야로 정리하면 다음과같음

<표 5>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주요역할과 내용

역할	내용
자원과 기술의 중개	주민이나 단체, 법인의 활동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자금이나 기술지원 및 중개
인적자원 육성교육	당사자조직 및 자치기구, 조직이 자립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전문성 양성
사업지원 및 컨설팅	공동체사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지원,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컨설팅, 경영회계 및 마케팅 지원
심사 및 인증지원	인증지원 및 평가, 실태조사 및 지속적 모니터링
조사연구 정책제안	지역자원조사, 지표를 활용 정책개발, 포럼 및 정책제안
정보교류 네트워크	지자체나 시민단체, 기업 및 주민조직 등 각 주체에 대한 정보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통합정보 교류

출처: 김재현 외, 2013,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연구 p37-49 보완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의 경우, 동법 제 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진흥원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장에 위임한 사회적기업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나 인증에 필요한 업무, 교육훈련 실시 등의 업무가 추가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음
- 산업자원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중간지원조직을 기획력과 전문성, 마케팅 능력 등을 갖춘 에이전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및 연구 등을 통해 활동기반 및 전문지식을 구축하고 공동의 핵심목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력과 정보, 인재 육성등을 실행하는 조직이라고 명시(경기연구원, 2015;56)

- 서울시의 경우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성에 의해 점차 강화되었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당사자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의 관계성, 특히 자금조성과 관련하여 기금의 형성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공구매절차 등 시장에 있어서의 기반 조성 인프라를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중간지원조직이 갖는 기능에서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이해가 가능함(이은애, 2015;26)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갈수록 강화되고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생태계 전반에서 중추적 역할로 확장되는 경향에 있음

2) 중간지원조직 유형별 운영현황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 기본정보

<표 6> 중간지원조직 주무부처 및 운영근거

주무부처	중간지원조직	운영 근거	실시연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	2007년 시행
기획재정부	중간지원조직(통합)	협동조합기본법	2012년 시행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마을기업 시행지침	2011년부터 시작
보건복지부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년 시행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각 주무부처의 해당사업마다 중간지원조직이 존재하며 법률 및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효과적지원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



〈표 7〉 중간지원조직별 주요 역할

구분	주요 역할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 중간지원조직	신규 사회적기업가 양성, 사업화지원, 모니터링 및 평가, 네트워크 구축, 경영 컨설팅, 정보교류, 교육 및 훈련 등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	경영컨설팅, 노무·회계 등의 자문, 현장·실무중심 교육, 지역공동체 운영,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마을기업 박람회 개최 등(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자율적 운영 가능)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	인프라구축, 자활촉진 사업지원, 사회적일자리형성 등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은 실질사업수행

-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등 조직형태에는 차이가 있으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나 기능은 비슷함
- 규모 및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차이는 존재하지만 현장의 업무활동 실태는 광역이나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업무영역이 광범위함
- 중앙이나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고, 조직과 조직 사이에서 협력과 네트워크를 견인하며, 조직원과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촉매이자 조정자로서 위치함
- 법률이 정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이외에 주요역할에 수반되는 활동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지원업무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즉,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설립에 따른 유형 및 예산 규모, 운영방식과 형태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주요활동은 대체로 비슷함

2. 사회적경제분야 중간지원조직 운영현황(전주시 도시혁신센터)

1) 중간지원조직의 유형 및 역할

-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분야를 포함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으로 2015년 7월 설치
- 시·군단위 자치단체에서 규모있게 설립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설립형태는 공설민영으로 운영
- 주요활동으로는 지역사회 주체발굴을 위한 주민교육과 현장조사, 이를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 설립교육 및 창업동아리 발굴지원, 사회적경제조직 합동간담회 등으로 다른 지역 중간지원조직의 활동가 비슷함
- 특히 전주형 사회적경제 사업으로 대표되는 온두레공동체사업은 지역의 특성에 맞춘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전주시민 누구나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도모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하는 목적사업으로 2015년 소규모 공동체 56곳, 마을공동체 10곳을 선정하여 지원
- 또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동안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일대를 대상으로 전통문화지구, 감영지구 등 권역별 기능강화를 통한 거점강화사업도 지원



〈표 8〉 전주시 도시혁신센터 주요업무

구분	주요 역할
인재육성 및 역량강화	-공동체 발굴 및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회적경제 청년캠프 운영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 및 주민협의체 발굴
정책사업 현장지원	-온두레공동체사업 및 지원활동 -전주형 협동조합 설립지원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승암새뜰마을 현장지원
정책연구 및 의제발굴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및 현장 컨설팅 지원 -전주 미래유산 포럼 등
지역사회 협력사업	-마을재생 추진위원회 운영지원 및 공동체 간담회 개최 -공동체 도시재생 현장지원 및 아파트공동체 지원
도시혁신센터운영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사업 등 -노송밥나무 협동조합 설립 및 도시농부육성 등

출처: 전주시청 사회적경제지원단 자료

- 자치단체 특성상 위의 표 외의 다른 단위사업도 진행되고 있음
- 전주시 중간지원조직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내부적으로는 비슷한 업무가 중복되는 지점이 있음
- 행정주도에 의한 정책사업을 지원하거나 동원이 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자율성 및 전문성은 향후 보완이 필요함

2) 중간지원조직의 예산 및 조직운영

- 전주시 중간지원조직의 연간 위탁비용은 10억원으로 전액 전주시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전체사업비의 70~80%는 인건비에 해당하고, 나머지 20~30%는 조직운영과 사업비로 소요되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 직원 수는 14~1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업무분장은 센터장을 비롯하여 사회적경제국과 도시재생지원국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사회적경제국은 교육홍보팀과 기업지원팀으로, 도시재생지원국은 도시재생팀과 공동체지원팀, 시설관리팀으로 구분됨

- 도시재생지원국에는 사무국장과 팀장사이에 차장이 배치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 보다 도시재생의 업무비중이 높은편임
- 또한 인사노무를 맡은 운영지원팀이 구성되어 있고, 별도의 역할인 금융복지상담소는 전주시청 민원봉사실에서 통합운영하고 있음



<그림2> 전주 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도

출처: 전주 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홈페이지

- 국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예산집행의 주요항목은 인건비와 사업비로 나누어지며, 예산항목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질 높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임
-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중간지원조직의 규모에 따라 직원 채용에도 영향을 미치며 고용에 따른 복지혜택도 고민되어야 하지만 행정입장에서는 위탁계약에 의한 한계비용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함
-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근로조건도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히 고려해야 할 부분임



3. 마을만들기 분야 중간지원조직 운영현황(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1) 중간지원조직의 유형 및 역할

- 전라북도 농촌마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2009년 12월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공포함으로써 설치(전라북도 마을만들기협력센터 운영 개시)하였고, 사)지역활력센터가 수탁운영하여 공설민영으로 볼 수 있음
- 전라북도 향토산업마을조성사업, 체험휴양마을, 슬로시티 등 전라북도 정책에 의한 지원사업들을 주력사업으로 추진하였음
- 전라북도 광역 중간지원조직인 전라북도 마을만들기협력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촌관광지원센터가 통합되어 전라북도 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음(근거법령: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생생마을처, 귀농귀촌처, 농촌관광처로 구분 할 수 있음

〈표 9〉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

구분	주요 역할
생생마을처	-생생마을만들기 정책개발, 사업발굴에 필요한 연구·조사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주민교육, 자원조사,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시·군 중간지원조직 구축 및 활성화 지원
귀농귀촌처	-귀촌관련 조사와 홍보 -정책발굴, 홍보 및 정보제공 -귀촌정착지원, 농촌유학 활성화 등
농촌관광처	-농어촌 관광상품 개발, 컨설팅, 자원조사 -네트워크 구축 -운영주체 양성교육, 홍보 및 마케팅 등

출처: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 자료

2) 중간지원조직의 예산 및 조직운영

-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연간 위수탁비용은 21억원으로 국비(도지특)와 도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전체사업비의 약 40%는 운영비에 해당하고, 약 60%는 사업비로 소요되고 있음
- 사업비 중에서 기반구축강화가 약 25%, 통합관리 및 지원강화가 약 14%, 농촌관광운영강화가 약 13%이며, 주민역량강화와 마을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조직운영은 생생마을처, 귀농귀촌처, 농촌관광처에 각 처장직이 존재하고, 팀장과 연구원의 직급체제로 운영하고 있음



<그림3>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조직도

출처: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4. 마을만들기분야 중간지원조직 운영현황(농촌활성화지원센터)

1) 중간지원조직의 유형 및 역할

-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예비단계 지원 및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전라북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201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3년부터 전국 9개 도에 1개씩 설치되어 운영
- 근거법령으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 31조로 중앙단위에서 설치하고, 민간에서 위탁운영하는 공설민영의 형태로 조직되었음(도 또는 도에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에 위치한 대학, 공공·민간 전문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도와 협의한 광역지원조직)
- 주요 역할로는 정보교류, 지역인적자원 육성·관리, 현장포럼 지원 등으로 구분이 되며 각 지역의 센터마다 자율사업 또한 추진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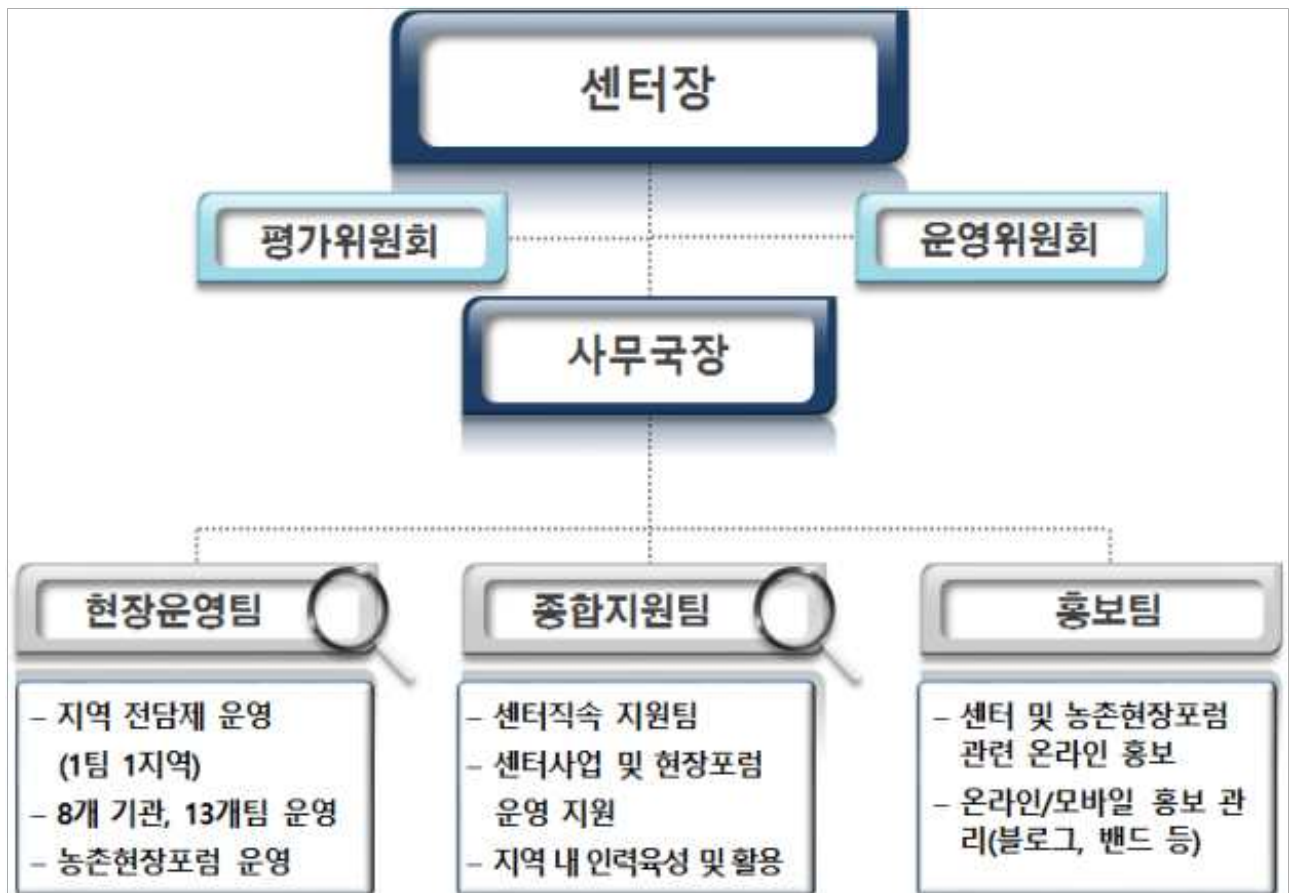
<표 10>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주요업무

구분	주요 역할
정보교류	-전문가 워크숍 -정보지 발간, 도내 우수사례 발굴 등
지역인적자원 육성·관리	-총괄기획가 연계 -지자체 현장활동가 역량강화, 민간전문가 육성, 마을리더 교육 등
현장포럼지원	-마을자원분석, 주민역량평가 -퍼실리테이션, 관련전문가 지원 -종합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등
기타업무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추가교육 등

출처: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자료 중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부분

2) 중간지원조직의 예산 및 조직운영

-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연간 운영비용은 국고보조 50%, 지방비 50%로 개소당 80~130백만원(평균 120백만원)으로 전체 사업비 중 인건비의 비중이 약 47%, 운영경비 약 8%, 직접비 45%로 인건비와 직접비의 비중이 비슷함
- 전국의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인건비 비중은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직접비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나 현장활동가 육성, 마을리더교육, 연구과제 등 고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업이 있어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음
- 조직현황은 내부인력으로 센터장과 인건비를 받는 내부인력 2인으로 사무국장과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지역의 센터마다 방법으로 인력보충 및 인프라를 통해 조직관리 및 사업운영을 실시



<그림4> 전라북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조직도

출처: 전라북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자료



5. 타 분야 및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 운영사례의 시사점 및 연구방향 설정

1) 기관별 운영사례 요약 및 시사점

○ 전주시 도시혁신센터(사회적경제·도시재생)

- 중간지원조직 영향에 미치는 동력에 있어서 풀뿌리 민간영역의 자생력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활성화보다는 행정의 정책 주도성이 지나치게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됨
-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조례제정이 되어있고, 사업 추진 시 민주적 의사결정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협치에 대한 의지는 높은 것으로 보여짐
- 중간지원조직 설치목적에 맞는 역할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지역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과 차별화된 사업영역이 존재(지역의 상황 및 정책적 차이에 의한 세부사업)

○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전북도청의 주도로 센터장회의, 워크숍 등의 절차를 통한 의견수렴 후 3개 기관이 통합된 형태의 조직구성을 보이고 있음
- 전라북도 정책수립에 의한 지원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광역단위로서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지원, 도단위의 정책지원 등은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과 역할적 차이가 존재
-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과 기능은 지침상 수립되어 있지만 도 정책의 변화가 직접적인 센터운영 및 사업(역할)에 대한 변화로 연결되어 정책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존재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전국에 9개 도에 설치된 농식품부 직속 광역중간지원조직으로 지침에 의한 역할이 명시되어 있고, 필수로 추진해야할 일부 사업항목이 존재하며 특히, 중앙·도·시(군)의 행정과 민간 및 농촌마을간의 가교역할 및 중간역할로 타 중간지원조직과 차이가 있음

- 사업운영에 자율성이 있지만 예산, 평가,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하여 현장포럼 지원,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연구과제 등 사업항목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적 특색을 살린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존재

2) 연구 방향설정

○ 타분야 및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사례검토

- 설치를 위한 근거법령 및 지침이 존재하였고, 행정주도적인 공설 민영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지침에 의한 사업영역 및 주요역할이 명시되어 있었고, 큰 틀로는 교육, 조사 및 연구, 사업지원 및 컨설팅, 네트워크로 구분이 가능함
- 예산의 경우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은 국비와 도비를 매칭하였고, 타분야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은 전액 자치단체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전체 사업비 중 인건비의 비중이 높거나 직접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음
- 이렇듯 조직구성의 경우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조직운영 매뉴얼 구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 사례조사 및 분석에 대한 연구방향설정

- 유형별 사례조사 시 주요사업 및 업무, 지역의 특성에 따른 자율적인 사업영역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재원조달의 경로, 예산의 구분 및 비중을 고려하여 조사
-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있어 공통된 부분과 함께 유형별·분류별 구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도 있으며 다양한 유형을 제시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구축하는 것이 본 연구의 차별화된 방향임



IV 중간지원조직 유형별 운영사례 조사분석

1. 중간지원조직 유형별 운영사례 조사분석 개요

1) 유형구분 설계

-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유형은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및 사례연구를 통해 검토한 결과, 중간지원조직의 유형구분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역할, 예산, 조직형태 등 내용적으로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음
-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최초 설치될 당시 방식에 의한 차이로 유형을 구분함
 - 유형 1: 행정의 주도로 정책적으로 설치된 관 주도 설치 유형
 - 유형 2: 지원사업인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공모형 설치 유형
 - 유형 3: 지역의 필요에 의해 설치된 민간주도 설치 유형

2) 단계구분 설계

- 중간지원조직은 아직 설치 전인 지역부터 약 10년정도 운영 중인 지역이 있을 만큼 다양한 경우가 존재
- 실제 전라북도 내 10개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 실무자들 약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단계구분에 적용함
 - 단계 1(시작): 중간지원조직 설립준비, 설립, 초창기
 - 단계 2(기반다지기): 중간지원조직 운영 1 ~ 3년차
 - 단계 3(지속운영): 중간지원조직 운영 4년차 이상

3) 조사방법 및 대상지 선정

○ 조사대상지는 다음과 같음

- 유형 1: 완주공동체지원센터
- 유형 2: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 유형 3: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필요 시, 유형별 조사대상 기관을 추가하며 각 기관별 조직, 예산, 운영방식의 변화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

○ 본 연구는 전라북도 내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을 중점적으로 사례 조사하여 유형으로 선정된 완주군, 정읍시, 진안군의 중간지원조직을 주요 대상으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였음

○ 사례조사는 전북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사무국과 종합지원팀에서 약 3개월 동안 직접방문 및 인터뷰를 실시하고, 부족한 정보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추가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대상으로는 각 지역별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4) 분석방법

○ 유형별 중간지원조직 사례조사를 통한 매뉴얼 자료수집 및 기본분(류)석

- 사례조사 방법은 대상지역의 중간지원조직 구성원에 대한 면담 및 인터뷰, 정기적인 운영현황 모니터링, 운영과 직접관련된 자료수집 등으로 추진(자료수집은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모두 해당)
- 수집된 자료는 유형별·분류별 정리 및 분석



2. 중간지원조직 유형별 사례조사 결과

1) 유형1: 완주공동체지원센터

□ 1단계(시작단계) 기본정보, 기관설립 및 조례제정

<표 11> 완주공동체지원센터 설립단계 기본정보

구분	내용
기관명	(재)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주체	완주군, (민간)완주공동체지원센터
설립연도/장소	2010년/완주지역경제순환센터
설립 시 직원 수	6명
설립 시 조직체계	이사장, 사무국장, 팀장, 연구원
설립 시 재원마련	기금조성
초창기 운영재원마련	위탁사업비
조례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 조례

- 완주군은 중간지원조직을 완주군에서 운영하며 완주공동체지원센터에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완주공동체지원센터는 2010년에 설립되었고, 설립 시 직원수는 6명으로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연구원 3명으로 구성되었음
- 설립 시에는 기금을 조성하여 재원을 마련하였고, 초창기에는 위탁사업비로 기관을 운영하였음
- 설립 시 운영 목적은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을 위한 주민 중심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 재생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 자원조사, 사업 발굴, 연구 실행, 홍보마케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조례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46조, 제 49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1조에 따라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였음(2009년 12월)

- 설립 시 주요기능 및 역할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을 위한 주민 중심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 재생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 자원조사, 사업 발굴, 연구 실행, 홍보마케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있음

〈표 12〉 완주공동체지원센터 설립절차

순 번	연도	내 용
1	2008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 5개년계획 수립 (5년간 500억 투입)
2	2008	농촌활력사업을 위한 행정조직개편/ 농촌활력과신설(5개팀)
3	2008	약속프로젝트 5개년계획 시행을 위한 예산 및 행정인력 확보
4	2008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중간지원조직도입 필요에 따른 연구용역 제안
5	2009	완주군커뮤니티비즈니스육성방안 용역시행
6	2010	센터설립계획, 리모델링, 운영주체 및 사업계획, 실행사업준비
7	2011	(재)완주군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설립

- 완주군의 경우 2008년부터 행정에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농촌마을 및 지역공동체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준비한 것으로 보여짐
- 행정의 조직개편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인력을 확보 한 후 중간지원조직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제안하였고, 외부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센터설립계획, 사업계획, 리모델링 등을 준비하였음
- 2009년 연구용역 시행 후 2011년 (재)완주군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중간지원조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음



- 설립 시 발생했던 애로사항으로는 재단설립 시 발기인 구성에 관한 건으로 설립 초기 지역내 행정(완주군, 농기센터 등), 민간단체(농협, 학교, 농민단체 등)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야하는 부분과 재단설립 초기 출연금에 관한 건으로 업무용비품 외 일정규모의 금액을 재단 참여자의 출연금으로 확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표 13> 완주공동체지원센터 조례제정 절차

순번	연도	내용
1	2008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 5개년계획 수립
2	2008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중간지원조직도입 필요에 따른 연구용역 제안
3	2009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육성방안 용역시행
4	2009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육성방안 용역에 따른 조례제정 제안
5	2009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조례 제정
6	기간	2011년 ~ 2018년 6차례 조례 일부개정
7	2016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 설립 시 지침 및 지원사업의 종류로는 ①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집행·평가·보고에 관한 사항 ② 지역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③ 지역자원 발굴·조사·관리와 연구, 출판 및 사업화 ④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자체 공모사업 선정·집행·평가 및 우수사례홍보 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정책 및 사업의 개발과 육성 지원 ⑥ 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한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 지원 ⑦국내외 선진지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⑧ 기타 재단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 있음
- 조례제정은 설립을 위해 시행했던 연구용역을 통하여 같이 제안하였고, 2009년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조례가 제안되어 제정되었음
- 이 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6차례에 걸쳐 조례의 일부내용이 개정되었으며 2016년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조례”에서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면개정 되었음

□ 2단계(기반단계), 3단계(지속운영단계) 조직체계 및 팀 구성

<표 14> 완주공동체지원센터 기반단계 조직체계 및 팀 구성

구 분	내 용		
	1차년도(2011년)	2차년도(2012년)	3차년도(2013년)
조직체계	-이사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팀장 -연구원	-이사장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연구원	동일
팀 및 부서	-CB사업부 -마을사업부 -귀농귀촌사업부	동일	동일

- 완주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이사장,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직책을 맡고 있고, 사무국장, 팀장, 연구원으로 인건비를 받는 상근직원으로 볼 수 있음
- 팀 및 부서에는 총 3개 팀이 존재하며 CB사업부, 마을사업부, 귀농귀촌사업부로 구성되어있음
- 운영 3년차까지의 기반단계에서는 조직체계와 팀 및 부서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짐

<표 15> 완주공동체지원센터 지속운영단계 조직체계 및 팀 구성

구 분	내 용		
	4차년도(2014년)	5차년도(2015년)	8차년도(2018년)
조직체계	-이사장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연구원	동일	동일
팀 및 부서	-CB사업부 -마을사업부 -귀농귀촌사업부	-공동체 육성팀 -완주 르네상스팀 -주민 상담팀	-사무국 -공동체육성지원팀 -사회적경제지원팀 -도시재생지원팀

※ 6년차, 7년차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략함



- 조직체계는 큰 변화가 없이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연구원의 체계로 운영하고 있음
- 팀 및 부서는 5년차인 2015년부터 변화가 생겨 팀 명칭이 변화하였지만 팀 및 부서의 수는 같았고, 8년차인 2018년에는 사무국이 추가되었으며 팀 명칭이 역시 변화하였음
- 팀 명칭의 변화는 팀 별 역할이 변화는 사업내용에 의한 팀별 역할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16> 완주공동체지원센터 조직체계 업무내용

구 분	내 용	
	고유업무	사업담당업무
센터장	-센터사업 총괄 -대외업무	-센터업무 총괄 -마을네트워크 활동 및 교육
사무국장	-센터업무 총괄 -지역 내 거버넌스 구축 -재단법인 관리	-정책개발연구 -사회소통기금 운영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지원 -마을공동체 육성 총괄
공동체 육성팀	-마을공동체 육성 업무총괄 -아파트르네상스 업무총괄	-마을공동체사업 시책개발 -아파트공동체사업 육성총괄 -아파트공동체 시책개발
사회경제팀	-사회적경제 업무총괄 -지역공동체 육성업무총괄	-사회적경제 시책개발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도시재생팀	-도시재생 업무총괄	-도시재생 지원 -도시재생 시책개발 -도시재생 주민교육

- 완주공동체지원센터의 조직체계 업무내용은 2018년의 조직체계에 정리된 것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의 각 부서마다 고유업무가 분산되어 효율적인 사업 및 업무추진이 가능함
- 센터장 및 사무국장의 경우 사업 및 업무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정책개발연구를 수행하여 실무자와 다른 업무를 추진 중에 있음

□ 2단계(기반단계), 3단계(지속운영단계) 사업내용

<표 17> 완주공동체지원센터 기반단계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1차년도(2011년)	2차년도(2012년)	3차년도(2013년)
중앙단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농촌형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활동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농촌형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활동 -도시농업연구 -농촌형 방과후교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귀농귀촌학교 -도시농업연구 -로컬에너지 -농촌형 방과후교실 -농촌직업학교
도	-	-	-
지자체	-사업발굴 및 육성 -교육네트워크 -홍보마케팅	-사업발굴 및 육성 -교육네트워크 -홍보마케팅	-사업발굴 및 육성 -교육네트워크 -홍보마케팅

- 완주공동체지원센터는 지자체 지원금으로만 기관운영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SK등 과 외부의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었음
- 지자체 지원사업 뿐만아니라 다른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자립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며 완주군으로부터 경상비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사업비를 중심으로 한 위탁운영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함이며 중앙정부 및 대기업 공모사업 추진 및 CB의 확산에 따른 다른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단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등 자체 수익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센터의 자립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 설립초창기인 2011년의 지자체 지원사업은 ‘사업발굴육성’, ‘교육네트워크’, ‘조사연구 및 DB구축’, ‘홍보마케팅’ 으로 크게 구분이 가능함
- 사업발굴육성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사업인 창업공동체 모니터링 및 컨설팅, 공동체 협력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추진하였음



- 교육네트워크에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과 연계한 창업공동체 아카데미, 지역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단체 워크숍인 씨포터즈 포럼, 전국마을네트워크와 같은 대외협력사업, CB한일포럼을 추진하였음
- 조사연구 및 DB구축에서는 중간지원조직 국내외사례 조사연구, 마을공동체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조사연구를 추진하였음
- 홍보 마케팅에서는 대학생기자단 운영과, 대외홍보를 추진하였음
- 2012년과 2013년 역시 큰 틀에서 변화는 거의 없으며 찾아가는 마을 교육 및 공동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표 18> 완주공동체지원센터 지속운영단계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4차년도(2014년)	5차년도(2015년)	6차년도(2017년)
중앙단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귀농귀촌학교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귀농귀촌학교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귀농귀촌학교 등
도	-	-	-
지자체	-사업발굴 및 육성 -교육네트워크 -홍보마케팅	-공동체육성 및 지원 -완주르네상스 육성 및 도시재생사업 -공동체 및 농업농촌 활성화시책개발 -주민상담 및 홍보	-공동체사업현장지원 -정책개발연구 -주민상담및네트워크

- 지속운영단계에서도 중앙단위 및 외부의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완주군의 자체 지원사업은 5차년도부터 세부적인 과업명칭에 변화가 생기며 각 부서별 업무분장을 통해 사업을 추진

□ 2단계(기반단계), 3단계(지속운영단계) 예산 및 재원마련

〈표 19〉 완주공동체지원센터 기반단계 예산 및 재원마련 변화

구 분		내 용(단위: 천원)		
		1차년도(2011년)	2차년도(2012년)	3차년도(2013년)
예산	총액	500,000	300,000	360,000
	직접비	300,000	165,000	142,000
	인건비	200,000	135,000	218,000
재원 마련	국비	-	-	-
	도비	-	-	-
	시·군비	500,000	300,000	360,000

- 완주공동체지원센터는 기반단계에서 설립당시를 제외하고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2013년 이 후에도 예산이 점차적으로 증가)
- 설립당시에는 직접비의 비중이 다소 크게 계획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CB창업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발굴 및 육성 사업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 예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직접비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2013년 이후에도 인건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
- 완주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전적으로 시·군비를 통해 마련하고 있지만 자립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중앙단위 및 외부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재원의 경우에도 설립당시만 제외한다면 완주군으로부터 지원받는 총예산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표 20> 완주공동체지원센터 지속운영단계 예산 및 재원마련 변화

구 분		내 용(단위: 천원)		
		4차년도(2014년)	6차년도(2016년)	8차년도(2018년)
예산	총액	360,000	400,000	550,000
	직접비	125,000	84,624	126,400
	인건비	235,000	315,376	423,600
재원 마련	국비	-	-	-
	도비	-	-	-
	시·군비	360,000	400,000	550,000

※ 5년차는, 7년차는 전년도와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략함

○ 완주공동체지원센터는 완주군에서의 위탁지원금으로 총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인건비도 증가하여 인원보충 및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도 좋은 것으로 보여짐

□ 운영 상 장애요인 및 극복내용

<표 20> 완주공동체지원센터 장애요인 및 극복내용(내부적문제)

구 분	내 용		
	2014년	2015년	2017년
장애요인	민선 6기 조직 구성원 변화 및 조직 체계변경	아파트공동체사업 신규 추진	도시재생사업 신규추진
극복내용	-신규조직 구성 -팀별 고유업무 지정	-신규공동체 사업분야 추진 -아파트공동체팀 신설	-도시재생팀 신설 -외부 전문인력 충원

<표 20> 완주공동체지원센터 장애요인 및 극복내용(외부적문제)

구분	내 용		
	2015년	2017년	2018년
장애 요인	마을공동체와 행정간 마찰로 행정·중간지원조직·마을공동체간 소통체계 구축 필요	마을·지역·아파트공동체 간 협업에 대한 욕구	사회적경제분야 추진
극복 내용	마을공동체협의회 출범 -매월1회 회의개최 -행정·중간지원조직 참여	어울렁더울렁 연합행사 추진 -공동체간 소통과 교류의 장 마련 -완주군 2개권역별 연합 행사 실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출범 -마을공동체/지역공동체 참여

2) 유형2: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 1단계(시작단계) 기본정보, 기관설립 및 조례제정

〈표 21〉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설립단계 기본정보

구분	내용
기관명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주체	정읍시,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설립연도/장소	2015년/정읍시 내장상동 주민센터 출장소
설립 시 직원 수	3명
설립 시 조직체계	센터장, 팀장, 팀원
설립 시 재원마련	공모사업(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초창기 운영재원마련	공모사업(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조례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정읍시는 중간지원조직을 정읍시에서 운영하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는 2015년에 설립되었고, 설립 시 직원 수는 3명으로 센터장, 팀장, 마을간사로 구성되었음
- 설립 시에는 농식품부의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에 선정되어 공모사업 지원비로 재원을 마련하였고, 초창기 운영을 위한 재원 역시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비로 마련하였음
- 설립 시 운영 목적은 ① 정읍시 공동체들의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 기반마련 ② 다양한 분야의 마을공동체, 창업공동체를 발굴 및 육성하여 자립적인 공동체 시스템 구축 ③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수요조사와 연구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유지 관리를 위한 DB구축을 병행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지역활력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조례로는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설립 시 주요기능 및 역할로는 다음과 같음

① 지역공동체 사업지원

-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 모든 과정에 대한 단계별 컨설팅
-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정읍시 공동체 협의회 운영 지원

② 공동체 정보관리

- 공동체 사업 전 과정 기록, DB구축, 성공 및 실패사례 네트워크

③ 주민교육과 마을리더 및 활동가 양성

- 공동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주민 교육
- 사업을 이끌어 갈 마을리더, 활동가, 전문가 육성

④ 공동체 홍보 및 전파

- 공동체 활동 참여 인식 개선 및 참여방법, 추진상황 등 안내
- 마을기자단, 마을축제, 마을소식지 등 마을만들기 확산

⑤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 지역단체, 활동가, 주민 등 공동체 주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표 22>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설립절차

순번	연도	내용
1	2012	지역사람 중심의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의 결실로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전담 행정부서인 “행복네트워크 사업단”을 구성
2	20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로 관리부서가 상이하고, 이에 따른 업무수행절차와 관리방식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역량이 분산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육성과 활성화를 전담하는 부서인 ‘공동체육성지원과’ 운영
3	2013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정읍시&고창군)의 일환으로 지역공동체 발굴과 육성을 위한 메이플-스톤 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4	2014	지역공동체학습센터를 통하여 주체별·수준별·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사업을 함께 이끌어갈 역량있는 지역공동체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하는 지역창의아이디어 사업 공모 선정 ‘지역공동체학습센터’ 설립 토대마련
5	2015	기존 ‘지역공동체학습센터’에서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설립

<표 23> 정읍시 중간지원조직 구성단계 및 추진절차

구분	연도	내용	
		구성단계	추진절차
도입기	2012	정읍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 지역 내 시민활동가 및 기관·단체의 지역 활동가들 위주의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결성
정착기	2013~2015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 설립(정읍시, 고창군)	- 정읍시와 고창군이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연계협력사업 공모 선정 - 공개채용을 통한 마을만들기 전문가 고용
안정기	2015~2018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설립	- 농식품부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공모 선정 - 2016년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와 통합운영 - 정읍시 독자적인 중간지원조직 설립



- 정읍시의 경우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해 행정의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여짐
- 행정의 전담부서 구성 후 2012년 정읍시 민간파트너로 민간 임의단체인 ‘정읍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구성 및 활동하였고, 2013년 정읍시와 고창군 공동으로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연계협력사업으로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15년 정읍시만 단독으로 농식품부의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에 선정되어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를 설립하였음
- ※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종료(2015년 12월 31일)로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와 통합운영하여 지역공동체 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였음
- 농식품부의 지역창의아이디어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공동체학습센터가 설립되어 메이플-스톤과 같은지역에서 업무를 대신하게 되었고, 1년 뒤 지금의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2013년 정읍시&고창군 메이플-스톤 공동체 지원센터가 설립되고 1년 뒤 2014년 지역공동체학습센터가 설립 되었고, 1년 뒤 2015년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더욱 체계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음
- 설립 시 발생했던 애로사항은 2개의 공모사업을 통한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으로 인해 지역 내에 비슷한 유형의 지원센터(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와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가 동시에 운영되면서 2015년도 한 해 동안 지역 공동체들의 혼란이 발생하였음
- 민간 위탁운영체계가 아닌 사업단 성격의 설립으로 행정의 사업연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음

〈표 23〉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조례제정 절차

순번	연도	내용
1	2012	민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해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조례를 제정
2	2012	지역인재와 지원을 활용하여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체사업의 법적 기반마련

○ 설립 시 지침 및 지원사업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음

① 정읍시 공동체 활성화센터 운영

- 인력 운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모델 개발

② 공동체육성 아카데미 운영

- 현장포럼 방식의 공동체 발굴·육성 프로그램 운영

- 시민창안대회 즐기단계 및 기존마을 회복력강화 프로그램 운영

③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마을만들기 활동가 양성지원

- 도시와 농촌이 하나되는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조례제정 시 행정 주도의 조례제정으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이것으로 인하여 행정과 민간의 실질적인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 할 항목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명시하지 못하였음



□ 2단계(기반단계), 3단계(지속운영단계) 조직체계 및 팀 구성

〈표 24〉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조직체계 및 팀 구성

구 분	내 용		
	1차년도(2015년)	2차년도(2016년)	3차년도(2018년)
조직체계	-사무국장 -팀장 -팀원	-사무국장 -팀장 -팀원	-센터장 -팀장 -팀원
팀 및 부서	-사무국 -총무기획팀 -현장지원팀	-운영지원팀 -공동체지원(1팀,2팀) -교육지원팀	-운영지원팀 -공동체지원 -교육지원팀 -현장지원팀

※ 2017년은 2016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였음

-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는 설립 시 사무국장, 팀장, 팀원 3인으로 시작하여 2016년 9명까지 증가, 2018년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음
- 2015년에 비해 2016년부터 많은 인원을 확보한 것은 정기적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는 3인과 함께 별도예산으로 지원받는 마을공동체 간사 4인, 과소화마을 대응인력 2인으로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통한 인력확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팀 및 부서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총 3개 팀으로 사무국, 총무기획팀, 현장지원팀으로 구성되었고, 2016년에는 총 4개팀으로 운영지원팀, 공동체지원 1팀, 공동체지원 2팀, 교육지원팀으로 사무국과 현장지원팀이 삭제되었으며 2018년에는 총 4개팀으로 운영지원팀, 공동체지원팀, 교육지원팀, 현장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음

〈표 25〉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조직체계 업무내용

구 분	내 용	
	고유업무	사업담당업무
센터장	-센터사업 총괄	-센터업무 총괄 -대외협력 네트워크
운영지원팀	-회계업무 및 행정지원	-회계업무 및 행정지원 -사업기획 및 사업지원 -지역연계사업 -청년공동체 지원
공동체 지원팀	-공동체 육성 및 지원활동	-공동체 육성 및 지원활동 -시민창안대회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교육지원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소식지 발간 및 홍보
팀원	-사업보조 및 운영	-실무보조 -사무행정 및 회계업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소식지 발간 및 홍보

-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의 조직체계 업무내용은 2018년을 기준으로 정리된 것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의 각 부서마다 고유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효율적인 사업 및 업무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센터장이 사업을 총괄,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 팀의 팀장들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팀원들은 각 팀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운영지원팀과 교육지원팀의 업무도 보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2단계(기반단계), 3단계(지속운영단계) 사업내용

〈표 26〉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기반단계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1차년도(2015년)	2차년도(2016년)	3차년도(2017년)
중앙 단위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고령친화형생생마을 재생사업
도	-	-정읍시 공동체육성 활성화 사업	-
지자체	-	-제 9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2017년정읍마을만들기 시민창안대회

-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는 설립당시인 2015년에는 농식품부의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만을 추진하였고, 2016년에는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과 함께 도 지원사업인 정읍시 공동체 육성 활성화사업과 함께 제 9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추진하였음
- 2017년에는 농식품부의 지원사업인 고령친화형생생마을 재생사업을 추진하며 지자체 사업으로 2017년 정읍마을만들기 시민창안대회를 추진하였음
- 세부적인 사업분야로 2015년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주민역량강화사업’, 청년공동체 및 지역공동체를 발굴하는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 ‘센터운영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음
- 2016년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습센터운영지원’, 시민주도의 지역공동체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시민창안 경진대회’, ‘주민역량강화사업’, ‘공동체역량강화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리더양성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음
- 2017년에는 고령친화형 농촌생생마을을 위한 ‘실무자 전문역량강화’, ‘홍보물발간’, ‘홈페이지 개편’, 시민주도의 지역공동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시민창안 경진대회’, 현장포럼을 통한 공동체 육성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교육’ 과 ‘찾아가는 대화모임’, 농촌고령자를 위한 ‘농촌고령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마을해설사 및 활동가 양성 등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일꾼사관학교 운영’, 청년공동체 발굴 육성 등을 위한 ‘기획 프로그램’ 을 추진하였음

<표 27>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지속운영단계 사업내용

구 분	내 용(4차년도 2018년)
중앙단위	- 고령친화형 생생마을재생사업
도	- 2018년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사업
지자체	- 2018년 정읍시 공동체육성활성화사업

-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는 지속운영단계인 4년차에 농식품부의 고령친화형 생생마을재생사업을 2017년에 이어 연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도 지원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사업을 받고 있고, 지자체에서 정읍시 공동체육성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시민주도의 지역공동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창안대회 운영’, 마을, 전문가, 청년공동체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활성화프로그램’,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체의 협업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으로 구분 할 수 있음



□ 2단계(기반단계), 3단계(지속운영단계) 예산 및 재원마련

<표 28>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기반단계 예산 및 재원마련 변화

구 분		내 용(단위: 천원)		
		1차년도(2015년)	2차년도(2016년)	3차년도(2017년)
예산	총액	387,000	773,000	535,351
	직접비	267,000	624,000	306,247
	인건비	94,200	137,000	218,304
	간접비	25,800	12,000	10,800
재원 마련	국비	271,400	581,000	239,105
	도비	-	10,000	-
	시·군비	115,600	315,000	296,246

-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비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며 국비지원을 받는 특성 상 예산의 규모가 타 지역의 예산에 비하여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여짐
- 기반단계인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총액은 일정한 흐름을 찾을 수는 없으나 인건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사업비 총액이 일정한 흐름을 보이지 않는 것은 공모사업의 특성상 연속사업의 경우에도 종료년차가 존재하며 새로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며 예산이 변동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읍시 자체적으로도 1년차보다 2년차와 3년차에 더 많은 지원을 통해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28〉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지속운영단계 예산 및 재원마련 변화

구 분		내 용(단위: 천원)
		4차년도(2018년)
예산	총액	598,607
	직접비	325,149
	인건비	232,158
	간접비	41,300
재원마련	국비	140,000
	도비	50,000
	시·군비	408,607

- 지속운영단계인 4년차(2018년)에는 직접비와 인건비, 간접비가 모두 3년차보다 증가하였고, 인건비는 감소 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8년에는 국비의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도비와 시·군비로 재원을 마련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음
- 국비의 비중이 점점 감소하는 것은 공모사업 신청 시 연차수에 따라 예산을 다르게 편성하였기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여짐
- 하지만 도 정책에 의한 도비 재원과 시·군비의 대폭 증가로 총액은 전년대비 상승한 결과로 보여짐



□ 운영 상 장애요인 및 극복내용

<표 29>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장애요인 및 극복내용(내부적문제)

구 분	내 용	
	장애요인	극복내용
1차년도 (2015년)	- 마을만들기 실무경험이 없는 실무자들로 중간지원조직이 설립(센터장 미선발) - 센터 설립의 목적성이 모호하고, 운영체계가 미흡 - 설립 일로부터 짧은 기간 내에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을 실행해야 하는 행정으로부터의 압박	- 대외 기관 및 마을만들기 관련 단체 벤치마킹 - 마을활동가교육 적극 참여 - 대·내외 활동가 인적 네트워크구축 - 센터 운영규정 수립 - 센터실무진들과 행정담당 주무관의 충분한 논의·협업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2차년도 (2016년)	- 센터 공모사업 종료(12월 31일)로 인한 운영재원 마련 시급 - 센터장 부재로 대외적인 센터의 위상저하	- 고령친화형생생마을재생사업 공모 선정(3년)으로 인한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의 사업비 확보 - 제9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센터의 위상 확립 → 2016년 센터장 선임
3차년도 (2017년)	- 행정과 거버넌스가 원활하지 못하고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민간위탁과 직영의 운영체계가 혼합되어 실무자들의 고충이 높아짐 (행정의 지나친 간섭)	- 주무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중간지원조직 담당 주무관의 보직이동으로 보다 원활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
4차년도 (2018년)	- 센터운영의 지속성 보장이 없음 - 행정의 의중에 따라 공개채용을 통한 실무자들의 교체 가능 (센터장, 팀장 근로계약서 부재)	- 사단법인으로의 민간위탁을 위해 행정과 협의 및 준비 중

-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의 장애요인으로는 크게 기관의 중복성, 인력의 전문성, 운영의 지속성, 운영체계 혼선에 의한 행정의 지나친 간섭으로 볼 수 있음
- 공모사업의 성격 상 종료연차가 다가오면 예산확보 및 지속운영에 대한 방안마련 및 추가사업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함
- 장기적으로는 사단법인으로 민간위탁의 방향을 협의 중임

〈표 30〉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장애요인 및 극복내용(외부적문제)

구 분	내 용	
	장애요인	극복내용
1차년도 (2015년)	- 지자체에 두 개의 중간지원조직이 활동하면서 기존 공동체들의 혼란이 발생하였고, 사업수립 및 실행에 있어 두 조직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 메이플-스톤 지원센터의 사업을 협업하여 지원하면서 신규사업인 청년공동체 발굴 및 육성사업과 지역의 마을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사업을 진행함
2차년도 (2016년)	-	-
3차년도 (2017년)	-	-
4차년도 (2018년)	- 기존 센터사업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정읍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개발하지 못함	- 기존 사업의 보완과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지역활동가, 행정의 함께 하는 포럼개최 및 자체적인 워크숍을 통해 노력 및 보완하고 있음

- 설립초기 기존의 기관이 존재하여 두 개의 중간지원조직이 중복되었지만 연계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 및 통합운영을 하게 되었음
- 정읍시 자체의 마을만들기 모델 및 사업을 발굴·개발하여 지역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부재한 상황으로 행정 및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 및 보완 중에 있음



3) 유형3: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1단계(시작단계) 기본정보, 기관설립 및 조례제정

〈표 31〉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단계 기본정보

구분	내용
기관명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주체	사)마을엔사람
설립연도/장소	2013년/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 시 직원 수	4명
설립 시 조직체계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연구원소장
설립 시 재원마련	민간위탁금, 자체수익금
초창기 운영재원마련	민간위탁금, 자체수익금
조례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진안군 중간지원조직을 사단법인 마을엔사람이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시 직원 수는 4명으로 센터장(비상근), 사무국장, 팀장, 연구원소장으로 구성되었음
- 설립 시 민간위탁금과 자체수익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고, 초창기 운영 역시 민간위탁금과 자체수익금을 통해 마련하였음
- 설립 시 운영 목적은 주민교육 및 마을 네트워크 핵심 거점공간 구축이 주된 목적임
- 조례로는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설립 시 주요기능 및 역할로는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사무공간 제공, 마을만들기 정책발굴을 위한 정책포럼 및 워크숍 운영, 마을만들기 사업지구 주민교육 및 컨설팅, 마을만들기 연수 방문

팀 견학 안내,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와 관련 민간단체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음

<표 32>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 및 조례제정 절차

구 분	내 용
설립절차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부터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교육과 마을간의 네트워크를 위한 거점공간의 필요성 인식 - 외부 연수 방문팀의 교육공간 등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의 협의체인 ‘진안군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와 사회단체, 행정 등이 참여하여 30여회차의 회의를 거쳐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치와 기능, 조직 구성, 입주단체 등을 결정 - 지원센터 설립추진단 구성 및 정기회의 개최 -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준공 및 개소식
조례제정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부터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이 후 2003년 진안군 자체사업인 ‘으뜸마을가꾸기’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으뜸마을가꾸기 추진조례’를 제정 - 2010년 현재의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를 제정 - 2012년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진안군 마을만들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 진안군의 경우 2001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마을지원 및 외부방문팀의 교육공간 마련 등을 위해 중간지원조직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민간단체 행정 등이 수차례 논의 및 회의를 통해 준비를 한 것으로 보여짐
- 2013년 설립하기 전 2011년 행정 담당과에서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주요기능, 필요성, 위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발표회를 실시하였음
- 2013년 진안군에서 본격적으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사단법인 마을엔사람이 위탁운영을 실시하게 되었음



- 설립 시 애로사항으로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시 공간마련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운영비 지원에 난색을 표한 군의회의 의견으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사업비만 일부 지원받아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음
- 설립 시 지침 및 지원사업의 종류로는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소식지 발행,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및 워크숍, 마을만들기 주간 운영,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이었음
- 조례제정은 진안군 자체 단계별 지원정책 사업인 으뜸마을가꾸기 추진을 위한 추진조례를 2001년에 제정하였고, 2010년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년 뒤 2012년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였음
- 설립 시 조례제정 애로사항으로는 조례 제정시에도 군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명시하였음

<표 33>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구성단계 및 추진절차

구 분	추진절차
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심의 및 승인 :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용도변경 및 관리이관 - 설립추진단 구성 및 정기회의 개최 :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를 중심으로 설립추진단 구성 및 운영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출 : 군의회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법적 근거마련 - 위탁기관 공고 - 운영위원회 개최 : 위탁기관 선정
설치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식 - 마을만들기 관련기관 입주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입주단체 협의회 구성 : 입주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운영단계(운영 및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인력 채용 - 위탁기간 연장 : 위탁기간 만료(3년), 1회에 연장 가능
운영단계(재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관 재선정 : 위탁기간 만료(3년), 2회 연장 불가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의뢰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군의회 -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탁기관 선정) - 위탁협약 체결 및 공증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

- 진안군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구성단계를 준비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운영 및 연장), 운영단계(재선정)로 구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추진절차를 위의 표와같이 정리 할 수 있음
-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준비단계에서는 조직 구성 및 회의를 실시하고, 조례제정 및 법적 근거마련,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짐
- 운영단계에서는 인력채용 및 위탁기관 연장 등 재선정에 대한 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짐



□ 2단계(기반단계), 3단계(지속운영단계) 조직체계 및 팀 구성

<표 34>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조직체계 및 팀 구성

구 분	내 용		
	1차년도(2013년)	2차년도(2014년)	6차년도(2018년)
조직체계	-센터장(상임이사) -사무국장 -팀장	-센터장(상임이사) -사무국장 -팀장 -연구원	-센터장(상임이사) -총괄국장 -팀장 -연구원
팀 및 부서	-총무팀 -교육팀 -홍보팀 -(부설)마을만들기 연구소	동일	-총무회계팀 -교육팀 -업무지원팀 -과소화대응팀 -(부설)마을만들기 연구소

※ 2015년~ 2017년은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

-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설립 시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으로 구성된 조직체계를 구축하였고, 중간지원조직 부설으로 마을만들기 연구소가 있어 연구소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 이 후에는 연구원이 추가되었고, 2018년에는 사무국장에서 총괄국장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 말고는 특이점이 없다고 볼 수 있음
- 팀 및 부서에는 총무팀, 교육팀, 홍보팀, (부설)마을만들기 연구소가 있고,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가장 최근인 2018년에는 총무회계팀, 교육팀, 업무지원팀, 과소화대응팀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임
- 과소화대응팀은 도의 정책적 지원사업에 일환으로 각 시·군에 인력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

〈표 35〉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조직체계 업무내용

구 분	내 용	
	고유업무	사업담당업무
센터장	-비상근	-대외협력
사무국장	-사업실무총괄 -네트워크관리	-주민교육 -사업지구 컨설팅 -현장포럼 운영 -중간지원조직 구축 지원사업
총무회계팀	-사무 및 회계 등	-사무 및 회계업무 등
교육팀	-지역 및 마을교육	-지역역량강화사업 -농촌현장포럼 -자체사업지구 컨설팅 -콘테스트 지원 -지역조사 및 분석 등
업무지원팀	-사업 및 홍보지원	-학습형 농촌관광업무 -소식지 등 대외 홍보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마을만들기 주간행사 -센터 시설관리 등
과소화 대응팀	-과소화마을지원	-과소화마을 자원조사 -마을사업지원 등
(부설) 마을만들기 연구소	-연구용역 수행	-마을컨설팅 -연구용역 -지역조사 및 분석 등

-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조직체계 2018년을 기준으로 정리된 것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활동 중이고, 사무국장부터 각 팀들의 고유 업무가 잘 분산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수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또한 부설연구소인 마을만들기연구소를 설치하여 마을컨설팅 및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지원사업 뿐만아니라 별도의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2단계(기반단계), 3단계(지속운영단계) 사업내용

<표 36>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기반단계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1차년도(2013년)	2차년도(2014년)	3차년도(2015년)
중앙 단위	-	-	-2015년 진안군 역량강 화 지원사업
도	-	-	-
지자체	-2013년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사업(위탁)	-2014년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사업(위탁)	-2015년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사업(위탁)
수익 사업	-교육 및 컨설팅사업 -외부 연구용역 -외부 견학팀 연수	-교육 및 컨설팅사업 -외부 견학팀 연수	-교육 및 컨설팅사업 -연구용역 수립 -외부 견학팀 연수

-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설립 후 지속적으로 진안군으로부터 위탁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농식품 부에서 역량강화사업비를 지원받아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 2013년에는 ‘마을만들기 주간 행사운영’, ‘마을만들기 정책 포럼 및 워크숍’, ‘마을만들기 홈페이지 전면 개편’, ‘마을만들기 소통미디어 개발 및 발간(소식지)’ 를 추진 하였음
- 2014년에는 ‘마을만들기 주간 행사운영’,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및 워크숍’, ‘마을만들기 소식지 발간’ 을 추진하였음
- 2015년에는 지역역량강화사업과 진안군의 지자체사업인 마을만들기 활성화지원사업으로 2014년과 사업내용이 동일함
-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지자체의 지원사업과 함께 추가적으로 컨설팅 및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진안군을 찾는 선진지견학팀들에 대한 수익도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7〉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지속운영단계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4차년도(2016년)	5차년도(2017년)	6차년도(2018년)
중앙 단위	-2016년 진안군 역량강 화 지원사업	-2017년 진안군 역량강 화 지원사업	-2018년 진안군 역량강 화 지원사업
도	-	-과소화인력대응 육성사업	-과소화인력대응 육성사업 -중간지원조직 구축 지원사업
지자체	-2016년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사업(위탁)	-2017년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사업(위탁) -제 10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2018년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사업(위탁)
수익 사업	-교육 및 컨설팅사업 -연구용역 수립 -외부 견학팀 연수	-교육 및 컨설팅사업 -외부 견학팀 연수	-교육 및 컨설팅사업 -외부 견학팀 연수

- 2016년에는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주간행사 운영’, ‘마을만들기 정책 포럼 및 워크숍’, ‘마을만들기 소식지 발간’ 을 추진하였음
- 2017년에는 ‘마을만들기 주간행사 운영’,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및 워크숍’, ‘마을만들기 소식지 발간’,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대외 홍보 및 이미지 제고’, ‘센터 시설유지 및 관리’, ‘센터 홈페이지 정비’ 를 추진하였음
- 2018년에는 ‘마을만들기 주간행사 운영’,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및 워크숍’, ‘마을만들기 소식지 발간’, ‘농촌관광 프로그램 홍보 및 방문객 응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시설유지 및 운영관리’ 를 추진하고 있음
- 지속운영단계에서도 수익사업을 꾸준히 추진 중에 있고, 도 사업 및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으며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짐



<표 38>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기반단계 예산 및 재원마련 변화

구 분		내 용(단위: 천원)		
		1차년도(2013년)	2차년도(2014년)	3차년도(2015년)
예산	총액	40,000	50,000	50,000
	직접비	40,000	50,000	24,330
	인건비	-	-	24,000
	간접비	-	-	1,670
재원 마련	국비	-	-	-
	도비	-	-	-
	시·군비	40,000	50,000	50,000

-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설립 후 2차년도까지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는 지급이 안되었고, 모두 직접비로 사업운영을 위해서만 예산이 사용되었음
- 총액은 설립당시 2013년만 제외하면 지자체의 위탁사업비가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2018년까지 시·군비 재원은 50,000천원으로 고정되어 있음)
- 추가적인 수익사업을 통해 인건비 마련 및 기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표 39>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지속운영단계 예산 및 재원마련 변화

구 분		내 용(단위: 천원)		
		4차년도(2016년)	5차년도(2017년)	6차년도(2018년)
예산	총액	50,000	50,000	50,000
	직접비	25,000	34,000	23,000
	인건비	24,000	16,000	24,500
	간접비	1,000	-	2,500
재원 마련	국비	-	-	-
	도비	-	-	-
	시·군비	50,000	50,000	50,000

- 지속운영단계인 4년차 ~ 6년차까지 진안군에서 지원하는 위탁사업비는 50,000천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인건비는 5년차인 2017년만 제외하고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지속운영단계 역시 별도의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마련하여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설립부터 2차년도까지 인건비가 없이 시작하였고, 지속운영단계까지 진행되면서 인건비가 증액되었지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매우 부족하여 추가적인 수익사업 없이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음
- 최근 도의 중간지원조직 구축 지원사업과 과소화인력대응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의 지원을 받으며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반단계에서는 수익사업에서 거의 전적으로 인건비를 마련했다면 도 및 진안군에서의 인건비 지원으로 인건비를 마련하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음

□ 운영 상 장애요인 및 극복내용

<표 40>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장애요인 및 극복내용(외부적문제)

구 분	내 용	
	장애요인	극복내용
1차년도~ 6차년도	- 인건비 및 운영비 미지원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부족	-귀농귀촌인과 예비 귀농귀촌인을 채용하여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지급 -자체 수익사업 추진을 통해 인건비 및 운영비 확보

-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의회의 반대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초기부터 받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이 존재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귀농귀촌인들 대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자체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음



3. 중간지원조직 유형별 운영사례 분석

1) 설립단계(설립준비 → 설립)

〈표 41〉 각 지역별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위한 설립준비 절차

지역	설립준비 ~ 설립	설립절차 내용
완주군	2008년 ~ 2011년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 5개년 계획수립 - 농촌활력사업을 위한 행정조직개편 및 행정인력 확보 - 중간지원조직 도입 필요에 따른 연구용역 시행 - (재)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설립
정읍시	2012년 ~ 2015년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육성전담 행정부서 구성 - 국가 공모사업(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으로 정읍시&고창군 공동 중간지원조직 설립 - 국가 공모사업(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으로 정읍시 독창적인 중간지원조직 설립
진안군	2001년 ~ 2012년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및 외부 연수팀 방문에 의한 중간지원조직 필요성 인식 -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의 협의체와 사회단체, 행정이 참여하여 30여 회차의 회의 실시 - 지원센터 설립추진단 구성 및 정기회의 개최 - 진안군 중간지원조직 설립

- 각 지역의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를 시작하여 설립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4년 ~ 12년으로 볼 수 있음
- 완주군과 정읍시는 4년간의 준비를 통해 현재의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였고, 진안군은 12년간 준비기간을 갖고 설립하였음
- 또한 완주군과 정읍시는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위해 행정부서 구성 및 개편, 행정인력 확보를 먼저 실시한 후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위한 과정에 돌입하였고, 진안군의 경우에는 민간(협의체)에서 주도적으로 준비를 위한 과정에 착수하여 설립추진단 구성 및 정기회의 등을 통해 설립하였음

〈표 42〉 각 지역별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 절차

지역	제정준비 ~ 제정	조례제정 절차 내용
완주군	2008년 ~ 2009년, 2016년 (2년, 8년)	-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 5개년 계획수립 - 중간지원조직 도입 필요에 따른 연구용역 시행 및 조례제정 제안 -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육성조례 제정 -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 조례'(2009) -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2016년)
정읍시	2012년 ~ 2012년 (1년)	- 민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역인재와 지원을 활용하여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체사업의 법적 기반마련 -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 -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2)
진안군	2001년 ~ 2010년, 2012년 (12년)	- 2001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이 후 2003년 진안군 자체사업인 '으뜸마을가꾸기'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조례를 제정 - 2010년 현재의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제정 - 2012년 진안군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 '진안군 살기좋고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기본 조례'(2010),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2)

- 조례제정을 위해 정읍시는 1년의 기간, 완주군은 2년의 기간, 진안군은 10년, 12년의 기간이 걸려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후 사업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음
- 조례제정은 3개 지역 모두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최초 연도와 동일한 연도에 조례제정 준비를 시작하였음
- 조례제정을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며 3개 지역 모두 조례 제정라는 법적기반을 마련한 후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한 공통점이 있음
-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위하여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후 계속 조례에 대한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공통점으로 볼 수 있음



<표 43> 각 지역별 중간지원조직 설립내용

지역	운영주체	설립 시 직원 수	설립 시 조직체계	설립 시 운영재원	규모
완주군	완주군, (민간)완주공동체지원센터	6명	이사장(비상근), 사무국장, 팀장, 연구원	민간위탁금	300백만원
정읍시	정읍시,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3명	센터장, 팀장, 팀원	중앙정부 공모사업	387백만원
진안군	(민간)마을엔사람	4명	센터장(비상근), 사무국장, 팀장, 연구원소장	자체수익금, 민간위탁금	40백만원 (민간위탁금)

- 각 지역별 설립당시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완주군과 정읍시는 행정
이 운영주체이며 실질적인 업무 및 사업추진은 중간지원조직이 수
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읍시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형태가 아닌
공모사업에 의해 설치된 조직으로 볼 수 있음
- 진안군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행정의 운영주체가 아닌 민간의 사단
법인이 계약에 의해 운영주체이자 실질운영을 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음
- 설립 시 조직체계는 완주군의 이사장과, 진안군의 센터장은 비상
근이며 사무국장부터 상근인력으로 확보하였으며 정읍시의 경우
센터장도 상근인력으로 포함한 직책으로 확보하여 조직체계를 구
성하였음
- 진안군의 경우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연구 및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의 부설 연구소를 설치 연구원 소장
직도 포함을 하여 설립한 것으로 보여짐
- 설립 시 재원마련은 각기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완주군의
경우 완주군으로부터 민간위탁금으로 정읍시는 중앙정부 공모사업
으로 진안군의 경우 민간위탁금과 자체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음
 - 완주군의 경우 운영 및 사업비 전액이 지자체 민간위탁금으로 되
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중앙단위의 공모사업을 선정받아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 지원금 이외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
여짐
 - 진안군의 경우에도 민간위탁금만 표기되어 있지만 연구 및 사업

용역 등 수익사업을 통한 자체수익금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보여짐

- 정읍시의 경우에도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만 표기되어 있지만 설립년도부터 정읍시의 자체사업을 추진하며 지자체의 예산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는 것으로 보여짐
- 즉, 완주군, 진안군, 정읍시 모두 주요재원이 존재하지만 설립당시 두가지 경로 이상에서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부분은 각 기관에서 외부적으로 공개를 원하지 않음)

2) 사업운영단계(1년차 ~ 4년차 이상)

<표 44> 각 지역별 중간지원조직 조직체계 변화 비교

구 분	내 용		
	초창기	변화	현재(2018년)
완주군	-이사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팀장 -연구원	-이사장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연구원	-
정읍시	-사무국장 -팀장 -팀원	-사무국장 -팀장 -팀원	-센터장 -팀장 -팀원
진안군	-센터장(상임이사) -연구소장 -사무국장 -팀장	-센터장(상임이사) -연구소장 -사무국장 -팀장 -연구원	-센터장(상임이사) -연구소장 -총괄국장 -팀장 -연구원

- 각 지역별로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연구원(팀원)은 공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읍시를 제외하고 센터장 및 이사장의 직책은 비상근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읍시의 경우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동시에 구성된 적이 없고, 현재 사무국장의 자리가 없이 센터장이 실무총괄을 맡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음

- 진안시의 경우 부설연구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는 없는 연구소장직이 존재함

<표 45> 각 지역별 중간지원조직 팀 및 부서 변화 비교

구 분	내 용		
	초창기	변화	현재(2018년)
완주군	-CB사업부 -마을사업부 -귀농귀촌사업부	-공동체 육성팀 -완주 르네상스팀 -주민 상담팀	-사무국 -공동체육성지원팀 -사회적경제지원팀 -도시재생지원팀
정읍시	-사무국 -총무기획팀 -현장지원팀	-운영지원팀 -공동체지원(1팀,2팀) -교육지원팀	-운영지원팀 -공동체지원팀 -교육지원팀 -현장지원팀 -총무회계팀
진안군	-총무팀 -교육팀 -홍보팀 -(부설)마을만들기 연구소	동일	-교육팀 -업무지원팀 -과소화대응팀 -(부설)마을만들기 연구소

- 각 지역별로 초창기에는 3개정도의 팀 및 부서를 조직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후에는 사업 및 업무에 따라 부서가 추가 생성되어 세분화되고, 집중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짐
- 각 지역별로 명칭은 다르지만 각 센터의 운영 및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국’, ‘운영지원팀’, ‘총무회계팀’이 존재하고, 공동체육성지원을 위한 ‘공동체육성지원팀’, ‘공동체지원팀’과 마을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팀’, ‘교육팀’이 많이 중복되었음

〈표 46〉 각 지역별 중간지원조직 사업출처 및 내용 변화 비교

구 분	내 용			
	초창기	변화	현재(2018년)	
완주군	중앙	-고용부 공모사업	-고용부 공모사업	-고용부 공모사업
	도	-	-	-
	자체	-사업발굴 및 육성 -교육네트워크 -홍보마케팅	-공동체육성 및 지원 -완주르네상스 육성 및 도시재생사업 -공동체 및 농업농촌 활성화시책개발 -주민상담 및 홍보	-공동체사업현장지원 -정책개발연구 -주민상담및네트워크
정읍시	중앙	-농식품부 공모사업	-농식품부 공모사업	-농식품부 공모사업
	도	-	-정읍시 공동체육성 활성화 사업	- 2018년 시·군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 직 지원사업
	자체	-	-제 9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 2018년 정읍시공동 체육성활성화사업
진안군	중앙	-	-2015년 진안군 역량 강화 지원사업	-2018년 진안군 역량 강화 지원사업
	도	-	-	-과소화인력대응 육성사업 -중간지원조직 구축 지원사업
	자체	-2013년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사업 (위탁)	-2015년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사업 (위탁)	-2018년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사업 (위탁)
	수익	-교육 및 컨설팅사업 -외부 연구용역 -외부 견학팀 연수	-교육 및 컨설팅사업 -외부 연구용역 -외부 견학팀 연수	-교육 및 컨설팅사업 -외부 견학팀 연수

- 3개 지역의 중간지원조직 모두 현재는 각 시·군의 자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각 지역별 유형에 따라 변화된 양상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완주군의 경우 민간위탁 설립의 특성상 지자체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되 중앙정부사업과 연계하여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사한 운영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지만 도 지원사업은 받고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 정읍시의 경우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이지만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설치된 기관의 특성상 초창기에는 정읍시의 자체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중앙단위 지원사업 위주의 사업을 추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진행되는 과정에 도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받으며 더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보여짐
- 진안군의 경우에는 설립 초창기에는 중앙정부 및 도 지원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지자체 사업을 위주로 진행하며 센터운영을 위한 별도의 수익사업을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고, 현재는 운영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 지원사업과 도 지원사업을 받아 지자체사업과 수익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 즉, 3개 지역의 중간지원조직은 각기 주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완주군을 제외하고 정읍시와 진안군은 중앙정부, 도, 지자체에서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진안군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익사업인 연구 및 사업 컨설팅 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표 47〉 각 지역별 중간지원조직 예산 변화 비교

구 분		내 용(단위: 천원)		
		초창기	변화	현재(2018년)
완주군	총액	500,000	360,000	550,000
	직접비	300,000	125,000	126,400
	인건비	200,000	235,000	423,600
	간접비	-	-	-
정읍시	총액	387,000	773,000	598,607
	직접비	267,000	624,000	325,149
	인건비	94,200	137,000	232,158
	간접비	25,800	12,000	41,300
진안군	총액	40,000	50,000	50,000
	직접비	40,000	24,330	23,000
	인건비	-	24,000	24,500
	간접비	-	1,670	2,500

- 3개 지역의 센터들의 공통점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과 직접비가 점점 줄어들거나 정체하고 있다는 부분임
- 직접비의 예산 감소는 중간지원조직의 사업 및 업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확보 및 보충하고, 그 인력을 통한 사업수행으로 인건비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짐
- 실제로 중간지원조직의 인력이 충원되었고, 조직체계가 초창기보다 세분화되었으며 추진하는 사업량의 증가 및 다양해졌음
- 오히려 사업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인력보충을 필요로 하고 있음
- 또한 완주군은 중앙정부 및 외부의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추가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진안군은 수익사업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V

중간지원조직 매뉴얼 구축을 위한 조사분석

1. 중간지원조직 매뉴얼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 전라북도 내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기간은 10월 한달간 실시하였고, 집체교육에 참석한 중간지원조직 책임급 및 팀장과 실무자들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 조사내용으로는 조직 내 직책, 운영매뉴얼 필요정도, 운영기간별 필요 정보 순위, 내용별 중요도, 매뉴얼에 꼭 필요한 내용(주관식)

2) 설문조사 내용

○ 기본정보

- 응답한 대상자는 남성 15명, 여성 17명이고, 31명 전부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에서 종사하고 있음
- 연령대는 40대가 37.5%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8.1%, 50대가 25%, 20대 9.4% 순으로 응답하였음
- 조직 내 직책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40.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팀장이 34.4%, 임원급(실무담당)이 12.5%로 나타났음

○ 중간지원조직 운영매뉴얼의 필요정도

- ‘필요하다’가 46.9%로 가장 많았고, ‘매우 필요하다’가 37.5%로 그다음으로 긍정적 답변이 84.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 ‘보통이다’가 12.5%이며 부정적 답변은 없었음

○ 중간지원조직 운영기간별 필요한 정보의 우선순위

- 선택사항 ① 설립준비 ② 1 ~ 2년 ③ 3년 이상 ④ 5년 이상
⑤ 7년 이상 ⑥ 10년 이상
- 우선순위 1순위로 ‘1 ~ 2년 운영’ 이 37.0%로 가장 높았고, ‘설립준비’ 가 29.6%, ‘5년 이상’ 이 18.5%, ‘10년 이상’ 이 11.1%, ‘3년 이상’ 이 3.7%로 나타났음
- 우선순위 2순위로 ‘3년 이상’ 이 40%, ‘1 ~ 2년 운영’ 이 32%, ‘7년 이상’ 이 20%, ‘설립준비’ 가 8%로 나타났으며 1순위에서 0%로였던 7년 이상이 2순위에서 선택된 것을 알 수 있음
- 우선순위 3순위로 ‘설립준비’ 와 ‘5년 이상’ 이 28%로 높았으며 ‘3년 이상’ 과 ‘10년 이상’ 이 16%로 나타났음
- 각 순위별 가장 높게 나온 결과는 1순위로 ‘1년 ~ 2년 운영’, 2순위로 ‘3년 이상’, 3순위로 ‘설립준비’ 와 ‘5년 이상’ 으로 도출되었음

○ 중간지원조직 내용별 중요도

<표 48> 중간지원조직 내용별 중요도 설문조사 결과

번호	문항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1	중간지원조직 설치(립)	3.2	0	32.3	45.2	19.4
2	내·외부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	0	0	22.6	38.7	38.7
3	수행가능한 사업정보 및 추진방법	0	0	19.4	29.0	51.6
4	(사업)역량강화 부분 사업운영	0	0	19.4	48.4	32.3
5	(사업)사업계획수립 부분 사업운영	0	3.2	22.6	41.9	32.3
6	(사업)소액사업 부분 사업운영	0	6.5	35.5	32.3	25.8
7	(사업)중(대)규모 이상 사업운영	0	12.9	25.8	51.6	9.7
8	실무자 중심의 업무별 세부내용	0	0	22.6	29.0	48.4
9	마을사업 전반(마케팅, 법인) 사업내용	0	0	19.4	48.4	32.3
10	행정 및 마을의 행정보조 지원내용	0	0	32.3	32.3	35.5



-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내용 중 소액사업 부분 사업운영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내용별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짐
- 내·외부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 수행가능한 사업정보 및 추진방법, 실무자 중심의 업무별 세부내용, 행정 및 마을의 행정정보 지원내용이 ‘매우높음’ 이 가장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남
- 중요도가 ‘높음’ 이상으로 긍정적 답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수행가능한 사업정보 및 추진방법, (사업)역량강화 부분 사업운영, 마을사업 전반(마케팅, 법인) 사업내용이 8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추가의견 및 필요사항

- 실무자 중심의 업무별 세부내용, 마을사업 전반의 사업내용
- 조직구성이 최우선, 조직구성 및 운영에 대한 매뉴얼 가장필요
- 기본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보,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 등
- 표준화된 서식 및 양식, 운영지침 필요
-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회계 및 근태관리 등

3) 설문조사 결과정리

-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 임원급 ~ 실무자(연구원)까지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중간지원조직 운영매뉴얼을 대부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 매뉴얼에서 필요한 정보 중 사업기간에 대한 부분은 사업 초창기인 1년 ~ 2년 운영이었고, 설립단계부터 5년 이상까지의 정보를 필요로 하였음
- 내용 중에서는 소액사업에 대한 사업운영 부분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조직운영 및 사업운영에 대한 내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 중간지원조직 운영매뉴얼 기본내용 제시

1) 매뉴얼 기본 틀 구축방향

-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조직운영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활용 할 수 있도록 단계를 구분하고, 중점사업에 대한 운영정보를 추가
 - 설립단계, 조직운영단계, 사업운영정보*로 구분

*사업운영정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별 중점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 각 지역마다 운영방식이 다른 부분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
 - 설립 초기 재원마련의 경로에 대한 비중 차이 및 설립 당시 상황에 따라 구분

〈표 45〉 중간지원조직 유형구분

구분	유형구분 내용	
유형1-1 (완주)	지역의 필요로 행정지원을 통해 설치된 지역자립형 설치 유형	행정의 주도로 정책적으로 설치된 관 주도 설치 유형
유형1-2 (진안)		지역의 필요에 의해 설치된 민간주도 설치 유형
유형2 (정읍)	지원사업인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공모형 설치 유형	

- 진안군의 경우 민간주도로 설치된 유형으로 알고 있었으나 조사 후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통해 조직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어 완주군과 진안군을 유사한 설립유형으로 통합
- 조사 결과, 설립 후 운영 단계에서는 모든 중간지원조직이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경로에서 운영재원을 마련하여 비슷한 운영경향을 보이고 있음
- 매뉴얼의 구성내용으로는 각 단계별 기본내용 및 추진내용으로 정리하였고, 사업운영정보는 세부사업 내용으로 정리



2) 중간지원조직 조직운영 매뉴얼 내용 제시

○ 설립단계

- 설립단계는 설립준비, 조례제정, 설립내용으로 구성

〈표 46〉 중간지원조직 유형별 설립준비 내용

구분	준비기간	단계구분	추진내용
유형1-1 (완주군)	4년	4단계	1. 농업농촌 정책 장기계획수립(5개년) 2. 행정조직개편 및 행정인력 확보 3. 연구용역 시행 4. 중간지원조직 설립
유형1-2 (진안군)	12년	4단계	1.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필요성 인식 2. 협의체, 사회단체, 행정 참여 회의 다수추진 3. 중간지원조직 설립추진단 구성 및 정기회의 개최 4. 중간지원조직 설립
유형2 (정읍시)	4년	3단계	1. 마을만들기 전담 행정부서 구성 2. 국가 공모사업으로 타지역과 연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3. 국가 공모사업으로 독자적인 중간지원조직 설치

- 유형1으로 분류되는 완주군과 진안군은 설립단계의 차이로 유형 1-1과 유형1-2로 구분하여 정리
- 유형1-1의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장기계획수립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 행정조직 개편, 행정인력을 확보하는 등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및 중간지원조직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마을만들기 관련 계획수립과 함께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을 하여 설립단계를 추진
- 유형1-2의 경우 지자체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의 협의체의 주도로 사회단체와 행정이 참여하여 다수 회의를 통해 체계마련 및 설립단계를 추진
- 유형2의 경우 마을만들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정에서 마을만들기 전담의 행정부서를 구성하였고,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지자체 독자적인 설립단계를 추진

〈표 47〉 중간지원조직 유형별 조례제정 내용

구 분	준비기간	단계구분	추진내용
유형1-1 (완주군)	2년	4단계	1. 농업농촌 정책 장기계획 수립 2. 연구용역 시행 및 조례제정 제안 3. 지역공동체&중간지원조직 육성조례 제정 -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조례(2009년) 4.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2016년)
유형1-2 (진안군)	2년 ~ 12년	3단계	1.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조례제정 - 으뜸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조례(2003년) 2.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조례제정 - 살기좋고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2010년) 3.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2년)
유형2 (정읍시)	1년	3단계	1.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공동체사업의 법적 기반마련 3.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한 조례제정 -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2년)

- 유형1-1의 경우 조례 제정을 위하여 설립 시 추진하였던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조례제정을 제안하였고, 농촌공동체와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을 설립시기 전 추진하였고, 이 후 꾸준히 개정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추가와 함께 조례를 전면개정 하였음
- 유형1-2의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조례를 1차적으로 제정하였고, 이후 마을만들기 지원체계에 대한 조례제정,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조례제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중간지원조직 설립 전 조례제정을 완료하였음
- 유형2의 경우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조례제정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였고, 공동체 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마련과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한 조례제정을 실시하였음
- 유형2의 경우에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조례제정이 아닌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한 조례제정으로 유형1-1, 유형1-2와 비교하였을 때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내용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48> 중간지원조직 유형별 설립내용

구 분	운영주체	설립시 운영재원	설립시 기본예산	설립 시 직원 수	설립 시 조직체계	설립 시 팀 및 부서
유형1-1 (완주군)	행정 민간위탁	민간위탁	300백만원	6인	- 이사장 - 상임이사 - 사무국장 - 팀장 - 연구원	- CB사업부 - 마을사업부 - 귀농귀촌사업부
유형1-2 (진안군)	민간, 민간위탁	민간위탁, 자체수익	40백만원 (자체수익금 제외)	3인	- 센터장(상임이사) - 연구소장 - 사무국장 - 팀장	- 총무팀 - 교육팀 - 홍보팀 - (부설)마을만들기 연구소
유형2 (정읍시)	행정, 조직설치	중앙정부 공모사업	387백만원	4인	- 사무국장 - 팀장 - 팀원	- 사무국 - 총무기획팀 - 현장지원팀

- 유형1-1의 경우 행정이 운영주체이며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설립 시 민간위탁금 300백만원으로 설립하였음
- 설립 시에는 3개 팀, 6인으로 구성되어 조직을 운영하였고, 이사장부터 연구원까지 체계를 구축하여 설립하였음
- 유형1-2의 경우 타 유형과는 다르게 민간의 사단법인이 계약에 의해 운영주체이자 실질운영을 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고, 설립 시 민간 위탁사업비(직접사업비)로 40백만원과 자체수익금을 통해 설립하였음
- 설립 시에는 3개팀과 부설연구소, 3인으로 구성되어 조직을 운영하였고, 센터장부터 팀장까지 조직구성이 되어 있고, 자체수익사업을 위한 부설 연구소의 연구소장이 조직에 포함되어 구성되었음
- 유형2의 경우 행정이 운영주체이며 민간위탁이 아닌 공모사업에 의한 조직설치의 유형으로 행정에서 조직을 관리하며 중앙정부 공모사업 387백만원으로 설립하였음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같은 형태

- 설립 시에는 3개팀, 4인으로 구성되어 조직을 운영하였고, 센터장이 부재한 형태로 사무국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되었음

○ 조직운영단계

- 조직운영단계는 조직체계, 추진사업, 예산비중으로 구성

<표 46> 중간지원조직 유형별 조직구성 및 조직체계 내용

구 분	초창기		변화		현재(2018년)	
	조직구성	조직체계	조직구성	조직체계	조직구성	조직체계
유형1-1 (완주군)	-CB사업부 -마을사업부 -귀농귀촌사업부	-이사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팀장 -연구원	-공동체육성팀 -르네상스팀 -주민상담팀	-이사장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연구원	-사무국 -공동체육성지원팀 -사회적경제지원팀 -도시재생지원팀	-이사장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연구원
유형1-2 (진안군)	-총무팀 -교육팀 -홍보팀 -부설연구소	-센터장 -연구소장 -사무국장 -팀장	-총무팀 -교육팀 -홍보팀 -부설연구소	-센터장 -연구소장 -사무국장 -팀장 -연구원	-총무회계팀 -교육팀 -업무지원팀 -과소화대응팀 -부설연구소	-센터장 -연구소장 -총괄국장 -팀장 -연구원
유형2 (정읍시)	-사무국 -총무기획팀 -현장지원팀	-사무국장 -팀장 -팀원	-운영지원팀 -공동체지원팀 (1, 2팀) -교육지위팀	-사무국장 -팀장 -팀원	-운영지원팀 -공동체지원팀 -교육지원팀 -현장지원팀	-센터장 -팀장 -팀원

- 유형1-1의 경우 지자체사업 및 지원정책의 변화에 의하여 조직구성이 변화되었고, 초창기와 비교하여 현재 1개 부서(사무국)이 추가되었으며 조직체계는 큰 변화없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음
- 유형1-2의 경우 총무팀, 교육팀, 부설연구소는 변화없이 운영 중에 있고, 홍보팀은 현재 업무지원팀으로 바뀌었고, 도 지원사업인 ‘과소화인력대응 육성사업’으로 과소화대응팀이 추가되었으며 조직체계는 초창기 인력부족으로 연구원이 부재하였지만 이후 연구원이 추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음
- 유형2의 경우 공모사업에 의한 주요부서의 변화만 있을 뿐 추가적인 신설부서의 추가는 없었으며 현재는 가장 많은 부서를 운영 중에 있고, 조직체계는 초창기부터 센터장이 부재하였으나 현재는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부재한 상황임



<표 47> 중간지원조직 유형별 추진사업 내용

구 분	초창기		변화		현재(2018년)	
	추진사업	중점사업	추진사업	중점사업	추진사업	중점사업
유형1-1 (완주군)	-공모사업 (고용부) -지자체사업	-지자체사업	-공모사업 (고용부) -지자체사업	-지자체사업	-공모사업 (고용부) -지자체사업	-지자체사업
유형1-2 (진안군)	-지자체사업 -자체수익 사업	-지자체사업 -자체수익 사업	-지원사업 (농식품부) -지자체사업 -자체수익 사업	-지자체사업 -자체수익 사업	-지원사업 (농식품부) -도지원사업 -지자체사업 -자체수익 사업	-지자체사업 -자체수익사 업
유형2 (정읍시)	-공모사업 (농식품부)	-공모사업	-공모사업 (농식품부) -도지원사업	-공모사업	-공모사업 (농식품부) -도지원사업 -지자체사업	-공모사업 -지자체사업

- 유형1-1의 경우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지자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을 선정받아 같이 추진하고 있고, 도단위의 지원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타 지역과의 차이로 볼 수 있음
- 유형1-1의 경우 지자체에서 충분한 운영비를 지원받고있어 추가적으로 지원사업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유형1-2의 경우 초창기 지자체사업과 자체수익사업으로 시작하였지만 점점 사업경로를 확대하여 농식품부의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하며 현재는 도 단위의 과소화인력대응 육성사업과 중간지원조직 구축 지원사업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 도,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모두 추진 중으로 볼 수 있음
- 유형2의 경우 초창기 농식품부의 공모사업만으로 시작하였지만 유형1-2와 같이 현재는 중앙정부 공모사업, 도단위 지원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앙정부 공모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표 47〉 중간지원조직 유형별 항목 간 예산비중 내용

구 분	초창기		변화		현재(2018년)	
	구 분	비중(%)	구 분	비중(%)	구 분	비중(%)
유형1-1 (완주군)	직접비	60.0	직접비	34.7	직접비	23.0
	인건비	40.0	인건비	65.3	인건비	77.0
유형1-2 (진안군)	직접비	100%	직접비	48.7	직접비	46.0
			인건비	48.0	인건비	49.0
			간접비	3.3	간접비	5.0
유형2 (정읍시)	직접비	69.0	직접비	80.7	직접비	54.3
	인건비	24.3	인건비	17.7	인건비	38.8
	간접비	6.7	간접비	1.6	간접비	6.9

※ 유형1-2(진안군)의 경우 자체수익금을 제외한 민간위탁금만 작성

- 유형1-1의 경우 총예산은 직접비와 인건비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직접비의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인건비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여 초창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직접비는 37% 감소하였고, 인건비는 37%가 증가하였으며 총액의 경우 초창기보다 현재 50,000천원 증가하였음
- 유형1-2의 경우 총예산은 초창기 직접비 100%였고, 이 후에는 직접비, 인건비, 간접비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직접비는 초창기를 제외하면 소폭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인건비 역시 초창기를 제외하면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총액의 경우 초창기보다 현재 10,000천원 증가하였음
- 유형2의 경우 총예산은 직접비, 인건비, 간접비로 크게 구분이 가능하고, 타유형보다 직접비의 비중이 높지만 초창기와 현재를 비교하면 직접비가 감소하였고, 인건비는 증가하였으며 총액의 경우 초창기보다 현재 약 200,000천원 증가하였음

※ 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 사업운영정보

- 기관 별 가장 예산규모가 큰 중점사업(3순위)
- 유형1-1(완주군)

<표 48> 중간지원조직 유형1-1 중점사업(3순위)

사업명(출처)	추진절차	업무별 세부내용	사업예산
공동체사업 현장지원사업 (완주군)	1.현장방문 모니터링 2.신규 공동체발굴 3.공동체 상시지원 4.공동체누리살이한마당 5.마을공동체맞춤컨설팅 6.교육 및 협의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동행 현장방문모니터링 • 기초단계 공동체발굴 -공동문화형사업 연결(현장포럼) • 마을공동체 기획 • 마을,지역,APT공동체 -사례발표/공연/시상 • 경영진단 컨설팅실시 -재무컨설팅/원가분석 • 현장활동가 양성교육 -마을공동체/사무장협의회지원 	59,200천
교육지원 및 홍보 (완주군)	1.온라인홍보 매체관리 2.홍보물 제작지원 3.기념품제작 4.공동체마을학교운영 5.역량강화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유지관리 -온라인 홍보활동 • 기념품,리플렛,홍보물 • 10주년 기념품제작 • 기초,심화,특강 과정진행 • 도시재생설명회,직원교육지원 	32,000천원
사회적경제지원사업 (완주군)	1.사회적경제교육 2.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 3.지역공동체 발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입문교육과정 • 지역공동체 분기별 간담회 -공동체간 교류활동 • 소규모공동체발굴 -지역특화사업 발굴 -맞춤형컨설팅 및 교육 	17,700천원

- 유형1-2(진안군)

<표 49> 중간지원조직 유형1-2 중점사업(3순위)

사업명(출처)	추진절차	업무별 세부내용	사업예산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식품부)	1.수요조사 : 마을 및 지역주민 등 2.기획회의 : 차년도 역량강화사업 수립 회의 (행정과 지원센터, 행정과 지구협의회, 행정과 축제조직위원회) 3.공모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4.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준비지구 - 미래설계 현장포럼 - 마을관광 활성화 교육 - 으뜸마을 예비마을교육 - 참살기 예비마을교육 -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등 • 사업완료지구 - 찾아가는 마을별 특화교육 -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 - 지구협의회 역량강화 교육 등 • 기타 - 박람회 등 참가 지원 - 콘테스트 참가 지원 - 마을자원조사 등 	184백만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지원사업 (전라북도)	1.기본방향 설정 : 행정 2.기획회의 : 행정과 지원센터가 협의를 통해 세부계획 확정 3.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지원 - 상근인력 인건비 지원(2명)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관리 지원 • 농촌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농촌관광 활성화 워크숍 - 농촌관광 선진지 견학 - 농촌관광 팸투어 운영 - 농촌관광 시범사업 운영 - 농촌관광 홍보물 제작 등 	110백만원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사업 (진안군)	1.기본방향 설정 : 행정 2.기획회의 : 행정과 지원센터가 협의를 통해 세부계획 확정 3.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주간 행사 운영 • 마을만들기 정책 포럼 및 워크숍 • 마을만들기 소식지 발간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시설유지 및 운영관리 등 	50백만원



- 유형2(정읍시)

<표 50> 중간지원조직 유형2 중점사업(3순위)

사업명(출처)	추진절차	업무별 세부내용	사업예산(천원)
정읍마을만들기 시민창안대회 (농식품부)	1.홍보 2.창안대회공모및접수 3.창안대회설명회 4.씨앗단계(창안학교) 입교심사 5.씨앗단계(창안학교)운영 6.뿌리단계선정심사 7.뿌리단계실무교육 8.뿌리단계실행및운영 9.뿌리단계회계정산 10.뿌리단계최종발표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창안대회 설명회(각 읍·면·동 이·통장회의, 기관·단체 등) • 창안대회공고 및 접수 • 창안대회 시민설명회 개최 • 전문심사위원을 통한 창안학교 입교 선정 • 기초교육 2회, 실무교육 4회 • 전문심사위원을 통한 뿌리단계 선정 • 보조금신청 및 정산 안내 • 뿌리단계현장방문 • 정산및실적보고서 접수 • 공동체별 발표자료 접수 및 발표대회 준비 	140,800
우리가꿈꾸는세상 (농식품부)	1.사전간담회 2.교육박람회 3.공동체간담회 4.마을로가는버스-마을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공동체별 체험프로그램 현황 공유 • 마을 및 창업공동체 참여 • 학교와 마을간 일정 조율 • 공동체별 체험활동 지원 	25,000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농식품부)	1.교육생모집 2.교육프로그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별 공문 및 안내장 발송, 직접 방문상담, SNS활용 • 이론 강의 및 실습, 사례 등 6회, 수료식(수료증전달) 	10,000

- 기관 별 가장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핵심사업(3순위)
- 유형1-1(완주군)

<표 51> 중간지원조직 유형1-1 핵심사업(3순위)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추진절차	사업예산
공동체현장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모니터링 • 신규공동체 발굴 • 공동체 한마당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과 동행 현장방문 • 모니터링 후 사후관리 • 기초단계사업 마을발굴 • 도,군 기초단계사업연결 • 마을,지역공동체한마당 (사례,공연,시상,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지원 여비지원 • 20천*1인*12일*12개월 • 회의비 10만*10회 • 자료구입 500천 • 행사준비 4,000천 • 시상금 5,000천 • 홍보 및 기타 1,920천
정책개발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사업개발 •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단위 공모사업 개발 • 국가사업 전수조사 (조사비/인쇄비) • 사회적경제정책개발 (저문가연구비/교류WS) • 경제 주체간 연대 연구 (설문개발/분석/기념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전문가 연구비 (3명=8,000천원) • 교류WS,3회=1,500천 • 설문개발,분석 2,300천
교육지원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물제작 지원 • 공동체학교과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센터 홍보 (홍보물제작/온라인홍보) • 마을공동체 교육 (기초과정/심화과정/특강) • 지역공동체 교육 (입문과정/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물제작 6,000천 • 온라인 홍보 3,000천 • 마을공동체교육 6,000천 • 지역공동체교육 2,500천



- 유형1-2(진안군)

<표 52> 중간지원조직 유형1-2 핵심사업(3순위)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추진절차	사업예산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사업 (진안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주간 행사 운영 • 마을만들기 정책 포럼 및 워크숍 • 마을만들기 소식지 발간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시설유지 및 운영관리(인건비 1인, 운영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향 설정 : 행정 • 기획회의 : 행정과 지원센터가 협의를 통해 세부계획 확정 • 사업추진 	50백만원
농촌현장포럼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교육 •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 선진지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이론교육 • 2회차: 퍼실리테이션워크숍 • 3회차: 선진지견학 • 4회차: 퍼실리테이션워크숍 	29백만원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준비지구 역량 강화교육 • 사업완료지구 역량 강화 교육 • 박람회 및 콘테스트 참가 지원 • 마을자원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조사 : 마을 및 지역주민 등 • 기획회의 : 차년도 역량강화사업 수립 회의(행정과 지원센터, 행정과 지구협의회, 행정과 축제조직 위원회) • 공모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 사업추진 	184백만원

- 유형2(정읍시)

<표 53> 중간지원조직 유형2 핵심사업(3순위)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추진절차	사업예산(천원)
정읍마을만들기 시민창안대회 (사업시작년도 : 2012년)	1.창안학교 운영 2.뿌리단계 운영	1-1. 창안학교 입교 심사 1-2. 기초교육 2회, 실무교육 4회, 현장학습 2회 2-1. 뿌리단계 선정 2-2. 뿌리단계사업실행 2-3. 뿌리단계발표대회	1. 창안대회홍보 : 12,000 2. 창안학교운영 : 30,000 3. 뿌리단계선정 : 20개 공동체별 3백만원 4. 발표대회 : 9,000 5. 결과보고서 발간 : 15,000 6. 기타 운영비 및 교육 비 : 14,800
우리가꿈꾸는세상 (사업시작년도 : 2015년)	1.마을별 체험프로그램 을 활용한 지역 학생 들의 체험활동 지원	1.사전간담회 : 학교관계 자, 마을주민 2.교육박람회 3.공동체간담회 4.마을로가는버스-마을탐방	1. 30개 마을별 40만원씩 차량 임차비 지원 : 12,000 2. 체험프로그램지원 및 운영비 : 13,000
찾아가는 대화모임 (사업시작년도 : 2017년)	1.지역내 공동체들간의 네트워크 구축 2.공동체별 활동 공유 및 의견수렴	1.매월1회 대화모임 장 소 (마을) 선정 2.공동체별 참여독려 3.대화모임 진행	1. 매회차 50만원, 총 10회 : 5,000



3. 중간지원조직 매뉴얼 완성도 제고를 위한 관계전문가 자문

1) 매뉴얼 기본 틀 수정 및 보완

○ 중간지원조직 유형별 매뉴얼 기본 틀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

<표 54> 중간지원조직 유형별 매뉴얼 수정 및 보완

구분		수정 및 보완사항 내용
설립단계	유형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이사항 없음
	유형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지원조직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진안군의 경우 민간주도로 설치된 유형으로 알고 있었으나 조사 후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통해 조직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어 완주군과 진안군을 유사한 설립유형으로 통합 (의견) 완주군은 행정주도로 계획수립 및 연구용역 수립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였으나 진안군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중간지원조직 설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나 설치논의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간지원조직의 형태와 조직구성, 역할, 위치 등을 결정함. ⇒ 완주군과 진안군의 설립유형은 매우 다르다고 판단됨
	유형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 시 직원 수는 3명으로 팀장 2명과 팀원(마을간사) 1명으로 설립되었고, 사무국은 설립 이후 팀장 1명이 사무국장으로 임명되며 편제 설립 시 공모를 통해 센터장1명, 팀장2명을 선발 할 계획이었으나 센터장을 공석으로 팀장 2명을 채용 후 마을간사 1명을 행정에서 지원
조직운영 단계	유형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현재) 추진사업중, 공모사업(고용부)→공모사업(국토부)로 변경
	유형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 초기부터 부설연구소와 연구원을 채용하여 운영 중점사업에 자체수익사업을 지자체사업에 삽입, 2018년 주민생활지원팀 추가
	유형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창기 조직체계 → 사무국 삭제

○ 중간지원조직 유형별 매뉴얼 기본 틀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
 <표 55> 중간지원조직 유형별 매뉴얼 내용 추가

구분		수정 및 보완사항 내용
설립단계	유형1-1	• 특이사항 없음
	유형1-2	• 특이사항 없음
	유형2	• 설립당해연도에 설립 시 직원 채용방법 추가 ※ 중간조직의 설립과정에서 직원들의 채용과정(공개모집을 통한 채용 또는 위촉형태 지정, 민간위탁단체의 임의 채용 등)이 필요해 보임.
조직운영 단계	유형1-1	• 공모사업(고용부)→공모사업(국토부) • 2018년이후 도시재생팀 신설로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있음
	유형1-2	• 특이사항 없음
	유형2	• 조직운영단계에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주최 또는 운영형태(직영,민영)의 변화 항목이 필요해 보임. ※ 민간위탁의 운영형태를 가지며 실제로는 직영으로 유지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상당수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신설되는 중간지원조직 또한 많을 것임 • 이러한 운영형태를 표현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이번 운영매뉴얼에 삽입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임 • 조직체계와 함께 고용형태 추가 ※ 중간지원조직 실무자들 대다수 계약직 혹은 비정규직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 고용형태를 추가하여 이러한 근무환경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고용형태의 변화과정을 공식적으로 남겨 놓을 필요가 있음



VIII 결과도출 및 정책제언

1. 중간지원조직 (조직)운영매뉴얼 결과도출

1) 중간지원조직 유형1(완주군) 조직운영 매뉴얼 내용 요약

〈표 56〉 중간지원조직 유형1(완주군) 설립단계

구 분	준비기간	단계구분	추진내용			
설립 준비	4년	4단계	1. 농업농촌 정책 장기계획수립(5개년) 2. 행정조직개편 및 행정인력 확보 3. 연구용역 시행 4. 중간지원조직 설립			
조례 제정 절차	2년	4단계	1. 농업농촌 정책 장기계획 수립 2. 연구용역 시행 및 조례제정 제언 3. 지역공동체&중간지원조직 육성조례 제정 -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조례(2009년) 4.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2016년)			
설립 당해 연도	운영주체	설립시 운영재원	설립시 기본예산	설립시 직원 수	설립시 조직체계	설립시 팀 및 부서
	행정, 민간위탁	민간 위탁금	300백만원	6인	- 이사장 - 상임이사 - 사무국장 - 팀장 - 연구원	- CB사업부 - 마을사업부 - 귀농귀촌사업부

〈표 57〉 중간지원조직 유형1 조직운영단계

구 분	초창기		변화		현재(2018년)	
	조직구성	조직체계	조직구성	조직체계	조직구성	조직체계
조직 체계	-CB사업부 -마을사업부 -귀농귀촌사업부	-이사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팀장 -연구원	-공동체육성팀 -르네상스팀 -주민상담팀	-이사장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연구원	-사무국 -공동체육성지원팀 -사회적경제지원팀 -도시재생지원팀	-이사장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연구원
	추진사업	중점사업	추진사업	중점사업	추진사업	중점사업
사업 내용	-공모사업 (고용부) -지자체사업	-지자체 사업	-공모사업 (고용부) -지자체사업	-지자체 사업	-공모사업 (국토부) -지자체사업	-지자체 사업
	구 분	비 중(%)	구 분	비 중(%)	구 분	비 중(%)
예산	직접비	60.0	직접비	34.7	직접비	23.0
	인건비	40.0	인건비	65.3	인건비	77.0

2) 중간지원조직 유형2(진안군) 조직운영 매뉴얼 내용 요약

<표 58> 중간지원조직 유형2(진안군) 설립단계

구 분	준비기간	단계구분	추진내용			
설립 준비	12년	4단계	1.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필요성 인식 2. 협의체, 사회단체, 행정 참여 회의 다수추진 3. 중간지원조직 설립추진단 구성 및 정기회의 개최 4. 중간지원조직 설립			
조례 제정 절차	2년 ~ 12년	3단계	1.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조례제정 - 으뜸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조례(2003년) 2.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조례제정 -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2010년) 3.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2년)			
설립 당해 연도	운영주체	설립시 운영재원	설립시 기본예산	설립 시 직원 수	설립 시 조직체계	설립 시 팀 및 부서
	민간, 민간위탁	민간위탁, 자체수익	40백만원 (자체수익금 제외)	5인	- 센터장(비상근) - 사무국장 - 팀장(2) - 연구 소장, 연구원	- 총무팀 - 교육팀 - 홍보팀 - (부설)마을만들기 연구소

<표 59> 중간지원조직 유형2(진안군) 조직운영단계

구 분	초창기		변화		현재(2018년)	
	조직구성	조직체계	조직구성	조직체계	조직구성	조직체계
조직 체계	-총무팀 -교육팀 -홍보팀 -부설연구소	-센터장 -연구소장 -사무국장 -팀장	-총무팀 -교육팀 -홍보팀 -부설연구소	-센터장 -연구소장 -사무국장 -팀장 -연구원	-총무회계팀 -교육팀 -업무지원팀 -주민생활지원팀 -부설연구소	-센터장 -연구소장 -총괄국장 -팀장 -연구원
	추진사업	중점사업	추진사업	중점사업	추진사업	중점사업
사업 내용	-지자체사업 -자체수익 사업	-지자체 사업 -자체수익 사업	-지원사업 (농식품부) -지자체사업 -자체수익 사업	-지자체 사업 -지원사업 (농식품부)	-지원사업 (농식품부) -도지원사업 -지자체사업 -자체수익 사업	-지자체 사업 -지원사업 (농식품부)
	구 분	비 중(%)	구 분	비 중(%)	구 분	비 중(%)
예산	직접비	100%	직접비	48.7	직접비	46.0
			인건비	48.0	인건비	49.0
			간접비	3.3	간접비	5.0



3) 중간지원조직 유형3(정읍시) 조직운영 매뉴얼 내용 요약

<표 60> 중간지원조직 유형3(정읍시) 설립단계

구 분	준비기간	단계구분	추진내용			
설립 준비	4년	3단계	1. 마을만들기 전담 행정부서 구성 2. 국가 공모사업으로 타지역과 연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3. 국가 공모사업으로 독자적인 중간지원조직 설치			
조례 제정 절차	1년	3단계	1.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공동체사업의 법적 기반마련 3.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한 조례제정 -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2년)			
설립 당해 연도	운영주체	설립시 운영재원	설립시 기본예산	설립 시 직원 수	설립 시 조직체계	설립 시 팀 및 부서
	행정, 조직설치	중앙정부 공모사업	387백만원	3인	- 팀장(2) - 팀원	- 총무기획팀 - 현장지원팀

<표 61> 중간지원조직 유형3(정읍시) 조직운영단계

구 분	초창기		변화		현재(2018년)	
	조직구성	조직체계	조직구성	조직체계	조직구성	조직체계
조직 체계	-총무기획팀 -현장지원팀	-팀장 -팀원	-운영지원팀 -공동체지원팀 (1, 2팀) -교육지원팀	-사무국장 -팀장 -팀원	-운영지원팀 -공동체지원팀 -교육지원팀 -현장지원팀	-센터장 -팀장 -팀원
사업 내용	추진사업	중점사업	추진사업	중점사업	추진사업	중점사업
	-공모사업 (농식품부)	-공모사업	-공모사업 (농식품부) -도지원사업	-공모사업	-공모사업 (농식품부) -도지원사업 -지자체사업	-공모사업 -지자체사업
예산	구 분	비 중(%)	구 분	비 중(%)	구 분	비 중(%)
	직접비	69.0	직접비	80.7	직접비	54.3
	인건비	24.3	인건비	17.7	인건비	38.8
	간접비	6.7	간접비	1.6	간접비	6.9

2. 정책제언

- 1)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지속운영을 위한 조직운영 매뉴얼의 제작·보급
 - 본 연구의 결과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조직운영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음
 - 정식적인 매뉴얼로서 형식이 갖춰진 것이 아니므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매뉴얼로서 책자를 제작한 후 도 및 시·군단위로 보급하여 이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설치 초기지역에 중간지원조직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시·군단위에서는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운영관련 정보나 지침이 부족하여 다른 단위(광역단위)나 타 분야의 운영정보를 통해 운영방향을 수립하는 곳들이 존재하므로 빠른 시일에 보급이 필요

- 2) 중간지원조직의 실질사업운영을 위한 사업운영 매뉴얼의 제작·보급
 -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매뉴얼 구축 시 필요한 내용을 묻는 문항에서 중간지원조직 관계자들은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운영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음
 - 설치부터 지속적인 조직운영 뿐만아니라 실무자들 및 역할별 업무에 대한 운영매뉴얼 또한 필요하며 사업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의 사례를 통해 조직의 역할(직무)별 운영정보를 습득 후 매뉴얼을 제작 할 필요가 있음
 - 사업운영 매뉴얼의 구축과 관련하여 본 연구와 연계 또는 후속연구로 추진 할 수 있을 것임

■ 2018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보고서

전남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전남(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완료마을 사업추진과정 성과분석]

전라남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성과평가 방안

2018.12

전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목차

제1장.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501
- 2. 연구방법 및 범위 502
- 3. 연구내용 502

제2장. 사업평가를 위한 이론적 고찰

- 1. 농촌지역개발사업 변천 504
- 2. 일반농산어촌사업 현황 506
- 3.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특성 512
- 4. 농어촌개발사업의 평가체계고찰 517

제3장.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현황 분석

- 1.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현황 520
- 2.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사례 분석 525
- 3.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와 한계 534
- 4.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진입단계 사업 평가시 고려사항 536

제4장.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평가지표 도출

- 1. 평가의 기본방향 및 원칙 설정 538
- 2. 평가지표의 설정 542

제5장.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평가지표 적용 가능성 검토

- 1. 평가지표 적용가능성 검토 개요 548
- 2. 정량지표 검토 548
- 3. 정성지표 검토 558
- 4. 검토결과 종합 569

제6장. 요약 및 결론 572

참고문헌 575

부록 577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사업의 진입단계 이후 발전단계 이행 타당성 검토를 위한 평가체계 미비
 - 현행 농촌개발사업 평가는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계획 심사를 중점을 두고 이루어짐.
 - 체계적인 평가 없이 지자체 임의평가(기본 이수조건만)를 거쳐 발전단계로 진입이 가능하여, 사업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단계별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에 맞춰 사업추진과정 및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별 평가체계 필요
 -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단계의 모니터링 및 중간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필요

- 체계적인 점검 및 피드백을 통해 사업추진상의 한계와 문제점 보완 필요
 - 발전단계 진입요건에 해당하는 대상마을 가운데 사전 성과검토 없이 사업역량이 부족한 마을에도 후속 사업비 지원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
 - 역량단계별 사업추진 체크리스트 도입을 통해 무분별한 사업비 집행과 시설물 운영관리 미흡 등의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조치 강구 필요

- 주민체감형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정착 및 발전적인 방향 모색 필요
 - 주민주도, 주민체감형 마을 만들기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단계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효과를 측정하고 사업의 실효성 제고
 - 마을 만들기 사업이 단계별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진화된 발전방향 모색 필요



(2) 연구목적

-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상위 단계진입을 위한 성과 평가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이를 위한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임
 -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과정 및 성과 조사 분석
 - 발전단계 이행전 진입단계의 정량, 정성 성과 평가방안 제시
- 연구 성과는 부진요인 해소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동기 부여를 통해 사업추진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연구 범위

- 2014년부터 시행된 전라남도의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문화복지, 경관생태, 소득체험)을 대상으로 함.
- 소득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창조적 마을만들기의 발전단계 대상이 됨을 고려하여 대상에 포함함.
- 평가를 위한 지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3. 연구내용

- 농촌개발사업 및 사업평가 이론고찰
 - 농촌개발사업의 변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특성 등에 대한 고찰
-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현황 및 실태 분석

- 전라남도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현황 및 대표 사례 검토 분석

- 대상지 현장조사 및 인터뷰조사
 -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현장조사하고, 추진위원 및 위원장 등 인터뷰조사 실시
 - 도출된 지표를 토대로 작성된 평가지에 기초해서, 마을주민 및 추진위원 등 조사 실시
 - 사업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문제점, 성과 등 분석

- 평가지표 개발(정량평가, 정성평가)
 - 평가의 목적과 기본방향, 원칙 등을 설정하여 평가지표의 활용방향을 설정
 - 사업단계별 평가항목 및 내용을 토대로, 필요항목별 지표 도출 선정
 - 도출된 지표를 검증하기 위해 각 지표에 대한 실태 및 설문조사 실시



제2장. 사업평가를 위한 이론적 고찰

1. 농촌지역개발사업 변천

- 농촌지역개발사업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시기별로 많은 변화를 통해 현재의 개발사업에 이룸. 1950년 후반의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부터 시작되어 60년대 시범농촌건설사업, 70년대 새마을사업, 80년대 군 단위 지역종합개발, 90년대 면급 지역 및 마을정비사업, 2010년 이후 마을환경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이어져옴.
- 2000년대 이후 시기별 변화된 농촌지역개발사업이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흐름을 형성함. 농림축산식품부는 2004년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0년간의 농정로드맵을 제시함
 - 농업중심에서 농업·식품·농촌으로 확대되었고 정책수단도 정부주도·가격지지에서 시장지향·소득보조로 방향이 바뀜. 농촌을 농업생산공간으로만 보던 관점에서 생산과 정주 그리고 휴양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농촌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농촌지역개발 전략 사업으로 소도읍육성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
 - 소도읍육성사업은 소도읍을 거점기능을 갖춘 농촌지역의 산업·문화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취지의 사업임. 지자체의 계획을 심사하여 개발 잠재력이 높은 거점 소도읍을 선정·집중지원(매년 20개, 총 194개 읍)하고 소도읍육성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 추진함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어촌의 배후마을생활권을 고려하여 1개 법정리 이상을 묶는 권역단위 개발을 추진함
- 2000년대 후반 이명박 정부는 신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하여 국토를 기초생활권, 5+2 광역경제권, 초광역경제권 등 3차원으로 구분하고 정책을 추진함
 - 지역개발사업은 기초생활권 개발, 광역경제권 추진, 초광역권 개발 등 3대 추진전략을 설정함.

- 이 시기에 포괄보조제도의 도입으로 2010년부터 각 부처에서 추진하던 지역 개발사업들을 통합하여 농산어촌마을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주민 주도의 마을 활성화를 지원하게 됨
 - 포괄보조제도를 통해 농촌지역종합개발은 지자체가 자율적인 농촌지역개발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사회의 정주여건 개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 실행하여 거주민이 주거생활을 비롯하여 생산과 소비 등 경제활동, 그리고 여가와 친교 등의 사회활동의 편리성을 높이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던 소도읍육성사업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하고 각각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과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변경함
- 박근혜정부는 이전의 지역개발정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 지역행복생활권은 주민·지자체가 주도하여 ‘중심도시-농어촌중심지-마을’로 연결되는 생활권을 고려하여 공공·상업 서비스 이용공간을 기반으로 설정함
 - 지역생활권의 중심도시는 고차서비스, 농어촌중심지(읍·면)는 복합서비스, 인근마을은 기초생활서비스 기능을 분담하여 생활권의 위계에 따라 적절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제3차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2015~2019) 기본계획에 따라 범 정부 차원에서 185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농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지역행복생활권연계협력사업 등 16개 세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이러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현황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변화

-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에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양여금을 폐지하고 지역발전 관련 사업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통합함. 균형발전특별회계는 MB정부에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박근혜정부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왔음.
- 농촌마을만들기사업은 2010년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강화된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기존15개 사업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되고, 주민 참여형 상향식 추진방식을 도입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생활기반계정의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중 하나임. 읍·면지역을 포함한 농촌 시·군 중 특수상황지역을 제외한 1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2014년부터는 사업체계 개편을 통해 단계별 지원방안을 도입하여 역량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함. 2014년 개편에 따른 사업체계중 진입단계에서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3개분야(소득체험, 경관환경, 문화복지)로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2017년 개편 이전까지 운영되어옴
- 읍(동)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존시설 및 인프라 지원 중심이었던 것에서 지역활성화 및 배후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높이는데 목적을 둠.
- 기존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과 신규마을조성사업은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인위적인 권역설정에 따른 부작용과 운영관리부실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발
- 계획과정에서 필수과정으로서 역량-경험의 축적으로 주민주도 상향식 농촌개발사업 추진과정으로 전환되었으며, 실질적으로 마을중규모사업 - 종합개발사업 이행과정에서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별 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

2014년		2015년 이후			
사업명	사업비	사업명	단 위	세부유형	사업비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읍(100억) 면(70억)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읍·면·동	통합지구 선도지구 일반지구	통합(120억원) 선도(80억원) 일반(60억원)
권역단위 종합정비	50억원			주거환경 개 선	60억원
신규마을 조성	3~36억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 단 위	종합개발	10억원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공 동 문화·복지	5억원
				경 제 (체험·소득)	
				환 경 (경관·생태)	
지역창의 아이디어 (소득문화경관 등)	·소득(5억) ·문화(2억) ·경관(20억) ·아이디어 (20억)	권역 단 위	종합개발	40억원	
농·어촌 체험마을 조성	농촌(2억) 어촌(5억)	시·군청의		20억원	
지역역량강화	50백만원	시·군 역량 강 화	준비지구 역량강화 완료지구 역량강화	0.5~2.5억원	
농촌생활 환경정비	실소요액	기초생활 인 프 라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어업기반조성 등	실소요액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내용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 에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
-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권역단위, 마을단위), 시군역량강화,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농촌현장포럼, 농촌재능나눔, 농촌신활력플러스 등으로 구분됨.
-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단위와 권역단위로 구분되며 마을단위는 종합개발, 공동 문화·복지, 경제(체험·소득), 환경(경관·생태), 신규마을 등 5개 유형과 권역단위는 종합개발 유형으로 세부 사업을 분류함
- 근거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71조’임
- 사업대상은 일반농산어촌지역 중 농산촌지역 123개 시군이며, 어촌지역 11개 시군은 별도 해수부 지침에 따르고 있음.
- 재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임. 재원구성은 국고가 70%이고 지방비가 20%임.
- 자부담기준은 지역소득증대 기능사업(소득기반 및 체험)은 부지 100% 및 시설비의 20%이고, 사유 시설물 정비는 시설비의 20%이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간판과 담장정비사업 등은 시설비의 10%임. 사유 시설물의 정비는 10가구 이상 집단화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시행. 단, 슬레이트 정비 및 빈집철거 등 안전·위생과 관련된 경우 5가구 이상 시행 가능

- 사업비 지원규모는 사업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60-120억원 이하,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단위사업은 40억원 이하, 마을단위는 5-10억원 이하, 신규마을은 36억원 이하, 시군역량은 시군창의 10억원 이하이고, 현장포럼이나 재능나눔 등은 실소요액임. 추가로 농촌신활력플러스가 만들어졌으며 70억원 이하임.

사업유형		지원한도(억원)	사업기간(년)	
농촌 중심지 활성화	통합지구	120이하	5이내	
	선도지구	80이하	5이내	
	일반지구	60이하	5이내	
창조적 마을 만들기	권역단 위	종합개발	40이하	5이내
	마을단 위	종합개발	10이하	5이내
		공동 문화복지	5이하	5이내
		경제(체험소득)		
		환경(경관생태)		
신규마을	1.5~36	5이내		
시·군역량	시군창의	10이하	5이내	
	역량강화	2.5이하	1	
	현장포럼	실소요액	1	
	재능나눔	실소요액	1	
기초생활인프라정비		실소요액	1	
농촌신활력플러스		70 이하	4이내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

-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7조 2,439억 원의 예산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집계됨. 이 중 읍·면소재지 대상 중심지정비 569개소, 마을·권역 대상 1,344개소 정비 등이 이루어짐.
 - 총 예산 규모는 2010년 9,737억 원에서 2017년 8,723억 원으로 감소.



2010~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현황(단위: 개소 수, 억 원)

유형별	2010~2014		2015		2016		2017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계	3,174	46,259	723	8,733	720	8,723	810	8,723
농촌중심지활성화	297	9,340	78	3,110	91	3,931	103	5,845
창조적마을만들기 (권역단위 포함)	652	16,833	203	3,120	196	2,849	293	976
시군역량강화	82	29	118	239	122	205	137	309
기초생활인프라	2,057	19,552	308	2,160	293	1,648	257	1,498
기타·협업 사업	86	505	16	104	18	90	20	95

* 자료 : 송미령외5, 2017, p.36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변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송미령외, 2017)
- 긍정적인 성과로 농촌 인구 유지·증가, 농촌의 기초 인프라 정비, 농촌 주민 삶의 만족도 향상, 지역 통합적 계획의 필요에 대한 인식 확대, 지자체 공무원의 기획 역량 제고, 다양한 관련 민간 조직 활동 유도 등을 들 수 있음.

- 농촌 인구 증가: 2005년 876만명 → 2010년 876만명 → 2015년 939만명(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귀농·귀촌 가구 증가: 2013년 29만 가구 → 2014년 31만 가구 → 2015년 33만 가구(통계청, 귀농어·귀촌인통계).
- 과소화마을 감소: 2005년 2,048개 → 2010년 3,091개 → 2015년 1,270개(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편).
- 농촌 주민 삶의 만족도 향상: 2014년 46% → 2016년 56%
- 농촌 협업·자율 조직 증대(소득법인, 운영조직 등): 770개 → 1,351개(2010~2015)(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마을리더 육성 프로그램 참여: 2012년 671명 → 2016년 3,395명(누적)(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주민 참여 농촌현장포럼: 2012년 37개 → 2016년 1,457개(누적)(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자료 : 송미령외, 201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 농촌경제연구원

- 이와 같은 긍정적인 기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음.
 - 기초 인프라·문화·안전 등 생활 여건은 여전히 미흡하고 주민 체감도는 낮음
 - 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 예산이 집중됨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성이 부족함
 - 지역 자율성 제고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포괄보조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 관련 민간단체 등 상호역량이 부족하여 갈등이 상존하며 성과 극대화에 한계
 - 시설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내실있게 진행되지 못함



3.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특성

(1)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내용

-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은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마을 조성
- 지역 특성이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마을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정부지원 마을관련 사업의 통합화
- 2015년 신규 사업부터 마을 단위 사업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통합하고, 2016년 신규 사업부터 사업 신청 전 지자체 및 농식품부 사전 역량 교육을 의무화하고, 지역의 역량에 맞도록 단계별로 사업 지원
- 지원한도는 국비 70%,지방비 30%이며, 사업기간은 5년이하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총 부지 구입비는 사업비의 25%에서 30%이내 범위 임
- 지원 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유 형	세부유형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시행기간 (년)	총부지구입비 /총사업비
마을	종합개발	10	5년 이하 자율	30% 이내
	공동문화·복지	5		25% 이내
	경제(체험·소득)	2~5		*체험·소득사업 은 0%
	환경(경관·생태)	5		
	신규마을	1.5~36		0%
권역	종합개발	40		30%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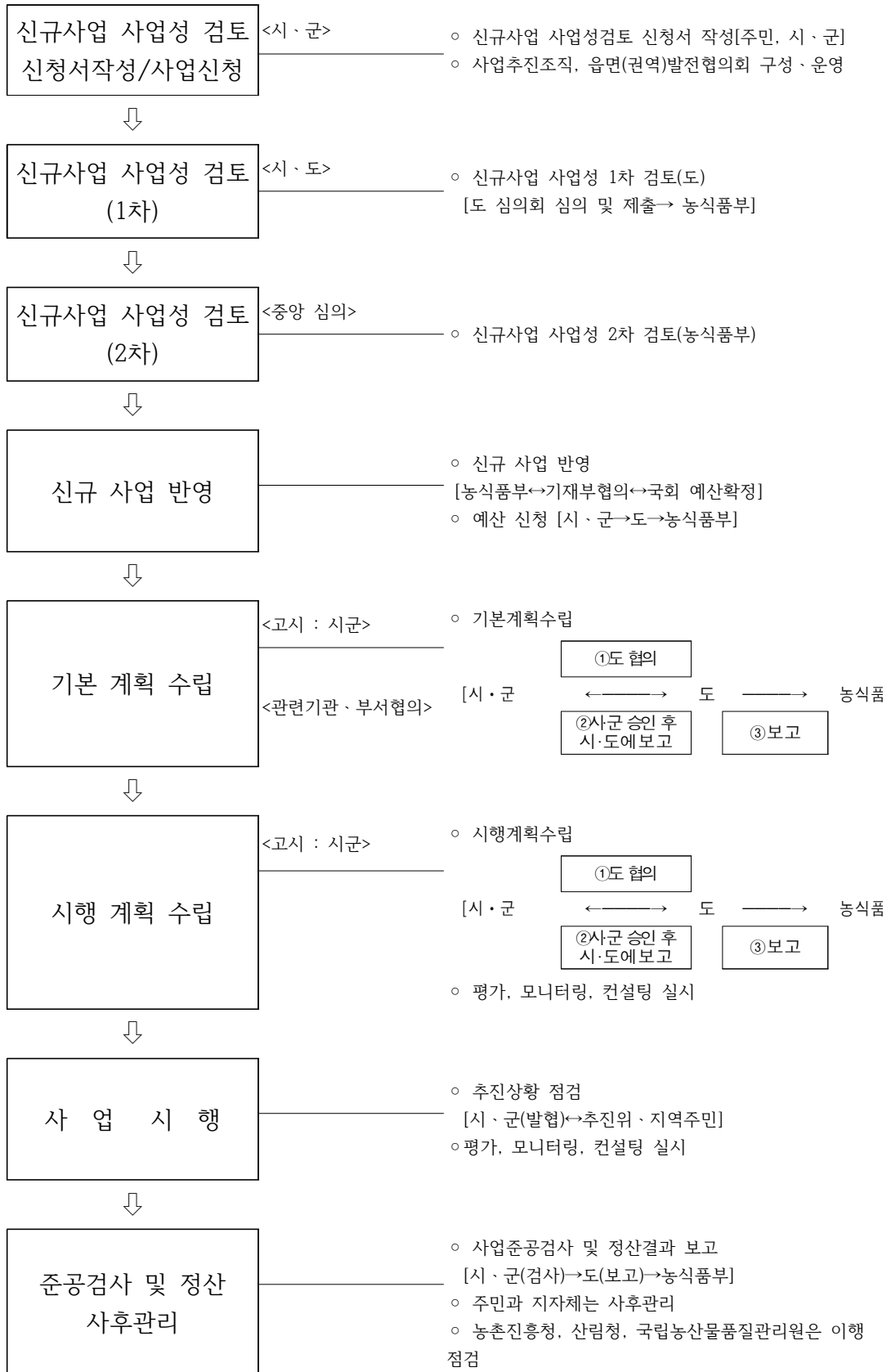
※ 소득사업은 총사업비 2억원 이하(자부담 : 부지 100%, 시설비의 20%)

- 지원대상은 문화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제조가공시설 및 체험시설, 경관개선 및 생태보전 사업 등임

유 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공동 문화·복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시설개보수 및 설치보다는 s/w사업 위주로 사업추진 ■ 사업추진단 및 자문단 운영비 (총 사업비의 3% 미만) ■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주관·주도하는 축제·행사·교육·홍보는 지원 제외
경제 (체험·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조·가공시설 및 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교육 등 ■ 마을의 향토문화·자원 등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단 및 자문단 운영비 (총 사업비의 3% 미만) ■ 부지구입비 및 부지구입을 위한 제반 비용 지원 제외
환경 (경관· 생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경관개선 및 생태보전을 위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공간에 대한 정비는 자부담이나 지방비를 이용해서 추진 ■ 단일 경관사업 보다는 장기적인 방향에서 서로 연계·발전 추진

(2)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절차

- 사업은 시군, 주민, 사업추진조직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시도와 중앙에서 심의한 뒤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 사업은 시군에서 신규 사업 사업성 검토 신청, 시도에서 1차로 신규 사업 사업성 검토한 후 중앙에서 2차 신규사업성 검토를 진행함.
- 신규 사업 반영 이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뒤 준공검사와 정산, 사후관리의 과정으로 진행하게 됨.



(3) 역량단계의 구분 및 이수구분

- 사업 역량이 부족한 마을에 고액의 사업비 지원으로 무분별한 사업비 집행과 시설물 운영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
-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사업지원 체계를 개편하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유형에 한해 마을별 단계를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
- 역량단계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전 단계의 이행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상위단계로 이행이 가능



	1. 예비단계	2. 진입단계	3. 발전단계	4. 자립단계
내 용	역량강화	기반구축	종합개발	활성화
관련사업 및 지원수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 사전 역량강화 실시 • 마을발전계획 수립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 자체사업 경험 축적 </div>	• 창조적 마을 만들기 * 문화·복지·경관·경제 분야의 중규모 사업	• 창조적 마을 만들기(종합) * 권역단위종합개발 등 대규모 사업	• 완료지구 활성화 지원 * 인성학교 등 활성화 S/W 추진
	(필수사항)	(예비단계 완료지구 대상)	(진입단계 완료·평가 대상)	(사업 완료지구 대상)

-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정하고 있는 이수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함
- 각 단계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하는 단계와 이수조건을 선택적으로 충족해도 되는 것으로 구분됨. 예비단계는 교육에 중점을 두는 단계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이수한 것으로 봄. 반면에 진입단계는 유사사업까지 포함하면서 해당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만 완료해도 이수한 것으로 봄. 그리고 발전단계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최종 단계이며 마을단위, 권역단위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이수한 것으로 봄

창조적 마을만들기 단계별 이수기준

단계별	이수기준
예비단계	다음의 모든 조건 충족 • 색깔있는 마을 지정 및 이에 준하는 정부지자체 연계사업 추진 여부 • 농촌지역개발관련 담당공무원 교육 • 농식품부 현장포럼 및 지자체 자체 현장포럼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주관 리더교육 및 이에 준하는 지자체 교육(최근 5년이내) • 자체소액사업(18년부터)
진입단계	다음 요건 가운데 하나 •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문화,소득,경관, 기타) 사업 완료 • 녹색농촌(어촌)체험마을 조성후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지정 • 지역발전위원회 협업사업(창조지역사업, 녹색성장사업 등) 완료 • 지자체/타부처 중규모 마을만들기 사업완료
발전단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완료 • 마을단위 종합개발, 권역단위종합개발 사업 완료(준공) (농촌마을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 산촌생태마을조성 포함) •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운영 및 S/W프로그램 활성화

4. 농어촌개발사업의 평가체계고찰

(1) 평가기준

-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부처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있음.
- 각각의 사업들은 마을사업의 취지와 성격에 따라 다른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농어촌개발사업의 평가항목

사업	평가 항목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자원 및 여건 •주민 합의와 사업추진 의지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천 가능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여건, 자원 활용 가능성, 권역설정의 적절성 •개발 비전 및 목표, 사업계획 타당성 및 파급효과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가능성 등
어촌체험마을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여건(자연자원, 문화자원, 시설자원, 토산품) •입지여건(접근체계, 배후도시와의 거리, 연계자원) •상품성(주제의 확실성, 목적관광, 참여관광, 파급효과, 독창성) •주민호응도(주민 주도성, 협의회 리더십, 교육, 계획 실효성)
농촌전통테마 마을 (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 타당성, 적정성, •농촌전통테마 발굴 가능성, 관광 및 체험 매력요소, 학습적 효과, 방문객유치 가능성 •마을주민의 협조와 의지, 행정기관의 사업성 확인 여부



사업	평가 항목
아름마을가꾸기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멘트가 없는 전통가옥과 전래민속문화가 보전된 농촌 •역사, 소설 등의 배경장소, 풍부한 전설, 설화가 전래되어 관광자원화가 용이한 마을 •지역특산물, 관광자원, 청정자연환경 등 개발 잠재력 보유 마을
정보화시범마을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커뮤니티 형성 •수익모델 창출 - 사업 후 경제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주민 정보화 교육 •마을정보센터 구축 공간 확보 및 운영
자연생태및 복원우수마을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역 환경여건(자연환경, 생태적 가치, 경관/녹지 공간 확보 •주민활동/ 지역주민 문화 •복원 우수마을 - 생태계 복원변화, 활용효과 운영관리 실태

(2) 평가절차

- 일반적으로 사업은 사업의 선정, 사업모니터링, 사업결과평가로 이루어짐
- o 사업 선정단계
 - 사업의 선정절차와 방법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유사한 선정체계를 가짐.
 - 여러 항목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을 선정함. :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참여의지와 협력체제 등임
 - 대부분의 경우, 시군 차원에서 1차 평가하고, 도나 중앙부처에서 2차 평가를 실시함.
 - 선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실시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선정위원회의 규모는 대개 10-15인으로 구성, 선정위원회는 교수,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시도나 중앙부처에서 위촉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사업 모니터링

- 모니터링은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에서 대부분 실시하며, 중앙부처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 시군 : 사업시행, 수시현장점검, 사업 추진상황 보고 등이며, 사업비 정산결과와 사업 추진실적 등에 대해 보고함.
- 중앙부처 : 시군의 사업추진상황을 1년 단위로 점검하고 추진상황 취합 및 사업 계획서 수정 등을 요구함
- 컨설팅 : 사업의 원만한 진행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사업과정, 추진조직, 계획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함

○ 사업결과 평가

-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는 선정평가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평가기준을 적용함 : 정성평가는 사업수행의 적절성, 지역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정량평가는 구체적인 사업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함
- 대부분의 사업은 시군차원에서 1차 평가하고, 도나 중앙부처단위에서 2차평가를 실시함.
- 시군은 추진결과보고서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자료 확인 및 검토
- 중앙부처는 추진결과 보고서를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 실시
- 사업 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위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로 구분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10-15인으로 구성.
-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및 패널티 부여 등의 상벌과 연계하는 것이 일반적임



제3장.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현황 분석

1.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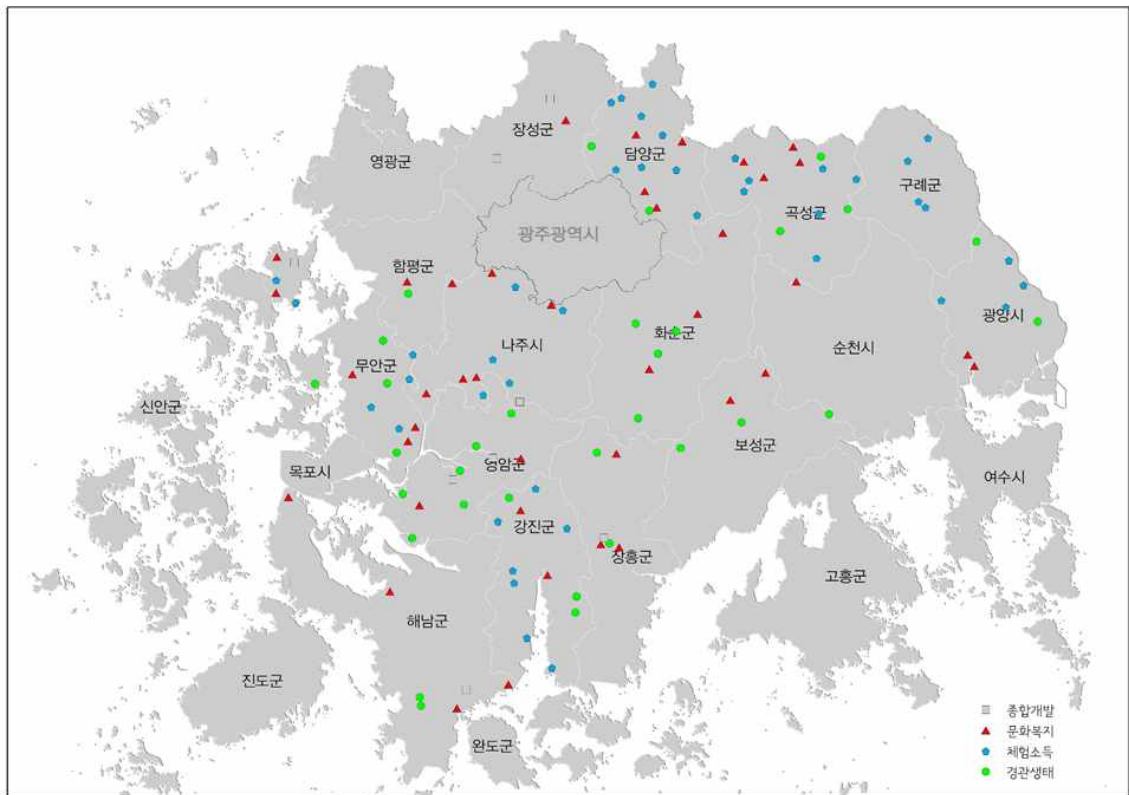
(1) 전체현황

- 2018년 11월 기준 전라남도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22개 시군 가운데 16시군이고 198개 지구에서 진행됨. 사업비는 832.9억원임. 진입단계가 189개 지구(95.5%)이며, 발전단계가 9개 지구(4.5%)임



전라남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현황

구분	계속	신규	완료	총합계
경관생태	22 (62.9%)	-	13 (37.1%)	35 (100.0%)
문화복지	14 (35.0%)	20 (50.0%)	6 (15.0%)	40 (100.0%)
종합개발	7 (77.8%)	2 (22.2%)	-	9 (100.0%)
체험소득	45 (100.0%)	-	-	45 (100.0%)
전체	88 (68.2%)	22 (17.1%)	19 (14.7%)	129 (100.0%)



(2) 진입단계 : 공동문화복지사업

○ 목적

- 마을의 전통 문화를 발굴·복원하여 새로운 농어촌 문화 창출 및 마을공동체 기능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공동문화 공간조성을 위한 기존시설 개보수, 소규모 시설 설치 또는 기존 시설의 복원
- 새로운 문화의 발굴 및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마을 공동문화 조성과 관련된 공연, 축제, 외부 문화의 초청
- 마을간 문화 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추진현황

- 2014년부터 13개시군, 40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됨. 사업비는 193억원(국비 135억원, 시군비 58억원)임
- 사업의 추진정도를 보면, 40개지구 가운데 완료지구는 6개, 계속지구는 14개, 신규지구는 20개임
- 창조적 마을 만들기 진입단계 이수 현황을 보면, 진입단계를 이수한 지구는 6개, 진입단계를 진행하는 지구는 34개임. 대부분 진입단계가 진행되고 있음



(3) 진입단계 : 체험소득

○ 목적

- 1개 행정리에서 실시하는 중규모사업에 해당하며, 지역 농특산물 부가가치 상승 및 향토·문화자원을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지원이 목적임

○ 사업내용

- 지역 생산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조·가공시설 및 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교육 등
- 마을의 향토문화·자원 등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 추진현황

- 2002년부터 16개시군, 90개 지구에서 추진되었으며, 사업비는 211억원(국비 122억원, 도비 19억원, 시군비 70억원)임
- 90개 지구 가운데 완료지구는 86개, 계속지구는 3개, 2017년에 1개 지구가 신규로 지정됨.
- 진입단계 이수 지구는 86개 지구이고, 진입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지구는 4개 지구임



(4) 진입단계 : 경관생태사업

○ 목적

- 지역의 경관자원(저수지, 다랭이논, 마을 숲 등)과 연계하여 자원의 가치를 증대하고, 아름다운 마을 경관의 보존 및 개선을 통해 농촌 어메니티(쾌적함)를 향상하고자 함

○ 사업내용

- 경관쉼터와 같은 소공원 조성
- 경관자원에서 도출한 컨셉으로 특화된 공간을 계획하고,
-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소재를 선택하여 조성
-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도입으로 지속적인 농촌환경 유지

○ 추진현황

- 2014년부터 12개 시군, 59개 지구에서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340억원(국비 238억원, 시군비 102억원)임
- 59개 지구 가운데 완료지구 13개, 계속지구 23개, 완료지구 13개, 신규지구 23개 임.
- 진입단계 이수는 13개 지구이며, 진입단계 진행은 46개 지구임





(5) 발전단계 : 종합개발

- 목적
 - 마을단위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및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 사업내용
 - 마을회관 및 복지시설 : 마을회관건립 및 리모델링, 주민건강관리센터
 - 마을경관 정비 : 마을벽화길 및 꽃길조성, 쉼터,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공원, 마을숲, 광장 등
 - 체험 및 문화시설 정비 : 체험관 및 체험장 정비, 전통역사계승관, 생태문화교류센터 등
- 추진현황
 -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추진중인 곳이 9개소이며, 사업비는 85.90억원임. 모두 발전단계 진행 중임
 - 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은 3개소이고, 기본계획을 수립중인 곳이 1개소임
 -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곳은 1개소이며, 시행계획을 수립 중인 곳은 3개소임
 - 계획수립이 완료되어 사업을 시행중인 곳은 1개소임



2.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사례 분석

(1) 공동문화복지사업사례

(1-1) 무안군 신월마을

○ 사업개요

-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내리 일원
- 사업기간 : 2016년 ~ 2017년 (2년)
- 마을인구 : 146명
- 마을가구 : 73호 (농가 58호, 어가 15호)

무안군 신월마을 문화복지사업 내용

구분		총계획			연차별투자계획 (백만원)	
		규모	단위	사업비	1년차	2년차
기초생활 기반확충	신월 커뮤니티센터	133	m ²	272	80	192
지역경관 개선	야외활력공간	663	m ²	65	-	65
	벚꽃길	100	주	13	13	-
	합계	-	-	78	13	65
지역역량 강화	교육	4	식	70	20	50
	홍보마케팅	4	식	30	10	20
	컨설팅	4	식	20	-	20
	부대비용	기본계획수립비, 실시설계 및 감리비, 사업관리비		30	27	3
	합계	-	-	150	57	93
총계		-	-	500	150	350



○ 예비단계

- 주민의 관심과 참여의식 증진 및 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의식 형성
-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현장포럼과 전문가 자문이 예비계획수립에 기여
- 농번기 등과 겹치는 현장포럼의 시행 시기 문제 및 고령화로 인한 교육효과의 한계 발생

○ 추진과정

- 사업 선정 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증가하는 효과 발생
-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운영활동은 저조한 수준
- 사업비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필요한 기자재 구입이 예산문제로 보류 및 취소되어 주민들 부담 증가

○ 사업완료

- 운영위원회 조직운영 및 기금, 시설 운영 등을 위한 주민 사업 추진 중
- 신축건물 내부 누수가 발생하는 부실공사 문제로 주민간 불신 발생
- 상위단계 진입 계획 없음 (2018년초 현재)

(1-2). 나주시 덕례마을

○ 사업개요

-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일원 (1개의 법정리, 1개의 행정리, 4개의 자연마을로 구성)
- 사업기간 : 2015년 ~ 2016년 사업추진
- 마을인구 : 517명
- 마을가구 : 239가구

나주시 덕례마을 문화복지사업 내용

사업	규모	용도
노인사랑방 및 공동편의시설	21m ²	주민들의 공동 급식 장소, 다목적 용도
족욕시설	195m ²	족욕실
모이세 광장 및 주차장	-	농산물 집하, 주차장, 투표소, 행사공간 및 관람장소 등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



나주 덕례마을 노인사랑방 및 공동편의시설

○ 예비단계

- 현장포럼 시기 및 일정 조정의 어려움 발생
- 현장포럼과 사업내용 등 교육 및 설명내용이 주민수준과 맞지 않아 주민이해도 저하 및 전문가와의 소통문제 발생
- 시·군 행정,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전문가가 계획 및 사업추진에 기여



○ 추진과정

- 사업 선정 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함
- 추진과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추진위원회에도 주민들이 적극 참여함 (4개마을, 22명 적극 참여)
-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음

○ 사업완료

- 사업 추진시 주민참여 및 사업 추진과정이 효과적으로 진행됨.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위한 비용조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운송시설은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나 족욕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3) 체험소득사업사례 : 무안군 용산마을

○ 사업개요

-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용산리 일원(1개 법정리 , 5개 행정리 , 5개 자연마을)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3년)
- 마을인구 : 562명
- 마을가구 : 283호(농가 233호 , 어가 13호 , 비농어가 37호)

무안군 용산마을 체험소득사업 내용

구분		투자계획			비고
		계	2015년	2016년	
총사업비		400	130	270	
지역소득증대	갓김치가공시설	320	74	246	
지역역량강화	소계	50	26	24	
	교육	11	3	8	
	컨설팅	20	12	8	
	홍보마케팅	11	11		
	정보화	8			
부대비용	계	30	30		
	기본계획수립	15	15		
	실시설계수립	15	15		

갓김치가공시설 개요

- 시설규모 : 부지 660㎡, 연면적 308㎡(지상 1층)
- 사업비 : 4억원
- 생산능력 : 3톤/일, 750톤/연
- 생산품목 : 갓김치, 절임갓
- 사업비내역 : 가공장 신축 270백만원,
- 가공설비(HACCP 기준) : 130백만원
- 운영관리 주체 : (가칭)농업회사법인 백련지갓 주식회사

○ 예비단계

- 진행과정에서 주민들간 갈등이 발생함.
- 주민들은 행정과의 협의 및 지원에 대해 매우 긍정적임.
- 추진위원회 구성시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문제와 추진위원들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 발생



○ 추진과정

- 사업 선정 후 주민들의 관심 및 참여도가 증가하는 효과 발생
-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수기에는 1명이 시설을 관리하고, 10월 이후에는 12~24명이 참여함
- 역량강화 교육내용에 현장에서 직접 적용·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빈약하고, 주민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교육에 대해 주민불만이 있음

○ 사업완료

- 사업종료 후 농촌 체험마을 운영을 통해 운영비용을 충당할 계획이 있음
- 소득사업 협약사항에 따라 이익의 0.2% 기부계획을 수립함
- 인건비, 운영비, 마케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추진위원회 구성인원 및 역할 문제가 있으며, 추진위원들의 책임감이 부족한 문제가 있음.
- 제품 홍보와 컨설팅 등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필요
- 공장매출은 300만원 정도를 예상함

(4) 경관생태사업사례 : 무안군 창산마을

○ 사업개요

-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창매리 일원(창매 1리, 창산마을)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마을인구 : 125명
- 마을가구 : 68호 (농가 43, 여가 20, 비농어가 5)

무안군 창산마을 경관생태사업 내용

구분		계	2015년	2016년	
총사업비(백만원)		500	200	300	
지역 경관 개선	소계	420	170	250	
	마을둘레길정비	216	95	121	
	가옥정비	9	-	9	
	마을쉼터	87	-	87	
	스토리텔링산책로	75	75	-	
	소망광장	20	-	20	
	금굴생태공원	13	-	13	
역량강화	소계	80	30	50	
	지역역량 강화	개	50	-	50
		교육	12	-	12
		컨설팅	15	-	15
		홍보마케팅	23	-	23
	부대비용	계	30	30	-
		기본계획수립	15	15	-
실시계획수립		15	15	-	

○ 예비단계

- 현장포럼을 통해 마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됨
- 현장포럼이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자세에 비교적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주민들 간의 갈등이 나타났으나 리더가 역량을 발휘하여 조정함

○ 진행과정

-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이후 주민들의 참여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
- 리더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업이 운영됨
- 주민들이 요구하여 반영된 일부 사업항목이 변경됨.
- 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주민들간의 논의가 부족함



○ 사업완료

- 사업종료 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떨어짐.
- 운영위원회 구성·역할분담이 모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교체되는 문제 발생
- 사업종료 후 운영기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며, 지자체의 추가 지원 사업의 필요

(5) 종합개발사업사례 : 장흥군 기양마을

○ 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3년)
- 기본계획 승인 : 2016년 4월 1일
- 시행계획 승인 : 2017년 6월 1일
- 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 600백만원, 지방비 400백만원)

장흥군 기양마을 종합개발사업 내용

구 분			수량
기초생활	주민복지센터	철근콘크리트조	160.1m ²
경관 개선	소공원 조성	느티나무	2주
		안전난간	31m
		철평석	38m ²
		벤치의자	4개
		철죽	100주
		장미	50주
	회전교차로	소나무	1주
		수목경관등	6개
		잔디식재	70.8m ²

○ 세부 사업내용

<p>[주민복지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114-1 ○ 규 모 :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부지면적 229㎡, 건축면적 160.1㎡) ○ 공사기간 : 2017. 07~2017. 12 ○ 운영주체 : 기양리 운영위원회 ○ 관 리 자 : 장흥군 ○ 등기주체 : 장흥군 ○ 시 공 사 : 흥광건설(주) ○ 운영개시 : 2017. 12. 	<p>시 행 전</p>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p>시 행 후</p>	 
---	---	---

<p>[소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153-4 ○ 규 모 : 조경 면적 294㎡ ○ 공사기간 : 2017. 07. 12. ~ 2017. 12. 11. ○ 운영주체 : 기양리 운영위원회 ○ 관 리 자 : 장흥군 ○ 등기주체 : 장흥군 ○ 시 공 사 : 흥광건설(주) ○ 운영개시 : 2017. 12. 	<p>시 행 전</p>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p>시 행 후</p>	 
--	---	--

<p>[회전교차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149 ○ 규 모 : 경관조성(부지면적 70.8㎡) ○ 공사기간 : 2017. 07. 12. ~ 2017. 12. 11. ○ 운영주체 : 대덕읍 소재지 운영위원회 ○ 관 리 자 : 장흥군 ○ 등기주체 : 장흥군 ○ 시 공 사 : 에이치비건설(주) ○ 운영개시 : 2017. 12. 	<p>시 행 전</p>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p>시 행 후</p>	 
--	---	---



3.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와 한계

(1) 사업추진 이전단계

○ 성과

- 주민의견의 적극적 수렴 효과 발생
- 사업아이템 도출과 타부처 사업의 연계기회 확대
- 주민관심 및 참여도 증진을 통해 갈등관리 및 사업을 촉진하는 효과 발생
- 리더교육, 현장포럼,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의 역량 강화 효과발생

○ 한계

- 사업대상지간 주민들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 미흡
- 사업비 한계로 컨설팅 기관의 역량강화사업이 형식적으로 추진되는 문제

(2) 사업착수 단계

○ 성과

- 현장포럼 등으로 기본계획수립 기간이 단축되면서 사업기간 단축효과 발생
- 주민간 소통, 의견 수렴 등 주민참여 통로 확대

○ 한계

- 사업 착수 이전보다 주민의 참여가 떨어지는 문제 발생
- 기본계획수립시 이전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변경되는 문제 발생
- 사전에 운영관리 측면을 고려하지 못해 계획상의 사업을 변경, 축소, 폐지하는 등의 문제 발생
- 지자체 지원의 한계로 인해 프로그램운영, 주민의 시설관리 부담 문제 발생

(3) 사업종료 단계

○ 성과

- 마을과 연계 가능한 타부처 사업 발굴 효과
- 상위단계(종합개발)에 대한 주민관심과 추진의지 증대
- 마을 환경에 대한 관심과 주민의 환경개선 의지 형성

○ 한계

[사후운영관리]

- 주민주도 사업에서 자력에 의한 운영관리방안 마련의 한계 발생
- 시설 완공 후 지자체의 관심 저조 (운영관리 등에 대한 점검 미흡)
- 사업종료 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낮아 사업의 지속성 문제 발생
- 경관사업, 문화시설 조성사업 등과 연계된 소득화 방안 부족
- 마을 자체적인 마케팅, 홍보 및 후속사업 컨설팅 등에 대한 행정이나 전문가 지원의 한계 문제 발생

[추진주체]

- 1-2명 리더 중심의 소득사업 운영으로 인한 마을공동사업 의미 퇴색
- 운영위원회 또는 리더의 체계적인 실행체계 및 역할 분담 부족

[주민참여 및 전문성]

- 소득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낮고, 사업종료 이후 일정기간 가시적인 소득창출 어려움 발생



4.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의 진입단계 사업 평가시 고려사항

○ 장기 플랜에 기초한 단계별 사업추진 기능 고려

- 단계별 마을사업 가운데 진입단계에 달성해야 할 성과에 대한 고려 필요 : 종합개발을 추진할 기반에 대한 검토 고려
- 장기플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조정 고려 : 대표적인 예로, 진입단계에서는 시설에 대해 리모델링만 허용하지만 동일한 대상지역임에도 종합개발에서는 마을회관 신축을 허용하고 있어, 시설이 노후하여 리모델링을 먼저 한 뒤에 신축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 발생. 진입단계에서 의도하는 사업의 수준에 맞춰 사업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사업추진의 원활성 확보를 위한 갈등관리 고려

- 주민갈등으로 인해 사후관리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 필요
- 소득사업 주체의 책임성 문제 : 소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비협조 문제와 법인 대표 또는 일부 주민 중심으로만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
- 문화복지, 경관사업은 시설설치를 위한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갈등 발생
-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와 잦은 사업변경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비계획시 기본계획까지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연관사업 연계성 강화

- 부처별 연관사업의 추진을 통한 마을사업의 파급효과 확산 필요(행정안전부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경관및축제·공동문화프로그램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일자리지원사업 등)

○ 사업의 지속가능성 고려

- 추가시설(제2마을회관 등) 설치시 운영관리비 부족 문제 (일부 마을 동아리활동으로 난방비 조달) 해결을 위해 운영비 지원 관련 시군 조례제정 등 구체적

인 대안 마련

- 사업의 지속유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 중심에서 벗어나 소득, 주민만족도, 외부 유인도 등 성과 확인 필요
- 사업완료마을(지구)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한 사업효과 지속성 확보 필요(시설 및 조직(인적자원)운영관리, 애로사항 등 현안파악, 조사병행)
- 도시재생, 공동체, 사회적 경제 등 분야별 중간지원조직간 협력을 통해 문화, 복지 프로그램 등의 지원 필요

○ 완료사업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 완료사업지구에 대해서 자체적인 상시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업효과의 유지관리 노력 필요(사업종료 후 1-3년차된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상시점검 필요)
- 완료사업 지구는 후속사업에 대한 요구가 큰 만큼, 주민 요구 파악을 통해 사업추진 동력 유지
- RAISE 시스템에 사업완료 후 모니터링 결과 업로드



제4장.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평가 지표 도출

1. 평가의 기본방향 및 원칙 설정

(1) 평가목적 및 방향

○ 일반적인 평가목적

- 평가의 목적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며 각각의 사안마다 목적이 다름. 일반적으로 사업평가는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 또는 사업을 통제하거나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됨.
-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평가를 통해 얻고, 예상되는 미래의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 그리고 평가는 의사결정과정, 진행과정, 결과 등 진행단계별로 평가목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일반적인 평가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 첫 번째는 목표달성도를 확인하는 것임. 사업이나 계획 등이 당초 의도했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를 확인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임.
- 두 번째는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임. 사업성과 가운데 성공적인 요인과 실패요인을 구분하여 평가하여 사업추진시 실패요인을 보완하고 성공요인을 강화하는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임.
- 세번째는 대안의 모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향후 추진할 사업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분석한 실패요인 결과를 토대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됨.
- 네 번째는 사업의 설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차기 사업추진시 사전에 사업의 내용이나 대상, 과정 등에 대해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평가임.

○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평가의 목적

-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의 평가목적은 사업추진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진입단계사업이 미진할 경우 또는 진입단계를 이수했으

나 종합개발에서 좀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사항이 될 것임.

○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진입단계에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이 완료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집행, 성과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단계별 결과수준을 확인
- 사업내용의 보완에 활용될 수 있는 실패요인과 성공요인을 확인하는 등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구축하여 제공. 진입단계 사업완료 후 종합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를 갖췄는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패요인에 대한 분석을 확인하여 사업내용 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또한 평가시점 이후의 해당 사업이나 유사사업의 사업내용 조정을 통해 개선 유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종합단계로의 이행수준을 갖추어도 사업수준의 향상을 위해 추가로 개선·보완할 점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일반적 평가의 목적

- 목표달성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
-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
- 대안의 모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
- 사업의 설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



본 연구의 평가목적

- 사업추진과 관련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 모색



- 수행중 또는 완료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 분석
-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구축
- 평가시점 이후의 해당 사업이나 유사사업의 개선 유도(사업내용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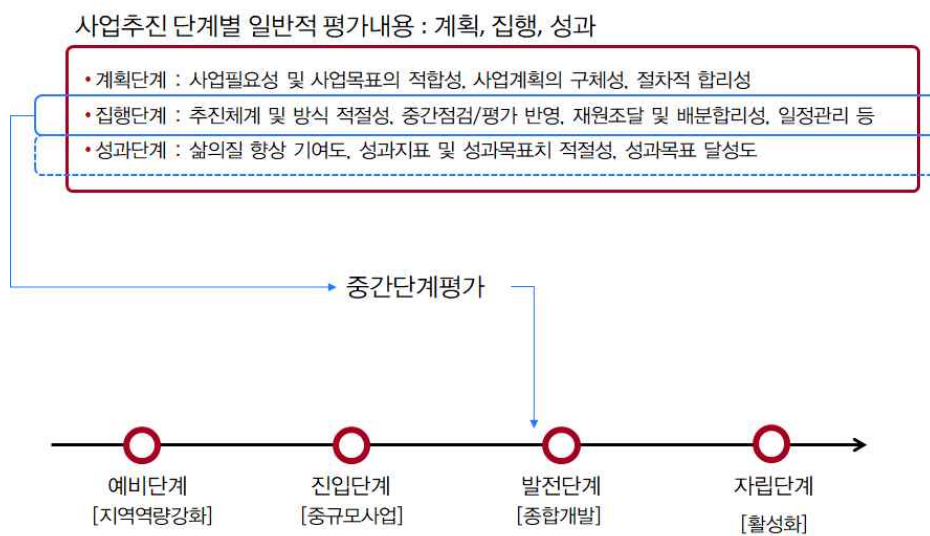


(2) 평가의 대상과 내용

- 사업추진 단계별 평가는 일반적으로 계획, 집행, 성과로 구분하여 이루어짐.
 - 계획단계 :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절차적 합리성 등에 대한 평가
 - 집행단계 : 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중간점검/평가 반영, 자원조달 및 배분합리성, 일정관리 등에 대한 평가
 - 성과단계 : 삶의 질 향상 기여도,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성과목표 달성도 등에 대한 평가

-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평가는 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 자립단계로 이루어지는 창조적 마을만들기의 전반적인 흐름 측면에서 보면, 진입단계에서 발전단계로 이행되는 단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집행단계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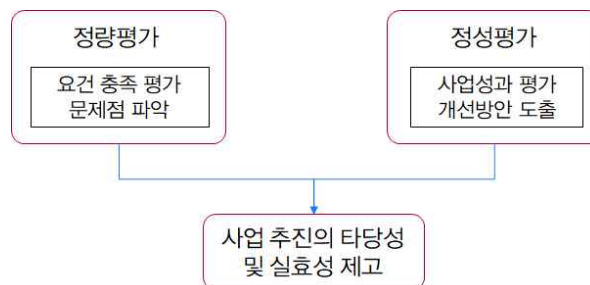
- 그러나 진입단계만을 놓고 보면 진입단계내의 계획, 집행, 성과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평가와 성과에 주목하는 평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3) 평가의 방법

- 본 연구에 필요한 평가기준은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정확성, 지표의 기준과 항목 선정에 기준이 되는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성, 지표가 동일한 결과를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 그리고 지표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단순성으로 설정함
 - 정확성 : 성과지표가 측정대상이 되고 있는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측정해야 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객관성 : 사업의 실행과정과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성이 담보된 지표이어야 함
 - 신뢰성 : 객관성이 담보된 자료 사용, 그리고 자료 획득과 이용 및 활용에서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야 함
 - 단순성 : 지표를 적용하고 이용하는데 복잡하지 않고,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평가의 정확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
 - 정량평가는 사업추진의도에 부합하는 성과요건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두고 미충족 항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짐.
 - 정성평가는 사업의 잠재력, 성공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종합적 평가하고, 정량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개선방안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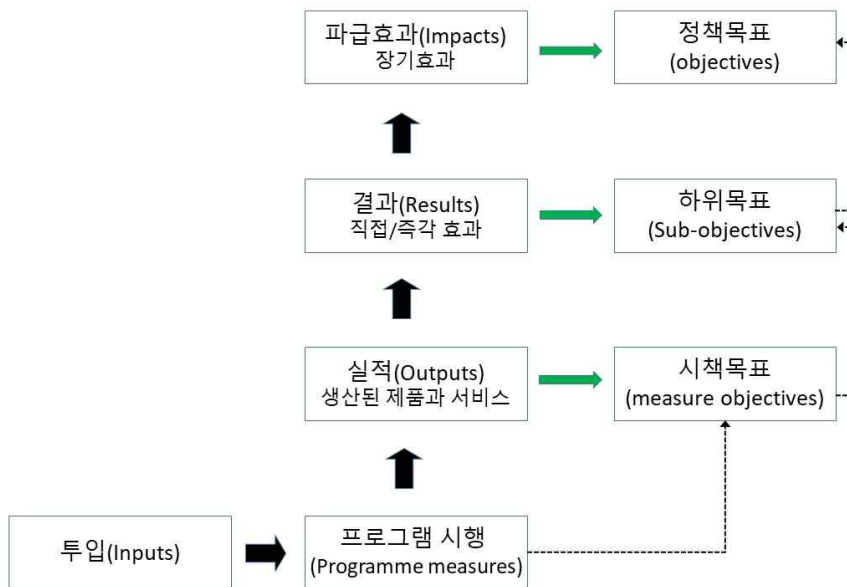




2. 평가지표의 설정

(1) 성과평가 지표체계 설정

- 유럽연합(EU)은 광범위한 농촌개발정책 사업들에 대한 평가체계(지표, 조직, 평가 절차 규정 등)를 정비하면서, 사업 추진과정을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개발함.
- 개발된 평가체계는 정책 투입과 성과 사이의 인과 관계가 드러나는 방식임. 투입(input), 산출(output), 성과(result), 파급효과(impact) 등으로 계층에 맞춰 구분한 사업평가 방식을 채택함. 정책목표, 하위목표, 시책목표 등이 있고, 각각의 목표는 각 수준의 효과와 연관된다는 것임. 이러한 방식은 각 단계 또는 각 요소들 간의 상호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정책의 효율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점을 찾는 데 유용함



EU 농촌개발정책의 목표 및 평가지표 체계

(자료 : 송미령외 5,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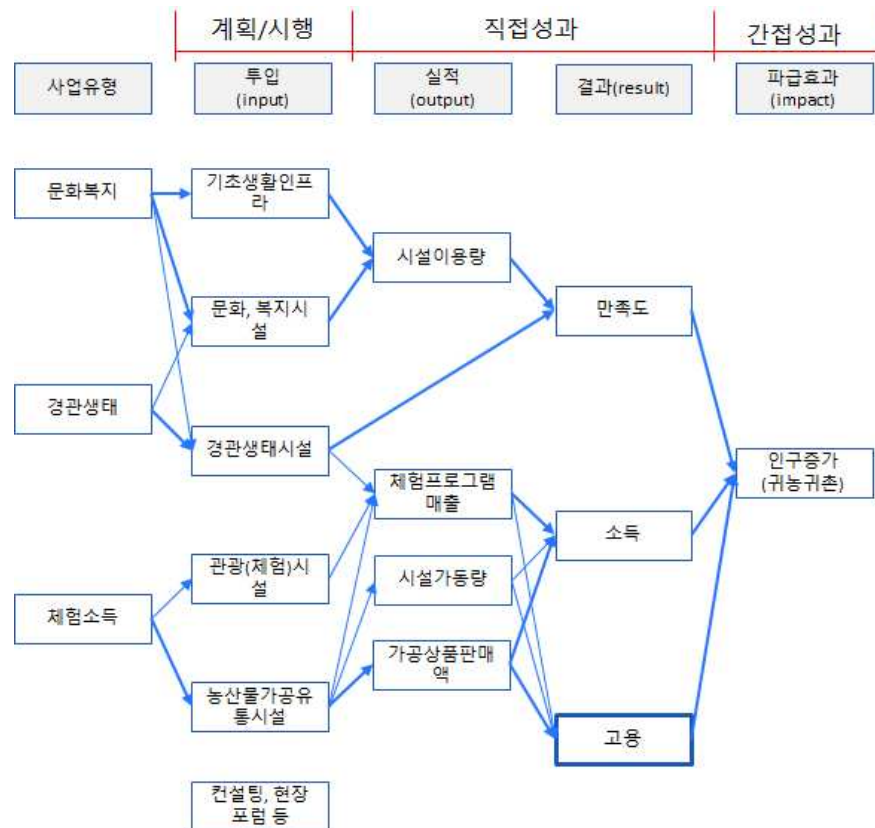
- EU 농촌개발정책 평가 지표는 위계구조를 갖추고 있음. 위계에 따른 계층별 평가 지표는 농촌개발정책의 계층별 목표와 상응 관계를 이루며, 정책프로그램과 효과사이의 인과관계를 통해 정책개입의 논리를 제공함.
- EU의 평가지표 체계는 다양한 세부 정책사업들로 구성된 농촌개발정책 사업을

평가하려는 의도에서 개발한 것인데, 사업의 구조, 실적 특성, 다양한 개별사업 구조(문화복지, 경관생태, 소득체험), 추진 대상 지역에 따라 사업의 목표 성격이 달라지는 사업의 다양성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의 평가에 적용 가능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EU의 이와 같은 평가체계를 모델로하여 투입(input)-실적(output)-결과(result)-파급효과(impact) 등으로 구분된 지표체계를 설정하고, 각각의 단계별 지표를 선정하고자함

(2) 사업 평가구조

- 지표평가체계에 기초해서 투입을 계획 및 시행으로, 직접성과에 실적과 결과를, 간접성과에 파급효과를 포함하여, 사업유형별로 계층에 따라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지표를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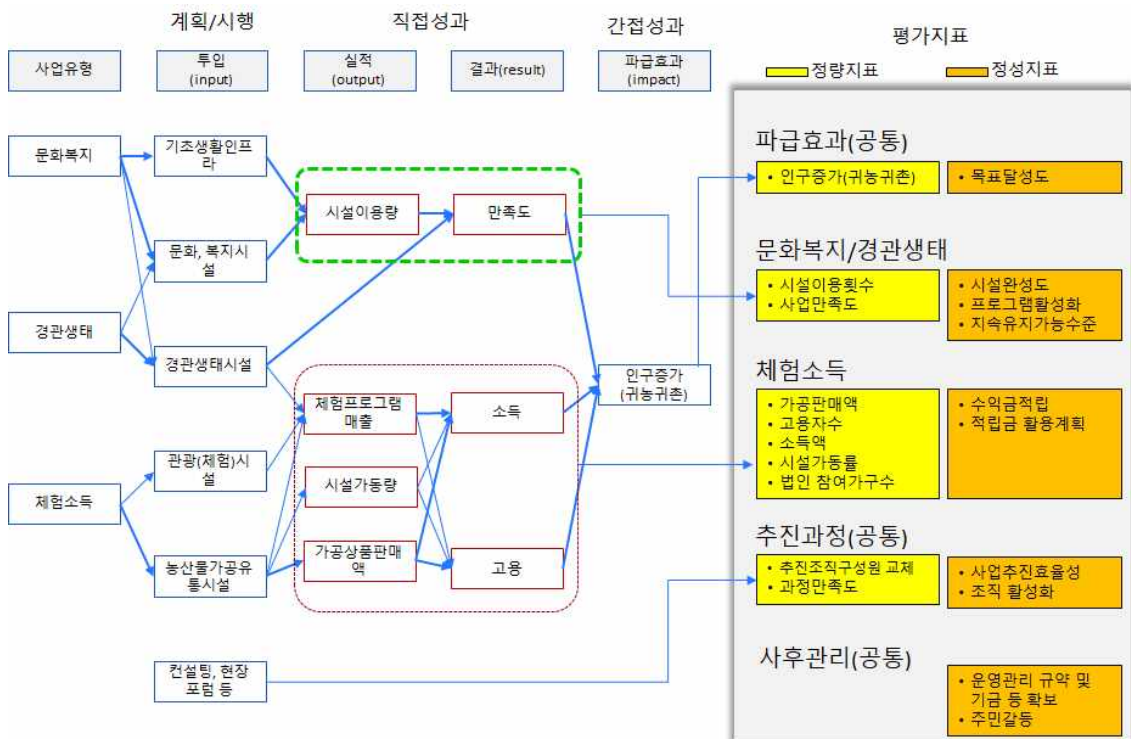
(자료 : 송미령, 2017, p.80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평가지표 구조 참조 수정 변형)



- 창조적 마을 만들기 전체사업의 파급효과(장기적 효과)는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 매력적인 마을로 거듭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마을에 귀농귀촌인구가 증가하여 마을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봄. 그래서 파급효과와 관련된 지표로 마을인구증가를 설정함.
- 문화복지는 기초생활인프라와 문화·복지시설이 주요시설이지만, 경관생태시설과도 연관되며, 실적은 시설이용량, 결과는 주민만족도와 연관됨.
- 경관생태분야는 경관생태시설 조성이 우선이긴 하지만 주민의 문화·복지시설과도 연관된 측면이 있고, 실적은 조성된 시설의 이용량이며, 결과는 주민들의 시설만족도와 연관됨.
- 체험소득 분야는 관광(체험)시설, 농산물가공유통시설의 설치와 직접 관계되며, 체험프로그램 매출, 시설가동량, 가공상품판매액 등이 실적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주민의 소득과 고용이 높아질 것으로 봄

(3) 평가지표 도출

- 직접성과와 간접성과를 토대로 평가지표를 도출함.



평가지표의 도출 과정

- 문화복지 및 경관생태는 유사한 실적과 결과로 이어지며, 시설이용과 주민만족도가 관련됨. 시설이용부분은 정량지표로 시설이용횟수, 정성지표로는 시설완성도, 프로그램활성화, 지속유지가능 수준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음. 그리고 만족도는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로 정리됨

- 체험소득은 체험프로그램매출, 시설가동량, 가공상품판매액, 소득, 고용 등과 연관됨. 이는 정량지표로는 가공판매액, 고용자수, 소득액, 시설가동률, 법인참여 가구수 등으로 정리되고, 정성지표는 수익금 적립과 적립금 활용계획으로 정리됨

- 사업추진과정은 컨설팅 및 현장포럼 등과 연관되며, 추진과정에 대한 사항은 정량지표로 추진조직을 구성한 뒤의 구성원 교체빈도와 추진과정에 대한 만족도로 정리되고, 정성지표로 사업추진효율성, 조직활성화수준으로 정리됨.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데, 정량화가 곤란한 부분이 많아 정성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대표적으로 운영문제가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운영관리규약 및 기금확보, 주민갈등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도출과정을 통해 정량지표는 총 10개의 지표로 정리됨. 추진과정과 파급효과를 담은 공통지표 3개, 문화복지/경관생태 분야 2개 지표, 체험소득 분야 5개 지표임.



정량지표

구분	지표	지표설명
공통지표 (목표)	인구증가(귀농귀촌)	귀농귀촌 등에 따른 마을인구 증가
문화복지/ 경관생태	시설방문횟수	주민들의 시설활용 수준
	사업만족도	사업추진이후 주민들의 정주환경개선 체감도
체험소득	가공판매액	연간 가공판매액의 규모
	고용자수	가공시설 연간 고용자수
	소득액	가공시설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
	소득법인참여가구수	소득법인에 참여 가구수
	시설가동일	시설가동현황, 연간 시설가동일수
공통지표 (추진과정)	추진조직구성원교체율	추진위원회 등의 조직구성 교체에 따 른 사업추진 문제 측정
	과정만족도	계획 및 추진과정의 주민체감도 측정

- 정성평가지표는 문화복지/경관생태, 소득체험으로 나누어서 설정됨.
 - 공통지표는 5개 항목이 됨. 사업목표달성도, 사업추진효율성, 시설운영관리규약제정, 운영조직의 활성화 및 운영수준, 주민갈등 수준 등임.
 - 문화복지/경관생태에만 해당되는 지표는 3개로, 시설의 완성도, 프로그램운영수준, 지속유지가능수준 지표임.
 - 소득체험은 2가지표로, 수익금 적립과 적립금 활용계획 지표임.

정성평가 지표

구분	평가항목	달성수준				
공통 지표	기본계획에서 설정했던 목표에 따라 시행계획(세부설계)이 수립 되고 사업 시행이 이루어 졌는가?	①	②	③	④	⑤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가? (사업추진실적, 사업규모 변경, 사업 부지확보 등)	①	②	③	④	⑤
	공동시설 운영관리 규약을 제정하였는가?	① (가)	② (부)			
	운영조직 활성화와 운영은 어떤 수준인가? (회의 여부, 적극참여자 비율 등)	①	②	③	④	⑤
	주민갈등수준은?	①	②	③	④	⑤
문화 복지, 경관 생태	완성된 시설의 수준은 양호한가?(문틀 뒤틀림, 누수, 배수, 부실자재사용 등의 하자여부)	①	②	③	④	⑤
	복지 및 문화프로그램의 운영 및 활성화수준은?	①	②	③	④	⑤
	마을의 시설관리 및 운영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수준은?(마을기금여부, 시설관리계획, 관리주체 여부 등)	①	②	③	④	⑤
소득 체험	수익금은 적립하고 있는가?	① (가)	② (부)			
	적립금 활용계획은 있는가?	① (가)	② (부)			



제5장.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평가지표 적용 가능성 검토

1. 평가지표 적용 가능성 검토 개요

- 목적 : 창조적 마을만들기 성과평가 지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평가지표로서의 활용가능성 검증 및 지표의 보완
- 시기 : 2018년 11월 29일-11월 6일
- 방법 : 창조적 마을만들기 가운데 진입단계 사업 추진지역을 대상으로 정량지표에 해당되는 항목별 자료를 분석하고, 정성지표에 대한 판단을 위해 경과보고서 및 마을추진위원 인터뷰 등의 조사를 실시함
- 대상 : 총 17개 마을 대상 조사 (경관생태 8개 마을, 문화복지 4개 마을, 소득 체험 5개 마을)

2. 정량지표 검토

(1) 공통지표 3-1 : 마을인구증가(귀농귀촌인구)

■ 지표현황

시군/마을명		인구변화			가구변화		
		사업이전	사업이후	증감	사업이전	사업이후	증감
문화복지	나주시 덕례마을	517	515	-2	239	245	6
	무안군 신월마을	155	153	-2	72	71	-1
	강진군 비자동마을	120	110	-10	75	72	-3
	담양군 내다마을	180	180	0	58	58	0



■ 지표분석결과

- 마을주민의 고령화에 따라 인구감소가 반영된 결과로 마을인구의 증가로는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곤란함
- 마을인구증가는 사업의 성과로 마을의 매력도가 증가하여 인구유입효과를 촉진했다고 판단하기 곤란함.
- 마을인구나 가구보다는 귀농귀촌인구나 가구로 수정 필요

■ 지표선정

- ‘귀농귀촌인구 및 가구’로 수정 (인, 호)

(2) 공통지표 3-2 : 추진조직구성원 교체

■ 지표현황

	시군/마을명	추진조직인원	교체인원	교체율
문화복지	나주시 덕례마을	9	2	0.22
	무안군 신월마을	5	0	0.00
	강진군 비자동마을	7	3	0.43
	담양군 내다마을	10	0	0.00
경관생태	곡성군 압록마을	11	0	0.00
	장흥군 다릿거리	10	0	0.00
	무안군 죽산마을	7	0	0.00
	나주시 덕산마을	10	0	0.00
	장흥군 새터마을	7	5	0.71
	보성군 지동마을	7	0	0.00
	화순군 한천마을	9	4	0.44
	무안군 창산마을	7	1	0.14
소득체험	무안군 용산마을	11	2	0.18
	보성군 당촌마을	10	0	0.00
	강진군 남호마을	7	0	0.00
	담양군 학동마을	10	1	0.10
	담양군 홍암마을	7	0	0.00

- 추진위원은 5명에서 11명까지 다양한 규모이고, 평균 8.5명임.

- 추진위원회 구성인원의 변경이 17개 마을 가운데 7개 마을에서 확인됨.
- 교체율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71%까지 교체됨.

■ 지표분석결과

- 추진조직원의 교체는 추진조직운영의 안정성 및 사업추진력에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조사결과 실제로 조직구성원의 교체마을이 확인되어, 지표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1-2명 교체의 경우와는 달리 전체인원 절반 정도 교체시 원인파악, 조직 내외 갈등 등과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지표선정

- ‘추진조직구성원 교체율’ (%)

(3) 공통지표 3-3 : 추진과정만족도

■ 지표현황

시군/마을명		만족도
문화복지	나주시 덕례마을	4
	무안군 신월마을	5
	강진군 비자동마을	4
	담양군 내다마을	4
경관생태	곡성군 압록마을	5
	장흥군 다릿거리	4
	무안군 죽산마을	4
	나주시 덕산마을	4
	장흥군 새터마을	4
	보성군 지동마을	4
	화순군 한천마을	3
	무안군 창산마을	4
소득체험	무안군 용산마을	5
	보성군 당촌마을	5
	강진군 남호마을	5



	담양군 학동마을	5
	담양군 흥암마을	5

- 추진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5)이 7개마을, 만족(4) 9개마을, 보통이 1개마을로 조사됨. 만족도 평균은 4.4 수준임. 대체로 만족수준이 높음.

■ 지표분석결과

-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대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과정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지표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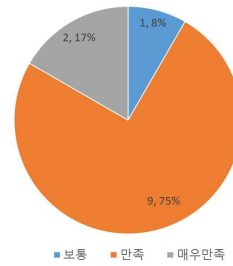
- ‘추진과정만족도’ (5점 척도)

(4) 문화복지/경관생태지표 2-1: 사업만족도

■ 지표현황

시군/마을명		만족도(5점척도)
문화복지	나주시 덕례마을	4
	무안군 신월마을	5
	강진군 비자동마을	4
	담양군 내다마을	4
경관생태	곡성군 압록마을	5
	장흥군 다릿거리	4
	무안군 죽산마을	4
	나주시 덕산마을	4
	장흥군 새터마을	4
	보성군 지동마을	4
	화순군 한천마을	3
	무안군 창산마을	4

구분	보통	만족	매우만족	합계
경관생태	1	6	1	8
문화복지	-	3	1	4
총합계	1	9	2	12



- 사업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5점) 2곳, 만족(4점) 9곳, 보통(3점) 1곳으로 조사됨. 평균 4.1 수준임. 대부분 사업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표분석결과

- 사업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대부분 높게 나타났으나 사업에 따라서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업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판단됨.
- 문화복지 및 경관생태 사업에 따른 시설설치에 주민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업전반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시설에 대한 만족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지표선정

- '시설만족도'로 조정 (5점척도)

(5) 소득체험지표 5-1: 가공판매액

■ 지표현황

-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이 안정화되지 않아 가공판매액(체험프로그램운영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도 않고, 정상적인 판매액을 파악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음
- 가공시설의 판매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주저하기도 함

■ 지표분석결과

- 진입단계를 이수한 직후에는 가공시설의 운영, 판매, 마케팅 등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발생 여부 판단이 곤란
- 소득체험시설의 평가를 위해서는 진입단계 완료 후 최소 2년 경과 후 가공시설



운영 및 판매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를 통해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곳만을 대상으로 종합개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지표선정

- ‘가공판매(체험운영)액’ (월/1년)

(6) 소득체험지표 5-2: 고용자수

■ 지표현황

	시군/마을명	고용자수(명)
소득체험	무안군 용산마을	4
	보성군 당촌마을	5
	강진군 남호마을	-
	담양군 학동마을	1
	담양군 홍암마을	1

- 가공시설 최대 고용인원수는 1명 고용이 2곳, 4명 고용 1곳, 5명 고용 1곳으로 조사됨.

■ 지표분석결과

- 사업을 통해 조성한 가공시설 및 체험시설에 만들어진 주민일자리를 측정하여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지표임.
- 상시고용, 계절에 따른 고용변화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고용자수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1년 단위로 총고용인원을 조사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지표선정

- '연고용자수' (명/1년)

(7) 소득체험지표 5-3: 주민소득액

■ 지표현황

시군/마을명		소득사업내용	연간 소득액
소득체험	무안군 용산마을	가공시설	-
	보성군 당촌마을	가공시설, 판매	-
	강진군 남호마을	체험	-
	담양군 학동마을	체험, 판매	500만원
	담양군 홍암마을	체험, 판매	200만원

- 체험시설의 총 소득(200만원, 500만원)은 확인할 수 있으나 가공시설운영에 따른 판매소득은 발생하지 않음

■ 지표분석결과

- 사업완료 직후에는 체험시설이나 가공시설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기 어려워 소득액을 파악하기가 곤란함
- 계절에 따라 소득액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특정시점의 고용인원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음. 연단위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소득체험사업의 평가는 사업완료 후 소득사업이 안정된 2년 이후 평가가 가능

■ 지표선정

- 주민소득액 (월/1년)



(8) 소득체험지표 5-4: 시설가동율

■ 지표현황

시군/마을명		시설내용	가동일(일)	연간 시설 가동율
소득체험	무안군 용산마을	가공시설	60	0.16
	보성군 당촌마을	가공시설, 판매	60	0.16
	강진군 남호마을	체험	60	0.16
	담양군 학동마을	체험, 판매	365	1.00
	담양군 홍암마을	체험, 판매	150	0.41

- 가공 및 체험시설 연간 가동율은 16%(60일) 3곳, 41%(150일) 1곳, 100% 1곳으로 조사됨
- 가공 및 체험시설은 농작물의 생산시기나 체험이 가능한 시기 등 계절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됨

■ 지표분석결과

- 시설가동율은 조성된 가공 및 체험시설의 활용도와 활성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어, 사업의 효과를 판단하기 적절하다고 판단됨.
- 시설가동일이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를 기준으로 가동일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임.
- 소득체험사업의 평가는 사업완료 후 2년 이후 평가 가능

■ 지표선정

- ‘시설가동율’ (%, 일/1년)

(9) 소득체험지표 5-5: 소득법인참여가구수

■ 지표현황

시군/마을명		마을총가구수 (사업완료후)	법인 참여가구수	소득법인참여 가구율
소득체험	무안군 용산마을	283	68	0.24
	보성군 당촌마을	123	50	0.41
	강진군 남호마을	53	42	0.79
	담양군 학동마을	65	6	0.09
	담양군 홍암마을	42	15	0.36

- 소득법인에 참여하는 마을 가구수는 적게는 6가구에서 많게는 68가구까지 다양함. 대체로 마을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마을 가구수 대비 참여가구 비율은 적게는 9%에서 많게는 79%에 이름

■ 지표분석결과

- 마을 규모, 사업의 활성화 수준 등에 따라 법인 참여가구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마을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소득체험사업에 소득법인에 참여하는 가구수는 마을 전체의 소득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도 있기 때문에 지표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지표선정

- ‘소득법인참여가구율’(%, 호/마을총가구)



3. 정성지표 검토

(1) 공통지표 5-1: 목표 달성수준

■ 지표현황

시군/마을명		달성수준
문화복지	나주시 덕례마을	4
	무안군 신월마을	5
	강진군 비자동마을	4
	담양군 내다마을	5
경관생태	곡성군 압록마을	5
	장흥군 다릿거리	4
	무안군 죽산마을	4
	나주시 덕산마을	5
	장흥군 새터마을	3
	보성군 지동마을	4
	화순군 한천마을	3
	무안군 창산마을	4
소득체험	무안군 용산마을	4
	보성군 당촌마을	4
	강진군 남호마을	3
	담양군 학동마을	4
	담양군 흥암마을	4

- 기본계획서상에 제시된 목표의 달성수준을 5점 척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23%(4개 마을)가 5점 수준 달성, 59%(10개 마을)가 4점 수준 달성, 18%(3개 마을)가 3점 수준 달성으로 평가됨.

■ 지표분석결과

- 당초 의도했던 목표를 시행계획과 사업에 담아서 실현하는 정도를 판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지표임.

- 달성도 평가시 계획과 시행, 준공을 상호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시행 및 준공결과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지표선정

- '목표의 달성수준'(5점 척도)

(2) 공통지표 5-2: 사업추진효율성

■ 지표현황

시군/마을명		달성수준
문화복지	나주시 덕례마을	4
	무안군 신월마을	5
	강진군 비자동마을	4
	담양군 내다마을	5
경관생태	곡성군 압록마을	4
	장흥군 다릿거리	4
	무안군 죽산마을	4
	나주시 덕산마을	4
	장흥군 새터마을	3
	보성군 지동마을	4
	화순군 한천마을	3
	무안군 창산마을	3
소득체험	무안군 용산마을	3
	보성군 당촌마을	4
	강진군 남호마을	3
	담양군 학동마을	4
	담양군 흥암마을	4

- 사업추진의 효율성은 사업추진실적, 사업규모변경, 부지확보 등을 통해 확인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가를 평가함. 그 결과, 12%(2개 마을)가 5점 수준, 59%(10개 마을)가 4점 수준, 29%(5개 마을)가 3점 수준으로 평가됨



■ 지표분석결과

- 사업 추진과정에서 추진실적의 달성을 저해하는 소모적인 일이 있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의미가 있음
- 사업 추진성과, 기본계획 또는 시행 계획의 변경, 부지확보를 위한 노력 등에 따라 평가가 가능함.

■ 지표선정

- ‘사업추진의 효율성’(5점 척도)

(3) 공통지표 5-3: 시설운영관리규약 제정 여부

■ 지표현황

시군/마을명		달성수준
문화복지	나주시 덕례마을	제정
	무안군 신월마을	미제정
	강진군 비자동마을	미제정
	담양군 내다마을	제정
경관생태	곡성군 압록마을	제정
	장흥군 다릿거리	미제정
	무안군 죽산마을	미제정
	나주시 덕산마을	미제정
	장흥군 새터마을	미제정
	보성군 지동마을	미제정
	화순군 한천마을	미제정
	무안군 창산마을	미제정
소득체험	무안군 용산마을	제정
	보성군 당촌마을	제정
	강진군 남호마을	제정
	담양군 학동마을	제정
	담양군 흥암마을	제정

- 공동시설관리규약을 제정한 곳은 8곳, 제정하지 않는 곳은 9곳임. 소득체험은 모든 마을이 규약을 제정하고 있고, 경관생태는 대부분이 규약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문화복지는 제정과 미제정마을이 각각 절반수준임.

■ 지표분석결과

- 공동시설운영관리규약은 지속적인 시설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규약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보임.

■ 지표선정

- ‘시설운영관리규약의 제정 및 규약의 실행력수준’(가부, 5점척도)

(4) 공통지표 5-4: 운영조직의 활성화 및 운영수준

■ 지표현황

시군/마을명		달성수준
문화복지	나주시 덕례마을	3
	무안군 신월마을	5
	강진군 비자동마을	3
	담양군 내다마을	4
경관생태	곡성군 압록마을	4
	장흥군 다릿거리	3
	무안군 죽산마을	4
	나주시 덕산마을	4
	장흥군 새터마을	3
	보성군 지동마을	4
	화순군 한천마을	2
	무안군 창산마을	4
소득체험	무안군 용산마을	2
	보성군 당촌마을	3
	강진군 남호마을	4
	담양군 학동마을	4
	담양군 흥암마을	4



- 운영조직의 회의 여부, 운영조직 적극 참여자 수준 등을 5점척도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운영조직의 활성화 및 운영수준은 5점이 1개 마을 6%, 4점이 9개 마을 53%, 3점이 5개 마을 29%, 2점이 2개 마을 12%로 나타남.
- 소득체험과 경관생태사업 추진 마을에서 운영수준이 낮은 마을이 각각 1곳씩 포함됨

■ 지표분석결과

- 운영조직은 마을사업의 운영주체이기 때문에 운영조직의 활성화와 운영수준은 마을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요소임.
- 조직의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운영수준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마을을 확인할 수 있음. 운영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는 발전단계 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지표선정

- ‘운영조직의 활성화와 운영수준’

(5) 공통지표 5-5: 주민갈등수준

■ 지표현황

시군/마을명		갈등수준
문화복지	나주시 덕례마을	1
	무안군 신월마을	1
	강진군 비자동마을	1
	담양군 내다마을	1
경관생태	곡성군 압록마을	2
	장흥군 다릿거리	2
	무안군 죽산마을	1
	나주시 덕산마을	2
	장흥군 새터마을	2

	보성군 지동마을	1
	화순군 한천마을	3
	무안군 창산마을	1
소득체험	무안군 용산마을	3
	보성군 당촌마을	2
	강진군 남호마을	2
	담양군 학동마을	2
	담양군 홍암마을	1

- 주민간의 갈등수준을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주민간의 갈등수준이 3점 수준인 곳은 3곳, 2점 수준인 곳은 7곳, 1점 수준인 곳은 8곳으로 평가됨. 소득체험사업에서 갈등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지표분석결과

-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주민들의 갈등 상황을 파악하여, 상위단계 진입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함
- 다만, 갈등수준에 대해서는 원인, 정도 등에 대한 분석도 병행할 필 필요가 있음

■ 지표선정

- 주민갈등수준 (5점척도)

(6) 문화복지/경관생태 3-1: 시설의 완성도

■ 지표현황

시군/마을명		완성수준
문화복지	나주시 덕례마을	4
	무안군 신월마을	4



	강진군 비자동마을	4
	담양군 내다마을	4
경관생태	곡성군 압록마을	4
	장흥군 다릿거리	4
	무안군 죽산마을	4
	나주시 덕산마을	4
	장흥군 새터마을	4
	보성군 지동마을	4
	화순군 한천마을	3
	무안군 창산마을	3

- 시설의 완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문틀, 누수, 배수, 자재품질 등에 대한 완성도는 대부분은 4점 수준이며, 2곳이 3점 수준임.

■ 지표분석결과

- 실제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완성도가 낮은 시설을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완료 후 완공된 시설의 수준이 떨어질 경우 사업성과와 과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우려를 고려하고, 사업추진시의 관리감독 측면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음
- 하자가 있을 경우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보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평가시 고려 필요

■ 지표선정

- 시설의 완성도(5점척도)

(7) 문화복지/경관생태 3-2: (복지)프로그램운영수준

■ 지표현황

시군/마을명		운영수준
문화복지	나주시 덕례마을	4
	무안군 신월마을	5
	강진군 비자동마을	2
	담양군 내다마을	3
경관생태	곡성군 압록마을	4
	장흥군 다릿거리	3
	무안군 죽산마을	3
	나주시 덕산마을	4
	장흥군 새터마을	3
	보성군 지동마을	3
	화순군 한천마을	3
	무안군 창산마을	3

- 프로그램 운영 수준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대부분 3점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신월마을은 5점 수준을 보임. 프로그램운영에 문제가 있는 곳도 1곳이 확인됨

■ 지표분석결과

- 시설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문화·복지 운영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에서 시설의 지속적 운영역량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지표임
- 다만, 경관생태사업 평가시 문화 및 복지프로그램과의 연계 활동 수준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지표선정

- '복지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연계활동) 수준'(5점척도)



(8) 문화복지/경관생태 3-3: 지속유지가능수준

■ 지표현황

시군/마을명		지속유지가능수준
문화복지	나주시 덕례마을	4
	무안군 신월마을	5
	강진군 비자동마을	3
	담양군 내다마을	4
경관생태	곡성군 압록마을	4
	장흥군 다릿거리	3
	무안군 죽산마을	3
	나주시 덕산마을	3
	장흥군 새터마을	3
	보성군 지동마을	4
	화순군 한천마을	3
	무안군 창산마을	4

- 시설의 지속유지가능수준을 마을기금 여부, 시설관리계획 및 관리주체 여부 등을 통해 평가한 결과 3점 수준이 6곳, 4점 수준 5곳, 5점 수준 1곳으로 평가됨
- 시설의 지속유지수준이 우수한 지역이 많지 않음

■ 지표분석결과

- 마을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운영을 위한 기금조성이나 관리계획, 관리주체 등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지표

■ 지표선정

- ‘지속유지 가능수준’(5점척도)

(9) 소득체험 2-1: 수익금적립

■ 지표현황

시군/마을명		적립여부
소득체험	무안군 용산마을	적립
	보성군 당촌마을	적립
	강진군 남호마을	적립
	담양군 학동마을	적립
	담양군 홍암마을	적립

- 대부분 사업초기에 해당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실제 적립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계획이 있는 정도수준에서만 파악이 가능함.
- 소득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마을에서 소득사업을 통해 형성된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지표분석결과

- 수익금 적립(계획)여부만으로 소득사업 내역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좀더 구체적으로 수익금 적립액(내역)과 적립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방향 검토

■ 지표선정

- 수익금 적립계획 및 실적(여부 및 적립액)

(10) 소득체험 2-2: 적립금활용계획

■ 지표현황

시군/마을명		계획여부
소득체험	무안군 용산마을	있음
	보성군 당촌마을	있음



	강진군 남호마을	있음
	담양군 학동마을	있음
	담양군 홍암마을	있음

- 적립금 활용계획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마을에서 적립금 활용계획을 갖고 있음

■ 지표분석결과

- 적립금 활용계획 수립 여부만으로는 적립금 활용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했다고 평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수익금 적립수준과 함께, 수익금 활용계획 및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표선정

- 수익금 적립계획 및 실적으로 통합(여부 및 적립액)

4. 검토결과 종합

(1) 정량지표

- 정량지표로 도출된 9개 지표를 대상으로 마을실태를 확인하여 검토한 결과, 일부 지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마을인구증가지표는 농촌마을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해서 인구증가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간주하기 곤란함. 지표취지가 사업추진에 따른 마을매력도 향상으로 이주인구(귀농귀촌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만들어진 지표이기 때문에, 지표를 귀농귀촌인구로 조정해도 당초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정함.
- 문화복지/경관생태부문 지표 가운데 사업만족도는 사업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취지로 선정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아우르는 전반에 대한 만족도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따라 문화복지 경관생태의 사업결과물이 시설설치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시설만족도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함.

정량지표 검토 결과

검토전		검토이후	
구분	지표	구분	지표
공통지표	마을인구증가(귀농귀촌)	공통지표	귀농귀촌인구증가
문화복지/ 경관생태	주민1인당 시설방문횟수	문화복지/ 경관생태	주민1인당 시설방문횟수
	사업만족도	경관생태	시설만족도
체험소득	가공판매액	체험소득 (완료후 2년뒤 평가)	가공판매액
	고용자수		고용자수
	소득액		소득액



	소득법인참여가구수
	시설가동율
추진과정	추진조직구성원교체율
	과정만족도

	소득법인참여가구수
	시설가동율
추진과정	추진조직구성원교체율
	과정만족도

(2) 정성지표

- 정성평가를 위한 10개의 지표 가운데 3개 지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최종적으로 9개의 지표항목으로 구성함.
- 지표선정시 공동시설 운영 관리규약 제정여부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제정여부만으로는 시설 운영관리 노력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운영관리규약의 제정과 더불어 실제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당초 수익금 적립과 활용계획을 분리해서 수익금 적립여부만을 확인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실제 적립과 활용계획은 분리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고,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적립금의 운영이나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제대로 적립금 평가에 대한 평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수익금 적립여부와 계획, 그리고 적립실적을 동시에 확인하는 것으로 검토 수정함

정성지표 검토 결과

검토전		검토후	
구분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공통 지표	기본계획에서 설정했던 목표에 따라 시행계획(세부설계)이 수립 되고 사업시행이 이루어 졌는가?	⇒	기본계획에서 설정했던 목표에 따라 시행계획(세부설계)이 수립 되고 사업시행이 이루어 졌는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가? (사업추진실적, 사업규모 변경, 사업부지확보 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가? (사업추진실적, 사업규모 변경, 사업부지확보 등)
	공동시설 운영관리 규약을 제정하였는가?		공동시설 운영관리 규약을 제정하였으며,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가?
	운영조직 활성화와 운영은 어떤 수준인가?(회의 여부, 적극 참여자 비율 등)		운영조직 활성화와 운영은 어떤 수준인가?(회의 여부, 적극 참여자 비율 등)
	주민갈등수준은?		주민갈등수준은?
문화 복지, 경관 생태	완성된 시설의 수준은 양호한가?(문틀 뒤틀림, 누수, 배수, 부실자재사용 등의 하자여부)	⇒	완성된 시설의 수준은 양호한가?(문틀 뒤틀림, 누수, 배수, 부실자재사용 등의 하자여부)
	복지 및 문화프로그램의 운영 및 활성화수준은?		복지 및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활성화수준은?
	마을의 시설관리 및 운영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수준은?(마을기금여부, 시설관리계획, 관리주체 여부 등)		마을의 시설관리 및 운영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수준은?(마을기금여부, 시설관리계획, 관리주체 여부 등)
소득 체험	수익금은 적립하고 있는가?	⇒	수익금 적립 및 활용계획은 있으며, 적립실적을 위한 노력은 어느정도 수준인가?
	적립금 활용계획은 있는가?		적립금 활용계획은 있는가?



제6장.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의 상위 단계진입을 위한 성과 평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것임. 연구성과는 부진요인 해소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동기 부여를 통해 사업추진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는 사업평가를 위한 이론적 고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현황 및 실태분석, 대상지 현장조사 및 인터뷰조사, 평가지표개발 및 검토의 과정으로 진행됨
- 2018년 11월 기준 전라남도의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22개 시군 가운데 16시군, 198지구이며, 사업비는 832.9억원임. 진입단계가 95.5%이며, 발전단계가 4.5%임.
- 전라남도의 창조적 마을만들기 현황 및 사례분석 결과,
 - 사업추진 이전단계에서는 주민의견의 적극 수렴 및 주민의 관심 증가와 주민역량 제고 효과 등이 확인 되었으나 일부 사업지구간의 협력네트워크 및 형식적 컨설팅 진행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 사업착수 단계에서는 현장포럼 등으로 기본계획수립기간 단축과 주민참여 통로확대 등의 성과는 있었으나 주민참여도가 떨어지는 문제 및 주민들 제안사업의 변경, 시설관리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사업종료 단계에서는 마을과 연계된 타부처 사업 발굴, 상위단계 진입을 위한 주민의지 형성 등의 긍정적 효과는 있었으나 주민주도 운영관리의 한계, 소득사업 부족, 마을공동사업 의미 퇴색, 주민참여 저조, 소득창출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전라남도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진입단계사업 평사기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 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 자립단계로 이어지는 장기계획에 적합하도록 단계별 사업의 역할을 정립하도록 해당단계의 역할에 맞게 체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주민간, 주민과 사업자간, 주민과 행정간 갈등관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앙부처 마을연관사업간의 체계적인 연계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사업종료 후에 지속적으로 사업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사업 및 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후속사업 추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상시 점검 체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창조적 마을 만들기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정량평가지표와 정성평가지표 각각 9개 지표가 선정됨.
- 정량지표는 공통지표로 귀농귀촌인구증가, 추진조직구성원 교체율, 과정만족도이며, 문화복지/경관생태는 시설방문횟수와 시설만족도이며, 체험소득지표는 가공판매액, 고용자수, 소득액, 소득법인참여가구수, 시설가동율임.
 - 정성지표는 사업목표달성도, 사업추진의 효율성, 공동시설 운영관리규제제정 및 적용, 운영조직활성화, 주민갈등수준을 공통지표로함. 그리고 문화복지/경관생태는 시설완성도, 프로그램활성화, 운영관리 지속역량수준으로 이루어짐. 소득체험은 수익금 적립 및 계획과 실적으로 구성됨.
- 연구를 통해서 정리된 지표는 창조적 마을만들기 진입단계를 완료한 지구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종합개발로 진입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이러한 평가지표 적용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함
- 정량지표는 사업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정성평가는 전문가들이 평가해야하며, 가능하면 많은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여 평가의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평가시점은 문화복지/경관생태는 사업이 완료된 직후 평가가 가능하지만 소득체험사업은 가공시설의 운영과 제품의 판매 등을 고려할 때 시설이 조성되고 나서 2년 이후에 실적과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평가하는 이유는 추진한 사업에 대한 보안을 통해 사업이 해당단계에서 갖춰야하는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하기 위함임.



따라서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단계 진입이 곤란한 사업과 상위단계 진입은 가능하지만 보완이 필요한 사업, 상위단계진입이 가능한 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상위단계 진입이 곤란한 사업은 컨설팅이나 추가 지원 사업을 통해 보완하거나 사업을 정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지표를 세밀하게 다듬는 연구가 필요함. 먼저, 좀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지표값을 분석하여 검증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리고, 현재 지표에 가중치가 고려되어 있지 못하고 등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음. 지표간의 가중치를 주어 정확성과 실효성이 확보된 평가지표로 다듬어 갈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강석보,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과분석 등 발전방향 수립, 제주시.
- 권용우외 4인, 2008, 지역개발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지표를 이용한 파급효과 분석, 국토해양부
- 김경량, 최윤상, 홍성규, 200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간평가체계 개발, 농촌계획, 12(2), pp.65-73.
- 김영주외 6인, 2014,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김정연, 김은순, 2013, 기초생활권 중심지 정비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일반농산어촌지역 읍(동)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4), pp.133-152.
- 박수진, 나주몽, 송인성. 2013.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운영관리 역량과 민협력에 관한 연구 - 전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 45(1), pp.67-95.
- 송미령 외, 2007,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 재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외 5인, 201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심재헌, 송미령, 성주인, 정도채, 정문수, 민경찬, 2017, 미래 농촌 정주공간 변화에 따른 지역개발정책 추진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원광희, 2016,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촌개발 전략, 「농어촌과 환경」, 132, pp.81-93.
- 이민수, 2014, EU의 농촌개발사업 평가체계와 시사점, 농촌지도와개발, 21(3), pp.271-305.
- 이민수외 5인, 2010, 농촌개발평가체계연구 1(EU 농촌개발평가체계를 중심으로), 전북발전연구원
- 이성우, 윤성도, 2008, 농업·농촌 정책 평가를 위한 정량적 분석모형연구, 농촌계획, 14(4), pp.97-108.



- 이주용, 2010, 자율적 농어촌지역개발사업 평가지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논문
- 최영완, 2011, 지역유형을 고려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민평가 및 개선방안, 농업생명과학연구, 45(6), pp.227-235.
- 한경수, 2007,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간 점검을 위한 평가지표 적용사례, 농촌계획, 13(2), pp.121-132.
- 한경수외3인, 200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연구,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공사

[부록]

정량지표 평가지

구분	지표	지표값
공통지표 (목표)	귀농귀촌인구	()명
문화복지/ 경관생태	시설방문횟수	()회/1주일
	시설만족도	5점척도 평균
체험소득	가공판매액	()원/1년
	연고용자수	()명/1년
	주민소득액	()원/1년
	소득법인참여가구율	()호/마을총가구
	시설가동일	()일/1년
공통지표 (추진과정)	추진조직구성원 교체율	()교체인원(명)/전체구성원
	과정만족도	5점척도 평균



정성평가지(문화복지, 경관생태)

평가항목	달성수준					특이사항
	①	②	③	④	⑤	
기본계획에서 설정했던 목표에 따라 시행계획(세부설계)이 수립 되고 사업시행이 이루어 졌는가?	①	②	③	④	⑤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가? (사업추진실적, 사업규모 변경, 사업부지확보 등)	①	②	③	④	⑤	
완성된 시설의 수준은 양호한가?(문틀 뒤틀림, 누수, 배수, 부실자재사용 등의 하자여부)	①	②	③	④	⑤	
공동시설 운영관리 규약을 제정하였는가?	① (가)	② (부)				
운영조직 활성화와 운영은 어떤 수준인가?(회의 여부, 적극 참여자 비율 등)	①	②	③	④	⑤	
복지 및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활성화수준은?	①	②	③	④	⑤	
마을의 시설관리 및 운영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수준은?(마을기금여부, 시설관리계획, 관리주체 여부 등)	①	②	③	④	⑤	
주민갈등수준은?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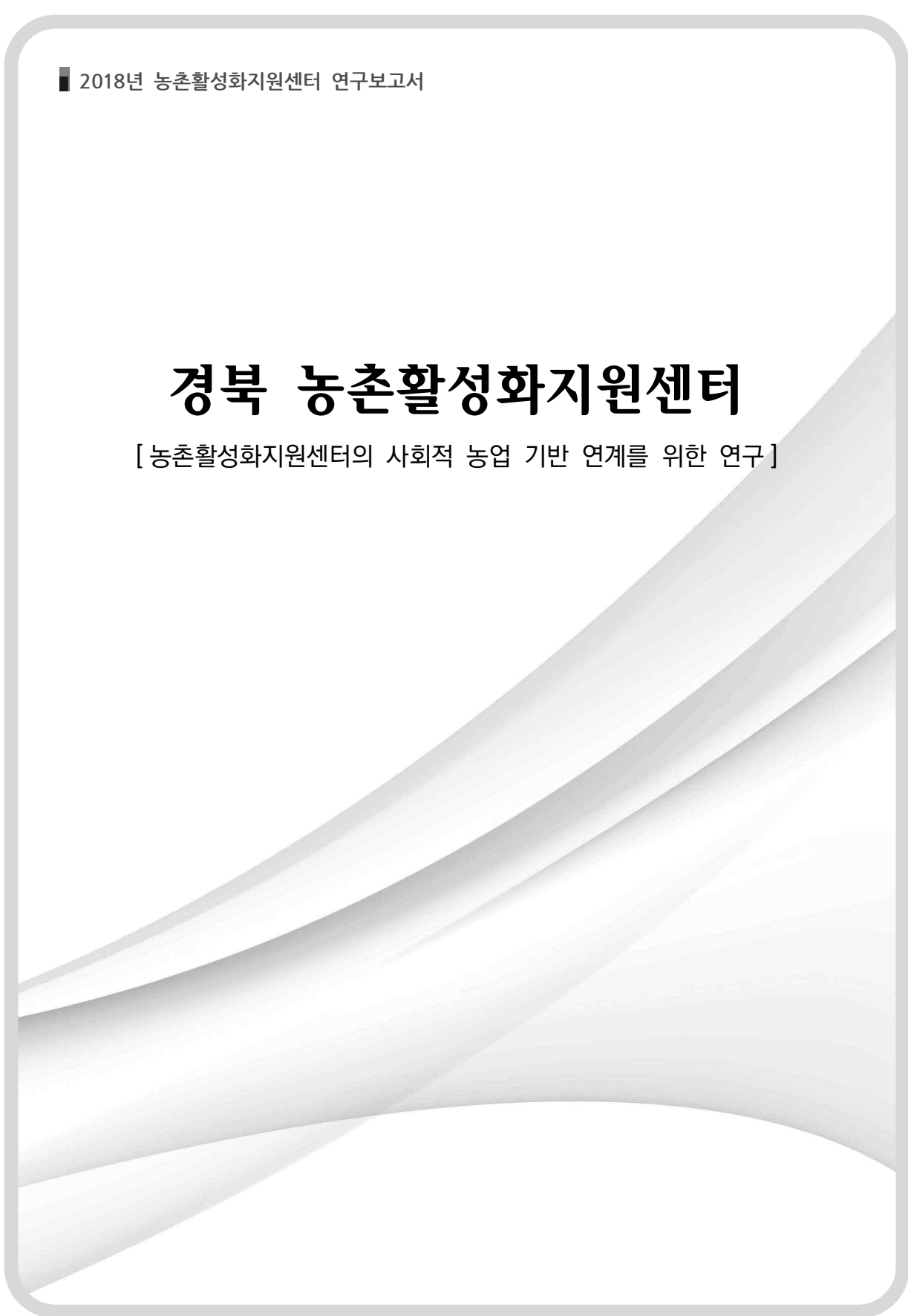
정성평가지(소득체험)

평가항목	달성수준					특이사항
	①	②	③	④	⑤	
기본계획에서 설정했던 목표에 따라 시행계획(세부설계)이 수립되고 사업시행이 이루어 졌는가?	①	②	③	④	⑤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가? (사업추진실적, 사업규모 변경, 사업부지확보 등)	①	②	③	④	⑤	
공동시설 운영관리 규약을 제정하였는가?	① (가)	② (부)				
운영조직 활성화와 운영은 어떤 수준인가?(회의 여부, 적극참여자 비율 등)	①	②	③	④	⑤	
수익금은 적립하고 있는가?	① (가)	② (부)				
적립금 활용계획은 있는가?	① (가)	② (부)				
주민갈등 수준은?	①	②	③	④	⑤	

■ 2018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보고서

경북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사회적 농업 기반 연계를 위한 연구]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사회적농업 기반 연계를 위한 연구

2018. 12.



경 북 농 촌 활 성 화 지 원 센 터

목 차

1. 서론	587
1.1. 연구의 배경	587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88
2. 선행연구	591
3. 연구방법 및 절차	592
4.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	594
4.1. 사회적 경제의 배경과 정의	594
4.2. 사회적 경제와 마을 만들기	596
4.3. 농촌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의 영역	597
4.4. 사회적 농업의 정의	601
4.5. 사회적 농업의 범위	605
4.6. 사회적 농업의 유형	606
5. 사회적 농업 정책	609
5.1. 국내정책	609
5.2. 국외정책	612
6. 사회적 농업 사례	615
6.1. 국내사례	615
6.2. 국외사례	616

7. 농촌활성화지원센터	619
7.1.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개요	619
7.2.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역할	620
7.3.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사회적 농업	622
8.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사회적 농업 연계를 위한 워크숍	624
8.1. 사회적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	625
8.2. 사회적 농업 연계를 위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역할	626
9. 사회적 농업과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연계 발전 방안	628
9.1. 사회적 농업 인력(스텝) 양성	628
9.2. 사회적 농업관련 정책시행 지원	629
9.3. 농촌현장포럼 활용	631
9.4. 권역센터 등 기존 하드웨어 활용	632
9.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접목	632
9.6.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구축	633
10. 결론	634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1인당 GDP가 3만 2,046달러(출처 :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달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다. 하지만 이에 반해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25만 명에 달하며 UN이 정의하는 고령사회¹³²⁾에 공식적으로 들어섰다.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17년 만이다. 등록 장애인 또한 전 국민의 4.9%(2,511,051명, 2016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2000년대에 비해 매우 증가하였다.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신뢰수준과 개인적 고립감을 증대시키는 등 사회적 불안감으로 표출되었다. 최근에는 반인륜적 흉악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그들을 끔찍한 범죄자로 만든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주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체적 자치관리를 내세운 ‘사회적 공동체’가 대두되었다. 공동체 중심의 논의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는 마을 만들기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2017년 현 정부 수립 이후로 이러한 논의는 더욱 확장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에 사회적 농업이 키워드로 들어가고, 국정기획자문회의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 81번째 국정과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의 세부 내용으로 확정되면서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2018년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농촌복지여성과)을 추진하고 있다.

132) UN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정의한다.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뜻하는 '사회적 경제'는 현 정부의 핵심과제이다. 농업 부문에서도 이러한 정책기조에 맞추어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한편 상향식 농촌마을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으로 2013년 설립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광역별 전국 9개소에서 농촌마을의 리더 및 담당공무원(현장활동가)의 교육을 시작으로, 현장포럼 지원, 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마을개발사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마을리더 및 현장활동가 교육을 통하여 농촌마을 활성화와 발전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고, 마을·권역 및 중심지 단위별 현장포럼을 통하여 상향식 농촌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의 초석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금년도 설립 6년째인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농촌개발사업 분야에서 자체의 역할이 정립되었으며 체계와 노하우를 갖춘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사업 영역 확장 및 존립기반 강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 영역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사회적 농업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실정이므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영역확장을 통해 이를 지원 할 필요성이 있다.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사업단위별 주체 교육과 현장포럼을 통하여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업완료단위 지구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농촌마을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총괄지원 하는 광역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촌마을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력풀(대학교, 퍼실리테이터, 컨설턴트, 선진마을리더 등)

을 확보하고 업무수행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광역중간지원 조직의 운영이 6년차에 접어들면서 부처별 유사사업 분야와 조직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비롯한 중간지원조직의 업무영역을 수정·보완하고 역할정립을 확고히 해야 한다. 또한 영역 확장을 통해 향후 조직의 존립근거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농업 분야는 이러한 상황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분야이다.

사회적 농업이 급격히 대두됨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 역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고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의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조직을 확대 또는 영역 조정을 통해 활용한다면 정책지원을 즉시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관련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사회적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되는 경우 일시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과도기적 기간 동안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국가주도의 개발정책에 의한 생활환경의 악화, 도시화에 따른 공동체의식 약화, 무분별한 하드웨어 사업에 대한 성찰을 계기로,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일상의 문제를 주민들이 함께 해결함으로써 공동체에 기반 한 살기 좋은 마을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운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며 지역의 사회적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농업'과 공통된 기초를 보이고 있다. 즉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의 개념적 배경에는 사회적 농업과 유사한 부분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사회적 농업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고, 주민주도 마을만들기를 통해 사회적 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적 농업 인력양성을 위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역할, 각 사회단체별 연계사업 방안을 알아보고, 정부·지자체 등에서 지원해야 할 역할과 중간지원조직 자체의 역량강화,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 한다. 또한 상향식 농촌개발사업과 사회적 농업의 접목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활성화 할 방안 및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적 농업과 농촌개발 중간지원조직 연계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합의 도출, 정책 대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2.1. 사회적 농업 및 중간지원조직 관련 연구 현황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 기업 분야에 관한 연구는 최근 10년 사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기업, 6차 산업, 상향식 농촌개발사업의 트렌드로 인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사회적 농업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외국의 사례와 정책을 소개한 기초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1> 선행연구 현황

저 자	소 속	제 목
정천섭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2011] [국내석사]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발전에 관한 연구
이기태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활동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중간지원조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장원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석사]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역할에 관한 연구
배주현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12] [국내석사]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지역 거버넌스 기능에 관한 연구
이기태 하현상	(韓國政策學會報, Vol. 25 No. 1, [2016])[KCI 등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엄형식 마상진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Vol. - No. -, [2011]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현황과 시사점
김태영	정부학연구, Vol. 22 No. 2, [2016][KCI 등재]	사회적경제 영역의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분석: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적용
박세훈	도시 행정 학보, Vol. 28 No. 3, [2015][KCI 등재]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특성 연구
이수창	한국균형발전연구, Vol. 4 No. 2, [2013]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모색
이기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Vol. 2015 No. -, [2015]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황수철 외	(사)농정연구센터	사회적 농업의 의의와 정책방향
이차희 탁영란 김민서 손용훈	농촌계획, Vol. 20 No. 3, [2014][KCI 등재]	농촌체험관광 중간지원조직 역할에 관한 근거이론적 분석-양평군, 이천시 농촌나드리 비교를 중심으로
이기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Vol. 2015 No. -, [2015]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김재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연구
엄형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2/2차 연도)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현황과 시사점
박상우	경북대학교	농촌형 사회적 경제와 마을만들기 전략
김정섭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농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연구방법 및 절차

3.1.1. 문헌조사

연구 진행을 위해 먼저 사회적 농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사회적 농업 관련 연구자료 분석을 통해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정의를 분석하고 그 형태와 사회적 농업 주체별 특징을 파악하였다. 또한 국내·외 사회적 농업 정책을 파악하여 사례를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의 연계를 위해 센터 현황을 파악하고 세부 사업 내역을 검토하였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세부사업들 중 사회적 농업 부문과 접목할 수 있는 분야를 검토 및 점검하였다.

3.1.2.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국내 사회적 농업 분야 전문가 인터뷰를 하고 자문을 실시하였다. 각 전문가 별로 전문가 자문 보고서를 수령하여 관련 내용을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또한 도내 유관기관 및 농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참여 업체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또한 '치유농업 육성, 산업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3.1.3. 워크숍 개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사회적 농업 연계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회적 농업 관련 기관별 현장의 사정을 들어보고 주제 토론 및 사례 발표를 실시하였다.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센터와 사회적 농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였다.

3.1.4. 결론도출

전 과정에 걸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사회적농업의 연계방안 모색을 통해 실현가능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회적 농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고민해 보았다.

일련의 결과들이 향후 정책수립에 기여하며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언하고, 향후 센터 사업계획을 구상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그림 1> 연구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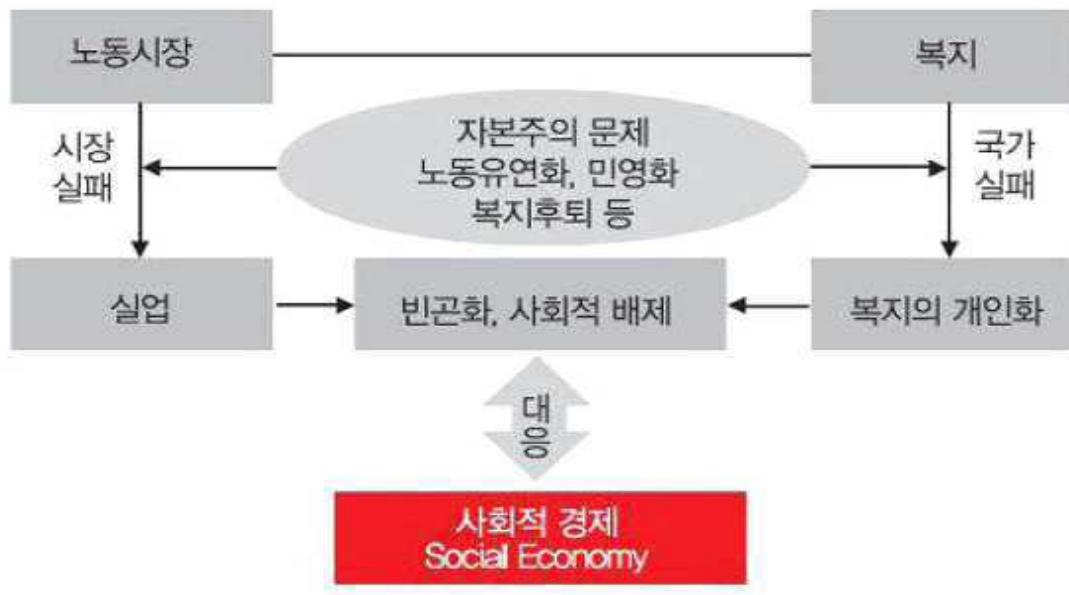


4.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

4.1. 사회적 경제의 정의와 배경

사회적 경제란 용어가 널리 쓰이고는 있지만 정확히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국가와 시장이 공급하지 않고 또 그런 의지가 없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영리조직의 역량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전략’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주성수 2010).

사회적 경제는 19세기 산업자본주의의 문제점과 기존 경제학에 대한 비판이라는 학문영역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사회개혁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적 전통으로까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경제를 보는 관점은 2가지로 대별된다. 먼저 소극적 관점의 시각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보완으로써 보는 시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줄어든 국가의 역할을 ‘사회적 경제’가 국가를 대신해서 취약계층의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적극적인 관점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넘는 하나의 대안경제체제로 보는 시각으로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본주의로부터의 해방 가능성을 찾으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금융자본주의의 종말을 예고하였고, 새로운 대안으로 복지자본주의(생산적복지), 따뜻한 자본주의(4.0시대) 등을 거론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사회발전을 유지시켜 나가는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렇듯 빈곤과 분배를 둘러싼 경제, 문화, 사회관계 속에서 ‘사회적 배제’로 확대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대두 되었다.



자료 : 장원봉(2006)

<그림 2>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개념정의로 드푸르니(Defourny, 1990)의 정의가 있다. 드푸르니는 “사회적 경제란 이윤창출보다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을 중시하는 4가지 원칙을 따르는 이해 당사자 경제(stakeholder economy)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표 2>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의 비교

시장경제	사회적 경제
- 주주이익 극대화, 1주 1표	- 커뮤니티의 필요중심경제, 1인 1표
- 지속가능성 확보 : 독점지향 · 화폐수익 중심의 이익 극대화 추구 · 지역 고유가치 파괴, 규모의 경제	- 지속가능성 확보 : 호혜와 연대 · 고용, 복지 등, 사회적 가치 추구 · 지역순환경제, 적정성의 경제 추구
- 지분/이익관리 : 거래가능/출자배당	- 지분/이익관리: 거래불가/내부유보

자료 : 박상우(2016)



4.2. 사회적 경제와 마을 만들기

지역에 기반 한 사회적 경제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 형식을 통해 해결하고, 여기에 얻은 이익은 다시 지역에 환원하여 마을 만들기의 주요 목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회복을 달성하는 수단이 된다. 사회적 경제는 마을 만들기에 다음과 같은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첫째, 지역 고용창출 및 이윤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다. 둘째, 복지·환경개선·문화 등 행정서비스가 미진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셋째, 지역자산 활용, 주민참여 등을 통해 공동체 활동 자극, 지역사회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를 통하여 지역정책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지역중심형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순환경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한층 높이게 된다.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경제조직으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이 있다.

4.3. 농촌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의 영역

농촌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의 활동영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공적경제, 가정경제, 사적경제를 교차하면서 다양한 유형을 가질 수 있으며 그 토대는 마을이나 지역이다. 마을단위에서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생활협동조합, 로컬머니, 로컬푸드 등으로 그 범위를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로컬푸드와 사회적 경제.

로컬푸드는 지역식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순환농업의 생산적 기반을 다지는 운동이다. 지역에서 농민에 의해 생산된 먹을거리를 가능한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먹을거리를 매개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로컬푸드이다. 로컬푸드는 지역에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완결구조를 갖추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지역의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로컬푸드는 지역사회 내에서 농민들에 의해 생산된 먹을거리를 가능한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것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로컬푸드 활동은 생산자(농민)과 소비자 간에 먹을거리를 매개로 하는 관계를 다시 맺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은 공익을 위해 모험 사업가적인 전략으로 조직화되어 수익의 극대화가 아닌 경제적·사회적 목표의 실현에 조직을 목적을 두고, 사회적 소외와 실업 문제 등에 대하여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역량 있는 기업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특정 사회적 이슈의 옹호나 공동생산에 중심을 둔 전통적인 비영리 단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사회조직인 협동조직 형태로 가는 가교역할을 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한다.

셋째, 커뮤니티 비즈니스(마을기업)와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비즈니스는 기업의 사업 분야의 다양화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역사회공동체 경제 발



전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의 동원가능한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에 의해 수행하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지역에 투입된 자금은 지역사회에서 순환되고, 지역 내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지역사회가 기업이자 창의적 사업가로서 지역 주민 공통의 이익을 도모하는 지역사회경제 행위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소득향상이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역사회 주민 중심의 지역 내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의 과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넷째, 생활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생활협동조합에서는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혹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회원의 생활개선과 문화적, 경제적 향상,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며 생명창조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생활협동조합의 주요 키워드는 ‘상부상조’, ‘지역사회’, ‘생명’이며, 일상세계에서 움직이는 운동이며 일상의 영역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정치·사회·문화를 총괄하는 자율적·통합적인 삶의 회복운동이다. 또한 가족·이웃·지역사회에서 협동의 원리를 살려 생산과 생활과정을 적정규모로 조직화하고 그 조직을 스스로 유지 관리하며, 지역의 생태계의 건전한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들이 연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섯째, 로컬머니와 사회적 경제.

로컬머니는 지역에서 통용되는 유형 또는 무형의 교환매개체를 통하여 지역주민끼리 상품과 노동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교환제도로서 지역의 공동체를 재건하고 상호부양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며 가난한 사람과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돕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전망을 갖도록 하는 특징을 지닌다. 로컬머니는 일반사회에서 지향하는 체제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원칙하에 운영의 방법, 목적, 교환매개 과정, 대상과의 관계가

형성된다. 또한 로컬머니는 화폐가 없어도 물건이나 서비스를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화폐가 운영되며 그 과정에서 이용자 간의 대면성이 확보되며 궁극적으로 공동체적 관계가 형성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외에도 지역 내 순환을 통한 자급자족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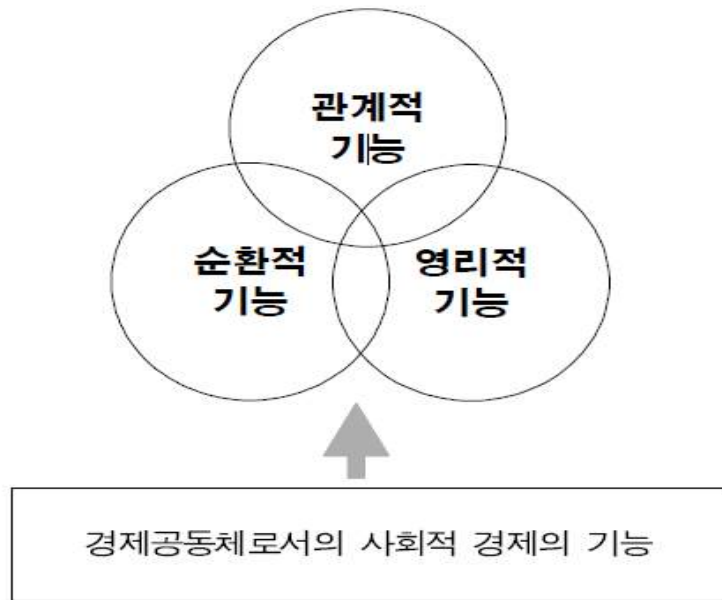
<표 3> 농촌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영역들

구분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생활협동조합	로컬푸드	로컬머니
기본입장	지역사회 관계망에 의한 지역기업 육성	마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마을 기업 육성	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마을공동체 형성	먹거리 순환 체계에 기반한 마을 경제공동체 구축	호혜와 대면성에 의한 호혜의 경제공동체 구축
활동단위	마을	마을	마을	마을	마을
목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마을의 창의적사업가 발굴 및 육성	일상생활의 개혁	지역식량체계 구축	거래의 대면성 확보
연계수단	사회적 자본	마을기업	생활공동체	지역사회지원 농업, 도시농업	지역화폐

이상과 같이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지향하는 체제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궁극적으로 이용자 간의 대면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관계의 형성, 지역 내 자본의 순환, 지역사회의 자급자족시스템이 구축을 의미한다. 대면성의 완결은 마을 만들기에서 궁극적으로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사회적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산-유통-소비-폐기의 전과정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서 사회적경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 내 자본의 순환은 지역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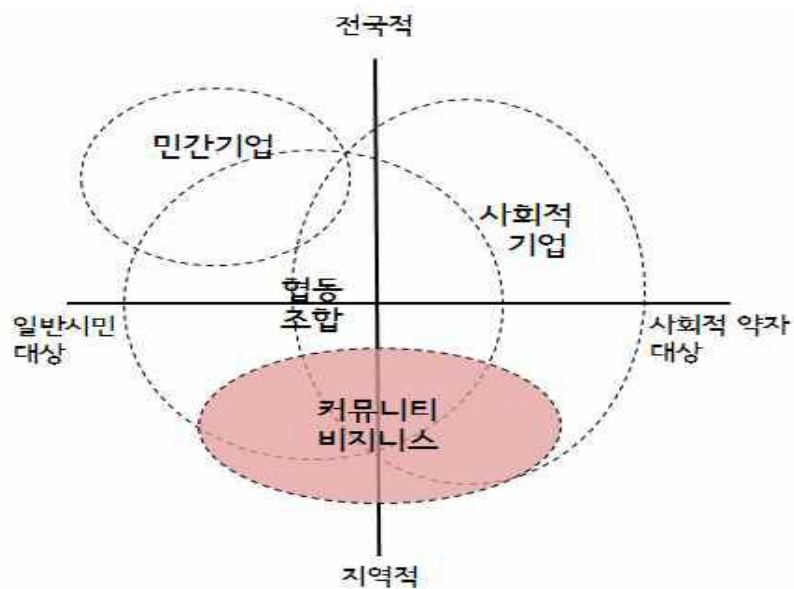


다. 지역의 생산, 서비스를 비롯하여 지역의 산업, 공동체성의 회복, 자연에 대한 배려 등의 원리에 근거한 마을 만들기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경제공동체로서 사회적경제의 기능을 표시하면 <그림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자료 : 경기도의회(2013)

<그림 3> 경제공동체로서 사회적경제의 기능



<그림 4> 사회적 경제조직의 개념

4.4. 사회적 농업의 정의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관련 정책은 국내 및 외국에서도 최근에야 논의되기 시작했다. 사회적 농업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에서도 2010년대 이후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식량농업기구(FAO)의 ‘먹거리 보장 및 영양에 관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Food Security and Nutrition)’에서는 2014년에 사회적 농업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그때 ‘사회적 농업’의 개념을 정의하려고 시도했다. 그 연구 보고서는 사회적 농업을 “급여를 받는 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가령, 지적·신체적 장애인, 재소자, 약물중독자, 소수자, 이주민 등)의 노동 통합을 지향하거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재활·교육·돌봄을 촉진하거나, 아동이나 노인 등 특정 집단에게 농촌 지역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농업 실천”(Iacovo, 2009: 11)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탈리아에서 기원하였다. 이탈리아에서는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재활 및 사회 통합이라는 지역 수준의 이해 관심에 부응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농촌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채택한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 (Fazzi, 2011: 120) 형식으로 사회적 농업 운동이 전개되었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의 배경에 사회적 경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섭(2017)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즉 사회 통합(inclusion)을 실현하는 농업 실천’이라고 하였다. 또한 국내에서의 사회적 농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직업이 없어 소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고, 그 때문에 시장의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농장에 고용해 사회통합을 실천하는 유형이다. 농업활동을 수행하는 농촌 지역의 자활 공동체에서 고용하는 형태이거나,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이 전개되면서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형성된 노동통합형 사회적 농업 실천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돌봄농업 형태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케어파밍(care farming)이라고 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는 치유농업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다. 농장에서 정신질환자, 신체장애인, 재소자, 약물중독자, 비행청소년 등에게 농작업과 치료적 요인을 결합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유럽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유형으로 우리나라에도 드물지만 몇 가지 사례가 있다.

세 번째는 성인을 대상으로 농업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게 고용 및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현재 국내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태이다.

김정섭은 이들은 모두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였다. 또한 농업인 개인의 실천이 아닌 다양한 직능 전문가들의 결합과 관계 속에서 사회 문제에 도전하는 사회혁신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농업인뿐 아니라 다른 직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관계를 맺고 그 토대 위에서 역할을 분담해 사회적 배제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농업은 '사회혁신'에 가깝다고 하였다. 사회혁신에 대해 유럽연합이 사회정책에서 정의하는 바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새로운 방식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을 말한다.

<표 2> 선행 연구들의 '사회적 농업' 개념 서술

구분	내용
Iacovo (2009: 11)	* 급여를 받는 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가령, 지적·신체적 장애인, 재소자, 약물중독자, 소수자, 이주민 등)의 통합을 지향하거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재활, 교육, 돌봄을 촉진하거나, 아동이나 노인 등 특정한 집단에 대해 농촌 지역에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농업 실천
Iacoco & O'Connor (2009)	* 사회적 농업은 다기능 농업과 지역사회-기반 사회·보건 돌봄이라는 두 개념에 기초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농촌의 자조연결망(self-help network)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local)의 복지 체계에 속한 비공식적 사회연결망과 농업 자원에 기초한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다.
Hassink (2009: 21)	* 다기능 농업과 지역사회-기반(community-based) 사회적/건강 돌봄이라는 두 개념 안에서 시도되는 혁신적인 접근방법 * 농촌 지역에서 사회 서비스를 촉진하려고(또는 만들어 내려고) 동식물 모두를 포함해 농업자원을 활용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 * 예 : 사회 통합(social inclusion)에 기여하는 재활, 치료, 보호작업장, 평생교육 등의 서비스
Fazzi (2011: 123)	* 돌봄 및 사회-재활 통합 *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및 노동 통합(즉, 고용) * 특별한 요구를 지닌 사람들에 대한 교육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2)	* 장애인이나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 및 일반 공중(public)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촉진하려고 적절한 환경을 만드는데 농업자원(동물 및 식물)을 활용하는 일련의 실천 * 특별한 요구(needs)를 지닌 특정한 사람들이 자신의 발전과 웰빙 증진을 위해 일상적인 농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농업 실천에 기반해야 함



구분	내용
<p>Chovanec, Hudcová, & Moudrý (2015: 6)</p>	<p>* 사회적 농업은 광범위한 활동들로 구성되지만, 언제나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공통 요소를 지닌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활동 또는 농장과 긴밀하게 연계된 활동 - 일시적으로 또는 항구적으로 특수한 요구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활동 <p>* 사회적 농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한 요구를 지닌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통합 - 전문적인 사회적 돌봄이나 사회 서비스 제공이라는 관점의 재활 및 치료, 취업 준비 - 농업활동, 농촌 문화, 경관 관리 및 농촌의 지속가능성 등에 관해 더 나은 지식 형성에 기여하는 교육 등의 활동
<p>Assouline (2015)</p>	<p>*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초대해 사회통합, 노동통합, 치료적 동반을 목적으로 농업 생산물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p>
<p>Crowley, O'Sullivan, & O'Keeffe (2017: 7)</p>	<p>* 장애, 질병, 연령, 중독, 범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의 위험(risk)에 놓인 소수의 사람들에게 건강, 사회, 교육, 직업 등의 지원을 제공하려고 작동 중인 농장에서 경관이나 영농활동 등을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가축, 원예, 작물, 농기계, 숲 등과 결부된 영농-관련 활동 프로그램을 구조화하고, 촉진하며, 감독한다.</p>

자료 :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5. 사회적 농업의 범위

‘사회적 농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심과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항이다. 이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의 영역을 어디까지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 맥락을 함께한다.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고용, 돌봄, 교육 등과 함께 기존의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포함하여 사회적 농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복지과(과장 강혜영)는 ‘사회적 농업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힘쓰고 있다. 이미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발의되어 있으나 그마저도 아직 국회에 표류되어 있는 상황이다(2018년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농업법을 제정하려는 노력까지 진행하고 있어 다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여성복지과는 사회적 경제라는 큰 틀(가치) 안에서 사회적 농업을 보는 것은 맞지만, 사회적 농업 고유의 영역은 분명 존재한다고 보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을 사회적 농업법으로 묶어 사회적 농업의 의의,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지원체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여성복지과는 사회적 농업의 주체를 농업인만으로 한정시키지 않으려는 입장이다. 지역 문제를 푸는 분위기를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체는 지역사회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그게 사회복지법인인 주체가 되고 농민이 참여하는 방식이든 어떻든, 다양한 조직체 모습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적 농업 주체를 찾아가려 하는 것이다.



4.6. 사회적 농업의 유형

우리 정부가 구분하는 사회적 농업의 유형은 크게 교육·돌봄·고용 등 세 가지다. 첫 번째 유형인 ‘교육’은 장애인·아동·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을 체험하도록 하고 가르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성·자립심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유형인 ‘돌봄’은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아동·고령자에게 건강관리·요양·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고용’형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귀농·귀촌 희망자 등이 농장에 고용돼 일할 수 있도록 농업실습 등을 제공하는 형태다.

구분	대상	내용
교육	장애인·아동·학생·청년 등	영농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돌봄	장애인·아동·고령자 등	건강관리·요양·재활 서비스 제공
고용	장애인이나 고령자, 귀농·귀촌 희망자 등	농업 실습·일자리 제공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 농민신문

<그림 5> 사회적 농업의 대표적 유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의 ‘2018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지원 시범사업’에서는 사회적 농업 유형별 사업 예시로 아래 <표 3>과 같이 나열하였다. 시범사업에서 구분한 유형은 예시적인 것으로 프로그램 유형이나 지원 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형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표 3> 2018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지원 시범사업'에서는 사회적 농업 유형별 사업 예시

구분	교육	돌봄	고용	기타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아동, 학생,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서적 건강 증진, 재활, 사회성 향상, 자립 등을 위한 농작물 생산과정 체험, 기술 교육, 농업실습 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영양, 보호, 재활 활동 등 복지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노인, 실업자, 귀농귀촌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의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사회적 농업 농장 또는 타 농장에 유급 고용 창출 	
사업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 원예 프로그램 운영 · 정신질환 장애인을 대상으로 간단한 수확체험에서 심화된 농업활동까지 일일·단기·장기 프로그램 운영 ·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 기술교육 및 지역사회 정착프로그램 운영, 고령농가의 농지를 임차하여 네트워킹, 기술, 판로 등 성공적 귀농 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노인의 농업 활동을 보조하면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생활 도움 · 노인 대상 물리치료, 민요, 건강체조, 한글교실, 미술교실 등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을 고용하여 각종 채소류를 재배하고 꾸러미사업 등을 통해 판매 · 정신질환 장애인을 대상으로 쌈채소를 생산하는 재활·직업교육 후 일부를 농장에 고용 	<p>그 외 교육·돌봄·고용 서비스를 혼합하여 진행하거나 그 외의 형태를 띠는 경우</p>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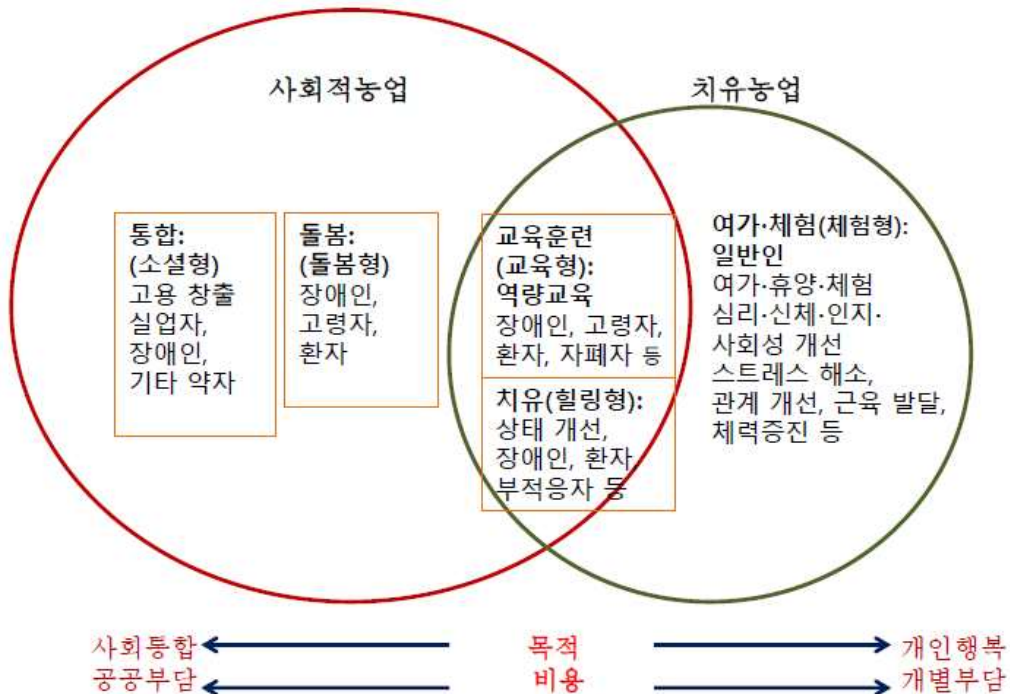
김정섭 외(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방향, 2017)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최소한 세 개의 사회적 농업 실천 유형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는 노동통합형 사회적 농업이다. 일자리가 없는 이를 농장에서 고용해 영농



에 종사하게 하는 실천이다.

둘째는 돌봄 사회적 농업이다.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이에게 농업의 치료적(therapeutic) 요인과 결합된 돌봄 서비스를 농장에서 제공하는 실천이다. 셋째는 직업 교육훈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농업이다. 직업이 필요하지만 기술·지식 등 능력이 부족한 이에게 혹은 농업이나 농촌을 접한 적이 없는 도시의 아동·청소년 등에게 농사를 가르쳐 직업을 얻거나 농촌을 포함한 전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게 돕는 실천이다.

물론, 이 같은 실천 유형 구분은 분석적 차원의 구분이며 현실에서는 둘 이상의 실천이 동시에 진행될 여지도 있다. 특히, 사회적 농업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재활(rehabilitation)을 추구할 때 노동통합과 돌봄을 위한 농업 실천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노동통합, 돌봄, 직업 교육훈련 등의 세 영역 외에도 농업 활동을 매개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통합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출현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서술하였다.



자료 : 강동규(2018)

<그림 6> 사회적 농업과 치유농업

5. 사회적 농업 정책

5.1. 국내정책

5.1.1 2018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지원 시범사업(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이 새로운 농정 의제 및 국정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하고, '사회적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과 고용을 유도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 관련된 일자리 창출 기대'하며, '농촌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하는데 있다.

'2018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지원 시범사업'에서는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정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국내 사회적 농업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기획을 통한 운영비'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비'로 구성되었다. 본 사업은 기존 농림부의 사업과는 달리 사업대상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확대되었다는 특이점이 있다. 기존 농업관련 사업대상은 농민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에 한정된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나 본 사업의 경우 사회적 기업, 일반법인, 회사 등에도 확대되었다.

본 사업의 선정지역을 살펴볼 경우에도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기존의 관련 경험이 없는 농장을 대상으로 새롭게 사회적 농업을 시작하게 하는 방식보다는, 이미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자금 부족, 관심 부족 등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상황을 개선해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업 규모나 지원 범위에 있어 사회적 농업 주체별 여건에 따라 다소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회적 농업 시스템을 찾아가려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현장에서는 농장 운영도 어려운데 새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이 어렵고, 전문 인력도 필요한데 아직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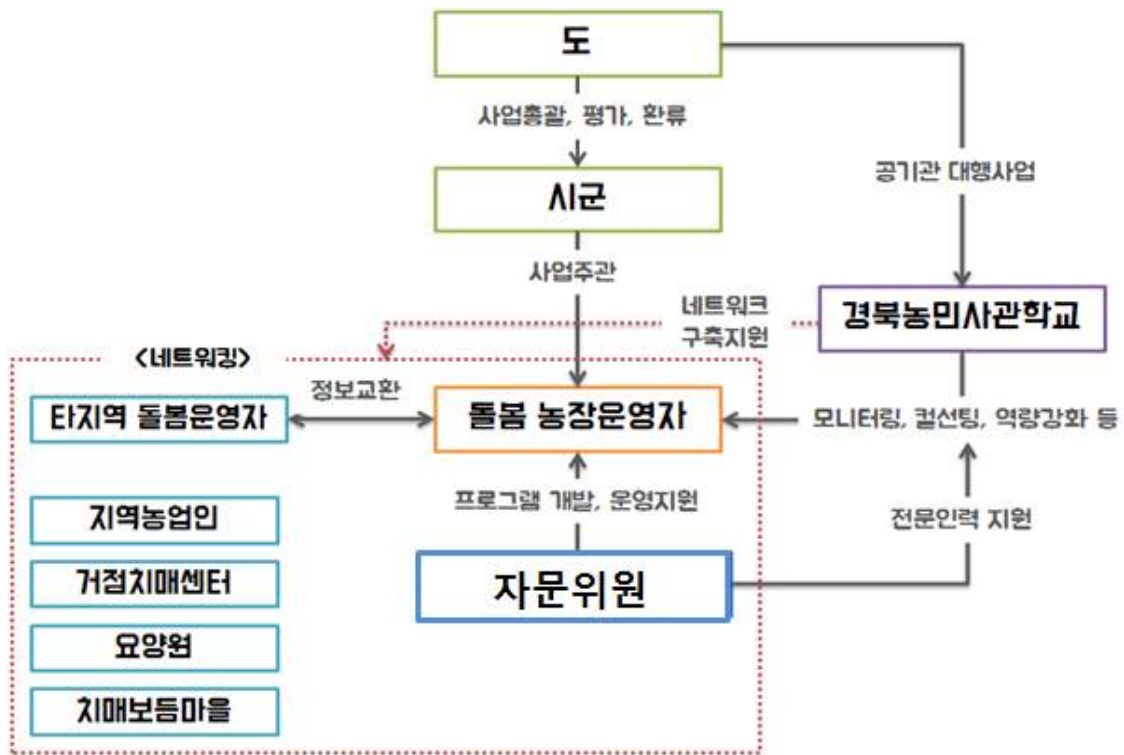
5.1.2.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경상북도)

경상북도는 '2018년 돌봄농장 육성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2019년부터는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을 실시한다. 본 사업은 최근 농가소득 정체로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가치를 활용한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확충하고, 정신·육체적 피로로 고통 받는(청소년, 주부, 직장인, 고령자 등) 현대인의 심신의 안정과 휴식을 제공하며,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청년들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고령농, 은퇴농업인의 일자리 마련으로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 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과는 달리 농업·농촌의 전원생활, 체험을 통해 현대인의 스트레스 등을 사전예방 및 지연·해소 시킬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표 4> 경상북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 개요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한 경우에 한함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중)하였(이)거나, 관련시설을 운영한 有 경험자 ○ 치유농장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사업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소 이내
총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00백만원(도비 1,300, 시군비 2,800, 자부담 1,000)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5억원 내외, 활성화지원 1억원(농민사관학교)
보조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 농장조성, 치유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농장조성) 텃밭, 과원, 온실, 사육시설, 산책로 등 조성 · (시설물설치) 체험시설, 숙박시설, 카페, 식당 등 부대시설 · (장비도입) 교육·영상장비, 조리·체험장비, 소규모 영농장비, 이동용 차량 등 치유 관련 기계장비 * 차량구입 경우 보조비율 별도 지정(보조 40%, 자부담 60%) · (프로그램개발) 영농, 동물, 자연환경 등 테마별 치유 프로그램 개발 · (농장운영) 홍보·마케팅 비용, 프로그램운영 비용, 농장관리·조리·체험 등 분야별 신규인건비 · (활성화지원) 치유농장 심사평가, 컨설팅, 역량강화, 용역 수행 등



<그림 7>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 사업추진 체계

본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나 사업내용에 있어 지원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특징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차이는 상당히 도드라진다. 또한 사업내용에 하드웨어 부분이 가능하다는 차이점도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의 경우 몇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기존 교육농장사업과 차별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며,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들이 치유농업의 본질과 목적은 뒤로 한 채 농장 확충을 목적으로 신청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치유시설이라는 명분으로 요리실습장, 세미나실, 카페, 동물사육장, 텃밭 등 개인적인 사업 확장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어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향후 관리 감독까지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억 원에 달하는 자부담금이 과연 일반적인 농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소수 농가의 특혜사업이 될 수 있지는 않은지, 영세 농가 및 치유농업 농가의 또 하나의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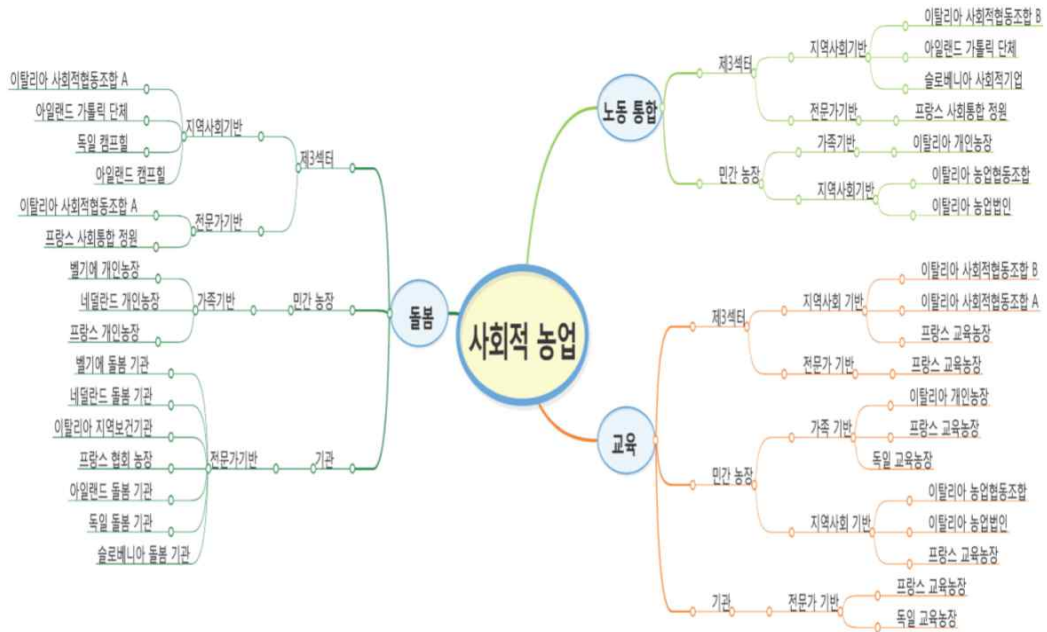
5.2. 국외정책

5.2.1.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법 제도안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한다. 2015년 사회적 농업법을 제정하고, 12개 지자체(주)가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면서 사회적 농업의 개념을 도입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2000여개나 생겨났다. 지자체들은 EU(유럽연합)의 지원 예산을 활용해 사회적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돌봄·고용활동에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농장은 농산물의 생산·가공이라는 농업 본연의 활동 이외에 장애인 돌봄 및 고용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5.2.2.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돌봄농장을 여러가지 돌봄기관 유형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돌봄농장은 국가에서 지정한 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는 돌봄농장에 대가를 지급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 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정부의 역할이 컸다. 1990년대 말 돌봄농장 경영주들은 창업절차, 서비스 관리체계 수립 등의 필요성을 느껴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사회적 농업의 필요성과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국가 회의를 두차례 열었다. 이 과정에서 농업부와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해 비영리재단 성격의 '돌봄농업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지원센터는 돌봄농장의 창업절차를 제시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개발해 돌봄농장의 전문화를 유도했다.



자료 : 이정해(2017)

<그림 8> 유럽의 사회적 농업 실천 유형 분류

5.2.3. 일본

일본의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정책 지원은 고용정책의 틀 안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장애인·고령자·빈곤계층 등을 농업활동에 참여시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시설정비·임금지원·인력지원·기술지원·직업연수 등 관련 보조금을 지급한다.



구분	내용		
	관련 법	주요 지원	주요 재원
이탈리아	- 사회적협동조합법 (1991) - 사회적농업법 (2015)	돌봄 서비스 제공 대가 지급	사회보험
		직업재활프로그램 참여수당 지급	
		고용취약계층의 임금 보조	
		교육 서비스 제공 대가 지급	유럽 연합 사회 기금
		직업교육 참여수당 및 교육 운영비 지원	
		국유지 사용 우선권	
공공조달 및 공공일자리 선정 우선권	-		
네덜란드	- 장기요양법(2014) - 사회지원법(2014) - 청소년·아동법 (2014)	돌봄 서비스 제공 대가 지급	사회보험
		돌봄농업지원센터 운영1 (1999~2008)	농업부, 보건복지부
		돌봄 서비스 제공 대가 지급	사회보험
벨기에	- 현금 급여 지급 관련 법령 제정 (2015)	농업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보전금 지급	농업부
		시설정비 비용 지원	5개 주 정부
		플란더스녹색돌봄지원센터 운영 (2004~)	
		시설 정비 비용 지원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인력기술 지원			
일본	- 장애인자립지원법 (2006) - 빈곤생활자 자립지원법 (2015)	장애인 직업교육 운영 예산 지원	후생노동성
		공공 직업소개소(헬로워크) 운영	
		고령자대상 사회적 농장 설립 지원	후생노동성
		빈곤계층대상 직업교육 운영비 지원	

주 1: 2009년부터는 정부 지원을 받던 돌봄농업지원센터를 해산하고, 그 기능을 돌봄농업 협의회 단체에 이관했다.

<자료 : 김창길(2017)>

<그림 9> 외국의 사회적 농장 지원 주요 정책

6. 사회적 농업 사례

사회적 농업에 대한 국내 및 국외에 대한 사례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자료 및 보고서 등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타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6.1 국내사례

6.1.1. ㈜뜨락 원예치료센터

경북 경산에 있는 ㈜뜨락 원예치료센터는 농업체험과 원예활동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소년 심리치료, 장애인 재활, 주부 우울증 치료, 고령자 치매 예방이 대표적이다. 지역인재를 원예치료사로 활용하면서 농가소득 증대에도 일조하고 있다.

6.1.2. 협동조합 '행복농장'

충남 홍성의 협동조합 '행복농장'은 전국 최초로 생산기반 치유농업을 시도한 곳이다. 홍성군농업기술센터·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사회적 농업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신장애인 대상의 녹색돌봄·직업재활·단기고용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나 독거노인, 탈북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도 있다.

6.1.3. 여민동락공동체

전남 영광의 '여민동락공동체'는 지역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운영하는 곳이다.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한 <모싯잎송편> 생산 공장을 중심으로, 2010년부터 농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 30여명의 노인이 모싯잎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6명은 공장 상근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6.1.4. 강원도

강원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유 형태의 사회적 농업을 특화시키기 위해 2017년 5월 전국 최초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치유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정책 개발·추진, 전문농민 양성을 담고 있다.

6.1.5. 영주시

경북 영주시는 치유농업을 농촌의 새로운 활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예치유·동물치유가 가능한 국내 유일의 '국립녹색농업치유단지'를 조성 중이다. 2014년부터는 회원 340여명이 참여하는 치유농업발전연구회도 운영하고 있다.

6.2 국외사례

6.2.1. 케어팜(care farm)

네덜란드의 케어팜은 사회적 농업을 대표하는 사업 모델이다. 치유 농장이란 의미를 가진 케어팜은 농업을 통해 정신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새로운 개념의 시니어 비즈니스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요양하듯, 의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치료할 수 있는 사업장을 가리킨다. 지난 1970년대에 처음 민간에서 선을 보인 케어팜은 병원이나 요양원보다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환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 수요가 급증했고, 50여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은 1000개가 넘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한 상황이다.

치매 노인을 위한 케어팜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요양원의 대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보다는 덜하지만 해외에서도 요양원은 부정적 이미지가 가득한 공간이다. 늙고, 병들고, 무기력한 노인들의 공동 집합소라는 것이 기

존 요양원이 갖고 있는 이미지다.

그런데 치매 노인을 위한 케어팜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진다. 농장에서 과일을 따거나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등, 농업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과 최대한 교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을 제공한다.

아직까지는 요양과 관련된 분야가 케어팜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교육과 여가를 주제로 하는 케어팜이 그 수를 급속하게 늘려가고 있다.



<그림 10> 네덜란드의 케어팜 1



<그림 11> 네덜란드의 케어팜 2



6.2.2. 아그리꼴뚜라 카포다르코(Agricoltura Capodarco) 농장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아그리꼴뚜라 카포다르코(Agricoltura Capodarco)’ 농장은 농업인, 원예치료사, 정신과 의사의 도움으로 발달장애인, 약물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10여명이 원예활동을 통해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비용은 주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들은 수확, 식당운영, 판매 등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얻게 되며 그 과정에서 고용의 기쁨과 성취감을 느낀다. 능력보다는 가능성에, 소득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결과를 유발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장애인 돌봄은 고용을 통해 실현된다”는 농장주의 말처럼 일자리 자체가 복지로 작용하고 있다.

7. 농촌활성화지원센터

7.1.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개요

- 설립목적 : 주민주도 마을 육성 및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지역 인적자원 육성·활용, 마을실태 진단 및 농촌현장포럼 운영 지원 등 추진
- 추진방향 : ① 민·관·학 지역개발 전문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주민주도 마을 발전계획수립, 마을·권역 모니터링 및 멘토링 체계화
 ② 지자체 마을만들기 정책과 연계하여 마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시·군 단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지원
- 설립근거 : 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②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주요사업내용



<표 12>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주요사업 내용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총사업비 : 13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시행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광역자치단체, 도별거점대학교



<표 5>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도별 지정현황

도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선정 대학	협성대	강원대	충북대	공주대	전북대	목포대	경북대	경상대	제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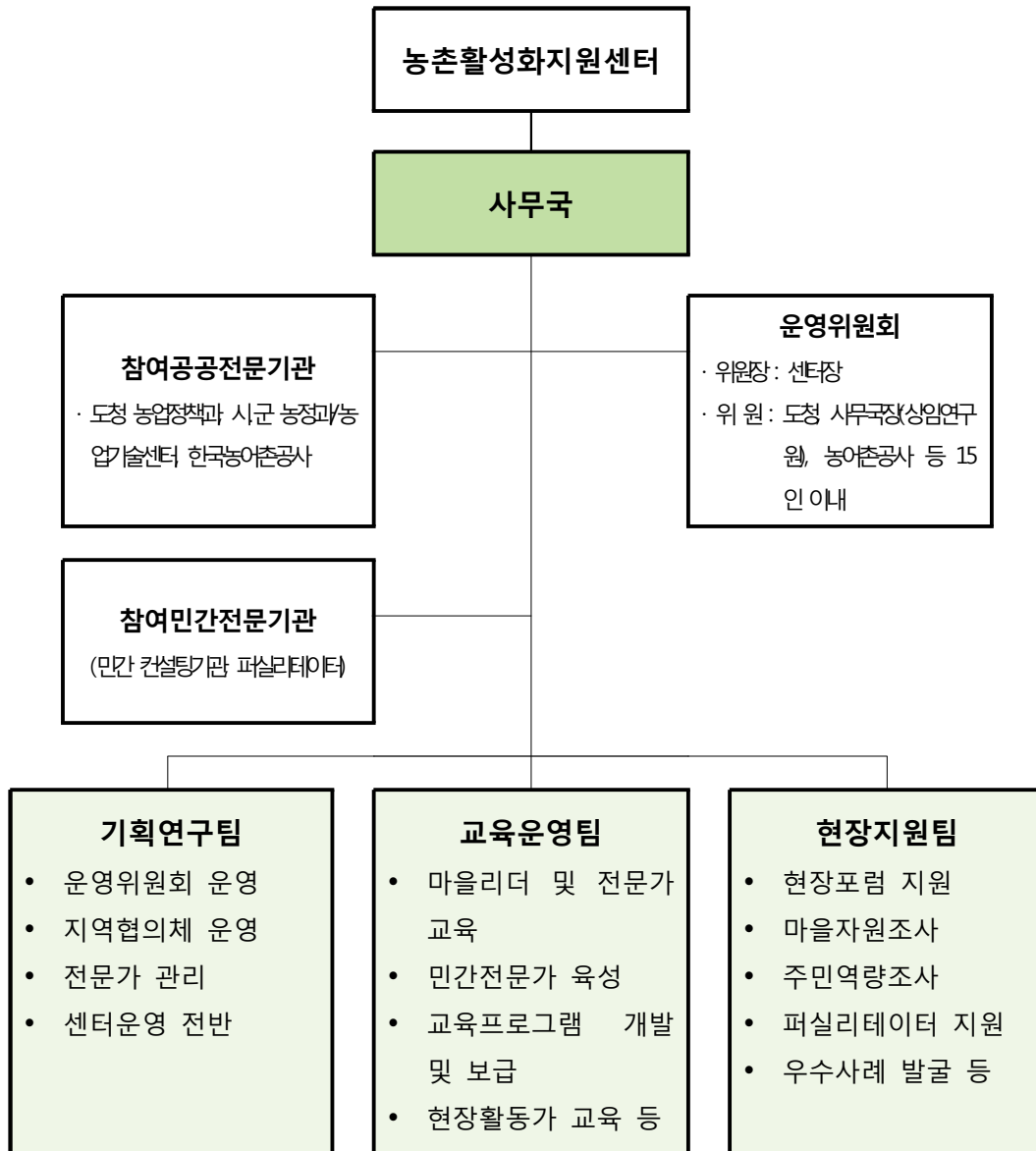
<표 6>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단계별 발전방향

단 계	발 전 방 향
기반구축기 (‘13 ~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설치와 인프라 구축 - 지역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 활성화지원센터 협의회 구축 등 ○ 공무원.리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장기 (‘15 ~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관련 법제화 ○ 중앙, 시군 단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설치.네트워크 확대 ○ 센터의 역할 확대 등 발전방향 모색
정착기 (‘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지원체계 정착 -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한 정책적 체계 확립 - 농촌 마을 지원을 위한 자체 발전계획 수립 등

7.2.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역할

- 정책지원 : 중앙정부·지자체 네트워크, 지역 내 다양한 관련조직(마을·권역·지역단위)의 신규 사업이나 정책·제도 건의, 지역 내 발전과제 발굴 지원 등 지역 주도의 내생적 발전 동력원 기능 수행
- 지역 인적자원 육성·관리
- 현장 활동가·마을리더 교육, 민간 전문가 육성
- 대학교내 다양한 전문가(농림어업, 경영·마케팅, 지역개발, 의료·복지·교육)를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발전을 위한 Think Tank 역할
- 베이비부머 등 귀농·귀촌 인력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 역량 강화 기여
- 현장포럼 지원 : 마을 자원 분석·주민역량평가 지원, 관련 전문가 및 퍼실리테이터 지원

- 정보교류 : 마을 발전 관련 정보, 우수사례 등을 수집·배포
- 조사 및 연구 : 마을 활성화를 위한 연구과제 발굴, 조사 등 수행



<그림 13>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조직도



7.3.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사회적 농업

2013년 출범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주민주도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며 나름의 역할을 정립하고 6년차에 접어들었다. 그간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미약한 사업예산과 상근 인력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해마다 실적이 점점 증가하여 2017년에는 1,158명의 마을리더 교육을 지원하고, 668개 마을의 현장포럼을 지원(전체 2,668개 마을)하였다.

센터의 주 업무였던 농촌현장포럼이 지자체별로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고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역할이 인력양성 지원 및 모니터링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또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연구중심 역할을 수행시키고자 하는 농식품부의 방향에 따라 농촌활성화지원센터도 새로운 사업 영역 개척이 필요해진 시점에 도달하였다. 이같은 대내외적 상황에 맞추어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국정기조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있어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 사회적 농업을 지원할 중간지원조직이 없다는 점 또한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농촌현장포럼을 수행하였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 번째는 센터 인력 문제이다. 현재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상근인력 2명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인력문제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상황이다. 센터 직원에 대한 열악한 근로 안정성과 처우, 그리고 업무량 등에 대한 명확성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업무영역을 확장할 수는 없다. 현재에도 사업 예산이나 인력에 비해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있는 사업내용으로 인해 센터 직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사회적 농업 부문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업무에 대한 조정이나 충원, 고용의 질 개선이 필수적이다.

두 번째는 센터 자체 역량강화 문제이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있어서도 사회적 농업 분야는 그간 접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분야이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전문 인력들은 주로 농업경제 및 농촌개발 분야 전공자들이 대부분이다. 사회적 농업 분야는 이들 분야와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센터 자체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적 농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바탕이 되었을 때 사업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업무 주체 및 구조 문제이다. 현재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사업의 경우에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 및 농촌개발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많은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농업은 부처간 업무 주체가 불분명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단위에서의 협업이나 업무부처 일원화는 필수적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내에서도 사회적 농업에 대한 업무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사회적 농업 기반을 지원하였을때 도를 비롯한 상급기관의 관리주체가 불분명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유사 조직과의 업무 경계와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8.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사회적 농업 연계를 위한 워크숍

경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2018년 10월 16일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사회적 농업의 연계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본 워크숍은 ‘사회적 농업의 소득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하고, ‘사회적 농업 적용사례 공유 및 사회적 농업 연계를 위한 범위 설정’하며, ‘사회적 농업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고, 상향식 농촌개발사업을 통해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사회적 농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토론’을 목표로 실시되었다.

본 워크숍에는 경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사회복지사협회,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및 사회적 농업 단체, 퍼실리테이터 등이 참석하여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사회적 농업 관련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림 14> 워크숍 진행모습

8.1. 사회적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

8.1.1. 부처 간 칸막이

소관 부처 간 칸막이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늘 제기되는 문제점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봉화군 상운면 하늘보호작업장의 이정수 부장은 농장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러한 문제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보건복지부 산하인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소속 장애인들과 함께 농사를 지어 가공 및 판매도 하고 있으나 농민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업 관련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영리활동이 불가능한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상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받는 것도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는 사회적 농업이 정착하기 위해 앞으로 가장 많이 겪게 될 문제점일 수도 있다. 다행이 고무적인 것은 '2018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에서는 사업 대상을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으로 포괄적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마중물 삼아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이 필요하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처 간 칸막이를 최대한 허물고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8.1.2. 소비자 불신

사회적 농업 생산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떨어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아직까지 국민들의 인식은 장애인에 대해 경계하는 경향이 강해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 또한 불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및 국민인식을 바꿀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여도 판로가 없어 운영이 어려운 문제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한다



고 하였다.

8.1.3. 관련기관 연계의 어려움

포항시에 소재한 교육농장 꿈바라기의 권원규 대표는 관련기관 연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례로 군부대의 관심병사를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고 싶어 관련부대의 문을 두드렸으나 냉대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하였다. 그러나 몇 해 뒤에는 오히려 군 측에서 관련 협업을 요청하는 아 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듯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 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어도 관계기관의 협업이 쉽지 않다고 호소하였 다. 관련 정보나 인맥이 부족한 경우에는 좋은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이 있어 도 실행해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안타깝다는 것이다.

8.2. 사회적 농업 연계를 위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역할

8.2.1. 교육과정 개설

봉화군 사회복지사협회 최병호 회장은 현재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로 교육과정 개설을 요청하였다. 현장에 있는 농민들 중 사회적 농 업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시도를 해보고 싶어 하지만 관련된 교육이나 정보가 없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사회적 농업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민간에서는 비용문제 등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사업을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해주었 으면 한다고 하였다.

8.2.2. 홍보지원

앞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토로한 의견에 있어서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관련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홍보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우수제품을 소개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단순히 각종 행사에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와 연계한 전국적이고 실질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8.2.3.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농업을 시도해보려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을 해주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관련 전문가 및 현장인력들의 정보를 교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교류의 장을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 이었다.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관련교육 실시 등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8.2.4. 기타 의견

사회적 농업이 가능할 농장을 선정하고 육성하는데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사회적 농업을 하려하는 농장주에 대한 자격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악덕 농장주가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의 도구로 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다음으로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사회적 농업의 인증체계를 구축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회적 농업이 가능한 농장인지, 그 등급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평가 및 인증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기타 의견의 경우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현 인력과 예산, 그리고 소관부처상의 문제로 인해 사실상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기타 의견으로 분류하여 소개한다.



9. 사회적 농업과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연계 발전 방안

9.1. 사회적 농업 인력(스텝) 양성

사회적 농업과 관련하여 정부 및 민간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학계에도 관련 전문가가 많지 않아 관련 연구 또한 이제 겨우 시작하는 단계이다.

사회적 농업이 우리 농촌의 보편적 모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력(스텝)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중간지원조직이 구성되어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사회적 농업관련 전문중간지원조직이 없으므로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농촌현장포럼을 통한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를 6년째 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촌현장포럼이 처음 실시될 당시에는 농어촌 퍼실리테이터 등 관련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센터는 지난 6년 동안 농어촌 퍼실리테이터 및 농어촌개발 컨설턴트를 활용하고 육성하여 이들을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 성장시켰다. 자격제도 시행은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였으나 이들을 현장에 투입하여 경험을 쌓게 하고 역량을 강화시킨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역할 또한 상당히 컸다고 자부할 수 있다. 현장포럼사업 시작당시에만 해도 농어촌 퍼실리테이터의 역량은 낮은 수준이었으며 인력 또한 매우 부족하였다.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였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매년 수차례 세미나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퍼실리테이션 및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여 점진적 개선을 이루어냈다. 이제 농어촌 퍼실리테이터들은 수년간의 경험과 역량강화를 토대로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사회적 농업 분야에서도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위해 농촌활성화지원센

터에서 실시하는 마을리더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듯이 사회적 농업 분야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회적 농업 진입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최소한의 필터링 및 역량강화 과정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다. 일선 공무원의 경우에도 사회적 농업, 치유농업, 교육농장 등 관련사업 범위에 대한 이해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 실정이다. 이 경우 각종 보조 사업이 실시되었을 때 이를 관리 감독할 역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마을리더 교육과 함께 현장활동가(공무원) 교육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농촌개발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농업 분야에서도 일선 공무원의 업무 숙지와 빠른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들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자체 인력의 사회적 농업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축산부 차원에서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영역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9.2. 사회적 농업관련 정책시행 지원

현재에도 농업·농촌관련 각종 보조 사업들이 많이 있다. 정부사업부터 기초 자치단체, 각종 재단이나 출연기관까지 많은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는 여전이 많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잡음이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농업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 되면 관련 보조 사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증가할 것이다. 이때는 순수한 의도를 가진 사회적 농업 농장이나 단체가 아닌, 보조금과 이권을 노린 사업자들이 속출할 수 있다. 보조금 규모가 커지가 되면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관련 사업 지침을 살펴보면 지원 규모나 조건에 비해 선정과정이 너무 간소하거나 형식적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중규모 이상의 사업에는 사업 선정단계에서 관련 교육 및 자격 등 신청조건을 더욱 엄격히 함과 동시에 심사과정에서 투명성 및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합숙교육 과정을 통한 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다. 사회적 농업 분야의 경우 특히 사업자의 사회적 인식이나 봉사정신, 자기희생이 절대적이다. 이러한 부분은 절대 형식적인 사업계획서나 짧은 면접심사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최소 2박 3일의 교육을 병행한 합숙면접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자신의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지원자끼리 서로 공유하고 피드백 하는 과정을 통해 심사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의 집중도를 높여 교육의 효과를 매우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적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도 적용하여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마을리더 역량강화교육에서 교육 참여도 및 성취도를 평가한다면 교육 집중도와 성취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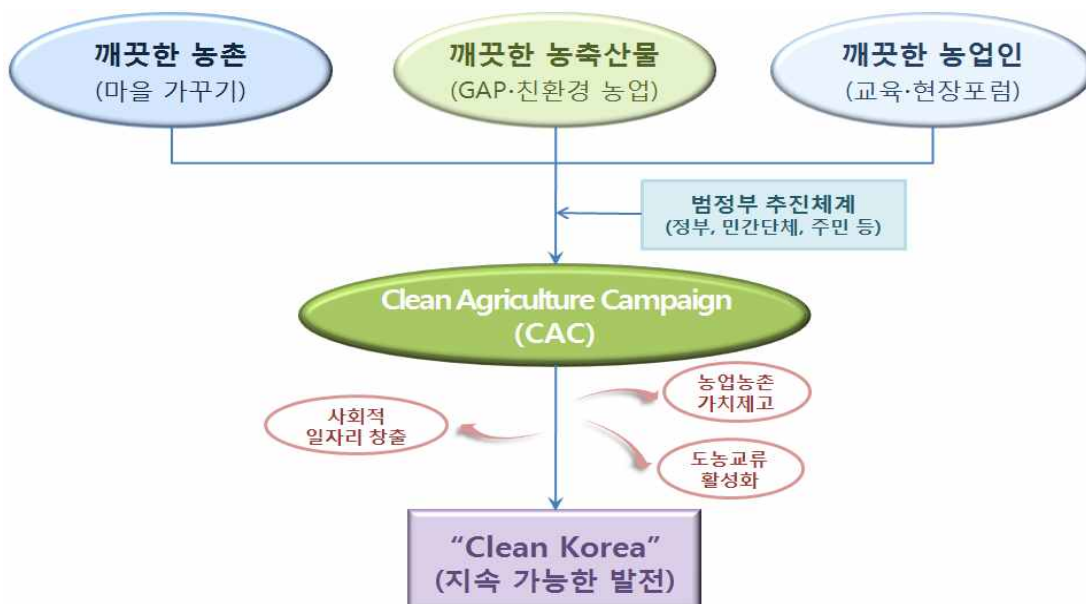
<표 7> 사업자 선정을 위한 합숙면접 프로그램 예시

구분	프로그램	내용
1일차	오리엔테이션	· 자기소개 · 교육 안내, 합숙심사 및 관련사업 설명
	사회적 농업 이론	· 사회적 농업의 이해
	사례강의	· 사회적 농업 사례강의
2일차	개별발표	· 사회적 농업 사업계획 발표 및 피드백
	프로그램 기획 실습	· 사회적 농업 운영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교육과 실습
	사회적 농업인의 장	· 교육생 친목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간 마련
3일차	조별과제 발표	· 1일차에 미리 제시한 조별 과제 평가로 리더쉽 및 단합력 평가
	수료식	· 수료식 및 나의 다짐 작성

9.3. 농촌현장포럼 활용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깨끗한 농촌만들기(Clean Agriculture Campaign) 운동을 실시하며 농촌현장포럼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게 하였다. 사회적 농업 분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현장에서 조금씩 확산시킬 수 있다. 농촌현장포럼에서 실시하는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에서 사회적 농업 관련 주제를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을 내 독거노인,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외국인 농업 노동자,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마을 주민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 돌봄 규약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실제로 의성군 안계면 도덕1리 에서는 농촌현장포럼을 통해 ‘밤새안녕’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주민들이 돌아가며 마을의 독거노인을 찾아 안부를 여쭙는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고 주민단합에 큰 기여를 하였다.

사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엄밀히 정의하는 사회적 농업 보다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더 가깝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 스스로 농촌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깨닫고 이를 실천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농업활동을 통한 사회적 농업실천도 촉진할 수 있다.



<그림 15> Clean Agriculture Campaign 추진체계도



9.4. 권역센터 등 기존 하드웨어 활용

경상북도는 독거노인의 고독사·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외롭지 않게 함께 살고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12개소를 시작으로 교통이 불편하거나 행정관서 및 의료시설로부터 먼 오지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1개 소당 1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과 한 달에 40만원의 운영비(부식비, 전기료 등) 및 동·하절기 냉난방비 6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시행 시 마을회관을 1억 원 이라는 비용을 소모하여 리모델링해 공동 거주 공간을 만들고 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권역사업 시설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시설에는 숙박 및 취사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시설들이 상당수이다. 이 시설들을 활용하여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시 추가적인 리모델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유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유휴 권역시설물을 지역노인을 위한 요양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현장에서 자주 접하곤 한다. 이때 마다 제기되는 문제는 운영주체 이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센터 연구 인력 및 관련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휴 권역시설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9.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접목

정책적 목표에 따라 사회적 농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획에 반영시키는 방법도 있다.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사업 계획에 반영할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사업 방향을 유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 확산 및 홍보에는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사회적 농업이라는 숭고한 가치가 하나의 수단으로 전략해버릴 소지가 있다. 신규농장 유입이나 정책 확산에는 유리할지도 모르지만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라는 기본취

지, 자발적 선의에 의한 사회적 농업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사업계획에 이러한 내용을 유도하게 하는 것 보다는 향후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으로 반영하여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이 속도는 느리지만 장기적으로 훨씬 내실 있고 긍정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9.6.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구축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대학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현장포럼의 운영을 통해 현장 친화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민·관·학을 두루 포함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에 있어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기존 인력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사회적 농업 분야를 포함시킨다면 상당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농촌개발분야의 네트워크를 주로 보유하고 있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교육·체험농장 등 개인 농가 경영체와 사회복지분야의 네트워크는 다소 약한 편이다. 사회적 농업을 하고 있거나 새롭게 시도 하려는 사업자들은 주로 사회복지법인이거나, 일부 협동조합을 제외하면 교육 및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들이 다수이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이러한 사회조직을 두루 통합한 커뮤니티를 구축한다면 사회적 농업은 산업간, 부처간, 분야별 경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10. 결론

우리나라 농업분야도 이제 단순히 소득의 문제를 넘어, 삶의 질에 대해 갈망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사회 혁신에 기여하고자 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농업분야에서도 세대교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세대는 지금과 다른 농업·농촌의 모습을 만들어 낼 것이다. 사회적 농업은 이 같은 변화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사회적 농업과 연계함에 있어 현재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범위 내에서는, 교육 및 인력양성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농촌활성화지원센터도 현실을 좌시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정책제언을 통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하루빨리 사회적 농업의 범위와 영역을 명확히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 막연히 정책 기조에 편승해 키워드만 삽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농업을 설계해 주어야 한다. 명확한 범위설정이 없이는 정책변화에 따라 순식간에 도태되어 버릴 것이다.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지원과 학문적 연구도 이루어 질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회적 농업 법제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입법의 어려움이 있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하기는 어렵다. 관련 부처 공무원들은 잠시 스쳐 지나간 허울 좋은 업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적 농업 기반을 구축한 관료가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길 바란다.

출범 6년차를 마감하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도 이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여야 한다.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에 나서고 조직 확대 및 안정화에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농업은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김정섭. (2013). 농촌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협동조합: 흥동면 사례 연구. 농촌사회, 23(2), 173-223.
- 김정섭·김경덕·임지은. (2015).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이정해·김경인. (2017).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와 정책 방향. 사회적 농업 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18). 2018년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 경상북도. (2018). 2019년 치유농장육성지원 사업 지침
- 경기도의회(2013), 『마을기반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섭 외(2015), 농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내원 외(2011),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장원봉(2006), 사회적경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 나눔의 집
- 주성수(2010), 『사회적 경제 : 이론, 제도, 정책』, 한양대학교 출판부
- 최준규(2015), 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융합, 따복공동체의 비전과 과제, 경기연구원
- Putnam, Robert D. 1994.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 Press.(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안청시 외 번역, 박영사, 2000)
-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Schuter, New York.
- RonBoschma, Jan Lambooy, Veronique Schutjens, 2002, 'Embeddedness and Innovation', in 「Embedded Enterprise and Social Capital」, eds. Michael Taylor, Simon Leonard, Ashgate Publishing Limited.
- Rosenberg, N. 1982. Inside the Black Box, Cambridge Univ. Press.(인사이드 더 블랙박스, 이진 외 번역, 아카넷, 2001)
- SCIG, 1998, Social Capital Conference: Bridging Disciplines, Policies and Communities, Michigan Sate Univ..
- Temple, Jonathan and Paul A. Johnson, 1998, 'Social Capability and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13, August.
- Uzzi, B. 1997, 'Social Structure and Competition in interfirm network: the paradox of embeddednes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42, no.1.
- Weil, David N. 2005. Economic Growth, Addison-Wesley.
- World Bank, 2002, What is Social Capital.

■ 2018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보고서

경남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농촌체험시설(센터) 활성화를 위한 그린케어(Green Care) 적용 방안]

연구보고서

농촌체험시설(센터) 활성화를 위한 그린케어(Green Care) 적용 방안

2018. 12.

경상대학교
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2018년도 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연구기관명 : 경상대학교 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책임자: 김영주

선임연구원: 최영완

연구 원: 진솔지

김수영

〈차례〉

I. 연구배경 및 목적	647
II. 연구방법 및 범위	648
III. 그린케어 국외정책 및 사례	649
1. 그린케어의 개념	649
2. 그린케어 국외정책 비교	650
3. 벨기에의 사회적 농업(Social Farm)	653
4. 국외 주요 치유농업 사례	657
IV. 그린케어 도입 방안	661
1. 시설물 운영 실태	661
2. 그린케어 도입 의향 조사	664
3. 그린케어 운영 체계	672
4. 고찰	678
V. 요약 및 결론	680
1. 그린케어 국외 정책 및 사례(시사점)	680
2. 그린케어 도입 및 운영 체계	680
참고문헌	681
부록	682
1. 설문지	682
2. 설문조사 분석 결과표	685

〈표 차례〉

Table 1. 주요 국가의 치유농업 정책 동향	651
Table 2. 유럽의 주요 국가별 치유농업 특징	652
Table 3.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역량	655
Table 4. SCGC의 주요 업무	655
Table 5. 국외 주요 치유농업 사례	660
Table 6. 농촌체험시설 시설물 운영 실태	662
Table 7. 그린케어 도입할 경우 운영시 필요한 프로그램	670
Table 8. 그린케어 지속성 확보를 위한 유기적인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한 기타 의견	677

〈농촌체험시설(센터) 활성화를 위한 그린케어(Green Care) 적용 방안 조사 결과〉

Table 2-1. 통계량	685
Table 2-2. 연령	685
Table 2-3. 소속	685
Table 2-4. 정착유형	685
Table 2-5. 농어촌인성학교 지정 여부	685
Table 2-6. 사업/운영 참여기간	685
Table 2-7. 운영 조직형태	686
Table 2-8. 그린케어 인지도	686
Table 2-9. 그린케어 도입여부	686
Table 2-10. 그린케어 농림어업체험 프로그램	687
Table 2-11. 그린케어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687
Table 2-12. 그린케어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	687
Table 2-13. 그린케어 원예동물체험 프로그램	688

Table 2-14. 참여형태	688
Table 2-15. 이용대상	688
Table 2-16. 이용대상_일반	688
Table 2-17. 이용대상_단체형	688
Table 2-18. 사회적 약자	689
Table 2-19. 그린케어 운영 주체	689
Table 2-20. 그린케어 협약 주체	689
Table 2-21. 인적자원 확보	689
Table 2-22. 신규인력 확보 방안	690
Table 2-23. 인적자원 교육	690
Table 2-24.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린케어 보조금 지원	690
Table 2-25.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용 감면(체험비, 숙식비 등)	691
Table 2-26. 관련 유관기관의 역할	691

〈그림 차례〉

Figure 1. 연구 흐름도	648
Figure 2. 그린케어의 개념도	649
Figure 3. 국외 주요 선진국 치유농장수	652
Figure 4. 사회적 농업 협력기관과 참여자	654
Figure 5. 복지와 농업의 협력 관계	654
Figure 6. 그린케어 적용 방안 조사	664
Figure 7. 일반현황	666
Figure 8. 그린케어 인지도	667
Figure 9. 그린케어 도입 여부	668
Figure 10. 그린케어 도입_농림어업체험	668
Figure 11. 그린케어 도입_전통문화체험	669
Figure 12. 그린케어 도입_자연생태체험	669
Figure 13. 그린케어 도입_동물원예체험	670
Figure 14. 그린케어 도입시 운영 형태	671
Figure 15. 그린케어 도입 시 운영 주체	672
Figure 16. 그린케어 도입하여 위탁 운영 시 협약 주체	673
Figure 17. 그린케어 도입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674
Figure 18. 그린케어 운영을 위한 신규 인적자원 확보 방안	674
Figure 19. 인적자원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 방안	675
Figure 20. 사회적 약자/마을운영자 지자체 보조금 지원	676
Figure 2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험비/숙박비 등의 감면	676
Figure 22. 각 기관의 기능 및 역할의 중요성	677
Figure 23. 그린케어 도입 및 운영 체계	679
Figure 1-1. (부록) 농촌체험시설(센터) 활성화를 위한 그린케어(Green Care) 적용 방안 조사 설문지	682

현재 유럽에서는 케어팜(Care farming)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의 케어팜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가족 단위, 독일 및 아일랜드는 작은 회사 형태, 이탈리아는 공동체(협동조합) 형태 등 운영단위와 목적이 다양하다.

한편, 일본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으로 마을단위나 협동조합의 형태로 농촌의 전통문화 및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치유농업(Care farming)과 원예치료(Horticultural therapy), 동물매개 치료(Animal assisted interventions) 등 그린케어(Green care)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린케어에 대한 개념 정의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한편, 최근 일부 체험마을사업 완료지구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언론 보도로 인하여 마을 사업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나고 있어 농촌체험시설(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의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촌체험마을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치유기능을 활용한 그린케어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및 범위

이 연구에서는 그린케어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먼저 그린케어의 국외정책과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경남지역의 사업 추진(완료)지구를 대상으로 그 현황과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그린케어에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남지역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담당자(시·군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컨설팅사 직원 등)와 운영자(마을주민, 운영위원, 추진위원 등)를 대상으로 하여 그린케어에 대한 인식과 도입 여부, 도입 시 운영 방안 및 형태, 향후 지속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린케어의 국외정책과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농촌체험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그린케어 도입 방안을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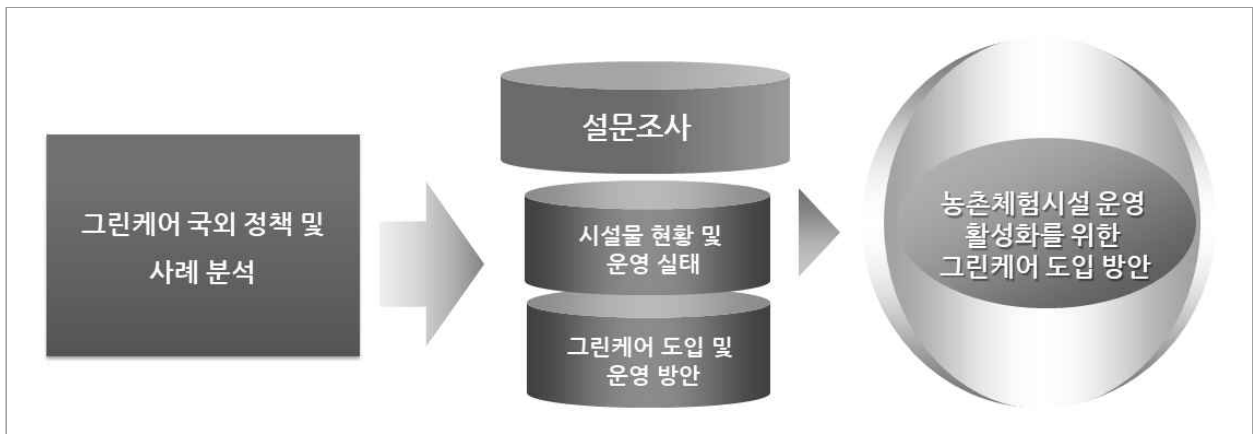


Figure 1. 연구 흐름도

III 그린케어 국외정책 및 사례

1. 그린케어의 개념

농촌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그린케어(Green Care)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그린케어의 정의와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린케어는 농장을 기반으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활동(유립)으로 농장의 여러 구성요소 중 동물, 식물, 정원, 산림 그리고 자연환경(landscape)을 오락이나 작업활동의 도구로 활용하는 활동이다(Haugan et al., 2005)

그린케어의 참여자는 심리, 정신분열증, 학습장애, 과로, 약물, 사회적 약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광의의 개념으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생물적 및 비생물적 자연요소들을 폭넓게 치유활동에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의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및 학습적 능력을 유지 및 증진하는 것이다(영국)(Haubenhofner et al., 2011; Hine et al., 2008).

사회적 및 치료 원예(social and therapeutic horticulture; STH), 동물보조치료(animal assisted therapy; AAT), onotherapy¹³³⁾, 애완동물치료(pet therapy), ecotherapy, 치료 옵션으로서의 녹색운동활동(green exercise activities), care farming, 야생 치료(wilderness therapy), 기타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그린케어의 영역이 증가하고 있다. Figure 2와 같이 '그린케어'는 폭넓은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공통적인 정신은 근본적으로 자연을 이용하여 건강과 사회 또는 교육상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Hine et al.,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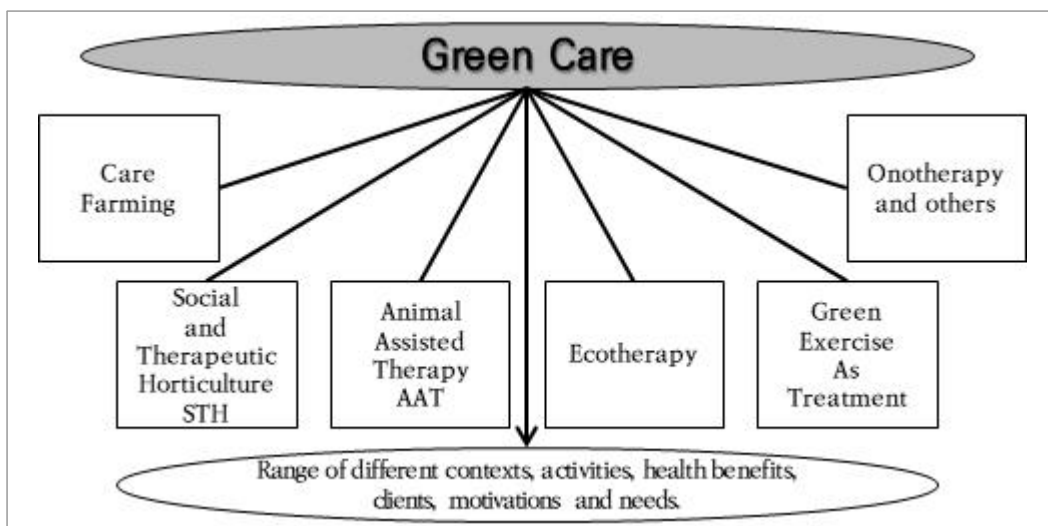


Figure 2. 그린케어의 개념도

* 자료: Hine, R. et al.(2008) P. 26 인용

133) onotherapy는 당나귀를 이용한 이탈리아에서 인기 있는 애완동물 또는 동물보조요법의 한 유형이다.



2. 그린케어 국외정책 비교

그린케어는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그린케어의 활동 중에서 치유농업(care farming)을 중심으로 유럽 주요 국가의 정책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주요 국가의 치유농업에 대한 정책(Table 1)을 살펴보면, 노르웨이는 농업에 교육과 치유를 결합한 형태로 대처능력, 성장,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통합 위원회를 구축(농림부 주관)하고 품질관리와 보증제도 운영, 치유농장 협약제도, 치유농업 학위과정 및 평생교육을 운영하며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한다.

네덜란드는 1999년부터 농림부 및 보건복지부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활성화되었다. 국가지원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질 관리체계(치유농장주, 협회 등) 운영, 국민건강보험과 연계, 치유농업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시협의회가 운영하는 치유농장이 많으며, 주로 정신질환자를 중심으로 수용한다. 지역 보건단체와 협동조합, 농장주, 협회 등의 협력체계 및 연구를 지방정부가 지원하며, 사회통합 복귀를 위한 목적으로 교도소 등 일부 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요양기관에서 치유농장을 운영하여 요양의 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을 활용하고 있다. 400개 병원과 사회재활센터, 180여개 커뮤니티, 500여개 녹색작업장에 EU 수준을 적용하며, 건강보험의 직업병 치료 항목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벨기에는 사회복지와 치료가 결합한 성격으로 공공성격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였다. 국가 및 지역단위 지원기관과 농업인 교육훈련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치유농장 인정방안 마련(법, 규제), 치유농장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덴마크는 발달 장애와 같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치유센터에서 동물매개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치유농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치유농장과 연계체계와 치유농업기관 파트너십 구축, 치유농업 프로그램(멘토링, 퍼실리테이터), 재정을 확보하였다.

프랑스는 치유농장 확대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치유농업 제공자의 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정부의 공공지원금 추진, 비용에 대한 지방정부 보조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은 농업의 복지/치유기능에 주목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취업, 재활, 노인복지에 중점을 두며, 국가농림수산정책(복지농원)에 치유농업을 포함하고 국가연구기관에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Table 1. 주요 국가의 치유농업 정책 동향

국가	치유농업 동향
노르웨이	- 농업에 교육과 치유를 결합한 형태로 대처능력, 성장,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 - 정부부처 통합 위원회 구축(농림부 주관), 품질관리&보증제도 운영, 치유농장 협약제도, 치유농업 학위과정 및 평생교육, 국가재정 지원
네덜란드	- 1999년부터 농림부 및 보건복지부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활성화 - 국가 지원 기관 설립 및 운영, 질 관리체계(치유농장주, 협회 등) 운영, 국민건강보험과 연계, 치유농업 연구 프로젝트
이탈리아	- 시험의화가 운영하는 치유농장이 많으며, 주로 정신질환자를 중심으로 수용 - 지역 보건단체, 협동조합, 농장주, 협회 등의 협력체계 및 연구를 지방정부가 지원 - 사회통합 복구를 위한 교도소 등 일부 국가지원
독일	- 요양기관에서 치유농장을 운영하여 요양의 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을 활용 - 400개 병원과 사회재활센터, 180여개 커뮤니티, 500여개 녹색작업장에 EU 수준 적용, 건강보험 직업병 치료 항목에서 예산 지원
벨기에	- 사회복지와 치료가 결합한 성격으로 공공성격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 - 국가 및 지역단위 지원기관의 설립 운영, 농업인 교육훈련센터, 치유농장 인정방안 마련(법, 규제), 치유농장 재정지원
덴마크	- 발달장애와 같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치유센터에서 동물매개활동 제공
영국	- 국가치유농업계획 수립, 지역별 치유농장 연계체계&치유농업 기관 파트너십 구축, 치유농업 프로그램(멘토링, 퍼실리테이터), 재정확보
프랑스	- 치유농장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치유농업 제공자 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정부의 공공지원금 추진, 비용에 대한 지방정부 보조
일본	- 농업의 복지/치유기능 주목, 장애인 고용, 취업, 재활, 노인복지 중점, 국가농림수산 정책(복지농원) 포함, 국가연구기관에서 효과 분석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김경미(2015) 재정리

유럽 주요 국가의 치유농업의 특징(Table 2)을 살펴보면, 네덜란드는 주로 가족 중심의 개인농장 형태(86%, 낙농분야와 초지농장)로 운영하며 정신적 건강이슈집단과 지적장애집단, 중독병력집단, 청년집단, 장기 미고용상태집단 등이 치유농업의 대상자이다. 다차원농업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주도로 활성화되고 있다.

노르웨이는 건강치유기관과 사회치유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치유농업을 제공하며, 건강치유와 복지서비스 연계 농장에서 교육/학습치유 요구집단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건강치유 및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치유농업의 비중을 증대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비영리기관(직업치료기관, 교육훈련/취업지원기관 등)과 개인농장에서 취업이 필요한 집단과 장애를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탈리아 치유농업의 특징은 상향식 방법으로 출발하여 사회적 농업을 강조하고 있다.

벨기에는 가족 중심의 개인농장(원예농장, 초지/낙농분야 농장) 형태로 정신적 건강이슈집단과



지적장애집단, 중독병력집단, 청년집단, 장기 미고용상태집단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벨기에 치유농업의 특징은 다양한 프로그램(1일, 주간, 취업, 치료, 학습능력향상, 개인 개발 등)과 국가지원 치유센터 운영,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제공 받는 것이다.

Table 2. 유럽의 주요 국가별 치유농업 특징

국가	제공기관	대상자	농장 형태	특징
네덜란드	- 가족 중심 개인농장(86%) - 기관 중심 치유농장(14%)	- 정신적 건강이슈집단 - 지적장애집단 - 중독병력집단 - 청년집단 - 장기 미고용상태집단	- 낙농분야 농장 - 초지농장	- 다차원농업에서 빠르게 성장 - 정부부처 주도로 활성화
노르웨이	- 건강치유기관 - 사회치유기관 - 교육기관	- 교육/학습치유 요구집단 - 노년층	- 건강치유/복지서비스 연계 농장	- 건강치유 및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치유농업 비중 증대
이탈리아	- 비영리기관(직업치료기관, 교육훈련/취업지원기관 등) - 개인농장	- 취업이 필요한 집단 - 장애를 가진 집단	-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	- 상향식 방법으로 출발 - 사회적 농업 강조
벨기에	- 가족 중심 개인농장	- 정신적 건강이슈집단 - 지적장애집단 - 중독병력집단 - 청년집단 - 장기 미고용상태집단	- 원예농장 - 초지/낙농분야 농장	- 프로그램 다양 (1일, 주간, 취업, 치료, 학습 능력향상, 개인 개발 등) - 국가지원 치유센터 운영 - 국가로부터 지원금 제공

* 자료: 김정미(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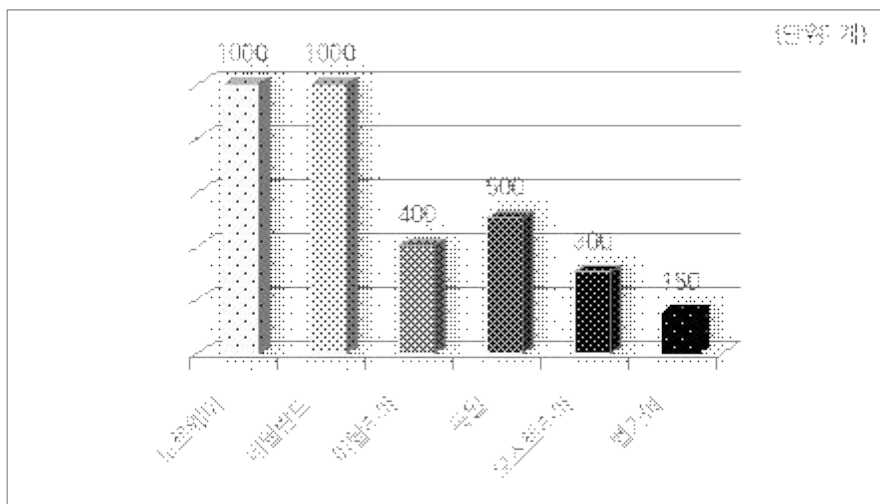


Figure 3. 국외 주요 선진국 치유농장수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3. 벨기에의 사회적 농업(Social Farm)¹³⁴⁾

그린케어(Green Care)는 녹색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가능한 모든 활동으로 벨기에 그린케어 활동의 참여자는 자원봉사를 기본으로 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벨기에 플랑드르주(Flanders)의 사회적 농업사례를 고찰하였다.

가. 개요

Social Farming은 농장에서의 그린케어로 농업과 원예 등 모든 종류의 활동이며, 전문적이고 취미활동을 포함한다.

벨기에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농업의 제공자 유형을 살펴보면, 전문적인 농부로서 케어팜 운영(621), 농업과 관련된 회사에서 케어팜 운영(승마학교, 정원사)(166), 소규모 프로젝트(개인, 비영리)(114), 기관의 농장(케어팜을 가진 복지 기관)(23), 농업/원예활동 (신체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31) 등이 있다.

벨기에 Social Farm은 유럽 내에서도 독특한 유형으로 소규모의 1:1 관계, 친숙함¹³⁵⁾,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참여(유용한 활동), 농민협회 소속, 강력한 체제와 지원 등의 특징이 있다. 그 목적은 사회적 통합(규칙적인 일상 리듬, 사회적 관계 등), 개개인의 발전(자신감 재정립), 태도(독단성, 책임감 등), 휴식, 기술(비평가 문제에 대한 처리 등) 등이 있다.

벨기에의 사회적 농업 협력기관으로 신체적 장애(37%), 정신 장애(34%), 교육(14%), 청소년/자가 케어(6%), 기타(3%) 등이 있다. 참가자 유형은 성인 개인이 40% 비율로 가장 높고, 성인 그룹 33%, 미성년자 개인 27% 순이다(Figure 4).

벨기에 사회적 농업의 참여 빈도는 강도에 따라 0.5일(4시간)/14일에서 7시간/7일, 기간은 1주 ~ 10년 이상(도입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케어 중)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134) Steunpunt Groene Zorg, 2018, Social Farming in Flanders. Organization and Policy(국외연수 수집 자료) 요약·정리

135) 2017년 2,250명의 봉사자(assistant farmers)가 600여 개의 사회적 농장으로 퍼져 활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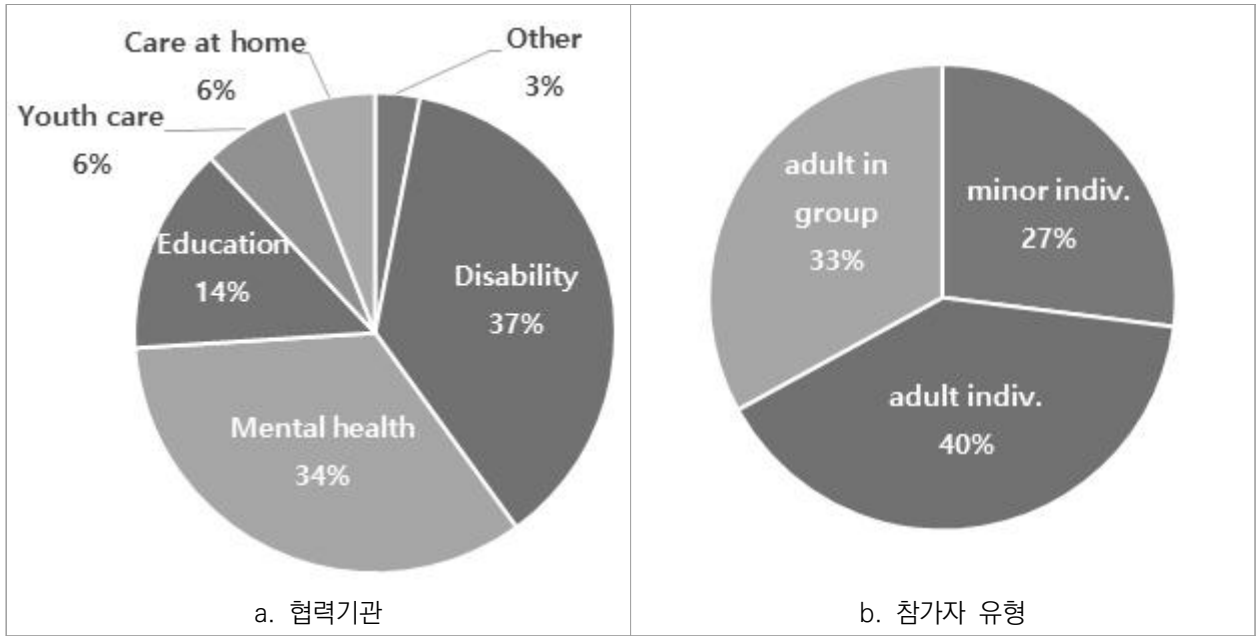


Figure 4. 사회적 농업 협력기관과 참여자

나. 운영체제

벨기에에서 복지와 농업의 협력관계(cooperation welfare-agriculture)는 사회적 농업 합의(social farming agreement)에 의해 삼자 관계(a triangular relationship)로 지원되고 있다. 복지기관(welfare institution)에서 농가(care farm)와 봉사자(assistant farmer)를 연계시키며, 농가와 어시스턴트와의 관계는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농가에서 어시스턴트가 필요하면 복지기관에 요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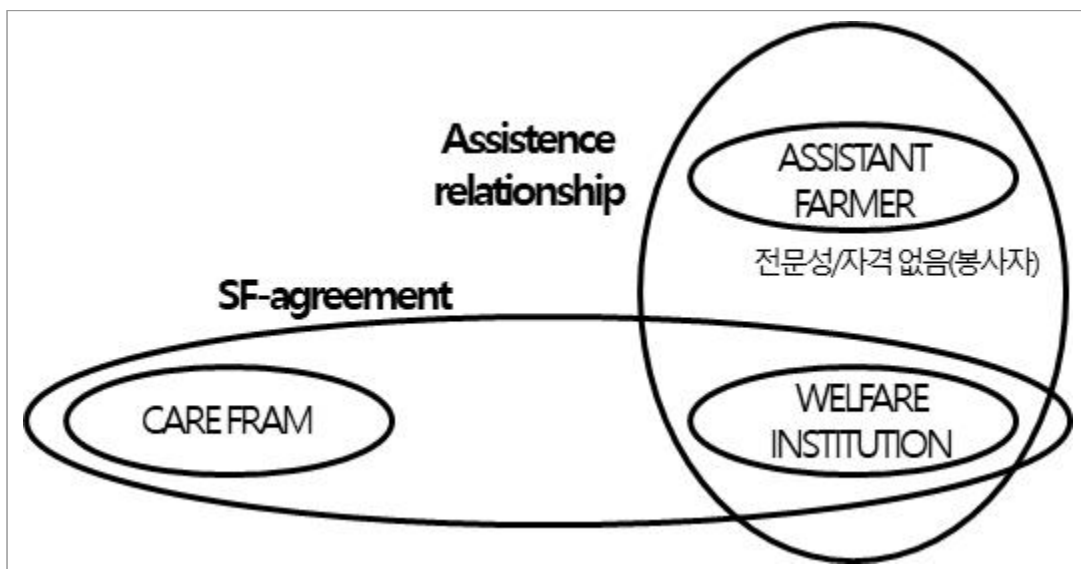


Figure 5. 복지와 농업의 협력 관계

벨기에에서는 사회적 농업 합의를 통해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는 케어팜을 원칙으로 하고 활동 계획(목적성, 책임감, 평가)과 실용적인 측면(주 단위의 스케줄, 정보 전달 등)을 강조한다. 사회적 농업 합의 법 체계에는 사회적 권리 보존(Preservation of social rights)과 노동법(Labour legislation), 보안 및 위생(Security and hygiene), 사생활 존중(Respect for privacy), 보험(Insurance) 등이 있다.

자원 봉사자에게 필요한 역량으로는 경청, 공감, 계획과 조직, 유연성, 신뢰성, 조언/흥미 유발, 자기 이해, 독단성, 사람에게 집중 등이 있다(Table 3).

Table 3.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역량

필요한 역량	
경청, 공감	계획과 조직
유연성	신뢰성
조언/흥미 유발	자기 이해
독단성(assertivity)	사람에게 집중

다. 그린케어지원센터: Support Center for Green Care(SCGC)

SCGC는 2004년 농부협회와 여성농업인 조직, 후원 기금으로 설립되었다. 전문적으로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0.5FTE¹³⁶⁾/province)과 중앙 지원(1FTE central operation)을 받고 있다. SCGC의 주요 업무는 서비스와 관심사 돌보기, 교육과 정보, 지식과 연구 등으로 상세내용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SCGC의 주요 업무

A. 서비스: 요구자와 제공자를 매칭	B. 관심사 돌보기
원칙: 양질을 보장하면서 성공적인 매칭 • 사회적 농장의 전망 - 정보 제공, 동기부여 조사, 기대, 농장의 기회 • 사회 기관의 요청 예측 - 등록 양식: 동기부여, 배경, 선호, 유동성 - 950개/년 요청 • 지원 - 사회적 농업의 고객/복지기관 첫 만남 - 계약/보조금 집행 • 질문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상담	• 사전 조건의 최적화 - 보조금 - 양질의 가이드 발행 - 단체 보험 제안 - 정부와 통솔 기구가 직면한 케어팜 위치 선정
C. 교육과 정보	D. 지식과 연구
주제: 사생활, 보험, 보안, 타켓 그룹의 특성 등 • 정보와 소개의 만남(농부와 사회적 직원) • 프로모션 활동(축제, 언론 등) • 전문 저널에 기고 • 전자잡지/홈페이지(www.groenezorg.be)	• 연구결과 후속조치 - 사회적, 경제적 가치, 성공하기 위한 조건, 필요한 지원 등 • 플랑드르(Flanders)와 해외 • 웹사이트를 통한 공개

136) FTE: Full time equivalent, 전일종사 노동자



라. 정부정책

플랑드르주(Flanders)는 농업과 농촌지역개발정책으로 케어팜의 정부보조금과 투자보조금,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 예) SCGC(2007, 2009-2010))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웰빙 정책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개인 예산(사회적 농가에서 예산 사용 가능)을 지원한다.

정부-플랑드르 사회적 농업 보조금 정책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림부 재정적인 인센티브 지원, 시간 보상 등을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비영리 조직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 전업/겸업 농가 또는 원예 농가, 복지부에 인정을 받은 복지기관이나 카운슬링센터의 학생들이다.

사회적 농업 협정으로 농가당 하루 40€(net 33.4€)를 지원하고 있다. 벨기에 사회적 농업 협정은 가장 큰 특징은 고객수와 무관(고객이 한 명이나 10명이나 지원금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기관의 비용(식사, 숙박 등)을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 앞으로의 과제

벨기에 플랑드르주의 사회적 농업은 앞으로 케어에 더 집중하는 케어팜과 더 높은 레벨의 케어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더 많아짐으로써 다양성을 추구하고 치유 농부의 보수와 전문성, 1:1 관계 유지, 전문적인 힐링 섹터-치유 농부의 비공식적인 위치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국외 주요 치유농업 사례¹³⁷⁾

가. 영국 웰게이트 시티팜

웰게이트 시티팜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교육과 연수, 치료 등의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1982년에 설립하였다. 교육형 프로그램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교육형 프로그램 운영

- 이동형 방문 : 아동의 특별한 날에 농장에서 초등학교로 동물이동 케어
- 팜 방문 : 지역 초등학교 커리큘럼과 연계되어 학생·교사의 농장 방문 및 체험
- 직업연수 프로그램 : 지역 중등학교에서 이탈한 청소년의 일자리 제공
- 계절 이벤트 : 수확철 학교에 수확 바구니 제공

□ 치료 프로그램 운영

- 자존감이 부족한 14세~19세 탈선 청소년 치료프로그램을 지역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추진

나. 그리스 카산드라교도소 농장

교도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하여 재배기술 연수 등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효과가 높으며, 출소 후 재범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네덜란드 와게닝겐 시티팜(헛 파라다이스)

노인을 위한 운동 교육 등 치유대상 고객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전문코디네이터, 간호사 등 전문인력 20여 명이 진행)하는 12ha 크기의 농장으로 유기농산물을 생산·판매하는 농장이다. 유기농 상품 판매장에 매주 1,000여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사회적 돌봄서비스와 결합하여 연매출 17억 원의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라. 네덜란드 와게닝겐 데 후이란덴

농장의 동물과 농업을 통한 치유를 중심으로 매일, 매일 계획된 영농활동을 통한 치유에 중점을 두고, 정신과 의사의 처방에 따른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장운영비의 70% 정도가 정부지원금으로 운영하는 특징이 있다. 수입은 체험비와 치유농장의 정부지원금, 생산물 판매금 등이 있다. 의사와의 협업이 중요한데, 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처방에 따라 의뢰 환자들의 치유 활동에 대하여 보조를 받고 있다.

137) '영주시, 2014, 국립 녹색치유농업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농림축산식품부, 2016, 녹색농업치유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요약정리



다. 벨기에 안트베르펜 치유농장

지방정부로부터 27ha의 부지를 제공 받아 치유와 자연보호를 연계하여 동물을 이용한 치유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생동물보호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공익 법인 성격과 민간농장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공공영역의 업무를 민간경영기법으로 운영한다. 설립 당시 시설 투자는 중앙정부 보조 50%, 공공기관에서 토지 기부를 받았고, 현재 기업 등 민간의 후원을 받고 있다. 초기에는 운영비 100% 지원을 받았으나 현재는 주 정부가 85%를 지원하고 15%를 자부담 하고 있다.

바. 영국 Happy Hens

상업적인 원예 및 농업인들을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며, 주로 학교의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Derbyshire의 education authority는 실제 훈련과 교제를 통하여 평화와 희망,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 200마리와 3acre의 채소농장, 회의시설과 파티를 위한 건물, 임대 농장, shop과 tea room을 가진 농장을 투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 영국 Oak Park Care Farm

100acre 습지 자연보호구역과 12acre Special Scientific Interest Site는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 가축, 원예 및 관련 활동을 한다. 모든 서비스 이용자들은 정신건강 및 신체장애를 동반한 장애인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며 특정 그룹을 다루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남성 이용자들을 고용한다.

아. 영국 Uncllys Farm

Wyre Community Land Trust 사람들을 6명/일, 4일/주 고용하여 300acre의 과수원과 초원, 숲 관리를 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동물 먹이 주기, 식물 심기, 울타리 치기, 건초 만들기, 사과 따기 등의 농장일이다.

Worcestershire County Council의 Drug and Alcohol Action Team(DAAT)의 도움으로 3개의 클라이언트 그룹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약물중독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 알코올 중독자, 학습장애를 가진 성인
- 치매 등 정신건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자. 영국 Wildgoose Rural Training

지역사회의 멤버들에게 트레이닝과 교육,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00acre의 일반 농장 안에 Rural Training을 포함한 농장 업무와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2acre의 치유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상점에서 농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훈련은 실내와 실외에서 시행하고 토지 기반 기술을 중심으로 한다.

- 클라이언트: 주로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 교육시스템에서 소외된 사람
- 일주일에 한 번, 3~4명의 학생 그룹이 일함

차. 시사점

주요 선진국의 그린케어 정책을 살펴보면, 농업에 교육과 치유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린케어 지원은 농림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나 보건기관, 병원,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 등 다양한 단체가 연계체계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이용객(클라이언트)은 일반인이나 교육/학습치유가 요구되는 사람들, 취업이 필요한 사람들, 약물중독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 학습장애를 가진 성인, 치매 등 정신건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등 사회적 약자와 사회 부적응자, 지적장애, 지체장애 등 다양하다.

그린케어 프로그램 역시 교육형/치료 프로그램, 상업적인 원예 및 농업인들을 위한 직업훈련, 노인을 위한 운동 교육, 농업과 동물을 이용한 치유, 정신건강 및 신체장애를 동반한 장애인을 다루는 방법 등 대상 고객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린케어 운영비는 정부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공공기관의 기부나 민간기업의 후원, 농산물 판매수익(사회적 기업 등) 등 자체수익, 자부담 등으로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다.



Table 5. 국외 주요 치유농업 사례

사례	주요 내용
영국 웰게이트 시티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구성원의 교육과 연수, 치료 등을 위한 공간 제공 목적으로 1982년 설립 □ 교육형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형 방문 : 아동의 특별한 날에 농장에서 초등학교로 동물이동 케어 - 팜 방문 : 지역 초등학교 커리큘럼과 연계되어 학생·교사의 농장 방문 및 체험 - 직업연수 프로그램 : 지역 중등학교에서 이탈한 청소년의 일자리 제공 - 계절 이벤트 : 수확철 학교에 수확 바구니 제공 □ 치료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존감이 부족한 14세~19세 탈선 청소년 치료프로그램을 지역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추진
그리스 카산드라교도소 농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소자를 대상으로 하여 재배기술 연수 등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출소 후 재범률이 감소 소, 돼지, 양, 새, 말 사육장과 밀, 옥수수 재배지 270ha, 과수원 2,000주 운영
네덜란드 와게닝겐 시티팜 (헛 파라다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을 위한 운동 교육 등 치유대상 고객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전문코디네이터, 간호사 등 전문인력 20여 명이 진행), 12ha 농장에서 유기농산물 생산판매 유기농 상품 판매장 운영: 매주 1,000여 명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돌봄서비스와 결합, 연매출 17억 원의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
네덜란드 와게닝겐 데 후이런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장의 농업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과 농업을 통한 치유를 중심으로 매일, 매일 계획된 영농활동을 통한 치유에 중점 - 정신과 의사의 처방에 따른 활동프로그램 운영 농장운영비의 70% 정도가 정부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은 체험비와 치유농장의 정부지원금, 생산물 판매금 등으로 구성 의사와의 협업이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적용 등을 위한 의사의 처방 필요 -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뢰 환자들의 치유 활동에 대하여 보조를 받음
벨기에 안트베르펜 치유농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정부로부터 27ha의 부지를 제공 받아 치유와 자연보호를 연계하여 운영 동물을 이용한 치유 및 체험프로그램으로 야생동물보호까지 영역 확장 공익 법인 성격과 민간농장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공공영역의 업무를 민간경영기법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당시 시설투자에 중앙정부 보조 50%, 공공기관 토지 기부, 현재 기업 등 민간 후원 - 운영비: 초기에는 100% 지원을 받았으나 현재는 주정부 85% 지원, 자부담 15%
영국 Happy He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적인 원예 및 농업인들을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 양 200마리, 3acre 채소농장, 회의시설과 파티를 위한 건물, 임대 농장, shop과 tea room을 가진 농장 투어 주로 학교의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Derbyshire의 education authority는 실제 훈련과 교제를 통하여 평화와 희망,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닭을 치는 일은 경영이 쉬우며 시장 잠재력이 있음 - 작품을 창작할 수 있고 매일 수입이 있다는 이점
영국 Oak Park Care Fa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acre 습지 자연보호구역과 12acre Special Scientific Interest Site는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기회 제공, 가족, 원예 및 관련 활동 작업 모든 서비스 이용자들은 정신건강 및 신체장애를 동반한 장애인을 다루는 방법을 배움 특정 그룹을 다루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남성 이용자들을 고용 농장은 치유농업 활동에 숙련되고 계획성 있는 사람들을 선택
영국 Uncllys Fa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Wyre Community Land Trust 사람들을 6명/day, 4일/week 고용하여 300acre의 과수원과 초원 숲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활동: 동물 먹이주기, 식물 심기, 울타리 치기, 건조 만들기, 사과 따기 등의 농장일 Worcestershire County Council의 Drug and Alcohol Action Team(DAAT)의 도움으로 3개의 클라이언트 그룹을 대상으로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약물중독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2. 알코올 중독자, 학습장애를 가진 성인 3. 치매 등 정신건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영국 Wildgoose Rural Trai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의 멤버들에게 트레이닝, 교육 및 치료의 기회 제공 500acre의 "일반"농장 안에 Rural Training을 포함한 농장 업무와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2acre의 치유농장 운영 상점에서 농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 훈련은 실내와 실외에서 시행, 토지 기반 기술을 중심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이언트: 주로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 교육시스템에서 소외된 사람 - 일주일에 한 번, 3~4명의 학생 그룹이 일함

IV 그린케어 도입 방안

1. 시설물 운영 실태

경남지역의 농촌지역개발사업 중에서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이나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을 추진/완료한 22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시설물의 운영/관리 현황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결과(Table 6), 시설물의 운영 주체는 대부분 마을주민(운영/추진위원회, 영농법인)이고, 일부 면 복지회관이나 테마공원 전시관은 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관리비용 마련은 센터나 체험관 등 소득시설이 있는 지구는 기금이나 수익, 마을자금 등으로 자체운동을 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그 외 지자체의 지원, 타부서 연계사업,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사 대상지구의 조직구성은 영농조합법인(14개), 협동조합(2개), 기타(6개, 추진위원회, 추진 중,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상지구의 시설물 운영관리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시설운영관리비와 인건비 지원에 대한 의견이 다수였다. 시설물(문화센터)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주 운영인력이 3명 정도 필요하지만, 인건비 조달 여력이 없어 혼자 운영을 하고 있으며, 행사나 방문객이 많을 시 운영위원이나 마을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 운영비나 관리비 자체 해결에 대한 어려움, 권역을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따름, 초기단계에서 권역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하기 어려움 등의 의견이 있다.



Table 6. 농촌체험시설 시설물 운영 실태

권역(마을)명	사업기간	공사 위탁 유무	총사업비	H/W (시설 투자비)	S/W (역량강화 사업비)	시설명	시설규모 (㎡)	시설물 형태	연간 방문자/ 이용자 수(명)	정규직	비정규직	운영 주체	유지관리비용 조달	운영 개시일 (연월)	현재 운영 여부
○○권역	2006~2011	○	7,479	5,586	633	○○센터	529	센터	8,250			운영위원회	기부금	2010.1.	○
○○권역	2006~2011	○	7,479	5,586	633	○○광장	2,099	광장	7,150			운영위원회	지자체	2010.1.	○
○○권역	2006~2011	○	7,479	5,586	633	○○체험공원	760	공원	5,600			운영위원회	지자체	2010.1.	○
○○권역	2006~2011	○	7,479	5,586	633	체험공간조성	1식	펜션	950			운영위원회	기부금	2010.1.	○
○○권역	2006~2011	○	7,479	5,586	633	○○휴양촌	1,897	휴양시설	4,420			운영위원회	기부금	2012.1.	○
○○권역	2006~2011	○	7,479	5,586	633	○○체험시설	37	놀이장	1,500			운영위원회	기부금	2012.1.	○
○○권역	2011~2016	○	7,000	6,415	585	○○놀이마당	882	센터	12,000	1		운영위원회	권역운영기금	2016.5.	○
○○권역	2011~2017		6,820	6,351	469	센터 및 숙박시설	996	소득시설				운영위원회		2010	○
○○권역	2011~2017		6,820	6,351	469	○○체험시설	312	소득시설				운영위원회		2010	○
○○권역	2011~2017		6,820	6,351	469	체육시설 및 캠핑장	4,354	소득시설				운영위원회		2010	○
○○테마공원	2011~2018	X	9,660	5,018	148	○○전시관	339	센터	1,000		1	○○군	지자체	2018.1.	○
○○권역	2012~2016	○	6,881	6,532	349	○○캠프	1,130	소득시설	9,940	3	15	○○법인	타부처	2017.3.	○
○○권역	2012~2017	○	3,650	3,261	351	○○복지회관	996	센터	50			추진위원회	기타	2016.9.	○
○○권역	2012~2017	○	3,650	3,261	351	○○경기장	1,819	소득시설	100			추진위원회	기타	2016.9.	○
○○권역	2012~2017	○	3,650	3,261	351	○○광장	2,069	센터	50			추진위원회	기타	2016.9.	○
○○권역	2012~2017	○	4,200	3,410	248	○○센터	791	센터	7,000			운영위원회	기부금	2017.2.	○
○○권역	2012~2017	○	4,200	3,410	248	○○나눔터	194	마을회관	3,000			운영위원회	지자체	2017.2.	○
○○권역	2012~2017	○	4,200	3,410	248	○○나눔터	442	마을회관	4,000			운영위원회	지자체	2017.2.	○
○○권역	2012~2018	○	5,795	4,450	450	커뮤니티센터	436	센터	150	1		운영위원회	자체수익	2017.3.	○
○○권역	2012~2018	○	5,795	4,450	450	공동생활홈	296	공동홈	170			운영위원회	자체수익	2017.3.	○
○○마을	2013~2017		4,800	4,309	491	○○광장	4,805	센터		1		운영위원회	자체운영	2018.1.	○
○○마을	2013~2017		4,800	4,309	491	○○운동장	6,315	운동장				운영위원회	자체운영	2018.1.	○
○○권역	2013~2017	○	4,280	3,747	383	○○문화센터	492	센터	3,200	1	2	운영위원회	기타(운영수익)	2017.12.	○
○○권역	2013~2017	○	4,280	3,747	383	○○산책로	580	경관시설	3,200			운영위원회	기타(운영수익)	2017.12.	○

권역(마을)명	사업기간	공사 위탁 유무	총사업비	H/W (시설 투자비)	S/W (역량강화 사업비)	시설명	시설규모 (㎡)	시설물 형태	연간 방문자/ 이용자 수(명)	정규직	비정규직	운영 주체	유지관리비용 조달	운영 개시일 (연월)	현재 운영 여부
○○권역	2013~2017	○	4,280	3,747	383	마을공동주차공간	1,161	주차장	3,200	1	2	운영위원회	기타(운영수익)	2017.12.	○
○○권역	2013~2017	○	4,500	3,247	429	○○센터	2,255	센터	100	1	1	운영위원회	자체기금	2018.1.	○
○○권역	2013~2018	○	6,929	6,439	490	도농교류센터	655	센터	300		1	운영위원회	자체기금	2018.1.	○
○○권역	2013~2018		4,370	3,967	403	○○센터	724	센터	150			운영위원회	자체	2017.9.	○
○○권역	2013~2018		4,370	3,967	403	○○체험장	122	체험장							
○○권역	2013~2018	○	5,000	3,800	400	복합커뮤니티센터	841	센터	100	1		운영위원회	자체수익	2017.12.	○
○○권역	2013~2018	○	5,000	3,800	400	다목적실내체육관	680	체육관	100			운영위원회	자체수익	2017.12.	○
○○권역	2013~2019	○	4,990	3,163	434	○○센터	295	센터				○○법인		2019 예정	X
○○권역	2013~2019	○	4,990	3,163	434	○○마을회관	84	마을회관				마을주민		2018.12.	X
○○권역	2013~2019	○	4,990	3,163	434	○○마을경로당	80	경로당				마을주민		2018.12.	X
○○권역	2013~2019	○	4,990	3,163	434	마을숲정비	19,519	주차장, 경관조성				마을주민		2018.3.	○
○○권역	2014~2017	○	3,460	3,101	359	○○숲	2,857	공원	5,000		6	운영위원회	마을기금	2018.7.	○
○○권역	2014~2017	○	3,460	3,101	359	○○마을교	45	다리	-			운영위원회	-	-	-
○○권역	2014~2018		5,000	4,717	283	○○마을회관	165	마을회관				운영위원회	자체지금	2016.6.	○
○○권역	2014~2018		5,000	4,717	283	○○쉼터	2,865					운영위원회	자체지금	2016.6.	○
○○권역	2014~2018		5,000	4,717	283	○○체육시설	327					운영위원회	자체지금	2018.1.	○
○○면소재지	2014~2018		7,000	6,834	166	주말장터	3,084					운영위원회	자자체	2017.5.	○
○○면소재지	2014~2018		7,000	6,834	166	○○공원	1,802	공원				운영위원회	자자체	2017.5.	○
○○면소재지	2014~2018		7,000	6,834	166	벽체 조성	5,300	경관시설				운영위원회	자자체	2017.3.	○
○○권역	2014~2018	○	2,250	1,692	212	다목적센터	637.76	권역센터	-			운영위원회	마을기금	2018.11.	X
○○면	2015~2018	○	5,286	4,308	300	○○면 복지회관	2,703	복지회관	14,000			○○군	자자체	2018.10.	○
○○면	2015~2018	○	5,286	4,308	300	○○회관	1,146	마을회관	1,265			운영위원회	기타		X
○○면	2015~2018	○	5,286	4,308	300	○○회관	1,281	마을회관	1,199			운영위원회	기타		X
○○마을	2016~2017	○	479	337	142	○○체험관	203	소득시설	100			운영위원회	기타	2018.2.	○



2. 그린케어 도입 의향 조사

경남지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권역(마을) 운영/추진위원장/마을주민, 컨설팅사 직원을 대상으로 농촌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그린케어 적용 방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가. 조사개요

- 1) 조사방법: 방문조사, 이메일 조사 병행
- 2) 조사대상: 경남지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권역(마을) 운영/추진위원장/마을주민, 컨설팅사 직원
- 3) 조사 항목
 - 일반현황
 - 시설물 현황 및 운영 실태
 - 그린케어(Green Care) 도입 및 운영 방안
 - 향후 지속성 확보 방안
- 4) 조사 분석: SPSS 21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다중응답(복수응답)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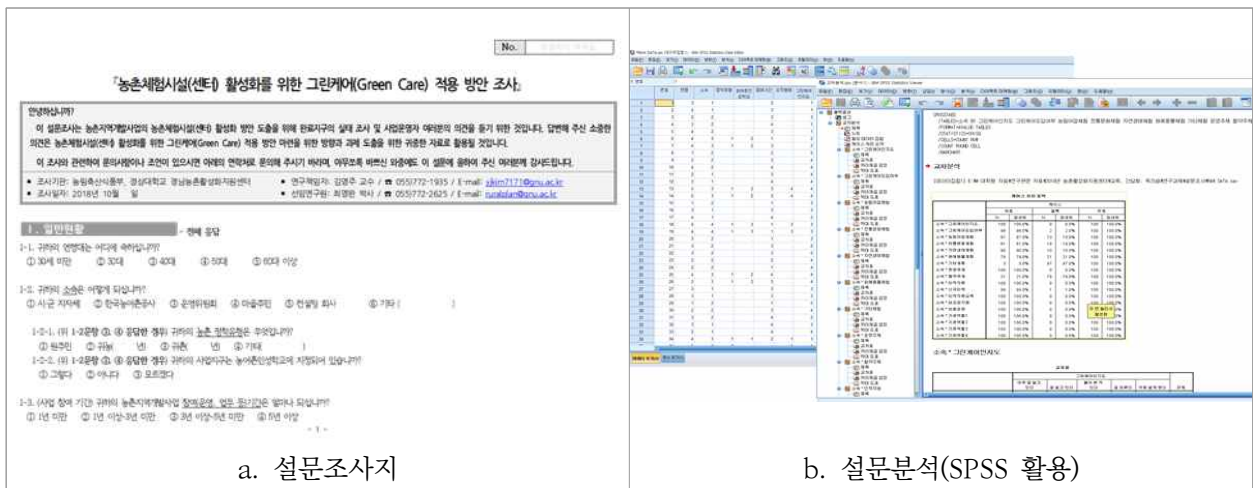


Figure 6. 그린케어 적용 방안 조사

나. 일반현황

시설물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그린케어 적용 방안에 대한 조사에 시·군 공무원(26명), 한국농어촌공사 직원(39명), 권역(마을) 운영/추진위원장/마을주민(28명), 컨설팅사 직원(7명) 등 100명이 응답하여 설문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40대가 30%로 가장 많았고, 50대 31%, 30대 22%, 60대 이상 9%, 30세 미만 8%로 나타났다. 사업/운영 참여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이 31%, 3년 이상~5년 미만 28%, 5년 이상 25%, 1년 미만 16% 순으로 나타났다. 3개 권역이 농어촌인성학교로 지정되어 있으며, 마을주민의 정착 유형은 원주민이 96%, 귀촌 4%이다(Figure 7).

다. 그린케어 인지도

그린케어 인지도 조사에서 Figure 8과 같이 전체의 17%가 알고 있다고 응답, 41%가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운영/추진위원회, 마을주민의 인지도(11%)가 낮고 컨설팅사 직원(42%)과 공무원(19%), 한국농어촌공사 직원(18%)은 비교적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Figure 8).

라. 그린케어 도입

그린케어 도입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의 56.1%가 그린케어/체험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Figure 9). 특히, 주민(운영/추진위원회 66.7%, 마을주민 50%)의 그린케어/체험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 새로운 시설물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린케어 도입시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자연생태체험, 전통문화체험, 농림어업체험, 동물원예체험 순으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동물원예체험의 경우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Figure 10~13).

그린케어를 도입할 경우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농림어업체험은 물고기잡이, 고구마캐기, 과일따기, 갯벌체험, 농번기영농체험, 스마트팜 교육, 수확체험, 농촌일자리체험, 텃밭가꾸기체험, 친환경농업 등, 전통문화체험은 도깨비 탈만들기, 벼 탈곡체험, 손모심기, 도자기만들기체험, 정월대보름행사, 마을행사 등, 자연생태체험은 물놀이, 야영, 목걸이만들기, 비누만들기, 문패만들기, 갯벌체험, 숲체험(교육, 놀이, 모험), 맞춤형프로그램(연령별, 건강증진, 정서함양), 원예치료, 생태치료, 자연명상체험 등, 원예 및 동물체험은 동물위탁(일주일동안 보살피기), 원예치유, 동물먹이주기, 화훼가꾸기, 채소가꾸기, 치유농장(치유농업전문상담사 연계)(사회적 약자 등 공동생활을 병행한 텃밭, 동물돌보기, 정원 작업+요리, 댄스, 치료 마사지+친환경 먹거리), 동물치료 등을 꼽았다(Tabl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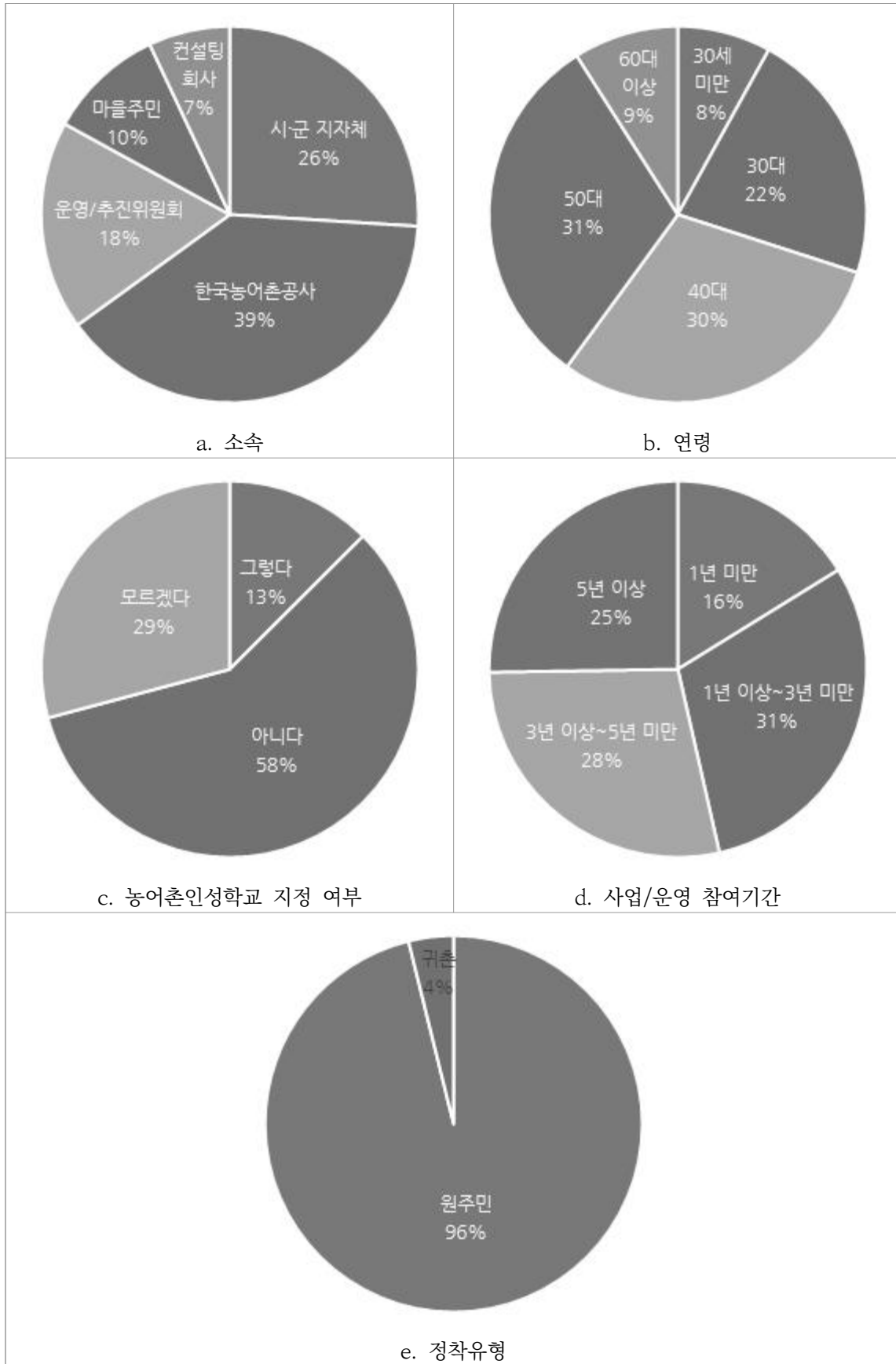


Figure 7.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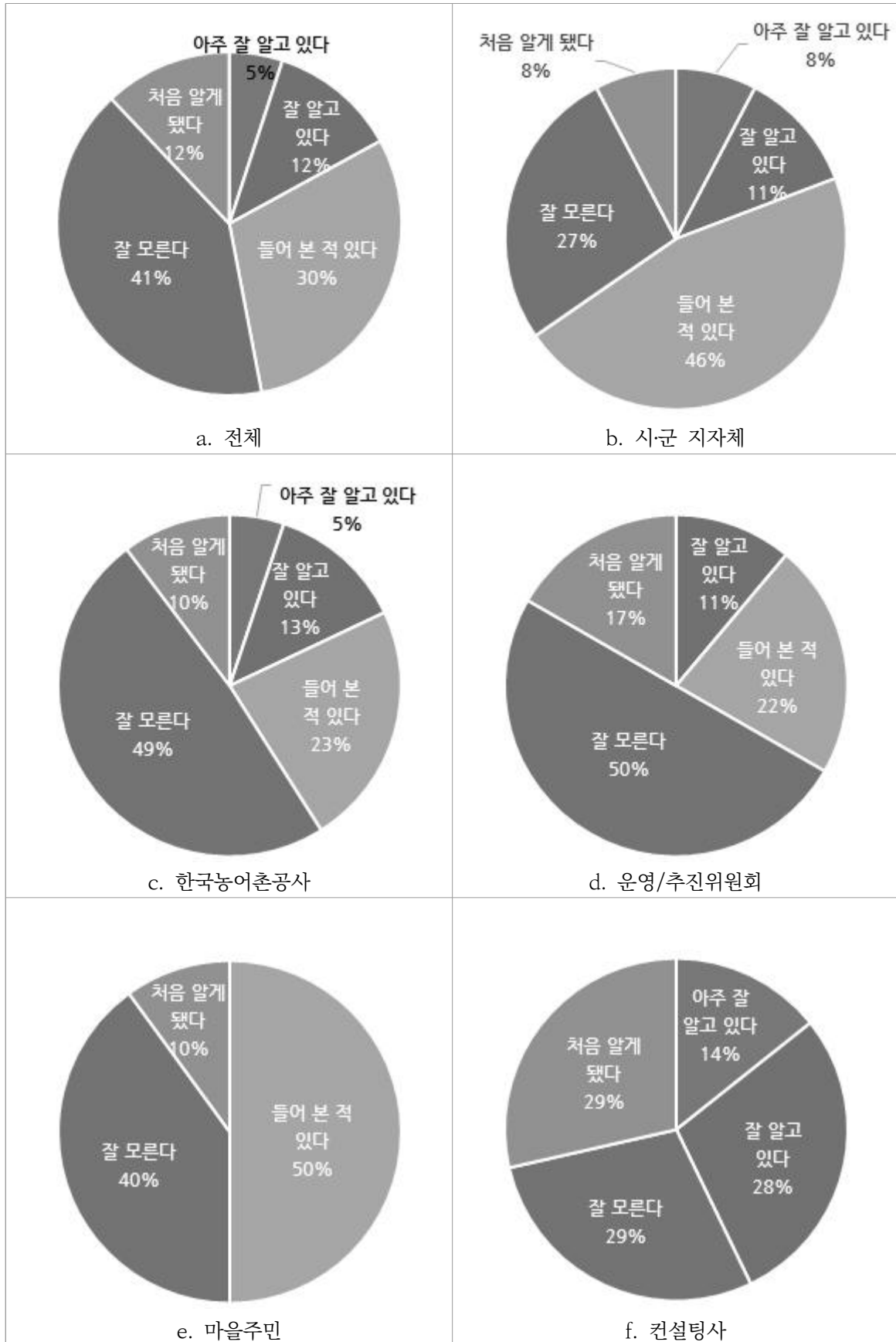


Figure 8. 그린케어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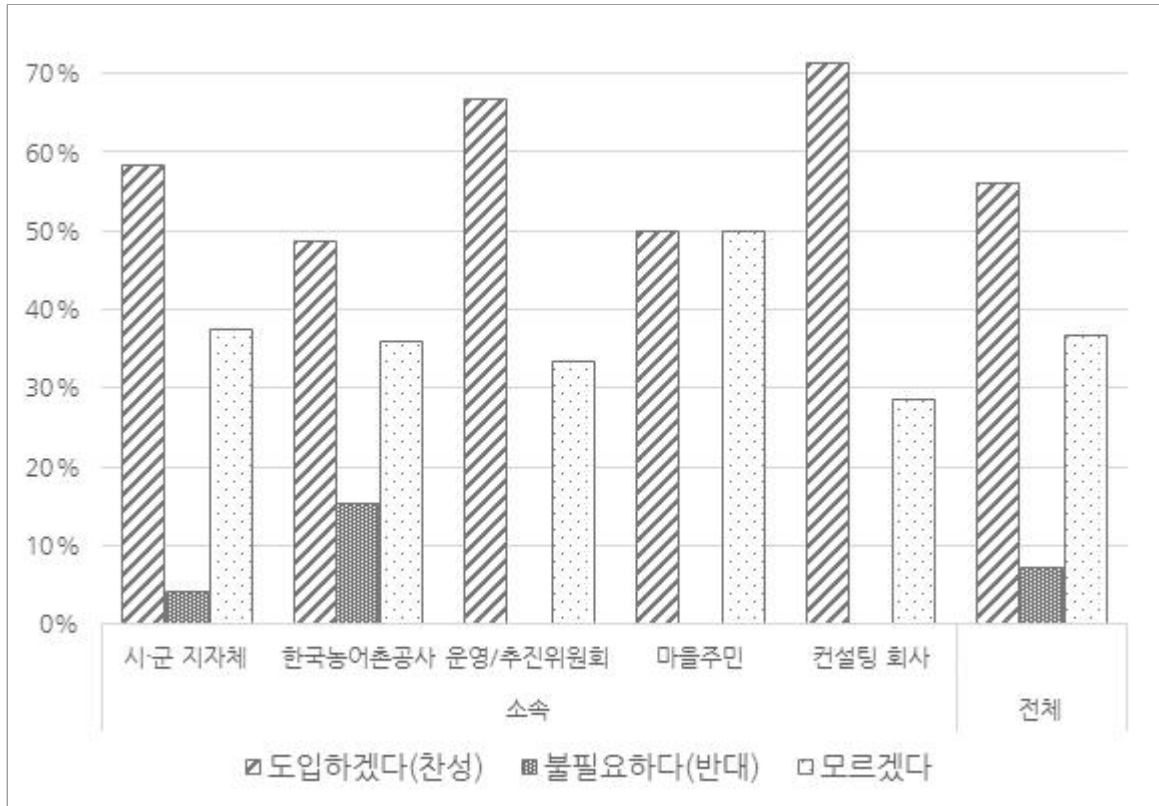


Figure 9. 그린케어 도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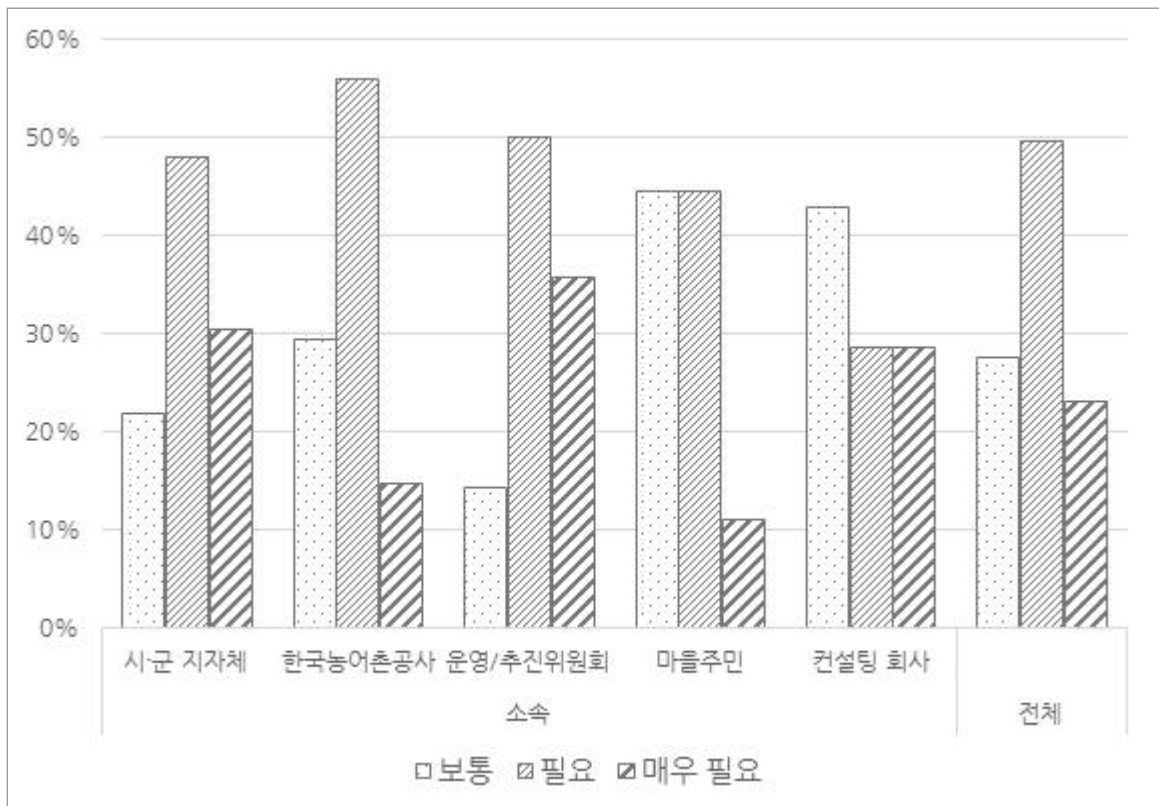


Figure 10. 그린케어 도입_농림어업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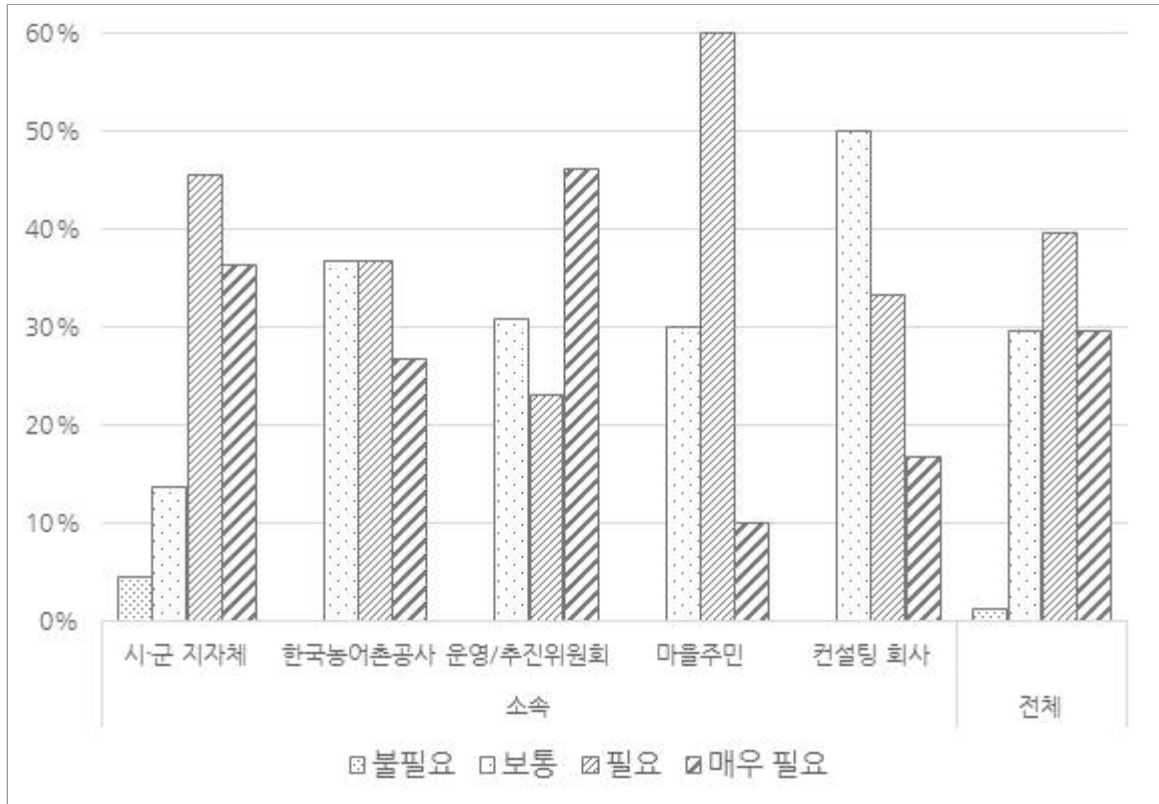


Figure 11. 그린케어 도입_전통문화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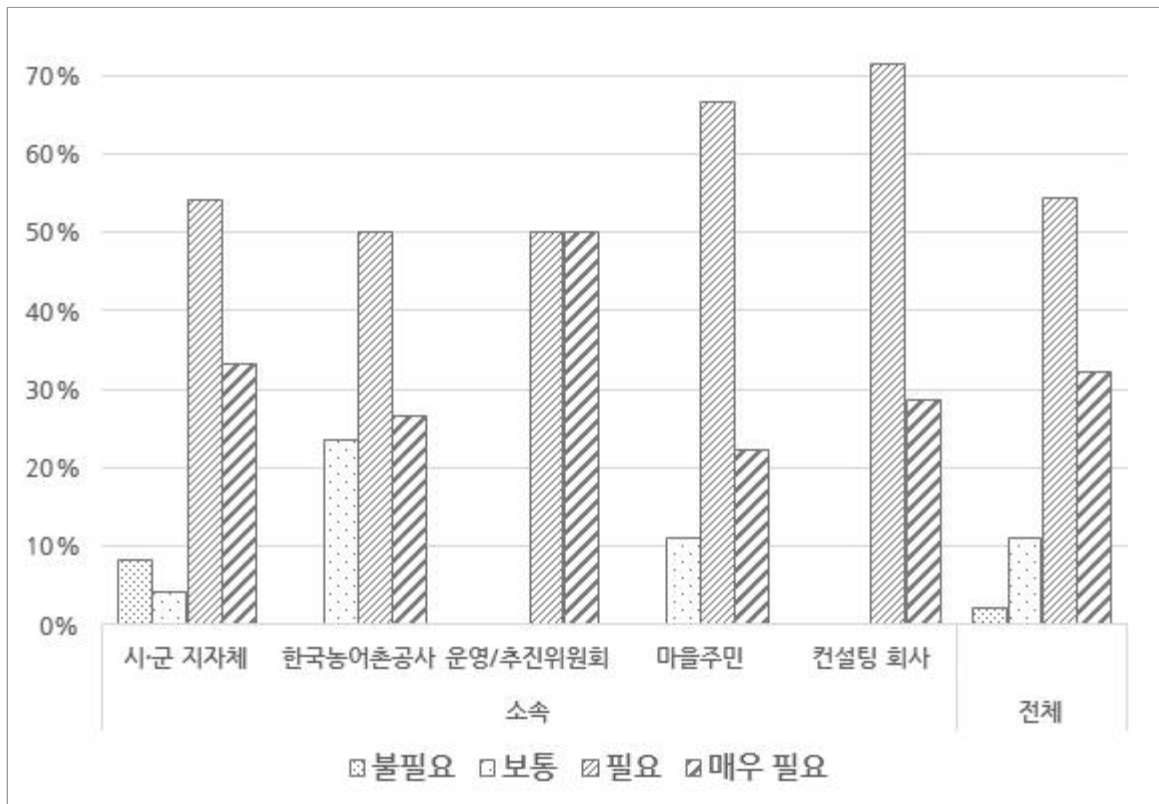


Figure 12. 그린케어 도입_자연생태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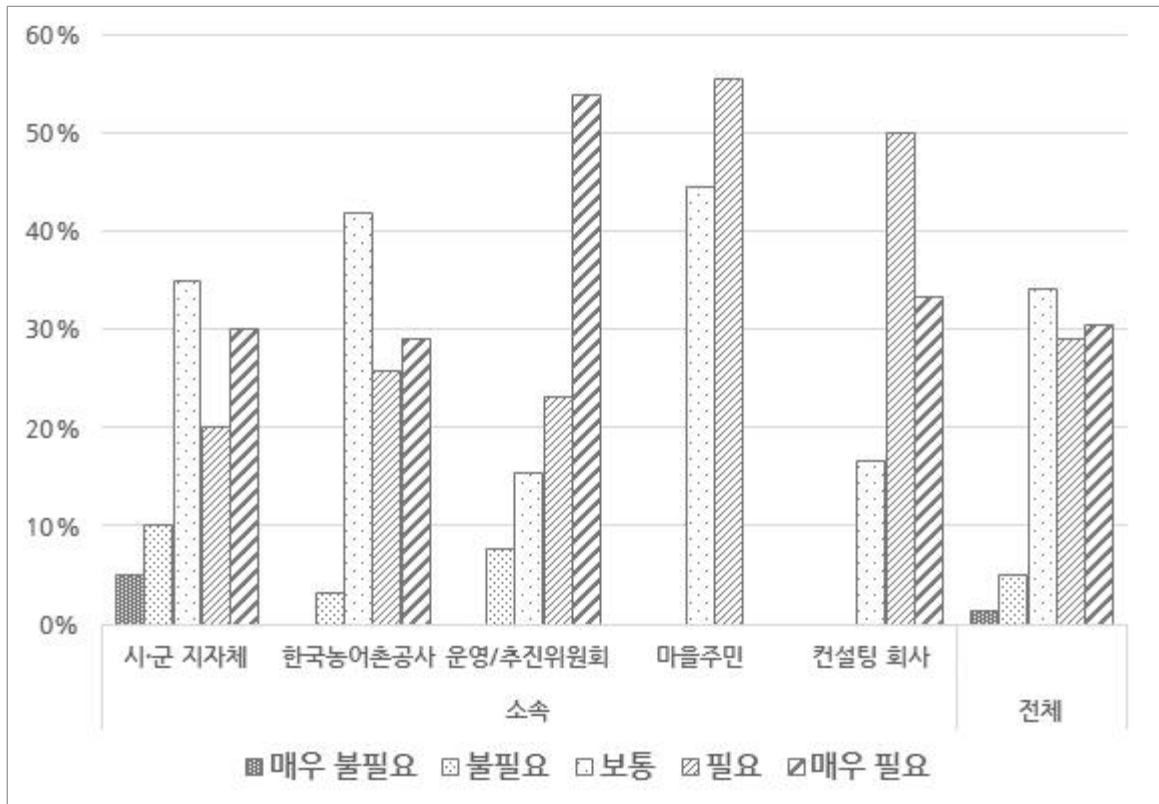


Figure 13. 그린케어 도입_동물원예체험

Table 7. 그린케어 도입할 경우 운영시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 종류	필요한 체험 종류
농림어업 체험	물고기잡이, 고구마캐기, 과일따기, 갯벌체험, 농번기 영농체험, 스마트팜 교육, 수확체험, 농촌 일자리 체험, 텃밭가꾸기 체험, 친환경 농업, 농촌체험
전통문화 체험	도깨비탈만들기, 벼 탈곡체험, 손모심기, 도자기만들기체험, 정월대보름행사, 마을행사
자연/생태 체험	물놀이, 야영체험, 목걸이만들기, 비누만들기, 문패만들기, 갯벌체험, 숲체험(교육, 놀이, 모험), 맞춤형 프로그램(연령별, 건강증진, 정서함양), 원예치료, 생태치료, 자연명상체험
원예 및 동물체험	동물 위탁(일주일동안보살피기), 원예치유, 동물 먹이주기, 화훼가꾸기, 채소 가꾸기, 치유농장(치유농업전문상담사 연계)-(사회적 약자 등 공동생활을 병행한 텃밭, 동물 돌보기, 정원 작업+요리, 댄스, 치료 마사지+친환경 먹거리), 동물치료

마. 그린케어 도입시 운영 형태

시설물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그린케어 도입시 운영형태 조사에서 참여형태는 숙박형(59%)을 가장 선호했고, 당일형(35%), 주중형(6%) 순으로 응답하였다(Figure 14-a). 이용대상은 일반(교육/학습 치유, 취업이 필요한 집단 등, 85%), 사회적 약자/사회 부적응자(15%)로 나타나 사회적 약자와 부적응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14-b). 이용형태는 단체(학교/기업 등, 49%)를 가장 선호했으며, 개인(28%), 가족(23%), 단체형태는 초등학생(34%),

직장 및 동호회(26%), 유치원생(22%), 중고등학생(10%), 대학생(8%) 순으로 나타나 케어가 가능한 초등학생과 직장/동호회 단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14-c, d).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그린케어 운영을 한다면 그 대상은 정신적 건강 이슈(스트레스, 치매, ADHD 등, 56%), 지적장애(24%), 지체장애(14%), 중독병력(알코올, 약물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Figure 14-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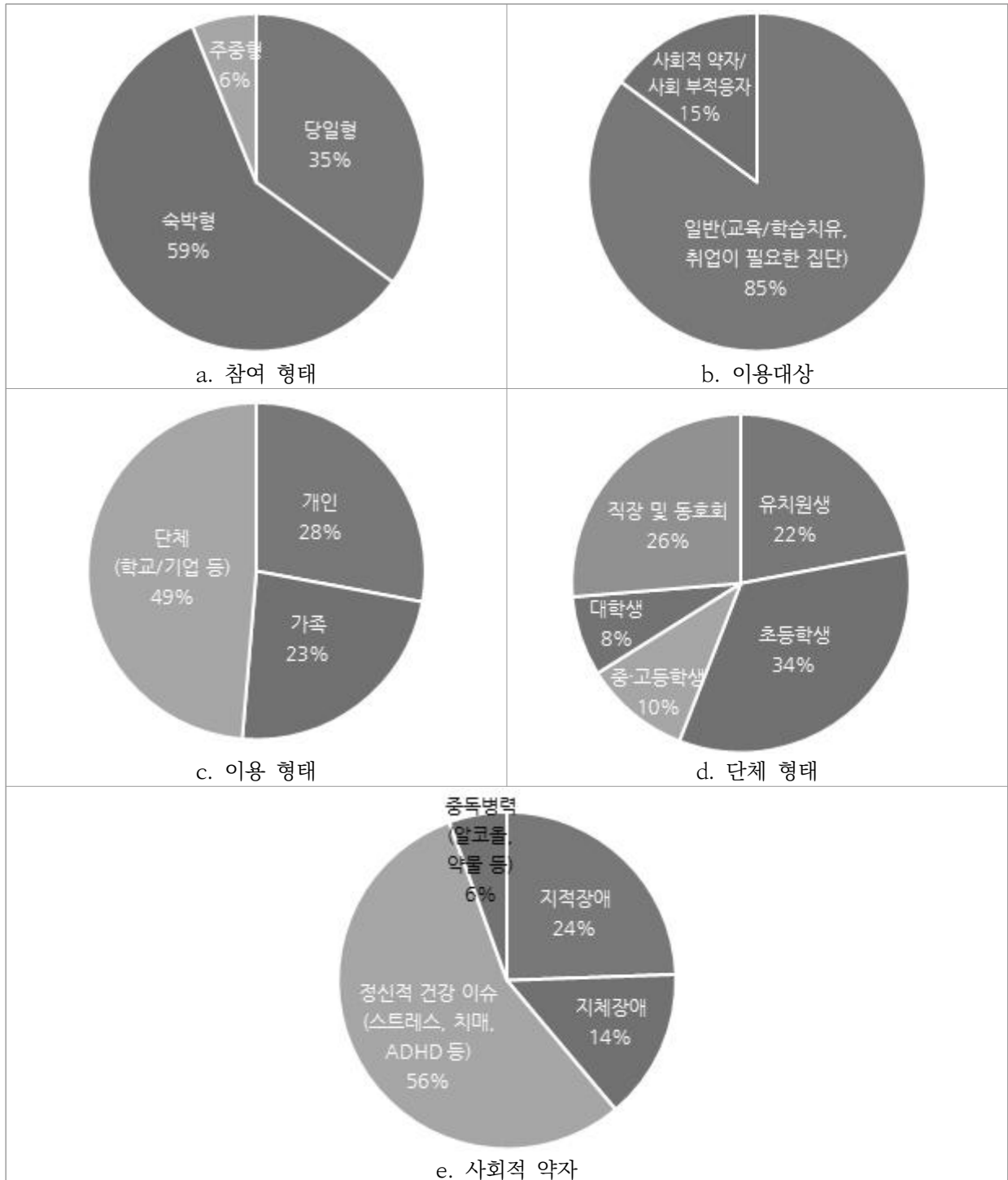


Figure 14. 그린케어 도입시 운영 형태



3. 그린케어 운영 체계

가. 그린케어 운영

그린케어를 도입한다면 운영 주체는 운영위원회 운영이 75%로 가장 높았고, 위탁운영 22%, 기타(지역 보건기관과 MOU 체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운영위원회 산하 전문지도사 고용 방식(사무장 활용이 아닌 전문가 채용) 등) 3%로 나타났다. 시·군 지자체(80.8%)와 한국농어촌공사(79.5%), 마을주민(90%)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지만, 실제 시설물을 운영하는 주체인 운영/추진위원의 경우 위탁운영에 대한 의견이 27.8%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컨설팅사 직원의 경우 위탁운영(42.9%)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았고, 운영위원회 운영과 기타 의견이 각각 28.6%로 응답해 다른 그룹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Figure 15).

위탁운영 응답자는 위탁운영 단체로 심리학 등 치유관련 전문업체나 치유프로그램 운영전문가, 전문기업 등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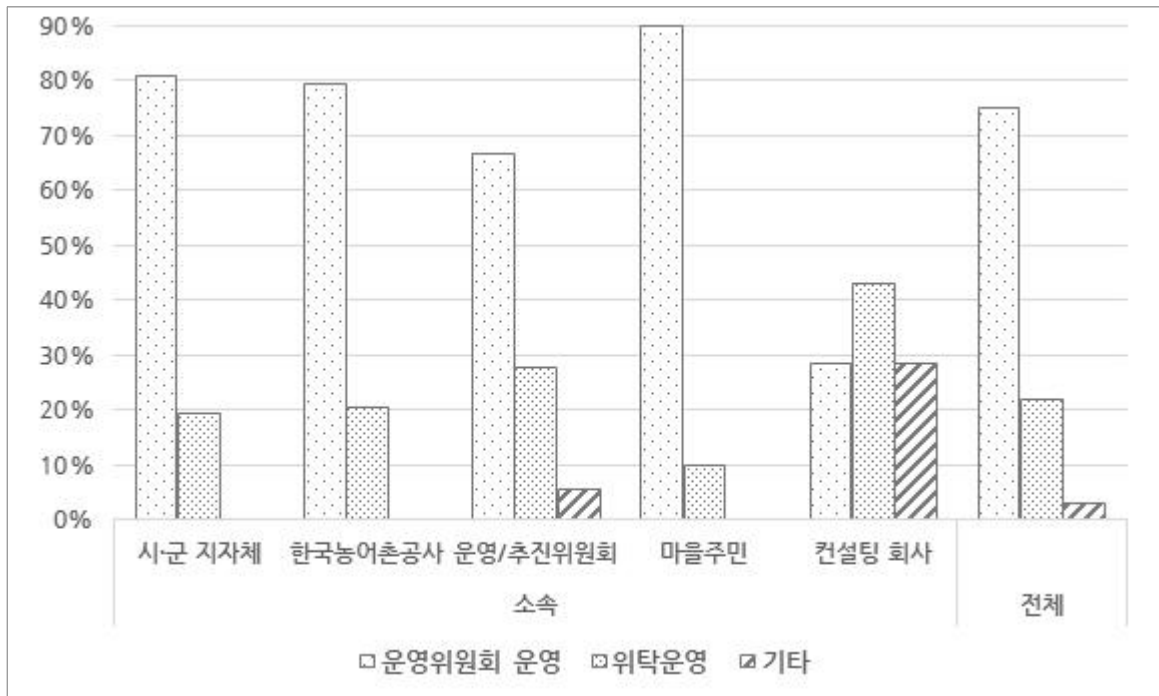


Figure 15. 그린케어 도입 시 운영 주체

그린케어를 도입하여 위탁운영을 한다면 협약 주체로 시·군+운영위원회+위탁운영자 형태(71.4%)를 가장 선호했고, 다음으로 운영위원회+위탁운영자(19%), 시·군+위탁운영자(9.5%)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른 그룹의 응답자는 시·군+운영위원회+위탁운영자 형태를 100% 선호한 반면, 한국농어촌공사 응답자는 운영위원회+위탁운영자 형태를 57.1%로 가장 선호했고, 시·군+위탁운영

자(28.6%), 시·군+운영위원회+위탁운영자 형태는 14.3%로 응답했다(Figure 16).

그러나 마을/단체 이외 제3자에 임대하여 위탁운영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등의 법적 제약과 수익배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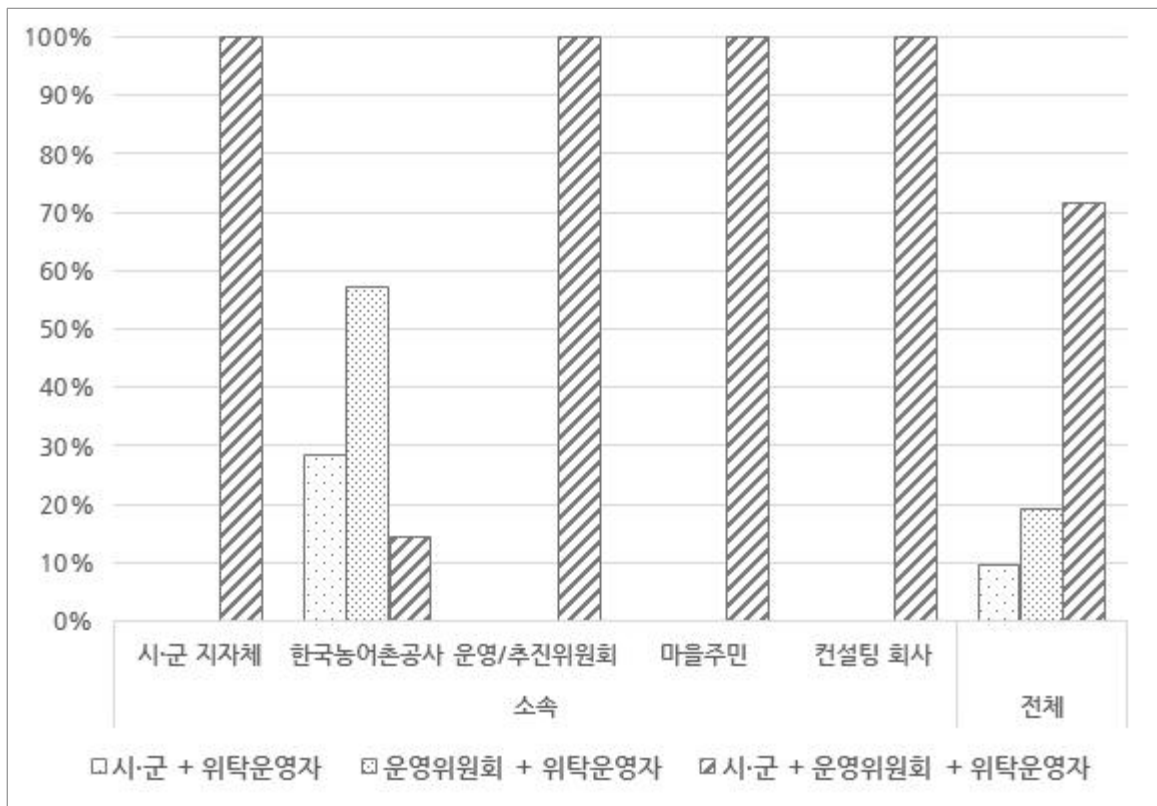


Figure 16. 그린케어 도입하여 위탁 운영 시 협약 주체

권역(마을) 시설물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그린케어 도입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 방안으로 신규 채용(42%), 재능기부자 확보(34%), 기존 인원 활용(24%) 순으로 응답하였다. 운영/추진위원회를 제외한 응답자 그룹은 신규 채용을 가장 선호한 반면, 운영/추진위원회는 재능기부자 확보(44.4%)를 가장 선호했다(Figure 17).

신규 인력의 확보 방안으로 지자체 지원을 통한 확충이 34.3%로 가장 높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24.2%), 농식품부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21.2%), 재능기부자 확보(20.2%)로 응답하였다. 특히, 운영/추진위원회 응답자의 50%가 지자체 지원을 통한 확충을 선호하였다(Figure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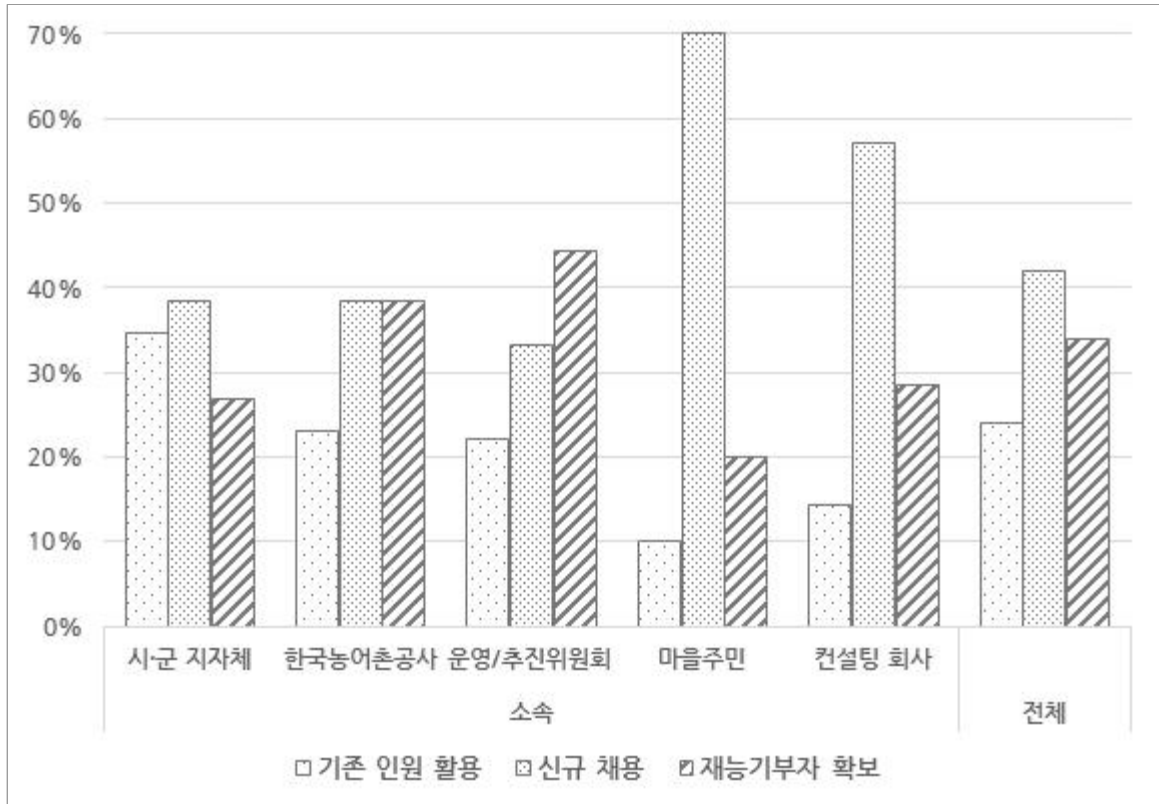


Figure 17. 그린케어 도입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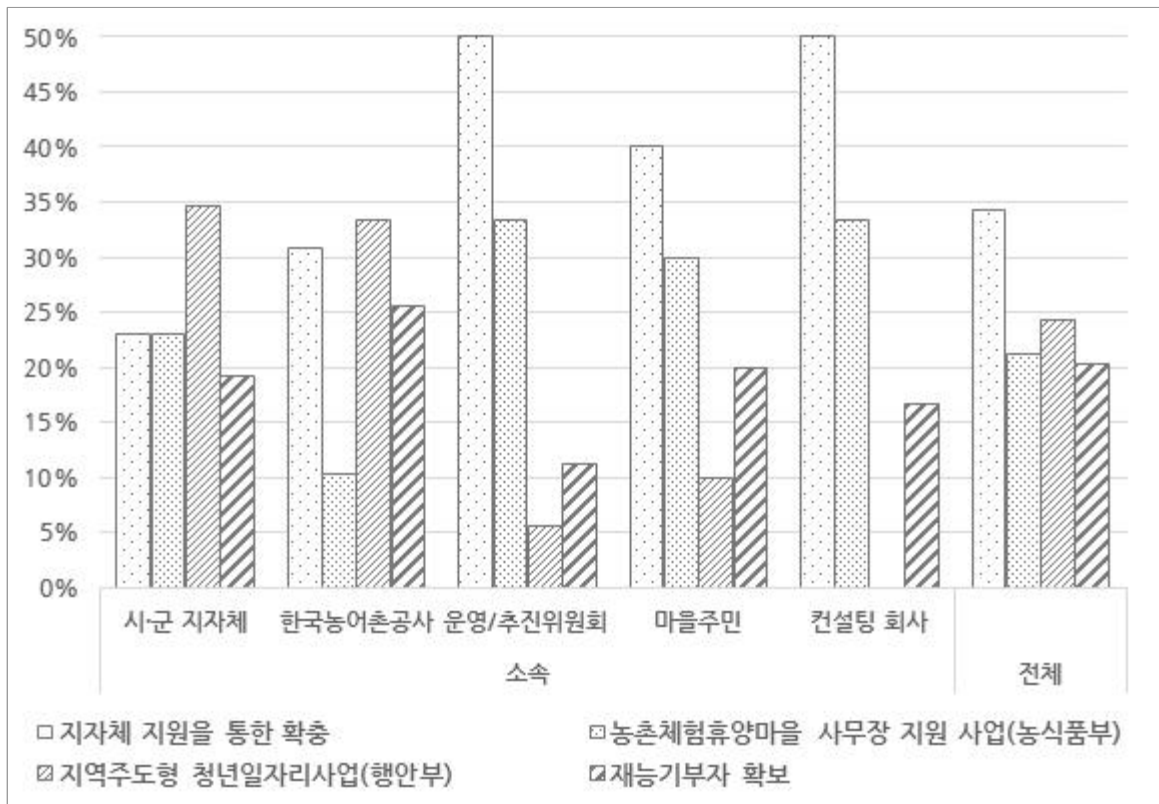


Figure 18. 그린케어 운영을 위한 신규 인적자원 확보 방안

나. 그린케어 운영 지원

그린케어를 운영할 인적자원의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지자체의 위탁 교육 실시(73%)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재능기부자를 통한 자체교육 실시(16%), 운영위원회에서 위탁 교육 실시(11%)로 나타났다(Figure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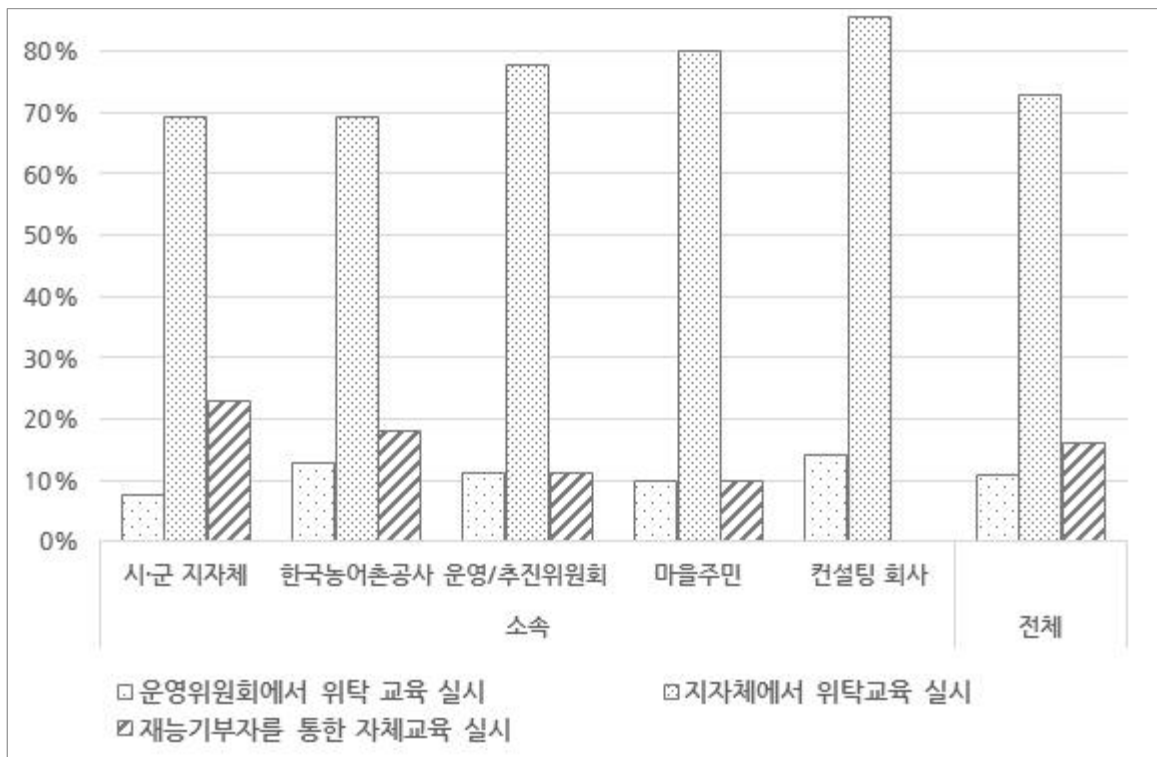


Figure 19. 인적자원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 방안

사회적 가치 실현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 또는 마을운영자에게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전체의 90%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는데, 국외 사례에서도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많은 것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Figure 20).

그린케어 도입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험비/숙박비 등의 감면(할인)에 대해 9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추진위원회의 찬성 의견(94.4%) 또한 높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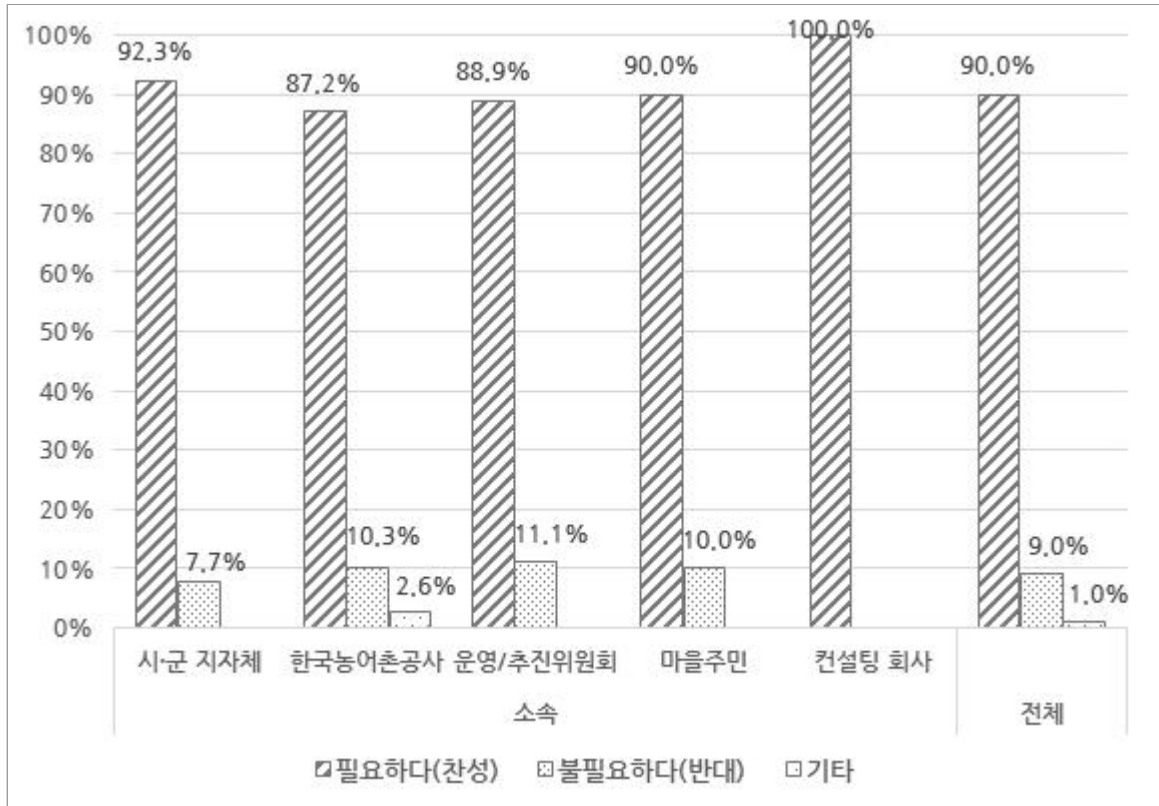


Figure 20. 사회적 약자/마을운영자 지자체 보조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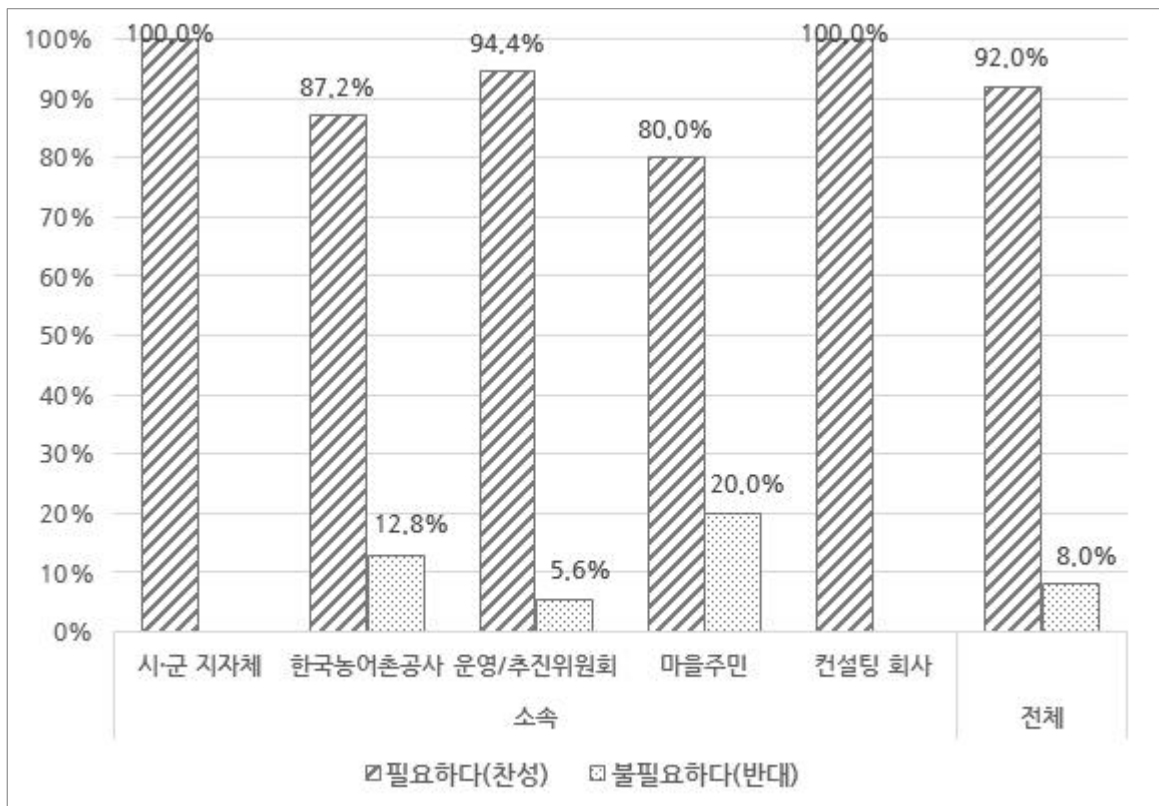


Figure 2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험비/숙박비 등의 감면

시설물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그린케어 도입시 각 기관의 기능 및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설문에 Figure 22와 같이 응답했는데, 이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여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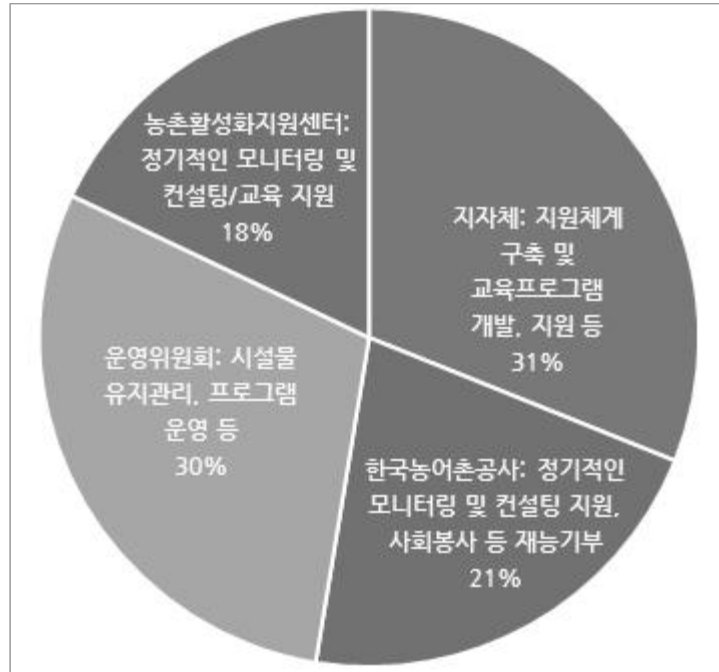


Figure 22. 각 기관의 기능 및 역할의 중요성

다. 관련 유관기관 유기적인 연계 협력 방안

그린케어의 도입과 운영에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행정, 재정적 지원)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지속적인 컨설팅과 교육 등이 따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추진력 등 4주체의 적극적인 연계 협력하는 협업이 필요하다.

Table 8. 그린케어 지속성 확보를 위한 유기적인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한 기타 의견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개발사업 유관기관의 합동 워크숍, 정기적인 회의 및 활동 • 각 유관기관이 농촌체험시설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 • 운영위원회 의견이 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운영위원회간 회의를 자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권역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각 기관의 업무 추진방향, 애로사항 공유 • 전문기관을 통해 자문을 얻고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구축 필요 • 사업 완료 이후에도 각 유관기관들이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마을에 새로운 의견을 제시 •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인 지원 필요 • 지자체, 공사, 지원센터 등이 협력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증과정을 거쳐 시행 • 각 기관을 통합한 별도 기관을 만들어 운영 • 그린케어의 도입과 운영에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행정, 재정적 지원)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지속적인 컨설팅과 교육 등이 따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추진력 등 4주체의 적극적인 연계 협력하는 협업이 필요



4. 고찰

가. 시설물 운영 실태 조사

농촌지역개발사업(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및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추진/완료지구를 대상으로 시설물 운영/관리 현황조사 등 시설물 운영 실태 조사 결과 시설물의 운영 주체는 대부분 마을주민(운영/추진위원회, 영농법인)이고 유지관리비용은 센터나 체험관 등 소득시설이 있는 지구는 자체운영기금(기금, 수익, 마을자금 등)을 마련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외 지자체의 지원, 타부서 연계사업,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시설운영관리비와 인건비 지원을 요구하였다.

나. 시설물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그린케어 도입에 대한 의향(설문) 조사

1) 그린케어 도입에 대한 의견

그린케어 인지도 조사에서 전체의 17%가 '알고 있다', 41%가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운영/추진위원회, 마을주민의 그린케어에 대한 인지도(11%)가 낮았다. 반면 컨설팅사 직원(42%), 공무원(19%), 한국농어촌공사 직원(18%)의 그린케어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다.

전체적으로 그린케어/체험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56.1%)하였고, 그린케어를 도입할 경우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자연생태체험, 전통문화체험, 농림어업체험, 동물원예체험 순으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동물원예체험의 경우 인지도가 낮았다.

2) 운영체계

시설물 운영 활성화를 위해 그린케어를 도입할 경우 참여형태는 숙박형(59%), 이용대상은 일반(85%), 이용형태는 단체형(49%), 단체형태는 초등학생(34%), 사회적 약자가 이용할 경우 정신적 건강 이슈(스트레스, 치매, ADHD 등)(56%) 그룹을 선호하였다. 그린케어 운영 주체는 운영위원회(75%)가 가장 높고, 만약 위탁운영시 협약 주체로는 시·군+운영위원회+위탁운영자 형태(71.4%)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탁운영을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개정이나 수익분배 방안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린케어 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 방안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통한 신규 채용(42%), 재능기부자 확보(34%)로 응답하였고, 인적자원의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위탁교육(73%)을 가장 선호하였다.

사회적 가치 실현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 또는 마을운영자에게 지자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 9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국외 사례에서도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많은 것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린케어 도입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험/숙박비 감면(할인)에 대해 9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추진위원회의 찬성 의견(94.4%) 또한 높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시설물 운영 활성화를 위해 그린케어를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여 협업이 필요하다.

다.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연계 협력 방안

농촌체험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그린케어 도입과 운영에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관련부서 상호 협력체계 구축, 예산 확보 등)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및 한국농어촌공사(지속적인 컨설팅과 교육 등)의 지원, 운영위원회의 추진 의지와 인력확보 노력 등 4주체의 기능과 역할 정립,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연계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향후 그린케어 도입 및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 Figure 23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즉, 앞으로 지속적인 시설물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기관(4주체)의 역할분담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농촌체험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그린케어 도입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 체계 구축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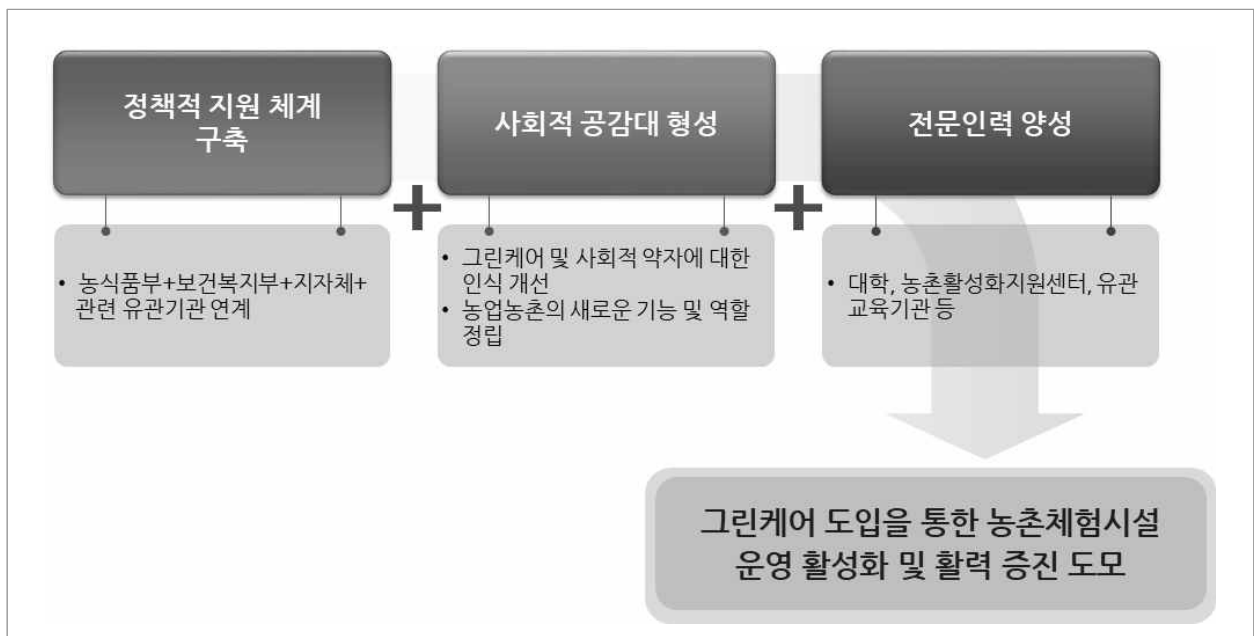


Figure 23. 그린케어 도입 및 운영 체계



V

요약 및 결론

1. 그린케어 국외 정책 및 사례(시사점)

주요 선진국의 그린케어 정책을 살펴보면, 농업에 교육과 치유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린케어 지원은 농림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보건기관, 병원,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 등 다양한 단체가 연계체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그린케어 운영비는 정부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공공기관의 기부나 민간기업의 후원, 농산물 판매수익(사회적 기업) 등 자체수익, 자부담 등으로 부담하고 있다.

2. 그린케어 도입 및 운영 체계

농촌체험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그린케어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① 그린케어에 대한 인식은 다소 부족하나 시설물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그린케어 도입 필요성 제기
- ② 그린케어 운영 주체는 운영위원회, 위탁운영시 협약주체는 시·군+운영위원회+위탁운영자
 - 그러나, 위탁운영을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개정과 수익분배 방안 등 제도 개선 필요
- ③ 그린케어 운영 방안
 - 이용대상: 그린케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일반인 선호 높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체험비, 숙박비 등) 찬성 의견 높음
 - 운영체계: 예산확보 등 지원체계 구축(국외 사례와 동일)
 - 운영인력: 지자체의 지원을 통한 신규인력 채용, 재능기부자 확보 선호
- ④ 앞으로 지속적인 시설물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기관(4주체)의 역할분담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⑤ 결론적으로 농촌체험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그린케어 도입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 체계 구축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

참 고 문 헌

1. 김경미, 2015, '농업의 치유기능'에 대한 이해와 최근 동향, 경상대학교 세미나 주제발표 자료
2.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방안 연구
3. 농림축산식품부, 2016, 녹색농업치유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4. 영주시, 2014, 국립 녹색치유농업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5. Elings, M., D. Haubenhof, J. Hassink, P. Rietberg, and H. Michon. 2011, Effects of green care farms and other day care facilities on people with with psychiatric problems and addiction background(In Dutch: Effecten van zorgboerderijen en andere dagbestedingsprojecten voor mensen met een psychiatrische en verslavingsachtergrond), Wageningen: Plant Research International and Netherlands Institute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6. Haugan, L., R. Nyland, E. Fjeldavli, T. Meistad and B.O. Braastad, 2005, Green care in Norway: farms as a resource for the educational, health and social sector, Frontis, Volume 13 Farming for Health: Green-Care Farming across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hapter 9, 109-126
7. Hine, R., J. Peacock and J. Pretty, 2008, Care Farming in the UK: Evidence and Opportunities, A Report for the National Care Farming Initiative(UK), Colchester: University of Essex
8. Steunpunt Groene Zorg, 2018, Social Farming in Flanders. Organization and Policy(2018년 경상대학교 농어촌지역개발전문가과정 국외 연수 수집 자료)



부 록

1. 설문지

농촌체험시설(센터) 활성화를 위한 그린케어(Green Care) 적용 방안 조사 설문지

No. 작성하지 마세요.

『농촌체험시설(센터) 활성화를 (Green Care)』

안녕하십니까?
 이 ()
 의견은 () (Green Care)
 이

조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대학교 연구책임자: 김영주 / ☎ 055)772-1935 / E-mail: vikim7171@gnu.ac.kr
 조사일자: 2018년 11 선임연구원: 최영완 / ☎ 055)772-2625 / E-mail: ruralplan@gnu.ac.kr

I. 일반현황 - 전체응답

1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12.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하십니까?
 1.근로자 2.농업종사 3.운영직원 4.마을주민 5.전문직 6.기타 ()
121. (유지관리비) ③ 4월달 비용 귀하의 농촌체험시설은 언제 하십니까?
 1년전 2년 전 3년 전 4년 ()
122. (유지관리비) ③ 4월달 비용 귀하의 시설은 농촌체험시설에서 얼마 하십니까?
 1.평당 2.아파트 3.도리했다
13. (사업참여기간) 귀하의 농촌체험시설 운영업무를 가장 얼마 하십니까?
 1.1년 2.1년 이상 3년 미만 3.3년 이상 5년 미만 4.5년 이상
 - 1 -

II. 시설물현황 - 운영직원만응답

21. (사업참여구현) 귀하의 시설에 대해 설명합니다.

권역(마을)명	시군	권역(마을)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년 착수 - ()년 완료	사업비	H/W(시설투자비)	백만원
공사 위탁 유무(O, X)			S/W(역량강화 사업비)	백만원

22. (시설운영현황) 귀하의 시설은 다음과 같은 시설물 운영형태에 대해 운영부하를 받습니다.

시설명	시설규모(㎡)	시설물 형태(예: 센터, 소득시설 등)	연간 방문자/이용자 수 (명)	시설내 고용인원(명)		운영 주체	유지관리비용 조달(예: 자체자 채금, 기부금 기타)	운영 개시일(연월일)	현재 운영 여부(O, X)
				정규직	비정규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시설개입구현 전후 수익개선 및 소득실증사례를 포함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설명 등

23. (조각형구현) 귀하의 농촌체험시설을 통해 결혼 조혼형은 어떻게 하십니까?
 1.농촌체험 2.취직 3.창업 4.기타 ()
24. (구체화구현) 귀하의 시설운영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농촌체험시설(센터) 활성화를 위한 그린케어(Green Care) 적용 방안 조사 설문지

IV. 향후

-전체 응답-

41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따라 높게 주시 바랍니다)

① 자체 직영채취 및 가공으로 판매사업등	
② 농민협동조합 장작, 모래담 및 견봉, 견봉, 견봉, 견봉 등 사업부	
③ 운영할 다 시설유지관리 프로그램운영등	
④ 농촌체험사업장 장작, 모래담 및 견봉, 견봉 사업	

() ← () ← () ← ()

42 (의견 개개를 평가하는 순서로 가장 먼저, 중간, 농촌활성화사업 등 4가지 유형에 대해 설문조사에 대해 높게 주시 바랍니다)

--	--

☺ 설문지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2014) 참고하여 설문지 작성

2. 설문조사 분석 결과표

가. 일반현황

Table 2-1. 통계량

		연령	소속	정착유형	농어촌인성학교	참여기간	조직형태
N	유효	100	100	26	24	99	24
	결측	0	0	74	76	1	76
표준편차		1.100	1.173	.392	.637	1.036	1.398
합계		311	233	28	52	260	49

Table 2-2. 연령

		빈도	퍼센트
유효	30세 미만	8	8.0
	30대	22	22.0
	40대	30	30.0
	50대	31	31.0
	60대 이상	9	9.0
	합계	100	100.0

Table 2-3. 소속

		빈도	퍼센트
유효	시·군 지자체	26	26.0
	한국농어촌공사	39	39.0
	운영/추진위원회	18	18.0
	마을주민	10	10.0
	컨설팅 회사	7	7.0
	합계	100	100.0

Table 2-4. 정착유형

		빈도	퍼센트
유효	원주민	25	25.0
	귀촌	1	1.0
	합계	26	26.0
결측	시스템 결측값 ¹³⁸⁾	74	74.0
합계		100	100.0

Table 2-5. 농어촌인성학교 지정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그렇다	3	3.0
	아니다	14	14.0
	모르겠다	7	7.0
	합계	24	24.0
결측	시스템 결측값	76	76.0
합계		100	100.0

Table 2-6. 사업/운영 참여기간

		빈도	퍼센트
유효	1년 미만	16	16.0
	1년 이상~3년 미만	30	30.0
	3년 이상~5년 미만	28	28.0
	5년 이상	25	25.0
	합계	99	99.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0
합계		100	100.0

138) * 해당 사항 없으면 무응답



나. 시설물현황 및 운영 실태

Table 2-7. 운영 조직형태

		빈도	퍼센트
유효	영농조합법인	15	15.0
	협동조합	2	2.0
	기타	7	7.0
	합계	24	24.0
결측	시스템 결측값	76	76.0
합계		100	100.0

다. 그린케어 도입 및 운영 방안

Table 2-8. 그린케어 인지도

			그린케어인지도					전체
			아주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들어 본 적 있다	잘 모른다	처음 알게 됐다	
소속	시·군 지자체	빈도	2	3	12	7	2	26
		소속 중 %	7.7%	11.5%	46.2%	26.9%	7.7%	100.0%
	한국농어촌공사	빈도	2	5	9	19	4	39
		소속 중 %	5.1%	12.8%	23.1%	48.7%	10.3%	100.0%
	운영/추진위원회	빈도	0	2	4	9	3	18
		소속 중 %	0.0%	11.1%	22.2%	50.0%	16.7%	100.0%
	마을주민	빈도	0	0	5	4	1	10
		소속 중 %	0.0%	0.0%	50.0%	40.0%	10.0%	100.0%
	컨설팅 회사	빈도	1	2	0	2	2	7
		소속 중 %	14.3%	28.6%	0.0%	28.6%	28.6%	100.0%
	전체	빈도	5	12	30	41	12	100
		소속 중 %	5.0%	12.0%	30.0%	41.0%	12.0%	100.0%

Table 2-9. 그린케어 도입여부

			그린케어도입여부			전체
			도입하겠다(찬성)	불필요하다(반대)	모르겠다	
소속	시·군 지자체	빈도	14	1	9	24
		소속 중 %	58.3%	4.2%	37.5%	100.0%
	한국농어촌공사	빈도	19	6	14	39
		소속 중 %	48.7%	15.4%	35.9%	100.0%
	운영/추진위원회	빈도	12	0	6	18
		소속 중 %	66.7%	0.0%	33.3%	100.0%
	마을주민	빈도	5	0	5	10
		소속 중 %	50.0%	0.0%	50.0%	100.0%
	컨설팅 회사	빈도	5	0	2	7
		소속 중 %	71.4%	0.0%	28.6%	100.0%
	전체	빈도	55	7	36	98
		소속 중 %	56.1%	7.1%	36.7%	100.0%

Table 2-10. 그린케어 농림어업체험 프로그램

			농림어업체험			전체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소속	시·군 지자체	빈도	5	11	7	23
		소속 중 %	21.7%	47.8%	30.4%	100.0%
	한국농어촌공사	빈도	10	19	5	34
		소속 중 %	29.4%	55.9%	14.7%	100.0%
	운영/추진위원회	빈도	2	7	5	14
		소속 중 %	14.3%	50.0%	35.7%	100.0%
	마을주민	빈도	4	4	1	9
		소속 중 %	44.4%	44.4%	11.1%	100.0%
	컨설팅 회사	빈도	3	2	2	7
		소속 중 %	42.9%	28.6%	28.6%	100.0%
	전체	빈도	24	43	20	87
		소속 중 %	27.6%	49.4%	23.0%	100.0%

Table 2-11. 그린케어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전통문화체험				전체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소속	시·군 지자체	빈도	1	3	10	8	22
		소속 중 %	4.5%	13.6%	45.5%	36.4%	100.0%
	한국농어촌공사	빈도	0	11	11	8	30
		소속 중 %	0.0%	36.7%	36.7%	26.7%	100.0%
	운영/추진위원회	빈도	0	4	3	6	13
		소속 중 %	0.0%	30.8%	23.1%	46.2%	100.0%
	마을주민	빈도	0	3	6	1	10
		소속 중 %	0.0%	30.0%	60.0%	10.0%	100.0%
	컨설팅 회사	빈도	0	3	2	1	6
		소속 중 %	0.0%	50.0%	33.3%	16.7%	100.0%
	전체	빈도	1	24	32	24	81
		소속 중 %	1.2%	29.6%	39.5%	29.6%	100.0%

Table 2-12. 그린케어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

			자연생태체험				전체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소속	시·군 지자체	빈도	2	1	13	8	24
		소속 중 %	8.3%	4.2%	54.2%	33.3%	100.0%
	한국농어촌공사	빈도	0	8	17	9	34
		소속 중 %	0.0%	23.5%	50.0%	26.5%	100.0%
	운영/추진위원회	빈도	0	0	8	8	16
		소속 중 %	0.0%	0.0%	50.0%	50.0%	100.0%
	마을주민	빈도	0	1	6	2	9
		소속 중 %	0.0%	11.1%	66.7%	22.2%	100.0%
	컨설팅 회사	빈도	0	0	5	2	7
		소속 중 %	0.0%	0.0%	71.4%	28.6%	100.0%
	전체	빈도	2	10	49	29	90
		소속 중 %	2.2%	11.1%	54.4%	32.2%	100.0%



Table 2-13. 그린케어 원예동물체험 프로그램

		원예동물체험					전체	
		매우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소속	시·군 지자체	빈도	1	2	7	4	6	20
		소속 중 %	5.0%	10.0%	35.0%	20.0%	30.0%	100.0%
	한국농어촌공사	빈도	0	1	13	8	9	31
		소속 중 %	0.0%	3.2%	41.9%	25.8%	29.0%	100.0%
	운영/추진위원회	빈도	0	1	2	3	7	13
		소속 중 %	0.0%	7.7%	15.4%	23.1%	53.8%	100.0%
	마을주민	빈도	0	0	4	5	0	9
		소속 중 %	0.0%	0.0%	44.4%	55.6%	0.0%	100.0%
	컨설팅 회사	빈도	0	0	1	3	2	6
		소속 중 %	0.0%	0.0%	16.7%	50.0%	33.3%	100.0%
	전체	빈도	1	4	27	23	24	79
		소속 중 %	1.3%	5.1%	34.2%	29.1%	30.4%	100.0%

Table 2-14. 참여형태

		응답	
		N	퍼센트
\$참여형태	당일형	34	35.1%
	숙박형	57	58.8%
	주중형	6	6.2%
합계		97	100.0%

Table 2-15. 이용대상

		응답	
		N	퍼센트
\$이용대상	일반(교육/학습치유, 취업이 필요한 집단)	80	85.1%
	사회적 약자/사회 부적응자	14	14.9%
	합계	94	100.0%

Table 2-16. 이용대상_일반

		응답	
		N	퍼센트
\$일반	개인	31	27.9%
	가족	26	23.4%
	단체(학교/기업 등)	54	48.6%
합계		111	100.0%

Table 2-17. 이용대상_단체형

		응답	
		N	퍼센트
\$단체형	유치원생	26	22.0%
	초등학생	40	33.9%
	중·고등학생	12	10.2%
	대학생	9	7.6%
	직장 및 동호회	31	26.3%
합계		118	100.0%

\$: 다중(복수)응답

Table 2-18. 사회적 약자

		응답	
		N	퍼센트
\$사회적약자	지적장애	22	24.4%
	지체장애	13	14.4%
	정신적 건강 이슈(스트레스, 치매, ADHD 등)	50	55.6%
	중독병력(알코올, 약물 등)	5	5.6%
합계		90	100.0%

Table 2-19. 그린케어 운영 주체

			운영주체			전체
			운영위원회 운영	위탁운영	기타	
시·군 지자체	빈도	21	5	0	26	
	소속 중 %	80.8%	19.2%	0.0%	100.0%	
한국농어촌공사	빈도	31	8	0	39	
	소속 중 %	79.5%	20.5%	0.0%	100.0%	
운영/추진위원회	빈도	12	5	1	18	
	소속 중 %	66.7%	27.8%	5.6%	100.0%	
마을주민	빈도	9	1	0	10	
	소속 중 %	90.0%	10.0%	0.0%	100.0%	
컨설팅 회사	빈도	2	3	2	7	
	소속 중 %	28.6%	42.9%	28.6%	100.0%	
전체	빈도	75	22	3	100	
	소속 중 %	75.0%	22.0%	3.0%	100.0%	

Table 2-20. 그린케어 협약 주체

			협약주체			전체
			시·군 + 위탁운영자	운영위원회 + 위탁운영자	시·군 + 운영위원회 + 위탁운영자	
시·군 지자체	빈도	0	0	5	5	
	소속 중 %	0.0%	0.0%	100.0%	100.0%	
한국농어촌공사	빈도	2	4	1	7	
	소속 중 %	28.6%	57.1%	14.3%	100.0%	
운영/추진위원회	빈도	0	0	6	6	
	소속 중 %	0.0%	0.0%	100.0%	100.0%	
마을주민	빈도	0	0	1	1	
	소속 중 %	0.0%	0.0%	100.0%	100.0%	
컨설팅 회사	빈도	0	0	2	2	
	소속 중 %	0.0%	0.0%	100.0%	100.0%	
전체	빈도	2	4	15	21	
	소속 중 %	9.5%	19.0%	71.4%	100.0%	

Table 2-21. 인적자원 확보

			인적자원			전체
			기존 인원 활용	신규 채용	재능기부자 확보	
시·군 지자체	빈도	9	10	7	26	
	소속 중 %	34.6%	38.5%	26.9%	100.0%	
한국농어촌공사	빈도	9	15	15	39	
	소속 중 %	23.1%	38.5%	38.5%	100.0%	
운영/추진위원회	빈도	4	6	8	18	
	소속 중 %	22.2%	33.3%	44.4%	100.0%	
마을주민	빈도	1	7	2	10	
	소속 중 %	10.0%	70.0%	20.0%	100.0%	
컨설팅 회사	빈도	1	4	2	7	
	소속 중 %	14.3%	57.1%	28.6%	100.0%	
전체	빈도	24	42	34	100	
	소속 중 %	24.0%	42.0%	34.0%	100.0%	



Table 2-22. 신규인력 확보 방안

			신규인력				전체
			지자체 지원을 통한 확충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농식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행안부)	재능기부자 확보	
소속	시·군 지자체	빈도	6	6	9	5	26
		소속 중 %	23.1%	23.1%	34.6%	19.2%	100.0%
	한국농어촌공사	빈도	12	4	13	10	39
		소속 중 %	30.8%	10.3%	33.3%	25.6%	100.0%
	운영/추진위원회	빈도	9	6	1	2	18
		소속 중 %	50.0%	33.3%	5.6%	11.1%	100.0%
	마을주민	빈도	4	3	1	2	10
		소속 중 %	40.0%	30.0%	10.0%	20.0%	100.0%
	컨설팅 회사	빈도	3	2	0	1	6
		소속 중 %	50.0%	33.3%	0.0%	16.7%	100.0%
	전체	빈도	34	21	24	20	99
		소속 중 %	34.3%	21.2%	24.2%	20.2%	100.0%

Table 2-23. 인적자원 교육

			인적자원교육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위탁 교육 실시	지자체에서 위탁교육 실시	재능기부자를 통한 자체교육 실시	
소속	시·군 지자체	빈도	2	18	6	26
		소속 중 %	7.7%	69.2%	23.1%	100.0%
	한국농어촌공사	빈도	5	27	7	39
		소속 중 %	12.8%	69.2%	17.9%	100.0%
	운영/추진위원회	빈도	2	14	2	18
		소속 중 %	11.1%	77.8%	11.1%	100.0%
	마을주민	빈도	1	8	1	10
		소속 중 %	10.0%	80.0%	10.0%	100.0%
	컨설팅 회사	빈도	1	6	0	7
		소속 중 %	14.3%	85.7%	0.0%	100.0%
	전체	빈도	11	73	16	100
		소속 중 %	11.0%	73.0%	16.0%	100.0%

Table 2-24.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린케어 보조금 지원

			보조금지원			전체
			필요하다(찬성)	불필요하다(반대)	기타	
소속	시·군 지자체	빈도	24	2	0	26
		소속 중 %	92.3%	7.7%	0.0%	100.0%
	한국농어촌공사	빈도	34	4	1	39
		소속 중 %	87.2%	10.3%	2.6%	100.0%
	운영/추진위원회	빈도	16	2	0	18
		소속 중 %	88.9%	11.1%	0.0%	100.0%
	마을주민	빈도	9	1	0	10
		소속 중 %	90.0%	10.0%	0.0%	100.0%
	컨설팅 회사	빈도	7	0	0	7
		소속 중 %	100.0%	0.0%	0.0%	100.0%
	전체	빈도	90	9	1	100
		소속 중 %	90.0%	9.0%	1.0%	100.0%

Table 2-25.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용 감면(체험비, 숙박비 등)

		비용감면			전체	
		필요하다(찬성)	불필요하다(반대)			
소속	시·군 지자체	빈도	26	0	26	
		소속 중 %	100.0%	0.0%	100.0%	
	한국농어촌공사	빈도	34	5	39	
		소속 중 %	87.2%	12.8%	100.0%	
	운영/추진위원회	빈도	17	1	18	
		소속 중 %	94.4%	5.6%	100.0%	
	마을주민	빈도	8	2	10	
		소속 중 %	80.0%	20.0%	100.0%	
	컨설팅 회사	빈도	7	0	7	
		소속 중 %	100.0%	0.0%	100.0%	
	전체		빈도	92	8	100
			소속 중 %	92.0%	8.0%	100.0%

라. 지속성 확보 방안

Table 2-26. 관련 유관기관의 역할

기관역할	빈도				종합점수 (비율)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지자체: 지원체계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44	36	7	13	31100 (31%)
한국농어촌공사: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사회봉사 등 재능기부	10	21	43	26	21500 (21%)
운영위원회: 시설물 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38	29	23	10	29500 (30%)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교육 지원	8	14	27	51	17900 (18%)
합계	100	100	100	100	100,000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경상대학교 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센터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2018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구보고서

제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제주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역에 사회적 농업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
웃뜨르권역과 판포권역을 대상으로]

**제주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역에 사회적
농업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

-웃뜨르권역과 판포권역을 대상으로-

2018. 10. 25.

제주특별자치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목차

I . 서론	699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699
2. 연구내용 및 방법	700
3.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00
4. 연구의 구성	701
II . 이론적 고찰	702
1. 사회적 농업의 역사적 배경	702
2. 사회적 농업의 개념	703
3. 사회적 농업의 유형	705
4. 사회적 농업의 국내·외 사례	709
III .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내용 분석	723
1.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검토	723
2.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완료 후 시설운영현황	728
IV .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지역 자원현황분석 ...	747
1. 윗뜨르권역	747
2. 판포권역	760
V . 사회적 농업을 도입한 권역사업의 활성화 방안 ...	773
1. 사회적 농업의 도입 방안	774
2. 사회적 농업의 도입한 권역사업의 활성화방안	780

1.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농산물 시장 개방화가 본격화되어 농촌을 둘러싼 환경은 시장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어 제주도의 농업은 생산이라는 개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시대흐름에 편승하지 못하면 제주 농업의 기반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농촌이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촌의 지역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가 임.
- 제주지역의 경우 타 시·도 지역의 농촌마을과는 구분되는 농촌공간의 특성을 갖고 있음(마을의 규모, 마을조직 및 운영방식, 관광산업과의 연계성 등). 농촌지역 개발 사업이 경쟁력을 갖고,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어메니티, 연계 가능한 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적 특수성을 극대화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경제 문제 등 농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발굴하는 주요 농촌개발정책으로 농촌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본 사업이 농촌지역 발전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힘들고, 사업으로 인한 시설의 유희화나 주민갈등, 지역역량강화의 성과 측정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점 들이 존재함.
- 환경자원이 우수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도의 농어촌이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농어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어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사회의 환경을 유지하는 것임. 녹색관광을 도입한 명소 만들기를 시행하여 지역사회,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면서 관광활동을 매개로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임(이진희, 2008a).
-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SF)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농업이다. 사회적 농업은 농장에서 하는 활동과 특별한 도움(건강, 재활, 사회통합, 교육, 고용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으로 돌봄 농업(care farming), 건강을 위한 영농(farming for health), 녹색 돌봄(green care)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사회적 농업은 농업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의 재활을 통해 심신 치유와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증대, 지역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농업이다. 사회적 농업이 농가-국민-제주도가 상호 소통하면서 교육과 훈련, 고용, 치유, 사회적 통합, 지역 개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시행한 권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의 농수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의 모델을 확산하고, 농업체험 중심의 전문적인 교육과 체험을 제공하며, 생산기반 치유농업으로 지역의 친환경적 요소와 결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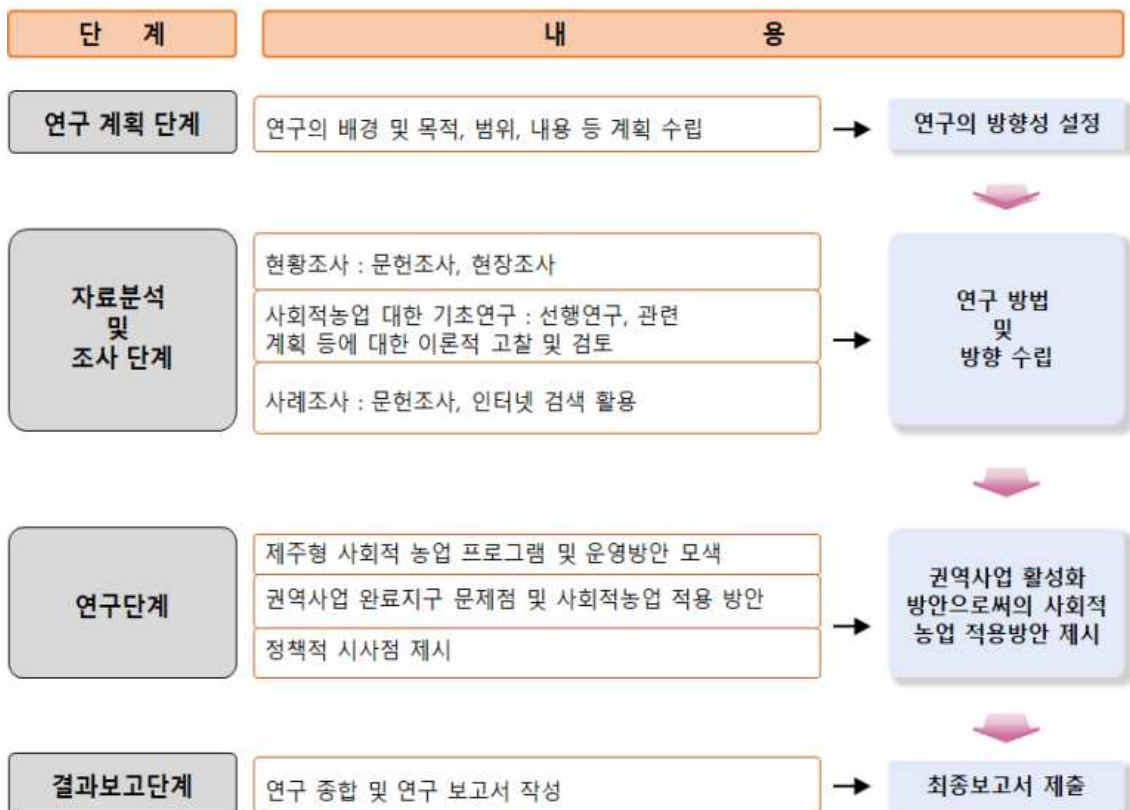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사회적 농업의 이론적 고찰
- 제주지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중산간 마을인 옷뜨르권역, 해안마을인 관포권역)
- 제주지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완료지구에 사회적 농업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선 방안 제시

3.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지역적 특성, 지역 내 자원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 및 운영프로그램의 다각화 모색
- 농업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의 재활을 통해 심신 치유와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증대, 지역 활성화 등에 기여

- 정부 지원 사업 완료 이후에도 마을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 모색
-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가치 제고

4. 연구의 구성





II. 이론적 고찰

1. 사회적 농업의 역사적 배경

사회적 농업은 2세기 초반 교회에서 환자들의 고통 완화를 위한 돌봄사업에서 시작되었고, 13세기 병원과 수도원에는 치료와 요양을 위해 마당이나 정원이 있었다. 벨기에 농촌마을 '길(Geel)'에는 정신장애인들을 돌보는 공동체 치유체제를 700년 이상 유지해오고 있다(임송수·김승애, 2016). 중세시대에는 주로 농촌지역에서 치유활동이 행해지다가 1800년대 이후 근대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는 식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사회적 농업이 주춤했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네덜란드의 돌봄 농장 체제가 도입된 것은 1970년대이다. 1990년대에는 유럽 국가에서 치유와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적 농업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사회적 농업(social agriculture)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임송수·김승애, 2016).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은 1970년대부터 전문적인 농가가 나타날 정도로 발전했으며, 농가는 공인된 복지기관의 하부 계약자로서 지원되거나 서비스 사용자의 개인 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2003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자선기관을 초석으로 농가와 관련기관 사이에 연결망을 구축하여 녹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2015년 8월에 세계 최초로 사회적 농업을 국가의 법으로 승인하였으며, 벨기에에는 2005년을 기점으로 돌봄농가의 등록제와 공공지원 체계를 도입하였고, 2017년부터는 장애인들의 개인 예산형태로 공공보조가 지급됨에 따라 장애인 스스로 특화된 복지시설이나 사회적 농업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임송수·임지은, 2017).

도입 단계국가인 슬로베니아, 체코, 불가리아 등은 사회적 농업 대한 인식이 있지만 국가의 정책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포르투갈, 핀란드, 독일은 중간 단계이며, 다양한 프로젝트와 네트워크가 발전되어 있다. 핀란드에서는 사회통합과 포용, 재활,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는 성숙 단계의 국가들로 법과 제도로 사회적 농업을 뒷받침하고 있다(임송수·김승애, 2016).

유럽에서 사회적 농업은 오래전부터 농촌지역에서 장애인, 미성년자, 이주민 등과

같은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농업 활동에 참여시키면서 지역사회에 통합시켰다. 사회 연대, 사회 부조, 사회 통합에 기반을 둔 자연스럽고 당연한 실천이었으며, 사회적 농업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다(Iacovo & O' Connor, 2009: 11). 선구적 실천에 정책 함의가 부가된 데에는 두 종류의 계기가 있었다. 다기능 농업을 지향하는 정책 변화와 복지 국가 체계(welfare state system)의 변동 조짐이다. 사회적 농업은 일반적으로 고용, 돌봄, 교육 등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농업에 주목한다. 사회적 농업 실천 현장에서 농업인, 사회복지 관련 행위자(조직), 공공 기관들이 협력해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한다.

일본에서는 ‘농복연계’라는 표현을 쓴다. 고용기회에 있어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장애인, 빈곤 계층 등을 농업 활동에 고용하여 이들의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주목받는다. 또한 심각한 고령화로 야기되는 농촌 노인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등장한 실천으로 이해되며, 농촌 지역의 노인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을 사회 활동에 참여시키는 데에 농업 활동을 활용한다(김정섭·안석·이정해·김경인, 2017).

사회적 농업은 다양한 주체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어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려는 시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유럽에서 사회 혁신 기획의 일종으로 이해된다. Iacovo는 사회적 농업이 농촌의 사회혁신 기획의 일종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 농촌에서 사회 혁신으로 대응해야 할 위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농촌 지역은 자원 고갈 심화, 먹거리에 대한 요구 증대, 인구 변동, 활용할 수 있는 공적 자금 부족 등으로부터 촉발되는 긴급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 같은 위기에 대응하려고 유럽연합은 사회 혁신과 체제이행(transition)에 초점을 맞추어왔다.”(Iacovo 외, 2014: 344).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농업(Social agriculture)이란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관련 법 규정이 미흡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농업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관광농업, 치유농업 등의 개념들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임송수·임지은, 2017).

2. 사회적 농업의 개념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는 이탈리아에서 기원했는데 이탈리아의 도시에서 활발했던 사회적 협동조합의 실천이 1990년대 중반부터 농촌에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이탈리아 농촌 지역에 571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농업이나 축산업에 참여



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이탈리아 농촌 사회적 협동조합의 수는 2000년에는 300개가 채 되지 않았으나 5년 사이에 두 배가 넘도록 증가했다(Istat, 2007; Fazzi, 2011: 123). 사회적 협동조합 실천을 두고 사회적 농업이라고 일컫기 시작했다(Fazzi, 2011: 123). 유럽 전역에 걸쳐 확산된 일종의 운동이었는데,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활동의 목표를 사회적 목적(social ends)에 부합하게 만듦으로써 다기능 농업 활동을 강조하려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 퍼져나갔다(Hassink and Dijk, 2006). 네덜란드에서 돌봄 농업(care farming) 또는 녹색 돌봄(green care)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들 용어의 의미론적 외연은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보다 협소하다.

사회적 농업의 개념에 대하여 Iacovo(2009: 11)는 급여를 받는 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가령, 지적·신체적 장애인, 재소자, 약물중독자, 소수자, 이주민 등)의 통합을 지향하거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재활, 교육, 돌봄을 촉진하거나, 아동이나 노인 등 특정한 집단에 대해 농촌 지역에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농업의 실천이라 하였다. Assouline(2015)는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초대해 사회통합, 노동통합, 치료적 동반을 목적으로 농업 생산물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이라 하였다. Crowley, O’Sullivan, & O’Keeffe(2017: 7)는 장애, 질병, 연령, 중독, 범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의 위험(risk)에 놓인 소수의 사람들에게 건강, 사회, 교육, 직업 등의 지원을 제공하려고 작동 중인 농장에서 경관이나 영농활동 등을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가축, 원예, 작물, 농기계, 숲 등과 결부된 영농-관련 활동 프로그램을 구조화하고, 촉진하며, 감독하는것이라 하였다.

임송수·임지은(2017)은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SF)에 관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농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적 농업을 구성하는 공통된 요소로 농장에서 하는 활동과 특별한 도움(건강, 재활, 사회통합, 교육, 고용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을 말하는데 ‘돌봄 농업(care farming)’, ‘건강을 위한 영농(farming for health)’, ‘녹색 돌봄(green care)’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보고서에 의하면 가족농 보존, 농촌인력 고용의 유지, 농촌 문화유산 보존, 농촌사회 유지, 생물적·생태적 다양성 보존, 농업·농촌을 이용한 여가선용 제공, 농촌 관광자원 공급, 토양과 물과 공기의 정화, 관개시설 보존, 생물 에너지 보존, 음식의 질과 안전성 향상, 농촌경관, 식량안보, 동물복지의 함양 등이 있다(OECD, 2001).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과 농촌은 식량을 공급하는

기능 외에도 환경보전, 농촌경관제공, 농촌활력제공, 전통문화 유지 계승 및 식량 안보 등에 기여하는 기능들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 하며, 외부경제 효과로서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킨다(농촌진흥청의 농업용어사전). 장우환(1997)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하여 농업이 농가소득형성기능, 보조적 노동력 고용기능, 농가자산형성기능, 삶의 보람·즐거움 제공기능, 농산물 지역자급기능, 지역농촌문화·사회유지기능, 자연환경보전기능 생물·생태환경 보전기능, 국토보전기능, 거주환경보전기능, 경관보전기능, 교육보전 및 휴양환경보전기능 등과 같은 11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면적·광역적·공익적 기능들은 지역의 활성화에 공헌하며, 지역농업의 충실·확대는 지역경제의 확대를 통해서 농촌의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다(장우환, 1997).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농업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농업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폭넓은 범위의 다원적 기능을 포괄하고 있다. 사회적 서비스는 일반적인 다원적 기능과 다르게 직접적인 대상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취약하다고 정의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다원적 기능이 제공되는 형태다(농축유통신문 2017년 05월 11일 김영하 대기자).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이란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건강과 돌봄·치유·환경보전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농업으로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농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농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 운영되고 있다(이투데이 2017년 01월 10일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3. 사회적 농업의 유형

유럽에서 실천되는 사회적 농업의 유형은 목적, 운영 주체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러 가지 유형을 관찰할 수 있다. 국가별로 문화, 사회 구조,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발전 경로와 주요 실천 유형이 다르다. 사회적 농업, 돌봄 농업, 녹색 돌봄, 건강을 위한 농업(farming for health) 등 다양한 용어가 쓰인다.

사회적 농업의 목적에 따라 실천 유형을 돌봄, 고용,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정섭·안석·이정해·김경인, 2017).

첫째,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이나 단체가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된다(Iacovo & O' Connor, 2009: 35). 국가에서 지정한 돌



봄 서비스 대상자나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농장에서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돌보는 활동에 참여한다. 주간보호센터(Day-Care Center)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과 시간에 농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병원, 요양 시설 등의 보건복지 기관에서 농업 활동을 재활 치료 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 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이 농장이나 단체에 고용된 것이 아니며 농업 생산과 관련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드물다(Iacovo & O' Connor, 2009: 36). 국가나 이용자 개인이 농장이나 단체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지불한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플란더스(Flanders) 지방의 돌봄 농장, 아일랜드의 재활 치료 농장(therapeutic farms),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A유형(돌봄과 교육 서비스 제공)이 사례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국가들 대부분에서 보건복지 관련 공공 기관이 돌봄을 목적으로 농업 활동을 활용하는 사례는 빈번하다(Iacovo & O' Connor, 2009: 36).

둘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이나 단체가 고용주가 된다. 지적·신체적 장애인, 장기 실업자, 이주민 등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농업 활동에 고용하거나 직업 연수생으로 받아들이고 임금을 지급하며, 임금의 일부를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특별 계약을 맺거나 세제 혜택을 받는다(Iacovo & O' Connor, 2009: 36). 프랑스의 사회 통합 농원(social inclusion gardens),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농업·제조업·상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하면서 취약 계층을 고용하고 노동 통합을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이나 단체가 교육 기관이 된다. 주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농장 일상, 건강한 먹거리, 자연 등을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Iacovo & O' Connor, 2009: 36). 학습 장애 아동과 학교 생활 부적응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프랑스의 교육 농장(ferme pédagogique)과 독일의 학교농장(school farms)이 활성화되어 있다.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에서도 교육을 목적으로 농업 활동을 활용하는 사례는 종종 있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조직형태나 구성원 등과 같은 운영주체의 특성에 따라서 유형을 제3섹터, 민간 농장, 공공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Iacovo & O' Connor, 2009: 37).

첫째, 제3섹터 조직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종교 및 자선 단체, 민간 사회복지 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들 조직이 농장을 보유하고 운영하면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보호 작업장을 운영하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가는 직간접적으로 제3섹터 조직의 활동을 지

원한다(Iacovo & O' Connor, 2009: 37).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프랑스의 사회 통합 농원과 재활 치료 농장, 독일의 보호 작업장,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서 운영하는 농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민간 농장에는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개별 농가, 농업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농업 생산 활동에 고용하는 실천이 주를 이룬다. 주간보호 성격의 돌봄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돌봄 농장, 이탈리아의 민간 농장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공공 기관이 보건복지 또는 교육 관련 농장을 운영하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기도 한다. 아일랜드의 재활 치료 농장이 대표적이며, 다른 국가의 사례는 많지 않다.

일본의 사회적 농업은 운영 주체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의 특성에 따라 실천 유형이 다양하며, '농복연계'라는 용어로 통칭한다.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정책 지원은 고용 정책의 틀 안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중앙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시설 정비, 임금 지원, 인력 및 기술 지원, 직업 교육, 연수 등과 관련한 보조금을 지급한다(김정섭·안석·이정해·김경인, 2017).

일본에서 사회적 농업의 실천 유형은 운영 주체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의 특성에 따라 분류된다(김정섭·안석·이정해·김경인, 2017).

첫째,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기관이 일반 농가나 농업 법인 등과 계약을 맺고, 기관에서 관리하는 장애인들을 농장에 고용시키는 유형이다. 장애인들은 농장에서 제초, 출하 준비, 모내기 등의 작업에 참여한다. 기관에서는 직원을 농장에 파견하여 장애인들을 관리하며, 작업 지시도 직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농장은 계약을 맺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임금을 지급한다.

둘째,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기관이나 NPO법인 등이 직영 농장을 두고 농업 활동에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유형이다.

셋째, 특례사회사가 농업 활동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유형이다. 특례사회사는 일반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설립한 자회사이다. 일본 전역에 448개의 특례사회사가 있는데, 이중 36개가 농업 활동에 장애인을 고용한다(2016년 6월 기준).

넷째, 농업법인 등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업소개소(헬로 워크)를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유형이다. 일본은 2007년부터 국가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는데, 이 제도를 통해 농림어업 분야에 취업한 장애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취업 건수가 2,820건에 달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농업법인, NPO법인 등이 농장을 조성하여 지역의 노인들을 농업 활동에 참여시키는 유형이다. 노인들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수당을 지급받는다.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재가 노인들에게 제공된다.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방정부가 농업 법인이나 NPO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여섯째, 농업 법인, NPO법인 등이 빈곤 계층을 고용하여 직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들의 자립과 취농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지방정부는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할 농업 분야의 사업자와 참여할 교육생을 선정하여 추진한다.

<표 > 외국의 사회적 농업 지원정책

국가별	관련법	지원내용
이탈리아	- 사회적협동조합법(1991) - 사회적농업법(2015)	돌봄 서비스 제공 대가 지급, 직업재활프로그램 참여수당 지급, 고용취약계층의 임금보조교육 서비스 제공 대가 지급, 직업교육 참여수당 및 교육 운영비 지원, 국유지 사용 우선권, 공공조달 및 공공일자리 선정 우선권
네덜란드	- 장기요양법(2014) - 사회지원법(2014) - 청소년·아동법(2014)	돌봄 서비스 제공 대가 지급 사회보험, 돌봄농업지원센터 운영(1999~2008)
벨기에	- 현금 급여 지급 관련 법령 제정(2015)	돌봄 서비스 제공 대가 지급 사회보험, 농업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보전금 지급, 시설정비 비용 지원, 플란더스녹색돌봄지원센터 운영(2004~)
일본	-장애인자립지원법(2006) - 빈곤생활자 자립지원법(2015)	시설 정비 비용 지원, 인력·기술 지원, 장애인 직업교육 운영 예산 지원, 공공 직업소개소(헬로워크) 운영, 고령자대상 사회적 농장 설립 지원, 빈곤계층대상 직업교육 운영비 지원

※자료 : 김정섭·안석·이정해·김경인(2017),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1-121.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농업’이란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끌어안는 농업의 실천이다. 농사는 똑같은 농사이되 수익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하자는 사회적 가치를 중요한 목표로 삼은 농업이 사회적 농업이다.

현재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농업의 유형으로는 돌봄 농업, 교육 농업, 노동통합형 농업이 있다. 첫째, 돌봄 농업은 농장에서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노인, 아동 등과 함께 농작업을 수행하면서 치료 또는 돌봄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다. 장애인, 노약자 등이 돌봄의 대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지하는 것이 돌봄 농업의 목적이다. 둘째, 교육 농업은 농업을 인생 진로로 선택하려 하지만 지식, 기술, 자본, 농촌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함께 농사지으면서 준비를 돕는 농장의 농업 활동을 뜻한다. 셋째, 노동통합형 농업은 일자리가 없어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에게 농장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농촌여성신문 2018년 3월 23일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4. 사회적 농업의 국내·외 사례

1). 국외 사례

(1)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은 중세의 영향을 받았다. 1970년대까지 이탈리아 정부는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1978년에는 정신병원을 폐쇄하였고, 취약계층에 대한 재활 치료, 돌봄 서비스 등의 책임을 주 정부(regional governments)로 이양하였다. 농촌 지역의 취약계층이 방치되자 개인이나 지역사회 조직이 농업 활동에 그들을 고용하고 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김정섭·안석·이정해·김경인, 2017).

플로렌스 지방에서 1979년 사회적 농업이 나타났다. 1990년대 들어 이탈리아 정부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개념을 탈피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공공 서비스의 기본 방향을 전환하였다. 1978년 이후부터 많은 지역사회 조직이 주 정부, 코뮤네 등의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대다수가 협동조합 형태였다. 정부는 민관 협력 관계를 체계적으로 재편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조직의 지위와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려고 1991년 ‘사회적 협동조합 법’을 제정하였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 협동조합은 치유재활 협동조합(Therapeutic or Rehabilitative Rural



Cooperatives, TRRC), 노동통합 협동조합(Rural Work Integration Cooperatives, RWIC), 지역개발 협동조합(Rural Cooperatives for Local Development, RCLD)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복지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임송수·김승애, 2016). 이후 많은 지역사회 조직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등록하고, 지역 공공 기관과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김정섭·안석·이정해·김경인, 2017).

이탈리아에서는 2015년 8월 세계 최초로 사회적 농업을 법으로 제정했고, 취약계층의 사회적 통합과 포용에 중점을 뒀다. 협동조합 형태로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총 2,000호이며, 이중 유기농업을 하는 농가가 약 70%이다. 정부는 공공식당에 대한 판매 알선, 국영 농지의 우선 사용권 부여, EU 공동농업정책의 농촌개발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한국농정신문 2017년 09월 17일 박경철 기자). 이탈리아에서는 법을 통해 ▲취약계층의 노동통합서비스 제공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유·무형 농업자원 활용 ▲전통적 의료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치유·건강 프로젝트 시행 ▲사회적 농장에 의한 환경·식품 교육 관련 프로젝트 추진 등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사회적 농업을 통해 공공식당 농산물 판매지원, 공공장소 농산물 판매처 설치, 국영농지 우선 사용권 부여, 유럽연합(EU) 공동농업정책(CAP)과 연계한 농촌개발 프로그램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의 추진 주체로 자리매김한 지방정부 20개 주 가운데 12곳이 별도의 조례를 제정했을 정도이다(임송수·김승애, 2016).

이탈리아에서는 관련 법·제도 안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방정부나 지역의 공공기관과 손잡고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농업자원을 활용해 돌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의 대가는 국가로부터 받는 데다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각종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가의 보건복지제도라는 틀 안에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농민신문 2018년 03월 05일 함규원 기자).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법’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돌봄과 교육 서비스(재가 복지, 주간보호센터, 요양 시설, 아동돌봄 시설 등)를 제공하는 A유형과 농업·제조업·상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하면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이들의 노동 통합을 지원하는 B유형이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 A유형의 조합원은 돌봄 및 교육전문가 직원, 자원 봉사자, 서비스 수혜자로 구성된

다. B유형은 경관 및 공공시설 관리 등의 공공 일자리 분야에도 우선권을 가지고 참여하는데 일반 직원, 취약 계층 직원, 자원봉사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다. 법적으로 B유형은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이 취약 계층이어야 하며, 자원봉사자가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A유형과 B유형이 혼합된 사회적 협동조합도 많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2~3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협력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김정섭·안석·이정해·김경인, 2017).

이탈리아에서는 농촌 지역의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농업 활동에 취약 계층을 고용하는 것을 두고 사회적 농업이라 한다. 최근에는 민간 농장(농업 협동조합, 농업 법인, 개인 농장)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의 보건복지 기관, 교도소, 농업 기술 보급 기관 등이 직접 농장을 운영하기도 한다.

(2)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

네덜란드에서는 1970년 사회적 농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전문적 농가가 생길 정도로 발전했다. 농가는 공인된 복지기관의 계약자로서, 정부보조 또는 서비스 사용자의 개인예산(PGB)을 통해 지원하고, 사회적 서비스 품질인증제를 도입했다(한국농정신문 2017년 09월 17일 박경철 기자).

1990년대에 사회적 농업이 치유 농업(care farming)으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소수의 민간 농장이 종교 및 자선의 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사회적 농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당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던 민간 농장들은 사회적 농업의 필요성을 사회에 널리 알리고, 자신들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의 공신력을 높이려고, 중앙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중앙 정부 관계자, 농업인, 사회적 농업 관련 이해관계자 등이 모여 사회적 농업의 필요성과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국가 수준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농업부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부처가 사회적 농업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농업부는 집약적 농업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과 동물 복지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하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방안으로서 사회적 농업에 관심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취약 계층을 사회에서 격리하여 폐쇄적인 기관에서 돌보던 것을 사회 통합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하려고 관심을 보였다(김정섭·안



석·이정해·김경인, 2017).

네덜란드는 돌봄농장을 여러가지 돌봄기관 유형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돌봄농장은 국가에서 지정한 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는 돌봄농장에 대가를 지급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 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정부의 역할이 컸다. 1990년대말 돌봄농장 경영주들은 창업절차, 서비스 관리체계 수립 등의 필요성을 느껴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사회적 농업의 필요성과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국가 회의를 두차례 열었다. 이 과정에서 농업부와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해 비영리재단 성격의 ‘돌봄농업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지원센터는 돌봄농장의 창업절차를 제시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개발해 돌봄농장의 전문화를 유도했다(농민신문 2018년 03월 05일 함규원 기자).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농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증가하고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들 사이에 연결망(network)이 형성되었다. 지금은 많은 농장들이 전문화되어 국가 보건복지 체계 안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지급받는다.

2016년 ‘돌봄조직품질법’과 ‘건강안전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농장이 700곳이 넘는다고 한다. 각종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농장과 청소년 치유 및 돌봄 농장이 전문화돼 치유 농업 관계자들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치유 농업이 활성화하면서 농촌 지역을 새롭게 하고 도시를 건강하게 만들어 사회적 농업의 한 형태로 관심을 끄는 중이다(이투데이 2017년 01월 10일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네덜란드에서는 돌봄 서비스 제공에 전문화된 농장을 돌봄 농장이라 부른다. 대부분 축산업과 원예업에 종사하는 가족 기반의 민간 농장이다. 돌봄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하루 20~3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장부터, 농업 활동을 주로 하면서 소수 인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장까지 서비스 제공 수준은 다양하다. 대부분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적·신체적 장애인, 정신질환자, 경증 치매 노인, 장기 실업자, 번아웃 증후군 환자,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 등 서비스 대상 집단이 다양하다.

(3) 일본의 사회적 농업

일본에서는 1900년대 초반 병원에서 농업을 활용하여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을 사회적 농업의 기원으로 본다. 1990년대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원예 활동을 활용한 재활 치료 프로그램이 유행하였다. ‘원예요법’, ‘원예복지’라는 이름으로 관련 연구와 실천이 활발하게 확산되었다. 장애인 등의 취약 계층, 여성,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도 원예 활동이 활용되었다.

2000년대부터 농업과 복지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농업 활동을 활용해 재활 치료와 직업 교육을 수행하고 취약 계층을 고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다. 2007년부터는 농업법인 등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실천이 정부 지원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0년 이후로는 농촌 지역의 고령자, 빈곤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에 농협, 사회복지 기관, NPO법인, 일반 농가 등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아직까지 정형화되고 주된 실천 유형이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며 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려고 사회적 농업 실천에 참여한다(김정섭·안석·이정해·김경인, 2017).

일본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적 농업을 시작, 장애인들의 농업 부문 취업을 장려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취약계층의 치유와 연계한 교육, 훈련,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이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자리 잡아 가도록 정부가 다양한 정책과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이투데이 2017년 01월 10일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일본은 20세기 후반부터 확산된 원예요법과 원예복지의 영향으로 사회적 농업이 발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농업’과 ‘복지’를 연계하는 정책을 본격 제시하면서 치유농업의 영역을 제도적으로 지원했다(한국농정신문 2017년 09월 17일 박경철 기자).

일본의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정책 지원은 고용정책의 틀 안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장애인·고령자·빈곤계층 등을 농업활동에 참여시켜 사회



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시설정비·임금지원·인력지원·기술지원·직업연수 등 관련 보조금을 지급한다(농민신문 2018년 03월 05일 함규원 기자).

2). 국내 사례

(1) 꿈이 자라는 뜰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위치한 꿈이 자라는 뜰은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교육을 목적으로 2009년 개장한 사회적 농장이다. 발달장애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마을주민 등이 운영하는 배움터(교실)이자 일터(농장)이다. 발달장애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뒤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보자는 장애학생 부모와 마을주민들의 뜻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경향신문 2017년 09월 14일 윤희일 선임기자).

홍동초등학교와 홍동중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자립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대한 학교 특수교사들의 문제의식이 꿈이 자라는 뜰의 탄생 배경이다. 특수교사들은 농업을 통해서 장애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학교를 졸업한 후에 위탁보호자 가정에 들어가거나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것은 자립적인 인간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꿈이 자라는 뜰”을 창립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2009년 지역 장애인들의 생활과 자립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최초의 본격적인 준비 모임이 시작되었다(김정섭·안석·이정해·김경인, 2017).

2009년 가을 마을의 장애학생들을 위해 지역과 학교가 함께 가꾸어가는 농촌형 배움터와 일터를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농장이 따로 없어서 마을의 작은 터를 얻어 텃밭수업을 시작했다. 2011년 홍동면 팔괘리 송정마을에 농장을 열어 7년 동안 잘 지내다가 2018년부터는 운월리로 이전하여 새롭게 농장을 가꾸고 있다. 올해는 마을교사 4명, 농장일꾼 2명, 청소년 20명이 함께 한다. 학생들과 농사짓는 텃밭수업은 새로운 때가 많다. 꿈뜰은 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한 교육농장, 장애와 함께 일하는 돌봄농장이다(www.greencarefarm.org/).

꿈이 자라는 뜰이 추구하는 비전은 농업활동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

고 자립하는 것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돕고 배우며 어울려 살아가는 마을을 실현하는 것이다(김정섭·안석·이정해·김경인, 2017).

농업활동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직업자립'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활동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소·화훼·축산·주곡 등의 유기재배 농업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 둘째, 자연과 벗하는 노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고른 신체 발달,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한다. 셋째, 농업 생산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가공 또는 판매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꾀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돕고 배우며 어울려 살아가는 마을이라는 비전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학생에게 적합하고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진로를 탐색하고 개척한다. 둘째, 사업 운영, 직업교육, 일자리 창출, 생산물 유통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물망을 만든다. 셋째, 일방적인 교육과 지원 방식이 아닌, 마을 구성원 전체와 상호부조하고 서로 배워가는 방식을 만든다. 넷째, 장애인과 운영 조직이 개인의 인간성과 지역의 공동체성을 북돋우는 촉매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다.





자료 : www.wikitree.co.kr/opm/

꿈이 자라는 뜰이 흥동면 지역사회 안에서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농업고등학교, 장애인복지시설 하늘공동체, 흥성군 특수교육 지원센터, 장애인 부모회, 지역의 장애학생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운영주체는 마을주민이다. 5명의 마을교사는 초·중·고교별로 요일과 시간을 정해 찾아오는 장애학생들과 함께 일을 하며 농사일을 가르친다. 현재 꿈뜰에서는 20명의 발달장애 초·중·고교생이 활동하고 있다. 인근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매주 1차례씩 이곳에 와서 각종 작물의 재배법 등을 배우면서 일을 한다. 꿈뜰이 지향하는 교육은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농업 분야로 나가기를 원하지만 다른 분야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경향신문 2017년 09월 14일 윤희일 선임기자).

꿈이 자라는 뜰에서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일이고, 둘째는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했을 때 일할 수 있는 생태농장을 만드는 일이며, 셋째는 모두가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각자 하고 싶은 곳(주유소, 빵집, 어린이집 등)에서 일하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다(www.wikitree.co.kr/opm/)

꿈이 자라는 뜰은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조직으로 임의단체의 지위를 갖추고 있다. 향후의 목표는 장애 학생들이 학교 졸업 후에도 배운 직업능력을 활용하여 생활할 수 있는 취업처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지난 9년간 아무런 법적인 옷을 입지 않고 조직 아닌 조직으로 지냈던 꿈뜰이 2017년 3월에 임의단체 설립신고를 하였다(www.greencarefarm.org/).

(2) 행복농장

충남 홍성군 장곡면에 위치한 행복농장은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 회복과 직업 재활을 돕기 위한 시설로 2014년 4월 개장하였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문을 연 행복농장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직업을 갖기 어려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농업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 정신장애인들의 치유와 농업 관련 구직활동을 돕는다(홍주일보 2014년 04월 23일 이석호 기자).

농작물을 돌보는 것이 농업이라면 농민은 사람을 돌보는 데에도 뭔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농장 설립의 취지이다. 마음을 돌보고, 몸을 돌보고, 세상과의 관계를 돌보는 농장이다. 농작물뿐 아니라 사람을 돌보고 치유하고 키우는 따뜻한 확장이 시작되는 터전이다. 행복농장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라는 농장의 원천적 기능과 함께 농업이 가지고 있던 돌봄과 성장의 역할을 사람과 함께 지역과 함께 복원하고 있다(김정섭·안석·이정해·김경인, 2017).

행복농장은 마음을 돌보고, 몸을 돌보고, 세상과의 관계를 돌보는 농장이다. 농작물뿐 아니라 사람을 돌보고 치유하고 키우는 터전이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라는 농장의 원천적 기능과 함께 농업이 가지고 있던 돌봄과 성장의 역할을 사람과 지역이 함께 복원하고 펼쳐 나가고 있다. 농업과 치유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를 지역의 농장과 협의하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고유의 목적과 더불어 치유라는 사회적 미션이 결합하는 협동조합 형식의 행복농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happyhada.com/about/](http://happyhada.com/about/)).

치유농업은 마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의 농장들에서 재배되는 작물, 마을에서 운영하는 숙소, 강의실, 요리체험교실, 휴게실 같은 체험기반, 마을의 자연경관 등은 치유농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생산되는 농산물은 마을영농조합을 통해 농민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happyhada.com/about/](http://happyhada.com/about/)).



독립적인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면서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흥성농업기술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충남광역정신건강센터는 정기적인 상담을 담당하면서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를 하고 있다. 흥성농업기술센터는 농장의 농업 생산기반, 체험시설지원을 포함하여 농업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happyhada.com/about/).

허브, 꽃과 채소, 토마토를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농장이다. 재배 작물의 선택은 판매목적과 만성정신질환자들이 생산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시설 하우스 250평 4동 1,000평이 농장의 기본 시설이다. 허브 종류로는 바질, 애플민트, 루꼴라 등을 생산하고 있다. 도시(두레)생협에 판매를 하거나 직거래로 판매를 하고 있다. 직거래가 되는 바질페스토, 허브 차의 가공 뿐 아니라 봄과 가을에는 꽃과 채소 모종을 생산하여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happyhada.com/about/). 돌봄에 적합한 작목으로 허브를 선택하여 재배하여 왔으며, 2018년부터는 허브를 활용한 가공품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행복농장은 2016년 한해 동안 복지관 또는 기관에 소속된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체험과 기술을 통해 사회 속에서 자립이 가능하게 돕는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자연구시 프로그램’이라고 이름 붙였다. 미혼모, 탈북자녀, 청소년, 노숙자, 자살유가족 등 다양한 대상의 심리적 치유와 자립을 위해 농업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과 목공, 요리 등을 운영하는 ‘행복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프로그램들을 체계화하여 한해 동안 운영한 결과, 2017년에는 ‘자연구시 프로그램’만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은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장으로서 경제적 기반을 탄탄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김정섭 · 안석 · 이정해 · 김경인, 2017).

행복농장이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만성 정신질환자들을 고용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경험 자체가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이 초기 단계이며 많은 난관이 있다(김정섭 · 안석 · 이정해 · 김경인, 2017).

첫째, 농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일이다. 비닐하우스 다섯 동이 전부인 농장의 규모로 볼 때, 최적의 노동력 투입 규모는 2명이다. 자연구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 프로그램 참가자 2명에 농장 직원 1명이 곁붙어 보살펴야 한다. 행복농장의 연간 농업소득은 약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아직은 판로가 안정되지 못한 탓도 있지만, 돌봄에 많은 시간과 인적 자원을 할애한 탓이 크다.

둘째, 시설 및 인적 자원 부족 문제가 있다. 비닐하우스 몇 동과 행복농장의 고정 인력 3명으로는 자연구시 프로그램 참여자 10여 명을 돌보기 어렵다. 자연구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행복농장에서 10명 이상이 동시에 농업활동을 진행할 수 없어 인근에 있는 다른 농장들과 협력하는 것이었다. 행복농장에서는 두세 명만 농작업을 진행하고, 한두 명씩 다른 농장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농장이 여섯 개쯤 된다.

셋째, 농촌 마을 공동체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이 농업이라는 포장지를 둘러쓴 사회복지 시설일 수는 없다. 장애인은 재활의 필수적이므로 주민들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행복농장이 터를 잡은 농지는 마을 주민으로부터 임차한 것이고,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실내공간은 오누이권역 다목적 회관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치유형 농업체험 비즈니스 사업
(환경일보 2016년 07월 28일)



영주시 행복농장견학
(영주타임뉴스 2016-10-25)



happyhada.com/



(3) 젊은협업농장

충남 홍성군 장곡면에 위치한 젊은협업농장은 자본도 경험도 없는 젊은이들이 농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2011년 고안해 낸 농장이다. 농장의 시작은 홍동면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교사였던 정민철씨가 제자 두 명과 함께 창업했다. 농장을 만들어 파종에서부터 판매까지 직접 경험하면서 농사를 배우고 지역 사회를 이해하고 정착할 수 있게 돕자는 것이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을 설립한 배경이었다. 풀무학교 졸업생뿐만 아니라 지역을 찾는 젊은 귀농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했던 것이다. 홍동면과 장곡면 지역사회 또한 젊은이들이 필요했다. 뜻을 같이하는 농민 몇몇이 협동조합을 결성한 후 장곡면 도산리에서 땅을 빌리고 비닐하우스 서너 동을 만들어 쌈채소를 재배하기 시작했다(김정섭·안석·이정해·김경인, 2017).

젊은협업농장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참여자 모두가 주인이다. 직접 수확량과 노동시간을 정하고, 수입이 생기면 똑같이 나눈다. 돈을 좀 더 벌자고 하면 협의하여 일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노동의 강도를 높인다. 현재 농장은 전임제 농부가 6명, 월급을 받는 시간제 농부가 1명이다. 전임제 가운데는 20대가 절반이다.

젊은협업농장은 마을이장이 빌려준 땅으로 660여m²의 땅에 비닐하우스 한 동을 쳤고, 시세대로 임대료도 냈다. 상추, 생채, 로메인, 오클린, 적삼각추, 백로즈, 셀러리 같은 쌈채소를 심어 유기농으로만 생산했다. 생산량의 70%를 홍성유기농영농조합에 납품하고, 나머지는 홍성지역 식당이나 서울 지역에 택배로 배달하고 있다(한겨레21 2015년 12월 16일 홍석재 기자). 지역에 튼튼하게 자리잡은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과 도산리 주민들의 도움이 컸다.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은 젊은협업농장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사들였고, 처음 시작할 때 영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주었다.

2013년 5월9일 협동조합 법인을 세웠고, 조합원은 25명이 참여했다. 조합원은 대부분 홍동면과 장곡면 주민이다. 젊은협업농장은 일꾼과 교육생만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이 아니다.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이사진만 하더라도 풀무학교 이사장,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대표, 도산리 이장, 젊은 협업농장 생산자(2명)로 구성되어 있다. 젊은협업농장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협동조합

이다. 자본금도 2천만원이 모였다. 1동으로 시작했던 비닐하우스는 4동, 8동까지 늘었다. 조합원은 마을이장을 포함해 44명으로 늘었다. 자본금은 창립 초기의 두 배를 넘는 4300만원이 됐다. 협업농장을 거친 조합원들 중 일부는 독립해 재창업을 했다. 허브를 키우는 ‘행복농장’, 멜론을 키우는 ‘열매농장’ 같은 곳이다. 유기농 채소와 삼겹살을 묶어 파는 ‘꾸러미’ 사업을 하는 사람도 생겼다(한겨레21 2015년 12월 16일 홍석재 기자).

젊은협업농장의 주된 생산품은 쌈채소이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퇴비와 유기농 자재를 사용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다. 양배추와 청상추, 트레비스 등 20여 품목의 쌈채소를 연중 생산하고 있다. 젊은협업농장에서 생산하는 쌈채소의 70~80%는 홍성유기농영농조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나머지 쌈채소는 1주일에 한 번씩 꾸러미를 통해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고 있다. 꾸러미에는 젊은협업농장 쌈채소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품이 함께 담긴다(홍성신문 2014년 11월 13일 윤종혁 기자).

젊은협업농장은 2017년 현재 비닐하우스 8동에서 쌈채소를 재배하였다. 농사에서 얻는 소득은 연간 1억 2000만 원 정도이지만, 7~15명 정도의 사람들(운영진과 교육생)이 농사짓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소득은 높은 게 아니다. 규모를 확대해 더 높은 농업소득을 올릴 수는 있지만 젊은협업농장은 고소득을 추구하지 않는다.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농업 수입은 있어야 하겠지만 젊은협업농장의 기본 목적은 ‘돈을 많이 벌자’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청년 인재를 기르자’는 사회적 것이기 때문이다(김정섭·안석·이정해·김경인, 2017).

현재 농업을 지원하는 50여명의 조합원들과 농업을 실천하는 7~8명의 조합원들이 협동조합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독립하고 연대하는 협업농장이다(/collabo-farm.com/).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농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 생산활동을 직접 하며 온 몸으로 농업을 배우고 있다. 현재는 9명이 함께 하우스 8동에서 적상추, 치커리, 적근대 등을 재배해 홍성유기농영농조합 등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농장에서 농사는 짓는 사람들은 노동력이 아니라 교육생이다. 농업생산을 통해 50% 이상의 수익을 내 자생할 수 있어야 농장이다. 협업농장은 농업생산으로 운영을 지속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예비 농민을 교육하는 장소이다. 농장은 지역사회와의 연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쌈채소를 작목으로 선택했다.



지역에서 손이 많이 가는 유기농 쌈채소를 짓는 농가가 드물었기 때문이다(한국 농정신문 2018년 03월 11일 홍기원 기자).

젊은협업농장의 청년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이다. 유기농업, 역사인문학, 기초화학, 유기재배의 기초와 실제, 지역의 이해 등 7개의 강좌가 매주 1회 진행된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여러 협동조직들과의 협력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는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 청년농부영농조합법인, 청년농부작업장 온, 흥동밭밖도서관, 흥성지역협력네트워크,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등이 관여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 2018년 03월 15일



뉴스타파 2016년 9월 16일



프레시안 2014년 11월 21일

Ⅲ.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내용 분석

1.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검토

1). 윗뜨르권역

(1) 사업개요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청수리, 산양리, 낙천리 일원
(법정리 3개, 행정리 4개)
- 면적 : 3,595ha (농경지 1,465ha, 임야 및 기타 2,130ha)
- 인구 : 2,354명(가구 873호)
- 사업기간 : 2008년 3월 ~ 2012년 11월
- 사업비 : 보조 5,900백만원/ 자부담 104백만원

- 주요 사업(기본계획 기준)
 - 기초생활기반 : (중동, 수동)마을회관리모델링, 청수다목적회관, 낙천다목적회관, 산양복지회관, (저지리, 산양리)게이트볼장 등
 - 지역소득증대 : 농산물직거래장, 꽃자왈 승마체험장, 저온저장고, 장수음식체험장 등
 - 지역경관개선 : 돌담정비, 산책로 정비, 연못정비 등
 - 지역역량강화 : 지도자 및 주민교육, 홍보 및 컨설팅, 정보화 구축 등

(2) 비전체계도

- 윗뜨르권역 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은 마을주민의 기본욕구인 생활환경기반을 개선하되, 크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지닌 제주도라는 특이조건에서 차별된 권역통합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 “전통을 간직한, 돌담이 아름다운 윗뜨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음. 이에 따른 추진전략으로 아름다운 돌담 만들기로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도농교류를 위한 체험활동 패키지화와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등 계획목표에 부합하는 전략사업을 도출함.



비전	전통을 간직한, 돌담이 아름다운 옷뚜르		
기본목표	풍경이 아름다운 옷뚜르	옛것을 간직한 옷뚜르	농산물이 건강한 옷뚜르
추진전략	아름다운 돌담길 조성	체험활동 패키지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핵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집 및 돌담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연못정비 ◦권역안내판 ◦경관저해시설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험연계 프로그램패키지 ◦장수음식 체험장 ◦곶자왈 승마체험학교 ◦전통문화체험 ◦녹색농촌체험 ◦다목적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직판장 ◦저온저장고 ◦농산물브랜드개발 ◦농산물수확체험 ◦농업살전시관
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화장실 시설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연원마을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氣)지도 공원조성사업 ◦개박물관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골홍보관 사업2010년 ◦석창포농원 조성사업

※ 자료 : 2008, 저청권역(옷뚜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서.

(3) 공간구상 및 주요사업

- 각 마을의 입지여건 및 특성에 따른 사업을 계획하였음. 가장 면적이 큰 저지리 마을은 도농교류 및 친환경 농업을 통한 권역중심공간으로 육성하고, 청수리는 마을 내 곶자왈을 활용하여 자연생태체험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낙천리 마을은 아홉곳 전통테마마을과 연계하여 전통문화체험 공간의 기능 수행하며, 산양리는 제주도 3번째 장수마을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노인복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공간을 계획함.

구분	저지리	청수리	낙천리	산양리
	권역중심 및 친환경농업 공간	자연생태체험공간	전통문화체험공간	노인복지공간
주요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회관 리모델링 ▪돌담, 산책로정비 ▪농산물판매장 ▪녹색농촌체험(폴장) ▪شط터·어린이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곶자왈승마체험장 ▪다목적 회관 ▪체험프로그램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목적 회관 ▪야외소공연장 ▪산책로 정비 ▪농산물수확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연못정비 ▪복지회관 리모델링 ▪장수음식체험 ▪게이트볼장



※ 자료 : 2008, 저청권역(웃뜨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서.

2). 판포권역

(1) 사업개요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금등리, 두모리, 신창리(법정리 4개, 행정리 4개)
- 면적 : 1,318ha (농경지 786ha, 임야 및 기타 532ha)
- 인구 : 2,376명 (가구 950호)
- 사업기간 : 2006년 9월 ~ 2011년 11월
- 사업비 : 보조 6,370백만원/ 자부담 280백만원/ 인센티브 500백만원 별도
- 주요사업(기본계획 기준)
 - 기초생활기반 : 노인회관 리모델링, 해녀작업장, 게이트볼장, 멧물쌈지공원, 마을회관 리모델링, 건강관리실, 수장동마을 사랑방 등
 - 지역소득증대 : 저온저장고, 대체작물시험포 등



- 지역경관개선 : 마을 진입로 및 돌담정비, 자연체험어장, 해거름 마을공원, 해안전망공원, 생태공원 등
- 지역역량강화 : 마을리더 육성, 권역주민교육, 컨설팅, 브랜드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정보화프로그램 등

(2) 비전 및 추진전략

- 판포권역의 비전은 바다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 방문객이 여유롭게 쉬어가고 다시 찾아오는 공간-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간다는 의미에서 바다와 농촌의 어울림 희망을 키워가는 해거름 마을로 선정하였음.



※ 자료 : 2005, 판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서.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체험형 농촌마을 조성’,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의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추진전략과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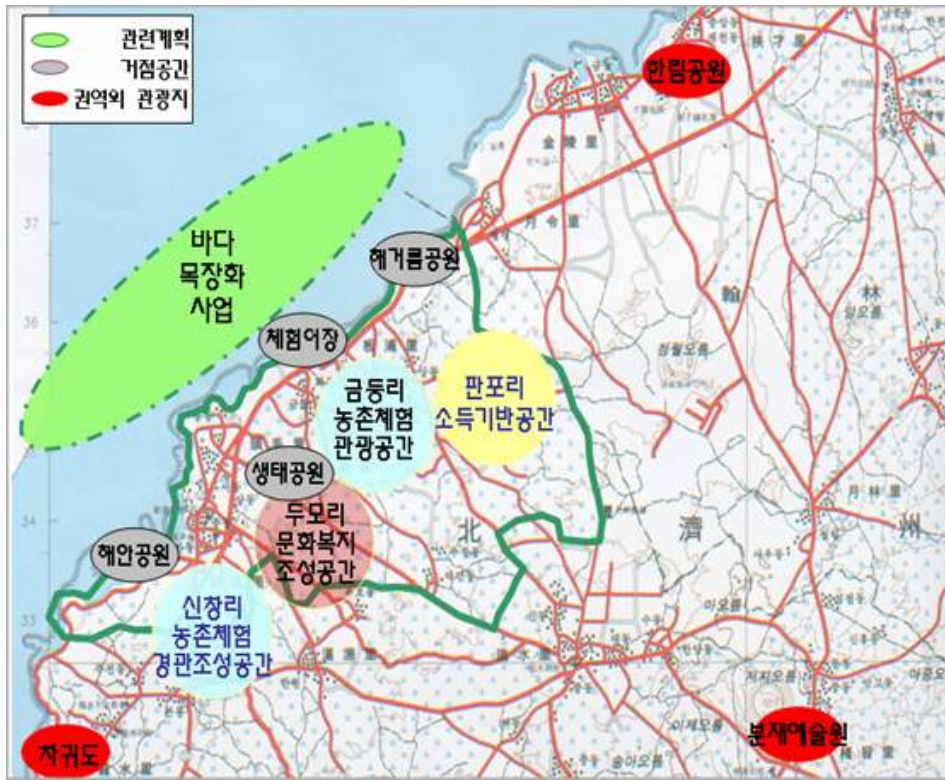


※ 자료 : 2005, 판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서.

(3) 공간구상 및 주요사업

- 공간계획은 관련계획인 바다목장화 사업의 성공을 전제하여 권역인근의 관광객을 권역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공간의 거점을 해거름 공원, 체험어장, 생태공원, 해안공원으로 하였음. 각 마을별로는 판포리는 소득기반공간, 두모리는 문화복지조성공간, 금등리와 신창리는 농촌체험 관광공간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음.

전략별	사업명
스스로 만들기 (역량강화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포권역 홍보 권역활성화 지원 비용 권역주민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 마을리더육성 선진지 견학
아름답게 만들기 (관광·환경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거름마을 공원 해안전망공원 자연체험어장 생태공원
서로서로 하나되기 (문화·복지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회관리모델링 게이트볼장 마을회관리모델링 해녀작업장 멋물쌈지공원 건강관리실
활력넘치는 마을만들기 (경제·경관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온저장고 경관정비(마을진입로 및 돌담정비) 대체작물 시험포



※ 자료 : 2005, 판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서.

2.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완료 후 시설운영현황

1). 윗뜨르권역

- 주요사업(준공 기준)

구분	위치	공사비	공사기간	공사규모	
기초 생활 기반	청수다목적회관	청수리 113-3	598백만원	09.07 ~10.02	연면적 484㎡(2층)
	저지게이트볼장	저지리 1863-1	231백만원	08.10 ~ 09.04	연면적 537㎡(1층)
	산양게이트볼장	청수리 3277 옆	249백만원	12.11 ~ 12.12	연면적 374㎡
	마을회관 리모델링	저지리 1843-2 외 4, 저지리 1198 외 1	1,026백만원	11.12 ~ 12.06	2개소

	낙천리 다목적회관	낙천리 1913 외 4필지	854백만원	10.05 ~ 10.11	연면적 419㎡(1층)
	산양복지회관	청수리 3277	615백만원	10.05 ~ 10.11	연면적 326㎡(1층)
지역 소득 증대	꽃자왈 승마체험학교	청수리 113-5	272백만원 (68백만원 자부담)	09.07 ~ 10.02	연면적 379㎡(1층)
	농산물직거래장	저지리 3003-3 외 1필지	144백만원 (36백만원 자부담)	11.12 ~ 12.06	-
지역 경관 개선	연못정비 및 종합안내판	권역 일원	232백만원	2010 ~ 2011	-





(1) 청수 다목적회관 (빛센터), 꽃자왈 승마체험학교, 종합안내관

- 청수리 마을 내에 위치한 다목적회관인 빛센터는 권역사무실과 회의실, 세미나실, 숙박시설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현재는 사업이 완료되어 사무실은 웃뜨르운영협의회 및 제주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사무실로 이용 중임. 회의실은 농어촌개발사업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비정기적으로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수리 꽃자왈 축제 시 방문자 탐방 교육 공간으로도 사용함. 빛센터 부지내에는 승마체험학교가 위치하고 있음.
- 승마체험학교는 권역주민 72명이 참여하여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체험학교 프로그램은 정기프로그램 및 예약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주로 정기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빛센터와 바로 접하여 청수리 꽃자왈 진입로가 위치하는데 청수리꽃자왈에서는 2017년 1회 청수리 꽃자왈 반딧불이 축제가 개최되었으며, 앞으로 매년 운영할 예정임. 체험객은 빛센터에서 탐방 교육을 받고 출발하며, 포토존과 간이 매점등이 설치됨.



(2) 저지 게이트볼장

- 전천후 활용가능한 실내게이트볼장으로 마을 노인회의 운동 및 친목도모를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 활용도가 높아 비교적 관리도 잘되고 있는 실정임.
-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행사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음. 지역 게이트볼 경기 대회를 유치하거나 경기 목적 외 기타 활동공간으로 도입활동을 다양화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있음.



(3) 농산물 직거래장

- 농산물 직거래장은 판매장이 위치한 저지리 명리동 마을주민이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소득사업 시설임. 인력문제 등으로 인하여 1년내내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 사업 완료 후 감괄수확철 위주로 운영하여 문이 닫혀있는 경우가 많았음. 지난해인 2017년에는 일부공간을 6차산업제품의 마케팅 활동 거점으로 활용하는 안테나샵 사업을 유치하여 안테나샵으로 운영하기도 하였음.
- 2018년부터는 마을에서 다시 상설판매공간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음. 마을 내 및 인근마을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직판장으로 직접판매 및 택배판매를 하고 있음. 그러나 상시인력의 부재로 문이 닫혀 있는 경우도 많으며, 다른 농수산물 직판장과 차별화는 없음.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소득시설인 만큼 저지리 지역의 색깔을 담은 차별화된 판매전략 또는 운



영방식을 통하여 차별화된 판매공간으로 개선·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4) 저지리 중동 마을회관 리모델링(미센터)

- 저지리 마을의 중동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한 것으로 바리스타 교육, 마을카페, 농산물 판매, 생태마을 숙박 등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음.
- 2014년 바리스타 직업교육의 수요가 있는 복지시설과 옷뜨르운영협의회, (주) 탐앤탐스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옷뜨르 바리스타 교육장 및 저지리 마을카페’가 오픈되었으며, 바리스타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음. 미혼모 및 일반인들에게 바리스타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의 쉼터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해당시기에는 활발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음. 그러나 이후 마을로의 권한이양으로 사업이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현재 바리스타교육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고 있음. 현재는 마을카페 겸 농산물판매장으로 공간이 활용되고 있으며, 저지리를 찾는 관광객이 비교적 많아 농산물판매는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임.
- 2층 세미나실은 현재 마을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생태마을 숙소로 용도를 전환하여 활용하고 있음.



(5) 저지리 수동 마을회관 리모델링

- 노후화된 저지리 수동 마을회관의 일부시설을 리모델링한 사업으로 현재 수동마을 주민들의 마을회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음. 행정리가 아닌 자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으로 상시 활용은 없음.
- 1984년도에 건축되어 오래된 건물이나 권역사업을 통하여 리모델링을 하였으며, 965㎡/ 건축면적 123㎡로 비교적 큰 규모의 마을회관으로 건물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 공간도 비교적 넓어 다양한 활용가능성이 있는 공간임.



(6) 낙천 다목적회관(락센터)

- 락센터는 다목적 용도를 지니는 시설로 아홉굿 의자마을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419㎡의 규모로 외부는 야외 공연장, 내부는 연회장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시설되어 있는 건물임. 권역사업 초반에는 학회행사 유치, 농촌관련기관 등 기관연수, 대학 워크숍, 도단위 교육 등을 유치하였



으며, 2013년까지는 옷뜨르 문화축제를 개최하기도 하였음. 이후 이용실적이 점점 저조해지자 2016년에는 갤러리 겸용공간으로 보완하여 갤러리 전시를 하기도 하였음. 올해(2018년)에는 영어교육도시와 연계한 축제가 개최될 예정에 있음.

- 현재는 낙천리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실상 1년 중 거의 사용이 되고 있지 않음. 반면에 의자공원 내에 함께 위치하고 있는 체험관의 경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보리피자, 보리빵, 보리수제비 만들기 등 보리를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년중 활발하게 운영되는 상황임.
- 락센터는 현재 사용도가 이전에 비해 많이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의자공원 내에 위치하여 있으며 의자공원 내에 위치한 아홉굿마을 체험장에 체험객도 많이 찾고 있어 주변 시설들과 연계하여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7) 산양 복지회관(수센터), 게이트볼장

- 산양리 마을에 다목적 센터를 만들어 세미나실(회의장), 식당, 노인회관, 게이트볼장, 어린이 놀이터 등 마을 주민들의 문화복지시설로 활용되고 있음. 노인회관의 활용도는 높은 편이나 세미나실과 식당은 마을 잔치 피로연장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외 특별한 활용도는 없는 편임.



(8) 산양리 연못정비

- 산양리 마을회관 부지 내에 위치한 연못을 정비하여 주민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자 및 분수대설치, 연못 주변 조경 등을 통하여 기존의 연못을 정비하였음. 현재 산양리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연못정비로 인한 경관개선 및 주민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음.



(9) 산양 생태관찰로

- 산양리의 꽃자왈을 보호하고, 탐방객들의 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한 탐방데크, 정자 및 벤치, 안내판 등을 설치하였음. 산책로 내부에도 야자수 매트로 산책로가 정비되어 있어 탐방객을 보호하고 있음. 청수리 마을 꽃자왈에서는 여름 3개월 동안 반딧불이 축제가 열리는데 2018년에 열리는 2회 꽃자왈 반딧불이 축제에서는 산양 생태관찰로도 코스로 포함하여 운영될 예정임.



2). 판포권역

• 주요사업(준공기준)

	구분	위치	공사비	공사기간	공사규모
기초 생활 기반	노인회관 리모델링	한경면 판포리 1986-5	350백만원	08. 7 ~ 08. 10	지상2층, 건축면적 152.85㎡
	노인회관 부엌시설	한경면 판포리 1986-5	45백만원	10. 1 ~ 10. 5	지상1층, 건축면적 93.10㎡
	마을회관 리모델링	한경면 두모리 2378-1	426백만원	08. 7 ~ 08. 10	지상2층, 건축면적 206.66㎡
	건강관리실	한경면 두모리 2962-1	267백만원	07. 11 ~ 08. 2	지상 1층, 건축면적 133.09㎡
	게이트볼장	한경면 금등리 547	150백만원	07.09 ~07.12	게이트볼장 1식
	해녀작업장	한경면 금등리 738-1	113백만원	09. 5 ~ 09. 9	지상1층, 건축면적 72.57㎡
지역 소득 증대	농산물가공판매 시설(두부공장)	한경면 금등리 346-1	1,400백만원 (자부담280백 만원 포함)	10. 12 ~ 11. 4	지상2층, 건축면적 504.6㎡
	향토음식배움터	한경면 두모리 2963	366백만원	09. 11 ~ 10. 2	지상1층, 건축면적 237.87㎡
	자연체험어장 편의시설	한경면 판포리 2946	190백만원	08. 2 ~ 08. 9	지상2층, 건축면적 139.8㎡

지역 경관 개선	해거름마을공원	한경면 판포리 1462-2	190백만원	08. 7 ~ 08. 11	지상2층, 건축면적 142.65㎡
	해안전망공원	한경면 신창리 해안 (벌내물 공원)	300백만원	07.09 ~ 07.12	공원 1식
	뗏목쌈지공원	한경면 두모리 2363-1	170백만원	07.04 ~ 07.06	공원 1식



(1) 해거름 마을공원, 해거름전망대

- 해거름 마을공원 내 위치한 전망대는 현재 마을 카페 및 전망대로 운영하고 있음. 공원 내에 142.65㎡ 2층 규모의 건물이 1개소 위치하고 있으며, 1층과



2층 모두 카페로 활용되고 있음. 해거름 마을카페는 현재는 권역에서 직접 운영 중이며 권역 사무장이 상시 인력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음.

- 카페에서는 일반적인 커피메뉴 외에 일부 청귤이나 백년초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가 판매되고 있으며, 백년초 관련 가공품 같은 지역 농산물이 카페입구에 전시되어 있으나 소량·일부상품으로 지역 농산물을 다양하게 접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님. 전망이 좋고 대도로변에 위치한 유리한 접근성으로 비교적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어 일반 카페뿐만 아니라 지역의 1차 생산물과 지역 농산물로 만든 2차 가공식품을 전시·판매하면 판매를 통한 소득 증대 뿐만 아니라 지역 홍보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의 가능성이 있음.
- 현재는 시설물을 권역에서 운영 중이나 마을(판포리)로 귀속되어 마을에서 운영할 예정임. 마을로 관리 권한이 이양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설물의 유희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
- 전망대 건물 동측으로는 족구장, 농구장 과 같은 운동공간과 어린이놀이터가 시설되어 있는데, 노후화가 되어 일부 보수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잔디공원의 넓은 공간이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2) 노인회관 리모델링

- 기존의 판포마을의 노인회관은 리모델링하여 마을 노인들에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회관에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노인회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음. 운영상의 특이점은 없음.



(3) 자연체험어장

- 판포리 해안에 위치한 자연체험어장 관련 시설은 139.8㎡, 2층 규모인 건축물과 용천수 정비, 정자 시설이 있음. 건축물의 경우 2층은 체험 사무실, 1층은 숙박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으나 전기, 에어컨 실외기 등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주민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결과 현재 관리 인력이 따로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은 상황임. 현재 유휴시설물로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4) 해녀작업장

- 금등리 마을 해녀들의 물질과 관련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물로 관련된 컨테이너는 별도로 없으며, 금등 해녀들이 탈의 및 관련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금등리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음. 금등리 마을 어촌계에는 11명의 해녀가 등록되어 있으며, 두모리와 함께 판포권역에 속하는 판포와 두모 어촌계에 등록된 해녀는 각각 23, 27명임.¹⁴⁰⁾



(5) 게이트볼장

- 금등리 마을회관(노인회관) 인근에 위치한 게이트볼장으로 지역 주민들의 복지공간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음.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에 바로 접해 있어 접근성은 좋으며, 부대시설로 벤치와 비가림정자가 있음.

14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해녀문화 중장기 발전방안연구, 2016.



(6) 농산물 가공판매시설

- 농산물 가공판매시설은 현재 두부가공 시설을 설치하여 두부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금등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권역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해거름마을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지난 2013년부터 두부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음.
- 두부공장은 사무실, 연구실 등을 포함하여 504.6㎡의 규모이며, 제주산(국내산) 무농약콩과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생산하고 있음. 주요판로는 농업회사법인인 (주)제주살림으로 도내 학교 급식, 축협마트, 한 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등으로 판매되고 있음.



(7) 멧물쌈지공원

- 두모리 마을회관 도로 맞은편 노인회관 앞에 위치한 연못을 정비하고, 정자, 분수대, 벤치, 지압보도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



성하였음. 현재 관리는 비교적 잘되어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시설 점검과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8) 두모마을회관 리모델링

- 노후화된 두모리 마을회관의 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마을회 및 자생단체의 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마을 사무실로 활용하기에는 시설물의 규모나 활용가능성 높은 반면 현재의 활용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편임. 마을회관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건강쉼터, 썸지공원 조성, 전통음식배움터 등 집중배치되어 있어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시키고 사용도를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음.



(9) 건강관리실(건강쉼터)

- 주민복지를 위한 건강쉼터로 체력단련시설을 갖추어 주민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 두모리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비는 연회비를 받아 관리하고 있음.

- 2018년에 건강쉼터를 사용하기 위해 등록된 회원은 16명으로 사용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관리·운영상의 편의를 위한 이유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회원 외에는 문이 잠겨 있어 주민 접근도가 낮은 시설임. 복지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0) 향토음식배움터

- 향토음식배움터(해거름맛골)는 1,198㎡ 부지에 건축면적 200㎡ 규모로 시설되었으며, 사업초반에는 향토음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습장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계획되었음. 두모리 부녀회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체험식당으로 운영하고자 계획을 수립 하였으나 권역 운영위원회의 활동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운영상 문제점을 초래하였으며,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5년 이상 운영 없이 방치되었음.
- 현재 운영상황은 올해 2018년부터 live 음악체험식당으로 다시 문을 열었음. 지역에 음악을 연주하고 싶은 주민은 방문하여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밴드 악기가 마련되어 있으며, 부대찌개와 해물라면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음. 입구에는 지역 특산물을 전시·판매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방문객이 방문하여 구입할 수도 있음.
- 체험식당의 경우 일주도로(지방도1132)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은편이며, 바로 인접하여 멧물쌈지공원, 건강쉼터, 두모리마을회관 등 권역 시설이 집중되



어 있어 주민 접근도도 높은 입지임. 오래 문을 닫은 이후 2018년부터 다시 문을 열기는 하였으나 차별성 있는 상품과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방안의 모색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11) 해안전망공원

- 신창리 해안도로에 위치한 해안전망공원(벌내물공원)은 습지 주변으로 탐방로, 정자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음. 풍력발전을 위한 풍차가 설치된 해안도로 풍경이 아름다워 많은 방문객이 찾는 편임. 해안쪽으로는 용천수가 복원되어 보존되고 있음. 해안도로를 경계로 용천수가 복원 되어 있는 해안쪽 공원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으나 이에 반해 벌내물공원은 머무는 사람이 거의 없는 편임.
- 안내판 등이 없어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며, 일부 탐방로의 노후화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사후관리를 통한 공원의 이미지 재조성과 주변 자원과의 연계방안을 통하여 공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시설운영현황 종합

가. 웃뜨르권역

- 웃뜨르권역의 경우 다양한 하드웨어 사업이 이루어졌으나 활용도는 저조한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축제 운영, 바리스타 교육, 다양한 행사 유치 등 시설에 따른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완료된 이후 대부분의 시설들을 마을에서 관리하면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거의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대부분의 시설이 주민 복지 시설로 소득 사업이 미흡한 편인데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며 시설물의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음.
- 웃뜨르권역 내에는 각 마을마다 락센터, 미센터, 빛센터, 수센터의 4개의 중심 시설과 저지리 수동 복지회관 등 활용가능한 하드웨어 시설들이 있음. 그러나 락센터의 경우 오랜기간 동안 사용도가 거의 없으며, 미센터도 기존의 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빛센터도 권역사업 중심시설로 사무실, 회의실 등 활용은 되고 있으나 시설에 비해 활용도는 떨어지는 편임. 수센터와 복지회관 등도 비교적 규모가 크고,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으나 마을의 행사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음.

나. 판포권역

- 판포권역의 경우 다양한 하드웨어 사업이 이루어졌으나 활용도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업완료 후 관리·운영 권한이 마을로 이양됨에 따라 일부 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거의 활용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음. 노인회관 리모델링과 같은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 관리·운영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 운영 없이 방치되거나 운영은 되지만 프로그램 미흡, 관리운영상 어려움 등 문제를



나타내고 있음.

- 권역사업 종료 후 마을로 사업이 이관된 경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자연체험어장 관련시설은 현재 방치된 채 활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관리 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프로그램도 운영되지 않고 있음. 해거름맛골 역시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오다 2018년 다시 문을 열었으나 임대 형식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권역 사업의 본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 활용이라 할 수 있음. 해거름 공원의 해거름 전망대는 현재 권역에서 운영 중이지만 마을로 시설물 운영이 이관될 예정으로 향후 관리·운영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해거름공원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주도로에 접하여 접근성, 넓은 부지, 해안 경관 등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농산물가공시설인 두부공장의 경우 권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운영주체가 분명하여 연중 지속적인 생산·판매를 하고 있으나 제주산 및 국내산 콩 두부만 생산하고 있어 품질은 우수하나 판로가 한정적임. 단순 생산·판매 뿐만 아니라 권역 내에서 소비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다. 종합

- 두 권역을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투자된 시설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문제점들은 크게 하드웨어적 문제점과 소프트웨어 적인 문제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하드웨어적인 문제점은 일부 시설에 대하여 추가투자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인프라 시설을 정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하드웨어적인 문제점보다 인적자원의 부족, 프로그램의 부재 또는 프로그램 운영 역량 부족 등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점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권역사업이 완료되어 마을로 이관되는 경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내부 인력의 부족으로 시설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설 용도를 재정립하고 프로그램을 새롭게 계획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마을리더의 역할 및 관리·운영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농업을 적용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IV.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지역 자원현황분석

1. 옷뜨르권역

1). 일반현황

(1) 지역특성

- 저지리, 청수리, 산양리, 낙천리를 포함하는 옷뜨르권역은 제주시의 서부에 위치하며, 한경면 마을 중에서도 중산간 지역으로 눈이 많이 음. 토지이용현황은 전체면적의 40%이상이 임야가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전(田)으로 감귤과 밭작물 등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음. 지방도 1136, 지방도 1120 등이 있어 권역으로의 접근성은 좋으며, 권역내 오름과 꽃자왈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제주 서남부지역의 관광중심지역으로 저지문화예술인마을, 현대미술관, 생각하는 정원, 유리의 성 등 유명 관광지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 제주올레 13코스, 14코스, 14-1코스가 지나감.





(2) 인구현황

- 옷뜨르권역 내에는 1,249세대 2,624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

<옷뜨르권역 인구현황¹⁴¹⁾>

구분	세대	인구(명)		
		계	남	여
한 경 면	4,461	8,930	4,495	4,435
옷뜨르권역	1,249	2,624	1,345	1,279

(2017.12월 기준)

141) 제주도청 통계연보 2017년 주민등록인구 통계표

(3) 토지이용현황

- 웃뜨르권역의 토지이용현황으로는 임야가 약 1,429ha로 전체면적의 약 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전(31.72%), 기타(11.91%), 과수원(11.76%) 순으로 나타남.

<웃뜨르권역 지목별 토지현황¹⁴²⁾>

(단위 : ha/%)

구분	합계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	기타
한경면	7,912.09	3,442.51	96.16	655.63	22.24	2,466.56	244.68	984.31
	100.00	43.51	1.22	8.29	0.28	31.17	3.09	12.44
웃뜨르 권역	3,432.44	1,088.69	1.23	403.60	14.25	1,429.19	86.73	408.75
	100.00	31.72	0.03	11.76	0.41	41.64	2.53	11.91

(2017.12월 기준)

(4) 생산물현황

- 한경면은 주로 밭작물 재배를 중심으로 하다가 1980년대 이후 중산간지대를 중심으로 감귤농사를 재배하기 시작하였음. 저지리, 청수리, 산양리, 조수리를 중심으로 감귤이 재배되고 있으며, 보리, 콩 등 위주의 농업에서 벗어나 감귤 및 다양한 만감류 재배를 하고 있음. 밭작물로는 보리, 콩, 마늘, 양파, 양배추, 토마토, 파프리카 등 채소 재배도 활발함. 월동채소와 시설하우스를 활용한 토마토, 오이, 딸기 생산 등 다양한 작목이 생산되는 지역임.



142) 제주도청 통계연보, 2017년 지목별 지적공부 등록현황(2017.12월 기준)



(5) 지형·지질

- 한경면은 동부 중산간지역에서 서부 해안지역으로 이어지면서 점차 낮아지는 형태를 보임. 권역 내 마을은 표고 65~140m 사이에 위치함. 한경면내에는 13개의 오름이 있는데 8개의 오름이 권역 내에 위치함. 권역 내에 전개되는 꽃자왈은 한경-안덕 꽃자왈 이 중에서도 월림-신평 꽃자왈 지대에 속함. 월림-신평 꽃자왈은 도너리 오름에서 시작되는 제주도내에서 가장 긴 꽃자왈지대인데 마중오름을 지나 저지지역, 청수지역, 산양지역로 이어지는 꽃자왈지대를 형성하였음. 꽃자왈이라는 특수한 지형·지질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방식과 문화에 영향을 미쳤음.¹⁴³⁾

2). 자원현황

(1) 자연자원

가. 오름

143) 한경면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7.

① 저지오름

- 마을 중심에 위치하는 저지오름은 높이 239.3m, 둘레 2,542m, 총면적 37만 9316m²의 규모로 모든 사면의 경사도와 거리가 거의 같아 전체적으로 원형을 이룸. 정상에는 둘레 약 800m, 깊이 약 60m에 달하는 분화구가 있음. 오름 각 사면에는 해송이 주종을 이루며 잡목과 함께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 220여 종 2만여 그루의 다양한 수종을 살펴볼 수 있다.¹⁴⁴⁾ 저지오름 숲은 2007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대상 수상하기도 하였음.
- 저지리 꽃자왈과 저지오름이 환경부 지정 2018년도 생태관광마을로 선정됨. 생태관광마을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음. 저지마을에는 2018년 부터 3년간 국비 지원으로 지역협의체 구성과 운영, 지역 로고사용, 생태계조사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됨 (제주매일 2018년 01월 29일 한경훈 기자).



② 마중오름

- 한경면 저지리 동쪽 1Km지점에 남·북으로 누워 있는 오름으로 농로가 오름 자락을 지나고 있어 쉽게 오를 수 있음. 행정구역상 산체가 한경면 저지리에서 한림읍 월림, 상명리까지 뻗어 있음. 높이는 104m, 비고 29m, 둘레는 747m, 면적은 30,701m², 폭은 281m이며, 서쪽 사면으로 벌어진 말굽형 화구로 복합형 화산체임. 주요 식생으로는 해송이 주를 이루고 있고, 동쪽 사면에는 오래된 팽나무가 자리하고 있으며, 북사면 쪽에는 보리수나무와 잡목들이 우거져 있으며, 분화구 쪽 사면에는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음.¹⁴⁵⁾

144)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 한국지명유래집 전라 · 제주편 지명, 2010.12. 국토지리정보원 ; 마을홈페이지 <http://jeoji.invil.org>

145)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 마을홈페이지 <http://jeoji.invil.org>



③ 가마오름

- 말굽형으로 한라산의 기생화산으로 가마솥을 엮어놓은 것처럼 생겼다 하여 가마오름이라고 부르게 됨. 높이는 140.5m, 비고는 51m, 둘레는 2,059m, 면적은 154,486㎡, 폭은 646m임. 오름의 주봉 아래에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군단사령수가 주둔했던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진지 땅굴이 있으며, 일부 땅굴을 평화박물관으로 이용하고 있음.¹⁴⁶⁾



④ 이계오름

- 면적은 48,811㎡, 둘레는 855m, 높이는 167.7m으로 서사면은 완만한 반면, 동사면은 가파르고 넓은 말굽형 화구를 띠고 있음. 오름사면에는 해송이 듬성 듬성 서 있고 띠, 억새, 쭉부쟁이, 슬괘랭이꽃 등이 자생하고 있음.¹⁴⁷⁾



146) 두산백과 www.doopedia.co.kr;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

147) 제주특별자치도관광정보사이트 www.jeutour.go.kr;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

나. 꽃자왈

① 저지꽃자왈

- 저지꽃자왈은 월림-신평 꽃자왈 지대 중에서도 가장 식생 상태가 양호한 지역으로 녹나무과의 상록 활엽수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음. 과거에 벌채가 이루어져 맹아림이 많은 2차림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미기후 형성으로 공중습도가 잘 보존된 탓에 활엽수림 아래에는 다양한 양치류가 분포함.¹⁴⁸⁾



② 청수꽃자왈

- 한경-안덕꽃자왈의 중심부에 속하는 청수꽃자왈은 거대한 암채 형태의 관상용암, 부서진 암괴형태의 암괴상용암, 주먹 크기로 잘게 부서진 형태의 클린커성 용암들이 분포하고 있음. 숲에는 높이 10m 내외로 성장한 종가시나무가 우점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록수활엽수가 분포하고 있음. 특히 운문산반딧불이가 집단서식하고 있어 여름에는 반딧불이 축제를 개최하고 있음.¹⁴⁹⁾



③ 산양꽃자왈

- 산양꽃은 꽃자왈 용암이 다른 곳보다 크고 많아 거대한 바위들이 모여 있고 마치 바위 구릉과 같은 함몰지가 불규칙하게 발달하여 지형적·경관적으로 흥미로운 곳임. 도내 꽃자왈 가운데 상록수림이 가장 발달한 곳 중 하나이며,

148)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

149) 청수꽃자왈 안내판



상록 활엽수림은 맹아로 형성된 종가시나무가 우점하고 있으며, 개가시나무·참가시나무·구실잣밤나무·참식나무·팽나무·단풍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음. 또한, 임상의 외곽으로는 녹나무가 독립목 형태로 분포하고 있음. 국내 미 기록 속 식물인 빌레나무가 발견되었으며, 천량금, 밤일엽, 개가시나무, 백서향 등 희귀식물이 서식하고 있음.¹⁵⁰⁾



다. 아홉굿(연못, 봉천수)

- 낙천리 마을은 마을이 분지형인 동시에 토질이 점토질이어서 물이 잘 고이는 특성으로 자연적으로 물통이 많이 생겼음. 불미가 시작되면서 텅이에 필요한 흙을 채취하다 보니 지금과 같이 여러곳에 물통이 생겼음(저갈물, 오빠미물, 새물, 세미왓물, 거우기물, 고냉이물, 외통굿)



라. 여뀌못

- 산양리 마을회관 옆에 위치한 여뀌못은 면적이 600m²정도인데 습지식물인 여뀌가 많이 자라 여뀌못 또는 역고못이라고 함. 연못에 연꽃이 많이 자생하게 되어 연화동이라는 마을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함. 예전에는 식수와 소와 말에게 물을 먹이는 곳이었으며, 현재는 정비하여 주민들의 쉼터가 됨.

150) 오진혁, 산양 곳자왓 함몰지형에서의 양치식물 분포 및 생태조사 연구, 제 55회 전국과학전람회.



(2) 문화 자원

가. 저지문화예술인마을

-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은 2001년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는데 문화예술관, 공동 작업장, 야외 전시장, 전통문화 공간, 개인 작업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은 지형과 자연특성을 그대로 살려 나가면서 제주의 돌담과 송이도로 포장 등 친환경적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녹지벨트를 만들어 산림욕과 휴게공간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서양화, 조각, 서예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입주하여 작업을 하고 있음.¹⁵¹⁾



나. 낙천리 의자공원

- 의자공원은 1,300㎡의 땅을 마을 자금으로 우선 구입하고 초가 2채를 조성하였음. 이후 도로공사를 하면서 돌담정비에 주민 44명이 총 7일간 참여한 수익금으로 8,900㎡의 땅을 추가 구매하였음. 이후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6,600㎡의 땅을 더 구입하였으며, 2007년에서 2009년에 걸쳐 1000여개의 의자조형물을 제작하여 의자공원을 조성하였음. 의자공원 내에는 낙천리 체험

151) 현대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jejumuseum.go.kr/>



관과 권역사업으로 시설한 락센터가 함께 위치하고 있음.



다. 낙천리 잣길

- 낙천리 마을과 용선달이를 왕래하던 길로 폭은 2m 정도, 길이는 약 1.5km정도 됨. 양 옆에 밭을 끼고 동산을 오르다가 다시 내려가는 꼬불꼬불 울퉁불퉁한 길로 옛날에는 잣길이라고 부름. 잣이란 일반 돌담이 아닌 자갈로 성벽처럼 쌓아놓은 것을 말하는데 독특한 경관으로 현재도 잣길이 보존되고 있으며, 일부 복원하여 잣길 체험코스로 이용되고 있음.



라. 노랑굴

- 산양리와 청수리에는 각각 노랑굴이 남아 있음. 노랑굴은 물허벅과 향아리 된장독과 같이 붉은 빛을 내는 용기를 굽던 가마를 말하는데, 지역에는 양질의 점토와 꽃자왈의 풍부한 연료를 지니고 있어 일찍이 용기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산양리에 있는 노랑굴은 조선시대에 축조돼 이용돼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여 1960년대 말까지 사용되었음. 청수리 노랑굴은 용기제작이 왕성하던 1950년대에 축조되어 1960년대 중반기까지 운영되었음.



(3) 시설 및 경제자원

가. 석창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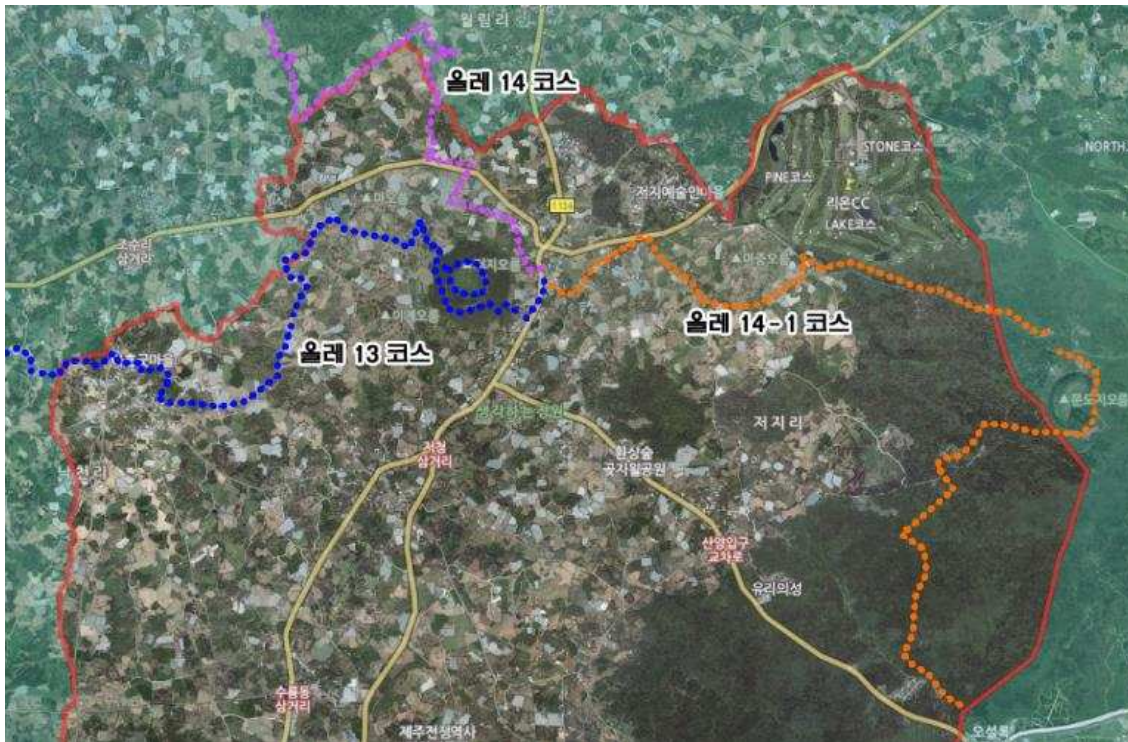
- 석창포는 못가나 습지, 개울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로, 뇌신경의 피로를 풀어주고, 기억력을 좋게 하고, 항암효과가 있으며, 기타 가려움증, 습진 등의 피부병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함. 예전에는 마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었으나, 점차 사라지고 있어, 일부 농가가 묘종 번식을 통해 재배하기 시작하였음. 2008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의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저지리를 중심으로 석창포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해 지난 2010년 저지리 약용작물 유통센터를 준공하였음.¹⁵²⁾ 2016년부터는 (사)석창포유통사업단이 구성되어 다양한 석창포를 활용한 향토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4) 관광자원

가. 올레길

- 통상 큰길에서 집의 대문까지 이어지는 좁은 길을 뜻하는 방언인 ‘올레’를 테마로 제주도의 걷기 좋은 길들을 선정하여 개발한 도보여행코스임. 윗뜨르권역에는 저지리와 낙천리 마을에 올레길 13코스, 14코스 및 14-1코스를 지난다. 올레코스 대부분이 해안을 지나는데 비해 윗뜨르 권역 올레코스는 중산간 마을을 만날 수 있는 독특한 올레 코스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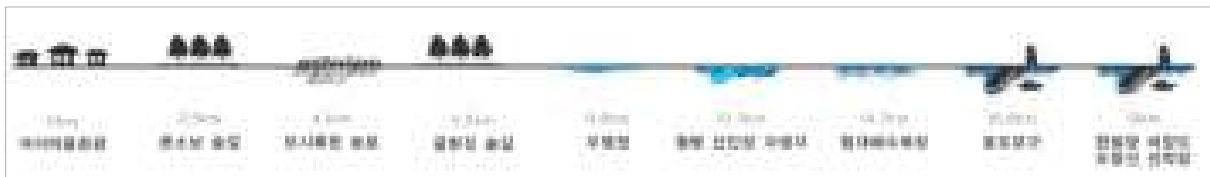
152) 제주일보, 2010.09.18, 강재병기자



• 울레 13 코스



• 울레 14코스



• 울레 14-1 코스





나. 환상숲 꽃자왈

- 저지리에 위치한 환상숲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꽃자왈로 도너리오름에서 분출하여 내려온 아아(aa)용암의 끝자락으로 요철(凹凸)이 강하게 작용하여 많은 계가 형성된 곳으로 북방한계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자연생태공원임.¹⁵³⁾



다. 방림원

- 방림원은 저지리 예술인마을에 있는 5천평 규모의 사설 야생화 식물원으로 실내전시장, 야외전시장, 방림굴, 토피어리와탐, 제주식물, 꽃자왈 고사리관, 형제폭포, 다육이전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¹⁵⁴⁾

153) 제주 환상숲 www.jejudpark.co.kr

154) 방림원 <http://www.banglimwon.com/>



라. 생각하는 정원

- 1963년 성범영 원장이 제주에 첫발을 디디고 돌투성이 불모의 땅을 일구기 시작하여 1만2천평에 7개 소정원과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음. 세계적인 명사들이 다녀간 명소로 중국 장쩌민 국가주석, 후진타오 주석, 일본 나카소네 총리대신 등의 외교사절이 방문했다. 400여점의 분재가 전시되어 있으며, 제주 화산석으로 쌓은 돌담과 돌탑, 정원 내에 쏟아지는 인공폭포, 잉어들이 노니는 연못 등의 시설이 가꾸어져 있음(대한민국 구석구석).



2. 판포권역

1). 일반현황

(1). 지역특성

- 판포권역의 위치는 한경면의 최북단에서 시작하는 판포리에서 일주도로를 따라 면소재지인 신창리까지 연결되는 4개 법정리로서 해안가에 위치한 농촌마

을임. 국도 12(일주도로)에 바로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음. 권역내 대부분의 면적이 표고 60m이내의 평지로 밭농사를 많이 짓고 있음.

- 해안의 경관이 아름답고, 신개물 공원, 해거름공원 등의 관광자원이 분포하여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음.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많으며, 마을마다 어촌계가 구성되어 있음. 바다 속의 경관이 아름다워 여름철 체험어장으로 도 이용되고 있음.





(2) 인구현황

- 관포권역 내에는 1,118세대 2,119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

<관포권역 인구현황¹⁵⁵⁾>

구분	세대	인구		
		계	남	여
한 경 면	4,461	8,930	4,495	4,435
관포권역	1,118	2,119	1,045	1,074

(3) 토지이용현황

<관포권역 지목별 토지현황¹⁵⁶⁾>

(단위 : ha/%)

구분	합계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대	기타
한경면	7,912.09	3,442.51	96.16	655.63	22.24	2,466.56	244.68	984.31
	100.00	43.51	1.22	8.29	0.28	31.17	3.09	12.44
관포 권역	1,630.39	851.42	20.72	109.93	2.21	378.42	67.01	200.7
	100.00	52.22	1.27	6.74	0.14	23.21	4.11	12.31

(2017.12월 기준)

155) 제주도청 통계연보 2017년 주민등록인구 통계표

156) 제주도청 통계연보, 2017년 지목별 지적공부 등록현황(2017.12월 기준)

(4) 생산물현황

- 판포권역은 주로 밭농사를 하고 있으며, 농경지의 면적이 권역 전체 면적의 50%이상으로 높은 경작율을 보임. 토양은 주로 농업생산력이 뛰어난 암갈색토가 분포함. 지역의 주요작목은 양파, 마늘, 양배추, 브로콜리, 콜라비와 같은 밭작물이며, 일부 농가에서는 보리 등도 재배함. 해안지역에 위치한 권역으로 포구를 중심으로 어업도 행해지고 있음. 마을마다 각각 어촌계가 구성되어 어선 어업과 해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두모리와 신창리가 포구 및 지방어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어촌계원의 인구가 많은 편임.



(5) 지형·지질

- 판포권역은 해안과 접하여 위치한 마을로 한경면 해안은 주로 암석해안이며



파호이호이용암류나 아아용암류가 만들어낸 해안 지형의 특징을 보임. 해안은 조간대의 암반이 불규칙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용암류가 육지 쪽을 경유하여 바다쪽 까지 흘러가 조간대를 형성하고 있음. 또한 육지에서 가까운 해저에도 크고 작은 여를 형성하고 있음. 파호이호이용암류가 만든 암반지대(빌레)에 형성된 조간대에서는 군부, 고둥, 배말류, 게, 톳, 모자반 같은 바다생물이나 해조류들이 서식함.

- 마을마다 각각 특징적인 해안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판포해안의 경우 과도 침식에 의해 형성된 해식애를 관찰할 수 있으며, 두모리 해안에는 비교적 넓은 모래 조간대를 살펴볼 수 있음. 신창리에는 파호이호이용암류가 잘 발달하여 투물러스가 비교적 많이 관찰됨.¹⁵⁷⁾

2). 자원현황

(1) 자연자원

가. 판포오름(널개오름)

- 높이 93.2m, 둘레 1645m, 총면적 19만 2446m² 규모의 기생 화산으로 판포리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함. 동쪽으로 입구가 벌어진 말굽형 분화구가 있음. 비탈면 전체가 해송 숲과 삼나무 숲으로 덮여 있고, 남동쪽 비탈면에는 여러 기의 묘가 있음. 도로 부근에 있어 접근하기가 쉬움. 조선 시대에 오름의 정상에 봉수가 있었음.¹⁵⁸⁾



157) 한경면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7.

158) 두산백과

나. 멧물

- 두모리마을회관 인근에 위치한 자연연못으로 예전에는 산간식수 및 우마급수로 사용되었음. 현재는 멧물쌘지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음.¹⁵⁹⁾
- 제주시는 2007년 06월 25일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투입해 자연 연못인 멧물에 대한 쌘지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해 최근 완공했음. 멧물에는 수질정화 사업을 비롯해 분수대, 정자시설, 보안등 설치, 조경수 등이 식재됐음. 풍차조형물이 들어서고 지역주민들이 건강을 위한 지압보도 시설, 잔디 식재 등의 사업으로 멧물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쌘지공원으로 탈바꿈 됐음(제주新보 2007년 06월 26일 조문욱 기자).



다. 벌내물

- 신창리에 위치한 벌내물 습지는 희귀동식물 서식지로서 환경부 보호야생식물 39번 갯대추나무가 서식하고 있음. 현재는 권역사업의 일환으로 탐방로, 정자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음.



159) 제주의마을 <http://jejuvill.jeu.go.kr/jejutown/domain-root/3503/0101>;



라. 소로곶뚝

- 소로곶뚝은 널개오름 서쪽 기슭(해발 35m), 판포리에서 조수리로 이어지는 도로 옆에 자리잡고 있음. 지형이 낮는데다 널개오름에서 흘러내린 물이 고여 자연스레 형성된 것으로 주로 우마급수용으로 활용됐음. 도로 확장과 함께 상당부분 잘려나간 상태이나 과거에는 한경면 관내에서 두모리의 ‘뚝뚝’ 다음으로 가장 큰 뚝이었음. 160)

마. 용천수

울랫물	판포리 울랫물은 식수, 목욕, 빨래터 등으로 이용돼 왔는데 2007년 복원하였다(미디어제주 2007년 05월 17일 한애리 기사).	판포리
손도물	남쪽에 절터가 있어 절물이라고도 불림. 사각형으로 곁담을 쌓아 울타리를 두렸으며 남쪽에 출입구를 두고, 북쪽에는 단을 만들어 쉼팡 또는 물팡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금동리
싱개물	‘싱개물’(한경면 역사문화지), ‘싱계물’(표지판), ‘신갯물’, ‘싱계물’(북제주군 지명총람), ‘신개물’(안내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용천수로 남탕과 여탕으로 나누어져 옛날 목욕탕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음. 수질과 보존상태가 좋은 편임.	신창리



160) 제민일보 2000.06.06., 좌승훈·좌용철 기자



신창리 싱개물

바. 불턱

- 판포리 불턱은 해녀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잠수를 위하여 채비를 갖추는 탈의실의 의미를 넘어 다양한 문화적 소통의 공간이다. 사고 없이 무사히 물질을 마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공간이며, 물질이 끝 난 후에는 저승 문턱 까지 갔다 온 지친 심신을 달래는 구역임. 불턱은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논의하는 사랑방의 역할을 하거나, 자녀·부부 문제 등 가정의 일상사를 풀어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공간, 개개인의 갈등을 치유하는 화합의 장, 서로의 예능을 발표하고 자랑하는 기능 등이 혼재되어 있음.



(2) 문화자원

가. 두모연대

- 세종때 왜구침입을 막기 위한 연락망으로 설치되었다가 일제강점기 때 연대체가 폐지되고 등대 역할을 하였음. 두모리 일주도로에서 북서쪽으로 500m 지점에 해안보다 돌출한 지역에 포구와 인접하여 연대의 아랫부분이 남아 있



음. 동쪽으로는 대포연대(大浦煙臺) 서쪽으로는 우두연대(牛頭煙臺)와 교신함. 두모연대는 대지가 경사져 있어서 높이 1.2m의 석축을 쌓았으며, 연대를 이루는 돌의 크기는 폭 40cm, 높이 58cm 정도의 막돌을 이용하여 허튼층쌓기로 구축하였다. 2003년에 도대불과 분리하고 새로 복원하였음.¹⁶¹⁾



나. 갯창원(갯담)

- 금등리 해안의 갯창원은 테우를 매어두는 뱃자리로 삼았던 곳이어서 갯창원이라 칭했음. 두 개의 곳부리로 말미암아 깊고 후미진 곳에 여러 개의 다른 원과 같이 있음. 동쪽에는 남북으로 이어지는 상당히 큰 코지(串)가 발달해 있음.¹⁶²⁾

다. 송어원(갯담)

- 신창리 해안 허리두들과 마리어 사이의 깊게 후미진 곳 조간대 상층에 걸쳐 있으며, 그 목에 있는 바위를 의지하여 양쪽으로 담을 쌓아 만들었음. 2010년에 보수를 하였으며, 바로 옆에 싱계물 용천수가 갯담안으로 흘러 송어가 많이 몰려들어 송어원이라 불렀을 것으로 추정됨. 동쪽에는 멩개원, 서쪽으로는 조금 멀리 진원이 있음.¹⁶³⁾

161) 고영철의 역사교실 <http://www.jejuhistory.co.kr>

162) 고영철의 역사교실 <http://www.jejuhistory.co.kr>

163) 고영철의 역사교실 <http://www.jejuhistory.co.kr>

(3) 시설 및 경제자원

가. 판포포구

- 판포리의 포구는 동측의 엄숫개와 서측의 모살원개 2개소가 있음. 엄숫개는 엄수물 가까이 있는 개라는 데서 붙인 이름임. 모살원개라 불리는 포구의 바닥은 하얀 모래로 깔려있는데, 포구가 생기기전에 ‘모살원’이라는 원담이 있어서 ‘모살원개’라고 불림. 판포리에 포구는 물놀이에 적당하여 물놀이나 스노쿨링 등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음.¹⁶⁴⁾



나. 신창항

- 1993년 9월 22일 제2종어항(지금의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었음. 1999년 37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면적 5km²의 준설공사를 시행하고, 방파제 277m, 물양장(접안시설) 62m, 선착장 286m 시설을 마련하였음. 작은 어선들이 드나들며, 항내수면적은 141km²임. 예전 명칭은 ‘왕깁이물성창’이었다 함.¹⁶⁵⁾

164) 제주도문화재전문위원 오창명 <http://blog.naver.com/nulkae>



다. 두모항

- 두모항은 한경면 두모리에 위치한 어항으로 2004년 9월 23일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되었다. 어항의 수역은 58,799㎡이며, 1991년에 방파제를 91m 축조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방파제 112m, 선착장 63m, 물양장 63m가 축조되어 있음.¹⁶⁶⁾



라. 두모저수지

- 제주시가 농업용수로 이용하려고 1973년에 만든 저수지임. 제주시 행정정보공개란에는 공사기간이 1960~1965년이고 유효저수량이 15,800톤임. 북서쪽(약 90m)과 남서쪽(약80m)에 3~4m 높이, 너비 5m 정도의 제방을 쌓았으며 제방은 서로 120°정도의 각을 이루고 있음. 남쪽에 서쪽을 향하여 배수로가 설치되었음. 축조 당시에는 저수지의 북쪽 일대에 물을 대어 논농사를 지었으나 1990년대에 이르러 논농사를 짓는 농가가 없어짐에 따라 용도가 없어졌음.¹⁶⁷⁾
- 제방에는 억새와 띠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저수지 중간에는 마름, 저수지 변 수심이 낮은 곳에는 외래식물인 털물참새피가 자기세력을 확장하고 있음.

165)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166) 위키백과

167) 고영철의 역사교실 <http://www.jejuhistory.co.kr>

민물새우와 물달팽이 등이 서식하고 있어서 백로와 왜가리 등의 서식처가 되고 있음.¹⁶⁸⁾



마. 제주시범 바다목장

- 해양수산부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총 350억원을 투입해 신창리 일대 23km²해역에 어초를 집중 설치하고, 돌돔, 홍해삼, 전복 등 종묘 530만 마리를 방류해 제주시범 바다목장을 조성했음. 2,230개의 인공어초와 제주를 상징하는 돌하르방상, 돌고래상 등 시설물 100여점이 설치되었음. 또한 수산체험 교육장과 홍보전시실을 갖춘 수산체험지원시설을 설치하였음.

(4) 관광자원

가. 신창-고산 해안도로

- 신창성당 부근부터 시작해 용수리로 이어는 해안도로는 도로변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어 신창풍차해안도로라고도 불림. 싱계물 공원, 바다시범목장 사업 등으로 인해 해안도로에 볼거리와 쉼터가 잘 갖추어져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해안도로임.



168) 고영철의 역사교실 <http://www.jejuhistory.co.kr>



나. 싱계물공원

- 싱계물은 제주 사투리로 ‘새로 발견한 갯물’이라는 의미인데 갯물은 용천수를 의미한다. 싱계물공원에는 예전에 목욕탕으로 쓰이던 곳이 있는데, 돌담으로 남탕·여탕이 구분되어있음.
- 공원의 산책로 끝에는 바다로 이어지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통해 신창등대까지 걸어갔다 올 수 있음. 다리중간에는 이색적인 물고기 조형물이 있음¹⁶⁹⁾



169) www.visitjeju.net/ko

V. 사회적 농업을 도입한 권역사업의 활성화 방안

사회적 농업 실천 유형은 목적에 따라 크게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돌봄을 위한 사회적 농업은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이에게 농업의 치료적(therapeutic) 요인과 결합된 돌봄 서비스를 농장에서 제공하는 실천이다.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통합 사회적 농업은 일자리가 없는 이를 농장에서 고용해 영농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이나 단체가 고용주가 된다. 지적·신체적 장애인, 장기 실업자, 이주민 등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농업 활동에 고용하거나 직업 연수생으로 받아들이는 형태이다.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이나 단체가 교육 기관이 되어 직업이 필요하지만 기술·지식 등 능력이 부족한 이에게 혹은 농업이나 농촌을 접한 적이 없는 도시의 아동·청소년 등에게 농사를 가르쳐 직업을 얻거나 농촌을 포함한 전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게 돕는 실천이다. 농장일상, 건강한 먹거리, 자연 다양한 주제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¹⁷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5%가 장애인 인구로 등록되어 있다. 5%의 비율이기는 하나 3만 5천명의 적지 않은 인구이다. 도내 인구 외에도 장애인의 관광 및 여가 목적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시설과 콘텐츠가 필요하다. 농촌의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은 이들의 고용, 치료, 여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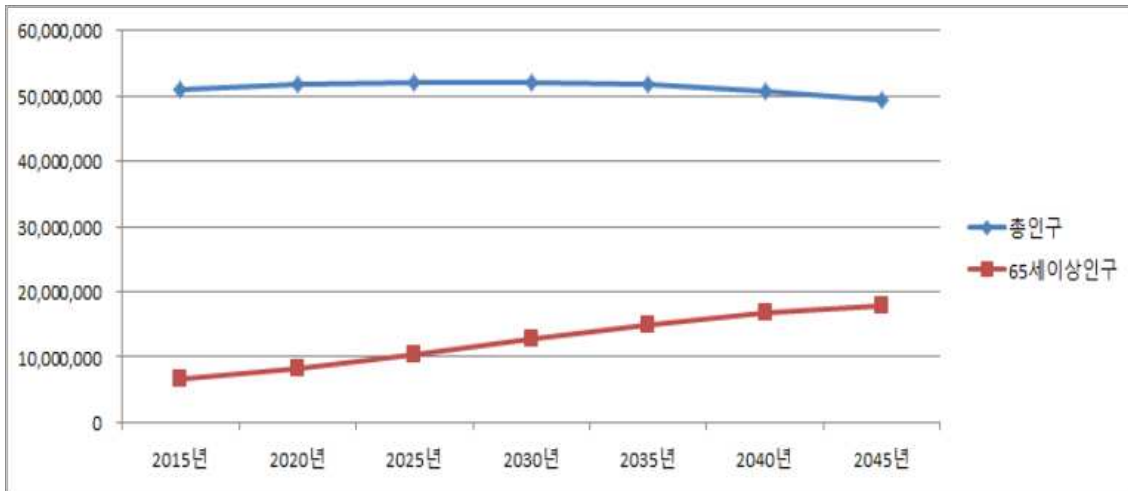
<제주지역 장애인구 현황¹⁷¹⁾>

구분	전체 인구	장애인 인구	장애인 인구 비율%	1급 장애인 인구	2급 장애인 인구	3급 장애인 인구	4급 장애인 인구	5급 장애인 인구	6급 장애인 인구
제주시	478,700	24,186	5.05	2,448	3,169	4,391	3,724	4,689	5,765
서귀포시	178,383	10,918	6.12	894	1,365	1,811	1,756	2,360	2,732
합계	657,083	35,104	5.34	3,342	4,534	6,202	5,480	7,049	8,497

장애인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고령인구 역시 신체적 불편함이 증가하고,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총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65세이상 인구는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2040년에는 총 인구의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70) 김정섭·안석·이정해·김경인, 2017,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71)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우리나라 총인구 및 65세 이상 장래인구추계¹⁷²⁾>

본 연구에서는 농업·농촌의 치유기능을 사회적 농업에 적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산활동 뿐만 아니라 교육, 치료(치유), 여가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양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농업을 다음의 웃뜨르 권역 및 판포권역의 자원 및 유희시설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시설 활용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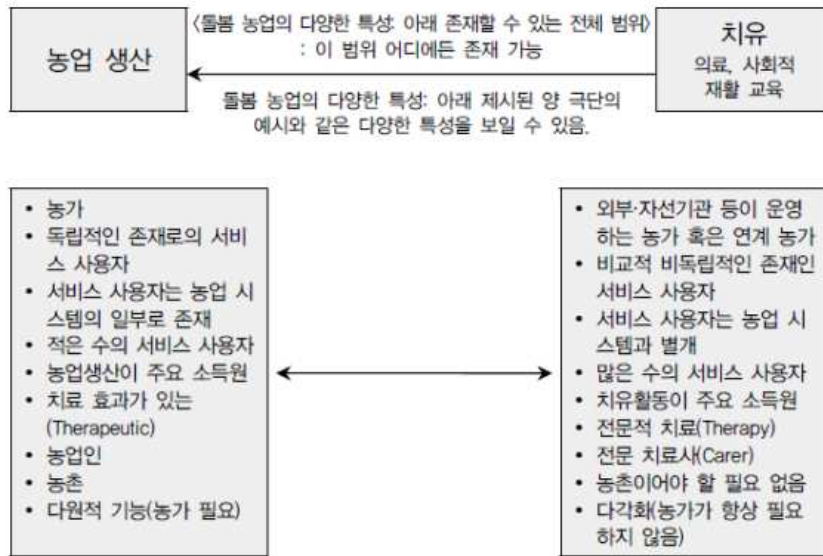
1. 사회적 농업의 도입 방안

1). 사회적 농업의 범위

농촌은 식량제공 외에도 자원제공, 생태계유지, 환경보전, 정서함양, 전통문화계승, 휴양공간 제공, 교육적 기능 등을 수행하는 다원적 기능의 공간이다. 사회적 농업 역시 이러한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관심을 갖고 단순 1차 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농업 경영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상자는 매우 다양하다. 취업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취농 희망자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기능을 활용하여 정신적·신체적 치유가 필요한 대상자들도 있다. 단순히 농업생산을 위한 농장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제공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농업생산보다는 치유를 중점적으로 하는 경우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172) 통계청 www.kosis.kr

사회적 농업 서비스 대상자의 신체 활동의 독립성과 목적에 따라 사회적 농업의 범위는 다양할 수 있다. 고용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있을 수 있으며, 고용은 필요없지만 농업활동을 통하여 재활치료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을 수 있다. 독립적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으나 약물 중독자나 우울증 환자 등 신체적으로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대상자도 있다. 따라서 사회적 농업의 대상자들을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농업을 통하여 농촌과 농가의 생산 방식 다각화를 실천하도록 한다.



<영국의 돌봄농장 범위173>

2). 사회적 농업의 운영주체

민간(농가, 농업법인, 마을기업 등), 제3섹터(사회적 기업, 민간사회복지기관 등), 공공(지자체, 공공복지기관 등)의 각 주체가 연계하여 각각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사회적 농업 서비스의 공급주체와 중점 분야로 사회복지법인, NPO법인 등의 복지 관련 주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교육과 훈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농업생산법인 등 농업관련 주체는 주로 고용을 중심으로 하며, 특례자회사의 경우 고용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훈련 및 고용은 농장 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직판시설, 가공시설에서의 활동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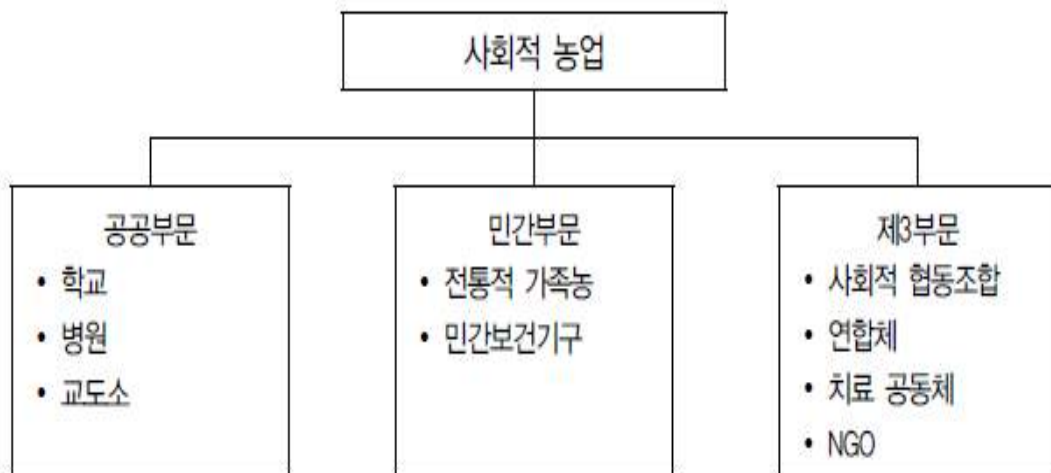
173) Hine et al. 2008. Care farming in the UK: Evidence and Opportunities; 이해진, 2016, 영국의 사회적 농업, 세계농업, 196, 9-26.



주: 화살표의 크기는 서비스 공급 주체별 중점분야의 비중임.
 자료: 농림수산정책연구소(2012).

<일본의 사회적 농업 서비스 공급 주체와 중점분야¹⁷⁴⁾>

이탈리아에서는 1978년 법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쇄되면서 이를 대체할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후 사회적 농업이 나타나기 시작해 현재는 2,000여곳이 넘는 농장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 서비스 공급하는 주체는 공공부문, 민간부문, 비영리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부문으로는 학교, 병원, 교도소 등이 참여한다. 민간부문은 주로 수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전통적인 가족농과 민간 건강기관 등이 포함된다. 비영리기구 또는 제3부문에 속하는 단체들은 이탈리아의 주요 특징으로 지적되는 사회 협동조합, 연합체, 치료 공동체, NGO 등이다.¹⁷⁵⁾



* 자료 : Senni, Saverio. 2016. Social Farming in Italy: History, Development and Legislation: 이윤정(2016),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 치유농업을 중심으로, 세계농업, 195호 재인용.

174) 전영현·임송수, 일본의 사회적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196호.

175) 이윤정(2016),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 치유농업을 중심으로, 세계농업, 195호

사회적 농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고용·돌봄·교육 등 다양한 부문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써 개별농가, 농업법인, 법인·조합 등 민간 농업활동주체와 제3섹터, 공공부문의 각각 주체의 역할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이들 각 주체가 협력·연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사회적 농업 주체 및 역할>

구분	내용
민간 (개별농가, 농업법인, 기타 법인조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고용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 • 취업과 연계한 농업체험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치유농업 및 여가 서비스 운영 등
NPO 등 (사회적 기업, 민간사회복지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고용지원 및 취업훈련 • 사회활동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운영 • 취농지원센터 운영 • 고용상담 등
공공 (지자체, 공공복지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 기업 지원 정책 마련 • 취업 교육 아카데미 운영 • 사회적 농업 서비스 공급 주체에 대한 모니터링 • 사회적농업 네트워크 구축 • 취농 희망장 귀농 도움센터 운영 등

3). 사회적 농업의 운영방안

사회적 농업 운영에서 농업활동의 주체는 개별 농가 또는 농업생산과 관련된 법인이 된다. 개인농가에서 운영하는 경우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 법인·조합 등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의 범위나 참여형태 등이 다를 수 있다.

일본의 농업법인은 농지취득 권리 유무에 따라 크게 농지취득인 인정되지 않는 일반농업법인과 농지취득을 인정해주는 농업생산법인(농사조합법인,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로 나뉜다. 일본의 사회적 농업 운영에 있어 사업형태에 따른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사회적 농업 운영 사업형태에 따른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추구나 무농약, 유기재배 등 하고 싶은 농업을 하기 쉽다. • 시간 활용이 자유롭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농업법인에 비해 경영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 판매처의 확보나 가격결정권이 없는 경우가 많이 불리하다.
일반농업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등의 기획기능에 사람을 할애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계화를 할 수 있고, 안정된 대량생산을 할 수 있다. • 「생산」, 「가공」, 「자사판매」와 같은 소비지로의 사업전개를 모색하기 쉽다. • 각종 세제면의 특례, 경영지원책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자 개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농업을 실행하기 힘들고, 경영효율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 농업에 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사업운명을 위한 경영관리능력도 요구된다.
농업생산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의 구입, 임차가 쉽고, 경작면적의 확대가 가능하다. • 기계화 등에 의한 작업의 경감을 하고, 안정된 개량생산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 각종세제면의 특례, 경영지원책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자가 하고 싶은 농업을 실행하기 어렵다. • 사업운명을 위한 경영관리능력이 요구된다. •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세제상의 특례를 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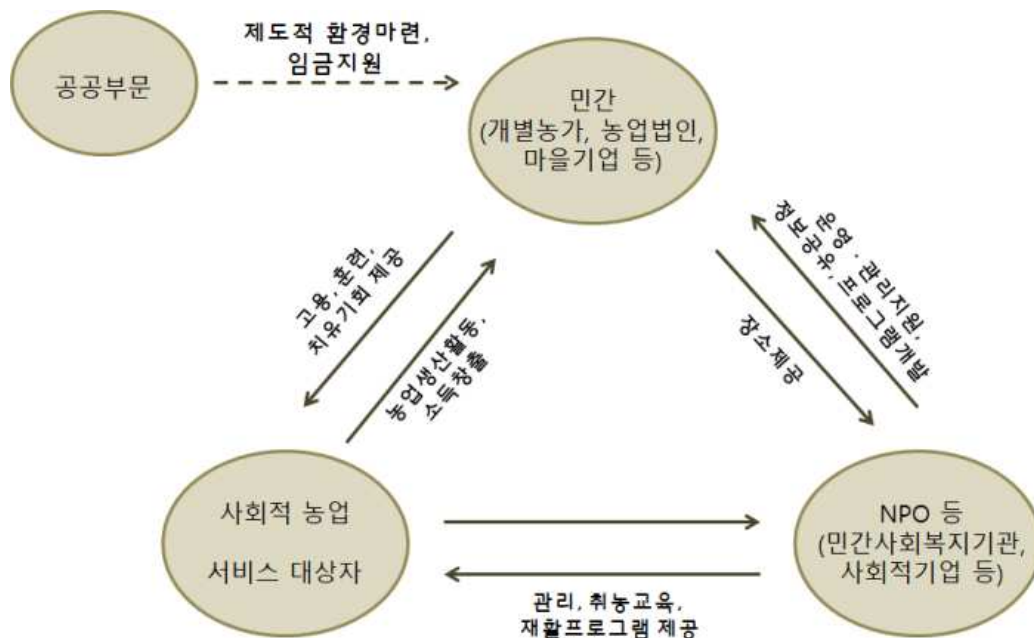
* 자료 :일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마스함복지회 민들레, 정영의 옮김, 2018, 치유농업모델 일본의 사회적 농업 돌봄 노장 실천메뉴얼, 농촌진흥청.

개별적 민간농장 또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농장이 아닌 마을차원에서 농업활동을 통한 사회적 농업 실현 방법은 크게 두가지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마을에서는 농장만 제공하고 사회복지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마을에서 마을회가 주체가 되거나 지역 주민들이 농가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직접 사회적 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마을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운영 역량이 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적 농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은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는 돌봄 대상자들과 사회적 상호작용 및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직접적 치료·치유 또는 교육 외의 대상자들을 위한 제반기능 제공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후자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 농장과 가공·생산 시설 등에 사회적 농업

참여 대상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생산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다. 대부분 마을 주민들은 대규모 농장을 갖고 있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훈련시키는 등 사회적 농업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스킬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마을단위로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조직을 통하여 각 농가들이 사회적 농업에 참여할 수 있다. 마을회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농업을 하는 경우에는 마을의 유휴농경지나 활용이 없는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농장을 확보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농업생산활동을 하거나 심리적 치유를 위한 농업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 등 돌봄농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농가에서 직접 사회적 농업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와 같은 공공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경우 일정기간이 되기 전에는 비장애인에 비해 생산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취업자에 맞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용, 고용훈련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등 공공에서는 농가에서 사회적 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생산외에도 가공시설, 판매시설 등 마을 소득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사회적 농업을 도입한다면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고, 마을 공동체와 공공, 민간단체 등 다양한 조직간 사회적 연대의 형성, 마을 만들기 사업 및 서비스의 다양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농업 주체간 상호작용>

웃뜨르 권역은 제주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4개의 마을로 감글, 다양한 밭작물, 원예, 특용작물, 하우스 농업 등 농업이 주 소득원인 지역이다. 판포권역 역시 권역



전체의 50%이상이 농경지인 마을로 양파, 마늘, 양배추, 브로콜리, 콜라비, 보리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촌마을이다. 이러한 지역의 농촌환경은 마을의 농가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돌봄 대상자들의 유형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한 활동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취농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자들은 취농 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취업하여 자립을 할 수 있으며, 재활을 목적으로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대상자들도 있을 수 있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예비 취농인인 청소년, 청년 실업자, 귀농·귀촌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마을의 다양한 농가들이 협동조합 등의 조직을 구성하여 사회적 돌봄 대상자들과 참여 농가 서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회적 돌봄 대상자들을 농장에 배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참여 농가는 서로 협력하며 마을 전체의 농업 생산성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해나가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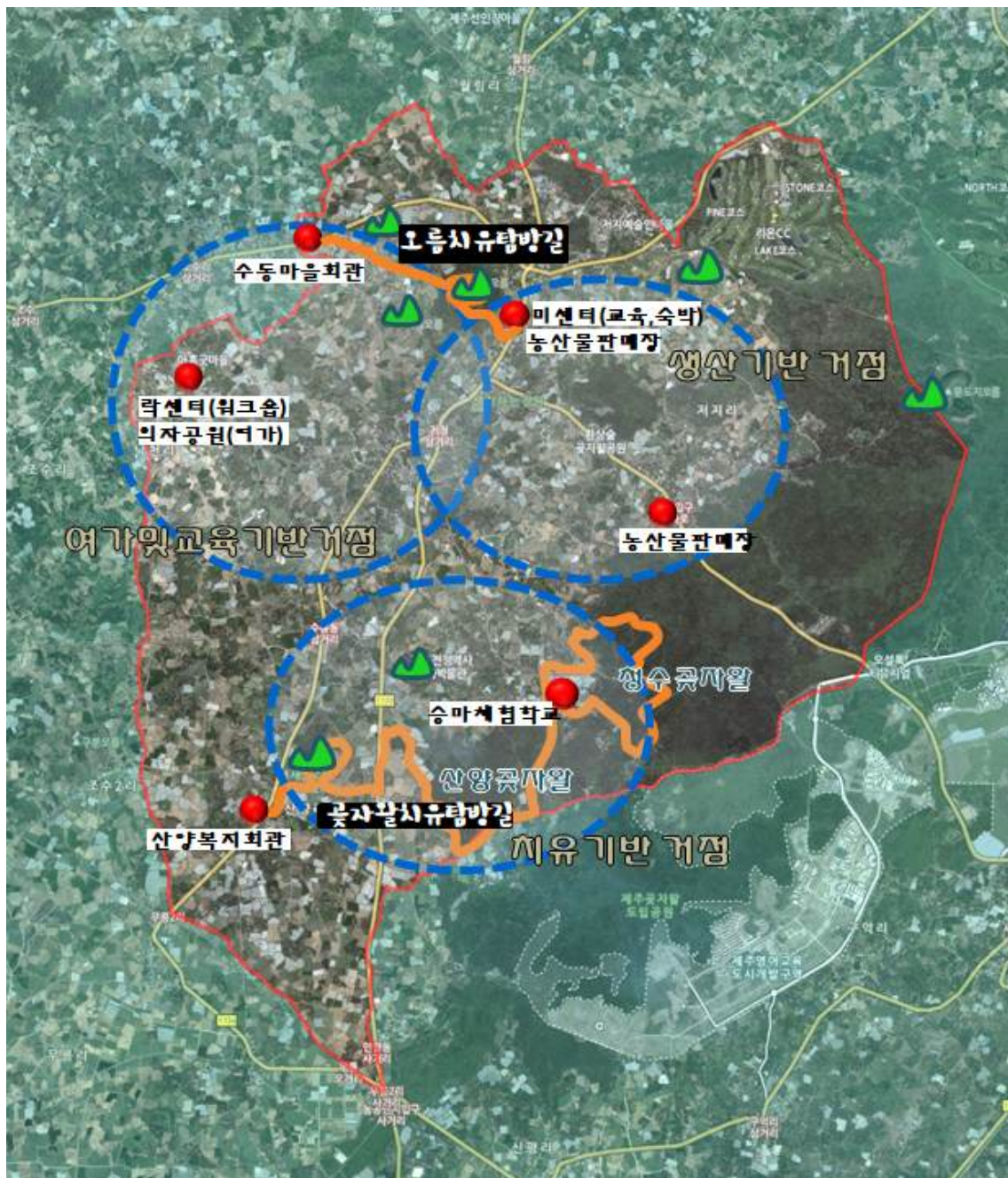
또한 마을단위의 사회적 농업은 단순 농업활동 뿐만 아니라 농업 외 2, 3차 산업 분야의 고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마을의 유희시설 등을 마을을 찾은 돌봄대상자들의 교육공간, 여가공간, 숙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주지역은 다양하고 독특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 뿐만 아니라 관광서비스 여건이 잘 갖추어진 지역이다. 본 연구의 대상마을인 웃뜨르 권역과 판포권역은 단순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적 기능 외에 산림자원, 해양자원 등 부가적 활동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권역사업을 통하여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며,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의 가치와 더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활용하여 단순 농산물생산을 활용한 사회적 농업이 아닌 6차산업화를 통하여 사회적 농업 분야의 다각화 모색한다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농업 분야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농업을 도입한 권역사업의 활성화 방안

1). 웃뜨르권역

웃뜨르권역은 제주도 중산간에 위치한 지역으로 곳자왈과 오름이 주요자원으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치유중심의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크게는 생산기반거점, 치유기반거점, 여가 및 교육기반거점으로 공간을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저지리와 낙천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설원예농가들이 있으며, 권역 내 농산물판매장 기존 시설이 2개소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돌봄농장을 운영할 수 있다. 권역 남측지역에는 산양곳자왈과 청수곳자왈이 위치하는데 산양복지회관을 시작점 - 승마체험학교(빛센터)를 중점으로 하여 곳자왈 치유 탐방길을 조성하도록 한다. 산양복지회관과 빛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곳자왈 탐방과 연계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권역 내에는 크고 작은 오름이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저지오름의 경우 생태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고, 주변으로 오름들이 위치하고 있다. 현재 활용도가 떨어지는 수동마을회관을 시작점 - 미센터를 종점으로 하여 오름치유 탐방길을 개발하고, 수동마을회관과 미센터는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낙천리 마을에는 의자공원 및 락센터를 중심으로 내·외부 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인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축제, 문화행사 등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등 여가 및 교육기반 거점으로 활성화하도록 한다.





(1) 돌봄농장 운영을 통한 장애인 취농 및 돌봄서비스 운영

가. 돌봄농장을 통한 장애인 취농과 돌봄서비스 운영

웃뜨르 권역의 경우 원예농업을 비롯한 다양한 농업생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이며, 오름이나 꽃자왈 등 치유·치료를 위한 환경적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권역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들을 활용하여 사회적 농업을 실천할 수 있다. 웃뜨르 권역의 사회적 농업 실천은 지역의 기반 여건과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취업활동과 돌봄 서비스 모두를 목적으로 하는 돌봄농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돌봄농장의 운영은 마을 주민들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돌봄농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돌봄농장과 농장에서 운영하는 가게 등에 고용을 하여 함께 운영하고,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한다.

사회적 취약 계층 중에 농사 경험 또는 관련 업무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경험이나 경력이 없는 경우 일정기간 직업 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을 하도록 하며, 고용과 함께 조합원으로 등록하여 함께 운영해나가도록 한다. 돌봄 농장의 농업생산활동과 돌봄서비스 운영은 조합원으로 가입한 마을 주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되 전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교육 전문가,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

돌봄농장의 돌봄서비스는 도내 장애인, 자폐아동, 치매 노인 등을 대상으로한 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장기 휴양 및 치료를 원하는 대상자들에게는 기존의 숙박시설 또는 유희시설을 숙박시설로 리모델링 하여 장기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웃뜨르권역 돌봄농장 프로그램 예시>

구분	내용
원예 재활치료	낙천리, 저지리, 청수리 등 기존의 원예체험 농장과 연계
농업 활동	국유지 임대 등을 통하여 농장 조성
승마 재활	청수리 승마체험학교 활용
숲치료	청수, 산양, 저지 꽃자왈 및 오름 활용
목공예체험	낙천리 의자마을 테마 및 의자공원 공간활용



국내의 대부분의 농장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은 농업체험의 어려움이 없으나 몸이 불편하거나 휠체어와 같은 장구류를 활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은 농업체험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장애인 농촌체험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농업의 실현을 위해서 공간, 높이, 편의시설 등 장애인의 체험환경 또는 작업환경에 맞는 농장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본의 장애인 체험장 편의시설 사례>

※ 자료 : 충남, 넷 미디어, 2017.04.04., 충남희망디자이너.



나. 사회적농업 농산물 직판매장 운영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포장 또는 가공의 작업을 거쳐 직판매장에서 판매하도록 한다.

웃뜨르권역에는 권역 사업을 통해 2개의 농산물판매장이 조성되었는데 상시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운영이 활발하지 않은 기존의 판매장을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돌봄농장 생산품의 직거래 판매장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웃뜨르 권역 농산물 판매장 현황>

농산물을 포장 및 가공한 상품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직거래판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수확, 가공, 판매의 다양한 일자리 마련되면, 원예활동을 통해 재활치료를 받는 대상자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생산물을 직접 가공하고 판매하여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농업 활동의 경제적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회적농업 직판매장 운영 예시176>

신체적 활동이 많이 필요한 농장 작업이 힘들거나 서비스 업무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농장 옆에 마련된 작업장에서 비교적 간단한 인쇄, 포장, 라벨 붙이기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차 생산물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2차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2차 생산품은 기술력의 문제 등이 있으므로, 난이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과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가공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난이도별 가공상품 생산 예시177>

구분	난이도의 정의	가공예시
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소의 형태는 바뀌나, 의학적인 변화 등(열을 가한다던가)이나 다른 식재 등(다른 채소나 조미료)을 더하지는 않는다. 	채소의 껍질 벗기기 채소 자르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공의 내용은, 조금 손이 가는 정도이다. 복잡한 가공이나 조작용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매뉴얼대로만 하면 되는 작업이다. 	채소샐러드 절임식품(하룻밤절임 등) 냉동채소·건조채소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느 정도 복잡한 가공을 해야 하는 작업이다. 열, 다른 식재, 조미료 등을 사용한다. 레시피가 필요하며, 요리경험자의 지도 또는 요리의 경험이 필요하다. 	채소수프, 각종 조림 포테이토 샐러드 절임(가공도가 높은 것) 잼, 과자

176) <https://www.visitgunma.jp>; <http://okayama.opief.or.jp/kor/424>

177) 일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따스함복지회 민들레, 정영의 옮김, 2018, 치유농업모델 일본의 사회적 농업 돌봄 농장 실천메뉴얼, 농촌진흥청.



장애인들이 주로 고용되거나 원예치료를 위해 사회적 취약 계층이 찾는 작업환경은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는 배리어프리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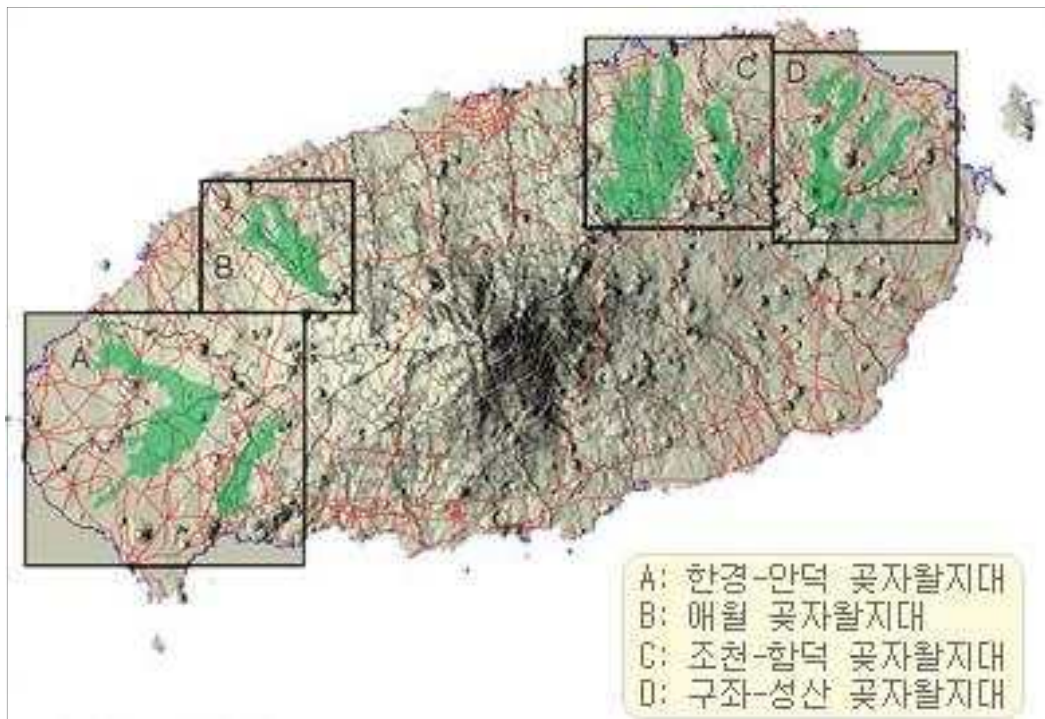
<일본 장애인작업장 간덴엘하트 작업환경¹⁷⁸⁾>



2) 꽃자왈과 오름을 활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웃뜨르 권역은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의 40%이상이 임야인 지역이다. 권역내 8개의 오름이 위치하고 있으며, 한경-안덕 꽃자왈에 속하는 월림-신평지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도너리 오름에서 시작되는 월림-신평 꽃자왈은 제주도 내에서 가장 긴 꽃자왈지대이다. 이에 따라 저지, 청수, 산양 마을은 꽃자왈이라는 특수한 지형·지질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웃뜨르 권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 고령자, 환자 등 재활, 치료, 치유가 필요한 돌봄 대상자 들을 위한 장·단기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178) 프레시안, 2007.11.16., 전미영 푸르메재단사무국장.



<제주지역 꽃자왈 분포도179)>

가. 산림치유의 개념 및 기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산림치유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완충시키는 자연환경 자원과 신체적 자원, 심리적 자원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산림치유는 스트레스 회복능력을 증가시키고, 자연과의 만남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건강유지 및 증진의 효과가 있다.¹⁸⁰⁾

179) <http://www.gotjawal.com/>

180) 박현수(2015), '장성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 회복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치유학과 석사학위논문.



※ 자료 : 유영·연경남·박수진·박찬우, 2011, 산림치유지도사를 위한 소아천식질환 가이드북, 서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치유는 ‘휴식기능’보다는 ‘치유기능’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산림휴양과 차이가 있고 산림욕보다 한 단계 발전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산림자원이 주는 치유기능을 잘 활용하여 일반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사회적·정서적·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의 회복을 돕는 활동을 도울 수 있다.

나. 꽃자왈의 기능

꽃자왈 지대의 분포하고 있는 숲골은 비가 지하암반 밑으로 흘러 내려가는 역할 뿐만 아니라 여름엔 시원한 바람이, 겨울엔 따스한 바람이 뿜어져 나오는 풍혈기능을 한다. 돌굴처럼 거의 변하지 않는 온도를 유지하는 용암류와 숲골을 통해 뿜어 나오는 지하 공기로 인해 꽃자왈 지대 안은 여름에는 21℃, 겨울에는 12℃쯤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¹⁸¹⁾

꽃자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곳이다. 꽃자왈 지대에는 숲이 울창한데, 꽃자왈 시험림 내 분포하는 식물은 129과 376속 554종 1아종 56변종 3품종 등 총 614분류군으로 확인된다. 특히 산림청에서 지정한 희귀식물은 나도고사리삼, 골고사리 등 총 16종이며, 제주에만 자라는 식물도 제주고사리삼, 개족도리 등 7종이 분포하고 있다. 야생동물 역시 47종의 조류와 2종의 포유류, 4종의 양서류, 4종의 파충류 등을 관찰할 수 있으며, 특히 옷뜨르 지역의 청수꽃자왈에서는 이동철새들도 관찰할 수 있다.¹⁸²⁾

181) 제주섬 자연에 얽힌 이야기

182) 최형순·현화자·송국만·김은미, 2014, 꽃자왈시험림의 주요 동·식물자원, 국립산림과학원, Kfri 산림정책이슈, 35.

꽃자왈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꽃자왈의 산림치유 기능을 살펴볼 수 있다. 김형철 등(2013)¹⁸³⁾의 연구에 따르면 절물자연휴양림 대기 중 피톤치드 분포 특성연구에서는 피톤치드의 농도가 1,011 - 1,087 pptv가 나왔고, 여름에는 최대 1,500 pptv가 발생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꽃자왈 삼림욕이 인체의 스트레스 감소에 관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톤치드는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의 진정작용뿐만 아니라 안정에도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간 기능 촉진, 혈압조절 및 혈액순환계 개선으로 고지혈증, 혈전 및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감소에 효능이 있다.¹⁸⁴⁾

다. 오름의 기능

오름은 독특하고 희귀한 자연경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 도민들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지하수의 함양 및 유지에 필요한 제주도의 소중한 자연 자산이다. 오름은 지하수를 함양하고 기후를 조절해주는 환경 조절 기능을 한다. 오름의 초지는 한라산의 울창한 산림과 함께 산소를 내뿜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임으로써 대기 정화 기능을 한다.

제주의 오름은 초지, 자연림, 인공림, 습지 등이 분포하여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다. 오름은 유전자 다양성, 종의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을 갖고 있으며 식생 또한 국내에서 오름에만 자생하는 수종이 있는 등 희소성, 자연성, 다양성 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오름이 가지고 있는 경관적 가치는 크게 생태학적, 형식미학적, 정신물리학적, 심리학적 접근을 통한 정성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보여지는 경관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의 작용과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경관적 가치를 내재한다. 자연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제주인의 삶과 밀접한 역사·문화 자원 그 자체로 인문적 가치도 높다.

산림 자원인 오름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산화탄소의 흡수원,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분출, 녹색이 제공하는 평온함과 정서함양 등의 기능을 한다.¹⁸⁵⁾¹⁸⁶⁾¹⁸⁷⁾

183) 김형철, 오상실·송영철·김영주, 2013, 제주지역 절물 자연휴양림 대기중 피톤치드 분포 특성연구, 한국자연치유학회, 한국자연치유학회지, 2(2), 89-98.

184) 강하영, 2003, 피톤치드의 비밀, 역사넷:신방식.임동호·이근광, 2017, 제주 교래꽃자왈 숲 탐방객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Cortisol량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0), 471-479. 재인용

185) 제주발전연구원, 2016, 제주특별자치도 오름종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186) 김태운, 2000, 제주오름의 합리적 보전 및 관리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187) 서귀포시청 <https://www.seogwipo.go.kr/group/environment/environment/oreum.htm>



라.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① 곳자왈과 오름 숲산책 프로그램

웃뜨르권역의 곳자왈과 오름을 대상으로 탐방로를 개발하고 숲산책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은 숲산책을 통하여 심신의 회복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곳자왈 및 오름 탐방로를 정비하고 곳자왈과 오름의 생태·지질적 특징을 활용하여 숲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우선적으로 곳자왈과 오름의 탐방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권역사업 및 기타 사업 등을 통하여 산양곳자왈과 청수곳자왈에 생태체험로가 만들어졌으나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연계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이다.

인위적인 시설은 최소화하지만 탐방객들이 자연과 생태를 즐길 수 있는 탐방로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숲을 걷거나 오름을 오르는 단순활동이 아닌 숲산책을 통하여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장애인이나 환자, 노인 등 치유와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웃뜨르권역에 머무르면서 산림치유를 통한 건강을 회복하도록 한다.

		
치유의 숲에서 활동하는 산림메디컬트레이너	산림호흡과 체조법 시연	칩을 활용한 산림테라피 도로
		
치유의 숲을 안내하는 숲 해설가	식·약용식물의 이용법 강좌	전통가옥을 활용한 체험코너
		
산림학습전시관 모습	산림테라피 길 안내판	산림테라피 도로의 삼나무 임지

<일본의 산림테라피 기지 사례¹⁸⁸⁾>

곶자왈과 오름의 탐방로를 정비할 때는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이 탐방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접근성을 고려한 공간디자인이 필요하다. 탐방로는 장애인시설 설치기준인 경사도 8%미만의 탐방로로 개선을 하고,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는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 관악산공원 무장애 숲길 사례¹⁸⁹⁾

- 무장애 숲길은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도 부담없이 산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경사가 완만한 데크형 숲길이다. 전구간 경사도 8% 미만(장애인시설 설치 기준)으로 휠체어 및 유모차도 편하게 오를 수 있게 조성하였으며, 지형을 이용한 사이킥터를 조성하고, 곳곳에 등의자나 피크닉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설 수 있게 하였다.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점자안내판, 난간손잡이, 전동휠체어 충전소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였다.

188) 산림청홈페이지 www.forest.go.kr/

189) 관악구청 홈페이지 <http://www.gwanak.go.kr/>



무장애숲길 진입광장(책읽는 쉼터)



무장애숲길 모습



무장애숲길-순천형 숲길



무장애숲길-동반형 숲길



유모차 이용모습



전남센터내 장애인 이용모습

<장애인을 배려한 탐방로 조성 예시190>

② 오감자극 치유프로그램

숲 자원과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오감을 자극하는 치유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고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한다. 피톤치드, 음이온, 산소, 경관, 소리, 햇빛 등으로 다양한 감각을 자극시킬 수 있는 산림치유 인자를 치유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자연과 접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 산림치유 인자¹⁹¹⁾

- 피톤치드 : 주성분은 테르펜(Terpene)이라는 유기화합물로서 흡입하면 심신에 쾌적감을 주며 피로회복을 촉진
- 음이온 : 도시보다 많은 양이 산림에 분포, 뇌파의 알파파를 증가시켜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
- 산소 : 도시의 공기 중에는 산소 농도가 20.9% 정도이나 산림에는 1~2%가 많은 산소를 함유하고 있고 깨끗, 신진대사와 뇌 활동을 촉진
- 경관 : 아름다운 숲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신의 안정에 효과, 녹시율(綠視率)이 높을수록 정서적 안정감 증가
- 소리 : 바람소리·나뭇잎소리·계곡물소리 등은 쾌적감과 평안감 제공
- 햇빛 : 나뭇잎이 필터 역할을 한 간접 햇빛은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기여하고 세로토닌을 잘 분비시켜 활력과 생기를 부여

190) 관악구청 홈페이지 <http://www.gwanak.go.kr/>

191)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산림치유 활성화 추진계획, 2012.05.

<오감체험 프로그램 예시>

구분	프로그램
시각 프로그램	동식물 관찰 숲 경관 감상 컬러테라피
후각 프로그램	산림냄새(피톤치드) 꽃향기 맡기
청각 프로그램	새소리 듣기 바람소리 듣기 음악명상
미각 프로그램	제주도 로컬푸드 음식 만들기 체험 약차 마시기
촉각 프로그램	아로마테라피(마사지, 목욕, 좌용, 도포, 흡입 등) 맨발걷기 흙만지면서 나무심기
기타	신체활동 - 요가, 스트레칭, 호흡법 배우기, 기공체조 등 예술치료 - 문예활동, 그림그리기, 연극치료 등



<https://www.fowi.or.kr/>



<https://www.forest.go.kr/>



아시아경제, 2013.05.08. 왕성상기자



전북뉴스, 2017.04.24., 전남지역본부



③ 약초를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허브요법과 아로마요법은 각종 식물 및 약초를 활용한 대체 의학이다. 허브는 푸른 풀을 의미하는 라틴어로 향이 있으면서 인간에게 유용한 식물을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허브요법은 들깨, 참깨, 감국, 둥굴레, 당귀, 원추리, 쑥 등 식용이 가능한 약초를 관찰하게 하거나 직접 재배하여 섭취하도록 하는 방법이며, 아로마요법은 꽃, 목질, 뿌리, 열매, 과피 등으로부터 추출한 천연오일 등 정유를 활용하여 피부에 바르거나 마사지를 통해 방향요법을 하는 것을 말한다¹⁹²⁾. 지역에서 나는 약용 식물을 활용하거나 마을에서 허브를 재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저지리의 경우 석창포가 많이 자랐으나 점차 사라짐에 따라 모종 번식을 위해 일부 농가에서 재배 및 석창포재배단지 조성, 사업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석창포외에도 오가피, 작약 등 다양한 약용작물을 재배, 가공 하고 있다. 석창포는 못가나 습지, 개울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로, 잎과 뿌리에서 독특한 향기가 난다. 학생이나 정신노동자들에게 좋은 약초로 뇌신경의 피로를 풀어주고, 기억력을 좋게 하고, 항암효과가 있으며, 가려움증, 습진 등의 피부병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약초마사지, 약초 족욕하기, 약차마시기, 산채요리 먹기 등 치유의 목적을 둔 다양한 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약초를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예시¹⁹³⁾>

(3) 장애인 워크숍 공간 조성

웃뜨르 권역 낙천리 마을에 조성된 락센터는 아홉굿 의자마을 공원 내에 위치한 다

192) 홍민아.이한결.한은경.권영규(2010),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현황과 학제간 융합가능성에 대한 전망,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6(3), p.95-105.

193) <http://shop.jejun.com/>; 중앙일보, 2018.06.03., 이범수기자

목적 회관으로 학회행사, 워크숍, 연수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회
 장 및 주방으로 계획되어 있다. 현재는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1년 중 거
 의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있다.



<락센터 현황>

락센터의 경우 실내공간 뿐만 아니라 야외 소규모 공연장도 조성되어 있으며, 의자
 공원 내에 위치하여 야외 공간도 매우 넓어 다양한 목적의 워크숍 장소로 활용하기
 용이하다. 이러한 락센터의 활용도의 활용적 측면의 이점을 활용하여 제주도를 찾
 은 장애인들의 워크숍 또는 취업훈련 등을 위한 교육 및 문화활동 장소로 활용을
 할 수 있다.



< 장애인 워크숍 사례¹⁹⁴⁾>

락센터의 경우 1층 건물로 건물의 층간 이동이 필요없으나 장애인의 경우 이동성이
 제한되거나 시설을 활용하는데 섬세한 디자인이 필요한 대상으로 장애인들의 워크
 숍 및 교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 배리어프리

194) 한우리정보문화센터 <https://blog.naver.com/shchanwoori>;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https://blog.naver.com/korea_rehab



디자인을 적용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p>강원 강원도립화목원</p>	<p>서울 서대문 자연사박물관</p>
<p>난간 손잡이 부착</p>	<p>출입구 유효폭 확보</p>
	<p>광주다학석경기장 칠자 안내도</p>
<p>경사로 매트 설치 미끄럼 방지</p>	<p>점자 안내 및 음성안내</p>
<p>대전 국립중앙과학관</p>	
<p>장애인용 관람석 공간확보</p>	<p>휠체어 활동공간 확보</p>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장애물 없는 관광 시설 및 서비스 가이드라인 구축, 한국관광공사.



포천시 장애인 복지시설협의회 회의(195)

<워크숍 장소 조성 시 장애인을 위한 배려사항>

구분	배려사항
휠체어 사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차를 없애거나 최소화한다. •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경로를 안내한다.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폭을 고려하여 통로의 폭을 설계한다. • 휠체어를 탄채 지그재그로 이동할 수 있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편의시설의 접수대 등에 휠체어사용자의 무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 • 긴급 상황 발생시 빠른 대피를 위해 출입구 가까운 곳에 좌석을 배치한다.
시각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 대신에 음성, 점자, 유도블록, 향기 등 청각, 촉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 보행할 때 상부에 돌출물이 없게 한다. • 경사의 시작과 끝부분에 유도블록이나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 유도블록을 연속적으로 제공한다. • 사인에 시설물의 위치 등을 음성으로 제공한다. • 계단의 끝에 눈에 잘 띠는 색 띠를 부착하거나 도장 처리한다.
청각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 대신에 시각, 촉각 등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 일반전화 대신에 화상전화 등을 이용하여 커뮤니케이션 한다. • 긴급 상황발생 시에는 시각적 수단(LED 전광판, 긴급 문자메시지 등)과 진동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 문자를 소리로, 소리를 문자로 전환하는 ‘음성합성’,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다. • 바닥에 자석루프를 깔아서 보청기의 소리를 확대하는 등의 기술을 활용한다.
지적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상적인 표현은 피하고 알기 쉽고, 간결하며,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필요시 픽토그램을 함께 사용한다. • 실수하더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제품이나 설비를 설계한다. • 충돌에 의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날카로운 모서리를 피하고 탄력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내부 기능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벤치나 휴게공간을 배치한다. • 인공장기에 의한 배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실에 오스트메이트 대응 설비를 갖춘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



2). 판포권역

판포권역은 해안을 따라 위치한 마을로 다양한 해양 자원자원 및 문화자원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 자원 및 현재 활용도가 낮은 해녀작업장, 체험어장시설 등을 연계하여 장애인용 어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한다.



사회적 농업의 생산부분은 판포권역의 특색 있는 농촌자원으로는 벼를 생산했던 두모저수지의 농업문화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특색 있는 전통벼농사를 재현하고, 인근에 위치한 권역시설인 해거름 식당과 농산물가공시설(두부공장)을 연계하여 장애인을 위한 팜투팜 농가레스토랑을 운영하도록 한다. 지역의 다양한 농수산물은 농가레스토랑의 재료로 사용하고, 로컬푸드판매장을 조성하여 직거래 판매를 하도록 한다.

권역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시설을 기점으로 하는 마을문화탐방길을 개발하고, 각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해거름공원을 시작점 - 체험어장시설을 종점’으로 하여 용천수, 습지, 당 등을 연결하는 판포-신창 마을의 문화탐방길, ‘해거름맛골(건강체험실, 멋물공원)을 시작점 - 해안전망공원을 종점’으로 하여 습지, 용천수, 용암굴 등을 잇는 두모-신창 마을의 문화탐방길을 각각 개발하여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마을의 문화를 탐방하면서 자연스럽게 권역시설물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각 시작점과 종점의 시설물에서는 교육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치유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여 탐방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권역 내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양한 대상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친환경 농업활동과 직거래판매장 운영

가. 해거름 공원 현황

판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을 서부 하수처리장을 공원으로 조성한 해거름 마을공원은 약 1만 6,000㎡의 부지에 142.65㎡ 2층 규모의 건물인 해거름전망대가 위치하고 있다. 해거름 전망대는 카페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부 공간은 잔디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해거름공원의 경우 해안가에 위치하여 해안 경관 조망이 좋고, 교통량이 많은 대도로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유리하다. 현재 운영 중이 카페에도 이 곳을 지나는 방문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카페와 연계 운영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해거름 마을 공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해거름공원 현황>



<해거름 마을공원 위치>

나. 로컬푸드 직판매장 및 로컬푸드 식당 조성

① 로컬푸드 직판매장

사회적 농업에서의 농업활동은 무농약, 유기농업 등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의 건강이나 작업환경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부가가치를 높이고 가격을 높게 설정하더라도 소비자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농산물과 차이를 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농약 농산물, 유기 농산물 등은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일반적인 농산물 재배에 비해 많은 것들을 사람의 손으로 직접 해야하는 노동집약적 재배방법이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농업의 농업생산 목적 외에도 농업 훈련과 동료와의 협동 작업을 통한 사회성 발달 등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무농약 농산물,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수요시장이 일반 농산물의 시장보다 작기 때문에 홍보와 판로개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직거래 판매장은 지역의 사회적 농업 생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유통과정의 최소화로 생산자의 소득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농업 생산물 뿐만 아니라 판포권역에는 콩, 마늘, 양배추, 브로콜리 등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로컬푸드 직판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포장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해거름 공원 로컬푸드 판매장 조성 예시>



세종소리, 2016.12.29., 광우석기자



<http://meokja.tistory.com/>

<로컬푸드 직판매 운영 예시>

② 뷔페형 로컬푸드 식당

관광객의 취향에 맞는 뷔페형 로컬푸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식당을 일부러 찾아가게 하는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으며, 머무르는 시간을 증가시킨다. 또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지역 향토음식을 맛보고 만족하는 것은 지역 농수산물의 구매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역 농수산물을 직접 사용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농수산물을 관광객에게 홍보하는 수단이 되며, 다른 지역의 농수산물 직판매장과 차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해거름공원의 로컬푸드 판매장을 조성하여 마을주민이 직접 생



산, 세척, 포장을 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해당 식재료를 주재료로 한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지역 농산물이 생산, 가공, 유통되는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농업의 가치를 배우고, 농가에 대한 신뢰감도 형성할 수 있다.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도민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동시에 장도 볼 수 있다. 로컬푸드 식당에서 취향에 맞는 음식을 골라서 식사를 하고, 매장에서는 음식에 들어가 원료를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로컬푸드 부페형 식당 운영 예시>

다. 일본의 미치노에키 사례

일본은 국도를 지나다 보면 미치노에키(道の駅, 도로 휴게소)가 있다. 일본에 등록되어 있는 미치노에키는 1천개가 넘는데 우리나라의 단순 매점과는 달리 주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주는 직판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곳은 농산물직매장과 관광안내소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일본은 전국의 미치노에키를 육성해 도시에 비해 떨어지는 복지, 문화 등 인프라 정비와 함께 농수산물 판로 확보를 꾀하고 있다. 미치노에키의 역할은 휴게기능, 지역연계기능, 정보발신기능이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에 위치한 미치노에키에서는 생산자가 직접 공급·판매하기 때문에 신선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¹⁹⁶⁾¹⁹⁷⁾

196) 경북일보, 2017.09.17. 박용기기자

197) <http://www.pressm.kr/> 2018.02.09. , 최지희 기자.

<일본 미치노에키 사례>



미치노에키는 국도 휴게소가 농산물 판매장으로 발전한 형태인데 여행 중 들려 그 지역의 다양한 농산물과 이를 활용하여 만든 간식, 지역의 특산품, 기념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해안도로변에 위치한 해거름 마을 공원의 지리적 여건이 이런 미치노에키의 입지성과 유사하다. 해거름 공원에 미치노에키와 같이 소비자가 직접 지역의 로컬푸드와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판매장을 만들고, 장애인, 고령취업희망자 등을 고용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라. 장애인 고용

직거래 판매장은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농업 대상자들의 또 하나의 일터가 될 수 있다. 직접 고객과 대면하여 판매활동을 하는 직거래 판매장은 직접 소비자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며, ‘일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동기부여를 한다는 의미에서도 의의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이 운영하는 판매장을 운영할 때에는 가격을 알기 쉽게 선정하는 것이 좋다. 일본의 장애인 고용 농산물 직판장 같은 경우 「전부 100엔」과 같이 세세한 잔돈이 나오지 않도록 끝수를 붙이지 않는 가격설정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포장하는 양이나 품질을 같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출하할 때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장애인 판매 방안 중 하나로 잔돈 계산 등을 무난하게 하는 방법이다.¹⁹⁸⁾

(2) 장애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식당

가. 팜-투-테이블(farm to table) 레스토랑

관포권역 사업 운영시 조성되었던 향토음식배움터(해거름맛골)은 기존에 향토음식에 대한 학습 및 체험식당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오랜기간 방치되는 등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상시운영하는 것이 힘들어 원활한 운영이 어려웠다. 마을지원사업의 특성상 개인에게 임대는 원칙상 불가하며, 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농사활동을 농번기에는 이를 운영할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향토음식배움터(해거름맛골) 현황>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마을 체험식당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자체는 마을과 협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 농가레스토랑을 운영하도록 한다.

‘팜-투-테이블(farm to table)’은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거리가 제로라는 뜻으로 농장에서 재배한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팜-투-테이블 레스토랑’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식당 주변에 다양한 채소를 직접 기르는 농장을 만들어 농장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주재료로 한 메뉴를 맛볼수 있는 뷔페식 농가 레스토랑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농장은 사회적농업의 원예치료공간인 동시에 식당을 찾은 소비자의 체험공간이 된다. 가족단위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농장을 체험해보진 못한 어린이들은 농장에서 채소를 수확해보거나 농장 곳곳의 식물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198) 일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따스함복지회 민들레, 정영의 옮김, 2018, 치유농업모델 일본의 사회적 농업 돌봄 농장 실천메뉴얼, 농촌진흥청.



<싱가포르 농장내 위치한 ‘오픈팜커뮤니티’ 식당 사례199>



<레스토랑 운영 예시200>

관포권역 레스토랑의 경우 인근의 두모저수지를 활용하여 직접 쌀을 재배하여 제공하여 기존의 농가레스토랑과 차별화를 둘 수 있다. 제주도는 쌀생산량이 매우 적은 지역이며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두모저수지는 1970년대에 축조되었는데 1990년대 이전까지는 이 저수지 북쪽 일대에 물을 대어 논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현재는 논농사를 짓는 농가가 없어짐에 따라 용도가 없어졌다. 논농사가 가능한 논경지와 저수지는 제주의 농업문화로서 많은 가치가 있다. 두모저수지를 활용하여 이전의 쌀농업을 재현하여 레스토랑의 식재료를 최대한 지역 생산물로 제공하는 진정한 팜-투-테이블 레스토랑을 운영하도록 한다.

나. 장애인을 위한 식당 조성 및 운영 방안

국내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을 찾아보기 힘들다. 직원뿐만 아니라 식당 내부시설을 장애인들이 식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리모델링 하여 장애인들이 외식이나 모임 등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식당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199) 중앙일보, 2017.04.06. 유지연기자

200) 사진자료 : <http://m.blog.daum.net/gnnaqs/3078>



장애인의 경우 식당을 이용할 때 많은 불편을 느낀다고 한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의 경우 그림이 있는 메뉴판이 없으면 원하지 않는 메뉴라도 대충 선택하기도 하며, 호출벨이 없으면 추가주문하는 것도 힘이 든다고 한다.²⁰¹⁾ 장애인에 대해 식사 거부를 하는 식당도 있다고 한다. 바닥면적 기준 300㎡(약 90평) 미만인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통계청 사업장 면적 규모별 사업체수 자료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중 94%이상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식당은 테이블 높이나 이동에 있어서도 장애인 편의 시설이 대부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인 최소접근성은 주출입구 접근성, 입식 식탁 구비 여부, 화장실 접근성을 말한다. 이러한 최소접근성외에도 주문방법과 같은 서비스 측면에서도 장애인들은 식당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받는다.

<p>점자메뉴판</p>	<p>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테이블 설치</p>
<p>http://www.golss.com</p>	<p>http://www.hudcil.or.kr</p>

장애인을 위한 식당 조성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 점자 및 그림 메뉴판
- 불필요하고 위험한 장식 최소화
-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사용
- 이동통로 폭 확보
- 재활보조기구(휠체어 등) 사용자를 위한 테이블 설치
- 재활보조기구(휠체어 등) 사용자를 위한 입구의 경사로 설치 및 단차제거
- 가구 및 벽면 모서리 안전 마감
- 안전성 높은 식기 사용 등

201) <http://blogs.ildaro.com/>, 2013.11.25

다. 장애인 고용 식당 사례

캐나다 토론토에는 웨이터 전부를 청각 장애인으로 채용한 레스토랑이 있다. 이곳 사장은 ‘청각 장애인들은 무척 재능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들을 채용해서 식당을 운영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곳의 웨이터는 모두 청각장애인이지만 메뉴판에 음식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으며, 수화로 주문할 수 있게 그림을 그려놓았다. 뿐만 아니라 손님들은 주문할 때 청각 장애인 직원의 지도를 받고 수화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손님들에게는 수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²⁰²⁾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주)맛있는 국수집은 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한 식당이다. 맛있는 국수집은 여성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시설인 ‘나비의 꿈’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자활사업장이다. 지적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와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로 2013년에 설립된 맛있는 국수집은 사회적기업을 인증받아 운영중이다.²⁰³⁾



2015.04.17., 연합뉴스, 한종구기자.

2015.07.07., 한겨레 21, 정용일기자

202) 인사이드, 2014.08.12., 최희나기자.

203) 한겨레 21, 2015.07.07., 정용일기자; 연합뉴스, 2015.04.17., 한종구기자.



(3) 어촌체험프로그램 개발

가. 자연체험어장 시설을 활용한 어촌체험프로그램 운영

판포리에 위치한 자연체험어장 관련 시설은 현재 시설물의 활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2층 규모의 체험장 건물이 조성되어 있으나 체험장 내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이 유휴시설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체험어장 시설 현황>

지역의 해안자원을 활용하되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기존시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판포권역(판포리, 신창리, 금동리, 두모리)에서는 연근해 어선업 외에도 소라, 전복, 오분자기 등 패류, 톳이나 감태와 같은 해조류, 해삼, 성게 등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해안은 화산섬 해안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용암류로 인한 해식에, 편평한 암반지대 등이 형성되어 독특한 해안 경관을 보여준다.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어촌체험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다. 해양기후, 해수, 해양경관, 해양생물자원 등 해양자원은 신체적·정식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자원이다. 건강에 좋은 해산물 음식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인들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장애인이나 노인이 어촌체험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장애인들이 어촌체험을 즐기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인프라 문제도 중요하지만 인적서비스가 필요하다. 바다에 직접 나가서 하는 체험프로그램은 안전과 접근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특별한 1:1 인적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 접근성 도움을 위한 서비스 교육을 통하여 체험지도사로 양성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이 접근 가능한 어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관광욕구는 많으나 사회적 인프라와 서비스의 부족으로 관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노인이 여행시에는 대부분 1인이 하

기 보다는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의 경우 마을에서도 경제적 소득 창출의 기회가 된다. 또한 장애인, 발달장애학생 등 평소에 해양체험을 즐기기 어려웠던 대상자들은 장애인을 위한 어촌체험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하여 자신감과 사회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제주도 조천에서 열렸던 중증장애인 바다낚시대회204>



<장애인 해양레저 체험프로그램 운영 예시205>

자연체험어장 건물은 해양체험 사전 교육, 실내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① 해양생물관찰

관포리 해안은 파호이호이 용암이 만든 조간대가 형성되어 있어 물이 빠져나가면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다. 암반 조간대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지형으로 이러한 해안의 특성을 활용하여 육지 어촌 지역 해양탐사체험과는 차별화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04) 노컷뉴스, 2014.10.25., 이인기자

205) 복지연합신문, 2015.09.15., 이유정기자.; 울산신문 2014.09.11., 최성환기자



<바다생물탐사 생태교육 프로그램 사례>

② 해조류 표본체험

관포지역은 바닷바람 강하여 감태 등 해조류가 많이 밀려와 거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소득원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해조류를 바다에 나가서 만져보고, 채집하고 직접 표본을 만들어보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이런 체험은 바다의 직접 체험하면서 바다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으며, 감각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③ 패류를 활용한 공예체험

지역에서 나는 소라, 전복 등 패류의 껍데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공예체험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해양교육 뿐만 아니라 창의력을 길러주는 유익한 체험이 될 수 있다.

206) <http://cafe.naver.com/yangjin08/96>
 207) <http://blog.naver.com/cwopinspace/220197131808>
 208) <http://munhang.seantour.com/>



나. 해녀작업장을 용한 해녀체험 프로그램

금등리에 위치한 해녀작업장은 현재 해녀들의 탈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콘텐츠는 없다. 현재 금등리 마을 어촌계에는 11명의 해녀가 등록되어 있으며, 판포는 23명, 두모는 27명의 해녀가 등록되어 있다.



<해녀작업장 현황>

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해녀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해녀들이 점점 고령화되어 해녀수는 점점 감소되고 있는 실정인데, 고령화로 멀리까지 물질을 하러 나가기 힘든 해녀들을 활용하여 해녀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 뿐만 아니라 단순히 해산물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 먼바다에 나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바다에서 체험지도를 하는 해녀의 도움을 받아 직접 바다를 경험하고, 해산물을 채취하고, 채취한 해산물을 먹어보는 등 해양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심신의 활력을 회복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다.

209) 부산광역시 <https://reserve.busan.go.kr/>

210) 완도군청 <http://www.wando.go.kr/>



<해녀체험프로그램 운영예시211>

211) <http://korean.visitkorea.or.kr/>

참고문헌

논문·보고서/ 단행본

- 강하영, 2003, 피톤치드의 비밀, 역사넷
- 김정섭·안석·이정해·김경인(2017),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1-121.
- 김태운, 2000, 제주오름의 합리적 보전 및 관리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김형철·오상실·송영철·김영주, 2013, 제주지역 절물 자연휴양림 대기중 피톤치드 분포 특성연구, 한국자연치유학회, 한국자연치유학회지, 2(2), 89-98.
-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
- 박현수(2015), '장성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 회복 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치유학과 석사학위논문.
-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산림치유 활성화 추진계획, 2012.05.
- 신방식·임동호·이근광, 2017, 제주 교래곶자왈 숲 탐방객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Cortisol량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0), 471-479.
- 오진혁, 산양 곶자왈 함몰지형에서의 양치식물 분포 및 생태조사 연구, 제 55회 전국과학전람회.
- 유영·연경남·박수진·박찬우, 2011, 산림치유지도사를 위한 소아천식질환 가이드북, 서울: 국립산림과학원.
- 이윤정(2016),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 치유농업을 중심으로, 세계농업, 195호.
- 이진희(2005a), 제주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자립형 생태관광 활성화 연구,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 이진희(2005b), 1·3차 산업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21세기 비전 남제주군 민대토론회, 남제주군; 19-66.
- 이진희(2006a), 서귀포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20(2), 251-264.
- 이진희, (2006b), 서귀포시 생태관광마을조성에 대한 주민의식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0(2) : 17-25.
- 이진희(2007), 관광을 활용한 농촌 주도의 경제 활성화 방향, 07 농촌관광 전문인력육성 1차 워크숍,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 이진희(2008), 제주도의 명품·명소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산경논집 제23권,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 171-210.
- 이진희(2009a), 제주도 농어촌 관광마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산경논집 제24집,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 159-184.
- 이진희(2009b), 제주시 하도 생태체험교육공원 조성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환경기



- 술개발센터.
- 이진희(2011a), 제주도 어촌관광 동기분석에 따른 관광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7(3) : 43-53
- 이진희(2011b), 제주도 자연경관자원의 사례분석,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방안 구축용역, 제주특별자치도.
- 이진희(2011c), 제주지역의 명품녹색관광(Green-Tourism) 확산전략, 세계 7 대자연경관 선정과 명품 녹색관광 확산전략, 제주웰컴센터.
- 이진희(2012), 제주 환경자원의 보전과 활용방안, UNESCO 3관왕 · 세계7대 자연경관 제주 환경자산의 가치 보전과 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그랜드호텔.
- 이진희(2013a), 안덕면 서광동리 건강문화체험마을 조성계획 자문 및 사업타당성검토 보고서, 제주대학교.
- 이진희(2013b), 일본 마치즈쿠리의 사례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 이진희(2013c), 제3판 장소마케팅, 대왕사.
- 이진희(2013d), 세계자연유산마을 특성화 연구-제주 선흘리 마을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 이진희(2013e), 제주도 농어촌 관광마을 성공사례연구, 제주특별자치도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 이진희(2014a), 유네스코 3관왕 제주도의 관광개발전략, 제주관광공사 웰컴센터 3층 회의실, 제주관광학회 동계학술대회.
- 이진희(2014b), 제주도 어촌체험마을의 관광 명소화 전략, 경남대학교 제2경상관, 경남대학교 Green & Blue 융합형 관광전문인력 양성사업단.
- 이진희(2015a), 북촌 다려도 어촌특화발전계획, 제주씨그랜드센터.
- 이진희(2015b), 제주도 농촌마을의 관광동기유형에 따른 관광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제50호 : 153-180.
- 이진희(2015c), 장소마케팅 전략을 활용한 세계자연유산마을 활성화에 관한 연구, 산경논집 제34집 : 241-262.
- 이진희(2015d), 제주도 오름을 활용한 마을발전 방안-수산리를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이진희(2016a),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시행으로 인한 제주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제주대학교 제주씨그랜드센터.
- 이진희(2016b), 제주도 애월읍 우수암리 마을발전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이진희(2017a), 추자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어촌6차산업화 방안, 제주대학교 제주씨그랜드센터
- 이진희(2017b), 중국인관광객의 제주해양관광 활동유형, 만족도, 재방문의사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논집, 48(3) ; 75-90.

- 이진희·고성보·강하나(2017),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이진희·홍원식(2010), 표선 어촌마을 관광활성화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제3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389-432.
- 이혜진, 2016, 영국의 사회적 농업, 세계농업, 196, 9-26.
- 일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따스함복지회 민들레, 정영의 읍김, 2018, 치유농업모델 일본의 사회적 농업 돌봄 노장 실천메뉴얼, 농촌진흥청.
- 임송수·김승애(2016), 유럽의 사회적 농업 개관과 이탈리아의 사례, 세계농업 Vol. 19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30
- 임송수·임지은(2017), 사회적 농업-패러다임의 전환, KREI현안분석 제26호, 농촌경제연구원; 1-18.
- 장우환, 한국중산간지역의 구분과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전영현·임송수, 일본의 사회적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196호.
- 제주발전연구원, 2016, 제주특별자치도 오름종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해녀문화 중장기 발전방안연구, 2016.
- 최형순·현화자·송국만·김은미, 2014, 꽃자왈시험림의 주요 동·식물자원, 국립산림과학원, Kfri 산림정책이슈, 35.
- 한경면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7.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장애물 없는 관광 시설 및 서비스 가이드라인 구축,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편 지명, 2010.12, 국토지리정보원
- 홍민아·이한결·한은경·권영규(2010),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현황과 학제간 융합가능성에 대한 전망,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6(3), p.95-105.
- Assouline, G.(2015). The French social farming model under pressure: The role of a territorial network like ASTRA. Paper presented in AgUrb 2015 Conference. Roma.
- Crowley, C., O'Sullivan, S., & O'Keeffe, B.(2017). An Evaluation of Kerry Social Farming 2017. Ireland: Commission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Rural Areas.
- Fazzi, L. (2011). Social Co-operatives and Social Farming in Italy. Sociologia Ruralis, 51(2), 119-136.
- Hassink, J., & Dijk, M. (2006). Farming for health across Europe: comparison between countries, and recommendations for a research and policy agenda. J.
- Hine et al. 2008. Care farming in the UK: Evidence and Opportunities
- Iacovo, F. D., & D. O' Connor. (2009).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Toscana: ARSIA.

Iacovo, F. D., Moruzzo, R., Rossignoli, C., & Scarpellini, P. (2014). Transition Management and Social Innovation in Rural Areas: Lessons from Social Farming.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Extension*, 20(3), 327-347.

Istat. (2007). *Le cooperative sociali in Italia..* Rome: Istat.

OECD(2001), *Multifunctionality : Toward an Analytical Framework*, Paris.

기사

경북일보, 2017.09.17. 박용기기자

경향신문 2017년 09월 14일 윤희일 선임기자

노컷뉴스, 2014.10.25., 이인기자

농민신문 2018년 03월 05일 함규원 기자

뉴스타파 2016년 9월 16일

농촌여성신문 2018년 3월 23일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복지연합신문, 2015.09.15., 이유정기자

세종의소리, 2016.12.29., 곽우석기자

아시아경제, 2013.05.08. 왕성상기자

연합뉴스, 2015.04.17., 한종구기자.

영주타임뉴스 2016-10-2

울산신문 2014.09.11., 최성환기자

이투데이 2017년 01월 10일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인사이트, 2014.08.12., 최희나기자.

전북뉴스, 2017.04.24., 전남지역본부

제민일보 2000.06.06., 좌승훈·좌용철 기자

제주매일 2018년 01월 29일 한경훈 기자

제주新보 2007년 06월 26일 조문욱 기자

제주일보, 2010.09.18., 강재병기자

중앙일보, 2017.04.06. 유지연기자

중앙일보, 2018.06.03., 이범수기자

충남, 넷 미디어, 2017.04.04., 충남희망디자이너.

프레시안, 2007.11.16., 전미영 푸르메재단사무국장.

프레시안 2014년 11월 21일

프레시안 2016년 10월 14일

한겨레 21, 2015.07.07., 정용일기자
한겨레21 2015년 12월 16일 홍석재 기자
한겨레 신문 2018년 03월 15일
한국농정신문 2017년 09월 17일 박경철 기자
한국농정신문 2018년 03월 11일 홍기원 기자
홍성신문 2014년 11월 13일 윤종혁 기자
홍주일보 2014년 04월 23일 이석호 기자
환경일보 2016년 07월 28일
<http://www.pressm.kr/> 2018.02.09. , 최지희 기자.

홈페이지

고영철의 역사교실 <http://www.jejuhistory.co.kr>
곶자왈사람들 <http://www.gotjawal.com/>
관악구청 <http://www.gwanak.go.kr/>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군마현 <https://www.visitgunma.jp>
꿈이자라는 뜰 www.greencarefarm.org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
라이프서포트스태이션 <http://www.golss.com>
방림원 <http://www.banglimwon.com/>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https://blog.naver.com/korea_rehab
부산광역시 <https://reserve.busan.go.kr/>
산림청 www.forest.go.kr/
서귀포시청 <https://www.seogwipo.go.kr/>
오카야마 <http://okayama.opief.or.jp/>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위키트리 www.wikitree.co.kr/
완도군청 <http://www.wando.go.kr/>
제주도문화재전문위원 오창명 <http://blog.naver.com/nulkae>
제주의마을 <http://jeoji.invil.org>
제주특별자치도관광정보사이트 www.jejutour.go.kr
제주 환상숲 www.jejupark.co.kr
통계청 www.kosis.kr
포천시 장애인 복지시설협의회 cafe.daum.net/jungwon3637/68nT



한우리정보문화센터 <https://blog.naver.com/shchanwoori>

현대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jejumuseum.go.kr/>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http://www.hudcil.or.kr>

행복농장 happyhada.com/

visit jeju www.visitjeju.net/ko